

권혁진(강원한문고전연구소 소장)

: 춘천의 산과 하천, 행정동별 설명문

손주일(전 강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 춘천 관내 동, 동내면, 신동면, 북산면

심보경(한림대학교 일송자유교양대학 교수)

: 옥천동, 교동, 신북읍

이학주(한국문화스토리텔링연구원 원장)

: 동면, 동내면, 남산면

박현숙(옛이야기연구소 소장)

: 사북면

최윤(강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 서면

김근태(춘천학연구소 학예연구사)

: 남면

춘천지명사전 | 하

동산면 · 북산면 · 사북면 · 서면 · 신동면



춘천문화원 춘천학연구소

차례

| 제2편 | 읍면동별 지명유래

17장 | 동산면

1절 군자리	… 9
2절 봉명리	… 23
3절 원창리	… 41
4절 조양리	… 64

18장 | 북산면

1절 내평리	… 85
2절 대곡리	… 97
3절 대동리	… 106
4절 물로리	… 115
5절 부귀리	… 131
6절 오항리	… 140
7절 조교리	… 156
8절 청평리	… 170
9절 추곡리	… 187
10절 추전리	… 199

19장 | 사북면

1절 가일리	… 210
2절 고성리	… 217
3절 고탄리	… 242
4절 송암리	… 260
5절 신포리	… 277
6절 오탄리	… 284
7절 원평리	… 291
8절 인람리	… 299
9절 지암리	… 306
10절 지촌리	… 312

20장 서면	… 319	21장 신동면	… 422
1절 금산리	… 321	1절 의암리	… 423
2절 당림리	… 331	2절 정족리	… 433
3절 덕두원리	… 341	3절 증리	… 449
4절 방동리	… 350	4절 팔미리	… 469
5절 서상리	… 359	5절 협동리	… 482
6절 신매리	… 374		
7절 안보리	… 385		
8절 오월리	… 395		
9절 월송리	… 404		
10절 현암리	… 410		

春川地名事典

下

제3편

인용문헌 서지사항

- 『춘주지(春州誌)』(1648, 인조 26)
『여지도서(輿地圖書)』(1757~1765, 영조 33~41)
『호구총수(戶口總數)』(1789)
『춘천읍지(春川邑誌)』(1831, 순조 31)
『춘천부지(春川府誌)』(1850 이후 추정)
『대동지지(大東地志)』(1864)
『관동읍지(關東邑誌)』(1871, 고종 8)
『조선지지자료(朝鮮地誌資料)』(1910)
『강원도지지조사(江原道地誌調查)』(1915)
『강원도지(江原道誌)』(1941)
『수춘지(壽春誌)』(1953)
『춘주지(春州誌)』(1984)
『춘천백년사(春川百年史)』(1996)

춘천의 읍면동별 지명유래



동산면(東山面)

북쪽으로 동내면(東內面), 남·동쪽으로 홍천군 북방면(北方面), 서쪽으로 신동면(新東面)과 남산면(南山面)에 접한다. 동쪽으로는 연엽산과 구절산이 산맥을 이루고, 서부는 구릉성 산지이다. 대부분이 산지로 경지면적률은 13%이고, 그 중 70%가 밭이다. 북쪽 동내면과의 경계에 원창(原昌)고개가 있어 춘천·원주 간 국도가 통과하며, 1995년 8월 개통된 중앙고속국도가 남북을 관통한다.

본래 동산외면(東山外面)이었는데 1895년(고종 32)에 두 면으로 나누어 동산외일작면(東山外一作面)·동산외이작면(東山外二作面:동산면)이 되었다가, 1914년 신리(新里)·상걸리(上傑里)를 동산외일작면(동면)에 넘겨주고, 남외일작면(南外一作面)의 군자곡(君子谷)·종자리(宗子里)와 남내이작면(南內二作面)의 휴암·갈동리(葛洞里)를 병합하였으며, 1917년에 동산면으로 고쳤다. 1946년 춘천읍이 춘천부로 승격할 때 분리되어 춘성군(春城郡)에 속하게 되었다. 1973년 7월 1일 북방리(北方里)·풍천리(楓川里)를 홍천군에 편입시키고, 1992년 춘천군(春川郡)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1995년 도농통합으로 춘천시에 속하게 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위치와 현황 | 북쪽에서 서쪽으로 삼포천이 흐르고, 동쪽으로 금병산과 연엽산이 있다. 자연마을로 군들, 갈골, 논골, 삼막골, 옻밭골 등이 있다. 군자리(君子里)는 군자골 또는 군자곡(君子谷)이라고 했다.

연혁 | 『여지도서』는 남산외면(南山外面) 군자곡리(君子谷里)라 표기하였다. 『호구총수』는 남산외일작면(南山外一作面) 군자곡리(君子谷里), 『춘천읍지』, 『춘천부지』, 『관동읍지』 모두 남산외면(南山外面) 군자곡리(君子谷里)로 표기하고 있다.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군들, 논골, 두무골, 삼막골, 재취동, 종자리와 남산외이작면의 갈골을 병합하여 군자리라 하며 동산면에 편입했다. 『강원도지』는 동산면(東山面) 군자리(君子里)로, 『수춘지』는 동산면(東山面) 군자리(君子里), 군자2구(君子二區)로 구분했다. 『춘주지』는 동산면(東山面) 군자1리, 군자2리로 구분하였다. 현재 법정리는 군자리고 행정리는 군자1리, 군자2리, 군자3리이다.

유래 | 본래 군자, 자골 또는 군자곡이라 하였는데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군들, 논골, 두무골, 삼막골, 재취동, 종자리와 남산외이작면(南山外二作面)의 갈골을 병합하여 군자리라 하였다.

● 가래나무골

[별칭] 가래나뭇골

[형태] 골짜기

[위치] 동산면 군자리 산159번지. ‘동산추모공원’ 입구에 있다. 서울양양고속도로가 아래쪽으로 지 난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가래나무가 있던 골짜기라 소개되어 있다.

[어원풀이] ‘가래나무+ㅅ+골[谷]’로 분석된다. 가래나무가 있던 골짜기란 의미 또는 양쪽으로 갈라지는 지형에 따라 명명된 것으로 보인다.

는 한 사람이 안에 타고 둘이나 넷이 들거나 메던, 조그만 집 모양의 탈것이다.

● 가마바위골

[별칭] 가마바우골

[형태] 골짜기

[위치] 군자리 동쪽 끝에 있다. 원창3리와 원창5리 중간쯤에 있으며, 동쪽 가까이에 ‘영서로’가 지난다.

[유래] ‘가마바위’가 있어서 ‘가마바우골’이라 한다.

[어원풀이] ‘가마[輦]+바위[岩]+골[谷]’로 분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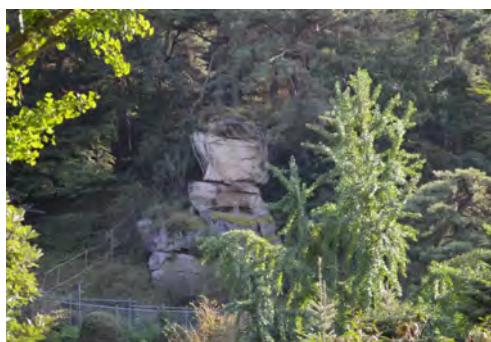
● 갈골

[별칭] 갈동(葛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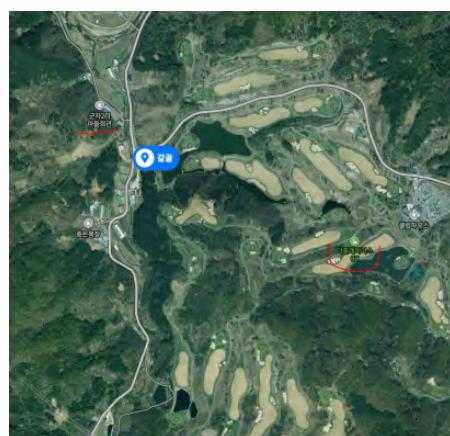
[형태] 골짜기

[위치] 동산면 군자리 1300번지. 군자리 북쪽, 군자2리마을회관과 그 동쪽 골프장 ‘더플레이어스 CC’에 흡수되어 갈림길 초입에 있다.

[유래] 『조선지지자료』에 ‘갈동(葛洞)’이 기재되어 있고, 『한국지명총람』에는 예전에 갈부자가 살던 마을이라 하였으며, 『동산면지리지』에 “군자2리 3반을 말한다. 옛날 갈부자가 살던 곳이라 한다. 또 옻발골 옆을 갈골이라 한다.”고 하였다.



가마바위



항공지도에 표기된 갈골

[어원풀이] ‘갈(葛 氏家, 岐)+골[谷]’로 분석된다. 아래 지도처럼 갈라진 지형을 고려할 때 양쪽으로 갈라진 곳에 있어 명명된 것으로 보인다.

● 개인봉골

[형태] 골짜기

[위치] 동산면 군자리 산44번지. 군자리 동쪽 끝에 있다. 골프장 ‘더플레이어스CC’ 북동쪽 가까이에 있으며, 더 북동진하면 원창2리이다.

[유래] 유래는 불분명하다.

[어원풀이] ‘개인(?)+봉(峰)+골[谷]’로 분석된다. ‘개인’이 ‘個人’이려면 그 유래답이 요구되는데 특별히 전해오는 이야기가 없으므로 ‘구름이 개인 봉’이란 의미로 추정된다.

● 고갯골

[별칭] 고개골

[형태] 골짜기

[위치] 군자리 산405번지. 동산추모공원 쪽에서 동편으로 도로지명 ‘종자리로’로 고갯길을 올라가 영서로 조양3거리에 이르는 영역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종자리 부근에 있는 골짜기라 소개되어 있다.

[어원풀이] ‘고개[峴]+ㅅ+골[谷]’로 분석된다. 고개가 있는 골짜기란 의미이다.

● 고토골

[별칭] 고토골, 괴토골, 계토골

[형태] 골짜기

[위치] 군자 3리. 춘천의 미고시지명에 보이는 ‘계토골(군자리 산160-5)’과 동일한 지명으로 보인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종자리 부근에 있는 골짜기라 소개되어 있다. 『동산면지리지』에 “예전엔 이

마을에 고씨가 많이 살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나 지금은 고씨가 살지 않는다. 또 고토골의 원래 이름이 괴토골인데 그것은 괴, 즉 고양이가 많이 살아서 붙여졌다는 것이다.”라 하였다.

[어원풀이] ‘고(高氏)+터[垈]+ㅅ+골[谷]’로 분석된다. 그런데 ‘고토골/고톳골/고톡골/고턱골/괴터골/괴턱골’ 등의 변이형이 있고, ‘고양이’와 관련된 유래도 있어 그 어원풀이는 달라질 수 있다.

● 고토골서낭

[형태] 마을

[위치] 고토골 들어오는 입구 공원묘지 근처 큰길 옆 개울가에 있다.

[유래] 『동산면지리지』에 “소나무로 된 서낭인데 마을사람들이 마을의 안녕을 위해 제사를 지내던 곳이다. 주로 마을 사람 개인이 떡도 해놓고 실도 매어 제를 지낸 곳이었다. 지금은 제를 지내지 않는다. 소나무는 아직도 올창한 모습으로 서 있다.”고 소개되어 있다.

[어원풀이] ‘고(高氏)+터[垈]+ㅅ+골[谷]+서낭(서낭당)’으로 분석된다. ‘고턱골’ 참조.



고토골 서낭나무

● 군들

[별칭] 군자곡, 군자골, 군자리

[형태] 마을

[위치] 군자1리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군자리의 서남쪽 끝에 자리잡고 있는 마을”이라 하였고, 『동산면지리지』에 “군자1리를 가리키는 이름이다. 옛날 삼베를 많이 했다.”라 소개되어 있다.

[어원풀이] ‘군(君:마의태자)+들[坪]’로 분석된다. ‘군들’은 ‘군자골/군자곡, 군자리, 종자리(宗子里), 종자동, 종자현(宗子峴)’ 등의 지명과 관련이 있다. 본디 ‘군들’인데, 마의태자 유래로 ‘군자들-군자리’로, ‘군들골’은 군자곡이 되고, 나아가 ‘종자리’에 까지 그 유래가 가미된 것으로 추정된다.

[유래담] 신라의 마의태자가 이 곳을 지나가서 군자리란 지명이 생겨났다고 한다.

● 군들고개

[별칭] 군자현(君子峴)

[형태] 고개

[위치] 남춘천일반산업단지와 남춘천IC 사이 군자3리 ‘종자리로’에서 북쪽 ‘새술막길’로 올라가 ‘군자2리’로 넘어가는 상당히 긴 고개길이다.

[유래] 『조선지지자료』에 갈동(葛洞) 소재 고개이름으로 ‘君子峴[군들고기]’이 기재되어 있다.

[어원풀이] ‘군들(君:마의태자)+고개[峴]’로 분석된다. ‘군들’ 참조.

● 논골

[형태] 마을

[위치] 원창5리마을회관에서 조금 남진하면 서편에 있고, 모래재 춘천 방향 영서로와 골프장 ‘더플레이어스CC’ 사이에 마을이 있다. 사방으로 ‘논골길’이 산재한다.

[유래] 『조선지지자료』에 갈동(葛洞) 소재 마을이름

으로 ‘沓洞[논골]’이 기재되어 있다. 『한국지명총람』에 논이 많은 마을이라 소개되어 있다.

[어원풀이] ‘논[沓]+골[洞]’로 분석된다. 논이 있는 골짜기란 의미이다.

● 논골고개

[형태] 고개

[위치] 고토골과 논골 사이

[유래] 『동산면지리지』에 고토골에서 골프장을 넘어 논골로 가는 고개라 소개되어 있다.

[어원풀이] ‘논[沓]+골[洞]+고개[峴]’로 분석된다. ‘논골’ 참조.

● 농바우

[형태] 바위

[위치] 동산추모공원 쪽에서 동편으로 도로지명 ‘종자리로’로 고갯길을 올라가 ‘영서로’ 조양3거리에 이르는 영역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종자리에 있는 바우. 농처럼 생겼다. 농바우 앞에 있는 산은 농바우 안산”이라 소개되어 있다.

[어원풀이] ‘농(籠)+바우[岩]’로 분석된다. 장롱처럼 직사각형 형태로 생긴 바위를 말한다.

● 농바우안산

[형태] 산

[위치] 농바우 앞에 있는 산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농바우 앞에 있는 산이라 소개되어 있다.

[어원풀이] ‘농(籠)+바우[岩]+안산(案山)’으로 분석된다. 안산(案山)은 풍수지리에서, 집터나 땅자리의 맞은편에 있는 산을 말한다.

● 당못개

[형태] 하천

[위치] 미상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두껍바우 부근에 있는 개”라고 소개되어 있다.

[어원풀이] ‘당(堂)+못[淵]+개[川]’로 분석된다. 당집이 있는 연못 근처에 있는 개울이란 의미이다.

● 덕거리

[형태] 마을

[위치] 군자1리 삼막골 앞에 있는 마을이다.

[유래] 『동산면지리지』에 공단을 지으려고 공사 중이라고 소개되어 있다.

[어원풀이] ‘덕(둔덕/언덕)->큰[大]+거리[街]’로 분석된다. 언덕에 있는 마을, 또는 큰 마을이란 의미이다.

● 덕만이고개

[별칭] 둉마니고개, 억만리고개

[형태] 고개

[위치] 혈동리와 광판리 사이에 있는 고개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신동면 둉마니로 가는 고개. 예전에 어느 관찰사가 이 고개를 넘다가 덕만이라는 심복 종을 잃어버렸다 함.”이라 소개되어 있다. 2010년 ‘덕만이터널(880m)’이 개통되면서 고속도로에서 춘천 진입이 한결 수월해졌다.

[어원풀이] ‘덕만(德蠻)+{-이}(호격)+고개[峴]’로 분석된다. 둔덕 안쪽에 있는 마을이란 의미의 ‘덕만리’란 마을지명에서 유래하였다.

[유래담] 1. 어느 관찰사가 이 고개를 넘다가 덕만이라는 종을 잃어버렸다고 한다.

2. 예전에는 억만이고개라 불렸다. 중국의 황제가 가리산에 있는 한천자 무덤을 가보려고 하였는데

십년강(신연강)을 건너고 억만이고개를 넘고 구만리를 지나 팔만봉(팔봉산)을 지나야 갈 수 있다고 하자 포기하였다는 전설이 전한다.

● 동배나뭇골

[형태] 골짜기

[위치] 종자리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종자리 부근에 있는 골짜기로, 『동산면지리지』에 마을 도로를 개통한 기념으로 세운 공덕비가 있는 골짜기라고 소개되어 있다.

[어원풀이] ‘동배나무(돌배나무)+ㅅ+골[谷]’로 분석된다. 동배나무는 돌배나무라고도 하며 그 잎이 밤이 되면 야광주처럼 빛을 내므로 멀리서도 잘 보인다. 지명 유래에 나오는 공덕비도 빛을 낼 것이다.

● 동산추모공원

[별칭] 동산공원묘원, 안식공원, 춘천공설묘원

[형태] 묘

[위치] 동산면 종자리로 331-50, 군자리 산133번지.

[유래] 춘천의 공동묘지 중 하나이다. 총면적은 443,900m² (묘원 239,300m²)이며 건축물로는 관리사무소 1동(139.25m²), 식당, 매점 1동(252.99m²), 공중화장실 1동(48.33m²), 창고/사무실(178.5m²), 노상주차장(3,535m²), 단지내 도로(25,063m²), 녹



춘천추모공원/동산공원묘원

지($57,747\text{m}^2$), 관정(지하관정) 1식이 있다. 그리고 안식의집(봉안당)이 있는데 그 안에 봉안당(지상2층 1동 $1,141.34\text{m}^2$)과 분향소(지상1층 1동 39.83m^2)가 설치되어 있다.

● 두껍바우

[형태] 바위

[위치] 미상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두꺼비처럼 생긴 바위가 있다고 소개되어 있다.

[어원풀이] ‘두껍/두꺼비[蟾]+바우[岩]’로 분석된다. 두꺼비 모양의 바위란 뜻이다.

● 두무골

[별칭] 두무동(杜武洞)

[형태] 마을

[위치] 서울양양고속도로 남춘천IC에서 ‘군들’이 있는 도로지명 새술막길로 한참을 올라가 ‘베어클리크춘천’ 동쪽 부근 골짜기로 들어서면 그곳이 ‘두무골’이다.

[유래] 『조선지지자료』에 갈동(葛洞) 소재 골짜기 이름으로 ‘杜武洞(두무골)’이 기재되어 있고, 『한국지명총람』에 군들과 재취동 중간에 있는 마을이라 소개되어 있다.

[어원풀이] ‘두무+골[洞]’로 분석된다. ‘두무’는 깊은 산골이란 의미의 ‘두메’의 방언이거나 물을 길어 담아 놓고 쓰는 큰 가마나 독을 말하는 ‘두멍’의 방언으로 쓰인다.

● 망향단(望鄉壇)

[형태] 비석

[위치] ‘논골’ 뒤쪽 산속에 있다. ‘논골’은 ‘모래재’에서 춘천 방향 내리막길 중간쯤에서, 서쪽에 있

다. ‘논골길’이 있다.

[유래] 1968년 6월에 재춘함복도민들이 고향을 그리워하며 세운 비석이다. 논골 뒷산 쪽으로 길을 따라 오르다 골프장으로 넘어가는 곳에 길 정상이 나온다. 정상에서 좌측에 있는 밭 옆으로 오른쪽으로 난 길을 따라 내려가다 보면 망향단의 이정표가 나온다. 이정표 좌측에는 널따란 구릉으로 된 밭이 있다. 이정표 바로 뒤에 있는 작은 산 정상 부분에 무덤 몇 기가 있다. 그 무덤들 앞에 대리석으로 비석(碑石)과 단을 세웠다. 비석에는 한자로 망향단(望鄉壇)이라 새겼다. 각종 제물을 차릴 수 있는 단이 비 앞쪽에 있다.

[어원풀이] ‘망향(望鄉)+단(壇)’으로 분석된다.



망향단

● 모래재

[별칭] 사현(沙峴)

[형태] 고개

[위치] 사방우 서북쪽 종자리고개 옆에 있는 고개이다. 이 고개를 넘어가면 군자2리가 나오며 원창리와 춘천 시내로 가는 길목이기도 하다.

[유래] 『춘천의 지명유래』에 “사방우 서북쪽에 있는 고개. 원창리로 통하는 큰 길. 모래가 많았기 때문에 생긴 이름. 모래재 밑에 있는 마을도 모래재라고 부른다.”라 소개되어 있고, 『동산면지리지』에

는 “모래가 많아서 모래재라 불렸다고 한다. 해발 340m이다. 동산면에는 모래재가 두 곳이다.”라 하였다.

[어원풀이] ‘모래/물[山의 고어, 산모랭이]+이’(속격조사)+재[峙]’로 분석된다. ‘물’은 ‘산’의 고유어인데 ‘뫼’나 ‘산(山)’에 밀려 아득해지면서 유래를 알기 쉬운 ‘모래[沙]’에 결부시키곤 한다. 그리 높지 않은 산이나 산마루에 있는 고개란 의미이다.



모래재

● 무태골

[형태] 골짜기

[위치] 군자리 산187-1번지. ‘동산추모공원’ 맞은 편 서울양양고속도로 너머에 있다. 그 남쪽엔 ‘춘천숲자연휴양림’이 있다.

[유래] 유래는 미상이다.

[어원풀이] ‘물[水]+(-의)(속격조사)+골[(谷)]’로 분석할 수 있다. ‘물의>물에>못데’>‘무태’의 변이 과정을 거친 것으로 보인다. ‘무태골’ 옆으로 구만천이 흐르기에 물이 흔한 골짜기란 의미인 ‘물터골’에서 유래된 것으로 추정된다.

● 문의고개

[형태] 고개

[위치] 군자리 산297번지. ‘군들(마을)’ 서쪽 가까이 있다.

[유래] 유래는 불분명하다.

[어원풀이] ‘문의+고개[峴]’로 분석할 수 있다. ‘문의’는 의미가 불분명하다. ‘물[水]’이 지명에서는 ‘무’ 또는 한자 ‘문(文)’으로 표기되기에 물이 풍부한 마을이란 의미의 ‘물내’에서 유래한 것으로 추정된다. ‘물내’에서 ‘무내’로, 다시 ‘문의’로 변형된 것이다.

● 바롱골

[별칭] 바랑골

[형태] 골짜기

[위치] ‘바롱고개(바랑골고개)’는 원창5리마을회관에서 서쪽 ‘더플레이어스CC’ 중하단 쪽에 있는 작은 소로 고갯길이다.

[유래] 『동산면지리지』에 골프장 가는 쪽의 골짜기라고 소개되어 있다.

[어원풀이] ‘바롱/바른[正, 直]+골[谷]’로 분석된다. 곧게 뻗은 골짜기란 의미이다.

● 바롱고개

[별칭] 바랑골고개, 바랑고개

[형태] 고개

[위치] 원창5리마을회관에서 서쪽 ‘더플레이어스CC’ 중하단쪽에 있는 작은 소로 고갯길이다.

[유래] 『조선지지자료』에 갈동(葛洞) 소재 고개이름으로 ‘正峴(발은고기)’가 기재되어 있다. 요즘 지도에는 ‘바랑골고개’로 표기된다.

[어원풀이] ‘바롱/바른[正, 直]+고개[峴]’로 분석된다. ‘바롱골’ 참조.

● 보리밭골

[형태] 골짜기

[위치] 군자리와 밭치리 경계이다.

[유래] 『동산면지리지』에 “옻밭골 너머 있는 골짜기이다. 보리밭골을 넘어가면 조양리 밭치리가 된다.”고 소개되어 있다.

[어원풀이] ‘보리[麥]+밭[田]+골[谷]’로 분석된다. 보리밭이 있던 골짜기란 의미이다.

● 보매기골

[별칭] 보매기, 보매기

[형태] 골짜기

[위치] 군자리 산338번지. 군자리 북쪽 끝에 있다. 그 남동쪽 1km쯤에 골프장 ‘더플레이어스CC’가 있다.

[유래] 『동산면지리지』에 “예전엔 과일나무를 심고 또한 논과 밭도 있었다. 논에 물을 댈 수 있는 보가 설치되어 있다.”고 소개되어 있다.

[어원풀이] ‘보(深)+매기/막이’로 분석된다. 물을 막은 보(深)가 있는 골짜기란 의미이다.

● 사냥피

[별칭] 사냥피장등

[형태] 산

[위치] 미상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사냥을 하던 곳이라 한다고 소개되어 있다.

[어원풀이] ‘사냥+피(皮)장이’로 분석된다. ‘피장이’는 ‘피색장(皮色匠)’을 낮잡아 이르는 말인데, ‘피색장(皮色匠)’은 짐승의 기죽으로 물건 만드는 일을 맡아 하던 사람으로, 사피장, 생피장, 숙피장, 주피장 등이 있다. 별칭인 ‘사냥피장등’에서 ‘장등’은 ‘산마루’의 방언이다.

● 사성종들

[형태] 들

[위치] 군자리 1103-2번지. 군자리 맨 서쪽에 있으며, 광평2리에 가깝다. 그 북쪽 바로 위, ‘종자리로’ 너머에 ‘남춘천일반산업단지’가 있다.

[유래] 유래는 미상이다.

[어원풀이] ‘사성종+들[坪, 野]’로 분석된다. 사성종(四聖種)은 불도를 닦아 성자가 되기 위한 네 가지 일로, 곧 늘 밥을 빌어먹고, 누더기옷을 입고, 늘 나무 아래 앓으며, 묵은 약을 먹는 일을 이른다. 예전에 절이 있어서 생겨난 지명으로 추정되는데 확실하지 않다.

● 산과들

[형태] 들

[위치] ‘삼막골’ 바로 남쪽에 가까이 있다. 주변은 온통 골프장 ‘로드힐스CC’이다.

[유래] 유래는 미상이다.

[어원풀이] ‘산[山]+과(공동경조사)+들[野, 坪]’로 분석된다. 산과 들판이 함께 있는 곳을 말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 살구나무골

[형태] 골짜기

[위치] 군자리 651번지. 군자3리마을회관 바로 위 북쪽으로 지나는 서울양양고속도로 너머, 서쪽으로 500m쯤에 있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살구나무가 있던 골짜기로, 『동산면지리지』에 “군자3리 절골 맞은편에 있는 골짜기이다. 옛날에는 살구나무가 많았다. 이 골짜기를 넘어가면 군자1리가 나온다.”라 소개되어 있다.

[어원풀이] ‘살구나무+ㅅ+골[谷]’로 분석된다. 살구나무가 있던 골짜기란 의미이다.

● 삼막골

[별칭] 삼마골

[형태] 골짜기

[위치] 군자리 1308번지. 서울양양고속도로 남춘천IC 남쪽, 도로지명 ‘종자리로’와 골프장 ‘로드힐스CC’ 사이에 있다. ‘삼막골’ 주변은 온통 골프장이다. 바로 남쪽에 ‘산과들’이 있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예전에 삼을 캐러 다니던 사람들이 모여 막을 치고 살았다 한다.”로, 『동산면지리지』에 “예전에 삼을 캐러 다니던 사람들이 모여 막을 치고 살았다. 웃발골 옆이다. 군들에서 길 건너 바로 보이는 산에 있다. 삼막골 앞에는 공단조성을 하고 있다.”라 소개되어 있다.

[어원풀이] ‘삼(麥)+막(幕)+골[谷]’로 분석된다. 삼마니들이 움막을 짓고 살던 골짜기란 의미이다.

● 샛골

[형태] 골짜기

[위치] ‘종자리’와 ‘군들’ 사이엔 크고 작은 골짜기가 열 개 정도 있다. ‘샛골’ 남쪽 큰 골짜기는 ‘춘천숲자연휴양림’ 골짜기와 ‘종자터널’ 골짜기가 있고 북쪽 큰 골짜기로는 ‘동산추모공원’ 골짜기가 있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종자리와 군들 사이에 있는 골짜기라 소개되어 있다.

[어원풀이] ‘새[間]+ㅅ+골[谷]’로 분석된다. 사이에 있는 골짜기란 의미이다.

● 선골

[형태] 골짜기

[위치] 미상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종자리 부근에 있는 골짜기라 소개되어 있다.

[어원풀이] 유래는 불분명하다.

● 성골

[형태] 골짜기

[위치] 군자리 산170번지. 동산추모공원 맞은편이다. 이 ‘성골’을 넘어 남진하면 ‘웃성골’과 ‘종자리로’를 만나고, 더 나아가 ‘종자터널’을 지나면 동산면 조양리(朝陽里)에 소재하는 골프장 ‘라비에벨CC’에 이른다. 이 골프장 너머가 동산면 조양2리, ‘밭치리(田雉谷)’이고, 그 경계를 접하면서, 홍천군 북방면 전치곡리가 된다.

[유래] 『동산면지리지』에 “동산추모공원 맞은편에 있는 골짜기인데 군자3리에서 제일 높은 곳에 위치해 있다. 이곳을 넘어가면 밭치리가 나온다. 이 마을에 약 2만여 평을 가질 정도로 아주 잘 사는 부자인 성씨가 살아서 비롯된 이름이라는 것이다.”고 소개되어 있다.

[어원풀이] ‘성(成 氏)+골[谷]’로 분석된다. ‘아랫성골’, ‘웃성골’, ‘원성골’이 있다.

● 소전골

[별칭] 소죽은골

[형태] 골짜기

[위치] 살구나무골로 가는 터널을 지나 원쪽 고개를 넘어가면 나오는 골짜기를 말한다. 산 하나를 사이에 두고 오른쪽이 ‘살구나무골’이고 왼쪽이 ‘소전골’이다.

[유래] 『동산면지리지』에 “소가 논을 갈다가 빠져 죽은 곳이라 해서 이를 붙여졌다. 달리 소죽은골이라 부르기도 한다.”라 소개되어 있다.

[어원풀이] ‘소[牛]+전/죽은[死]+골[谷]’로 분석된다.

● 솟대배깃들

[형태] 들

[위치] 미상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예전에 솟대가 서 있던 곳이라 소개되어 있다.

[어원풀이] ‘솟대+배기’(접미사)+ㅅ+들[坪]’로 분석된다. ‘솟대’는 마을 수호신 및 경계의 상징으로 마을 입구에 세운 장대이다. 장대 끝에는 나무로 만든 새를 불인다. ‘-배기’는 ‘무엇이 박혀 있는 것을 나타내는 뜻’을 가진 ‘-박이’의 방언형(-배기)이 지명으로 접미사화한 것이다. ‘솟대배기’는 마을 신앙의 표징이다.

● 수리봉

[별칭] 취봉(鷺峰)

[형태] 산

[위치] 종자리

[유래] 『조선지지자료』에 종자동(宗子洞)에 있는 봉우리 이름으로 ‘취봉(鷺峰)’이 기재되어 있다. 『한국지명총람』에 조양리 사이에 있는 산봉우리라 하였다. 470.5m인 이 수리봉은 군자리와 조양리에 걸쳐 있지만, 그 행정구역은 조양리에 속한다.

[어원풀이] ‘수리[鷺]+봉(峰)’으로 분석된다.

● 승지골

[형태] 골짜기

[위치] 군자2리마을회관과 그 동쪽 골프장 ‘더플레이어스CC’에 흡수되어 갈림길 초입에 있는 ‘갈골’ 안쪽에 있다.

[유래] 『동산면지리지』에 “갈골 너머에 위치해 있다.”고 소개되어 있다.

[어원풀이] ‘승지(옹달)+골[谷]’로 분석된다. 응달진 골짜기란 의미이다.

● 아랫성골

[별칭] 아래성골

[형태] 마을

[위치] 동산공원묘지 입구에서 약 200여 미터쯤에 있는 골짜기이다.

[유래] 『동산면지리지』에 “지금은 두 집이 살고 있는데 춘천 시내에 살고 있는 사람이 와서 농사를 짓고 있다. 약 유헌여 평의 넓은 땅이 있는 골짜기이다. 성골로 들어가는 입구에는 작은 개울이 있는데 폭포를 이루고 맑은 물이 흐르고 있다.”고 소개되어 있다.

[어원풀이] ‘아래[下]+ㅅ+성골’로 분석된다. ‘성골’ 참조.

● 옹장골

[형태] 골짜기

[위치] 종자리. 동산추모공원 쪽에서 동편으로 도로지명 ‘종자리로’로 고갯길을 올라가 ‘영서로’ 조양3거리에 이르는 영역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종자리 부근에 있는 골짜기라 소개되어 있다.

[어원풀이] ‘옹(甕)+장(場)+골[谷]’로 분석된다. 옹기를 굽는 가마가 있던 골짜기란 의미이다.

● 웃밭골

[형태] 골짜기

[위치] 군자2리. ‘갈골’과 ‘삼막골’이 옆에 있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예전에 웃나무 밭이 있던 마을이라 소개되어 있다.

[어원풀이] ‘웃[漆]+밭[田]+골[谷]’로 분석된다. 웃나무 밭이 있던 골짜기란 의미이다.

● 원성골

[형태] 마을

[위치] 군자리 1208번지. 서울양양고속도로를 지

나는 ‘군자1터널’ 남쪽 가까이에 있다. 서울양양고속도로 너머엔 ‘동산추모공원’이 있다.

[유래] 유래는 불분명하다.

[어원풀이] ‘원(元)+성골’로 분석된다. 군자리 산 170번지에 소재하는 ‘성골(成氏가 살던 골짜기마을)’과 ‘원성골’의 소재지가 동일하고, 따른 지명 ‘아랫성골’과 ‘웃성골’도 있어 이를 뒷받침한다. ‘원성골’은 본디 성씨네가 살던 마을인 ‘성골’과 같다.

● 웃성골

[형태] 마을

[위치] 포스코 골프장 터널 앞쪽에 있는 마을이다. ‘동산추모공원’ 맞은편에 ‘성골’이 있으며, 이 ‘성골’을 지나 ‘종자터널’ 못 미쳐, 인근에 ‘웃성골’이 있다.

[유래] 『동산면지리지』에 “워낙 외진 곳이라 예전엔 초등학교 가는 길이 약 이십 여리나 되었으며 겨울엔 눈이 많이 내렸었다.”고 소개되어 있다.

[어원풀이] ‘우[上]+ㅅ+성골’로 분석된다. ‘성골’ 참조.

● 웃재취골

[형태] 골짜기

[위치] 군자리 산355번지. 군자리의 맨 북쪽에 있는 ‘재취골’보다 좀더 북쪽에 있다.

[유래] 재취골 위쪽에 있는 골짜기란 의미이다.

[어원풀이] ‘위[上]+ㅅ+재취골’로 분석된다. ‘재취골’ 참조.

● 자작나무골

[별칭] 째작나무골

[형태] 골짜기

[위치] ‘성골’과 그 동쪽 ‘종자리로’ 사이, ‘종자리로’ 쪽 산속 골짜기이다.

[유래] 『동산면지리지』에 “성골 우측 잔등을 넘어가면 나타난다. 째작나무골이라고도 부르는데 자작나무가 많이 자라서 붙여진 이름이다.”라 소개되어 있다.

[어원풀이] ‘자작나무+골[谷]’로 분석된다. 자작나무가 있던 골짜기란 의미이다.

● 작은가래나무골

[형태] 골짜기

[위치] 군자리 산142번지. ‘동산추모공원’ 서쪽 가까이에 있다. 서울양양고속도로가 아래쪽으로 지난다.

[유래] 가래나무골에 있는 작은 골짜기란 의미이다.

[어원풀이] ‘작은[小]+가래나무골’로 분석된다. ‘가래나무골’ 참조.

● 작은승지골

[형태] 골짜기

[위치] 군자리 산17번지. 군자리마을회관 서쪽 500m쯤에 있다.

[유래] 승지골에 있는 작은 골짜기란 의미이다.

[어원풀이] ‘작은[小]+승지골’로 분석된다. ‘승지골’ 참조.

● 장군봉(將軍峰)

[형태] 산

[위치] 군자리마을회관과 그 동쪽 골프장 ‘더플레이어스CC’에 흡수되어 갈림길 초입에 있다.

[유래] 『조선지지자료』에 갈동(葛洞) 소재 산이름으로 ‘將軍峰(중군봉)’이 기재되어 있다.

[어원풀이] ‘장군(將軍)+봉(峰)’으로 분석된다.

● 장구배미

[별칭] 장금애기, 장구배기골

[형태] 골짜기

[위치] 여러 ‘논골길’ 중에서 남쪽에서 끊어지는 ‘논골길’의 동쪽 가까이에 있다. 동쪽 구릉 너머에 ‘모래재’와 ‘국립춘천병원’이 있다.

[유래] 『춘천의 지명유래』에 장구처럼 생긴 논이라 소개되어 있고, 『동산면지리지』에는 ‘장금애기’라 표기하고 “논골 안쪽으로 나 있는 골짜기이다. 이 곳을 넘어가면 모래재가 나온다.”라 하였다. 지도 상의 표기는 ‘장구배기골’이다.

[어원풀이] ‘장구/장금(국악에서 쓰는 타악기)+배기/애기’로 분석할 수 있다. 장구 모양의 바위나 들판 이란 의미로 보인다.

● 재골

[형태] 골짜기

[위치] 군자리 산188-2번지. 서울양양고속도로 ‘남춘천IC’ 남쪽, 도로지명 ‘종자리로’로 동진하다가 남쪽 두 번째 조금 작은 골짜기가 ‘재골’이다. 골 안은 깊지 않고 짧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기와를 굽던 골짜기라 하였고, 『동산면지리지』에 “옛날에 기와를 굽던 곳이어서 이름 붙여졌다는 설과 가재가 많이 살고 있어서 붙여졌다는 설 두 가지 지명유래가 있다.”고 소개되어 있다.

[어원풀이] ‘재[瓦]+골[谷]’로 분석된다. ‘재골’은 일반적으로 고개가 있는 골짜기 또는 재실(齋室)이 있는 골짜기란 의미로 많이 쓰인다.

● 재취골

[별칭] 재추골, 재취리(才取里), 재취동(才取洞)

[형태] 마을

[위치] 중4리 ‘삼포(三浦)’에서 원창리 쪽 ‘팔미천(삼포길)’을 따라가다가 서쪽 ‘김유정로’ 방향으로 난 ‘삼포길’ 소로로 꺾어지면, 그곳이 곧 ‘재취골’이다.

[유래] 『조선지지자료』에 갈동(葛洞) 소재 마을이름으로 ‘才取里(자취)’가 기재되어 있다. 『한국지명총람』에 “군자리의 맨 북쪽에 있는 마을”로, 『동산면지리지』에 “군자리 2리 4반을 말한다. 군자리의 북쪽에 있다. 갈골 밑에 위치해 있다.”라 소개되어 있다. [어원풀이] ‘재취(才取)+골[谷]’로 분석된다. ‘재취(才取)’의 의미는 불분명하다.

● 절골

[형태] 골짜기

[위치] ‘춘천숲자연휴양림’ 입구 근처에 있다. 그 북쪽 가까이에 서울양양고속도로가 지난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절이 있던 골짜기”로, 『동산면지리지』에 “종자리 쪽에 있다. 절이 있던 터가 있다. 옛날 학생들이 소풍이나 놀러가서 기왓장을 주워 가곤 했는데, 그것으로 보아 이곳에 절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져 이름 붙여진 곳이다.”라 소개되어 있다.

[어원풀이] ‘절[寺]+골[谷]’로 분석된다. 절이 있던 골짜기란 의미이다.

● 점골

[형태] 골짜기

[위치] 미상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전에 벼섯점이 있던 골짜기”라 소개되어 있다.

[어원풀이] ‘점[店鋪]+골[谷]’로 분석된다. 의미는 불분명하다.

● 종자리(宗子里)

[별칭] 종자동(宗子洞)

[형태] 마을

[위치] 군자3리마을회관 부근

[유래] 『조선지지자료』에 마을이름으로 ‘宗子洞(동조리)’가 기재되어 있다. 『춘천의 지명유래』에 “군들 동쪽에 있는 마을. 봉명리로 넘어가는 고개는 종자현(宗子峴)”으로, 『동산면지리지』에 “지역민의 증언에 따르면 신라가 망하고 경순왕의 아들인 마의태자가 이곳으로 넘어갔다고 한다. 그래서 군자곡(君子谷), 종자동(宗子洞), 군들, 종자현(宗子峴)이라는 지명이 생겼다고 한다.”라 소개되어 있다.

[어원풀이] ‘종자(宗子)+리(里)’로 분석된다. ‘군들’ 참조.

● 종자현(宗子峴)

[별칭] 종자고개

[형태] 고개

[위치] 군자리에서 동산면 조양리(朝陽里), ‘모래재’에 이르는 고개이다. 여기서 동진하면 동산면 봉명리(鳳鳴里)로, 남진하면 홍천 방향으로, 북진하면 춘천 방향이 된다.

[유래] 『조선지지자료』에 고개이름으로 ‘宗子峴(동조리고기)’가 기재되어 있다. 『한국지명총람』에 봉명리(鳳鳴里)로 넘어가는 고개라 소개되어 있다.

[어원풀이] ‘종자(宗子)+현[峴]’으로 분석된다. ‘군들’ 참조.

● 중골

[형태] 골짜기

[위치] 군자3리마을회관 맞은편, 북쪽 서울양양고속도로 너머에 있다. 군자3리인 ‘종자리’ 북쪽에 있는 길고 큰 골짜기 중에서, 중간쯤 되는 골짜기이다. ‘중골’ 서쪽엔 ‘새술막길’이, 동쪽엔 ‘진자골’에 조성된 ‘동산추모공원’이 있다.

[유래] 가운데에 있는 골짜기나 마을이란 의미로 보인다.

[어원풀이] ‘중(中)+골[谷/마을, 村]’로 분석된다. ‘중골’은 전국에서 대부분 ‘가운데 있는 마을’을 가리킨다.

● 지당골

[형태] 골짜기

[위치] 군자리 607번지. 남춘천 IC 북쪽 1km쯤에 있다. ‘군들(마을)’ 위이다.

[유래] 유래는 불분명하다.

[어원풀이] ‘지당(池塘)+골[谷]’로 분석된다. 지당(池塘)은 넓고 오목하게 팬 땅에 물이 꽈어 있는 곳을 말하므로 연못이 있는 골짜기란 의미로 보인다. 또는 ‘지당’을 ‘제당(祭堂)’의 와전으로 볼 수도 있으므로 산제당이 있는 골짜기란 의미도 가능하다.

● 지칠바우

[형태] 바위

[위치] 성골 입구

[유래] 『동산면지리지』에 “성골 입구에 작은 폭포가 흘러내리는 바위를 말한다.”라 소개되어 있다.

[어원풀이] ‘{지치-}+{-근}(관형형어미)+바우/바위[岩]’로 분석된다. 그 유래에서 ‘지치-’는 ‘폭포가 흘러내리는 바위’에 ‘늘 흘러내림’을 뜻한다.



지칠바우폭포

● 진대골

[형태] 골짜기

[위치] 군자리 산215번지. 골프장 '더플레이어스 CC' 동쪽 옆에 있다.

[유래] 유래는 불분명하다.

[어원풀이] '진대(진대나무)+골[谷]'로 분석된다. 진대나무는 산 속에 죽어서 넘어지거나 쓰러져 있는 나무이고, 선 채로 말라죽은 나무는 '강대나무'이다.

● 진자골

[형태] 골짜기

[위치] 군자리 산134-1번지. 지금은 '동산추모공원'이 들어섰다.

[유래] 유래는 불분명하다.

[어원풀이] '진자(진자나무)+골[谷]'로 분석된다. '진자나무'는 가시가 있는 나무를 말한다.

● 춘천숲자연휴양림

[형태] 레저

[위치] 군자리 산403번지. 서울양양고속도로 남춘천IC에서 동쪽 400m쯤에 있는, 군자3리인 '종자리'에서 남쪽으로 이어진 골짜기에 조성되었다.

[유래] 춘천시립 자연휴양림으로, 수도권에서 불과 40분이면 만나볼 수 있는 규모는 작지만(82ha) 맑고 고요한 시냇물에 조용히 쉴 수 있는 참나무 숲 속의 아늑한 자연휴양림이다.

● 층층배깃골

[형태] 골짜기

[위치] 군들 근처

'군들' 근처에 있다. '군들'의 위치는 서울양양고속도로남춘천IC와 광판리사거리 사이, 원창리 가는 길 초입 근처에 있다. 군들목장이 앞에 있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군들에 있는 골짜기라 소개되어 있다.

[어원풀이] '층층(層層)+배기(첩미사)+ㅅ+골[谷]'로 분석된다. 여러 층으로 거듭 쌓인 바위가 있는 골짜기란 의미로 추정된다.

● 큰승지골

[별칭] 큰승리골

[형태] 골짜기

[위치] 군자리 산134-1번지. 지금은 '동산추모공원'으로 조성되었다.

[유래] 승지골에 있는 큰 골짜기란 의미이다.

[어원풀이] '큰[大]+승지골'로 분석된다. '승지골' 참조. 지명에 쓰이는 '승지'는 '옹달' 또는 절이나 암자를 의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폭포수개

[형태] 하천

[위치] 성골 부근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폭포수 부근에 있는 개"라 소개되어 있다.

[어원풀이] '폭포수(瀑布水)+ㅅ+개[川]'로 분석된다. 폭포가 있는 개천을 말한다.

● 호랑바우

[형태] 바위

[위치] 고토골 안쪽으로 들어가면 나오는 바위이다.

[유래] 모양이 호랑이처럼 생겨서 붙여진 이름이다.

[어원풀이] '호랑[虎]+바우[岩]'로 분석된다.

위치와 현황 | 구절산과 연엽산 가운데 있는 봉명리는 전형적인 산간분지의 농촌마을이다. 자연마을로는 양지말, 도화동, 상명람, 명암, 성골 등이 있다.

연혁 | 『춘주지』를 보면 동산외면(東山外面)에 명암(鳴巖)이 있다. 『여지도서』는 동산외면(東山外面)에 상명암리(上鳴巖里), 『호구총수』는 동산외이작면(東山外二作面) 상명암리(上鳴巖里), 『춘천읍지』, 『춘천부지』, 『관동읍지』는 동산외면(東山外面)에 상명암리(上鳴巖里)라고 표기하였다. 『조선지지자료』는 동산외이작면(東山外二作面)에 상명암리(上鳴岩里)로, 『강원도지』, 『수춘지』는 동산면(東山面)에 봉명리(鳳鳴里)로, 『춘주지』는 동산면(東山面) 봉명리, 봉명2리로 구분하였다. 현재 행정리는 봉명리고 법정리는 봉명1리, 봉명2리이다.

유래 | 본래 춘천군 동산외이작면의 지역으로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관골, 도화동, 상명암리, 석동골, 성동, 원무동, 장재울을 병합하여 봉(鳳)바위와 명암(鳴巖)의 이름을 따서 봉명리라 하였다.

● 각시텃골

[별칭] 각시터골

[형태] 골짜기

[위치] 봉명2리 1반 안쪽으로 올라가면 나오는 골짜기이다. 봉명2리 북동쪽에 있는 ‘국립강원대학 교학술림’에서 1km쯤 북쪽에 있다.

[유래] 『동산면지리지』에 “상명암에서 이 골짜기를 넘으면 도화동이 나온다.”라 소개되어 있다.

[어원풀이] ‘각시[아내]+터[垈]+ㅅ+골[谷]’로 분석된다. 유래는 불분명하다.

● 간성천(干城川)

[형태] 하천

[위치] 봉명리 동쪽 끝에 위치하며, ‘강원대학교 산림환경교육센터’ 북쪽, ‘사시라골’ 상류에서 남쪽으로 흘러, 홍천군 북방면 성동리 소재 ‘대룡저수지’로 들어가는 소하천이다.

[유래] 동산면 봉명리에서 시작하여 남동 방향으로 흘러 성동천으로 유입되는 지방하천이다. 하천연장은 3.8km, 유로 연장은 7.52km, 유역면적 11.18km²이다.

● 갈개울

[별칭] 갈개울골

[형태] 골짜기

[위치] 봉명리 산21-1번지. 동산면행정복지센터 북쪽, 서울양양고속도로를 지나자마자 동편으로 난 작은 골짜기이며, 지금은 ‘원무동길’ 소로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원무골 안에 있는 골짜기라 소개되어 있다. ‘갈개울’ 조금 위쪽에 ‘굴지천’이 동서로 갈라진다. 동쪽 굴지천 지류(관골천)는 ‘연엽산’과 ‘구절산’ 사이에서 흘러 내려오고, 서쪽 굴지천 지류(원무천)는 춘천 방향 ‘원무동’에서 흘러

내려와, 두 굴지천 지류가 ‘갈개울’ 근처에서 합류한 뒤, 홍천군 북방면 굴지리로 흘러 홍천강에 이른다. 지금은 ‘갈개울골’로 부른다.

[어원풀이] ‘갈[分,岐]+개울[川]’로 분석된다. 두 갈래 물줄기가 합류하는 모양을 따서 명명된 이름이다.

● 강원대학교산림환경교육센터

[별칭] 학술림산림환경교육센터, 강대산림교육센터

[형태] 건물

[위치] 구절산 남동 방향 봉명2리 동쪽 끝, ‘서울양양고속도로’ 북쪽 150m쯤에 있다. ‘성골’ 바로 위에 ‘강원대학교산림환경교육센터’가 있고, 그 위에 ‘윗성골길’이 ‘간성천’을 따라 이어진다.

[유래] 학술림은 산림과학분야의 시험연구와 교육 실습은 물론, 관련 모든 과학에 유용한 교육의 장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1953년 7월 설립되었다. 3,146ha의 방대한 면적으로 지난 반세기 동안 잘 보전되어온 자연생태계와 다양한 식생분포, 그리고 천연활엽수림에 잣나무 인공림을 포함한 훌륭한 임상을 보유하고 있어, 학술림으로서 전국 대학 최고의 명성을 가지고 있다.

● 고갯골

[형태] 골짜기

[위치] 봉명2리에서 봉명리 북단(상명암)에 위치하며, 원창저수지 방향으로 난 산마루 고개로 가는 골짜기이다. ‘어덩골(어둔골)’이 옆에 있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고개가 있는 골짜기”로, 『동산면지리지』에 “봉명2리 1반 상명암에 있는 골짜기이다. 어둔골 옆이다. 고개를 넘어가면 원창2리 폴리텍대학이 있는 곳이 나온다. 고개가 하도 높아서 고개가 있는 골이라 하여 고갯골이라 했다.”라 소개되어 있다.

[어원풀이] ‘고개[峴]+ㅅ+골[谷]’로 분석된다. 고개가 있는 골짜기란 의미이다.

● 고장골

[형태] 골짜기

[위치] 봉명리 960-6번지. 서울양양고속도로와 중앙고속도로 사이, ‘동춘천일반산업단지’로 조성되었다.

[유래] 본디 ‘동춘천일반산업단지’ 동쪽은 ‘안골’, 양지말, 원무동’이고, 서쪽은 ‘고장골’이다.

[어원풀이] ‘고장[감제풀]+골[谷]’로 분석할 수 있다. 골짜기 안에 ‘고장(감제풀)’이 많이 자라고 있다. ‘감제풀’은 마디풀과의 여러해살이풀로서, 높이는 2미터 정도이며, 잎은 어긋나고 달걀 모양이다. 6~8월에 흰색 또는 붉은색의 꽃이 총상(總狀)화서로 핀다. 뿌리는 약용한다. ‘감제풀’은 지방에 따라 ‘감데, 감젖대, 고장’ 등으로 부른다.

● 관골

[별칭] 관곡(官谷, 冠谷)

[형태] 마을

[위치] 봉명2리에서 북쪽으로 난 골짜기(봉명1길) 초입 서쪽에 있다. 봉명2리는 ‘원무동’에서 들어온 뒤, 북쪽으로 난 골짜기(봉명1길)인 ‘관골’과, 북동쪽으로 난 골짜기(봉명길)인 ‘큰골’로 갈라져 있다.

[유래] 『조선지지자료』에 상명암리 소재 골짜기 이름으로 ‘官谷(관골)’이 기재되어 있다. 『춘천의 지명유래』에 “지형이 관처럼 생겨서 붙여진 이름”으로, 『동산면지리지』에 “봉명2리 1반에 있는 상명암 마을이다. 마을의 지형이 관(冠)처럼 생겨서 붙여진 이름이다. 또 옛날에 임금이 있어 관을 짚어지고 다녀서 붙여진 이름이라고도 한다.”라 소개되어 있다.

[어원풀이] ‘관(冠)+골[谷]’로 분석된다. 지형이 관(갓, 冠)처럼 생겼다는 의미이거나 역원이 있던 골짜기란 의미로 보인다.

● 관골천

[형태] 하천

[위치] 봉명2리 ‘관골’ 일대를 흘러 ‘굴지천’으로 합류하는 소하천이다.

[유래] 봉명2리(봉명리 본마을)에서 흐르는 ‘관골천’과 봉명1리(원무동, 동춘천일반산업단지)에서 흐르는 ‘원무천(元武川)’이 ‘갈개울’에서 합류하여 ‘굴지천(窟只川)’이 된다.

[어원풀이] ‘관골+천(川)’으로 분석된다. ‘관골’ 참조.

● 관덧밭

[형태] 들

[위치] ‘관골’ 앞에 있는 덧밭이다. ‘관골’은 봉명2리에서 북쪽으로 난 골짜기(봉명1길) 초입 서쪽에 있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상명암에 있는 밭이라 소개되어 있다.

[어원풀이] ‘관(冠-골)+터[垈]+ㅅ+밭[田]’으로 분석된다. 관골터에 있는 밭이란 의미이다.

● 구락골

[별칭] 구릿골

[형태] 골짜기

[위치] ‘동춘천일반산업단지’ 동쪽 입구, 봉명1리 경로당에서 북쪽으로 난 골짜기로, 지금은 ‘원무동2길’이 나 있다. 그 앞쪽으로 고가도로로 중앙고속도로가 지난다. ‘구락골’ 부근에 ‘봉명목장’이 있다.

[유래] 양쪽으로 갈라진 골짜기란 의미로 보인다.

[어원풀이] ‘구락/가락[分, 岐, 裂]+골[谷]’로 분석할 수 있다. 인근에 굴지천 서쪽 지류(원무천)와 동쪽 굴지천 지류(관골천)가 합류하는 곳인 ‘갈개울’이 있다. ‘갈개울’ 참조.

● 굴지천

[형태] 하천

[위치] 동산면 봉명1리에서 발원한 ‘원무천(元武川)’과 봉명2리에 발원한 ‘관골천’이 ‘갈개울’에서 합류하여 ‘굴지천(屈只川)’이 되고, 조양리(朝陽里)를 지나, 남쪽으로 흘러, 홍천군 북방면 굴지리(屈只里)를 거쳐 홍천강(洪川江)으로 유입되는 지방하천이다.

[유래] 한강수계의 지방하천으로 한강의 제3지류이다. 하천 수계는 본류와 6개의 소하천인 전치곡천, 본궁천, 매주울천, 모래재천, 원무천, 관골천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천연장은 10.4km, 유로 연장은 12.7km, 유역면적 45.13km²이다.

● 당골

[형태] 골짜기

[위치] 봉명리 427번지. 봉명2리마을회관에서 북쪽으로 난 ‘봉명1길’로 1.5km쯤 가다가 북서쪽으로 들어가는 골짜기인데, 지금은 ‘봉명1길’ 소로이다. 봉명2리마을회관에서 북쪽으로 난 ‘봉명1길’로 1km쯤에서 서쪽으로 들어가는 골짜기는 ‘사그막골’이다.

[유래] 『동산면지리지』에 “토속신(土俗神)을 제사지내는 사당(祠堂)이나 당산(堂山) 또는 무당(巫堂)이 있는 마을에 주로 붙여지는 지명이다.”라 소개되어 있다.

[어원풀이] ‘당(堂, 서낭당)+골[谷]’로 분석된다.

● 당지골

[형태] 골짜기

[위치] ‘간성천’ 최상류 줄기가 흐름을 보이기 시작하는 지점쯤, 봉명2리 쪽에 있는 ‘약수골’ 바로 아래에 있다.

[유래] 유래는 불분명하다.

[어원풀이] ‘당지(塘池)+골[谷]’로 분석할 수 있다. ‘당지(塘池)’는 ‘당지구렁창, 당지골구렁’이라고도 한다.

● 더운짐내기

[별칭] 더운짐내기샘, 더운짐내기우물

[형태] 샘

[위치] 구절산 너머 밑의 구릉 뒤쪽에 있다. 이곳을 넘어가면 홍천 북방 쪽이 된다. 홍천군 북방면 성동리에 있는 대룡저수지의 최상류로, 동산면 봉명리 소재 ‘강원대학교산림환경교육센터’를 한참 거슬러 올라가야 나온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겨울에 더운 짐이 나는 샘”으로, 『동산면지리지』에 “겨울에 더운 짐이 나는 샘이다. 배바우 밑에 눈이 쌓이면 구덩이에서 짐이 났는데 얼마나 깊은가 시험해 보느라고 돌멩 이를 계속 던져 넣어서 지금은 메워졌다.”라 소개되어 있다.

[어원풀이] ‘더운[熱]+짐/김(액체가 열을 받아서 기체로 변한 것)+내기(접미사)’로 분석된다.

● 더운짐내기고개

[형태] 고개

[위치] 구절산과 ‘사곡현’ 사이, 북동 방향에 있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더운짐내기 우물이 있는 고개”로 소개되어 있다. 산행인들 사이에선, 연엽산, 박달재 능선을 내려오다보면 ‘더운짐내기고개’

를 지나며, “옛날 이곳에 오면 한겨울에도 더운 바람이 불어와 언 발을 녹이곤 했다”라는 말을 한다. [어원풀이] ‘더운침내기+고개[峴]’로 분석된다. ‘더운침내기’ 참조.

● 더운침내기골

[형태] 골짜기

[위치] 구절산과 ‘사곡현’ 사이, 북동 방향에 있다.

[유래] 더운침내기 우물이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어원풀이] ‘더운침내기+골[谷]’로 분석된다.

● 도장골

[형태] 골짜기

[위치] 구절산 남동 방향 봉명2리 동쪽 끝, ‘서울양양고속도로’ 북쪽 100m쯤에 있다. ‘도장골’ 바로 위에 ‘성골’이 있고, 그 바로 위에 ‘강원대학교산림환경교육센터’가 있고, 그 위에 ‘윗성골길’이 ‘간성천’을 따라 이어진다.

[유래] 안방처럼 깊은 골짜기를 말한다.

[어원풀이] ‘도장[闔]+골[谷]’로 분석된다. 고유어 ‘도장’은 ‘안방’의 고어로서 ‘사방이 산이나 둑덕으로 둘러쌓여 안방’처럼 아득하기 때문에 붙여진 지명이다. ‘闔’의 음은 ‘규’이고 훈은 ‘도장방’이다. ‘도장’을 훈히 ‘도장나무’로 해석하곤 하는데 대부분 현장에 가보면 커다란 ‘도장나무’는 없다. 목질이 단단한 ‘회양목’으로 직인을 찍는 도장을 만들었기에 회양목을 ‘도장나무’라고도 한다.

● 동춘천일반산업단지

[별칭] 춘천 동춘천산업단지, 동춘천산업단지

[형태] 시설

[위치] 봉명리 산174 일원. 봉명리 1104-1번지

[유래] 동산면 봉명리 원무동 일대 10만 평 부지에

조성된 일반 산업단지이다. 한국가스공사, 춘천그린파워, 젠젠테크 등의 업체가 입주해 있다.

● 등지봉

[형태] 산

[위치] 미상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등지처럼 생긴 봉우리라 소개되어 있다.

[어원풀이] ‘등지(새가 알을 낳거나 깃들이는 곳)+봉(峰)’으로 분석된다.

● 뒷고개

[형태] 고개

[위치] 봉명2리 북단, ‘어둔골’과 ‘고갯골’과 ‘뒷고개’를 넘어가면 원창2리 ‘원창저수지’에 이른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원창리와의 경계에 있는 고개”라 소개되어 있다.

[어원풀이] ‘뒤[後]+ㅅ+고개[峴]’로 분석된다. 마을 뒤에 있는 고개란 의미이다.

● 떡갈목이고개

[별칭] 떡갈모기고개

[형태] 고개

[위치] 미상

[유래] 『조선지지자료』에 상명암리 소재 고개 이름으로 ‘떡갈목이고기’가 기재되어 있다.

[어원풀이] ‘떡갈[떡갈나무]+목이/목이/목[項]+고개[峴]’로 분석된다. 길목에 떡갈나무가 있는 고개를 말한다.

● 매봉

[형태] 산

[위치] 봉명2리경로당에서 남동쪽 1.5km, 구절산

남서쪽 1.5km에 있으며, 조양리와 접경한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봉우리가 매처럼 생긴 산

이라 소개되어 있다. 높이는 550m이다.

[어원풀이] ‘매[鷹]+봉(峰)’으로 분석된다.

● 명암(鳴岩)

[별칭] 부영바우, 부엉바위, 병바우, 범바위

[형태] 바위, 마을

[위치] ‘부엉바위(명암)’는 ‘상명암’ 즉 봉명2리와 조양1리 사이에 있다. ‘장지골’로 들어간다.

[유래] 『춘천의 지명유래』에 “부엉바우가 있다. 부엉이가 잘 깃들어서 붙여진 이름. 명암 위쪽에 있는 마을은 상명암리”로, 『동산면지리지』에 “봉명리 와 조양리에 걸쳐 있는 마을”이라 소개되어 있다.

[어원풀이] ‘명(鳴)+암(岩)’으로 분석된다. 봉명리(鳳鳴里) 행정지명의 바탕이 된다. ‘명(鳴)’은 그 별칭인 ‘부영바우/부엉바우’가 ‘부엉이’의 울음소리가 ‘부엉부엉 우는 것’을 한자화한 것이다. ‘암(岩)’은 그 ‘부엉이가 서식하는 바위’를 한자화한 것이다. 현대 국어 ‘부엉이’의 옛말인 ‘부헝’은 15세기 문헌에서부터 나타난다. 봉명리(鳳鳴里)의 바탕이 ‘부엉바우, 명암(鳴岩)’이라면 ‘상명암, 하명암’처럼 ‘명암리(鳴岩里)’가 적절하다. 이에 따르면 봉명리(鳳鳴里)의 ‘봉(鳳)’은 ‘부엉이, 휴(鶴)’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봉(鳳)’은 많은 지명에서 ‘봉황(鳳凰)’과 연유되기도보다는 ‘봉황이 가진 상징적 의미’로 자주 전의(轉義)되어 쓰인다.

● 무시울

[형태] 골짜기

[위치] 봉명2리 경로당 들어오기 전 ‘화채들’을 지나 북서쪽으로 ‘무시울’ 있다. 그 너머는 ‘옹달말’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상명암 위에 있는 골짜기

라 소개되어 있다.

[어원풀이] ‘무시+울[고을, 村]’로 분석할 수 있다.

‘무시’는 골짜기나 산 밑에 있는 마을로, 물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유래한 것이다. ‘무시울/모시울/무수동[물水洞]’이라고도 부른다.

● 박달재

[형태] 고개

[위치] 봉명2리 북동쪽 ‘국립강원대학교학술림’에서 최북단에 있으며, 봉명리와 원창리가 접경을 이루는 연엽산에서 북진을 계속하면서 원창리 ‘연엽골재’를 지나 매봉을 지나면 홍천군 북방면 북방리의 박달재에 이른다. 박달재의 행정구역은 홍천 북방면 북방리이다. 원창2리의 ‘순동골’에서 북동진하여 ‘세거리’를 거쳐 다시 동진하면 박달재에 이른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박달나무가 많은 산이라 소개되어 있다. 고도는 640m이다.

[어원풀이] ‘박/ 밟- [明, 白]+달(達)+재[峙]’로 분석된다. 단군이 내려온 박달나무(神壇樹)에서 ‘박달’은 ‘밟-(明, 白)+달(達 : 아사달)’로 해석되며 ‘배달(민족)’로 전음(轉音)된다.

● 배바우

[형태] 바위

[위치] 구절산 북쪽 산자락 밑에 있는 바위이다.

[유래] 『동산면지리지』에 구절산 밑에 있는 바위로, 모양이 배처럼 생겼다고 소개되어 있다.

[어원풀이] ‘배[舟]+바우/바위[岩]’로 분석된다.

● 배바우골

[형태] 골짜기

[위치] 구절산 ‘배바우’가 있는 북쪽 산골이다. 봉명

리 산46번지.

[유래] ‘배바우’가 있는 골짜기란 의미이다.

[어원풀이] ‘배바우+골[谷]’로 분석된다. ‘배바우’ 참조.

● 백산골

[별칭] 백산곡(白山谷)

[형태] 골짜기

[위치] 미상

[유래] 『조선지지자료』에 상명암리 소재 골짜기 이름으로 ‘白山谷(백산골)’이 기재되어 있다. 지금은 봉명리이다.

[어원풀이] ‘백산(白山)+골[谷]’로 분석된다. 유래는 불분명하다.

● 범정골

[별칭] 범정골

[형태] 골짜기

[위치] ‘동춘천일반산업단지’, ‘원무동’에서 동쪽 ‘굴지천’ 지류가 본류에 합류하기 전에 ‘구락골’이 있다. 이 ‘구락골’ 북쪽으로 난 골짜기가 ‘범정골’이다. 바로 앞으로 중앙고속도로가 지난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원무골 안에 있는 골짜기”로, 『동산면지리지』에 “봉명1리 2반에 있는 마을이다. 범정골이라고도 부른다. 원무골 안에 있는 골짜기 마을이다.”라 소개되어 있다.

[어원풀이] ‘범정/법정+골[谷]’로 분석할 수 있다. ‘범정골’은 전국 여러 곳에 있는데, 유래는 불분명하다.

● 복사골

[별칭] 복삿골, 부사골, 도화동(桃花洞)

[형태] 마을

[위치] 봉명리 1036번지. 봉명2리 경로당에서 북동 방향으로 가다가 ‘국립강원대학교학술림’에서 300m쯤 못 미친 곳에 있다.

[유래] 『조선지지자료』에 상명암리 소재 마을이름으로 ‘桃花洞(복사골)’이 기재되어 있다. 『한국지명총람』에 복송아나무가 많은 마을이라 소개되어 있다.

[어원풀이] ‘복사[桃花]+골[谷, 洞]’로 분석된다.

[유래답] <봉송아에 오줌 누고 봉송아 버리지 넣은 어미> 전설이 『강원의 설화 Ⅲ』에 수록되어 있다.

● 봉명계곡

[형태] 골짜기

[위치] 봉명2리 북동쪽 ‘국립강원대학교학술림’에서 연엽산 북동쪽 900m쯤에 있는 ‘새목고개/새목재’까지 있는 계곡이다.

[유래] 봉명리에 있는 계곡이란 의미이다.

[어원풀이] ‘봉명리(鳳鳴-里)+계곡(溪谷)’으로 분석된다.

● 사곡현(寺谷峴)

[별칭] 사곡고개

[형태] 고개

[위치] 봉명2리 북동쪽 ‘국립강원대학교학술림’에서 400m쯤에 있는 ‘장재울’을 지나 100m쯤 더 간 뒤, 다시 동쪽 ‘산판길’로 1.3km쯤에 오르면 ‘사곡현’이다. ‘사곡현’ 남쪽 600m쯤에 구절산이 있다.

[유래] 예전에 구절산 북쪽 ‘사곡현’ 산자락에 사찰(寺刹)이 있어 ‘절터골’이라 부른다.

[어원풀이] ‘사(寺)+곡(谷)+현(峴)’으로 분석된다. 절터가 있었던 골짜기에 있는 고개란 의미이다.

● 사그막골

[별칭] 사기막골

[형태] 골짜기

[위치] 봉명리 산97번지. 봉명2리마을회관에서 북쪽으로 난 ‘봉명1길’로 1km쯤에서 서쪽으로 들어가는 골짜기가 ‘사그막골’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관꼴에 있는 골짜기”로, 『동산면지리지』에 “봉명2리 1반 상명암에 있는 골짜기이다. 관골에 있는 골짜기이다. 돼지농장이 있다.”라 소개되어 있다.

[어원풀이] ‘사그/사기(砂器)+막(幕)+골[谷]’로 분석된다. 사기그릇을 만들던 움막이 있던 골짜기란 의미이다.

● 사시라골

[형태] 골짜기

[위치] 구절산 2시 방향 ‘더운침내기골’에서 5시 방향 300m쯤에 있다. ‘간성천(干城川)’ 상류에 있다.

[유래] 사시나무가 있는 골짜기란 의미이다.

[어원풀이] ‘사시라/사시랑/사시낭구/사시나무+골[谷]’로 분석된다. ‘사시낭구’는 ‘사시나무’의 강원 방언이다. ‘사시낭구’와 지명접미사 ‘골’과 결합하며 ‘사시랑’으로 축약(縮約)되었다. ‘사시라’는 ‘사시랑’에서 ‘o’ ‘o’ 탈락(脫落)한 변이형(變異形)이다.

● 산지당골

[별칭] 산지데이, 산재당골

[형태] 골짜기

[위치] 봉명2리경로당에서 ‘관골’로 북진하다가 서쪽 ‘어둔골’ 동쪽 500m쯤에 있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산제당이 있는 골짜기라 소개되어 있다. 요즘은 ‘산재당골’이라 한다.

[어원풀이] ‘산(山)+지/재/제(祭)+당(堂)+골[谷]’로 분석된다.

● 산판골

[별칭] 산판길

[형태] 골짜기

[위치] 봉명2리 북동쪽 ‘국립강원대학교학술림’에서 400m쯤에 있는 ‘장재울’을 지나 100m쯤 더 간 뒤, 다시 동쪽 ‘산판골(山坡-골)’로 1.3km쯤에 오르면 ‘사곡현’이다. ‘사곡현’ 남쪽 600m쯤에 ‘구절산’이 있다.

[유래] 예전에 산판(山坡)하려고 낸 임도(林道)이다.

[어원풀이] ‘산판(山坡)+골[谷]’로 분석한다. ‘산판’은 벌목 또는 그러한 일을 하는 곳을 가리키는 강원도 사투리이다. 산판길이 있는 골짜기를 ‘산판골’이라 부른다.

● 삼거리

[형태] 마을

[위치] 봉명리에서 북동 방향으로 가다가 ‘복사골(도화동)’을 지나 ‘국립강원대학교학술림’ 못 미친 곳, 서쪽으로 길이 난 곳이다. 그 아래엔 ‘아래삼거리’가 있다. ‘웃삼거리’는 ‘국립강원대학교학술림’과 ‘장재울’을 지나, ‘산판골(산판길)’로 꺾어지는 곳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거리가 셋이 있는 마을”이라 소개되어 있다.

[어원풀이] ‘삼(三)+거리[街里]’로 분석된다.

● 삼막골

[형태] 골짜기

[위치] ‘윗성골’ 바로 위에 있다. ‘윗성골’은 봉명2리 동쪽 끝이며, ‘성골’ 북쪽, ‘간성천’ 상류 아래, ‘삼막골’ 바로 아래에 있다.

[유래] 『동산면지리지』에 봉명1리 웃말 옆에 있는 골짜기라 소개되어 있다.

[어원풀이] ‘삼[蔴]+막(幕)+골[谷]’로 분석된다. 유래는 불분명하나 다른 지역의 경우를 참조할 때 산삼을 캐던 심마니들의 움막이 있던 골짜기란 의미로 보인다.

● 솟대울골

[별칭] 솟대울골

[형태] 마을

[위치] 봉명리 545-3번지. 봉명리 최남단으로, ‘동산면행정복지센터’가 있는 조양리 본마을에 가깝다. ‘갈개울’ 동쪽 1km쯤에 있다. 서울양양고속도로와 중앙고속도로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약간 북쪽이다.

[유래] 솟대가 있는 골짜기란 의미이다.

[어원풀이] ‘삿대/솟대+올[고을, 村]+골[谷]’로 분석된다. ‘솟대’는 마을 수호신 및 경계의 상징으로 마을 입구에 세운 장대이다. 장대 끝에는 나무로 만든 새를 붙인다.

● 상거리골

[형태] 마을

[위치] 봉명리 1036번지. 봉명2리에서 북동진하여 이른 ‘국립강원대학교학술림’에서 다시 북진하여, ‘연엽산’과 ‘강원대학학술림’ 중간쯤 되는 곳에서 서쪽에 있다.

[유래] 윗 마을에 있는 골짜기란 의미이다.

[어원풀이] ‘상(上)+거리[路]+골[谷]’로 분석된다.

● 상명암(上鳴岩)

[별칭] 상명암리

[형태] 마을

[위치] 봉명2리 1반을 말한다.

[유래] 마을의 명칭은 아래쪽에 ‘명암(鳴岩)’이 있어

유래하였다.

[어원풀이] ‘상(上)+명암(鳴岩)’으로 분석된다. ‘명암(鳴岩)’ 위쪽에 있는 마을이란 의미이다.

● 새매기

[별칭] 새매기, 새목. 새매기골

[형태] 마을

[위치] 새매기고개 아래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새목고개 밑에 있는 마을이라 소개되어 있다.

[어원풀이] ‘새[鳥]+매기/목[項]+골[谷, 村]’로 분석된다.

● 새매기고개

[별칭] 새목고개, 새목현, 새목재, 조항현(鳥項峴)

[형태] 고개

[위치] 봉명2리에서 ‘국립강원대학교학술림’을 지난 북진하여, 봉명리 최북단에 있는 연엽산 뜻 미친 곳에서, 연엽산 북동쪽 900m쯤에 있는 고개이다. 고도 675m로 새매기고개에서 봉명계곡으로 내려오면 ‘강원대학학술림’에 이른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새의 목과 같이 생긴 고개”라 소개되어 있다. 요즘은 ‘새목재, 새목고개’라 한다.

[어원풀이] ‘새[鳥]+매기/목[項]+고개[峴]’로 분석된다. 지명접미사 ‘목(項)’은 ‘목/목이/매기/매기/모기’ 등의 이형태를 가지며 ‘좁다란 산협이나 물속을 가로지르는 길목’을 뜻한다. 특히 ‘통로의 다른 곳으로는 빠져나갈 수 없는 중요하고 좁은 곳’을 가리키고 있다. 새의 목처럼 가는 고개란 의미이다.

● 새창골

[형태] 골짜기

[위치] 원무동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원못골 안에 있는 골짜기라 소개되어 있다. ‘새창골’과 ‘원무골’ 인근 일대는 ‘동춘천일반산업단지’로 조성되었다.

[어원풀이] ‘새창+골[谷]’로 분석할 수 있다. ‘새창’의 의미는 불분명한데, ‘새창애/쇠창애’는 짐승을 찌어서 잡는 쇠로 만든 틀의 하나이다.

● 생미암골

[형태] 골짜기

[위치] 봉명리 926번지. ‘동춘천일반산업단지’에서 중앙고속도로 가까이에 있다.

[유래] 유래는 불분명하다.

[어원풀이] ‘생미암+골[谷]’로 분석할 수 있다. ‘생미암’의 의미는 불분명하다. ‘미암’은 매미의 방언이며, ‘미역을 감는 개천이 있는 골짜기’ 또는 ‘절이 있는 골짜기’를 의미하는 ‘미역골’이 참조가 된다.

● 서낭데이

[별칭] 서낭댕이

[형태] 마을

[위치] 복사골

[유래] 『동산면지리지』에 “도화동이라 불리는 마을 앞이다. 강원대학술림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위치해 있다. 마을정자에 둘레 약 3m, 높이 약 15m 정도의 느티나무 서낭목이 있으며 시루에 백설기를 써 놓고 제사를 지냈다.”라 소개되어 있다.

[어원풀이] ‘서낭당(堂)+[-이](접미사)’로 분석된다. ‘당(堂)’은 본래 당집이 있던 데서 연유한 것이며, ‘당/당이/댕이/댕/뎅이/대이/뎅이/데이’ 등 많은 이형태로 다양하게 출현하고, 그 뜻도 ‘서낭당/성

황당’의 ‘당’에서 다양하게 전이되어 ‘마을, 골, 고개, 들’로도 쓰인다.

● 석동골

[형태] 마을

[위치] 서울양양고속도로와 중앙고속도로와 영서로가 교차하는 틈 사이에 ‘석동골’이 있다. 봉명리에서 조양리 쪽으로 최남단이다. 바로 앞에 농협이 있다.

[유래] 『조선지지자료』에 상명암리 소재 들판 이름으로 ‘石同坪(석동거리뜰)’, 상명암리 소재 보(洑) 이름으로 ‘石同坪洑(석동거리보)’가 기재되어 있다. 『한국지명총람』에 “상명암과 원무동의 중간쯤에 있는 마을”로, 『동산면지리지』에 “봉명1리 1반에 있는 마을이다. 상명암과 원무동(양지말)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다.”라 소개되어 있다.

[어원풀이] ‘석[石]+동(洞)+골[谷]’로 분석된다. ‘석동’의 의미는 불분명한데 타 지역의 경우 ‘삼동곡(三洞谷)’으로 표기한 곳도 있는 점으로 미루어 세 갈래로 갈라지는 지점에 있는 마을이나 골짜기란 의미로 보인다.

● 석동평(石同坪)

[별칭] 석동거리뜰

[형태] 들

[위치] 석동골

[유래] 『조선지지자료』에 상명암리 소재 들판 이름으로 ‘石同坪(석동거리뜰)’이 기재되어 있다.

[어원풀이] ‘석동(石洞)+평(坪)’으로 분석된다. ‘석동골’ 참조.

● 석동평보(石同坪洑)

[별칭] 석동거리보

[형태] 수리

[위치] 석동골

[유래] 『조선지지자료』에 상명암리 소재 보(洑) 이 름으로 ‘石同坪洑(석동거리보)’가 기재되어 있다.

[어원풀이] ‘석동(石洞)+평(坪)+보(洑)’로 분석된다. ‘석동골’ 참조.

● 석장골

[별칭] 석장곡(石藏谷)

[형태] 골짜기

[위치] 미상

[유래] 『조선지지자료』에 상명암리 소재 골짜기 이름으로 ‘石藏谷(석장골)’이 기재되어 있다.

[어원풀이] ‘석(石)+장(藏)+골[谷]’로 분석된다. 유래는 불분명한데 전국적으로 ‘석장골(石藏谷)’은 산골 마을 인근 산속에 산재한다.

● 성골

[별칭] 성동(城洞)

[형태] 골짜기

[위치] 구절산 남동 방향 봉명2리 동쪽 끝, ‘서울양양고속도로’ 북쪽 150m쯤에 있다. ‘성골’의 행정 구역은 동산면 봉명리이지만, ‘성골’이 지명의 바탕이 되어 홍천군 북방면 성동리(城洞里)가 되었다. ‘성골계곡/성동골’은 홍천군 북방면 성동리에 속한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험한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마을”로, 『동산면지리지』에 “구절산 밑에 있는 골짜기이다. 산이 험하게 성처럼 둘러싸여 있는 모양이다. 예전엔 1개 반이 살았는데 지금은 두 집만이 살고 있다.”라 하였다.

[어원풀이] ‘성(城)+골[谷, 洞]’로 분석된다. 성치산(城峙山, 553.5m)에서 그 이름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 소룡현(小龍峴)

[별칭] 소룡골고개

[형태] 고개

[위치] 미상

[유래] 『조선지지자료』에 상명암리 소재 고개이름으로 ‘小龍峴(소용골고개)’이 기재되어 있다. 동일한 책에 원창리 소재 골짜기 이름으로 ‘小龍谷(소용골)’이 기재되어 있는 점으로 미루어 봉명리와 원창리 경계에 있는 고개로 보인다.

[어원풀이] ‘소룡(小龍)+골[谷]+고개[峴]’로 분석된다. 유래는 불분명하다.

● 솔장골

[형태] 골짜기

[위치] 봉명리 산171번지. ‘영서로’에서 ‘동춘천산업단지’로 들어오는 입구에 있으며, 지금은 ‘원무동길’로 나있다.

[유래] 유래는 불분명하다. 『조선지지자료』에 상명암리 소재 골짜기 이름으로 기재되어 있는 ‘石藏谷(석장골)’과 동일한 지명으로 추정된다.

[어원풀이] ‘솔[鼎]+장(藏)+골[谷]’로 분석된다. ‘솔장골’이 ‘석장골’의 와전이라면 세 갈래로 길이 갈리는 곳에 있는 골짜기란 의미로 보인다.

● 쇠동골

[형태] 골짜기

[위치] 봉명1리 1반. 현재는 ‘동춘천산업단지’에 흡수되었다.

[유래] 『동산면지리지』에 봉명1리 1반에 있는 골이라고 소개되어 있다.

[어원풀이] ‘쇠[鐵]+동(洞)+골[谷]’로 분석된다. 쇠가 나오는 골짜기란 의미로 보인다.

● 시공골

[별칭] 시금골

[형태] 골짜기

[위치] 중앙고속도로와 춘천JC 사이, 바로 북쪽이 ‘시공골’이다.

[유래] 『동산면지리지』에 조양리의 동막골 뒤쪽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고 소개되어 있다.

[어원풀이] ‘시공/시금/시궁+골[谷]’로 분석할 수 있다. 유래는 불분명하다. ‘시궁’은 ‘시궁창’을 말하는데, 타 지역의 경우 ‘시공골’의 별칭은 대부분 ‘시궁창골’이다.

● 심좌평(深座坪)

[별칭] 깊은자리뜰

[형태] 들

[위치] 미상

[유래] 『조선지지자료』에 상명암리 소재 들판 이름으로 ‘深座坪(김현주리뜰)’이 기재되어 있다.

[어원풀이] ‘심[깊은, 深]+좌[자리, 座]+평[뜰, 坪]’로 분석된다. 산속 깊숙한 곳에 위치한 들판이란 의미이다.

● 아갈바우

[형태] 바위

[위치] 봉명2리 원쪽에 있는 바위이다.

[유래] ‘아갈바우’는 전국 여러 곳에 있는 바위 이름이다.

[어원풀이] ‘아갈/아가리[口]+바우/바위[岩]’로 분석된다. ‘아가리’는 ‘입’을 속되게 이르는 말이다. 그밖에, 물건을 넣고 내고 하는 병·그릇·자루 따위의 구멍의 어귀를 뜻한다. 마치 입처럼 구멍이 뚫린 바위를 말한다.

● 아들바우

[형태] 바위

[위치] 서낭데이에서 안쪽으로 들어가다 왼쪽 절벽 약 3m 높이에 있는 바위이다. ‘복사골(도화동)’을 지나 ‘국립강원대학교학술림’ 못 미친 곳에 있는, ‘삼거리’ 아래 ‘작은삼거리’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있다.

[유래] 『동산면지리지』에 삼각형 모양이며 안으로 들어갈수록 좁아지는 형태의 바위라 소개되어 있다.

[어원풀이] ‘아들바우’는 ‘아들[男兒]+바우/바위[岩]’로 분석된다.

[유래담] 아들을 낳지 못하는 사람이 돌을 던져서 구멍으로 들어가면 아들을 낳게 된다는 전설이 전해온다.



아들바우

● 아래삼거리

[형태] 마을

[위치] 봉명리에서 북동 방향으로 가다가 ‘복사골(도화동)’을 지나 ‘국립강원대학교학술림’ 못 미친 곳, 서쪽으로 길이 난 곳에 ‘(웃)삼거리’가 있다. 그 아래에 ‘아래삼거리’가 있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거리가 셋이 있는 마을이라 소개되어 있다.

[어원풀이] ‘아래[下]+삼(三)+거리[路]’로 분석된다.

● 안골 1

[별칭] 안원무동

[형태] 마을

[위치] 원무동 안쪽. 지금은 ‘원무동’ 주변 일대가 ‘동춘천일반산업단지’로 조성되었다.

[유래] 『춘천의 지명유래』에 원무동 안쪽에 있는 마을이라고 소개되어 있다.

[어원풀이] ‘안[內]+골[谷]’로 분석된다. 안쪽에 있는 골짜기나 마을이란 의미이다.

● 안골 2

[형태] 마을

[위치] 봉명2리에서 북쪽 ‘관골(봉명1길)’로 가다가 ‘당골’ 맞은편 동쪽에 있다.

[유래] 봉명리에는 ‘봉명1리’의 ‘안골 1’과 봉명2리의 ‘안골 2’가 따로 있다.

[어원풀이] ‘안[內]+골[谷]’로 분석된다. 안쪽에 있는 골짜기나 마을이란 의미이다.

● 안원무동

[별칭] 안골

[형태] 마을

[위치] ‘동춘천일반산업단지’에서 ‘봉명1리경로당’ 북쪽으로, 중앙고속도로 너머 가까이에 있다. 원무동2길 끝자락에 있으며, 중앙고속도로 원무1터널과 원무2터널 사이 북쪽에 있다.

[유래] 『춘천의 지명유래』에 “원무동(元武洞)은 고려 때 원참위라는 무관이 마을을 이룩했다. 양지가 드는 마을이라 해서 양지골이라고 부른다.”라 소개되어 있다.

[어원풀이] ‘안[內]+원(元나라)+무[武官]+동(洞)’으로 분석된다.

● 애막골

[형태] 골짜기

[위치] 봉명1리

[유래] 『동산면지리지』에 봉명1리 웃말에 있는 골짜기라 소개되어 있다.

[어원풀이] ‘애/아이[兒]+막(幕)+골[谷]’로 분석할 수 있다. ‘애막’은 ‘움집’이고, ‘산막’이다. 1527년(중종 22)에 최세진이 편찬한 『훈몽자회(訓蒙字會)』에 ‘窩 산막 와 又 애막 曰 窩鋪 又 鳥栖 曰 窩兒’라고 하였다. 이를 참조하면, ‘애막’은 ‘산막’이며, 용례 ‘窩鋪 又 鳟栖 曰 窩兒’에서 그 의미는 ‘새가 깃들 만한[鳥栖], 어린아이 산막 만한[窩兒]’ 옛날 ‘움집[窩鋪]’ 정도의 소략한 작은 거처에 해당한다. 즉 ‘애막’은 곧 ‘움집’이고 ‘산막’이며, ‘애막’의 ‘애’는 ‘애/아이(兒)’이다.

● 약초마을

[별칭] 아침밭농원

[형태] 마을

[위치] 봉명리 봉명1길 149. 봉명2리마을회관에서 북단, ‘어둔골/어덩골’ 가기 전에 있다.

[유래] 아침밭농원에서 10년 이상된 산양산삼을 바탕으로 식당을 운영하고, 약초를 재배한다.

[어원풀이] ‘약초(藥草)+마을[村]’로 분석된다.

● 약수골

[형태] 골짜기

[위치] ‘간성천’ 최상류 줄기가 흐름을 보이기 시작하는 지점쯤, 봉명2리 쪽에 있다.

[유래] 약수가 나오는 골짜기란 의미이다.

[어원풀이] ‘약수(藥水)+골[谷]’로 분석된다.

● 양지말 1

[별칭] 원무동, 양짓말, 양지골

[형태] 마을

[위치] 봉명리 652번지. ‘원무동’이라고도 부르는 ‘양지말’은 봉명리에서 조양리로 내려오다가 중앙 고속도로를 넘어 도로지명 ‘원무동길’로 이어가 북서쪽으로 가는 초입 언저리에 있다. 계속 더 나아가면 ‘동춘천일반산업단지’가 나온다.

[유래] 『춘천의 지명유래』에 “원무동(元武洞)이라고도 부른다. 고려 때 원참위라는 무관이 마을을 이름했다. 양지가 드는 마을이라 해서 양지골이라고 부른다.”로, 『동산면지리지』에 “봉명1리 3반에 걸쳐 있는 마을이다.”라 소개되어 있다.

[어원풀이] ‘양지(陽地)+말[마을, 村]’로 분석된다.

다. 햇빛이 잘 드는 골짜기란 의미이다.

● 어덩꼴

[별칭] 어둔골, 어덩골

[형태] 골짜기

[위치] 봉명2리에서 봉명리 북단(상명암)에 위치하며, 원창저수지 방향으로 난 산골짜기이다. 옆에 ‘고갯골’이 있고, 더 북쪽엔 ‘험한골’이 있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어두운 골이라 함”으로, 『동산면지리지』에 “봉명2리 1반 상명암에 있는 골짜기이다. 고갯골 옆이다.”라 소개되어 있다. 요즘은 ‘어덩골’이라 한다.

[어원풀이] ‘어덩/어둔/어듬/어둠[暗]+골[谷]’로 분석된다. 으슥한 곳에 위치하여 어두컴컴한 골짜기란 의미이다.

● 양지말 2

[형태] 골짜기

[위치] 봉명2리 경로당과 ‘관골, 관골터’ 중간쯤, 서쪽에 있는 ‘옹달말’ 맞은편 동쪽에 있다. 봉명1리의 원무동의 별칭인 ‘양지말1’과 그 위치는 다르다.

[유래] 응달말에 비해 햇빛이 잘 든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어원풀이] ‘양지(陽地)+말[마을, 村]’로 분석된다.

● 웃말

[형태] 마을

[위치] 봉명1리 4반 산업단지 있는 쪽이다. ‘웃말’ 옆에 ‘애막골’이 있고, 위쪽에 ‘원소골’이 있다.

[유래] 위쪽에 있는 마을이란 의미이다.

[어원풀이] ‘우[上]+ㅅ+말[마을, 村]’로 분석된다.

● 웃삼거리

[형태] 마을

[위치] ‘국립강원대학교학술림’에서 북동진하면서 ‘장재울’을 지나, ‘산판골(산판길)’로 꺾어지는 곳이다. ‘산판길’로 계속 오르면 ‘사곡현’에 이른다. ‘삼거리’와 ‘아래삼거리’는 ‘국립강원대학교학술림’과 ‘복사골(도화동)’ 사이에 있다.

[유래] 삼거리 위쪽에 있는 마을이란 의미이다.

[어원풀이] ‘우[上]+ㅅ+삼(三)+거리[路]’로 분석된다.

● 양텃골

[별칭] 양텃골

[형태] 골짜기

[위치] 봉명2리에서 ‘국립강원대학교학술림’을 지나면 ‘양텃골’이다. 더 올라가면 연엽산과 ‘새목고개’ 쪽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복삿골 위에 있는 골짜기라 소개되어 있다.

[어원풀이] ‘양[陽地]+텃[垈]+ㅅ+골[谷]’로 분석된

● 원무천

[형태] 하천

[위치] 봉명1리, 원무동 일대에서 봉명2리, 관골천과 합류하는 ‘갈개울’까지가 ‘원무천(元武川)’이다.

[유래] 원무동에서 봉명리 굴지천으로 합류하는 소하천이다.

[어원풀이] ‘원(元나라)+무[武官]+천(川)’으로 분석된다.

● 원소골

[형태] 골짜기

[위치] 봉명1리 웃말 위에 있는 골짜기이다.

[유래] 유래는 불분명하다.

[어원풀이] ‘원소+골[谷]’로 분석할 수 있다. ‘원소’의 의미는 불분명한데 ‘온수골’이 와전된 ‘원수골’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인다. ‘원수골’은 골 안에서 일 년 내내 개울물이 흘러내리는 골짜기이다.

● 윗성골

[형태] 골짜기

[위치] 봉명2리 동쪽 끝이며, ‘성골’ 북쪽, ‘간성천’ 상류 아래, ‘삼막골’ 바로 아래에 있다. ‘간성천’ 옆으로 난 도로는 북에서 남으로 모두 ‘윗성골길’이다.

[유래] ‘성골’ 위에 있는 골짜기란 의미이다.

[어원풀이] ‘위[上]+ㅅ+성골’로 분석된다. ‘성골’ 참조.

● 응달말

[형태] 마을

[위치] 봉명2리경로당과 ‘관골, 관골터’ 중간쯤, 서쪽에 있다. ‘응달말’ 맞은편 동쪽에 ‘양지말’이 있다.

[유래] 『동산면지리지』에 “봉명2리 1반에 있는 마을이다. 관골 올라가는 왼쪽, 양지말 맞은편이다.”

라 소개되어 있다.

[어원풀이] ‘옹달[陰地]+말[마을, 村]’로 분석된다.

양지말에 비해 햇빛이 덜 드는 마을이란 의미이다.

● 응달배골

[형태] 골짜기

[위치] 봉명리 184번지. 봉명2리 북동쪽에 있는 ‘국립강원대학교학술림’ 바로 옆, 남동쪽에 있다.

[유래] 유래는 불분명하다.

[어원풀이] ‘옹달[陰地]+배[배나무, 梨]+골[谷]’로 분석된다. 응달진 곳에 배나무가 있는 골짜기란 의미로 보인다.

● 장승공원

[형태] 공원

[위치] 조양2리경로당에서 북동쪽 ‘복사골(도화동)’ 맞은편 조금 아래 동쪽 가까이에 있다. ‘복사골(도화동)’ 맞은편 조금 아래에 ‘보람목장’이 있으며, 그 아랫길에 있다.

[유래] 『동산면지리지』에 “원래 조양2리 4반 즉 밭 치리에 있었으나 봉명2리로 옮겨졌다. 장승은 십 오여 기가 있으나 지금은 관리가 잘 안 되어 풀이 무성해져 있다. 산 중턱에 있으며 그 바로 밑에는 산채체험장이 있다. 입구에 돌로 된 큰 장승이 있



장승공원 입구

고 장승공원이라는 이정표가 세워져 있다.”라 소개되어 있다.

● 장자골

[형태] 마을

[위치] 봉명리 171번지. ‘국립강원대학교학술림’ 남동쪽 300m 부근에 있다. ‘장자골’ 북쪽 300m쯤에 ‘옹달배골’이 있다.

[유래] 부자가 살았던 골짜기에서 유래하였다.

[어원풀이] ‘장자(張-富者)+골[谷]’로 분석된다.

[유래담] 『춘천백년사』에 다음과 같은 전설이 수록되어 있다. 동산면 봉명리 웃삼거리에 부자가 살고 있었다. 부잣집이라 손님이 많이 찾아왔고, 며느리는 손님을 대접하느라고 늘 고된 부엌일을 해야 했다. 시주 온 중에게 며느리는 손님 좀 오지 않게 해달라고 애원하였다. 좋은 손님이 오지 않게 해주었다. 부자집이 망했다.

● 장재을

[형태] 마을

[위치] ‘국립강원대학교학술림’에서 북쪽 500m쯤에 있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긴 골짜기에 있는 마을. 부자가 살았는데 쌀뜨물이 20리까지 내려갔다 한다.”라 소개되어 있다.

[어원풀이] ‘장(長)+재[峙]+을[谷]’로 분석된다. 골짜기와 계곡이 길게 이어진 고갯길이란 의미이다.

[유래담] 『춘천향토자료집』에 <장재을 장부자의 적선> 전설이 수록되어 있다.

● 장지골

[형태] 골짜기

[위치] 봉명리 산28번지. 봉명2리에서 남동쪽으로

난 골짜기이다. 장지골 남쪽 400m 산으로 들어가면 ‘부엉바우(명암)’가 있다.

[유래] 유래는 불분명하다.

[어원풀이] ‘장(長)+지(地)+골[谷]’로 분석된다.

● 절터골

[별칭] 절골구렁

[형태] 골짜기

[위치] 봉명리 산46번지. ‘국립강원대학교학술림’과 ‘장재울’을 지나서 북쪽 가까이에 있다. ‘절터골’ 7시 방향 400m쯤에 ‘배바우골’이 있고, 북서쪽 500m쯤엔 ‘상거리골’이 있다.

[유래] 예전에 구절산 북쪽 ‘사곡현’ 산자락에 사찰이 있어 ‘절터골/절골구렁’이라 부른다. 요즘은 ‘절터골’이라 한다.

[어원풀이] ‘절[寺]+터[垈]+골[谷]’로 분석된다.

● 정지물들

[별칭] 정짓물, 정지물웃들(정지물웃들), 정지평(井地坪)

[형태] 들

[위치] 봉명리 526-1번지. 봉명리 본마을(봉명2리)로 들어가는 봉명길과 원무동(봉명1리, 동춘천일반 산업단지)으로 가는 ‘원무동길’이 만나는 지점 북동쪽 구석에 있다. 중앙고속도로가 위를 지난다. ‘정지물들’ 앞으로 봉명2리에서 내려오는 ‘굴지천’ 지류인 ‘관골천’이 지나간다. ‘정지물들’에서 봉명리 본마을로 들어가면 그 앞에 ‘화태들’이 있다.

[유래] 『조선지지자료』에 상명암리 소재 들판 이름으로 ‘井地坪(정지물웃들)’이 기재되어 있다. 『한국지명총람』에 정자나무가 있는 들로, 『동산면지리지』에 “봉명1리 2반에 있다. 석동골에서 원무골과 상명암으로 갈라지는 곳에 위치하였다.”라 소개되어 있다.

[어원풀이] ‘정(井)+지(地)+물[水]+들[坪]’로 분석된다. 유래는 불분명하다. 우물이 있던 들판 정도의 의미로 볼 수 있고, 경상도와 제주도에서 부엌의 방언으로 쓰이는 ‘정지’와 관련지를 수도 있다.

● 정지평보(井地坪狀)

[별칭] 정지물붓보

[형태] 수리

[위치] 정지물들

[유래] 『조선지지자료』에 상명암리 소재 보(洑) 이름으로 ‘井地坪狀(정지물붓보)’가 기재되어 있다. ‘정지물들’에 있던 보였는데, 지금은 봉명2리로 들어가는 ‘봉명길’로 닦여 있다. ‘정지물들’과 ‘봉명길’ 앞으로 봉명2리에서 내려오는 ‘굴지천’ 지류가 지나간다.

[어원풀이] ‘정지(井地)+평(坪)+보(洑)’로 분석된다.

● 큰골

[별칭] 대곡(大谷)

[형태] 골짜기

[위치] 원창2리(봉명리 본마을)에서 ‘국립강원대학 교학술림’ 쪽으로 난 골짜기(봉명길)이다. 봉명2리는 ‘원무동’에서 들어온 뒤, 북쪽으로 난 골짜기(봉명길)인 ‘큰골’과 북동쪽으로 난 골짜기(봉명길)인 ‘큰골’로 갈라져 있다.

[유래] 『조선지지자료』에 상명암리 소재 골짜기 이름으로 ‘大谷(큰골)’이 기재되어 있다.

[어원풀이] ‘큰[大]+골[谷]’로 분석된다. 커다란 골짜기란 의미이다.

● 큰구락골

[별칭] 큰구락골

[형태] 골짜기

[위치] ‘구락골’ 남쪽 가까이에 있다. ‘구락골’과 ‘큰구락골’은 ‘동춘천일반산업단지’ 동쪽 입구, 봉명1리 경로당에서 북쪽으로 난 골짜기에서 갈라져 있다.

[유래] 『동산면지리지』에 “봉명2리 1반 상명암에 있는 골짜기이다. 골 앞에 양계장이 있다.”라 소개되어 있다.

[어원풀이] ‘큰[大]+구락골’로 분석된다. ‘구락골’ 참조.

● 협한골

[별칭] 호랑바우골

[형태] 골짜기

[위치] 봉명2리1반 상명암에 있는 골짜기이다. 어둔골 위이다. 동산면 원창2리로 넘어가는 ‘협한골’ 주변에는 ‘어둔골/어덩골’과 ‘고갯골’과 ‘뒷고개’ 등이 있다.

[유래] 『동산면지리지』에 “골짜기가 깊어서 호랑이가 나온다고 한다. 하도 험해서 협한골이라고도 한다.”라 소개되어 있다.

[어원풀이] ‘{협하-(險)}+{-ㄴ(관형사형어미)}+골[谷]’로 분석된다. 지형이 험한 골짜기란 의미이다.

● 흠통골

[형태] 골짜기

[위치] ‘윗성골’에서 남쪽으로 200m쯤에 있다. ‘윗성골’은 봉명2리 동쪽 끝이며, ‘성골’ 북쪽, ‘간성천’ 상류 아래, ‘삼막골’ 바로 아래에 있다.

[유래] 유래는 불분명하다.

[어원풀이] ‘흡통(흡桶)+골[谷]’로 분석할 수 있다. ‘흡통(흡桶)’은 물이 흐르거나 타고 내리도록 만든 물건으로, 나무, 대, 쇠붙이 따위를 오목하게 골을 내거나 대롱을 만들어 쓴다. 흡통 모양으로 절개 뻗은 골짜기란 의미로 보인다.

● 화채밭

[별칭] 화랫밭, 화채들, 화태들

[형태] 들

[위치] 봉명리 324-1번지. 봉명2리마을회관 앞 서쪽에 있다. ‘화채밭’에서 중앙고속도로가 있는 남서쪽 1km 정도에 ‘정지물들’이 있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옛날 화채(상여)집이 있던 빙”이라 소개되어 있다.

[어원풀이] ‘화채[喪輿]+へ+밭[田]’으로 분석된다. ‘화채’는 ‘상여(喪輿)’의 비표준어이다.

위치와 현황 | 금병산의 동쪽 자락에 위치한 전형적인 산간분지의 농촌마을이다. 동쪽으로는 연엽산과 구절산이 있다. 자연마을로는 구암동, 관거리, 가지울, 새술막 등이 있다.

연혁 | 『여지도서』는 동산외면(東山外面)의 원창리(原昌里), 『호구총수』는 동산외이작면(東山外二作面)의 원창리(原昌里)로 표기하였다. 『춘천읍지』, 『춘천부지』, 『관동읍지』는 동산외면(東山外面)의 원창리(原昌里)로 기록하였다. 『조선지지자료』는 동산외이작면(東山外二作面)의 원창리(原昌里)로, 『강원도지』는 동산면(東山面) 원품리(原品里)로, 『수춘지』는 동산면 원창리로, 『춘주지』는 동산면 원창1리, 원창2리, 원창3리, 원창4리로, 『춘천백년사』는 원창1리, 원창2리, 원창3리, 원창4리, 원창5리로 구분하였다. 현재 행정리는 원창리고 법정리는 원창1리, 원창2리, 원창3리, 원창4리, 원창5리다.

유래 | 마을에 원창역(原昌驛)이 있었으므로 원창리라는 이름이 생겼다.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가지물, 구암동, 관거리, 덤바우, 매네미, 봉우이, 순골, 새술막, 안말, 온정터, 여우바위골, 큰골을 병합하여 원창리라 하였다.

● 가는골

[형태] 골짜기

[위치] 원창5리, 가암리(덤바우) 남동쪽, ‘독장골’ 인근에 있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가늘게 생긴 골짜기라 소개되어 있다. 원창리 ‘가는골’은 조양리 소재 ‘가는골’과는 서로 다른 곳이나, 지명은 같다.

[어원풀이] ‘가늘/가는-[細]+골[谷]’로 분석된다. 폭이 넓지 않은 골짜기란 의미이다.

처럼 생겼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라 소개되어 있다.

[어원풀이] ‘가마[輦]+바위[岩]’로 분석된다. 가마는 사람이 타고갈 수 있도록 만든 조그만 집 모양의 탈 것을 말한다.

● 가암동(加岩洞)

[별칭] 덤바우, 가암골, 가암리(加岩里)

[형태] 마을

[위치] 원창5리마을회관 서쪽엔 ‘가암동’에서 나가는 ‘영서로’가 지나고, 동쪽은 고가도로로 ‘중앙고속도로’가 지난다. 원창5리마을회관에서 남쪽으로 난 가암1길 지역이 ‘가암동’이다.

[유래] 『동산면지리지』에 “덤바우의 다른 이름이다.”라 소개되어 있다.

[어원풀이] ‘가(加)+암(岩)+동(洞)’으로 분석된다. 가암(加岩)은 덤바우’의 한자 지명이다. 두 개가 겹쳐 있는 바위가 있는 골짜기란 의미이다.

● 가랫골

[형태] 골짜기

[위치] 원창저수지 부근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원창리에 있는 마을. 가래나무가 많다 한다.”라 소개되어 있다.

[어원풀이] ‘가래(가래나무)+ㅅ+골[谷]’로 분석된다. 가래나무가 많은 골짜기란 의미이다.

● 가마바위

[형태] 바위

[위치] 이원사슴목장 산기슭. 이곳에서 계속 서진하면 군자2리, 골프장 더플레이어스CC가 나온다.

[유래] 『동산면지리지』에 “원창리 이원사슴목장 안에 덩그렇게 올라앉은 바위이다. 바위 모양이 가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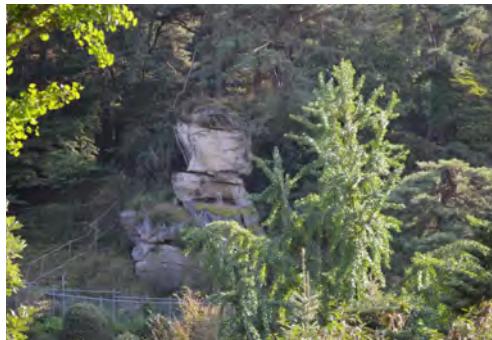
[별칭] 가지동(加芝洞), 가지동골

[형태] 골짜기

[위치] 원창리 907-2번지. 원창3리마을회관에서 동쪽으로 깊숙이 들어가면 나오는 작은 마을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새술막 동쪽 골짜기에는 마을. 가재가 많다 한다.”로, 『동산면지리지』에 “골짜기 양쪽의 나뭇가지가 서로 닿을 정도로 나무들이 울창할 정도로 골짜기 사이가 좁다.”라 소개되어 있다.

[어원풀이] 기존 유래에 따르면 ‘가지/가재+울(고을, 洞)’로 분석된다. ‘가재’는 계와 새우의 중간 모양인데 앞의 큰 발에 집게발톱이 있다. 한국, 일본 등지에 분포한다. 그런데 ‘가재가 많다’는 유래는



가마바위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곳의 지형과 ‘골짜기 사이가 좁다’는 또 다른 유래를 참조하면 ‘갓/가[邊]+[-- 예/애(처격조사)]+을[村]’로 분석할 수 있다. ‘가재 골/가잿골/가자골/가작골/가지골, 가재말, 가재울, 가지동, 가좌동’ 등 여러 변이형을 가지며, 전국에 산재해 있다.

● 경수음덩

[별칭] 경수, 경수물

[형태] 수리

[위치] 원창2리, ‘한국폴리텍대학 춘천1캠퍼스’에서 남쪽으로 조금 가다가 고가도로인 ‘중앙고속도로’ 앞에서 동쪽으로 난 골짜기가 ‘호넷골’이다. 이 ‘호нет골’ 끝에 ‘경수/경수음덩’이 있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원창리에 있는 응덩이라 소개되어 있다.

[어원풀이] ‘경(傾)+수(水)+음덩/웅덩/웅덩이’로 분석할 수 있다. ‘웅덩이’는 움푹 파여 물이貯어 있는 곳으로, ‘늪’보다 훨씬 작다.

● 고갯들

[별칭] 고개뜰

[형태] 들

[위치] 원창고개 아래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원창고개 밑에 있는 들이라 소개되어 있다.

[어원풀이] ‘고개[원창-고개, 峴]+ㅅ+들[坪]’로 분석된다. 고개 부근에 있는 들판이란 의미이다.

● 골안골

[형태] 마을

[위치] ‘매네미’ 마을, 원창4리마을회관 동쪽 가까이에 작은 마을 ‘골안골’이 있다. 동쪽 멀리 수리봉

(644m)이 보인다.

[유래] 골짜기 안쪽에 있는 마을이란 의미이다.

[어원풀이] ‘골[谷]+안[内]+골[谷, 村]’로 분석된다.

● 관거리

[별칭] 관꺼리

[형태] 마을

[위치] 원창2리이다. 폴리텍대학 밑의 마을로, 원창 고개 아래 춘원국도와 팔미천이 만나는 지점이다.

[유래] 『춘천의지명유래』에 “관꺼리라고도 부른다. 원창 앞에 있는 마을. 조선 시대에 원창역이 있었다.”라 하였다. 조선 시대에 역사(驛舍)와 역졸(驛卒)들의 관사(官舍)가 있었던 마을이다. 관(官)의 행차(行次)가 있었던 길로 지금은 인근이 모두 ‘관거리’이다.

[어원풀이] ‘관(官)+거리[路]’로 분석된다.



관거리 마을 전경

● 관거리들

[별칭] 관뜰

[형태] 들

[위치] 고가도로인 ‘중앙고속도로와’와 ‘영서로’ 사이로, 동산면 원창리 1412번지 일대이다.

[유래] 『춘천의지명유래』에 “관거리 부근에 있는 들은 관뜰(들). 관거리 뒤편에 있는 골짜기는 관딧 골”이라 하였다.

[어원풀이] ‘관(官)+거리[路]+뜰[坪]’로 분석된다. ‘관딧골’과 ‘관뜰’ 모두 조선 시대에 있었던 ‘원창 역사(原昌驛舍)’에서 유래하는 지명들이다.

● 관딧골

[별칭] 관뜰골

[형태] 골짜기

[위치] 관거리 뒤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관거리 뒤에 있는 골짜기라 하였다.

[어원풀이] ‘관(官)+뜰[后]+ㅅ+골[谷]’로 분석된다.

● 구암

[별칭] 구암동(鳩岩洞), 굴바우, 굴아우, 구암마을, 원창1리

[형태] 바위, 마을

[위치] 원창1리 3반에 있는 바위이다.

[유래] 『춘천의 지명유래』에 밑에 굴이 뚫린 바위가 있는 마을이라 하였고, 『동산면지리지』에 “옛날에 비둘기가 많았다. 원창1리를 자연마을 이름으로 구암이라고 한다.”라 하였다.



구암 전경

[어원풀이] ‘구(鳩)+암(岩)+동(洞)’으로 분석되고, ‘비둘기가 사는 바위가 있는 마을’이 된다. 규암충 바위에 뚫린 굴속에 비둘기가 많이 살아서 ‘굴아우’ 또는 ‘구암(鳩岩)마을’이라 불렸다. 그 별칭인 고유 지명 ‘굴아우’는 ‘굴(窟)+아우/바우/바위[岩]’로 분석되고, ‘아우’는 ‘바위[岩]’의 강원 방언 ‘바우’에서 어두(語頭) ‘ㅂ’이 목음화(默音化)했다.

● 국립춘천병원하나클리닉

[별칭] 하나클리닉

[형태] 건물

[위치] 영서로 824, 동산면 원창리 713번지

[유래] 2016년부터 국립춘천병원하나클리닉은 북한이탈주민들을 대상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불안, 우울, 알코올 중독 등 맞춤형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한다.

● 금성갓골

[형태] 마을

[위치] 원창1리, ‘굴바우(구암동)’ 인근에 있으며, 예전에 ‘굴바우서낭당’이 있었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금 구덩이가 있었다 한다.”라 하였다.

[어원풀이] ‘금성(金城)+ㅅ+가[邊]+ㅅ+골[谷]’로 분석된다.

● 농바디

[형태] 골짜기

[위치] ‘장승배기, 장승대기들’을 지나 ‘동막골’ 서편 가까이에 있다. ‘영서로’와 ‘원창천’이 ‘농바디’ 동쪽을 지난다. ‘동막골’은 원창3리, 아주 높은 고가도로인 중앙고속도로에서 ‘장승배기(장승대기)들’을 지나 조금 더 내려오면 하천 너머 작은 밭에

있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동막골 옆에 있는 골짜기라 하였다.

[어원풀이] ‘농(農)+밭[田]+이(첩미사)’로 분석된다.

● 농밭이골

[형태] 마을

[위치] 원창5리마을회관 남쪽 가까이 있는 ‘덤바우’에서, 동쪽 200m쯤에 ‘댐봉골’이 있고, 그 뒤쪽 5시 방향 200m쯤에 ‘농밭이골’이 있다.

[어원풀이] ‘농(農)+밭[田]+이(파생첩미사)+골[谷]’로 분석된다.

● 높은텃골

[별칭] 높은터

[형태] 골짜기

[위치] 원창4리 ‘매내미’가 있는 ‘원창고개’ 정상에서 원창2리 ‘관거리’가 있는 ‘풀리택대학’으로 내려오는, 원창고개길 중간쯤에 ‘높은텃골’이 있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지대가 매우 높은 골짜기라 하였다.

[어원풀이] ‘높은[高]+터[垈]+이+골[谷]’로 분석된다.

● 늑골

[형태] 골짜기

[위치] 원창저수지 동쪽 끝에 남동쪽으로 난 골짜기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늑이 있었다는 골짜기라 하였다.

[어원풀이] ‘늑/늪[沼]+골[谷]’로 분석된다.

● 단봉사

[별칭] 연엽산단봉사.

[형태] 사찰

[위치] 원창5리마을회관 가까이 있으며, 영서로 주변에 있다. 동산면 영서로 926. 원창리 754번지이다.

● 달박골

[형태] 골짜기

[위치] 원창3리에서 동쪽으로 지나는 고가도로인 중앙고속도로를 지나자마자, 남쪽으로 꺾어 들어간 곳에 있다. 지금은 ‘가지울길’ 소로가 끝나는 부근이 된다. 원창3리에서 동쪽으로 지나는 고가도로인 중앙고속도로를 지나기 전에는 ‘피박골’이 있다.

[어원풀이] ‘달/다리[達=高, 坪, 野]+박/밭[田]+골[谷]’로 분석할 수 있다.

● 댐봉골

[형태] 마을

[위치] 원창5리 ‘덤바우’ 동쪽 가까이에 있는 작은 마을이다. 그 우측으로 고가도로인 중앙고속도로가 지난다.

[어원풀이] ‘댐봉/댐병/둠병[웅덩이]+골[谷]’로 분석할 수 있다. ‘댐병/둠병’은 남부 방언이며, ‘댐봉’은 그 변이형이다.

● 덕마니골

[별칭] 덩마니골

[형태] 골짜기

[위치] 동산면 원창리 산171-2번지 일대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예전에 어느 관찰사가 덕마니고개를 넘다가 덕만이라는 심복 종을 잃어버렸다 한다.”라 하였다.

[어원풀이] ‘덕만(德蠻, 사람 이름)+{-이}(호격)+골[谷]’로 분석된다.

● 덕재

[별칭] 덕재고개

[형태] 고개

[위치] 『한국지명총람』에 원창리에 있는 고개라 하였다.

[어원풀이] ‘덕[高]+재[峙]’로 분석된다. ‘덕’은 고구려어의 유산으로 ‘達=高=山=德’의 관계에 있으며, 현대국어에는 ‘언덕, 둔덕’의 지명으로 그 흔적을 남기고 있다. 그 의미는 ‘높다[高], 크다[大]’로 전의(轉義)되었다. 이형태로는 ‘덕/덕이/더기’가 있다.

● 덤바위

[별칭] 가암동(加岩洞), 가암리, 덤바우

[형태] 마을

[위치] 원창5리마을회관 바로 앞, 남쪽 산기슭에 있다.

[유래] 『춘천의 지명유래』에 “덤바우가 있는 마을 바위 위에 큰 바위가 덤으로 얹어있어 덤바우라 부른다.”라 하였다.

[어원풀이] ‘덤바위’는 ‘덤[加]+바위[岩]’로 분석된다.

● 독장골

[형태] 골짜기

[위치] 원창5리마을회관에서 북동쪽 원창리 동쪽 끝, 고도 400m~500m 서쪽 산자락에 ‘작은독장골’이 있고 그 남동쪽 400m쯤에 ‘큰독장골’이 있다. ‘작은독장골’과 ‘큰독장골’을 함께 하면 ‘독장골’이다. ‘큰독장골, 작은독장골’에서 동쪽 400m~500m 산을 넘으면 봉명2리 ‘어덩골(어둔골)’ 쪽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가는골’ 옆에 있는 골짜기라 하였다.

[어원풀이] ‘독[石]+장[場]+골[谷]’로 분석된다.

● 독죽골

[별칭] 독주골

[형태] 골짜기

[위치] 한국폴리텍대학춘천1캠퍼스 운동장 위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지금은 밭과 운동장 등으로 개발되어 골짜기 모습은 없어졌다. 그 옆 골짜기인 ‘뫼양골’은 ‘미양골’로 불리며 한국폴리텍대학춘천1캠퍼스에서 남서쪽 골짜기로 역시 크게 개간되어 제법 넓은 골짜기로 변모했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뫠양골 옆에 있는 골짜기라 하였다. 요즘은 ‘독주골’로 불린다.

[어원풀이] ‘독죽/독죽/독주[옹기모양]+ㅅ+골[谷]’로 분석할 수 있다. ‘독주골’은 전국 여러 곳에 있으며, 그 의미나 유래는 1) 주(周)씨 집성촌(獨周村), 2) 골짜기에 한 집만 거주[獨住골], 3) 골짜기가 길어 외로운 길[獨走골], 4) 독주(續主)는 송아지 주인을 가리킨다. 5) 지형이 옹기 모양인 골짜기 등이 있다.

● 돈내미

[형태] 골짜기

[위치] 원창저수지 앞 ‘마산’ 인근에 있다.

[유래] 『동산면지리지』에 “원창저수지 둑에서 좌측으로 올라가면 있는 골짜기이다. 웃돈내미 아랫돈내미가 있다.”라 하였다.

[어원풀이] ‘돈/돌[石]+내미[첩미사]’로 분석된다. 지명첩미사 ‘-내미/-네미’는 전국적으로 공존한다. 그 어원형은 ‘-나미’이며, 모음교체로 ‘-너미’를 가지며, 그리고 모음변이에 의한 ‘-내미/-네미’ 형이 흔히 쓰인다. ‘-나미’가 ‘餘/餘伊’로 훈차(訓借)되어 그 의미를 알게 한다. ‘나미/내미/네미’는 어의 화장되어 ‘넘다[越]’의 의미를 가지는 일이 많다.

● 동동산

[형태] 산

[위치] 원창1리 구암에 있는 산이다.

[유래] 『동산면지리지』에 “구암 사이로 흐르는 팔미천과 할미봉 사이에 있는데 홀로 동동 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동동 떠 있는 모습이라고 해서 동동산이라 한다. 옛날 동동산과 할미산 사이로 지나는 길이 있었다.”라 하였다.

[어원풀이] ‘동동[동동 떠있는 모습]+산(山)’으로 분석된다.



동동산

● 동막골

[형태] 골짜기

[위치] 원창5리 아주 높은 고가도로인 중앙고속도로에서 ‘장승배기(장승대기)들’을 지나 조금 더 내려오면 하천 너머 작은 밭에 있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옛날에 의병들이 막을 짓고 살았다 한다.”라 하였다.

[어원풀이] ‘동(東)+막(幕)+골[谷]’로 분석된다.

● 된봉

[형태] 산

[위치] 원창1리 ‘구암리(굴바우)’ 앞에 뾰족하게 솟은 산이 ‘된봉’이다. ‘된봉’ 기슭에 ‘금성갓골’이 있

고, 예전에 ‘구암서낭당’이 있었다.

[유래] 『동산면지리지』에 원창1리 안산 맞은편에 있는 산봉우리로 산이 가팔라서 올라가기 힘들었다고 하였다.

[어원풀이] ‘된[힘든]+봉(峰)’으로 분석된다.

● 마산(馬山)

[별칭] 마산골

[형태] 산

[위치] 관거리와 원창저수지 사이, 돈내미 인근, ‘안골’ 북쪽에 있는 산이다. ‘마산’ 옆으로 ‘은아리골’로 올라가는 골짜기가 있다.

[유래] 『동산면지리지』에 “관거리 안말 뒤에 있는 마을이다. 말이 나와서 마을을 건너갔다고 한다. 또는 용마가 났는데 죽었다고 한다.”라 하였다.

[어원풀이] ‘마(馬)+산(山)’으로 분석된다. 원창리 ‘마산(馬山)’ 주변은 조선 시대에는 역마(驛馬)를 갈아타던 원창역(原昌驛)이 있었다. 이 ‘역마(驛馬)’와 관련된 ‘용마(龍馬)’가 ‘마산(馬山)’의 유래가 된 것으로 보인다.

● 만명사

[형태] 사찰

[위치] 굴아우 안쪽으로 들어가면 나오는 절이다. 원창리 ‘구암길’ 산중에 있다.

[유래] 주지 스님은 일승종 명산 스님이다.

● 만석포(萬石圃)

[형태] 비석

[위치] 굴아우에서 뒤쪽으로 올라가면 보인다.

[유래] 『동산면지리지』에 “지금의 연못 앞에 있는데 비의 일부가 땅에 묻혀 있다. 만들어진 시기는 단군 4264년으로 기록되어 있다. 안동김씨가 만

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자기 터전을 자랑스럽게 여긴 인물이었다고 전해온다. 만석꾼이 되기를 바라면서 돌에다 새겼다. 예전에도 이곳이 물이 나온 곳이어서 지금의 마을 주민이 좀 더 확장하여 연못으로 만들어놓고 그 앞에 세워져 있는 비를 정성껏 관리하고 있다.”라 하였다.

[어원풀이] ‘만(萬)+석(石)+포(圃)’로 분석된다.



만석포

● 말뒤역보

[별칭] 이후역보(里後驛洑)

[형태] 보(洑)

[위치] 미상이다.

[유래] 『조선지지자료』에 원창리 소재 보(洑) 이름으로 ‘里後驛洑(말뒤역보)’가 기재되어 있다.

[어원풀이] ‘말/마을[村, 里]+뒤[後]+역(驛)+보(洑)’로 분석된다.

● 매네미

[별칭] 매내미, 매나미

[형태] 마을

[위치] 원창4리 마을회관이 있는 마을이다. 홍천 방면에서 춘천으로 오는 원창고개 정상 바로 아래 오른쪽으로 나 있는 골짜기이다. 마을로 올라가면

원창4리 마을회관이 있고, 용화산 수리봉으로 오

르는 등산로가 이어진다. ‘매내미’를 둘로 나누어, 위쪽 ‘매내미’를 ‘큰매내미’라 하고, 아래쪽은 ‘작은 매내미’라 한다.

[유래] 『춘천의지명유래』에 “매봉 너머에 있는 마을. 매가 앓은 모양과 같은 산은 매봉”이라 하였고, 『동산면지리지』에 “옛날에 여기서 매사냥을 했다고 전해 온다. 옛날부터 매가 많아서 매를 잡아 꿩 사냥을 하였다. 6.25 때도 매사냥 하는 것을 보았다.”라 하였다. 요즘은 ‘매내미’로 불린다.

[어원풀이] ‘매[鷹]+나미(접미사)’로 분석된다. 지명 접미사 ‘나미’는 ‘념이/너미/남이/나니/내미/네’ 등의 변이형들이 있으며, ‘넘다[越]->념이’의 의미를 가진다.

● 매봉

[형태] 산

[위치] 원창리 동쪽 끝에 있으며, 그 남쪽엔 연엽산(850m)이, 서쪽엔 수리봉(644m)이, 북쪽엔 동내면 고은리에 소재하는 대룡산(899m)이 있다. 고도는 755.5m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매가 앓은 모양과 같다고 하였다.

[어원풀이] ‘매[鷹]+봉(峰)’으로 분석된다.

● 면냇골

[별칭] 면내골(面內谷)

[형태] 마을

[위치] 동산면(원창리)과 동내면(사암리)의 분계점이다. ‘면냇골’을 넘는 그 북쪽 ‘새거리’ 방향에 있는 지명들은 모두 생활권은 원창리이지만, 이들은 동내면 사암리에 속한다. 즉 ‘절골, 칙발골, 신선바우, 새거리’ 등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천동골 옆에 있는 마을이

라 하였다.

[어원풀이] ‘면(面)+내[川]+ㅅ+골[谷]’로 분석할 수 있다.

● 모래재골

[형태] 골짜기

[위치] 조양리와 원창리를 오가는 ‘영서로’와 동쪽 봉명리의 ‘원무동길’과 서쪽 군자리의 ‘종자리로’가 모두 모이는‘모래재’ 정상에서, 원창5리 마을로 내려가는 골짜기인데, 지금은 4차선 ‘영서로’이다. 동산면 원창리 1264-19번지 일대이다.

[어원풀이] ‘모래/몰[山, 산모랭이]+{-이}/애(처격조사)+재[峙]+골[谷]’로 분석된다. ‘모래/몰’은 산(山)의 고어이다.

● 뒷골

[형태] 골짜기

[위치] ‘석동골, 미양골, 뒷골, 독주골’은 서로 근처에 있는 골짜기이다. 모두 원창2리 한국폴리텍대학춘천1캠퍼스 인근에 있었다. 일부는 대학과 관련 건물 신축으로 많은 부분이 달라졌다. ‘미양골/뫼양골’과 ‘서낭댕이’가 인근에 있었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원창리에 있는 골짜기라 하였다.

[어원풀이] ‘뫼/묘(墓)+ㅅ+골[谷]’로 분석된다.

● 미양골

[별칭] 미양골, 뫼양골

[형태] 골짜기

[위치] ‘석동골, 미양골, 뒷골, 독주골’은 서로 근처에 있는 골짜기이다. 모두 원창2리 한국폴리텍대학춘천1캠퍼스 인근에 있었다. 일부는 대학과 관련 건물 신축으로 많은 부분이 달라졌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뒷골 부근에 있는 골짜기라 하였고, 『동산면지리지』에 원창2리 안말에서 봉명리로 넘어가는 고개가 있는 골짜기라 하였다. ‘미양골’로 불리며 한국폴리텍대학춘천1캠퍼스에서 남서쪽 골짜기로 역시 크게 개간되어 제법 넓은 골짜기로 변모했다.

[어원풀이] ‘미양/미양/뫼양/뫼안/묘안[墓+内]+골[谷]’로 분석된다. ‘묘안골’이 여러 변이형으로 나타났다.

● 바위학

[형태] 바위

[위치] 원창저수지 중간쯤에서 북쪽 산기슭에 있다.

[유래] 화(돌화)이나 절구 모양으로 우뚝하게 펴인 바위이다.

[어원풀이] ‘바위(岩)+화[돌화]’으로 분석할 수 있다. ‘돌화’은 돌을 우뚝하게 파서 절구 모양으로 만든 물건이다.

● 밤나무골

[형태] 골짜기

[위치] 원창5리에서 고가도로인 중앙고속도로를 지나 동쪽 거의 끝에 있는 골짜기이다. 지금은 그 인근까지 ‘가암길’이 지난다. ‘밤나무골’ 북쪽 가까이에 ‘수용골(큰수용골. 작은수용골)’이 있다.

[어원풀이] ‘밤나무[栗]+골[谷]’로 분석된다.

● 배굴구미

[형태] 골짜기

[위치] ‘호냇골’ 입구, ‘호냇들’ 근처에 있었다. 그 앞으로 ‘영서로’와 ‘원창천’과 고가도로인 ‘중앙고속도로’가 같이 지난다. ‘호냇골’은 원창2리, ‘한국폴리텍대학 춘천1캠퍼스’에서 남쪽으로 조금 가다

가 고가도로인 ‘중앙고속도로’ 앞에서 동쪽으로 난 골짜기다. 이 ‘호냇골’ 끝에 ‘경수/경수음정’이 있었고, ‘호냇골’ 입구엔 ‘배굴구미’가 있었다.

[어원풀이] ‘배굴/배구례/배꾸례[진구리]+구미(지명접미사)’로 분석할 수 있다. ‘배꾸례’는 ‘진구리’의 강원 방언으로, ‘허리 양쪽으로 잘록하게 들어간 부분’을 가리킨다.

● 범바위

[형태] 바위

[위치] ‘가지울’ 뒤쪽에 있는 바위를 말한다.

[어원풀이] ‘범[虎]+바위[岩]’로 분석된다.

● 보매깃골

[형태] 골짜기

[위치] 미상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보를 막은 골짜기라 하였다.

[어원풀이] ‘보(深)+매기/막이[閉]+ㅅ+골[谷]’로 분석된다.

● 봉위

[별칭] 봉우이, 봉예, 봉의, 봉이

[형태] 마을

[위치] 굽아우 뒤쪽 봉위언덕 밑에 있는 마을이다. 이곳을 넘어가면 금병산이 나오고 우측으로 넘어가면 원창고개 정상과 만난다. 원창리에 있는 산으로 봉이언덕이 있다.

[유래] 『춘천의지명유래』에 “봉위언덕 밑에 있는 마을. 원창리에 있는 산으로 봉이 언덕이 있다. 언덕으로 되어있다. 봉이언덕 밑에 있는 골짜기는 봉이큰골”이라 하였고, 『동산면지리지』에 “옛날에는 이 고개를 걸어 넘어 다녔다.”라 하였다. 요즘은 ‘봉우이’로 불린다.

[어원풀이] ‘봉(峰)+위[上]’로 분석된다.

● 봉이언덕

[별칭] 봉우이언덕, 봉위언덕, 봉의언덕, 봉에언덕

[형태] 산

[위치] 『동산면지리지』에 “봉이큰골 위에 있다.”라 하였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원창리에 있는 산. 언덕으로 되었다.”라 하였다.

[어원풀이] ‘봉(峰)+이/위[上]+언덕’으로 분석된다.

● 봉이골

[별칭] 봉우이골, 봉위골, 봉의골, 봉에골

[형태] 골짜기

[위치] 동산면 원창리 산152번지 일대로 금병산에서 5시 방향으로 2km쯤에 있다.

[유래] 요즘 지도에는 ‘봉우이골’로 표기된다. 금병산을 남쪽, 원창리에서 등산할 경우 ‘봉우이골’ 근처에서 출발한다.

[어원풀이] ‘봉(峰)+이/위[上]+ㅅ+골[谷]’로 분석된다.

● 봉이큰골

[별칭] 봉우이큰골, 봉위큰골, 봉의큰골, 봉에큰골

[형태] 골짜기

[위치] 『한국지명총람』에 봉이언덕 밑에 있는 골짜기라 하였다.

[어원풀이] ‘봉(峰)+이/위[上]+큰[大]+골[谷]’로 분석된다.

● 불당재

[형태] 고개

[위치] 미상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불당이 있었던 골짜기 인

근 고개라 하였다.

[어원풀이] ‘불당(佛堂)+재[峙]’로 분석된다.

● 상명고개

[별칭] 상명암고개

[형태] 고개

[위치] 『한국지명총람』에 봉명리의 상명암으로 가는 고개라 하였다.

[어원풀이] ‘상(上)+명/명암(鳴岩)+고개[峴]’로 분석된다.

● 새술막

[별칭] 신점리(新店里)

[형태] 마을

[위치] 원창3리마을회관 앞 원창삼거리 주변에 있다. 사거리 모습이지만 마을회관으로 가는 길은 비교적 작은길이어서 예전부터 ‘원창삼거리’라 했다.

[유래] 『조선지지자료』에 원창리 소재 주막이름으로 ‘新店酒幕(시술막)’이 기재되어 있다. 『춘천의지명유래』에 “새로 생긴 술집이 있던 마을. 신문화가 들어온 이후 새 술집이 생긴 것에 따라 생긴 이름”이라 하였고, 『동산면지리지』에 “1910년대 춘천과 홍천 도로가 생길 때 새로 주점이 생겨서 이름 붙여졌는데 주점이라고도 불렸다.”라 하였다.

[어원풀이] ‘새[新]+술[酒]+막[幕]’으로 분석된다.

● 샘물터

[별칭] 샘터

[형태] 샘

[위치] 미상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좋은 샘물이 있던 터라 하였다.

[어원풀이] ‘샘[泉]+물[水]+터[垈]’로 분석된다.

● 샛골

[형태] 골짜기

[위치] ‘샛골’에서 서쪽으로 ‘은아리골’과 동쪽으로 폐광된 금광(金礦)이 있는 사이 길이다. ‘은아리골’ 동쪽에 있는 ‘샛골’ 앞에 폐광된 금광이 있었다.

[어원풀이] ‘새[間]+ㅅ+골[谷]’로 분석된다.

● 서낭댕이

[형태] 터

[위치] ‘핏골’과 ‘미양골/庇양골’이 인근에 있었다.

[어원풀이] ‘서낭당+앙이(파생접미사)’로 분석된다.

● 석동골

[별칭] 석등골

[형태] 골짜기

[위치] ‘석동골, 미양골, 핏골, 독주골’은 모두 원창2리에 있는 골짜기이다. 한국폴리텍대학춘천1캠퍼스 인근에 있었다. 일부는 대학과 관련 건물 신축으로 많은 부분이 달라졌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미양골 옆에 있는 골짜기라 하였다.

[어원풀이] ‘석(石)+동(洞)+골[谷]’로 분석된다.

● 세거리

[형태] 마을

[위치] 서쪽 수리봉(644m)과 동쪽 매봉(755.5m) 중간쯤에 있다. 매봉에서 ‘세거리’는 북서쪽이 된다. 원창저수지 - 순동골 - 왁발골 - 면내골 - 칡박골 - ‘세거리’로 이어진다. ‘세거리’에서 북서쪽은 동내면 사암리 ‘세거분교’가 있던 곳으로 이어지는 길이고, 북동쪽은 홍천군 북방면 북방리에 속하는 ‘박달재(고개)’를 넘어 ‘박달재골’로 내려가 ‘북방리’로 가는 세 거리로 된 길목이다. ‘세거리’의 행

정구역은 동내면 사암리이다. ‘세거리’는 동내면 사암리에 속하지만, 동산면 원창리의 ‘원창저수지’와 ‘천동골’과 더 관련된다. 대룡산의 계곡물은 기암절벽들과 ‘세거리’를 거쳐 ‘천동골’을 지나 ‘원창저수지’로 들어간다. 그리고 원창리, 군자리, 증리, 혈동리, 팔미리, 의암리를 거쳐 북한강으로 흘러간다. ‘원창저수지’ 수로를 통해서는 학곡리, 갈기리, 신천천에 합류해 ‘공지천’에 이른다.

[유래] 『동산면지리지』에 “천동골에 있던 마을 이름이다. 와박골을 지나면 면내골이 있고, 면내골을 지나면 세거리가 있었다. 세거리에 세거초등학교가 있었다. 지금은 학교 자리에 기도원이 들어섰다.”라 하였다. 원창저수지로 인해 ‘천동골’ 일부는 수몰되고, ‘천동골’ 월마을 ‘세거리’는 고립되었다. 원창저수지가 없던 시절에는 화전민이 많았고, ‘천동골’ 아이들도 동내면 사암리 ‘세거분교’를 다녔다.

[어원풀이] ‘세[三]+거리[街]’로 분석된다.

● 세운골

[형태] 골짜기

[위치] 원창5리마을회관에서 동쪽 고가도로인 중앙고속도로를 지나면 나오는 남쪽 골짜기이다.

[어원풀이] ‘세운/세우-[起]+乚(관형사형어미)+골[谷]’로 분석할 수 있다.

● 소룡골

[별칭] 소룡곡(小龍谷)

[형태] 골짜기

[위치] 미상이다.

[유래] 『조선지지자료』에 원창리 소재 골짜기 이름으로 ‘小龍谷(소룡골)’이 기재되어 있다.

[어원풀이] ‘소(小)+룡(龍)+골[谷]’로 분석된다.

● 수리봉(守里峰)

[형태] 산

[위치] 동내면 고은리에 소재하는 대룡산에서 남쪽으로 이어진 봉우리로 고도는 644m이다. 원창고개를 넘어 금병산으로 이어진다. 수리봉 동쪽엔 매봉이 있고, 다시 매봉 남쪽, 연엽산과 동산면 봉명리에 소재하는 구절산으로 이어진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독수리처럼 생긴 산봉우리라 하였다. 『동산면지리지』에 “원창리에는 수리봉이 두 곳이다. 조릿턱골에서 마주 보이는 산과 대룡산 옆에 있는 봉우리이다. 조릿턱골에서 마주 보이는 수리봉은 진병산과 가깝고 산에 오르면 원창저수지와 대룡산의 미사일 군부대가 보인다고 한다. 산의 모양이 독수리가 웅크리고 있는 모양이라 한다. 대룡산 옆에 있는 수리봉은 대룡산과 원창고개 사이에 위치해 있다. 이 수리봉은 옛날 독수리가 살면서 마을에 있는 닭을 낚아채 갔다고 한다.”라 하였다.

[어원풀이] ‘수리[鷹]+봉(峰)’으로 분석된다. 수리봉(守里峰)이 가지는 훈차(訓借) 표기 ‘수리(守里-)’에 따르면 춘천에서 홍천-원주를 넘나드는 관문인 원창고개를 지키는[守] 산이므로, ‘옹(鷹)’보다는 고구려어 ‘수리([述爾] : 峰, 山, 頭)’일 수 있다. 봉성현(峰城縣)의 옛 이름이 술이홀현(述爾忽縣)인 것과 관련이 있다.

● 수양들

[별칭] 수영들, 수영뜰

[형태] 들

[위치] 원창보건진료소와 진인고등학교 서편 가까이에 있다. 동산면 원창리 1164-7번지 일대이다. 지금은 ‘현우목장’ 앞쪽 들이다.

[유래] 『동산면지리지』에 “안산 뒤에서 구암 밑 군

자리 쪽에 있는 들이다. 옛날 버드나무가 많았다.”라 하였다.

[어원풀이] ‘수양(수양벼들)+들[野]’로 분석할 수 있다.

● 순두미골

[별칭] 순두미재골

[형태] 골짜기

[위치] 원창5리마을회관에서 북동쪽 1.5km쯤에 있다. 원창5리마을회관과 ‘순두미재골’ 사이 중간쯤에 ‘달박골’이 있다.

[유래] 요즘은 ‘순두미재골’이라 한다.

[어원풀이] ‘순두미+골[谷]’로 분석할 수 있다. ‘순두미’의 의미는 불분명하다.

● 쉬영골

[별칭] 시영골

[형태] 골짜기

[위치] 원창5리에 있다. 가암길을 지나 한참을 오르면 나타나는 골짜기이다. 인근에 중앙고속도로가 지난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원창들에 있는 산골짜기라 하였고, 『동산면지리지』에 “주변은 주로 복숭아나무와 사과나무 천지이다. 골은 좁으며 길은 구불구불하여 주변 경관이 뛰어나다.”라 하였다.

[어원풀이] ‘시용/쉬영+골[谷]’로 분석된다. ‘쉬영’은 ‘수양벼들’의 남부 방언이다.

● 천동골

[별칭] 오십곡(五十谷)

[형태] 마을

[위치] 동산면 원창리 산12-1번지 일대이다. 지금은 ‘천동골’의 남단이 원창저수지에 수몰되고, 해발 300m 정도 상부만 조금 북쪽에 남아있다. ‘천

동골계곡’의 행정구역은 동내면 사암리이다.

[유래] 『조선지지자료』에 원창리 소재 골짜기 이름으로 ‘五十谷(천동골)’이 기재되어 있다. 『한국지명총람』에 “옛날에 집이 50호 있었다.”라 하였고, 『동산면지리지』에 “천골 또는 오십곡이라고도 부르는데 옛날 이곳에 50가구가 살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천동골 옆이 면내골이다. 천동골에 세거초등학교가 있었다. 천동골은 이 지역 마을의 중심소재지였다. 원창4리이다.”라 하였다.

[어원풀이] ‘천[五十]+동(洞)+골[谷]’로 분석된다.

● 시공골

[형태] 골짜기

[위치] ‘수용골(큰수용골. 작은수용골)’ 4시 방향 500m쯤에 ‘시공골’이 있고, ‘시공골’에서 300m쯤에 ‘밤나무골’이 있다. ‘시공골’을 중심으로 비슷한 거리 동쪽엔 ‘큰수용골’이 있고, 서쪽엔 ‘작은수용골’이 있다.

[어원풀이] ‘시공+골[谷]’로 분석할 수 있다. ‘시공’의 의미는 불분명하다.

● 신선바우

[형태] 바위

[위치] 행정구역은 동내면 사암리이다. ‘세거리’ 남쪽, ‘칡박골’ 근처에 있다.

[어원풀이] ‘신선(神仙)+바우/바위[岩]’로 분석된다.

● 아갈바우

[형태] 바위

[위치] 미상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아가리를 벌린 형국의 바위라 하였다.

[어원풀이] ‘아갈/아가리+바우/바위[岩]’로 분석된

다. ‘이가리’는 ‘입’을 속되게 이르는 말이다. 그밖에, 물건을 넣고 내고 하는, 병·그릇·자루 따위의 구멍의 어귀를 뜻한다. 때론 굴, 천막, 하수구 따위의 드나드는 어귀이기도 하다. ‘아갈바우’는 전국 여러 곳에 있는 바위 이름이다. 우리말 ‘굴[穴], 아가리[口], 아구지[口]’는 어원 ‘불[穴]’이 ‘굴[穴]’·‘굴[穴]’으로 전이(轉移)되고, 다시 ‘불+굴’이 ‘바깥’에서, ‘아갈/아가리[口]’와 ‘아구디/아구지[口]’로 그리고 일본어 ‘くち [kutsi](口)’로 변화했다.



안산

● 안말

[형태] 마을

[위치] 한국폴리텍대학춘천1캠퍼스 들어가는 길목 아래에 있다. 인근 도로지명은 모두 ‘원장안말길’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산 밑 구석에 있는 마을이라 하였고, 『동산면지리지』에 “마을이 안쪽에 있다고 해서 안말이라 한다.”라 하였다.

[어원풀이] ‘안[內]+말/마을[村]’로 분석된다.

● 안말들

[형태] 들

[위치] 전인고등학교에서 북서쪽을 지나는 ‘원창천(팔미천)’ 바로 위에 있는 들이다. 동산면 원창리 1121-2번지 일대이다.

[어원풀이] ‘안[內]+말/마을[村]+들[坪]’로 분석된다.

● 안산

[형태] 산

[위치] 원창1리 구암마을 가운데 우뚝 솟아 있는 산으로, 구암과 안산들 사이에 흘로 우뚝 서 있다.

[어원풀이] ‘안산(案山)’은 풍수지리에서, 집터나 뛷 자리의 맞은편에 있는 산이다.

● 안산골

[형태] 골짜기

[위치] 안산 마을 앞에 있는 골짜기이다.

[어원풀이] ‘안산(案山)+골[谷]’로 분석된다. ‘안산’ 참조.

● 안산들

[형태] 들

[위치] 원창삼거리 ‘새술막’에서 서쪽 전인고등학교로 가면 학교 기숙사 앞쪽이 ‘안산들’이다. 동산면 원창리 923-27번지 일대이다.

[유래] 『춘천의지명유래』에 “마을 앞에 있는 들. 마을 앞에 있는 골짜기는 안산골”이라 하였다.

[어원풀이] ‘안산(案山)+들[坪]’로 분석된다. ‘안산’ 참조.

● 앞들

[형태] 들

[위치] ‘덤바우(가암리)’마을, 원창5리마을회관 앞에 있다.

[유래] ‘덤바우(가암리)’에서 가장 큰 들이다.

[어원풀이] ‘앞[前]+들[坪]’로 분석된다.

● 어름골

[별칭] 얼음골

[형태] 골짜기

[위치] 원창5리에서 동쪽으로 난 '가암길'이 끝나는 부근에 위치하는 '(큰)수용골'에서, 길 중간쯤 오른편에 작은 공터가 있는 골짜기이다.

[유래] 4월까지도 얼음이 녹지 않아 '얼음골'이라 불렸다고 한다.

[어원풀이] '어름/얼음[氷]+골[谷]'로 분석된다.

우거져 하늘만 보인다."라 하였다.

● 오세영미술관

[형태] 건물

[위치] 동산면 원창안말길 46. 동산면 원창리 411-3번지. 폴리텍대학 남쪽 인근에 있다.

[유래] 오세영(1939~): 서울출생.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를 졸업, 홍익대학교 대학원 공예과를 졸업했으며, 뉴욕 프랫대학원과 펜실베이니아 미술대학교 대학원 회화과에서 수학했다. '주한영국문화원 초대전', '문예진흥원', '생 폐테르부르크러시아 국립미술관 초대 개인전', '박영덕 화랑', '예술의 전당' 등 다수의 개인전과 국내외에서 많 은 단체전을 가졌다. 또한 샌프란시스코 현대미술관 주최 판화전에서 은상을 미디어 예술제 1등상 (펜실베이니아, 미국), 제6회 국제 판화 비엔날레 옥스퍼드갤러리상(영국), 미국평론가가 뽑은 해외작 가 특별상, 알렉스파풀 금상(필라델피아 판화가 협회, 미국), 제3회 평론가상(몬드리 화랑, 미국)을 수상했다. 현재 오우드번 아티스트 회원(뉴욕작가협회)이며, 필라델피아 수채화 판화가 협회 간사(미국), 한국미술협회 서양화 분과위원, 한서대학교 교수로 재직한 바 있다.

● 여우바우골

[형태] 골짜기

[위치] 미상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마을 뒷산에 여우가 살던 바위가 있다."라 하였다.

[어원풀이] '여우[狐]+바우[岩]+바위[岩]+골[谷]'로 분석된다.

● 연엽산(蓮葉山)

[형태] 산

[위치] 홍천군 북방면과 춘천시 동산면 경계를 이루는 산으로 해발 850m이다.

[유래] 『동산면지리지에』에 "천지개벽이 일어나 산 밑은 다 잠기고 연꽃잎만큼만 물에 잠기지 않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춘천시 동쪽 대룡산(大龍山·899.4m)이 모산이다. 산세도 그리 험하지 않고 찾는 이도 적어 원시림이 그대로 보존된 숲과 계곡이 비경을 이루고 있다. 계곡에는 울창한 숲 속으로 기암절벽이 이어지고 크고 작은 연못이 곳곳에 흘어져 있어 등산과 함께 계곡의 경치를 즐길 수 있는 산이다. 강원대학교 연습림이기도 한 연엽산은 수백 년 된 노송들이 빽빽하고 나무들이 우거져 있다. 정상은 무인대피소와 아름드리 잡목이

● 온정터

[형태] 마을

[위치] 동산면 원창리 861번지. 원창3리마을회관에서 북쪽 가까이 작은 숲 오른쪽에 있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더운 샘물이 있던 마을이라 하였다.

[어원풀이] '온(溫)+정(井)+터[基]'로 분석된다.

● 응장골

[형태] 골짜기

[위치] 중앙고속도로 춘천휴게소 우측, 바로 옆으로 난 골짜기이다. 동산면 원창리 213-36번지 일대이다.

[어원풀이] ‘옹장(甕場)+골[谷]’로 분석된다. ‘옹장골’은 전국에 산재하며, 대부분 ‘옹기를 굽던 곳’과 관련된다.

● 왁박골

[형태] 골짜기

[위치] 원창저수지와 연엽산 사이에 있다. 원창저수지에서 ‘순동골’을 거쳐, 국립강원대학교학술림 원창초소(폐쇄) 임도(林道)로 ‘왁박골’을 지나 연엽산에 이른다. 요즘은 자전거 라이딩코스로 ‘원창고개 옛길-원창저수지-왁박골’ 임도-물터삼거리-연엽산 임도-연화사-북방면’을 휘몰아 달린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원창들의 동쪽에 있는 마을. 왁박골에 있는 너설은 왁박골서델이라고 한다.”라 하였고, 『동산면지리지』에 “원창4리 순동골 옆에 있던 마을이다. 왁박골에는 바위가 많았다. 왁박골에서 곧장 올라가면 면내골이다. 왁박골과 면내골은 옛날 사람이 많이 살았다.”라 하였다.

[어원풀이] ‘왁박+골[谷]’로 분석되며, ‘왁박’은 ‘왁박골서델’과 연관된다. ‘서델’은 ‘강가에 돌이 널부러져 있는 형상’이고, ‘너설’은 ‘험한 바위가 무섭게 내민 곳’을 뜻한다. ‘왁박골’은 ‘산속 험한 돌투성이 골짜기’로서 ‘산비탈에 돌들이 많은 곳’을 뜻하는 즉, ‘너설’과 ‘서델’을 결합한 ‘너덜너덜’한 ‘(왁박)너덜경’이기도 하다. ‘왁박’은 ‘서델, 너설, 너덜경’ 등에서 유추하여 <‘우악(의)’스럽게 ‘박’힌 돌/바위>의 단축말로도 해석 가능하다.

● 원장들

[별칭] 원장터(員場터/元長터)

[형태] 들

[위치] 원창3리마을회관과 ‘장승배기, 장승대기들’ 중간쯤에 있으며, ‘원창천(原昌川)’ 바로 위에 있다.

[유래] 『동산면지리지』에 “춘천에서 새술막으로 가는 우측에 위치해 있다. 새술막 못 미쳐 팔미천을 건너 있는 마을 앞에 있는 들이다.”라 하였다.

[어원풀이] ‘원(원님, 員)+장[場所]+들[坪, 野]’로 분석된다.

● 원창(原昌)

[별칭] 원창역

[형태] 마을

[위치] 『동산면지리지』에 “지금의 폴리텍대학 밑쪽을 말하는데, 예전에 춘천 원주 간의 도로 옆에 정부 곡식 창고가 있던 곳이다.”라 하였다.

[유래] ‘원창(原昌)’은 행정구역 원창리(原昌里)의 바탕이 되었다. 조선시대에는 역마(驛馬)를 갈아타던 원창역(原昌驛)이 있었다.

● 원창고개

[별칭] 원창현(原昌峴), 원창치(原昌峙)

[형태] 고개

[위치] 원창리와 학곡리를 연결하는 고개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원창 북쪽에 있는 고개. 높이 317m 신동면 학곡리를 통한다. 춘천으로 들어오는 관문처럼 되어 원창고개에서 춘천시가지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다.”라 하였다. 예전 ‘원창고갯길[原昌峴]’, 5번국도 ‘차도 원창고갯길’, ‘중앙고속도로 ‘원창고갯길’이 있다.

[어원풀이] ‘원창(原昌)+고개[峴]’로 분석된다.

● 원창고개골

[형태] 골짜기

[위치] 원창리 쪽 원창고개 입구에 있는 골짜기이다. 동산면 원창리 산109-15번지 일대이다.

[유래] ‘원창(原昌)+고개[峴]+골[谷]’로 분석된다.

● 원창들

[별칭] 원창평(原昌坪)

[형태] 들

[유래] 『조선지지자료』에 원창리 소재 들판이름으로 ‘原昌坪(원창뜰)’이 기재되어 있고, 『한국지명총람』에 원창 앞에 있는 들이라 하였다.

[어원풀이] ‘원창(原昌)+들[坪]’로 분석된다.

● 원창저수지

[형태] 수리

[위치] 원창5리, 한국폴리텍대학춘천1캠퍼스 동편 깊숙이 있다. 순동골 골짜기 앞에 자리한다.

[유래] 주변 306ha 농경지의 관개를 위해 1985년 착공, 1998년 준공된 저수지이다. 높이 40m, 길이 230m에 322만5000m³의 저수량을 자랑하며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다. 특히 하루 5만t의 물을 수로(원창 저수지~학곡리 갈기리저수지~갈길천~학곡천 합류지점~신촌천 합류지점~공지천)를



원창저수지

통해 공지천에 방류하여 춘천시민들에게도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저수지이다.

● 은아릿골

[별칭] 은아리골

[형태] 골짜기

[위치] 원창4리 ‘매네미’와 수리봉 사이로 수리봉 아래쪽 넓은 터에 있다. ‘은아리골’ 동쪽에 있는 ‘셋골’ 앞에 폐광된 금광이 있었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옛날 어떤 사람이 혼몽을 하여 은항아리를 캤다 한다.”라 하였다.

[어원풀이] ‘은(銀)+항아리/아리+ㅅ+골[谷]’로 분석된다.

[유래답] <은항아리가 나온 은아릿골>

원창리에 살던 이서방이 산에 나무를 하러 갔다가 잡들었는데, 꿈에 산신령이 나타나 골짜기 노송 밑을 파보라 하기에 그 말대로 하였더니 은항아리가 나왔다. 마음씨 착하고 효성심이 지극한 이서방이 큰 부자가 되었다는 소문이 퍼져 근처 마을사람들도 열심히 일을 하게 되었다는 전설이 전한다.

● 자라바위

[형태] 바위

[위치] ‘원창저수지’와 ‘순동골’ 사이 산기슭에 있다.

[유래] 누군가 이 ‘자라바위’를 잘랐더니 피가 나왔다고 한다.

[어원풀이] ‘자라[鼈]+바위[岩]’로 분석된다.

● 작골

[형태] 골짜기

[위치] ‘장승대기들’에서 북서쪽 500m쯤에 있다. ‘작골’과 ‘장승대기들’은 원창2리, 폴리텍대학에서 2km 남짓한 거리에 있다.

[어원풀이] ‘작/잣/잣나무[柏]+골[谷]’로 분석할 수 있다. ‘잣’은 잣나무의 열매로, 솔방울 같은 단단한 송이에 들어 있으며, 맛이 고소하고 기름기가 많아 기름을 내거나 고명으로 쓴다.

● 작은개울

[형태] 하천

[위치] 미상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큰 개울 옆에 있는 작은 개울이라 하였다.

[어원풀이] ‘작은[小]+개울[川]’로 분석된다.

● 작은독장골

[형태] 골짜기

[위치] 원창5리마을회관에서 북동쪽 원창리 동쪽 끝, 고도 400m~500m 서쪽 산자락에 ‘작은독장골’이 있고 그 남동쪽 400m쯤에 ‘큰독장골’이 있다. ‘큰독장골, 작은독장골’에서 동쪽 400m~500m 산을 넘으면 봉명2리 ‘어정골(어둔골)’ 쪽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가는골 옆에 있는 골짜기라 하였고, 『동산면지리지』에 “원창5리 덤바우에 있는 골짜기이다. 가는골 옆에 있다. 작은 독장골과 큰 독장골이 있다.”라 하였다.

[어원풀이] ‘작은[小]+독[石]+장(場)+골[谷]’로 분석된다.

● 작은매네미

[형태] 마을

[위치] 원창4리 마을회관이 있는 마을이다. 홍천 방면에서 춘천으로 오는 원창고개 정상 바로 아래 오른쪽으로 나 있는 골짜기이다. 마을로 올라가면 원창4리 마을회관이 있고, 용화산 수리봉으로 오르는 등산로가 이어진다. ‘매내미’를 둘로 나누어,

위쪽 ‘매내미’를 ‘큰매내미’라 하고, 아래쪽은 ‘작은 매내미’라 한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매너미의 작은 마을이라 하였다.

[어원풀이] ‘작은[小]+매[鷺]+네미’로 분석된다. ‘매네미’ 참조.

● 작은수용골

[형태] 골짜기

[위치] 원창5리에서 고가도로인 중앙고속도로를 지나 동쪽 거의 끝에 있는 골짜기이다. 지금은 그 인근까지 ‘가암길’이 지난다. ‘수용골(큰수용골/작은 수용골)’ 4시 방향 500m쯤에 ‘시공골’이 있고, 시공골에서 300m쯤에 ‘밤나무골’이 있다.

[유래] 산 쪽으로 길게 형성된 마을이라 논밭보다는 과수원이 많다. 특히, 이 지역의 복숭이는 일교차가 커 당도가 높아 인기가 좋다.

[어원풀이] ‘작은[小]+수용+골[谷]’로 분석할 수 있다. ‘수용’의 의미는 불분명하다.

● 작은조갱기골

[별칭] 작은조갱이골

[형태] 골짜기

[위치] 새술막길 왼쪽에 있는 ‘조갱기골’ 인근으로, 동산면 원창리 1138-1번지 일대이다.

[어원풀이] ‘작은[小]+조갱이/조강이+골[谷]’로 분석된다. 조강이는 지게미와 쌀겨라는 뜻으로, 가난한 사람이 먹는 변변치 못한 음식을 이르는 말이다. 지게미와 쌀겨로 끼니를 이을 때의 아내라는 뜻으로, 몹시 가난하고 천할 때에 고생을 함께 겪어 온 아내를 이르는 말이기도 하다.

● 장구배미

[형태] 들

[위치] 미상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장구처럼 생긴 논이라 하였다.

[어원풀이] ‘장구(국악 타악기의 하나)+배미(접미사)’로 분석된다. 장구 모양과 같이 가운데가 잘록하게 생긴 논배미를 말한다. 농지 정리가 잘 안 되었던 예전엔 ‘장구배미’란 이름이 곳곳에 있었다.

● 장수뫼

[형태] 묘

[위치] 미상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장수가 묻힌 뒤라 하였다.

[어원풀이] ‘장수(將帥)+뫼/묘(墓)’로 분석된다.

● 장승백이

[별칭] 장승배기

[형태] 마을

[위치] 『동산면지리지』에 “원장터에서 관거리로 들어오는 회포(回浦) 있는 곳이다. 관거리에서 회포의 길을 돌아 원장터로 가기 전 팔미천을 건너 있는 작은 마을이다.”라 하였다.

[유래] 『동산면지리지』에 “옛날 이곳은 관거리마을로 들어오는 입구였다. 그래서 이곳에 장승을 세웠다. 장승백이 마을 위로 고속도로 다리가 놓여 있다.”라 하였다.

[어원풀이] ‘장승(長牲)+백이/배기/박이(접미사)’로 분석된다. 장승은 돌이나 나무에 사람의 얼굴을 새겨서 마을 또는 절 어귀나 길가에 세운 풋말이다. 10리나 5리 간격으로 이수(里數)를 나타내 이정표 구실을 하거나, 마을의 수호신 역할을 한다. 대개 남녀로 쌍을 이루어 한 기둥에는 ‘천하대장군(天下

大將軍)’, 또 한 기둥에는 ‘지하여장군(地下女將軍)’이라고 새긴다. 지명접미사 ‘-배기’는 ‘접박이’, 불박이, 차돌박이’에 접미된 ‘무엇이 박혀 있는 것을 나타내는 뜻’을 가진 ‘-박이’의 방언형(-배기)이 지명으로 접미사화한 것이다.

● 장승대기들

[별칭] 장승배기들

[형태] 들

[위치] ‘장승배기’ 바로 앞에 있는 들이다. 원창5리에서 고도가 아주 높은 중앙고속도로를 지나 하천 건너 위쪽에 있다. 바로 북쪽에 ‘작골’이 있다.

[유래] 『동산면지리지』에 “장승배기, 장승대기들/장승배기들’은 옛날 관거리마을로 들어오는 입구였다. 그래서 이곳에 장승을 세웠다. 장승백이 마을 위로 고속도로 다리가 놓여 있다. 이젠 장승배기는 찾아볼 수 없다.”라 하였다.

[어원풀이] ‘장승대기들’은 ‘장승배기들’의 변이형이다. ‘장승(長牲)+대기//배기/백이/박이(접미사)+들[坪]’로 분석된다.

● 전인고등학교

[별칭] 전인대안학교

[형태] 학교

[위치] 동산면 새술막길 630. 원창리 923-1번지. 원창1리 새술막길에 위치해 있다.

[유래] 학교의 공식적인 분류는 “대안학교”이지만 사실상 개방형 자율학교의 성향이 강하다. 2005년 개교하였다.



천인고등학교

● 절골

[형태] 골짜기

[위치] 행정구역은 동내면 사암리이다. 원창저수지에서 동쪽으로 ‘쉰동골’과 ‘면내골’을 지나면 북쪽 ‘세거리’ 쪽으로 꺾어지기 전, 남쪽으로 난 골짜기이다. 계속 동진하면 연엽산이다.

[유래] 예전에 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폐사되었다고 한다.

[어원풀이] ‘절[寺]+골[谷]’로 분석된다.

● 조갱이

[형태] 조갱기

[형태] 마을

[위치] 새술막길 원쪽에 있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원창들 옆에 있는 마을이라 하였다.

[어원풀이] ‘조갱이’는 ‘조강이’의 ‘ㅣ’ 모음역행동화(Umlaut현상)인 변이음이며, ‘조강이’는 지게미와 쌀거리는 뜻으로, 가난한 사람이 먹는, 변변치 못한 음식을 이르는 말이다.

● 조리텃골

[형태] 마을

[위치] 춘천에서 원창고개를 넘으면서 곧바로 오른쪽으로 들어가면 마을이 나온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지형이 조리처럼 생겼다 한다.”라 하였고, 『동산면지리지』에 “지형이 조리처럼 생겼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원창4리이다. 금병산 쪽에서 보면 마을의 형국이 쌀을 일 때 쓰는 조리처럼 생겼다.”라 하였다.

[어원풀이] ‘조리(笊籬)+터[垈]+ㅅ+골[谷]’로 분석된다. 조리는 쌀을 이는 데에 쓰는 기구이다.

● 지석묘2기

[별칭] 고인돌 2기

[형태] 고적

[위치] 통합기준점에 있다.

[유래] 『동산면지리지』에 “지석묘 하나는 가로 2m 정도 세로 1m30cm 정도이며, 다른 하나는 가로 3m 정도 세로 1m20cm 정도의 규모이다. 지석묘 옆으로는 팔미천이 흐른다.”라 하였다.



군자리와 원창리 사이에 있는 지석묘

● 칡박골

[형태] 골짜기

[위치] 행정구역은 동내면 사암리이다. ‘세거리’ 남쪽 가까이에 있다. 인근에 ‘신선바위’가 있다.

[어원풀이] ‘칡[葛]+박/밭[田]+골[谷]’로 분석할 수

있다.

● 큰개울

[형태] 하천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원창리에 있는 큰 내”라 하였다.

● 큰골

[별칭] 봉위큰골

[형태] 마을

[위치] ‘봉위’ 언덕 밑에 있다. 중앙고속도로 ‘원창터널’ 남쪽, ‘원창천(팔미천)’ 옆이다.

[어원풀이] ‘큰[大]+골[谷]’로 분석된다.

● 큰독장골

[별칭] 독장골

[형태] 골짜기

[위치] 원창5리마을회관에서 북동쪽 원창리 동쪽 끝, 고도 400m~500m 서쪽 산자락에 ‘작은독장골’이 있고 그 남동쪽 400m쯤에 ‘큰독장골’이 있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가는골 옆에 있는 골짜기라 하였다.

[어원풀이] ‘큰[大]+독[石]+장(場)+골[谷]’로 분석된다.

● 큰매네미

[별칭] 큰매네미골. 큰매내미골

[형태] 마을

[위치] 동산면 매네미길 50번지 일대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매네미의 큰 마을이라 하였다.

[어원풀이] ‘큰[大]+매네미’로 분석된다. ‘매네미’ 참조.

● 큰수용골

[형태] 마을

[위치] 원창5리에서 고가도로인 중앙고속도로를 지나 동쪽 거의 끝에 있는 골짜기이다. 지금은 그 인근까지 ‘가암길’이 지난다. ‘수용골(큰수용골. 작은 수용골)’ 남쪽 가까이에 ‘밤나무골’이 있다. 산 쪽으로 길게 형성된 마을이라 논밭보다는 과수원이 많다. 특히 이 지역의 복숭아는 일교차가 커 당도가 높아 인기가 좋다.

[어원풀이] ‘큰[大]+수용+골[谷]’로 분석할 수 있다. ‘수용’의 의미는 불분명하다.

● 큰조갱기골

[별칭] 큰조갱이골

[형태] 골짜기

[위치] 동산면 원창리 산189번지 일대이다.

[어원풀이] ‘큰[大]+조갱이/조강이+골[谷]’로 분석된다. ‘조갱이’ 참조.

● 통합기준점

[형태] 교통

[위치] 원창1리에 있다. 지석묘2기가 옆에 있다.

[유래] 『동산면지리지』에 “이곳이 측량의 기준점이 되는 곳이어서 세운 비석이다.”라 하였다.

● 피박골

[형태] 골짜기

[위치] 원창3리에서 동쪽으로 지나는 중앙고속도로 위치로 가기 전, 인근에 있다. 동산면 원창리 596번지 일대이다. 가지울목장을 지나 ‘피박골’이 있으며, ‘가지울길’이 지난다.

[어원풀이] ‘피(볏과의 풀)+박/밭[田]+골[谷]’로 분석된다. 피는 벗과의 한해살이풀로서, 높이는 1미

터 정도이며, 잎은 가늘고 긴데 잎 면이 칼집 모양으로 줄기를 싸고 있다. 열매는 식용하거나 사료로 쓴다.

● 한국폴리텍대학춘천1캠퍼스

[별칭] 폴리텍대학1캠퍼스

[형태] 학교

[위치] 동산면 영서로 1290-31. 동산면 원창리 74-2번지이다.

[유래] 국가에서 운영하는 고용노동부 산하 국책기술대학이며, 4차 산업혁명 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이에 걸맞은 융합형 미래기술인재를 양성한다. “생애 전주기 직업교육의 플랫폼”을 구축해 청년 미취업자부터 인생 이모작을 준비하는 신중년 세대까지, 전 연령·전 계층을 아우르는 다양한 교육과정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한국폴리텍대학춘천1캠퍼스

● 할미봉

[형태] 산

[유래] 『동산면지리지』에 “원창1리 안산 옆 고개 밑 사이에 있는 산이다. 할미봉은 바위가 이어져 있다. 동동산 옆이다.”라 하였다.

[어원풀이] ‘할미[할머니]+봉(峰)’으로 분석된다.



할미봉

● 호냇골

[별칭] 호테골

[형태] 골짜기

[위치] 원창2리 ‘한국폴리텍대학 춘천1캠퍼스’에서 남쪽으로 조금 가다가 고가도로인 ‘중앙고속도로’ 앞에서 동쪽으로 난 골짜기가 ‘호냇골’이다. 이 ‘호냇골’ 끝에 ‘경수/경수음녕’이 있었고, ‘호냇골’ 입구엔 ‘배굴구미’가 있었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관딧골 옆에 있는 골짜기라 하였다. 이 지역 사람들은 지금은 ‘헬루야기 도원’ 골짜기라 부른다.

[어원풀이] ‘호(戶)+내(內)+ㅅ+골[谷]’로 분석할 수 있다.

● 호냇들

[별칭] 호테들

[형태] 들

[위치] ‘호네골’ 입구 근처에 있다. 그 앞으로 ‘영서로’와 ‘원창천’과 고가도로인 ‘중앙고속도로’가 같이 지난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호냇골 앞에 있는 들이라 하였다.

[어원풀이] ‘호(戶)+내(內)+ㅅ+들[坪]’로 분석할 수 있다.

● 회포(回浦)

[형태] 수리

[위치] ‘호넷들’ 앞에서 ‘장승대기’(장승배기), 장승대기들’까지 ‘누운 S형’으로 흐르는 ‘원창천’의 일부이다. ‘회포’ 중간쯤에 고가도로인 ‘중앙고속도로’가 지난다.

[유래] 『동산면지리지』에 “팔미천이 관거리를 지나 장승백이]에서 휘돌아 나간다고 해서 부르는 이름이다.”라 하였다.

[어원풀이] ‘회(回)+포(浦)’로 분석된다.



회포와 장승백이

● 흡박골

[형태] 골짜기

[위치] ‘흡박골, 석동골, 미양골, 뒷골, 독주골’은 서로 근처에 있는 골짜기이다. 모두 원창2리, ‘한국폴리텍대학춘천1캠퍼스’ 인근에 있었다. 일부는 대학과 관련 건물 신축으로 많은 부분이 달라졌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뒷골 옆에 있는 골짜기라 하였다.

[어원풀이] ‘흡박+골[谷]’로 분석할 수 있다. 유래는 불분명하다. ‘흡박(洽博)’은 한자로 ‘두루 넓다’는 뜻이다.

위치와 현황 | 북동쪽으로 연엽산, 구절산, 성치산이 있는 전형적인 산간분지의 농촌마을이다. 자연마을로는 바칠, 사방우, 메지울, 하명암 등이 있다.

연혁 | 『춘주지』를 보면 동산외면(東山外面)에 명암(鳴巖)과 부사원(府使院)으로 표시하였다. 『여지도서』는 동산외면(東山外面)에 하명암리(下鳴巖里)로 표기하였다. 『호구총수』는 동산외이작면(東山外二作面)의 하명암리(下鳴巖里), 『춘천읍지』, 『춘천부지』, 『관동읍지』는 동산외면(東山外面) 하명암리(下鳴巖里)로 표기하였다. 『조선지지자료』는 동산외이작면(東山外二作面)에 부사원리(府司院里)와 하명암리(下鳴岩里)로, 『강원도지』, 『수춘지』는 동산면(東山面)에 조양리(朝陽里)로 표기하였다. 『춘주지』는 조양1리, 조양2리, 조양3리로, 『춘천백년사』는 동산면(東山面) 조양1리, 조양2리, 조양3리, 조양4리로 표기하였다. 현재 행정리는 조양리고 법정리는 조양1리, 조양2리, 조양3리, 조양4리다.

유래 | 본래 춘천군 동산외이작면의 지역으로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동막골, 모래재, 매주울, 사방우, 상부사원, 하부사원, 바칠, 하명암을 병합하여 조양리라 하였다.

● 가는골

[형태] 골짜기

[위치] 조양3리 상부사원에 있는 골짜기이다. 마을에서 구절산으로 올라가는 길목에 있다. 원창리 소재 ‘가는골’과는 서로 다른 곳이나 지명은 같다.

[어원풀이] ‘가늘/가는-[細]+골[谷]’로 분석된다.

● 가로공원(街路公園)

[형태] 공원

[위치] 서울양양고속도로조양IC에서 나와 춘천 방향으로 영서로 고갯길을 오르는 우측에 있다. 동산면 조양리 835-1번지 일대이다.

[유래] 영서로 고갯길 도로 인근 공원으로 휴식 공간을 마련하였다.

● 가운데골

[형태] 골짜기

[위치] 조양리와 골프장 라비에벨CC 서쪽 끝에 있다.

[유래] 골프장 라비에벨 CC가 들어서기 전, 조양리 서쪽에 있던 다섯 개 정도의 골짜기 중, 가운데쯤에 있는 골짜기이다.

[어원풀이] ‘가운데[中間]+골[谷]’로 분석된다.

● 각시터골

[형태] 골짜기

[위치] ‘은과정’에서 ‘느릅실고개[榆峴]/부사원고개’로 올라가는 곳에 있는 골짜기이다. ‘아랫무지골’ 옆에 있다.

[어원풀이] ‘각시(아내)+터[垈]+골[谷]’로 분석된다.

[유래담] 옛날 사람이 걸어 다니는 인력거 길이었다. 신랑 신부가 걸어서 올라가는데, 그곳에는 호랑이굴이 있었다. 호랑이굴에 있던 호랑이가 가마를 타고 가던 각시를 내려와서 덜렁 업고 굴속으

로 들어갔다. 그때 호랑이가 각시를 잡아먹었다고 해서 각시터골이라 한다.(『동산면지리지』)

● 강원도농산물원종장동산별관

[별칭] 강원도농산물원종장별관, 강원도원종장동산별관, 농산물원종장

[형태] 건물

[위치] 조양2리에 있다. 동산면 조양길 150, 동산면 조양리 511번지이다.

[유래] 지방자치법 제114조에 따라 미곡, 맥류, 두류, 옥수수, 잡곡류 그 밖에 중요 농산물의 우량종자 생산 보급을 위해 설치된 강원도청 소속기관이다.

● 건년들

[별칭] 건는들

[형태] 들

[위치] 동산중학교 동편 바로 옆에 있다. 중앙고속로가 바로 옆을 지난다. 동산면 조양리 1263번지 일대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마을 건너편에 있는 들이라 하였다.

[어원풀이] ‘{건너-[越]}+ {-ㄴ(관형사형어미)}+들[野,坪]’로 분석된다. 마을 건너편에 있는 들판이란 의미이다.

● 검은다래기

[형태] 골짜기

[위치] 조양4리 동산중학교가 있는 골짜기이다.

[유래] 『동산면지리지』에 읊지여서 검다고 해서 불인 이름이라 하였다.

[어원풀이] ‘검은[黑]+다래기/다래이[다랑이] ; 많은 논들 중에 한칸 논’로 분석된다.

● 고려장골

[별칭] 고려장터

[형태] 골짜기

[위치] 조양1리1반 ‘은파정’에 있는 골짜기이다.
‘집당골’ 옆이다.

[유래] 『동산면지리지』에 “옛날에 이 골짜기가 고려장을 하던 곳이다.”라 하였다.

[어원풀이] ‘고려장(高麗葬)+골[谷]’로 분석된다. 일제강점기에 일제가 마음대로 유물을 파내기 위하여 고려장(高麗葬)이라 하여, 예전에 늙고 쇠약한 사람을 구덩이 속에 산 채로 버려두었다가 죽은 뒤에 장사 지냈다고 펴트리면서 민간에 서서히 스며들었다. 우리 역사 기록에 없었던 역사 왜곡이다.

● 굴지천

[형태] 하천

[위치] 동산면 봉명1리에서 발원한 ‘원무천(元武川)’과 봉명2리에 발원한 ‘관골천’이 ‘갈개울’에서 합류하여 ‘굴지천(屈只川)’이 되고, 조양리(朝陽里)를 지나 남쪽으로 흘러, 홍천군 북방면 굴지리(屈只里)를 거쳐 홍천강(洪川江)으로 유입되는 지방하천이다.

● 기와집골

[형태] 마을

[위치] 미상이다.

[유래] 『동산면지리지』에 “기와집이 많았다. 지금도 기와장이 땅에서 많이 나온다.”라 하였다.

[어원풀이] ‘기와[瓦]+집[家]+골[谷, 村]’로 분석된다.

● 금파정보

[형태] 보(洑)

[위치] 조양2리마을회관 근처 굴지천 앞에 있다.

[유래] 『조선지지자료』에 하명암리 소재 보(洑) 이 름으로 ‘金破亭洑(금파정이보)’가 기재되어 있다.

[어원풀이] ‘금파(金破)+정(亭)+보(洑)’로 분석된다.

● 내지울소류지

[별칭] 매지울소류지

[형태] 수리

[위치] 동산면 조양리 428번지 일대이다.

● 논골 1

[형태] 마을

[위치] 조양3리 2반 상부사원에 있는 마을이다. ‘덕골’ 맞은편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논이 많은 골짜기라 하였다.

[어원풀이] ‘논[畠]+골[谷]’로 분석된다.

● 논골 2

[형태] 마을

[위치] 조양3리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다가 원편으로 논밭이 넓게 펼쳐진 골짜기 끝에 있다. 조양3리에서 북쪽으로 난 ‘구절산길’ 초입에서 서쪽은 ‘논골’이 있고, 동쪽엔 위, 아래로 ‘방울재골’과 ‘배나무골’이 있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논이 많은 골짜기라 하였다.

[어원풀이] ‘논[畠]+골[谷]’로 분석된다.

● 느릅실고개

[별칭] 늘업실고개, 유현(榆峴), 유현(柳峴), 부사원고개

[형태] 고개

[위치] 홍천군 북방면 부사원리에 속하는 ‘하부사원(부사원리마을회관)’은 지금 ‘조양3리마을회관’ 아랫쪽이며, ‘사방우’는 조양1리(조양리 본마을), 동산

면행정복지센터 부근이다. ‘유현/느릅실고개’는 ‘조양1리, 사방우’와 ‘조양3리, 하부사원’를 넘나드는 중간쯤에 있는 고갯길이다.

[유래] 『조선지지자료』에 하부사원 소재 고개이름으로 ‘榆峴(늘업실고기)’가 기재되어 있다. 『한국지명총람』에 하부사원에서 사방우로 가는 고개라 하였다. 요즘 지도는 ‘유현(榆峴)’이라 표기한다. 춘천 쪽에서는 ‘유현/느릅실고개’라 하고, 홍천 쪽에서는 ‘부사원고개’라 한다.

[어원풀이] ‘느릅[느릅나무, 榆]+실[室, 마을]+고개[峴]’로 분석된다. 느릅나무가 많은 고개, 또는 지형적인 면을 고려할 때 길게 늘어져 있는 고개란 의미로 추정된다.

● 능골

[형태] 골짜기

[위치] 미상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옛날 높은 사람의 무덤이 있었다 한다.”라 하였다.

[어원풀이] ‘능(陵)+골[谷]’로 분석된다.

● 다다골

[형태] 골짜기

[위치] 조양3리 상부사원에 있는 골짜기로서 마을에서 구절산으로 올라가는 산 입구 근처에 있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부채바웃골 부근에 있는 골짜기라 하였다.

[어원풀이] ‘다다+골[谷]’로 분석할 수 있다. ‘다다’의 의미는 불분명하다.

● 다릿골

[형태] 골짜기

[위치] 『동산면지리지』에 “조양1리 1반 은파정에

있는 골짜기이다. 집당골 옆이다.”라 하였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횃골 옆에 있는 골짜기라 하였다.

[어원풀이] ‘다리[橋]+ㅅ+골[谷]’로 분석된다.

● 대대울

[형태] 골짜기

[위치] 『동산면지리지』에 “조양3리에 있는 골짜기이다. 덕골 옆, 논골 앞이다.”라 하였다.

[어원풀이] ‘대(大)+대(垈)+울/골[谷]’로 분석할 수 있다. 전국 여러 곳에 있는 ‘대대울’은 대개 ‘옛부터 산치성을 올리던 곳’과 관련되며, 인근에 산제당이나 굴바우 등이 있기도 한다. 이 경우, ‘대대울’은 산치성을 올릴 만한 제법 넓은 터가 된다. ‘대대울’이 ‘마을’인 경우는 ‘대대울’을 ‘대대(代代로)+울/골[谷]’로 분석한다. 즉, 한 집안이 대대로 대를 이어 살이 온 마을이다.

● 대룡골

[형태] 골짜기

[위치] 『동산면지리지』에 “조양3리에 있는 골짜기이다. 해밀텃골 아래다.”라 하였다.

[어원풀이] ‘대룡(大龍)+골[谷]’로 분석된다.

● 대사골

[형태] 골짜기

[위치] 조양4리, 조양IC에 있는 ‘조양IC영업소’가 있는 자리이다. 동산면 조양리 산112-3번지 일대이다.

[어원풀이] ‘대사(大師)+골[谷]’로 분석할 수 있다. 전국에 소재하는 ‘대사골’의 의미나 유래는 대개 법력이 높은 스님[大師]과 관련되거나, 마을의 산과 골짜기에 절터가 있던 곳과 연관된다.

● 대장골

[형태] 골짜기

[위치] 상부사원 뒤쪽으로 난 골짜기이다.

[유래] 『동산면지리지』에 “옛날 마을 사람 중에 묘를 쓰면 장수가 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라 하였다.

[어원풀이] ‘대장(大將)+골[谷]’로 분석된다.

[유래담] 마을 사람 중에 누군가 아기를 낳았는데 몸에 날개가 나 있었다. 그런데 당시에 아기 장수가 태어나면 그 장수가 반드시 새로운 나라를 일으킨다고 해서 혹시 나랏님의 노여움으로 마을에 해가 될까 죽였다. 묘 쓴 데서 구절산을 보면 그 산의 모습이 장수가 칼을 들고 서 있는 모습으로 보인다는 이야기도 있다. 이토록 지세의 기운이 강해서 일제강점기 때 일본 관리가 와서 묘에 구명을 파고 끊는 첫물을 부어 넣었는데 그 후 그 첫물을 어떻게 했는지는 전해오지 않는다.(『동산면지리지』)



대장골

● 덕골

[형태] 골짜기

[위치] 조양3리 2반 ‘논골’ 맞은편에 있는 골짜기이다. ‘덕골’에서 동진하면 ‘방울고개’를 넘어간다.

[유래] 『동산면지리지』에 “옛날 아이들이 죽으면 덕을 매어 놓았다. 전염병이 들어서 죽기 전에 아

이들을 가져다 놓으려고 덕을 해 놓았다고 한다.”

라 하였다.

[어원풀이] ‘덕[덕을 매다]+골[谷]’로 분석된다. ‘덕’은 널이나 막대기 따위를 나뭇가지나 기둥 사이에 엮어 만든 시렁이나 선반이다. ‘덕을 매다. 높게 바닥을 꾸며서 원두막을 짓다.’의 의미를 가지는 ‘덕’은 일단 높게 된 것을 의미하므로, ‘덕’의 어원은 고구려어의 유산으로 ‘達=高=山=德’의 관계에 있으며, 현대국어에는 ‘언덕, 둔덕’의 지명으로 그 흔적을 남기고 있다. 그 의미는 ‘높다(高), 크다(大)’로 전의(轉義)되었다. 변이형태로는 ‘덕/덕이/더기’가 있다.



덕골

● 도화동

[형태] 마을

[위치] 봉명2리에 있으며, 조양3리에서는 구절산 방향으로 가다가 ‘배나무골’을 넘어가면 ‘도화동’에 이른다.

[유래] 『동산면지리지』에 “복숭아꽃이 핀 마을이라는 뜻인데, 난리를 피할 장소라 해서 지어진 이름이다.”라 하였다.

[어원풀이] ‘도화(桃花)+동(洞)’으로 분석된다.

● 동막골

[형태] 골짜기

[위치] 동산중학교 북쪽 가까이에 있다. 이곳은 처음 ‘영서로’가 모래재를 기반으로 재정비되고, 다시 ‘중앙고속도로’가 지나가고, 또 다시 ‘서울양양 고속도로’, ‘조양IC’와 ‘춘천JC’가 개설되어, 이 일대는 예전 모습을 아예 추측하기 어렵게 되었다.

[유래] 『춘천의지명유래』에 “임진왜란 때 춘천 진병산에 관군과 의병이 전을 치고 있었고 동막골에 도 의병들이 막을 치고 있었다.”라 하였다.

[어원풀이] ‘동(東)+막(幕)+골[谷]’로 분석된다.

● 말무덤

[형태] 묘

[위치] 조양2리 밭자리 부근에 있다.

[어원풀이] ‘말[馬]+무덤[墓]’으로 분석된다.

[유래담] <말무덤, 장수바위, 철마> 옛날 어떤 장수가 과거를 보러 서울로 가는 길에 이 마을에서 말이 죽었다. 병사들이 손으로 무덤을 만들었다. 고개 밑에 장수바위가 있었다. 현재는 찾을 수가 없다. 장수가 말을 파묻고 가다가 눈물을 흘려 그 눈물이 떨어진 흔적과 손가락 자국이 남아있다. 무쇠로 말을 만들어서 세워놓았는데 누가 가져가 없어졌다.(『동산면지리지』)



조양리의 말무덤

● 명암(鳴岩)

[별칭] 부령바우, 부엉바위, 병바우, 범바위

[형태] 마을

[위치] ‘부엉바위’가 있는 곳(위치)이거나 ‘상명암(봉명2리)’과 ‘하명암(조양2리, 메지율)’을 함께 부르는 말(비위치)이다. 봉명리에 소재하는 ‘부엉바위(명암)’는 ‘상명암’ 즉 봉명2리와 조양1리 사이에 있다. ‘장지골’로 들어간다.

[유래] 『춘천의지명유래』에 “부엉바우(병바우)가 있다. 부엉이가 잘 깃들어서 붙여진 이름. 명암 위쪽에 있는 마을은 상명암리”라 하였다.

[어원풀이] ‘명(鳴)+암(岩)’으로 분석된다. ‘명암’은 봉명리(鳳鳴里) 행정구역 이름의 바탕이 된다. ‘명(鳴)’은 그 별칭인 ‘부령바우/부엉바우’가 ‘부엉이’의 울음소리가 ‘부엉부엉 우는 것’을 한자화한 것이다. ‘암(岩)’은 그 ‘부엉이가 서식하는 바위’를 한자화한 것이다. 봉명리(鳳鳴里)의 바탕이 ‘부엉바위, 명암(明暗)’이라면 ‘상명암, 하명암’처럼 ‘명암리(鳴岩里)’가 적절하다. 이에 따르면 봉명리(鳳鳴里)의 ‘봉(鳳)’은 ‘부엉이’, ‘휴(鶴)’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봉(鳳)’은 많은 지명에서 ‘봉황(鳳凰)’과 연유되며 ‘봉황이 가진 상징적 의미’로 자주 전의(轉義)되어 쓰인다.

● 매주나뭇골

[별칭] 메지율, 훈주골

[형태] 골짜기

[위치] 조양1리 동산면행정복지센터와 조양2리마을회관 중간쯤에서 동쪽 초입에 있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매주나무가 있던 골짜기라 하였다.

[어원풀이] ‘매주나무/매주나무+ㅅ+골[谷]’로 분석된다. ‘매주나무’는 장미과의 낙엽 활엽 소관목으

로, 아그배나무에 비하여 잎에 톱니가 없고 털이 짧고 적으며 꽃이 작다.

● 매주울

[별칭] 메지울, 매지울, 훈주곡, 훈주골, 하명암(下鳴岩)

[형태] 마을

[위치] 조양1리 동산면행정복지센터와 조양2리마을회관 중간쯤에서 동쪽 초입에 있다. ‘하명암(下鳴岩)’이다. ‘메주울/메지울’에서 계속 700m쯤 북동 진하면 ‘내지울소류지’가 나온다. ‘상명암(上鳴岩)’은 봉명2리이다. 봉명2리 남쪽, 조양1리 사이에 봉명리(鳳鳴里)의 행정구역 지명이 되는 ‘부엉바위(明암)’가 있다.

[유래] 『춘천의지명유래』에 “사방우 남쪽에 있는 마을. 메주나무가 있던 골짜기를 메주나뭇골이라고 불렀다.”라 하였다. 『동산면지리지』에 “조양2리 1반이다. 메주나무가 있던 골짜기를 메주나뭇골이라 불렀는데, 그냥 메지울이 되었다. 또 옛날 메주를 많이 쑤어서 진상을 했다고 한다. 지금도 콩을 사용하여 장을 담그고 있다. 옛날부터 콩이 잘 되었다. 옛날 훈주곡이라 불렀다고도 한다. 메주 훈자에 골 곡자를 써서 옛사람들이 부른 이름이라 한다.”라 하였다.

[어원풀이] ‘메주/매주(메주나무)+울(고을, 村)’로 분석된다. ‘메주나무’는 장미과의 낙엽 활엽 소관목으로, 아그배나무에 비하여 잎에 톱니가 없고 털이 짧고 적으며 꽃이 작다. ‘매주나무’의 ‘매주’는 ‘매주콩’의 ‘메주’와 표기법이 다르나, 그 [유래]가 ‘매주나무’와 ‘매주(콩)’이 뒤섞이면서 ‘메지울’의 변이 형이 ‘메주울, 메지울, 매주울, 매지울’ 등으로 혼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 표제지명은 ‘매주나무’에서 연유하므로 ‘매주울’이다. 그러나 요즘은 ‘매지울’이라 한다.



메지울 전경

● 메지울천

[형태] 하천

[위치] ‘메지울저수지’에서 조양리 굴지천까지 흐르는 소하천이다.

● 모래재

[별칭] 모라재, 사현(砂峴), 몰래재

[형태] 고개

[위치] 조양리와 원창리 사이에 있다. ‘모래재 표지석’은 춘천국립병원 앞 버스정류장 뒤편에 있다.

[유래] 『조선지지자료』에 상명암리 소재 고개이름으로 ‘砂峴(몰리지)’이 기재되어 있다. 『춘천의지명유래』에 “사방우 서북쪽에 있는 고개. 원창리로 통하는 큰길. 모래가 많았기 때문에 생긴 이름. 모래재 밑에 있는 마을도 모래재라고 부른다.”라 하였다. 고도는 340m이다.

[어원풀이] ‘모래/몰[山, 산모랭이]+[-ঠ]/애(쳐격조사)+재[峙]’로 분석된다. ‘모래/몰’은 산(山)의 고어이다. ‘몰리지’ > 몰래재 > 몰애재 > 모래재’ 등의 변화를 겪으며 여러 변이형을 가지기도 한다. 이들은 ‘산, 산마루, 산기슭’ 등의 어원을 가진 고어 ‘몰[山]’에 고개를 결합하여 ‘모래재’가 된 지명이다. 어원형 ‘몰’은 ‘몰/모리’뫼’ 등의 이형태가 있다. ‘몰

[山]’이 ‘뫼[山]’와 ‘산(山)’에 밀려 그 어원형을 찾기 어려워지면서, ‘모래재’의 유래를 알기 쉬운 ‘모래[沙]+재[峙]’에 결부시키는 일이 많다.



모래재

● 모래재개울

[별칭] 모래재천, 조양천

[형태] 하천

[위치] 북쪽 ‘모래재’와 남쪽 ‘수리봉(470.5m)’ 사이에서 조양4리로 흐르는 소하천으로, 조양1리(본마을)에서 ‘굴지천(窟只川)’과 합류한다.

[유래] 『조선지지자료』에 하명암리 소재 개울 이름으로 ‘沙峴溪(몰리지기울)’가 기재되어 있다.

[어원풀이] ‘모래재+개울[川, 溪]’로 분석된다. ‘모래재’ 참조.

● 무지골

[형태] 골짜기

[위치] 북쪽 ‘모래재’와 남쪽 ‘수리봉(470.5m)’ 사이에 있으며, ‘조양천/모래재개울’ 상류에 있다. 중앙고속도로가 바로 위로 지난다. ‘연정사’ 들어가는 골짜기이다.

[어원풀이] ‘무/물[水]+지[池]+골[谷]’로 분석할 수 있다.

● 미골

[형태] 골짜기

[위치] 춘천JC와 조양IC 중간쯤과 ‘영서로’ 사이에 있다. 동산면 조양리 760-1번지 일대이다.

[어원풀이] ‘미[水의 고어]+골[谷]’로 분석할 수 있다. 아래 지명 ‘미나리골/메나리골’의 어원 분석은 ‘미/메+나리/나리+골’이며, ‘미/메’는 곧 고구려어 ‘미’로서, 그 의미는 ‘수(水), 천(泉), 정(井), 천(川), 해(海)’ 등으로 모두 ‘물[水]’을 기본으로 한다.

● 미나리골

[별칭] 메나리골

[형태] 골짜기

[위치] 조양1리 동산면행정복지센터와 조양2리마을회관 중간쯤에서 동향으로 난 큰 골짜기로 들어서 가면 ‘내지울소류지’가 나온다. ‘내지울소류지’에서 200m쯤 북동진하다가 동쪽 금길로 난 골짜기가 ‘큰골’이며, ‘큰골’ 서쪽인 맞은편 조금 북쪽에 ‘미나리골’이 있다. 여기서 북동진하면 ‘은과정’에 이른다.

[어원풀이] ‘미나리+골[谷, 村]’로 분석된다. 별칭 ‘메나리’는 ‘미나리’의 강원 방언이다.

● 미역골

[형태] 골짜기

[위치] 조양4리 동막골 옆이다.

[유래] 『동산면지리지』에 산나물 미역취가 많이 난다고 하였다.

[어원풀이] ‘미역[미역취]+골[谷]’로 분석된다. ‘미역취’는 국화과의 여러해살이풀로, 줄기는 높이가 30~80cm이며, 잎은 어긋나고 달걀 모양 또는 타원형으로 톱니가 있다. 어린잎은 나물로 식용하고 민간에서 건위제, 이뇨제 따위로 쓴다.

● 방아골

[형태] 골짜기

[유래] 『동산면지리지』에 “조양1리 1반 은과정에 있는 골짜기이다. 아래매주나무골 옆이다. 방아골 아래는 사방우이다.”라 하였다.

[어원풀이] ‘방아[방아간]+골[谷]’로 분석된다. ‘방아’는 곡식 따위를 쟁거나 뺏는 기구나 설비를 통틀어 이르는 말로, 물방아, 디딜방아, 물레방아, 연자방아, 기계 방아, 쌩방아 따위가 있다.

● 방애안

[형태] 골짜기

[위치] 미상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조양리에 있는 골짜기라 하였다.

[어원풀이] ‘방애/빙애[崖]+안[內]’으로 분석된다. ‘방애/빙애’는 ‘벼랑[崖]’의 옛말이다.

● 방울고개

[별칭] 영현(鈴峴), 방울재

[형태] 고개

[위치] 성골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유래] 『조선지지자료』에 부사원리 소재 고개이름으로 ‘鈴峴(방울고기)’이 기재되어 있다. 『한국지명총람』에 “예전에 어떤 사람이 금방울을 얻어 부자가 되었다고 한다.”라 하였다.

[어원풀이] ‘방울[鈴]+고개[峴]’로 분석된다. ‘방울[鈴]’은 얇은 쇠붙이를 속이 비도록 동그랗게 만들 어 그 속에 단단한 물건을 넣어서 흔들면 소리가 나는 물건이다.

● 밭치리

[별칭] 바칠, 밭치리, 밧치울, 전치리, 전치곡(田雉谷)

[형태] 마을

[위치] 동산면 조양2리 4반이며, 그 일부는 1973년 법정 지역 개편 후 홍천 북방면 전치곡리에 속한다. 조양2리 서쪽 끝에 있는 마을로, 바로 위가 골프장 라비에벨CC이다. 도로지명 ‘밭치리길’이 동네를 가로지른다. 한자지명 ‘전치곡(田雉谷)’은 홍천 북방면 전치곡리가 되었다.

[어원풀이] ‘바/밭[田]+치(雉)+리(里)’로 분석되며, 행정 단위 ‘리(里)’가 생략되었다.

[유래담] 용(龍)씨 문중에 청춘과부 김(金)씨가 자식도 없이 살았다. 비오는 날 밤 장수가 나타나 안겼다가 사라졌는데 그로부터 태기가 있어 옥동자를 낳았다. 탄생 7일이 되던 날 아기가 밤나무 위에 올라가 어머니에게 꿩 한 쌍을 잡게 해주었다. 그로부터 밭(田) 꿩(雉) 골짜기(谷)의 뜻을 합쳐 밭치리, 전치리라고 부르게 되었다. 밭치리에는 중앙 일에 거리제를 올려 마을의 안녕을 비는 풍속이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고 있다.(『춘주지』)



사라진 밭치리 마을 입구에 있는 표지판

● 밭치리서낭나무

[형태] 나무

[위치] ‘밭치리서낭나무’를 중심으로 왼쪽은 홍천 이고, 오른쪽은 춘천이다.

[유래] 『동산면지리지』에 “둘레 약 5m, 높이 약 20

여 m의 아주 오래된 느티나무이다. 아래는 굴처럼 흙이 파여 있어서 아이 한 명이 들어갈 정도이며 그 안에 신을 모신 단지가 있다. 서낭나무의 둘레에는 금색줄과 오색천이 쳐있다. 앞에는 돌로 만든 제단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 위에 향로와 밥그릇, 술잔 등이 놓여 있다. 아직도 무당이나 주민이 치성을 드리고 있는 흔적이 남아 있다. 예전엔 이곳에서 봄과 가을에 한 번씩 제를 올렸다.”라 하였다.



밭치리 서낭나무1



밭치리 서낭나무2

● 배나못골

[형태] 골짜기

[위치] 조양3리 상부사원에 있는 골짜기이다. 마을에서 구절산으로 올라가는 길목에 있다. 여기서 북진하면 봉명2리 ‘도화동’에 이른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예전에 배나무가 있던 골짜기라 하였다.

[어원풀이] ‘배나무[梨]+ㅅ+골[谷]’로 분석된다.

● 배토박골

[별칭] 베틀밭굴, 베투밭골, 베토박굴

[형태] 굴

[위치] 조양4리 ‘음골’ 안에 있는 굴이다. 조양4리 마을회관 서쪽 300m쯤에 있다. 동산면 조양리 935번지 일대이다.

[유래] 『동산면지리지』에 “조양4리 음골 안에 있는 굴이다. 베틀을 놓을 정도로 굴이 크다. 임진왜란 때 마을 사람들이 이곳에 피난하여 굴 안에서 베틀을 설치해 놓고 삼베를 짰다고 한다.”라 하였다.

[어원풀이] ‘베토/베틀(피륙을 짜는 틀)+박/밭[田]+골/굴(窟)’로 분석된다. ‘베틀’은 삼베, 무명, 명주 따위의 피륙을 짜는 틀이다.

● 범마당재

[형태] 고개

[위치] 동산면 조양3리와 홍천군 북방면 부사원리 사이에 있다.

[유래] 『동산면지리지』에 “부사원 쪽에 있는 곳인데 범이 가끔 나타나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라 하였다.

[어원풀이] ‘범[虎]+마당[場]+재[峙]’로 분석된다.

● 부사원(府司院)

[별칭] 부소원(夫所院)

[형태] 골짜기

[위치] ‘부사원’의 법정구역은 홍천군 북방면 부사원리에 속한다. 그리고 ‘부사원고개’와 ‘상부사원, 하부사원’은 춘천군 동산면 조양3리에 속한다. 홍천군 부사원리에서 영서로를 따라 춘천시 동산면 조양3리를 지나 서울양양고속도로에 이르는 고개

가 ‘부사원고개’이며, 서울양양고속도로 근처에 영서로 ‘부사원고개쉼터’가 있다. 부사원고개 중턱에는 도형항공기박물관이 있다. 춘천(조양리)에서는 ‘느릅실고개’라 하고, 홍천(부사원리)에서는 ‘부사원고개’라 한다.

[유래] <대동여지도>에는 ‘부소원(夫所院)’으로 표기되어 있다. 『동산면지리지』에 “느릅실고개 남동쪽으로 자리 잡은 마을이다. 홍천 쪽과 춘천 조양3리 쪽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예전에는 모두 부사원으로 불렸다. 지금의 조양리 부분의 부사원을 상부사원이라 하고 홍천 쪽의 부사원을 하부사원이라 부른다.”라 하였다.

[어원풀이] ‘부(府)+사(司)+원(院)’으로 분석된다.

[유래답] 조선시대에 부사 벼슬을 지닌 관리가 지나가다가 주막에서 술을 마시고 쉬었다 가서 이름 붙여진 것이다. 또 조선시대에 부사원이 있었다고도 한다. 길손들이 쉬어가던 주막촌이 있었다. (『동산면지리지』)

● 부서운골

[형태] 골짜기

[위치] 조양3리마을회관 바로 위에 있으며, ‘영서로’ 가까이에 있다.

[어원풀이] ‘부서운/부선/부순/부수-[碎]+{ㄴ(관형사형어미)}+골[谷]’로 분석할 수 있다.

● 부채바우골

[형태] 골짜기

[위치] 조양3리 상부사원에 있는 골짜기이다. 마을에서 구절산으로 올라가는 산 입구에 있다.

[유래] 『동산면지리지』에 “산에 부채모양의 바위가 있고 서덜도 많다.”라 하였다.

[어원풀이] ‘부채[扇]+바우[岩]+골[谷]’로 분석된다.

● 부처바우골

[별칭] 불암골

[형태] 골짜기

[위치] 미상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부처바위가 있었다 하는데, 산제당이 있다.”라 하였다.

[어원풀이] ‘부처[佛]+바우[岩]+골[谷]’로 분석된다. ‘부처바우’의 한자 지명이 붙은 ‘불암골/불암곡(佛岩谷)’은 불교 신앙으로 도처에 있는 이름이다.

● 사방우(四防隅)

[형태] 마을

[위치] 조양1리 3반에 있는 마을 이름이다. 중앙고속도로와 서울양양고속도로가 교차하는 조양리, 동산면행정복지센터 바로 위가 ‘사방우(四防隅)’이다.

[유래] 『조선지지자료』에 하명암리 소재 주막이름으로 ‘四方隅酒幕(사방모루쥬막)’이 기재되어 있다.

『한국지명총람』에 네거리에 있던 마을이라 하였다.

[어원풀이] ‘사(四)+방(方)+우/몰우/모루(고통이, 隅)’로 분석된다.

● 사방우개울

[별칭] 사방모루개울, 사방우계(四方隅溪)

[형태] 하천

[위치] 『조선지지자료』에 하명암리 소재 개울이름으로 ‘四方隅溪(사방모루기울)’가 기재되어 있다.

● 사방우보

[별칭] 사방모루보

[형태] 보(洑)

[위치] 『조선지지자료』에 하명암리 소재 보(洑) 이름으로 ‘四方隅洑(사방모루보)’가 기재되어 있다.

● 상부사원(上府司院)

[별칭] 상부사원리

[형태] 마을

[위치] 조양3리에서 북쪽으로 도로지명 ‘구절산길’을 따라가다가 두 번째 갈라지는 두 ‘구절산길’ 사이가 ‘상부사원’이다. 북진하는 길 건너 가까이에 조양3리노인복지회관이 있다.

[유래] 『춘천의지명유래』에 “부사원 위쪽에 있는 마을. 춘천서 홍천으로 가는 길목”이라 하였다.

[어원풀이] ‘상(上)+부사원(府司院)’으로 분석된다.

● 쇠창애텃골

[형태] 골짜기

[위치] 『동산면지리지』에 “조양3리 상부사원에 있는 골짜기이다. 마을에서 구절산으로 올라가는 산앞에 있다. 해밀텃골 앞이다.”라 하였다.

[어원풀이] ‘쇠[鐵]+창애[道구]+터[垈]+골[谷]’로 분석할 수 있다. ‘창애’는 ‘짐승을 끄어서 잡는 틀의 하나’이며, 강원 방언으로 ‘창우, 창위, 차개’ 등이 있다.

● 수리봉

[별칭] 취봉(鷺峰)

[형태] 산

[위치] 모래재를 오르면 보이는 곳이 수리봉이다. 해발 470.5m이며 춘천에서 홍천으로 가는 모래재와 원창리 사이에 있는 산봉우리이다.

[유래] 『조선지지자료』에 하명암리 소재 산 이름으로 ‘鷺峰(수리봉)’이 기재되어 있다. 『동산면지리지』에 “옛날 천지개벽을 할 때 모두 물이 쌓는데 산꼭대기가 수리만큼 물이 차지 않고 남았다고 한다.”라 하였다.

[어원풀이] ‘수리[鷺]+봉(峰)’으로 분석된다.

● 수턱골

[별칭] 수턱골, 수토골

[형태] 골짜기

[위치] ‘내지울소류지’로 들어가는 초입에 있는 ‘메지울’과 조양2리마을회관 중간쯤에서 동쪽으로 500m쯤에 있다. 동산면 조양리 532번지 일대이다.

[유래] 『동산면지리지』에 “옛날에 산골짜기에서는 토끼 등의 짐승을 잡으려고 올무를 많이 설치했다.”라 하였다.

[어원풀이] ‘수(狩)+터[垈]+ㅅ+골[谷]’로 분석된다. 수텃골이 수턱골로 변음되었다.

● 아들바우

[형태] 바위

[위치] 미상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돌을 던져 이 바위에 엎히면 아들을 낳는다 한다.”라 하였다.

[어원풀이] ‘아들[男兒]+바우[岩]’로 분석된다. ‘아들바우’는 전국 어디서나 ‘돌을 던져 이 바위에 엎히면 아들을 낳는다. 이 바위에서 기도하면 득남한다’는 유래담을 가진다.

● 아래무지골

[별칭] 아랫무지골

[형태] 골짜기

[위치] ‘아래무지골’과 ‘무지골’은 북쪽 ‘모래재’와 남쪽 ‘수리봉’ 사이에 있으며, ‘조양천/모래재개울’ 상류에 있다. 중앙고속도로가 바로 위로 지난다.

[어원풀이] ‘아래[下]+무지골’로 분석된다. ‘무지골’ 참조.

● 아랫들

[형태] 들

[위치] 조양2리마을회관에서 중앙고속도로 가까이에 있다. 그 위에 ‘웃들’이 있다. ‘아랫들’과 ‘웃들’ 앞으로 ‘굴지천’이 흐른다. 동산면 조양리 633번지 일대이다.

[어원풀이] ‘아래[下]+ㅅ+들[坪]’로 분석된다.

● 아침별장승마을

[별칭] 조양2리, 메지울

[형태] 마을

[위치] 지금의 조양2리를 가리킨다.

[유래] 『동산면지리지』에 “2009년부터 도농교류행사로 가족의 안녕과 화합을 기원하는 장승만들기와 송어잡기, 나뭇잎 손수건염색 등 다채로운 체험프로그램을 통해 마을을 알려왔다. 2010년 아침별봉황권역 도농교류 대표마을로 집중 육성하기 위해 조양1~4리와 봉명1·2리 등 6개 마을로 구성된 아침별봉황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선정되었다. 그리하여 도농교류센터와 장승공원, 마을쉼터 조성 사업이, 경관 사업에는 둑방산책로, 마을꽃길 조성, 소득 사업에는 한우 플라자, 챌린지 코스 체험 사업 등이 추진되었다. 지금은 장승공원을 봉명리로 옮겼고 또한 마을 행사도 열리지 않게 되었다.”라 하였다.



아침별 도농교류 센터

● 안산골

[별칭] 안산꼴

[형태] 골짜기

[위치] 미상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마을 앞에 있는 골짜기라 하였다.

[어원풀이] ‘안산(案山)+ㅅ+골(谷)’로 분석된다. ‘안산(案山)’은 풍수지리에서 집터나 땅자리의 맞은편에 있는 산을 말한다.

● 압들보

[별칭] 전평보(前坪洑)

[형태] 보(洑)

[위치] 『조선지지자료』에 하명암리 소재 보(洑) 이름으로 ‘前坪洑(압들보)’가 기재되어 있다.

[어원풀이] ‘압/앞[前]+들[坪]+보(洑)’로 분석된다.

● 애랭이골

[형태] 골짜기

[위치] 조양1리 은파정 아래에 있는 골짜기이다.

[어원풀이] ‘애랭이/아랭이[아래, 下]+{-이}(접미사)+골[谷]’로 분석된다. 지명접미사 ‘-이’는 마을, 골짜기, 들, 산, 고개 등 다양한 어의를 가진다.

● 애장골

[형태] 골짜기

[위치] 조양3리 상부사원에 있는 골짜기이다.

[유래] 『동산면지리지』에 “옛날 아이들이 죽으면 이곳에 무덤을 많이 쳤다.”라 하였다.

[어원풀이] ‘애/아이[兒]+장(葬)+골[谷]’로 분석된다.

● 영사골

[형태] 골짜기

[위치] 하명암 직골 옆에 있는 골짜기이다.

[유래] 『동산면지리지』에 “하명암에서 영사골은 ‘의미 있는 곳’이다. 골이 깊지는 않다.”라 하였다.

[어원풀이] ‘영사+골[谷]’로 분석할 수 있다. ‘영사’의 의미는 불분명한데 위 [유래]에 따르면 두 가지 추론이 가능하다. 1)‘신불을 모신 영당(靈堂)’이 있었다면 ‘영[靈堂]+사[祭祀]+골[谷]’로 분석이 되며, 2)‘고갯 마루에 절’이 있었다면 전국에 상당수 가 있는 일반적인 지명으로서, ‘영(嶺)+사(寺)+골[谷]’로 분석할 수 있다.



영사골

● 우담산골

[별칭] 우암산골

[형태] 골짜기

[위치] 조양1리 1반 은과정에 있는 골짜기이다.

[어원풀이] ‘우/위(危)+담(牆, 谷)+산(山)+골[谷]’로 분석된다.

[유래담] 옛날 이곳에 늑대가 많이 살았다. 어느 날 아기 갖은 새댁이 나물을 뜯으러 올라갔다. 그때 늑대가 나타났는데, 새댁이 늑대한테 훌려 따라갔다. 그런데 늑대가 새댁을 뉘어놓고 아기를 빼 먹었다. 그 후 사람들은 그 골짜기가 위험하다고 해서 우담산골(위험한 산골짜기)이라 불렀다. 『동산면지리지』

● 움터골

[형태] 골짜기

[위치] 조양4리마을회관 남쪽 400m, 동산중학교 서쪽 400m쯤에 있다. 동산면 조양리 989-5번지 일대이다.

[어원풀이] ‘움(땅속 저장)+터[垈]+골[谷]’로 분석된다. ‘움’은 땅을 파고 위에 거적 따위를 얹어 비바람이나 추위를 막아 겨울에 화초나 채소를 넣어 두는 곳이다.

● 웃들

[형태] 들

[위치] 조양초등학교에서 남쪽으로 가다가 ‘내지울 소류지’ 입구, 맞은편에 있다. 그 동쪽 바로 옆에 중앙고속도로가 지난다. ‘웃들’ 아래에 ‘아랫들’이 있다. ‘아랫들’과 ‘웃들’ 앞으로 ‘굴지천’이 흐른다. 동산면 조양리 679-1번지 일대이다.

[어원풀이] ‘우[上]+ㅅ+들[坪]’로 분석된다.

● 웅골

[형태] 골짜기

[위치] 조양리 메지울에서 보이는 깊은 골짜기이다. 자지봉 안쪽에 있다.

[어원풀이] ‘웅(雄)+골[谷]’로 분석된다.

● 은파정

[형태] 마을

[위치] 조양1리에서 동쪽 서울양양고속도로와 나란히 가는 ‘영서로’로 ‘부사원고개’를 넘어가다 보면 은파정낚시터가 나온다. 그 근처가 은파정이다. 계속 가다가 곧장 직각으로 꺾여 남진하여 내려가면 조양3리에 이른다.

[유래] 『춘천의지명유래』에 “옛날 은(銀)광산이 있

었다. 광산주가 정자를 지어놓았다. 은광산에 정자 가 있었기에 은과정이 되었다.”라 하였고, 『동산면지리지』에 “조양1리 1반의 자연마을 이름이다. 조 양리 사방우에서 부사원으로 넘어가는 고개 밑에 있는 마을이다.”라 하였다.

[어원풀이] ‘은(銀)+파(破)+정(亭)’으로 분석된다.



은과정낚시터

● 음골

[형태] 골짜기

[위치] 조양4리, 고속도로 다리 밑이다.

[유래] 『동산면지리지』에 “그늘이 진 골짜기이다. 음퇴골 옆이다.”라 하였다.

[어원풀이] ‘음(陰)+골[谷]’로 분석된다.

● 음퇴울

[별칭] 음퇴골

[형태] 골짜기

[위치] 조양4리에 있는 골짜기이다. 동산중학교가 있는 ‘검은다래기’ 옆이다.

[유래] 『동산면지리지』에 “웅달이 쳐서 음침하다고 한다.”라 하였다.

[어원풀이] ‘음(陰)+퇴/터[垈]+울/골[谷]’로 분석된다.

● 응골

[별칭] 음골

[형태] 골짜기

[위치] 『동산면지리지』에 “응태골 위쪽에 위치해 있다.”라 하였다.

[어원풀이] ‘옹/음(陰)+골[谷]’로 분석된다.

● 응태골

[형태] 골짜기

[위치] 『동산면지리지』에 “조양리에 있는 골짜기이다. 지금의 돼지농장 있는 쪽을 가리킨다.”라 하였다.

[어원풀이] ‘옹/음(陰)+태/터[垈]+ㅅ+골[谷]’로 분석된다.

● 자지봉

[형태] 산

[위치] 메지율소류지 근처 남쪽에 있는 산으로, 조 양2리 메지율에서 제일 먼저 해가 떠오르는 산이다. 조양3리에서 서쪽 ‘번궁/본궁-고개’ 북쪽에 자 지산이 있으니, 자지산은 조양2리와 조양3리 사이에 있다.

[유래] 『동산면지리지』에 “번궁/본궁-고개” 위쪽에 있다. 아침에 해가 일찍 뜬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또 옛날에 홍수가 쳐서 천지가 온통 물바다였는데 그 산꼭대기 끝만 물 밖으로 나와 있었다.”라 하였다. 옛날에 홍수가 쳐서 산꼭대기 끝에 서 사람이 서 있는 허리춤(자지)까지 물이 채웠다고 전한다.

[어원풀이] ‘자지(남성 성기)+봉(峰)’으로 분석할 수 있다.

● 작은매골

[형태] 골짜기

[위치] ‘은과정’ 서쪽 300m쯤, 서울양양고속도로와 영서로 사이에 있다. 동산면 조양리 산76-5번지 일대이다.

[어원풀이] ‘작은[小]+매[鷹]+골[谷]’로 분석된다.

● 장군바우

[형태] 바위

[위치] 미상이다.

[어원풀이] ‘장군(將軍)+바우/바위[岩]’로 분석된다.
[유래담] 〈노송과 장군바위〉 춘천시 동산면 조양리에 한 그루 노송이 있다. 한 장수가 이 마을에 태어나 큰 뜻을 품고 나라가 위태로울 때 나가 싸워 나라를 구하겠다는 일념으로 군사들을 훈련시키고 무예를 연마하였다. 그 장수에게는 사랑하는 용마가 있었는데 하루는 용마를 시험해 보고자 훈련장을 달리는 마상에서 전방 약 오백 보 거리에 있는 노송을 향하여 활시위를 당기고 날아가는 화살과 경주를 하였다. 화살이 활시위에서 ‘쌩’하는 소리를 내면서 노송을 향하여 나는 순간과 동시 말도 화살과 같이 노송을 향하여 질주하였다. 말이 노송에 이르러 보니 화살은 이미 박혀 있었다. 장수는 ‘화살보다 빠르지 못한 말은 용마가 아니다’하고 말의 목을 베었다. 말의 목을 베는 순간 쌩하고 화살 하나가 날아와 나무에 박혔으니, 살펴본즉 자기가 쏜 화살이 이제야 날아오는 것을 확인하고 탄식을 했다고 한다. 장군은 소나무 밑에 있는 바위에 두 손을 짚고 말의 목을 벤 것을 후회하며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지금도 그때 장군의 손자국과 눈물자국이 바위에 선명히 나 있으며, 그때 벗겨진 장군의 무쇠탈이 있다고 한다. 그 후 사람들이 말이 죽은 장소에 돌을 하나둘 옮려놓기 시작한 것이 큰 돌무덤이 되었는데, 이 돌무덤을 말무덤이라 전하며 손자국과 눈물자국이 난 바위를 장군바위

라 한다. 마을에서는 해마다 이 소나무에 모여 서 낭제를 지내, 그때의 말의 넋을 위로하고 그해의 농사가 풍년이 되기를 기원하고 있다.『춘천의 설화와 민요』)

● 장승문화연구소

[형태] 건물

[위치] ‘매지울소류지’ 바로 앞에 있다. ‘매지울소류지’는 조양1리, 동산면 행정복지센터와 조양2리마을회관 중간쯤에서, 동쪽 초입에 있는 ‘매지울(마을)’을 지나 700m쯤 북동진하면 나온다.

[유래] 장승문화연구소는 농촌의 자연경관과 전통 문화를 만끽할 수 있도록 목공예를 접목하여 장승과 솟대 등을 제작하고, 연구하며, 홍보한다. 전국 가족 장승과 솟대 만들기 대회가를 가지기도 한다.

● 장자터골

[형태] 골짜기

[위치] 『동산면지리지』에 “하명암 맞은편 고속도로가 있는 호통골 옆에 있는 골짜기이다.”라 하였다.

[어원풀이] ‘장자(長子)+터[垈]+골[谷]’로 분석된다.

● 재취골

[별칭] 재취동(才取洞)

[형태] 골짜기

[위치] 미상이다.

[유래] 『동산면지리지』에 “이곳에 재주 있는 사람이 많이 살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라 하였다.

[어원풀이] ‘재취(才取)+골[洞]’로 분석할 수 있다.

● 전치곡교(田雉谷橋)

[형태] 다리

[위치] 밭치리 입구에서 안으로 들어가면 나오는

다리이다.

[유래] 『동산면지리지』에 “총연장 11m이며 교폭은 4m, 1999년 4월에 시작하여 1999년 9월에 완공되었다. 그러나 지금은 주변에 골프장이 들어서서 마을 전체가 사라지고 없어 이 다리 위로 사람들 이 지나친 흔적이 거의 없다.”라 하였다.

[어원풀이] ‘전치(田雉-里)+곡(谷)+교(橋)’로 분석된다.



전치곡교

● 절골

[별칭] 사곡(寺谷)

[형태] 골짜기

[위치] 조양2리마을회관에서 10시 방향으로, ‘굴지천’과 중앙고속도로 건너편에 있다. ‘절골’ 북쪽 400m쯤에 ‘호통골’이 있다. 동산면 조양리 산263번지 일대이다.

[유래] 『조선지지자료』에 하명암리 소재 골짜기 이름으로 ‘寺谷(절골)’이 기재되어 있다. 『동산면지리지』에 “하명암 맞은편 고속도로가 있는 곳의 활터 위이다. 옛날 절이 있었다고 전한다. 지금도 그곳에 기면 불에 구워 만든 조선기와 조각이 나온다.”라 하였다.

[어원풀이] ‘절[寺]+골[谷]’로 분석된다.

● 조양천(朝陽川)

[별칭] 모래재개울

[형태] 하천

[위치] 북쪽 ‘모래재’와 남쪽 ‘수리봉(470.5m) 사이에서 조양4리로 흐르는 소하천으로, 조양1리(본마을)에서 ‘굴지천(窟只川)’과 합류한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조양리를 흐르는 내[川]라 하였다.

● 조양IC

[별칭] 조양 나들목(Joyang IC). 조양IC 교차로

[형태] 교통

[위치] 동산면 영서로 542번지, 조양리 883-4번지이다.

[유래] 동산면 조양리에 설치된 서울양양고속도로의 7번 교차로이다. 서울 - 동홍천 구간의 다른 나들목에 비해 1년 늦게 착공하면서 2005년에 착공하여 고속도로 개통에 비해 15일 정도 늦은 2009년 7월 31일 오후 6시에 개통하였다. 서울 방면으로의 진입과 양양 방면에서의 진출만 가능하며, 국도 제5호선을 통해 동산면 및 홍천군 북방면 등지로 진출할 수 있다.

● 직골

[형태] 골짜기

[위치] 하명암의 영사골 옆에 있는 골짜기이다.

[유래] 『동산면지리지』에 “골이 곧으나 깊지는 않다.”라 하였다.

[어원풀이] ‘직(直)+골[谷]’로 분석된다.

● 진땅골

[별칭] 집당골

[형태] 골짜기

[위치] 조양1리 1반 은과정에 있는 골짜기이다. 아래에 다릿골이 있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땅이 절다고 한다.”라 하였다.

[어원풀이] ‘진[泥]+땅[地]+골[谷]’로 분석된다.

● 찬우물들

[형태] 들

[위치] 미상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찬우물이 있는 들이라 하였다.

[어원풀이] ‘찬[寒]+우물[井]+들[坪]’로 분석된다.

● 쇠병골

[형태] 골짜기

[위치] 『동산면지리지』에 “하명암 영사골 오른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쇠병골 옆은 홍천군 역전평리이다.”라 하였다.

[어원풀이] ‘쇠병+골[谷]’로 분석할 수 있다. ‘쇠병’의 의미는 불분명하다.

● 치다리골

[형태] 골짜기

[위치] 『동산면지리지』에 “조양3리 상부사원에 있는 골짜기이다. 마을에서 구절산으로 올라가는 길목에 있다. 가는 골 위이다.”라 하였다.

[어원풀이] ‘치다리/치달리-[趨]+골[谷]’로 분석할 수 있다.

● 치울

[형태] 골짜기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큰골 옆에 있는 골짜기라 하였다.

[어원풀이] ‘치(雉)+울/골[谷]’로 분석할 수 있다. 현대 국어 ‘추위’의 옛말인 ‘치뤄’는 15세기 문헌에서부터 나타난다. 15세기의 ‘치뤄’는 형용사 ‘칠-’에 명사 파생 접미사 ‘-의’가 결합한 것이다. ‘치舛’의 제2음절 모음 ‘-나’가 ‘崩’의 영향으로 원순성을 갖게 되면서 ‘구’[uy]로 변한 것이 15세기에 ‘치舛’과 함께 나타나는 ‘치뤄’이다. 15세기에 ‘崩’이 ‘-나’를 제외한 다른 모음 앞에서 ‘-나’로 변화하면서 15세기의 ‘치舛’도 ‘치위’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이후 18세기에 ‘치위’의 제2음절 원순모음 ‘구’의 영향으로 제1음절 모음이 원순성을 갖게 된 것이 ‘츄위’로 추정된다. 중세국어에서 근대국어로 넘어오는 시기에 본래 치음이었던 ‘ㅈ, ㅊ’가 경구개음으로 바뀌었는데 ‘ㅈ, ㅊ’가 경구개음으로 바뀌면서 ‘츄’와 ‘추’는 소리가 같아졌다. 그리하여 19세기에 ‘추위’로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현재에 이른 것이다. 19세기까지도 ‘치위’는 다른 형태들과 공존하였다.

● 큰고개

[형태] 고개

[위치] 조양리 남서쪽 끝이며, 골프장 ‘라비에벨CC’에 흡수된 남서쪽 끝에 있다. 홍천군 북방면 전치곡리와 가깝다.

[어원풀이] ‘큰[大]+고개[峴]’로 분석된다.

● 큰골

[형태] 골짜기

[위치] 조양1리 동산면행정복지센터와 조양2리마을회관 중간쯤에서 동향으로 난 큰 골짜기로 들어서 가면 ‘내지울소류지’가 나온다. ‘내지울소류지’에서 200m쯤 북동진하다가 동쪽 금길로 난 골짜기가 ‘큰골’이다. ‘큰골’ 바로 뒤쪽엔 ‘치울’이 있고,

‘큰골’ 서쪽인 맞은편 조금 북쪽에는 ‘메니리골’이 있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골짜기가 크다고 하였다.

[어원풀이] ‘큰[大]+골[谷]’로 분석된다.

● 큰골저수지

[형태] 수리

[위치] 큰골 아래쪽에 위치해 있다.

[유래] 『동산면지리지』에 밑의 논들에 물을 대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하였다.

● 하명암(下鳴岩)

[형태] 마을

[위치] 조양2리마을회관 근처가 하명암(下鳴岩)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명암 아래쪽에 있는 마을이라 하였다. 『동산면지리지』에 “조양2리 2반에 있는 마을 이름이다. 명암 아래쪽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마을의 명칭은 마을 위쪽 언덕에 명암이란 바위가 있는 데서 유래하였다고 한다.”라 하였다.

[어원풀이] ‘하(下)+명암(鳴岩)’으로 분석된다.

● 하부사원(下府司院)

[형태] 마을

[위치] 조양3리, 영서로와 구절산길 사이가 하부사원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부사원 아래쪽에 있는 마을이라 하였다.

[어원풀이] ‘하(下)+부사원(府司院)’으로 분석된다.

● 해밀텃골

[형태] 골짜기

[위치] 『동산면지리지』에 “조양3리 상부사원에 있는 골짜기이다. 쇠창애골 앞이다.”라 하였다.

[어원풀이] ‘해[太陽]+밀[低]+터[垈]+ㅅ+골[谷]’로 분석할 수 있다.

● 호통골

[별칭] 호통곡(浩通谷)

[형태] 골짜기

[위치] ‘메지율저수지’ 들어가는 입구, 조양2리 ‘메지율(마을)’ 서쪽, 중앙고속도로 바로 너머에 있는 제법 넓은 골짜기이다. ‘호통골’ 남쪽 400m쯤에 ‘절골’이 있다. 동산면 조양리 667번지 일대이다.

[유래] 『조선지지자료』에 하명암리 소재 골짜기 이름으로 ‘浩通谷(호통골)’이 기재되어 있다. 『동산면지리지』에 “하명암 맞은편 고속도로가 있는 부근의 절골 오른쪽이다. 지금 조양리 고속도로 나들목 요금소 있는 곳이다.”라 하였다.

[어원풀이] ‘호(浩)+통(通)+골[谷]’로 분석할 수 있다.

● 황토박골

[형태] 골짜기

[위치] 동춘천산업단지 남쪽으로, 동산면 조양리 산115번지 일대이다.

[어원풀이] ‘황토(黃土)+박/밭[田]+골[谷]’로 분석된다.

● 횃골 1

[별칭] 회곡(灰谷)

[형태] 골짜기

[위치] 조양1리에 있다. 은과정에서 부사원으로 올라가는 각시터골 옆에 있는 골짜기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회가 나는 골짜기라 하였다.

[어원풀이] ‘회(灰)+ㅅ+골[谷]’로 분석된다.

● 횃골 2

[별칭] 회곡(灰谷)

[형태] 골짜기

[위치] 조양3리 상부사원에 있는 골짜기이다. 마을에서 구질산으로 올라가는 길목에 있다. 치다리골 위이다.

[어원풀이] '회(灰)+へ+골[谷]'로 분석된다.



북산면(北山面)

동쪽으로 양구군 국토정중앙면(國土正中央面)과 인제군 남면(南面), 남쪽으로 동면(東面)과 홍천군 회촌면(化村面)·두촌면(斗村面), 서쪽으로 동면(東面)과 신북읍(新北邑), 북쪽으로 화천군 간동면(看東面)에 접한다.

청평리·추곡리·물로리·조교리 등 10개의 행정리를 관할한다. 『춘주지』를 보면 북산외(北山外)에 건천(乾川), 고곡(古谷), 무노곡(無老谷), 조탄(照吞), 대동(大洞), 기곡(基谷), 당동(堂洞), 수정동(水精洞), 추동(楸洞), 누항(樓頂), 수산(水山) 등이 기록되어 있다. 『여지도서』에 북산외면(北山外面)으로 표기되어 있으며, 부창리(富昌里)·건천리(乾川里)·내평리(內坪里)·추곡리(楸谷里) 등의 위치와 호구가 표기되어 있다. 『호구총수』에 건천리·부창리·내평리·사전리·오항리·추곡리·대곡리 등 11개 리로 편성되어 있다. 『해동지도』에는 면 주변에 청평사(淸平寺)·부창驿(富昌驛) 등이 표기되어 있다. 북산외면(北山外面)은 1917년 북산면으로 이름을 개칭하였으며, 1945년 추곡리·대곡리·추전리 일부가 북한 땅이 되었다가 수복되었다. 1995년 춘천시와 춘천군이 합치면서 춘천시에 속하게 되었다.

중앙에 소양호가 있어 면을 동·서로 양분하며, 전체적으로 산지가 많고 평지가 적다. 경지면적 대부분이 밭이다. 주요 농산물은 옥수수·감자·콩이다. 소양댐~양구 청평사(淸平寺) 간을 유람선이 왕래하며, 소양댐·청평사 등의 관광지가 있어 많은 관광객이 모여든다.

위치와 현황 | 내평리는 호수 주변의 산간마을이다. 남쪽으로 소양호가 있고, 북서쪽으로 봉화산이 있다. 자연마을로는 당골, 감북두루, 고일, 배소구미, 벼들골 등이 있다.

연혁 | 『춘주지』를 보면 북산외(北山外)에 건천(乾川), 고곡(古谷), 무노곡(無老谷), 조탄(照吞), 대동(大洞), 기곡(基谷), 당동(堂洞), 수정동(水精洞), 추동(湫洞), 누항(樓頂), 수산(水山) 등이 기록되어 있는데 내평리와 관계된 곳은 자세하지 않다. 『여지도서』, 『호구총수』, 『춘천읍지』, 『춘천부지』, 『관동읍지』는 북산외면(北山外面) 내평리(內坪里)로 표기하였다. 『조선지지자료』, 『강원도지지조서』는 북산외면(北山外面) 내평리(內坪里)로, 『강원도지』, 『수춘지』, 『춘주지』, 『춘천백년사』는 북산면(北山面) 내평리로 표기하였다. 현재 행정리와 법정리는 동일하게 내평리다.

유래 | 마을의 위치가 소양강(昭陽江)의 안쪽이 되므로 내평(內坪)이라 하였다.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감북두루, 고일, 구석리, 당골, 삼밭골, 백민터, 배소구미, 우버덩, 벼들골, 한터를 병합하여 내평리라 하였다.

● 가래소

[형태] 소(沼)

[위치] 미상이다. 소양호에 수몰된 것으로 추정된다.

[유래] 기존문헌에 소양강에 있는 소(沼)라 하였다.

[어원풀이] ‘가라/가래[分, 岐]+소(沼)’로 분석된다.

‘가랑무’처럼 ‘모습이’ 갈라진 소(沼)’이다.

● 가협(加挾)

[별칭] 가협리(加挾里)

[형태] 마을

[위치] ‘부창고개’에서 내평리로 들어오는 좁은 길목에 있었다. 소양호에 수몰되었다.

[어원풀이] ‘가협(加挾)+리(里)’로 분석된다. 물가에 있는 골짜기란 의미로 추정된다.

● 감북두루

[별칭] 감호동(鑑湖洞)

[형태] 마을

[위치] 내평리의 본 마을인데 소양호에 수몰되었다.

[유래] 기존문헌에 내평리의 본 마을로 앞에 큰 늪이 있었다고 하였다.

[어원풀이] ‘감(監/鑑, 坎, 甘)+북(北)+두루/들[坪/村/洞]’로 분석된다. ‘-두루/들[坪, 野]’를 제외하면 ‘감북’이 들의 이름이며 그 유래가 된다. ‘-두루/들’은 ‘-동네(洞), 마을’이고, 그 한자지명 ‘鑑湖洞’의 ‘호(湖)’는 ‘마을 앞에 큰 늪이 있었다’이니, 나머지는 ‘鑑湖洞’의 ‘감(鑑)’만이 ‘감북두루’의 ‘감북’과 대응하게 된다. 즉, ‘鑑湖洞’에서는 방향 ‘북쪽(北)’이 빠졌고, 반면에 ‘감북두루’에서는 자연의 속성인 ‘늪[沼/湖]’이 빠졌다. 한편, ‘鑑湖洞’에서 ‘감(鑑)’으로 표기한 것은 흔히 거울같이 맑은 호수를 뜻하는 ‘鑑湖’에서 따온 것이다. 그리고 이곳 늪은 ‘호(湖)’만한 큰 늪이다. ‘감북두루’의 ‘감’과 ‘감호

동’의 ‘감’은 같으며 ‘감/검/곰/굼[神, 崇]’ 등과 동 궤의 어원을 가진다. 그리하여 감북두루(감호동)는 ‘북쪽에 큰 늪이 있는 신성한 마을’을 뜻한다고 할 수 있다.

● 고물개배미

[형태] 논

[위치] 감북두루에 있는 논인데 수몰되었다.

[유래] 기존문헌에 감북두루에 있는 논이라 하였다.

[어원풀이] ‘고물개(고무래)+배미’로 분석된다. ‘고물개’는 ‘고무래’의 방언(강원, 충남, 황해)이며, 곡식을 짚어모으고 펴거나, 밭의 흙을 고르거나 아궁이의 재를 짚어모으는 데에 쓰는 ‘丁’ 자 모양의 기구이다. 장방형이나 반달형 또는 사다리꼴의 널조각에 긴 자루를 박아 만든다. ‘-배미’는 ‘논배미’에서 온 것으로 주로 ‘논[畠]’의 의미를 떠며 지명첩미 사화한 것이다. 고무래처럼 생긴 논이란 의미이다.

● 고일(高日)

[형태] 마을

[위치] 내평리 남쪽으로 흐르는 소양강변에 위치하며 강을 건너면 물로리이다.

[유래] 기존문헌에 감북두루 남서쪽에 있는 마을이라 하였다. 소양호에 수몰되기 전 내평리에서 가장 낮은 말발굽처럼 회돌아가는 소양강가에 있었으며, 내평초교에서 소풍을 가던 곳이었다.

[어원풀이] 지형지세를 고려하면 ‘고/곡(曲)+일/실(室, 村)’로 분석할 수 있다. 일제강점기 지도에 ‘고일(高日)’이라 표기되어 있는데 ‘일(日)’은 음차자(音借字)이다. 한편 ‘고일’이 소양강변에 있었으므로 높은[高] 지대가 아니라 낮은 곳이므로 ‘고(高)’도 음차자이다. ‘고일’이 소양강 주변 저지대에 있었으므로, ‘고>가>기[邊]+일/실[室, 村]’로 해석할

수도 있다. 타지역에 산재하는 ‘고일’은 대부분 ‘고/곡[谷]+일/실(室, 村)’로 분석하는 편이다.

● 고쿨바우

[별칭] 코쿨바우, 코클바우

[형태] 바위

[위치] ‘당골’에서 ‘백민터’ 중간쯤에 있으며 동쪽에 ‘삼밭골’이 있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고쿨(관솔불을 켜 담는 그릇)처럼 생긴 바위라 하였고, 『북산면사람들』에 “내평리의 서낭나무(보호수) 아래에 서당이 있었다고 한다. 그 서당의 옆에 있는 바위에 불을 불였다 고 해서 고쿨바위라고 불렀다.”라 하였다.

[어원풀이] ‘고쿨/코쿨/코클+바우/바위[岩]’로 분석된다. ‘고쿨’은 예전에, 관솔불을 올려놓기 위하여 벽에 뚫어 놓은 구멍이다. ‘코쿨/코클’은 ‘고쿨’의 강원 방언이다. 동면 품안리에도 ‘고쿨바우’가 있다.

● 구석이

[별칭] 구석리(九錫里)

[형태] 마을

[위치] 『한국지명총람』에 한터 서쪽 구석진 곳에 있는 마을이라 하였다.

[어원풀이] ‘구석(구석지다. 隅)+이(파생접미사)’로 분석된다. 구석진 곳에 있는 마을이란 의미이다.

● 굴아웃골

[별칭] 굴바우골

[형태] 골짜기

[위치] 『한국지명총람』에 굴바우가 있는 골짜기라 하였다.

[어원풀이] ‘굴(窟)+아우/바우[岩]+골[谷]’로 분석된다. ‘아우’는 ‘바우’에서 ‘ㅂ’이 탈락했다.

● 기승짓골

[별칭] 기승지꼴, 기승지꼴

[형태] 골짜기

[위치] 『한국지명총람』에 내평리에 있는 골짜기라 하였다.

[어원풀이] ‘기승(奇勝)+지(地)+ㅅ+골[谷]’로 분석된다. 멋진 풍광이 있는 골짜기란 의미이다. ‘승짓골’은 전국적인 지명이나 ‘기승짓골’은 드물다.

● 깊은소

[별칭] 기픈쏘, 기픈소, 지픈소

[형태] 소(沼)

[위치] 『한국지명총람』에 당골 앞에 있는 소(沼)라 하였다. 현재는 소양호에 수몰되었다.

[어원풀이] ‘깊은[深]+소(沼)’로 분석된다.

● 내평나루

[별칭] 내평나루터, 내평리배터

[형태] 나루

[위치] 『한국지명총람』에 내평리 앞에 있는 소양강의 나루로 물노리(勿老里)로 통한다고 하였다. 감북두루 북쪽 골짜기에 있는 마을에서 소양강을 이용하는 나루였다.

[어원풀이] ‘내평(內坪)+나루[浦口]’로 분석된다.

[유래담] 옛날에는 ‘망태여울, 물기여울, 제비여울’ 등의 소양강의 여울이 있어서 소양강을 떠내려 오던 뗏목꾼에게는 소용돌이치는 물살로 혼을 빼기도 하였다. 지금은 소양댐 건설로 모두 물속에 잠겼다. 물론 ‘내평나루’도 물속에 잠겼다. 『춘천향토자료집』

● 내평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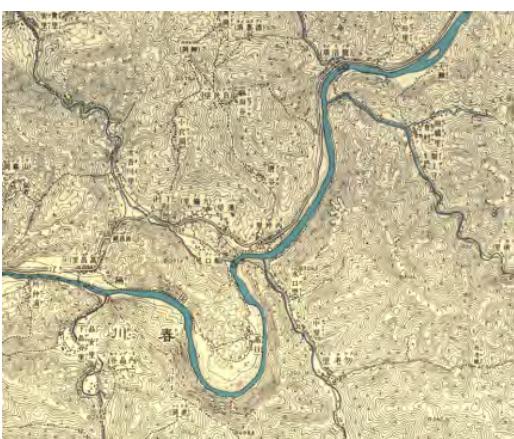
[별칭] 내평

[형태] 마을

[유래] 행정지명 '내평리'의 바탕이 되는 마을이나 1967년 소양댐 건설로 소양호에 수몰되었다. 소양호에 수몰되기 전엔, 신북읍 천전리(泉田里) ~ 수구동(水口洞, 소양댐 자리) ~ 청평리(淸平里) ~ 부창리(富昌里) ~ 구석리(九錫里) ~ 한대(漢垈) ~ 내평리(內坪里)로 이어지는 육로길이 있었다. 1872년 춘천 지도에서는 '천전장리(신북읍 천전리 구샘밭장) - 부창역(부창고개) - 가협(加暉, 소양호에 수몰) - 내평(복산면 내평리)'으로 소양강변을 따라 길이 이어져 있다.



〈1872년 춘천부 지도〉에 표기된 소양강 육로



소양호에 수몰 전 내평리 일대 지도(일제강점기)

● 내평분교

[별칭] 오항초등학교분교

[형태] 학교

[위치] 백민터 아래 가까이에 있다. 내평길이 그 앞을 지난다.

[유래] 내평초등학교가 1973년 소양호에 수몰되고, 1986년 오항초등학교 내평분교로 이전되었다가 폐교되었다.

● 내평초등학교

[별칭] 내평초교

[형태] 학교

[위치] 1967년 소양댐 건설로 1973년 소양호에 수몰되었다.

[유래] 1920년 내평공립보통학교로 설립, 1973년 소양강댐에 수몰되고, 1986년 오항초등학교 내평분교로 이전되었다가 폐교됐다. 소양강댐이 만들 어지면서 학생들이 마을을 떠나기 시작하자 학교 일부를 헬어 부귀분교를 지었다. 학교가 헬리자 면 사무소 건물과 영림서건물에서 공부를 하다가 물에 잠기지 않은 백민터에 분교가 세워져 있다가 폐교가 됐다. 지금은 어느 화가의 개인 소유가 되어 화실로 사용되고 있다.



수몰되기 전 내평초등학교 모습

● 당곡(唐谷)

[별칭] 당골

[형태] 마을

[위치] 내평리로 내평리 북쪽에 있는 마을이다. ‘감북두루’ 북쪽 골짜기이다. ‘당골’ 너머는 ‘중집골’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감북두루 북쪽 골짜기에 있는 마을로 불당이 있었다고 하였다. 내평리는 내평1리와 2리가 소양호에 거의 수몰되어, ‘백민터/뱅민터/백민터고개’와 ‘당골’ 정도만 수몰되지 않은 지역으로 두 곳을 묶어 1개 반으로 편성하였다.
[어원풀이] ‘당(서낭堂/*唐)+곡(谷)’으로 분석된다. ‘당곡(唐谷)’의 ‘당(唐)’은 음차자(音借字)이다. 토속신(土俗神)을 제사 지내는 사당(祠堂)이나 당산(堂山) 또는 무당(巫堂)이 있는 마을에 주로 붙여지는 지명이다.

● 당꼴개

[별칭] 당꼴개

[형태] 하천

[위치] 『한국지명총람』에 당꼴에 있는 내[川]라 하였다. ‘감북두루’ 북쪽 골짜기에 있는 내[川]이다.
[어원풀이] ‘당(서낭堂)+ㅅ(사이시옷)+꼴[谷]+개[川]’로 분석된다.

● 대구배미

[별칭] 덕배미

[형태] 들

[위치] 『한국지명총람』에 감북두루에 있는 논이라 하였다.
[어원풀이] ‘대구/대기/더기/덕(둔덕)+배미’로 분석 할 수 있다. ‘덕’은 고구려어의 유산으로, 현대국어에는 ‘언덕, 둔덕’의 지명에 그 흔적을 남기고 있다.

의미는 ‘높다[高], 크다[大]’로 전의(轉義)되었다. 이형태로는 ‘덕/덕이/더기’가 있다. ‘-배미’는 ‘논배미’에서 온 것으로 주로 ‘논[畠]’의 의미를 떠며 지명접미사화한 것이다. 언덕에 있는 논이란 의미이다.

● 독바우

[별칭] 독아우

[형태] 바위

[위치] 『한국지명총람』에 한터에 있는 바위라 하였다. 수몰된 것으로 추정된다.

[어원풀이] ‘독(장독)+바우[岩]’로 분석된다. 장독 모양의 바위이다.

● 뒷덕봉

[별칭] 뒤떡봉, 뒤통

[형태] 산

[위치] 내평리 뒤에 있는 고도 550m의 산으로 ‘망태봉’과 더불어 내평리에서 제일 높고 가파른 산이다. ‘된봉’이라고도 부른다.

[어원풀이] ‘뒤[後]+ㅅ+덕(언덕, 둔덕)+봉(峰)’으로 분석된다. ‘덕’은 고구려어의 유산으로 ‘높다[高], 크다[大]’로 전의(轉義)되었다. 별칭인 ‘된봉’은 ‘[되-(일이 힘에 벅차다)}+{-ㄴ(관형사형어미)}+봉(峰)’으로 분석되어 그 의미와 상통한다.

● 망태골

[형태] 마을

[위치] ‘망태봉, 망태골, 망태바우, 망태여울’은 내평리 북동쪽에 있으며, 서쪽에 ‘삼밭골’이 있고, 동쪽에는 소양강이 흘렀다.

[유래] ‘망태바우’가 있는 골짜기로, 이곳에 ‘임진왜란 전후에 어떤 사람이 망태를 지고 와서 살았다

고 해서 망태골이라 불렀다’는 유래가 있다. 그러나 이는 ‘망태바우’의 유래가 우선하므로, 후에 덧붙여진 전의된 유래담이라 할 수 있다.

[어원풀이] ‘망태(망태기)+골[谷]’로 분석된다. ‘망태’는 ‘망태기’의 준말이며, ‘망태기’는 물건을 담아들거나 어깨에 메고 다닐 수 있도록 만든 그릇. 주로 가는 새끼나 노파위로 엮거나 그물처럼 떠서 성기게 만든다. ‘망태골, 망태봉, 망태여울’은 모두 ‘망태바우’에서 이름이 전이(轉移)되었다.

● 망태바우

[형태] 바위

[위치] 망태골에 있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망태처럼 생겼다는 바위라 하였다. 망태바우에 토종별통이 많다.

[어원풀이] ‘망태(망태기)+바우[岩]’로 분석된다. ‘망태골’ 참조.

● 망태봉

[형태] 산

[위치] 망태골 위에 있는 고도 550m 산이다.

[어원풀이] ‘망태골’ 참조.

● 망태여울

[형태] 여울

[위치] 망태골 아래에 있는 여울로 소양호에 수몰되었다.

[어원풀이] ‘망태골’ 참조.

● 매바우

[형태] 바위

[위치] 미상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맷돌처럼 생긴 바위라 하

였다.

[어원풀이] ‘매(맷돌/매돌)+바우[岩]’로 분석된다.

● 매봉

[형태] 산

[위치] 내평리에 있는 산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모양이 매처럼 생겼다고 하였다.

[어원풀이] ‘매[鷺]+봉(峰)’으로 분석된다.

● 물레방아골

[별칭] 물안골

[형태] 마을

[위치] 『북산면사람들』에 물레방아가 있던 자리를 물안골이라 부른다고 하였다.

[어원풀이] ‘물레방아+골[谷]’로 분석된다. 물레방아가 있는 골짜기란 의미이다.

● 발래여울

[형태] 여울

[위치] 『한국지명총람』에 소양강에 딸린 여울이라 하였다. 소양호에 수몰되었다.

[어원풀이] ‘발래/발리[快]+여울[灘]’로 분석된다. ‘발래/발리’는 ‘빨리[快]’의 방언이다. 빠른 여울이란 의미이다. 지역에 따라 ‘발래’가 ‘소발구’의 ‘발구’의 방언일 수도 있다. ‘북부방언’인 ‘발구’는 마소에 메워 물건을 실어 나르는 큰 썰매로, 주로 산간 지방 따위의 길이 험한 지역에서 사용한다.

● 배소

[형태] 소(沼)

[위치] 수몰된 내평초등학교 뒤로, 소양댐이 생기기 전엔 춘천 쪽에서 내평리에 들어가기 전 우측

강가에 있었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배처럼 생긴 소(沼)라 하였다.

[어원풀이] ‘배[船]+소(沼)’로 분석된다.

● 배소구미

[별칭] 선구미(船口尾)

[형태] 마을

[위치] 수몰된 내평초등학교 뒤, 감북두루 서쪽에 있는 마을로 소양댐이 생기기 전엔 춘천 쪽에서 내평리에 들어가기 전, 우측 강가에 있었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감북두루 서쪽에 있는 마을로 지형이 배처럼 생겼다고 하였다.

[어원풀이] ‘배[船]+소(沼)+구미(접미사)’로 분석된다. 지명접미사 ‘-구미’는 그 의미가 ‘바다나 강가 주변에서 음푹 들어간 곳이나 후미진 곳’을 뜻한다.

● 백민터

[별칭] 뱃민터, 백민대(白民垈), 백미터

[형태] 마을

[위치] 당골 북쪽에 있으며, 삼밭골(마전곡)이 동쪽 가까이에 있다. 내평리 대부분은 소양호에 수몰되고 ‘백민터/뱃민터/백민터고개’와 ‘당골’ 정도가 수몰되지 않은 지역으로 두 곳을 뮤어 1개 반으로 편성하였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임진왜란 때 백 사람이 피란하여 이곳을 개척했다고 하였고, 『북산면사람들』에 “한자로 백민대(百民垈)라 한다. 이곳에 백 명만 머물면 난리가 나고 그래서 백 명 정도가 살기에 적당한 터라고 하여 백민터라 불렸다. 여기가 터가 좋아서 한국전쟁 때에 이곳에 살던 사람은 한 명도 잘못되지 않았다.”고 하였다.

[어원풀이] ‘백(百)+민(民)+터[垈]’로 분석된다. 별

칭 ‘뱃민터’는 ‘백민터’에서 ‘백’의 ‘ㄱ’과 ‘민’의 ‘ㅁ’이 만나(자음접변), 비음(鼻音) ‘ㅁ’의 영향으로 폐쇄음(閉鎖音) ‘ㄱ’이 비음(鼻音) ‘ㅇ’으로 변화(비음화 역행동화)한 것이다. 한편, ‘백민터’의 한자지명에서 ‘백(白)은, 이 지명의 유래에 따르면 ‘백(白)’이 아니고, ‘백(百)’이어야 한다. 별칭인 ‘백미터’를 어원으로 하면 ‘흰 땅’과 관련지은 ‘백(百)’일 가능성도 있다.

● 백민터고개

[별칭] 뱃민터고개, 작은고개

[형태] 고개

[위치] 백민터에 있는 고개로 이 고개를 넘어가면 오항리 ‘수청골’에 이른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뱃민터에 있는 고개라 하였다. 추곡리, 오항리 등지에서 내평초등학교로 오가던 ‘작은고개’라 부르기도 하는 고개이다.

[어원풀이] ‘뱃민터’ 참조.

● 벼들골

[별칭] 유동(柳洞)

[형태] 마을

[위치] 백민터와 북산면 부귀리 ‘물안골’ 사이에 있다. ‘벼들골’에서 오항리 ‘가맛골’로 이어진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뱃민터 북서쪽에 있는 마을로 벼드나무가 많이 있었다고 하였다. 봉화대가 있었으며 소양강(소양호) 봉엣뚝 봉화로 전달되었다.

[어원풀이] ‘벼들[柳]+골[谷]’로 분석된다. 골짜기를 따라 길게 계곡물이 흐르는 경우에 ‘긴 벼들(벼들을/벼들; 벼들나무)’을 의미하여 ‘벼들내, 벼들골’이라고도 한다. 이곳은 고도 400~450m, 길이 1km 정도인 긴 골짜기이다.

● 벼락바우

[형태] 바위

[위치] 미상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벼락을 맞은 바위라 하였다.

[어원풀이] ‘벼락[雷]+바우[岩]’로 분석된다.

‘부창고개’를 넘고, 청평리 ‘스무나무재’를 지나, ‘수 구동(水口洞)’에서 청평사(淸平寺)를 갈 수 있었다.

[어원풀이] ‘부청/부창(富昌)+고개[峴]’로 분석된다.

조선시대 부창역(富昌驛)이 있었으므로 ‘부창고개’가 본래 이름이다.

● 본마을

[별칭] 내평리(內坪里)

[형태] 마을

[위치] 내평리(內坪里)의 본 마을이다.

[유래] 1960년대까지도 북산면사무소, 내평지서, 영립사업소, 우체국 등과 상설 점포, 정미소, 술집 등 다양한 시설이 즐비했으며 내평초교도 학생 수 500~600명을 유지할 정도로 북산면의 심장부 역할을 했지만, 지금은 거의 물에 잠기면서 완전 분리·해체되고 하나의 유기적인 사회·경제적 단위체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었다.

[어원풀이] ‘본(本)+마을[村]’로 분석된다.

● 불고개

[별칭] 붉(은)고개

[형태] 고개

[위치] 소양호에 수몰된 ‘한터’ 북쪽 소양호 근처에 있으며, 계속 가면 ‘망태골’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산불이 잘 나는 고개라 하였다. 제보자의 증언으로는 유난히 붉은 흙이 많은 고개라 한다.

[어원풀이] ‘불[火]+고개[峴]’ 또는 ‘붉/붉은[赤]+고개[峴]’로 분석된다. ‘불[火]고개’의 유래는 가변 적이고, ‘붉[赤]고개’의 유래는 불변적이므로, 후자에서 전자가 전의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부청고개

[별칭] 부창고개, 부창현(富昌峴)

[형태] 고개

[위치] 청평리(淸平里)와 부귀리(富貴里), 내평리(內坪里)를 오가던 고개이다. 행정구역은 내평리에 속하며 부귀리와 경계에 있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부청에 있는 고개라 하였다. 요즘은 ‘부창고개’라 부른다. 1973년 소양호에 청평리 소재, ‘부창(富昌)마을’은 완전히 수몰되고, ‘부창고개’도 주변 일대가 물에 잠겨, 청평리와 부귀리, 내평리를 넘나드는 고개로서의 기능은 상실하고, 극히 일부만 접하고 있다. 참고로 예전엔 소양호(昭陽湖)에 일부가 물에 잠긴 부귀리와 내평리에서, 지금은 소양호에 둘러싸여 고갯마루만 남아있는

● 불개울

[별칭] 불기여울

[형태] 여울

[위치] 모두 소양호에 수몰된 ‘고일’의 북쪽 끝자락 소양강을 이룬다. 인근에 ‘여우내’가 있었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소양강에 있는 여울이라 하였다.

[어원풀이] ‘불/붉/붉은[赤]+개울[川, 滾]’로 분석된다.

● 불당골

[형태] 골짜기

[위치] ‘불고개’ 인근에 있었으나 소양호에 수몰되었다.

[어원풀이] ‘불당(佛堂)+골[谷]’로 분석된다.

● 봉애뚝

[형태] 산

[위치] 미상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예전에 봉화(烽火)를 놓던 산이라 하였다.

[어원풀이] ‘봉애/봉화(烽火)+뚝(뚝)’으로 분석된다. ‘봉애’는 ‘봉화’가 변한 말이다. ‘뚝(뚝)’은 높은 길을 내려고 쌓은 언덕이나, 보를 만들거나 논밭을 보호할 목적으로 쌓은 방죽이다. ‘봉애뚝’에서 ‘뚝’은 봉화를 피우기 위해 설치한 ‘봉화대’를 가리킨다. ‘봉화대’로서 ‘봉화뚝’은 사방경계가 트인 높은 산에 자리하기 마련이다.

● 삼간바우

[형태] 바위

[위치] 『한국지명총람』에 피란망태골에 있는 바위라 하였다.

[어원풀이] ‘삼(三)+간[칸]+바우[岩]’로 분석된다. 세 겹으로 포개진 바위란 의미이다.

● 삼밭골

[별칭] 마전곡(麻田谷)

[형태] 골짜기

[위치] 내평리 북쪽 ‘당골’과 ‘백민터’ 중간쯤에서 동쪽에 있으며 더 동진하면 ‘망태골’에 이른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200여 년 전에 박제삼이라는 사람이 망태를 지고 살 곳을 찾아와 보니 삶을 심어 질삼을 하면 잘 살 수 있다 하여 삶을 많이 보급했다고 하였다. 지금은 ‘삼밭골’ 주변에 다섯 가구 가 흩어져 살고 있다. ‘삼밭골’은 제법 큰 밭이다.

[어원풀이] ‘삼[麻]+밭[田]+골[谷]’로 분석된다.

● 상투바우

[별칭] 유두바위

[형태] 바위

[위치] 미상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상투처럼 생겼다고 하였다. [어원풀이] ‘상투+바우[岩]’로 분석된다. 바위 위에 작은 바위가 붙어 있는 형상이어서 ‘유두바위’라고도 한다.

● 솔미정

[형태] 마을

[위치] 미상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소나무 정자가 있던 터라 하였다.

[어원풀이] ‘솔/졸[小]+미/뫼[山]+정(亭)’으로 분석 할 수 있다. ‘솔’은 ‘오솔길’처럼 ‘작다’는 의미이다.

● 송이잣봉

[형태] 산

[위치] 미상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송이(松樹)가 많이 나는 산이라 하였다.

[어원풀이] ‘송이(松樹)+재[峙]+ㅅ+봉(峰)’로 분석된다. 지명접미사 ‘재(峙)’와 ‘봉(峰)’이 거듭 쓰였다.

● 수신개

[형태] 하천

[위치] 『한국지명총람』에 내평리에 있는 내[川]라 하였다.

[어원풀이] ‘수(숲, 蔽)+신/실[村]+개[川], 溪]’로 분석 할 수 있다. 숲말에 흐르는 개울이란 의미이다.

● 시루물

[형태] 우물

[위치] 『한국지명총람』에 감북두루에 있는 우물이라 하였다.

[유래] 시루처럼 생긴 바위인 ‘시루바우’가 옆에 있다.

[어원풀이] ‘시루[甑]+물[우물, 泉/井]’로 분석할 수 있다. 근처에 있는 ‘시루바우’에서 차용된 지명이다.

● 시루바우

[형태] 바위

[위치] 『춘주지』에 시루처럼 생긴 바위로 옆에 ‘시루물(餽)’이 있다고 하였다

[어원풀이] ‘시루[甑]+바우[岩]’로 분석된다.

● 안질재

[형태] 산

[위치] 『한국지명총람』에 마을(내평리) 안쪽 길에 있는 산이라 하였다.

[어원풀이] ‘안[內]+질[길]+재[峠, 山]’로 분석할 수 있다. ‘길’이 ‘질’로 구개음화 되었고, 지명접미사 ‘-재’는 본뜻인 ‘고개[峠]’에서 전의(轉義)되어 ‘산, 마을, 골, 들, 벼덩, 터’ 등 여러 의미로 쓰인다.

● 여우내

[형태] 하천

[위치] 모두 소양호에 수몰된 ‘고일’의 북쪽 끝자락 소양강을 이른다. 인근에 ‘불기여울/불개울’이 있었다.

[어원풀이] ‘여우[狐]+내[川]’로 분석된다.

● 역밭두루

[형태] 들

[위치] 내평리에 있었던 들관인데 현재는 수몰되었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예전에 역(驛)에 땔렸던 들이라 하였다.

[어원풀이] ‘역(驛)+밭[田]+두루[野, 坪]’로 분석된다.

● 오뚝기

[별칭] 오띠기, 오떼기, 오퇘기

[형태] 마을

[위치] 내평리 서쪽, 북산면 부귀리와 접하고 있다. 이곳에서 부귀리로 난 골짜기는 부귀리에 소재하는 ‘옻골’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오뚝하게 솟아 있다고 하였고, 『북산면사람들』에 산의 경사가 높고 꼿꼿하게 서있다고 해서 오뚝이라 불렀다고 하였다. 제보자의 중언으로는 본디 ‘오떼기’가 ‘오뚝기’로 변음되어 ‘오뚝이’라는 유래로 전의되었다고 한다.

[어원풀이] ‘오/옻[漆]+뚝기/떼기/떼기’로 분석된다. ‘오’는 ‘옻[漆]’이며, ‘놋’이 탈락(Deletion)되었다. ‘떼기’는 ‘경계를 지어 놓은 논밭의 구획’을 뜻한다. 옻나무를 심은 밭이란 의미이다.

● 용핫구미

[별칭] 용앗구미

[형태] 소(沼)

[위치] 『한국지명총람』에 소양강에 있는 소(沼)라 하였는데 현재는 소양호에 수몰되었다.

[어원풀이] ‘용(龍)+핫/앗/밭[田]+ㅅ+구미(접미사)’로 분석된다. 지명접미사 ‘-구미’는 바다나 강가 주변에서 음푹 들어간 곳이나 후미진 곳’을 뜻한다.

● 웃버덩

[별칭] 우벼덩, 상평(上坪)

[형태] 마을

[위치] 『한국지명총람』에 내평리 위쪽에 있는 마을

이라 하였다. ‘불고개’ 인근에 ‘불당골’과 ‘웃버덩(상평)’이 있었으나 소양호에 수몰되었다.

[어원풀이] ‘우[上]+ㅅ+벼덩’으로 분석된다. 지명첩 미사 ‘-벼덩’은 높고 평평하며 나무는 없이 풀만 우거진 거친 들을 뜻한다.

● 응덩배미

[별칭] 응덩배미

[형태] 논

[위치] 『한국지명총람』에 감북두루에 있는 논이라 하였다.

[어원풀이] ‘웅덩(웅덩이)/웅덩/옹덩+배미(접미사)’로 분석된다. 웅덩이처럼 얕게 패인 곳에 있는 논 이란 의미이다.

● 장맛두루

[형태] 들

[위치] 『한국지명총람』에 감북두루에 있는 들이라 하였다.

[어원풀이] ‘장마/장막(牆幕)+두루/들[坪]’으로 분석된다. ‘장맛’은 ‘장막(牆幕)’의 변이형이다.

● 정개고개

[형태] 고개

[위치] 『한국지명총람』에 솔미정 부근에 있는 고개라 하였다.

[어원풀이] ‘정개(정개나무)+고개[峴]’로 분석할 수 있다. ‘정개나무’는 ‘정자(亭子)나무’의 방언으로, 집 근처나 길가에 있는 큰 나무이며, 가지가 많고 잎이 무성하여 그 그늘 밑에서 사람들이 모여 놀거나 쉴 수 있는 나무이다.

● 제비여울

[형태] 여울

[위치] 『한국지명총람』에 소양강에 있는 여울이라 하였다.

[어원풀이] ‘제비[燕]+여울[灘]’로 분석된다.

● 증지골

[별칭] 중집골, 중죽골

[형태] 마을

[위치] 감북두루 북서쪽 골짜기에 있는 마을로 당골과 백민터 중간쯤에 있다.

[유래] 제보자의 증언으로는 중이 살았던 집이 있었다고 한다.

[어원풀이] ‘증지/증지+골[谷]’로 분석할 수 있다. ‘증지’는 ‘간장·고추장 따위를 담아서 상에 놓는 종발보다 작은 그릇’이다.

● 증멧등

[형태] 산

[위치] 『한국지명총람』에 봉애뚝 건너편에 있는 산이라 하였다.

[어원풀이] ‘증(중/죽, 竹)+메/뫼[山]+ㅅ+등(등성이)’으로 분석할 수 있다. ‘멧등’은 ‘산등’의 고어형(古語形)이다.

● 피란망태골

[형태] 골짜기

[위치] 망태골과 동일한 곳으로 추정된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피란을 했던 골짜기로 삼간바우가 있다고 하였다.

[어원풀이] ‘피란(避亂)+망태골’로 분석된다. ‘망태골’로 피란갔다는 말이 지명으로 변했다. ‘망태골’ 참조.

● 춘천내평리선사유적지

[별칭] 내평리선사유적지터

[형태] 고적

[위치] 북산면에 있었던 신석기시대~청동기시대
집터와 고인돌·돌널무덤 관련 복합유적인데 소양
강댐이 건설되면서 수몰되었다.

[유래] 유적에 대한 조사는 1971년 문화재관리국
주관 하에 서울대학교와 국립중앙박물관의 협조
로 이루어졌다. 발굴조사 결과, 고인돌[支石墓]·돌
널무덤[石棺墓]을 비롯해 민무늬토기시대[無文土
器時代]의 네모움집터[方形整穴住居址]와 벗살무
늬토기시대[櫛文土器時代]의 돌깐집터[敷石住居
址] 등이 확인되었다. 벗살무늬토기시대의 돌깐움
집터와 민무늬토기시대의 네모형 움집터간의 문
화교체시기는 대략 서기전 10세기 이전인 것으로
판단된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

● 춘천내평리지석묘

[별칭] 내평리고인돌

[형태] 고적

[위치] 내평1리와 내평2리에 위치한다.

[유래] 1971년 문화재관리국의 소양댐 수몰지구
조사에서 각 2기와 1기의 고인돌[支石墓]이
발굴조사되었다. 내평1리의 2기는 서로 4m 거리를 두
고 있으며 동측 1기는 뚜껑돌[上石] 위에 고임돌
[支石]용 판돌[板石] 1매가 얹혀진 상태이며, 서측
의 1기는 뚜껑돌의 상반부만 노출된 상태로 남아
있었다. 동측 1기는 크기가 $330 \times 26 \times 40\text{cm}$ 이며
그 위에 놓인 추정 고임돌용 괴석(塊石)은 가장 긴
길이가 100cm에 이른다. 주민의 전언에 의하면 일
제시대에 일본인들이 와서 내부를 파괴하고 그 안
에서 돌화살촉[石鏃] 9점을 꺼내갔다고 한다. 내
평2리의 1기는 뚜껑돌은 민가마당에 놓여 있었고,

고임돌로 보이는 판돌 3매가 뚜껑돌로부터 동북쪽
으로 5m정도 이동되어 장독대로 사용되고 있었
다. 내평1리와 2리의 고인돌은 북한강 상류역에서
보이는 전형적인 형식인 소형 탁자식(卓子式) 고인
돌에 해당된다.(『고고학사전』)

● 한대(汗垈/漢垈)

[별칭] 한터

[형태] 마을

[위치] 내평 서북쪽에 있는 마을로 수몰 전 내촌초
등학교 앞마을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내평 서북쪽에 있는 마을
이라 하였다.

[어원풀이] ‘한[大]+대(垈)’로 분석된다. ‘汗, 漢’은
음차자(音借字)이다. ‘한’은 ‘한숨, 한강, 한밭, 한길’
등과 같이 ‘크다[大]’이므로, 그 한자 표기는 ‘大垈’
이어야 한다. 그리고 큰 강의 의미를 가진 ‘한강’의
한자 지명이 ‘한강(漢江)’인 것처럼 ‘한터’를 ‘한대
(漢垈)’ 또는 ‘한대(汗垈)’로 음차한 것이다.

[유래담] ‘한터’는 이곳에 살던 머슴(한이라는 총각)
이 아버지 뒷자리를 잘 써서 중국 한나라의 천자
(天子)가 되어 간 터라는 전설이 전한다. 그리고 머
슴의 아버지가 용이 되어 산을 뚫고 지나가면서
생긴 ‘돌무덤(돌무더기)’이 자리한 곳이다. 머슴의
무덤은 ‘한천자무덤’이라 하는데 물로리 가리산에
도 있다.

위치와 현황 | 소양호가 마을을 동서로 가로지르고 가운데 계명산이 우뚝 서 있다. 자연 마을로 더운샘골, 다름다리, 명오지, 밤무니가 있다.

연혁 | 『여지도서』, 『호구총수』, 『춘천읍지』, 『춘천부지』, 『관동읍지』는 북산외면(北山外面) 대곡리(垈谷里)로 표기하였다. 『조선지지자료』, 『강원도지지조서』도 북산외면(北山外面) 대곡리(垈谷里)로 표시하였다. 『강원도지』, 『수춘지』, 『춘주지』, 『춘천백년사』는 북산면(北山面) 대곡리(垈谷里)로 표기하였다. 현재 행정리와 법정리는 동일하게 대곡리다.

유래 | 마을이 벌판에 있으므로 터일 또는 대곡(垈谷)이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명오지, 밤무니, 더운샘, 다름다리를 병합하여 대곡리(垈谷里)라 하였다.

● 개여울

[별칭] 포탄(浦灘), 견탄(犬灘)

[형태] 여울

[위치] 소양강에 있던 여울인데 수몰된 것으로 추정된다.

[어원풀이] ‘개[浦]+여울[灘]’로 분석된다. ‘견탄(犬灘)’은 한자 표기 지명이다. 물가에 있는 여울이란 의미이다.

● 거미여울

[형태] 여울

[위치] 소양강에 있던 여울인데 수몰된 것으로 추정된다.

[어원풀이] ‘거미[蜘蛛]+여울[灘]’로 분석된다.

● 걸갯골

[형태] 골짜기

[위치] 『한국지명총람』에 대곡리에 있는 골짜기라 하였다.

[어원풀이] ‘걸/거울(소금쟁이)+개[溪]+ㅅ+골[谷]’로 분석된다. ‘걸(거울)’은 ‘소금쟁이’의 옛말이다.

● 계명산(雞鳴山)

[형태] 산

[위치] 북산면 대곡리 산 55-5번지에 있는 산으로 고도는 757.6m이다.

[유래] 기존문헌에 터일에 있는 산으로, 이 산에서 닭이 울었다고 하였다.

[어원풀이] ‘계(雞)+명(鳴)+산(山)’으로 분석된다.

[유래담] 터일에는 아침 희망을 알리는 닭 울음의 산이 있다. 한자로는 계명산(鷄鳴山)이다. 이 산에서 닭이 울었다고 하여 생겨난 이름이다. 또는 닭이 날개 짓을 하는 모양이라고 하여 그렇게 이름한다.

임진왜란 때 남철산(南哲山) 장군이 있었는데, 왜군의 침략을 막으려고 계명산 산신께 산신당을 지어 놓고 말을 만들어 바치고 기도를 했다. 산신은 무수히 많은 팔을 군사로 변하게 했고, 남철산 장군은 군사들과 힘을 합쳐 왜군과 싸워 전공을 세웠다. 장군을 시기하는 무리들 때문에 처형을 당해 중뫼산에 묻혔는데, 다람쥐 섬 꼭대기에 있는 무덤이 그 무덤이다. 언젠가는 계명산이 울어 혜를 치면서 다시 일어날 것이다. 진정한 이상향을 만들려고 터일 사람들은 지금도 남철산 장군을 이야기한다.『춘천사람들』

● 고파서덕

[형태] 바위

[위치] 미상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동쪽을 가리키는) 동대문 밖에서 제일 커다는 너설이라 하였다.

[어원풀이] ‘고파(곱하기/곱해서/고파)+서덕/서덜’로 분석된다. ‘서덜/서덕’은 ‘강가에 돌이 널부러져 있는 형상’을 뜻하고, ‘너설’은 ‘험한 바위가 무섭게 내민 곳’을 뜻한다. ‘산비탈에 돌들이 많은 곳’을 뜻하는 ‘너설’과 ‘서덜’을 결합한 ‘너덜너덜’한 곳 중에서 제일 큰 곳이 ‘고파서덕’이다.

[유래담] 춘천군 북산면 대곡리에 고파서덕이 있었다. 동대문 밖에서는 제일 크다는 너설이라는 소문이 나 있었다. 너설이란 험한 바위나 돌 같은 것이 빼죽빼죽 내밀어 있는 곳을 가리킨다. 소양강 밑에 바위나 돌 같은 것이 많이 빼죽 나와 배가 건너기 위험했다. 동대문 밖이라는 것은 동쪽을 가리킨다. 북산면 대곡리 ‘동대문’은 어디인가? 다음 강원일보 기사는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 같다. 같은 ‘동대문’의 인연이다. 2012년 6월 8일, 춘천시 북산면과 서울 동대문구 이문2동(동장 백낙영)은 8일 오

향리 오빛뜰 체험관을 방문, 도농 교류 행사를 가졌다.(『춘천향토자료집』)

● 곰지상상골

[별칭] 음지상상골

[형태] 골짜기

[위치] 계명산 북서쪽에 ‘곰지상상골’이 있으며, 서쪽으로 ‘죽바우골’로 이어져 소양호에 이른다. 계명산 남쪽으로는 ‘큰골’까지 이르는 긴 골짜기인 ‘양지상상골’이 있다.

[어원풀이] ‘곰지(熊地)+상상(上上)+골[谷]’로 분석할 수 있다. 계명산 북서쪽 ‘곰지(熊地)’는 계명산 남쪽 ‘양지상상골’의 ‘양지(陽地)’에 대응하는 의미를 가진다. 즉 남쪽 ‘양지(陽地)-상상골’에 대응하여 북쪽 ‘음지(陰地)-상상골’로서 ‘음지(陰地)’의 뜻을 가진 ‘곰지(熊地)’로 대신했다.

● 귀룡여울

[형태] 여울

[위치] 『한국지명총람』에 북한강에 있는 여울이라 하였다.

[어원풀이] ‘귀룡(귀룡나무)+여울[灘]’로 분석할 수 있다. ‘귀룡’은 귀룡나무의 열매로, 벼찌와 비슷하며 먹을 수 있다.

● 깃대봉

[형태] 산

[위치] 대곡리 남단에 위치하며, 서쪽에 ‘파수골’ 있다. ‘깃대봉’ 북쪽은 ‘큰골’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측량할 때 표준기를 끊은 산이라 하였다.

[어원풀이] ‘기(旗)+ㅅ+대(始)+봉(峰)’으로 분석된다.

● 다람쥐섬

[별칭] 중묘산, 중뫼산

[형태] 섬

[위치] ‘대곡리 배터 마을’ 앞에는 아담한 섬이 있는데 수몰 전엔 마을 가운데 있던 ‘중뫼산’이었다. [유래] 땅이 생기기 전 마을 가운데에 솟은 산이라 ‘중뫼산’이라고 불렸었다. 수몰되면서 섬이 되었다. 한때 강원개발주식회사에서 수출 목적으로 다람쥐 3,000마리를 풀어 키워 ‘다람쥐섬’이라 부르게 되었다. 다람쥐 사업은 실패로 끝났다. 좁은 터에 지나치게 많은 다람쥐를 풀어놓으니 생존 경쟁이 심해져 스트레스를 받은 다람쥐들이 증식이 되지 않았다.

[어원풀이] ‘다람쥐[鼴]+섬[島]’으로 분석된다.

● 다름다리

[별칭] 월교(月橋)

[형태] 마을

[위치] ‘터일’ 북쪽에 있는 마을로 대곡리 최북단 소양호 서쪽에 있으며, 양구군에 가깝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터일 북쪽에 있는 마을로 마귀할미가 치마폭에 돌을 싸가지고 물을 건너다 돌을 떨어뜨려 다리를 이루었다고 하였다.

[어원풀이] ‘달[月]+음(-의, 속격)+다리[橋]’로 분석된다.

● 대곡

[별칭] 대곡리(垈谷里), 터일, 평촌(坪村), 한골

[형태] 마을

[위치] 대곡리 행정구역의 바탕이 되는 마을이다.

[유래] 넓은 벌판을 자랑하던 ‘대곡리’ 마을은 1973년 소양호 속에 잠겼다. ‘터일’은 대곡리의 본 마을(큰마을)이었다. 지금 ‘다람쥐섬’ 부근으로 온

통 소양호다. ‘터일’은 소양호에 물이 차기 전에는 인제부터 소양강을 따라 서울까지 이어지던 수로였다. 뗏목이 내려가고, 소금배가 인천에서부터 올라왔다.

[어원풀이] ‘대(垈)+곡(谷)’으로 분석된다. ‘터일’의 한자 지명이다.

● 대곡리고인돌

[별칭] 대곡리지석묘(支石墓), 춘천대곡리유적(春川 垈谷里遺蹟)

[형태] 유적

[위치] 대곡리 일대에 있었다.

[유래] 1971년 소양강댐 축조공사에 따른 수몰지구 발굴조사가 진행되었다. 남류하는 소양강 줄기 동안(東岸)의 벼랑면과 밭 가운데에서 2기의 북방식 고인돌이 발굴되었고, 조사과정에서 돌널무덤[石棺墓] 1기와 화덕자리[爐址] 1개가 더 드러났다.

● 대곡리 나루터

[별칭] 대곡리 뱃터, 터일 뱃터

[형태] 나루

[위치] 대곡리에 있는 나루터이다.

● 대곡리 배터마을

[별칭] 대곡마을

[형태] 마을

[위치] 소양호, 다람쥐섬(중뫼산) 앞에 있다.

[유래] 대곡리 일대가 1973년 소양호에 수몰된 후, 지금 ‘다람쥐섬(중뫼산)’ 앞에 배터가 생기면서 그 안쪽으로 새로 들어선 마을이다. 지금 ‘대곡마을’로 불리는 곳은 이곳이다. 드문드문 몇 가옥이 보이는 호숫가 양지바른 곳에 ‘대곡마을’이 있다.

[어원풀이] ‘대곡리(垈谷里)+배[舟]+터[垈]+마을

[村]’로 분석된다.

● 더운샘

[별칭] 온천(溫泉), 더운샘골

[형태] 마을

[위치] ‘더운샘골’의 동쪽 마을인 ‘터일’이 대곡리의 본 마을(큰마을)이었다. 지금 ‘다람쥐섬’ 부근으로 온통 소양호다. 지금 ‘다람쥐섬’ 북쪽 가까이에 있다. ‘다람쥐섬’과 ‘죽바위골’ 중간쯤이 된다.

[유래] 『춘천의지명유래』에 터일 동쪽에 있는 마을로 더운 우물이 있다고 하였다. ‘더운샘(더운샘골)’은 대곡리의 자연마을이다.

[어원풀이] ‘더운[溫]+샘[泉]’으로 분석된다.

● 덕목재

[별칭] 덕목고개

[형태] 고개

[위치] 대곡리 ‘큰골’과 ‘장터골’이 남단(南端)에서 만나는 고개이다. 대동리에서는 대동리 북동쪽 끝에 있으며, 대곡리와 접한다. 대곡리에서는 ‘큰골’로, 대동리에서는 ‘덕목재골’로 서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어원풀이] ‘덕[高]+목[項]+재[峙]’로 분석된다. ‘덕’은 고구려어의 유산으로 그 의미는 ‘높다[高], 크다[大]’로 전의(轉義)되었다. ‘목[項]’은 ‘좁다란 산협이나 물속을 가로지르는 길목’을 뜻한다.

● 도둑막

[형태] 마을

[위치] ‘도둑막’은 대곡리에도 대동리에도 있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예전에 화전을 하면서 살던 사람이 도둑을 만난 일이 있다고 하였다.

[어원풀이] ‘도둑[盜]+막(幕)’으로 분석된다.

● 동막곡(東幕谷)

[별칭] 동막골

[형태] 마을

[위치] 미상이다.

[유래] 『춘주지』에 동막골과 동막곡이 표기되어 있다.

[어원풀이] ‘동(東)+막(幕)+곡(谷)’으로 분석된다.

‘사탄리(사여울)’와 양구군 ‘명곶리’가 나온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지형이 곳으로 되었다고 하였다.

[어원풀이] ‘명(明)+오/곶[岬]+이(명사파생접미사)’로 분석된다. ‘명곶이’에서 ‘ㄱ 탈락’으로 ‘명오지’가 되었다. ‘곶’은 바다(호수)로 돌출되어 나온 비교적 뾰족(불룩)한 모양의 땅을 일컫는 말로 ‘갑(岬)’ 또는 ‘단(端)’이라고도 한다. 그것이 한참 크면 반도 (半島)라고 한다.

● 둔지봉

[형태] 산

[위치] 대곡리와 대동리와 접경을 이루나, 그 소재지는 대동리이다. 둔지봉 아래(남쪽) 대동리쪽으로 ‘말골(막골)’이 있다.

[유래] 『춘주지』에 대동리에 있는 산이라 하였다.

[어원풀이] ‘둔지+봉(峰)’으로 분석된다. ‘둔지’는 ‘둔치’의 강원 방언으로 물가의 언덕으로 강, 호수 따위의 물이 있는 곳의 가장자리이다.

● 무쇠말[水鐵馬]

[별칭] 무쇠말봉

[형태] 산

[위치] 미상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무쇠 말뚝을 박은 산이라 하였다.

[어원풀이] ‘무쇠[水鐵]+말[馬]’로 분석되며 별칭인 ‘무쇠말봉’은 ‘무쇠+말(말뚝)+봉(峰)’으로 분석된다.

[유래답] 이곳에 남철산 장군이 병사를 훈련시킬 때 신(神)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무쇠말을 만들어 놓고 기도를 했다는 전설이 전한다.

● 막골

[별칭] 막골

[형태] 골짜기

[위치] 소재지는 대동리이나, 대곡리와 대동리와 접경을 이루는 ‘둔지봉’ 아래(남쪽)에 있다.

[유래] 『춘주지』에 대동리 막바지에 있는 골짜기라 하였다.

[어원풀이] ‘말(末, 閉)+골[谷]’로 분석된다. 마지막 골짜기란 의미이다.

● 바랑골

[형태] 골짜기

[위치] 미상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바랑처럼 생긴 골짜기라 하였다.

[어원풀이] ‘바랑+골[谷]’로 분석된다. ‘바랑’은 ‘승려 가 등에 지고 다니는 자루 모양의 큰 주머니’이다.

● 명오지(明吾地)

[별칭] 명오지리, 병오지

[형태] 마을

[위치] 대곡리 북서쪽 끝에 있는 ‘다름다리’에서 소양호가 들어가다가 ‘장막골’을 지나며 굽이를 돌아가는 중간에 있다. 소양호가 더 휙돌아 동진하면

● 바무닛골

[형태] 골짜기

[위치] 『한국지명총람』에 밤무니 뒤에 있는 골짜기

라 하였다.

[어원풀이] ‘밤[栗]+무닛/무닛/무늬[紋]+골[谷]’로 분석된다.

● 밤무니

[별칭] 올문리(栗門里), 밤무늬, 밤문리

[형태] 마을

[위치] ‘터일’ 남쪽에 있는 마을로 ‘밤무니(올문리)’ 북쪽에 있는 ‘터일’은 대곡리(垈谷里)의 본마을(큰 마을)이었다. 지금 ‘다람쥐섬’ 남쪽 돌출한 작은 곳(串) 아래 깊숙이 들어간 소양호 끝 어귀에 ‘밤무니’가 있다. 계속 동진하면 ‘큰골’에 이른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터일 남쪽에 있는 마을로 마을 입구에 밤나무가 많았다고 하였다.

[어원풀이] ‘밤[栗]+무닛/무닛/무늬[紋]’로 분석된다.

● 밤무니 나루터

[형태] 나루

[위치] 『한국지명총람』에 밤무니에 있는 나루터라 하였다.

[어원풀이] ‘밤무니’ 참조.

● 배나뭇골

[형태] 골짜기

[위치] 미상이다.

[유래] 『춘주지』에 배나무가 있던 골짜기라 하였다.

[어원풀이] ‘배나무[梨]+ㅅ+골[谷]’로 분석된다.

● 사탄리

[별칭] 살여울, 사여울, 사탄(沙灘)

[형태] 골짜기

[위치] 대곡리 동쪽 끝, 양구군 ‘명곶리’에서 소양호 너머 맞은편에 있다.

[유래] 1973년 소양호로 인해 ‘살여울(사탄)’이 대부분 잡기고 능선 골짜기로 조금 남았다.

[어원풀이] ‘사(沙)+탄(灘)+리(里)’로 분석된다.

● 상촌(上村)

[별칭] 웃말

[형태] 마을

[위치] 미상이다.

[유래] 『춘주지』에 지명이 기재되어 있다.

[어원풀이] ‘상(上)+촌(村)’으로 분석된다. 상촌(上村)의 고유 지명은 ‘웃말’이다.

● 심메모등

[형태] 마을

[위치] 미상이다.

[유래] 『춘주지』에 옛날 인삼 캐는 사람의 막이 있던 터라 하였다.

[어원풀이] ‘심메/심매/심마니+모등/묘등/못등/묘동/못동’으로 분석된다. ‘모등’은 ‘묘(墓)+등(등성이)’ 이의 준말이다. ‘심마니’는 산삼을 캐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산사람들의 은어이다.

● 아래당꼴

[형태] 골짜기

[위치] 『춘주지』에 당꼴 아래쪽에 있는 골짜기라 하였다.

[어원풀이] ‘아래[下]+당(서낭堂)+ㅅ+골[谷]’로 분석된다.

● 안두루

[형태] 들

[위치] 『한국지명총람』에 터일 안쪽에 있는 들이라 하였다.

[어원풀이] ‘안[內]+두루[들, 野, 坪]’로 분석된다.

[어원풀이] ‘장막(檻幕)+골[谷]’로 분석된다.

● 양지상상골

[형태] 골짜기

[위치] 계명산 남쪽으로 ‘큰골’까지 이르는 긴 골짜기이다. 계명산 북서쪽으로는 ‘곰지상상골’이 있으며, 서쪽으로 ‘죽바우골’로 이어져 소양호에 이른다.

[어원풀이] ‘양지(陽地)+상상(上上)+골[谷]’로 분석할 수 있다. ‘곰지상상골’ 참조.

● 장여울

[형태] 여울

[위치] 『한국지명총람』에 북한강에 있는 여울이라 하였다.

[어원풀이] ‘장(長)+여울[灘]’로 분석할 수 있다.

● 연장골

[형태] 골짜기

[위치] 『춘주지』에 중묘등 옆에 있는 골짜기라 하였다.

[유래] ‘중묘등’ 주변은 1973년 소양호에 수몰되고 지금은 ‘다람쥐섬’이 되었다. 그 옆에 있던 ‘연장골’도 수몰되었다.

[어원풀이] ‘연장(連嶂)+골[谷]’로 분석된다. ‘연장(連嶂)’은 병풍을 두른 것처럼 잇따라 서 있는 모습이다.

● 장터골

[별칭] 장터골

[형태] 골짜기

[위치] 계명산 동쪽 소양호 건너, 양구 ‘명곶리’의 ‘명곶’ 한가운데 맞은편에 있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예전에 장터로 가는 골짜기라 하였다.

[어원풀이] ‘장[市場]+터[垈]+ㅅ+골[谷]’로 분석된다.

● 용소

[형태] 소(沼)

[위치] 『춘주지』에 용이 났다는 곳이라 하였다.

[어원풀이] ‘용(龍)+소(沼)’로 분석된다.

● 죽대바우

[별칭] 참대바우

[형태] 바위

[위치] 미상이다.

[어원풀이] ‘죽대(참대, 참竹)+바우[岩]’로 분석된다.

● 장막골

[형태] 골짜기

[위치] 대곡리 북단, 양구군과 경계를 이루는 소양호 남쪽 큰 골짜기로서, 계명산 북쪽 능선 아래가 된다. ‘장막골’ 서쪽으로 ‘다름다리’가 있고, 그 동쪽엔 ‘명오지’가 있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종묘산 밑에 있는 골짜기라 하였다.

● 죽바웃골

[별칭] 죽바위골, 죽바우골

[형태] 골짜기

[위치] 지금 ‘다람쥐섬’ 북쪽에 ‘더운샘’이 있고, 그 만큼 더 북쪽에 ‘죽바우골’이 있다. ‘죽바우골’ 동쪽엔 ‘곰지상상골’이 있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죽대바우가 있는 골짜기라 하였다.

[어원풀이] ‘죽(竹, 竹대, 참대, 참竹)+바우[岩]++골[谷]’로 분석된다.

● 중요산

[별칭] 중뫼산, 중매산, 중못등, 다람쥐섬

[형태] 산

[위치] 대곡리배터마을 앞에 있던 산으로 지금은 ‘다람쥐섬’이 되었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중의 무덤이 있었다고 하였다. 대곡리 일대가 1973년 소양호에 수몰된 후, 중요산/중뫼산은 섬이 되었고, 다람쥐를 양식하다가 지금은 ‘다람쥐섬’으로 불리게 되었다.

[어원풀이] ‘중의 무덤이 있었다고 한다.’라는 유래에 따르면 ‘중묘산’은 ‘중[僧]+묘(墓)+산(山)’으로 분석된다. 마을 한가운데 있어 ‘중뫼산’이라 했다는 지역민의 중언에 따르면, ‘중묘산’의 별칭인 ‘중뫼산/중매산’은 ‘중(中)+매/뫼[山]+산(山)’으로 분석할 수 있다. 지명에서 ‘매/뫼[山]+산(山)’처럼 동일한 의미를 가진 지명접미사가 중복되어 쓰이는 예는 흔하다.

● 중의터

[형태] 골짜기

[위치] 『한국지명총람』에 장막골 옆에 있는 골짜기라 하였다.

[어원풀이] ‘중[僧]+의(속격조사)+터[垈]’로 분석된다.

● 큰골

[형태] 골짜기

[위치] 대곡리 남서쪽 소양호가 들어간 곳에 있는 ‘밤무니’에서 동진하여 계명산 아래에 있다. 계명산에서 큰골에 이르는 골짜기는 ‘양지상상골’이다.

[어원풀이] ‘크-[大]+{-ㄴ(관형사형어미)}+골[谷]’로 분석된다.

● 터일

[별칭] 대곡리(垈谷里), 평촌(坪村), 한골

[형태] 마을

[위치] 대곡리 본마을이다.

[어원풀이] ‘터[垈, 基]+일[谷, 村]’로 분석된다. ‘터일’은 넓은 벌판에 있는 터라고 해서 불린 마을 이름이다. 바로 북산면 대곡리(垈谷里)다. ‘터일’은 전국에 많은 곳에 있는데, 대부분 ‘좋은 땅에 터를 잡았다’는 뜻을 가지며, 한자 표기로는 흔히 ‘기곡(基谷)’을 쓴다. 이곳 ‘터일’은 행정 지명 ‘대곡리(垈谷里)’의 바탕이 되었다.

● 터일나루터

[별칭] 대곡리 나루터, 터일 뱃터

[형태] 나루

[위치] 『한국지명총람』에 추전리와 터일 사이를 내왕하는 나루터라 하였다. 대곡리 본마을인 ‘터일(마을)’에서 소양강을 이용하는 나루터였다.

[어원풀이] ‘터일+나루터’로 분석된다. ‘터일’ 참조.

● 터줏골

[형태] 골짜기

[위치] 미상이다.

[어원풀이] ‘터[垈]+주(主)+ㅅ+골[谷]’로 분석된다.

● 파소(波沼)

[형태] 소(沼)

[위치] 대곡리 남단, 깃대봉 서쪽, 소양강 가까이에 있었다. 그 뒤(동쪽)에 ‘파수골(파소골)’이 있다. 1973년 소양호에 수몰되었다.

[어원풀이] ‘파(波)+소(沼)’로 분석할 수 있다.

● 파수골

[별칭] 파소골

[형태] 골짜기

[위치] 대곡리 남단, 깃대봉 서쪽, 소양호에 가까운 골짜기이다.

[유래] ‘파소(波沼)’ 뒤(동쪽)에 있는 골짜기로, ‘파소’는 1973년 소양호에 수몰되었고, ‘파수골(파소골)’은 상당 부분 남아 있다.

[어원풀이] ‘파수/파소(波沼)+골[谷]’로 분석할 수 있다.

것은 대부분 ‘마을’이고 극히 일부가 ‘골짜기’를 뜻 한다. ‘화령덕이’는 ‘화령골짜기’이다.

● 포아리

[형태] 여울

[위치] 터일 부근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폭포가 있는 개울이라 하였다. ‘터일’은 소양호에 물이 차기 전에는 인제부터 소양강을 따라 서울까지 이어지던 수로였다. 뗏목이 내려가고, 소금배가 인천에서부터 올라왔다. 그때 아주 유명한 폭포개울 중 하나인 포아리 또는 포와리가 있었다. 일종의 직탕폭포였다. 인제에서 내려오는 뗏목이 가장 힘들었던 곳이었다. 그 때문에 ‘뗏목아리랑’에 “꽤팽이, 포와리 다 지나니, 덕두원 썩쟁이가 날 반기네”라는 구절이 있다.(『춘천사람들』)

[어원풀이] ‘포/폭[瀑布]+아리/아래[下]’로 분석된다. ‘폭(-포)+아래’의 변음이다.

● 화령덕이

[형태] 골짜기

[위치] 『한국지명총람』에 대곡리에 있는 골짜기라 하였다.

[어원풀이] ‘화령(華嶺?)+덕(언덕, 둔덕)+이](파생접미사)’로 분석할 수 있다. 지명접미사 ‘덕’이 지시하는

대동리(大同里)

위치와 현황 | 대동리는 소양강댐이 있는 호수주변의 산간마을이다. 서쪽으로 소양호가 위치하고 바위산 북쪽 자락에 대동리가 있다. 자연마을로는 동막골, 개여울 등이 있다. 대동리에는 덩무개, 이상수, 통골 등의 골짜기도 있다.

연혁 | 『춘주지』를 보면 북산외(北山外)에 대동(大洞)이 보인다. 『여지도서』, 『호구총수』, 『춘천읍지』, 『춘천부지』, 『관동읍지』는 북산외면(北山外面) 대동리(大同里)로 표기하였다. 『조선지지자료』, 『강원도지지조서』는 북산외면(北山外面) 대동리(大同里)로, 『강원도지』, 『수춘지』, 『춘주지』, 『춘천백년사』(1996)는 북산면(北山面) 대동리(大同里)로 표기하였다. 현재 행정리와 법정리는 동일하게 대동리다.

유래 | 대동리(大同里)는 한글, 한꼴이라고 부르는데, 한꼴에서 수리산쪽으로 가는 고개를 대동재라고 부르는 데서 마을 이름이 유래된 것으로 보인다.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개여골, 동막골, 아랫말, 웃말을 병합하여 대동리(大同里)라 하였다.

● 개고개

[형태] 고개

[위치] 『한국지명총람』에 개여울 부근에 있는 고개라 하였다.

[유래] 『춘천의 지명유래』에 동네 아이들이 개여울에 모여들어 철버덕거리며 물놀이를 한다고 하였다.

[어원풀이] ‘개[개울, 개여울]+고개’로 분석된다. ‘개여울고개’이다. ‘개여울’은 ‘개울의 여울목’이다.

● 개여울

[별칭] 포탄(浦灘), 견탄(犬灘)

[형태] 마을

[위치] 『한국지명총람』에 아랫말 남쪽 소양강가에 있는 마을이라 하였다.

[어원풀이] ‘개울[川]+여울[灘]’로 분석된다. ‘개울의 여울목’이다. ‘개여울’의 한자 지명 ‘견탄(犬灘)’은 어의(語義)를 바꾼 한자 표기일 뿐이고, ‘개 포, 여울 탄(浦灘)’은 훈차(訓借) 지명이 된다.

● 개여울벌판

[형태] 들

[위치] 『한국지명총람』에 개여울에 있는 들이라 하였다.

[어원풀이] ‘개여울+벌판’으로 분석된다. ‘개여울’ 참조..

● 곳골

[형태] 골짜기

[위치] 대동리 서쪽 소양호에서 동쪽으로 들어간 소양호 초입 북쪽에 ‘절골’이 있고 그 다음 골짜기가 ‘곳골’이다. ‘대동리배터’ 조금 못 들어와 소양호 지류가 북동쪽으로 향한 골짜기이다.

[어원풀이] ‘고(庫)+ㅅ+골[谷]’로 분석된다. 대부분

지역에서 ‘곳골’은 ‘고곡(庫谷)’의 유래를 가진다. 동네의 공동의 물건, 상여 따위를 두는 곳간이 있는 골짜기이다. 보통명사 ‘곳골(곳고리)’은 ‘꾀꼬리’의 옛말이다.

● 구제바우골

[형태] 골짜기

[위치] 대동리배터에서 동진하여 ‘삼거리’에서 북동쪽으로 가다가 북쪽으로 난 두 번째 큰 골짜기가 ‘구제바우골’이다. 그 위(북)쪽에 ‘바랑골’이 이어져 있다.

[유래] 구제마우가 있는 골짜기이다.

[어원풀이] ‘구제+바우[岩]+골[谷]’로 분석할 수 있다. ‘구제’의 의미는 불분명하다. 참고로 ‘구자(龜茲)바우’는 거북이 깊은 까만 바위이다.

● 굴바우

[형태] 바위

[위치] 미상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밑에 굴이 있는 바위라 하였다.

[어원풀이] ‘굴(窟)+바우[岩]’로 분석된다.

● 귀신귀지골

[형태] 골짜기

[위치] ‘대동리배터’에서 동진하여 ‘삼거리’에서 북동쪽으로 가다가 동쪽으로 난 골짜기이다. 좀더 오르면 ‘성황뒤골’이 있다.

[어원풀이] ‘귀신(鬼神)+귀지(鬼地)+골[谷]’로 분석된다.

● 너더릿골

[형태] 골짜기

[위치] ‘곶골’ 소양호 건너 맞은편 남쪽에 있으며, 그 서쪽 옆에 ‘웃당골’이 있다.

[어원풀이] ‘너덜+이+ㅅ+골’로 분석된다. ‘너덜’은 ‘너설’과 ‘서덜’을 결합한 말이다. ‘너덜너덜하다’로 쓰이곤 한다. ‘너설’은 ‘험한 바위가 무섭게 내민 곳’을 뜻하고, ‘서덜’은 ‘강가에 돌이 널부러져 있는 형상’을 뜻한다. ‘너더릿골’은 ‘산비탈에 돌들이 많은 곳’을 뜻하는 ‘너설’과 ‘서덜’을 결합한 ‘너덜너덜’한 ‘너덜경’인 골짜기이다.

● 당골

[별칭] 당꼴

[형태] 골짜기

[위치] 『한국지명총람』에 대동리에 있는 골짜기로 불당이 있었다고 하였다.

[어원풀이] ‘당[佛堂]+ㅅ+골[谷]’로 분석된다.

● 대동(大同)

[별칭] 대동리(大同里)

[형태] 마을

[위치] 대동리 본마을이다.

[유래] 소양호 동쪽에 위치한 지역으로, 춘천 시내로 직접 가는 도로가 없으며, 인제군 남면 수산리로 통하는 육로가 유일하다.

[어원풀이] ‘대(大)+동(洞)’으로 분석된다. 그런데 행정구역의 한자 지명은 ‘대동(大洞)’이 아니라 ‘대동(大同)’인데, 이 경우의 ‘동(洞)’은 음차자(音借字)이다. 고유 지명인 ‘한글’의 한자 지명은 ‘대동(大洞)’이다. ‘하다[大, 多]’를 어원으로 ‘한강, 한숨, 한밭’ 한길, 한터, 마한, 변한, 진한, 대한, 한국, 한강, 한글처럼 ‘한글’은 동네 인근에서 가장 ‘큰 고을(마을)’이다. ‘한곡, 한골’은 ‘대곡(大谷), 대촌(大村)’이고 ‘대동(大洞)’이다. 대동리에서 가장 큰 마을이었다.

● 대동령(大同嶺)

[별칭] 한글고개, 대동재, 대동치, 대동봉

[형태] 고개

[위치] 인제군 남면 수산리로 넘어가는 큰 고개로 고도 728m이다.

[유래] 대동리의 고유지명 ‘한글’을 기반으로, 육로로 대동리(한글)를 벗어나는 고갯길이다. 지금 도로지명도 ‘대동길’이다.

● 대동리배터

[별칭] 대동리뱃터, 대동리선착장

[형태] 교통

[위치] 대동리 서쪽 소양호에서 동쪽 소양호 협곡으로 들어가면 소양호 지류 끝, ‘뫼골’ 앞에 ‘대동리배터’가 있다. 대동리로 들어가는 ‘대동길’이 나 있는 초입 나루터이다. 계속 동쪽으로 진행하면 인제군 남면 수산리로 나가는 육로이다.

[어원풀이] ‘대동리+배터’로 분석된다. ‘대동리’ 참조.

● 대동리하촌(大同里下村)

[별칭] 아랫말

[형태] 마을

[위치] 대동리 아래쪽에 있는 마을이다.

[어원풀이] ‘대동리(大同里)+하촌(下村)’으로 분석되며, 고유 지명인 ‘아랫말’의 한자 지명이다.

● 덕목재

[별칭] 덕목고개

[형태] 고개

[위치] 대동리 북동쪽 끝에 있으며, 대곡리와 접한다.

[유래] 대곡리 ‘큰골’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어원풀이] ‘덕[高]+목[項]+재[峙]’로 분석된다. ‘덕’은 고구려어의 유산으로 그 의미는 ‘높다[高],

크다[大]’로 전의(轉義)되었다. ‘목[項]’은 ‘목/목이/메기/매기/모기’ 등의 이형태를 가지며 ‘좁다란 산협이나 물속을 가로지르는 길목’을 뜻한다.

● 덕목재골

[형태] 골짜기

[위치] 대동리 북동쪽 끝에 있으며, 대동리 쪽으로 난 골짜기이다. 그 골짜기를 다 내려오면 ‘대동리 삼거리’에 닿는다. 여기서 동진하면 ‘대동리배터(선착장)’이다. ‘덕목재골’을 지나 ‘덕목재’를 넘으면 대곡리 ‘큰골’로 넘어간다.

[어원풀이] ‘덕목재+골[谷]’로 분석된다. ‘덕목재’ 참조.

● 덩무개

[형태] 골짜기

[위치] 『한국지명총람』에 배나무골 부근에 있는 골짜기라 하였다.

[어원풀이] ‘덩무/덕물+개[溪]’로 분석할 수 있다. ‘덕물’은 곧추 떨어지는 물 또는 그것을 맞는 일이다.

● 도둑막

[형태] 마을

[위치] ‘도둑막’은 대곡리에도 대동리에도 있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예전에 화전을 하면서 살던 사람이 도둑을 만난 일이 있다고 하였다.

[어원풀이] ‘도둑[盜]+막(幕)’으로 분석된다.

● 동막곡(東幕谷)

[별칭] 동막골

[형태] 마을

[위치] 소양호, ‘대동리배터’ 바로 안쪽(동쪽)에 있는 마을로 대동리 1반이다.

[유래] 대동리의 자연마을이다. 1973년 소양호 수몰 이후 대동리는 ‘대동리배터’에서 ‘동막골’에 이르는 지역이 대동리의 중심 마을이 되었다. 곧 대동리 1반이다.

[어원풀이] ‘동(東)+막(幕)+곡(谷)’으로 분석된다. ‘동막골’의 한자 지명이다.

● 둔지봉

[형태] 산

[위치] 대곡리와 대동리와 접경을 이루나, 그 소재지는 대동리이다. ‘둔지봉’ 아래(남쪽) 대동리쪽으로 ‘말골(막골)’이 있다.

[어원풀이] ‘둔지(둔치)+봉(峰)’으로 분석된다. ‘둔지’는 ‘둔치’의 강원 방언으로, 물가의 언덕이나, 강, 호수 따위의 물이 있는 곳의 가장자리를 뜻한다.

● 말골

[별칭] 막골

[형태] 골짜기

[위치] 대곡리와 대동리와 접경을 이루나, 그 소재지는 대동리이다. ‘둔지봉’ 아래(남쪽) 대동리쪽으로 ‘말골(막골)’이 있다.

[어원풀이] ‘말(末, 閉)+골[谷]’로 분석된다.

● 메주골

[형태] 골짜기

[위치] ‘대동리배터’에서 남동쪽 ‘통골’과 ‘한신밭골’로 들어가는 초입에 난 골짜기이다.

[어원풀이] ‘메주(메주콩밭)+골[谷]’로 분석할 수 있다.

● 뵈골

[형태] 골짜기

[위치] 소양호가 대동리로 들어온 동쪽 끝이며, ‘대

동리배터'가 있는 곳이다. 소양호에서 대동리 동쪽으로 들어온 소양호 끝 못 가서 북쪽 가까이에 있다. 더 들어가면 동쪽 '큰뫼골'과 서쪽 '작은뫼골'로 갈라진다. 소양호 너머 맞은편엔 '뫼지골'이 있다. [유래] 현재 두 가구가 살고 있다.

[어원풀이] '뫼/묘(墓)+골[谷]'로 분석된다.

● 뫼짓골

[별칭] 메지골, 메제골

[형태] 골짜기

[위치] '대동리배터' 아래(남쪽)에서 소양호쪽으로 난 '메주골'과 '작은메주골' 다음에 있는 골짜기이다. 소양호 너머 맞은편엔 '뫼골, 큰뫼골, 작은뫼골'이 있다.

[어원풀이] '뫼지/묘지(墓地)+ㅅ+골[谷]'로 분석된다.

● 바랑골

[별칭] 바람골

[형태] 골짜기

[위치] 대동리 서쪽 소양호에서 동쪽 소양호 협곡으로 들어가면 남북으로 여러 골짜기가 나온다. 이 소양호 협곡 끝에서 북쪽으로 난 골짜기의 하나로, '대동리배터'에서 '연장골'을 지나 더 북쪽에 '바랑골'이 있다.

[어원풀이] '바랑(승려의 등봇짐)+골[谷]'로 분석된다. '바랑'은 '배낭'의 변한 말로서, 승려가 등에 지고 다니는 자루 모양의 큰 주머니를 가리킨다. 기존 문헌에서는 '바랑골'이나, 포털사이트 지도에서는 '바람골'로 표기되어 있다. '바랑(승려의 등봇짐)'과 관련된 유래는 의심할만 하다. '바람골[風谷]'이 '바랑골'로 변한 뒤, '바랑'을 '승려(등봇짐)'와 연관시키는 경우로 추정된다.

● 바위산

[형태] 산

[위치] 대동리와 조교리 경계에 있는 고도 857.6m의 산이다. 북산면 대동리 산 29~30번지 일대이다.

[유래] 소양강댐 선착장에서 배를 타고 북산면 조교리로 들어가야 산에 오를 수 있다. 조교리 매봉과 능선이 연결되어 있고, 산과 호수를 모두 즐길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정상 부근은 바위와 노송이 어우러져 경관을 이루고, 산에는 참나무·굴참나무 등이 금을 이루고 있다. 산행은 조교리 선착장에 내려 토골계곡(텃골계곡)을 따라 능선을 따라 소양호를 내려다보면서 정상에 오른다. 정상에서 765봉을 거쳐 수산재에 이르고, 바위산 남동쪽 조교리 중발골 계곡을 따라 조교리 토골(텃골) 입구로 하산한다. 5시간 30분 정도 소요된다. 소양강댐에서 조교리까지 1시간 정도 걸린다.

[어원풀이] '바위[岩]+산(山)'으로 분석된다.

● 배나뭇골

[별칭] 배나무골

[형태] 골짜기

[위치] '이상수(마을)'에서 동쪽 가까이에 있다. 계속 동진하면 인제군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배나무가 있던 골짜기라 하였다.

[어원풀이] '배나무[梨]+ㅅ+골[谷]'로 분석된다. 산촌에서 '배나뭇골'은 대부분 '돌배나무'를 가리킨다.

● 삼거리

[별칭] 대동리삼거리

[형태] 교통

[위치] 소양호, 대동리배터에서 동쪽 1km 못 미치는 곳에 있으며 북동쪽 대동길과 동쪽 대동길로

갈라진다. 동쪽 대동길은 인제군 남면 수산리로 넘어간다.

[어원풀이] ‘삼(三)+거리[路]’로 분석된다.

● 상촌(上村)

[별칭] 웃말

[형태] 마을

[위치] 미상이다.

[어원풀이] ‘상(上)+촌(村)’으로 분석된다. ‘웃말’의 한자 지명이다.

[형태] 골짜기

[위치] 대동리 서쪽 소양호에서 동쪽으로 가장 깊숙이 들어가서 남쪽으로 난 골짜기는 ‘메주골’이며, 더 남진하면 두 갈래 골짜기가 나오는데, 동쪽이 ‘한신밭골’이고, 서쪽은 ‘통골’이다. ‘메짓골’에서 소양호쪽 가까이 난 골짜기는 ‘아랫메주골’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대동리에 있는 골짜기라 하였다.

[어원풀이] ‘아래[下]+메주(메주콩밭)+ㅅ+골[谷]’로 분석할 수 있다.

● 성황뒤골

[별칭] 서낭뒤골

[형태] 골짜기

[위치] 대동리 배터에서 동진하다가 ‘삼거리’에서 북동진하여 동쪽으로 난 두 번째 골짜기가 ‘성황뒤골’이다. 그 첫 번째 골짜기는 ‘귀신귀지골’이다.

[어원풀이] ‘성황(城隍)+뒤[後]+골[谷]’로 분석된다. 서낭이 있는 뒤쪽 골짜기이다.

● 아랫당골

[형태] 골짜기

[위치] ‘당골’ 아래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어원풀이] ‘아래[下]+ㅅ+당[서낭堂]+ㅅ+골[谷]’로 분석된다.

● 아랫말

[별칭] 하촌. 대동리 하촌

[형태] 마을

[위치] 미상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대동리 아래쪽에 있는 마을이라 하였다.

[어원풀이] ‘아래[下]+ㅅ+말/마을[村]’로 분석된다.

● 심메모둠

[별칭] 심메모듬, 실메모듬

[형태] 마을

[위치] 미상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옛날 인삼 캐는 사람의 막이 있던 터라 하였다.

[어원풀이] ‘심매/심메/실메/심마니+모둠(움막)’으로 분석된다. ‘심마니’는 산삼을 캐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 앞골

[형태] 골짜기

[위치] 대동리 서쪽 소양호에서 동쪽 소양호 협곡으로 들어가면 남북으로 여러 골짜기가 나온다. 첫 번째는 ‘앞골’이고, 두 번째는 ‘웃당골’이고, 세 번째는 ‘너덜이골’이다.

[어원풀이] ‘앞[前]+골[谷]’로 분석된다.

● 아랫메주골

[별칭] 아래메주골, 아래메지골, 아래뫼지골, 아래묘지골

● 연장골

[형태] 골짜기

[위치] 대동리 서쪽 소양호에서 동쪽 소양호 협곡으로 들어가면 소양호 지류 끝에 ‘대동리배터’가 있다. 대동리로 들어가는 ‘대동길’이 나 있는 초입 나루터이다. 뱃터에서 동진하다가 ‘삼거리’에서 동쪽으로 가다가 북쪽으로 난 골짜기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중못동 옆에 있는 골짜기라 하였다.

[어원풀이] ‘연장(連嶂)+골[谷]’로 분석된다.

● 연화봉

[형태] 산

[위치] 대동리와 인제군 남면 수산리와 접한 곳에 있는 고도 656m의 산이다.

[유래] 춘천시 북산면 대동리와 접경을 이룬 ‘연화봉’ 아래에 인제군 남면 수산리로 넘어가는 큰 고개인 ‘한글고개(대동재)’가 있으며, 이 고개는 대동리를 육로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도로이다. 도로지명은 ‘대동길’이 되었다.

[어원풀이] ‘연화(蓮花)+봉(峰)’으로 분석된다.

● 용소

[형태] 소(沼)

[위치] 미상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용이 났다는 소(沼)라 하였다.

[어원풀이] ‘용(龍)+소(沼)’로 분석된다.

● 웃당골

[형태] 골짜기

[위치] 대동리 서쪽 소양호에서 동쪽 소양호 협곡으로 들어가면 남북으로 여러 골짜기가 나온다.

‘웃당골’은 그 중, 남쪽 두 번째 골짜기이다. 첫 번째는 ‘앞골’이고, 세 번째는 ‘너덜이골’이다.

[어원풀이] ‘우[上]+ㅅ+당[서낭堂]+골[谷]’로 분석된다.

● 이개울

[별칭] 이개울골

[형태] 골짜기

[위치] 대동리 서쪽 소양호에서 동쪽 소양호 협곡으로 들어가면 남북으로 여러 골짜기가 나온다. 이 소양호 협곡 북쪽으로, 첫 번째 골짜기는 ‘절골’이고, 두 번째는 ‘곳골’이고, 세 번째 작은 골짜기는 ‘학수골’이며, 네 번째 골짜기가 ‘이개울’이다. 다섯 번째 골짜기는 ‘뫼골’이며, 다시 큰뫼골과 작은뫼골’로 갈라진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너더릿골 옆에 있는 골짜기라 하였는데 ‘너덜이골’ 옆보다는 맞은 편이다.

[어원풀이] ‘이/잇[이끼, 苔]+개울[川]’로 분석된다. ‘잇’은 ‘이끼’의 옛말이다. 이끼가 많이 낸 개울이다.

● 이상수(梨上守)

[별칭] 이상수골, 이상시

[형태] 마을

[위치] 대동리 서쪽 소양호에서 동쪽 소양호 협곡으로 들어가면 남북으로 여러 골짜기가 나온다. 이 소양호 협곡이 끝나고 동쪽으로 조금 들어가다가 남쪽으로 두 갈래 골짜기가 나오는데, 그 일대가 ‘이상수(마을)’이다. ‘이상수마을(이상수골)’은 소양호에서 대동리배터 동쪽으로 조금 오르면 ‘작은이상수골’이 나오고, 조금 더 올라가면 ‘큰이상수골’이 나온다. ‘이상수(梨上守)’는 ‘삼거리’ 북동쪽에 있다. 대동리에 있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창말 서남쪽에 있는 마을

이라 하였다. ‘창밀’은 조교리에 있으며, 옛날 춘천 부의 북사장(北社倉)이 있던 마을이라고 했다. 그리고 ‘이상수(梨上守)’를 조교리 ‘창밀’과 결부지어 그 소재를 밝히고 있다. ‘배나뭇골’과 ‘이상수/이상시’와 ‘덩무개’ 모두 서로 옆에 있다.

[어원풀이] ‘이(梨)+상(上)+수(守)’로 분석할 수 있다. ‘이상수(梨上守)’의 한자 지명은 지명 이름으로는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 ‘이상수’에서 ‘수’를 고유어 지명으로 보면 ‘수’술[藪]이 된다. 별칭 ‘이상시’에서 ‘시’를 고유어 지명으로 보면 ‘시/실[村]’이 된다. ‘이상수’와 ‘이상시’에서 ‘이상-’도 고유 지명으로 상정하면 ‘이상/잇[苔]+(-앙(파생접미사))’으로 분석할 수 있다. 즉 ‘이상수(이상시)’는 이끼가 많은 숲을 낀 마을이다.

● 작은이상수골

[형태] 마을

[위치] 소양호에서 ‘대동리배터’ 동쪽으로 조금 오르면 ‘작은이상수골’이 나오고, 조금 더 올라가면 ‘큰이상수골’이 나온다.

[어원풀이] ‘작은[小]+이상수골’로 분석된다. ‘이상수’ 참조.

● 작은뫼골

[형태] 마을

[위치] 소양호에서 대동리 동쪽으로 들어온 소양호 끝, 못 가서, 북쪽 가까이에 ‘뫼골’이 있다. 더 들어가면 동쪽 ‘큰뫼골’과 서쪽 ‘작은뫼골’로 갈라진다. 소양호 너머 맞은편엔 ‘뫼지골’이 있다. 현재 골짜기 끝에 한 가구가 살고 있다.

[어원풀이] ‘작은[小]+뫼/묘(墓)+골[谷]’로 분석된다.

● 절골

[형태] 골짜기

[위치] 대동리로 들어온 소양호에서 북쪽으로 난 골짜기로, 소양호 너머 그 맞은편엔 ‘앞골’이 있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절이 있던 골짜기라 하였다. 어원풀이] ‘절[寺]+골[谷]’로 분석된다.

● 지붕애지골

[별칭] 지붕애지골, 지붕지골

[형태] 골짜기

[위치] ‘대동리배터’에서 동진하여 ‘삼거리’에서 남동쪽으로 한참 들어가면 여러 골짜기로 갈라지는 테, 비교적 곤장 뻗어들어간 골짜기가 ‘지붕애지골’이다. 주변에 ‘성황뒤골’과 ‘구제바우골’ 등이 있다.

[어원풀이] ‘지봉/기봉(岐峯)+애지/아지/가지[枝]+골[谷]’로 분석할 수 있다. ‘지봉’은 ‘기봉(岐峯)’의 구개음화된 별칭 표기이다.

● 큰뫼골

[형태] 골짜기

[위치] 소양호에서 대동리 동쪽으로 들어온 소양호 끝, 못 가서, 북쪽 가까이에 ‘뫼골’이 있다. 더 들어가면 동쪽 ‘큰뫼골’과 서쪽 ‘작은뫼골’로 갈라진다.

[어원풀이] ‘큰[大]+뫼/묘(墓)+골[谷]’로 분석된다.

● 큰이상수골

[형태] 마을

[위치] ‘이상수마을’은 소양호에서 대동리 배터 동쪽으로 조금 오르면 ‘작은이상수골’이 나오고, 조금 더 올라가면 ‘큰이상수골’이 나온다. ‘이상수(梨上守)’는 ‘삼거리’ 북동쪽에 있다.

[어원풀이] ‘큰[大]+이상수골’로 분석된다. ‘이상수’ 참조.

● 터줏골

[형태] 골짜기

[위치] 미상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터주대감을 위하여던 골짜기라 하였다.

[어원풀이] ‘터주(-대감)+골[谷]’로 분석된다. ‘터주’는 터의 주인을 말하며, ‘터줏대감’은 ‘터주’를 높여 이르는 말이다.

● 통골

[형태] 골짜기

[위치] 바위산에서 북쪽 1.5km쯤에 있으며, ‘대동리배터’ 쪽으로 난 큰 골짜기이다. ‘한신발골’과 ‘통골’은 동서로 갈라져 있다. 바위산에서 조교리 쪽에도 ‘통골[通谷]’이 있는데, 바위산 북서쪽 2km쯤에 있으며, 소양호에 가깝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이개울 부근에 있는 골짜기라 하였다.

[어원풀이] ‘통(通)+골[谷]’로 분석된다.

● 학수골

[형태] 골짜기

[위치] 대동리로 들어간 소양호 북쪽 ‘곳골’과 ‘이개울(골)’ 사이에 있는 작은 골짜기이다. 소양호 너머 그 맞은편에 ‘너덜이골’이 있다.

[어원풀이] ‘학수(鶴首)+골[谷]’로 분석할 수 있다.

● 한골나루

[별칭] 한골나루터, 한골배터, 대동리진(大同里津), 대동리포구(大同里浦口)

[형태] 나루

[유래] 대동리 본마을인 ‘한골’의 소양강 나루였는데, 1973년 소양호에 수몰되었다.

[어원풀이] ‘한[大]+ㅅ+골[谷, 洞]+나루[浦口]’로 분석된다.

● 한신박골

[형태] 골짜기

[위치] 대동리 서쪽 소양호에서 동쪽으로 가장 깊숙이 들어가서 남쪽으로 난 골짜기는 ‘메주골’이며, 더 남진하면 두 갈래 골짜기가 나오는데, 동쪽이 ‘한신박골’이고, 서쪽은 ‘통골’이다. ‘한신박골’과 ‘통골’은 북산면 조교리(照橋里)와 대동리(大同里)가 접경을 가지는 바위산 북쪽 골짜기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통골 부근에 있는 골짜기라 하였다.

[어원풀이] ‘한[大]+신/설[村]+박/밭[田]+골[谷]’로 분석된다. ‘한설밭’은 산골에서는 가장 ‘큰 곳 빙’이 있는 곳이다. 지금은 도로지명 ‘대동길’이 나 있다.

위치와 현황 | 물로리는 소양강댐이 있는 호수 주변의 산간마을이다. 북쪽으로 소양호가 있으며 가리산의 북쪽 자락에 해당한다. 자연마을로는 양지말, 장촌말, 가샵, 참배나무골, 째작나무골 등이 있다.

연혁 | 『춘주지』를 보면 북산외(北山外)에 무노곡(無老谷)이 표시되어 있다. 『여지도서』, 『호구총수』, 『춘천읍지』, 『춘천부지』, 『관동읍지』는 북산외면(北山外面) 무로곡리(無老谷里)로 표기하였다. 『조선지지자료』, 『강원도지지조서』는 북산외면(北山外面) 물노곡리(勿老谷里)로, 『강원도지』, 『수춘지』는 북산면(北山面) 물로리(勿老里)로, 『춘주지』, 『춘천백년사』는 북산면(北山面) 물로1리, 물로2리로 표기하였다. 현재 행정리는 물로리고 법정리는 물로1리, 물로2리다.

유래 | 무로골 또는 무로곡(無老谷)이라 부른다.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갈골, 궁병골, 수구동, 절골, 중간말, 참배나무골, 가협, 장촌말을 병합하여 물로리(勿老里)라 한다.

● 가는골

[형태] 골짜기

[위치] 물로리배터에서 ‘물로길’로 가리산 능선 쪽으로 가까이 가다가 ‘새덕이(골)’ 다음 서쪽으로 가늘게 난 골짜기이다. 그 동편엔 ‘작은도치골’이 나오며, 그 위가 가리산 능선이다.

[어원풀이] ‘{가늘-[細]}+{- ㄴ(관형사형어미)}+골[谷]’로 분석된다.

● 가락골

[별칭] 가락골, 가협리(加峽里), 가삽

[형태] 마을

[위치] 통통배를 타고 소양호로 들어와 물로리에서 내려 가리산을 등산하려면 ‘가삽고개(910m)’를 지나 남서쪽 능선을 타면 된다. ‘가삽고개’에서 홍천 쪽으로 곧장 내려가면 ‘가리산자연휴양림’ 매표소에 도착한다.

[유래] 기존문헌에 가협리(가삽)는 가리산 밑에 있는 마을이라 하였고, 가락골은 배나무골 밑에 있는 골짜기라 하였다.

[어원풀이] ‘갈-[分, 岐]/가라+ㅅ+골[谷]’로 분석된다. 사이가 갈라진 골짜기이다. 별칭 ‘가삽’은 ‘갈-[分, 岐]/{가-(ㄹ 탈락)}+삽[峽谷]’으로 분석된다. ‘가삽’에서 ‘삽’의 한자 지명 ‘협(峽)’은 중국어 [xia]에 따랐다. 별칭 ‘가협리’는 ‘갈-[分, 岐]/{가-(ㄹ 탈락)}+협(峽)+리(里)’로 분석된다.

● 가래매기

[별칭] 가라매기

[형태] 마을

[위치] 물로리선착장에서 물로리로 들어서면 ‘물로교’ 근처에서 두 갈래로 동편 ‘물로길’과 서편 ‘절골길’로 이어지며 가리산을 향하게 된다. 이 ‘물로

길’로 가다가 ‘평내고개골’로 들어서고 ‘배나무골’을 지나면 곧 ‘가래매기’에 이른다. 가리산 능선, ‘가삽고개’에 가깝다.

[어원풀이] ‘가래/가라/갈-[分, 岐]+ㅅ+매기/목[項]’으로 분석된다. 사이가 갈라진 목이 좁은 골짜기이다.

● 각시바위

[형태] 바위

[위치] 가리산 자락에 있다.

[유래] 『북산면사람들』에 “신랑바위나 각시바위가 있는 곳에 가서 보면 그 형체를 알아 볼 수 없지만 건너편에서 보면 알아볼 수 있다. 신랑바위에 가서 건너편에 있는 각시바위를 보면 바위가 마치 신부가 결혼할 때 입는 혼례복의 소매를 마주 잡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각시바위 쪽으로 가서 신랑바위를 보면 사모관대를 쓰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멀리서 봐야만 각시바위와 신랑바위의 형태를 알아볼 수 있다.”라 하였다.

[어원풀이] ‘각시[閣氏]+바위[岩]’로 분석된다. ‘각시’는 ‘아내’를 달리 이르는 말로서, 한자를 빌려 ‘각씨(閣氏)’로 적기도 한다.

● 갈골

[별칭] 갈동(葛洞), 갈곡(葛谷)

[형태] 마을

[위치] 물로리에서 서쪽 곧은봉(499m) 쪽으로 난 긴 골짜기로 지금은 ‘갈골길’이다. ‘갈골(갈곡)마을’은 ‘갈골길’이 끝나는 곳쯤에 있다. 이 ‘갈골길’을 따라 ‘곧은봉’ 능선을 넘어 동면 품걸리로 가는 길은 춘천 ‘봄내길5코스 소양호나루터길’이다.

[유래] 기존문헌에 물로리 서쪽에 있는 마을이라 하였다.

[어원풀이] ‘갈(葛)+골[谷]’로 분석된다. 양쪽으로 갈라진 골짜기란 의미이다. ‘갈곡(葛谷)’, ‘갈동(葛洞)’은 한자 표기지명이다.

● 갈골선착장

[별칭] 갈골배터

[형태] 배터

[위치] 물결리선착장보다 소양호 동쪽 끝까지 닿는 곳에 있다. 물결리 ‘갈골’을 지나 품걸1리로 나가 품걸리선착장까지 갈 수 있다. 물걸리선착장-갈골 선착장-갈골-품걸1리-품걸리선착장으로 이어지는 길은 봄내5길과 봄내6길(품걸리오지마을길)로서 소양호나룻터길이라고도 부른다.

[어원풀이] ‘갈골+선착장’으로 분석된다. ‘갈골’ 참조

● 갈등골

[별칭] 갈뚱골

[형태] 골짜기

[위치] 기존문현에 부귀터 부근에 있는 골짜기라 하였다.

[어원풀이] ‘갈(葛, 갈골)+ㅅ+등(등성이)+골[谷]’로 분석된다.

● 개텃골

[형태] 골짜기

[위치] 기존문현에 고사리덕 밑에 있는 골짜기라 하였다.

[어원풀이] ‘개(개천, 川)+터[垈, 基]+ㅅ+골[谷]’로 분석된다.

● 고개골

[별칭] 고갯골

[형태] 골짜기

[위치] ‘물로리배터’에서 ‘절골’로 들어서서 ‘가리산’ 능선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새덕이’ 위쪽에 있다. ‘작은독지골’ 사이이다.

[어원풀이] ‘고개[峴]+골[谷]’로 분석된다.

● 고사리덕

[형태] 들

[위치] 미상이다.

[유래] 기존문현에 고사리가 많았다고 하였다.

[어원풀이] ‘고사리+덕(둔덕, 언덕)’으로 분석된다. ‘덕’은 고구려어의 유산으로 그 의미는 ‘높다[高], 크다[大]’로 전의(轉義)되었다. 이형태로는 ‘덕/덕이/더기’가 있다.

● 곡굴목이고개

[별칭] 곡굴항현(曲窟項峴)

[형태] 고개

[위치] 미상이다.

[유래] 『조선지지자료』에 ‘곡굴항현(曲窟項峴)’이 기재되어 있다.

[어원풀이] ‘곡/곳/곶[串, 湾]+굴(屈)+목이/목[項]+고개[峴]’로 분석할 수 있다. ‘곶’은 만(灣)의 옛말로 ‘곶’이다. ‘곶(串)’은 강(호수, 바다) 쪽으로, 부리 모양으로 뾰족하게 뻗은 육지를 말한다.

● 고깔바위

[별칭] 고깔바우, 남근바우

[형태] 바위

[위치] 은주사(연국사)에서 10여분쯤 내려오면 보인다.

[유래] 『북산면사람들』에 고깔처럼 생긴 바위로 바위틈에서 물이 나온다고 하였다.

[어원풀이] ‘고깔+바위[岩]’로 분석된다. ‘고깔’은

승려나 무당 또는 농악대들이 머리에 쓰는, 위 끝이 뾰족하게 생긴 모자이다. 고깔처럼 생겼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 남자의 심볼을 닮은 남근(男根) 모양이어서 ‘남근바위(男根石)’라고도 한다. 또한 이 바위 옆에 구멍이 뻥뚫린 돌이 있어 ‘여근석(女根石)’이라 한다. 이를 음양(陰陽)의 바위로 하여 영힘이 배(培)가 되므로, 이곳은 1년 내내 무속인들이 몰려든다고 한다.

● 곧은봉

[형태] 산

[위치] 물로리 서편, ‘갈골’ 위에 있는 산으로 고도 499m이다.

[어원풀이] ‘곧은[直]+봉(峰)’으로 분석된다.

● 골말

[형태] 마을

[위치] 물로리고개를 넘어가기 중턱쯤에서 북쪽으로 난 작은 골짜기에 있는 마을이다.

[어원풀이] ‘골[谷]+말/마을[村]’로 분석된다. 골짜기에 있는 마을이란 의미이다.

● 광덕사(廣德寺)

[형태] 사찰

[위치] 물로리 도로지명 ‘절골길’ 끝에 있는 은주사(연국사) 아래, 도솔사 아래에 있다.

● 굽병골

[별칭] 굽방골(弓方谷), 궁범골

[형태] 마을

[위치] 물로리선착장에서 물로리로 들어서면 ‘물로교’ 근처에서, 두 갈래로 동편 ‘물로길’과 서편 ‘절골길’로 이어지며 가리산을 향하게 된다. ‘굽병골’

은 두 갈림길에서 ‘물로길’로 2km 정도 거리에 있다. ‘석장골’과 ‘미골’ 사이에 있다.

[어원풀이] ‘굼벙+골[谷]’로 분석된다. ‘굼벙’은 곤죽이 된 진흙과 개흙이 물과 섞여 많이 흰 용덩이를 뜻하는 ‘수령’의 사투리이다. ‘굼벙골’ 두 상류, ‘물로천’ 상류와 ‘참배나뭇골’ 개천이 합류하는 곳이다. 게다가 물로리 동쪽 개천도 합류한다. 세 개개천이 합류하는 땅의 모습이 곧 ‘굼벙진 골짜기’이다.

● 귀래사(歸來寺)

[형태] 사찰

[위치] 물로리배터에서 절골길로 가다가 ‘사창골’ 맞은 가까이에 있다.

● 김신재골

[형태] 골짜기

[위치] 물로리로 들어오는 동쪽 세 번째 소양호 포구에서 북쪽으로 난 첫 번째 골짜기이다. 두 번째 포구로 난 골짜기는 ‘풀무골’이다.

[유래] 『북산면사람들』에 김신재라는 사람이 살았다고 해서 김신재골이라 부른다고 하였다.

[어원풀이] ‘김신재(金信哉)+골[谷]’로 분석된다.

● 달뜬봉골

[형태] 골짜기

[위치] 물로리배터에서 물로길로 올라가다가 ‘새덕이골’ 가기 전에 있다.

[어원풀이] ‘달[月]+뜨-[出]+{ -_- (관형사형어미)}+골[谷]’로 분석된다.

● 당모루

[형태] 마을

[위치] 기준문현에 천동골 밑에 있는 마을이라 하였다.

[어원풀이] ‘당(서낭堂, 堂집)+모루’로 분석된다. ‘모루’는 ‘산 모퉁이의 휘어들린 곳’을 뜻하는 지명접미사 ‘모릉이’로서 ‘모랭이/모링이/모룡/모루/모통이/모통이/모탱이/모탱이/모팅이’ 등 다양한 변이형이 있다.

● 대장터골

[형태] 마을

[위치] 물로2리마을회관에서 ‘물로교’ 근처에서, 절골길로 가다가 ‘솔둔지골’ 못 미친 곳에 있다.

[유래] 『북산면사람들』에 예전에 대장간이 있었던 자리를 대장터골이라 부른다고 하였다.

[어원풀이] ‘대장/대장간+터+골[谷]’로 분석된다. ‘대장간’은 쇠를 달구어 온갖 연장을 만드는 곳이다.

● 도룡소

[형태] 소(沼)

[위치] ‘박서방네 용이 나와 죽은 무덤’이 ‘도룡소’ 뒤에 있다.

[유래] 『북산면사람들』에 “용이 나왔다고 해서 도룡소라고 한다. 용말이 죽은 무덤 앞에 도룡소가 있다. 소(沼)가 얼마나 깊은지 명주실 한 꾸러미가 들어가고도 모자랐다. 지금은 작은 소만 남아 있다.”고 하였다.

[어원풀이] ‘도(渡)+룡(龍)+소(沼)’로 분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지명에서 ‘도룡소/되룡소’는 ‘되룡/도룡/도룡봉[石龍子]+소(沼)’로 분석한다.

● 도솔사(兜率寺)

[형태] 사찰

[위치] 물로리 도로지명 ‘절골길’ 끝에 있는 은주사

(연국사) 아래에 있다. 옆에 ‘관음정사’가 있다.

● 도치골

[별칭] 뜯치골, 뜯지골, 독지골

[형태] 골짜기

[위치] 물로리배터와 물로2리마을회관에서 ‘물로교’ 근처에서, 물로길로 가다가 산골길로 들어서는데, 몇 골짜기를 지나면 ‘새덕이’를 지나 ‘가는골’ 위쪽이 ‘큰도치골’이고, ‘고개골’로 위쪽은 ‘작은도치골’이다. 이 지역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골짜기이며, 바로 위는 가리산 동쪽 능선이다.

[어원풀이] ‘도치/돌[豚]+골[谷]’로 분석된다. ‘돌/도치’는 ‘돼지’의 옛말이며, 일부 방언으로도 쓰인다. 그러나 지명에 반영된 ‘돗치골/돛지골/독지골/도치골’에서 ‘도치’는 대부분 산돼지를 뜻한다.

● 독바위

[형태] 바위

[위치] 『북산면사람들』에 신랑바위와 각시바위 사이에 장독을 세운 것 같은 ‘독바위’가 있다고 하였다.

[어원풀이] ‘독[장독]+바위[岩]’로 분석된다. ‘독(장독)’은 간장, 된장, 고추장 따위를 담아 두거나 담그는 독이다.

● 동래지골

[별칭] 동네지골, 봉래지골

[형태] 골짜기

[위치] 물로1리마을회관 근처 맞은편 작은 골짜기이다.

[어원풀이] ‘동래/동네[洞内]+지(地)+골[谷]’로 분석된다.

● 뒷골

[형태] 골짜기

[위치] 물로리경로당이 위치한 ‘양지밀’ 뒤쪽(동쪽)에 있는 작은 골짜기이다.
[어원풀이] ‘뒤[後]+ㅅ+골[谷]’로 분석된다.

● 막골

[별칭] 말골

[형태] 골짜기

[위치] 물로리에서 물로리배터로 들어오는 소양호 협곡은 남동쪽으로 위치하는데, 협곡 남북으로 여러 골짜기가 산재한다. 그 북쪽 첫 번째 골짜기는 ‘막골’이고, 두 번째 골짜기가 ‘풀못골’이다. ‘풀못골’ 소양호 건너 남쪽인 맞은편에 ‘안질재골’이 있다.
[어원풀이] ‘막/말[末, 閉]+골[谷]’로 분석된다.

● 모치락골

[별칭] 모치라기골

[형태] 골짜기

[위치] 물로리에서 물로리배터로 들어오는 소양호 협곡은 남동쪽으로 위치하는데, 협곡 남북으로 여러 골짜기가 산재한다. 그 북쪽 첫 번째 골짜기는 ‘막골’이고, 두 번째 골짜기가 ‘풀못골’이다. ‘풀못골’ 다음 세 번째 골짜기엔 7개 작은 골짜기가 있으며, 그 중 두 번째 골짜기가 ‘모치락골’이다. 더 들어가면 작은 골짜기인 ‘여우골’이 나온다.

[유래] 『북산면사람들』에 모치라기가 살았던 골짜기를 모치락골이라 불렀다고 하였다.

[어원풀이] ‘모치락/모치라기[茅鶴]+골[谷]’로 분석된다. ‘모치라기’는 ‘모치(茅鶴)’로서 올빼미과의 새인 수리부엉이다. 몸의 길이는 70cm 정도이며, 깃은 붉은 갈색 또는 짙은 갈색에 검은 세로줄 무늬가 있다. 머리에는 귀 모양의 털이 양쪽에 있다. 우

리나라 천연기념물이다.

● 무로곡(無老谷)

[별칭] 무로골

[형태] 골짜기

[위치] 물로리(勿老里) 본마을에서 ‘삽다리’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유래] 1973년 소양호에 수몰되기 이전, 물로리(勿老里) 본마을이었다. 예전 소양강가에 있었던 ‘물어구(수구리, 수구동, 아래말)’ 그 안쪽(남쪽)으로 ‘중리(중간말)’, 그 다음이 ‘물로리 본마을’이었으나, 모두 수몰되었다.

[어원풀이] ‘물로리(勿老里)’의 다른 한자 지명인 ‘무로곡(無老谷)’은 ‘무(無)+로(老)+곡(谷)’으로 분석된다. 마을의 지명이 ‘늙지 않은 골짜기’에서 유래하면, 무로곡(無老谷)이 물로리(勿老里)보다 좀더 그 뜻 [不]에 가깝다. 즉 무로곡(無老谷)이 물로리(勿老里) 보다 앞선 지명이다. 한편 고유지명과 한자지명이 공존할 땐 고유지명이 우선한다. 즉 고유지명이 한자지명보다 앞선다. ‘물[水]+놀이[遊]’는 [물로리]로 발음한다. ‘물로리’를 [물노리]로 발음하지 않는다. 행정구역 지명은 마을 지명 유래에 우선하는 무로곡(無老谷)이 아니라, 물로리(勿老里)이다. 따라서 ‘물로리’에서 그 한자지명을 취하면서 무릉도원 같은 ‘늙지 않은 골짜기’로서 무로곡(無老谷)과 물로리(勿老里)로 전의(轉義)되었다고 추론할 수 있다.

[유래답] 춘천군 북산면 물노리는 무로골 무로곡이라고도 부른다. 늙지 않은 골짜기라 무로곡(無老谷)이라 했다. 실제로 사람이 늙지 않은 고장인지 아닌지는 확실치 않다. 그러나 산속에 공해가 전연 없는 자연 속의 삶이 있으니까 물로장수하는 마을이었는지도 모른다. 늙지 않는 고장 장수골의 좋은 이름이다.(『춘천향토자료집』)

● 문바우골

[형태] 바위

[위치] 물로리선착장에서 물로리로 들어서면 ‘물로교’ 근처에서, 두 갈래로 동편 ‘물로길’과 서편 ‘절골길’로 이어지며 가리산을 향하게 된다. 이 두 길이 갈라지는 지점에서 ‘절골길’로 가는 초입 부근에 있으며, 옆에 ‘물안골’이 있다.

[유래] 『북산면사람들』에 물이 많이 나왔던 자리에 바위가 있었는데 이곳을 문바우골이라 불렀다고 하였다.

[어원풀이] ‘문/물[水]+바우[岩]+골[谷]’로 분석된다.

● 물로교

[형태] 다리

[위치] 물로길과 갈골길이 나뉘는 갈림길에서 갈골길로 진입하는 ‘물로천’에 놓인 다리이다. ‘물로교’를 건너가는 갈골길은 품걸리까지 통한다.

● 물로리고개

[별칭] 물로고개, 물로현, 삽다리고개

[형태] 고개

[위치] 기존문현에 물로리에서 삽다리로 넘어가는 고개라 하였다.

[유래] 예전에는 물로리 소재 ‘삽다리’에서 동쪽 조교리로 넘나드는 고갯길을 ‘삽다리고개’ 또는 ‘물로리고개’라고 했다. 지금은 예전 ‘삽다리(물로리)고개’는 옛 모습으로 남아 트래킹 정도로 이용되고, 차도로 난 도로지명 ‘물로길’을 대부분 이용한다. 이젠 이 차도 ‘물로길’이 ‘물로리고개’길이 되었다. 조교리에서 홍천군 원동리를 넘어가는 고갯길도 ‘물로리고개’의 연장선에 있다. 즉 물로리고개길(도로지명은 ‘원동조교길’)이다. 은 ‘물로리-조교리-홍천군 두촌면 원동리’까지 이어진다.

[어원풀이] 별칭인 ‘삽다리고개’는 조교리 ‘삽다리’ 참조.

● 물로리선착장

[별칭] 물로리나루터, 물로리배터

[형태] 나루

[위치] 북산면 물로2리마을회관에서 북서쪽 1km쯤 소양호에 있다.

● 물로리초등학교

[별칭] 물로리초교

[형태] 학교

[위치] 물로리선착장에서 1km 정도 들어가면 ‘물로리경로당’ 옆에 있다. 폐교되어 지금은 수련회, 엠파 등으로 사용된다.

● 물로천(勿老川)

[별칭] 무로천, 물로리계곡

[형태] 하천

[위치] 가리산 동편 아래 북봉 지나 북쪽 골짜기로 내려가면 ‘참배나뭇골’이 나온다. 물로리선착장에서 물로리로 들어서면 두 갈래로 동편 ‘물로길’과 서편 ‘절골길’로 이어지며 가리산을 향하게 된다. 가리산에서 물로리로 내려가는 계곡물(개천)은 크게 세 줄기인데, ‘물로길’과 ‘절골길’ 곁으로 흐르는 물줄기와, ‘물로길’이 다시 중간 ‘굼벙골’ 근처에서 두 갈래지며 곧장 이어진 ‘물로길’ 골짜기와 아래로 갈라진 골짜기로 나뉘는데 이 아래 골짜기가 ‘참배나뭇골’이다. 이 ‘참배나뭇골’ 개천과 합류한 물로길 개천을 ‘물로천’이라 부른다. ‘무노천(無老川)’이라고는 하지 않는다.

[유래] 기존문현에 참배나뭇골 남쪽 가리산에서 발원하여 북서쪽으로 흘러 물로리 중심부를 뚫고 물

어구에서 소양강으로 들어가는 내[川]라 하였다.
요즘은 여름철 물놀이 피서지로 많이 알려지며,
'물로리계곡'으로 불린다.

● 물안골

[형태] 골짜기

[위치] 물로리선착장에서 물로리로 들어서면 '물로교' 근처에서, 두 갈래로 동편 '물로길'과 서편 '절골길'로 이어지며 가리산을 향하게 된다. 이 두 길이 갈라지는 지점에서 '절골길'로 가는 초입 부근에 비교적 작은 '물안골'이 있다. 동면 품결리에 소재하는 '물안봉(781m)'은 물로리 남서쪽 가까이에 있으며, 물로리 소재 '물안봉고개'를 지나 그 주변 계곡이 물로리 '물안골'에 이른다.
[어원풀이] '물[水]+안[内]+골[谷]'로 분석된다.

● 물안봉

[형태] 산

[위치] 동면 품결리에 소재하는 '물안봉(781m)'은 물로리 남서쪽 가까이에 있으며, 물로리 소재 '물안봉고개'를 지나 그 주변 계곡이 물로리 '물안골'에 이른다.

[어원풀이] '물[水]+안[内]+봉(峰)'으로 분석된다.

● 물안봉고개

[형태] 고개

[위치] 동면 품결리에 소재하는 '물안봉(781m)'은 물로리 남서쪽 가까이에 있으며, 물로리 소재 '물안봉고개'를 지나 그 주변 계곡이 물로리 '물안골'에 이른다.

[어원풀이] '물[水]+안[内]+봉(峰)+고개[峴]'로 분석된다.

● 물어구

[별칭] 아랫말, 수구동(水口洞), 수구리(水口里)

[형태] 마을

[위치] 기존문헌에 물로리 아래쪽 수구(水口)에 있던 마을이라 하였다. 1973년 소양호에 수몰되었다.
[어원풀이] '물[水]+어구[口]'로 분석된다. '아래말'이다.

● 미골

[별칭] 묘골

[형태] 골짜기

[위치] 물로리의 중요한 길은 물로리배터에서 물로리 본마을(물로2리)까지는 '물로길' 하나의 길로 이어지다가 그 다음부터는 북쪽 '물로길'과 남쪽 '절골길'로 갈라진다. 이 '물로길' 끝에서 산골길을 따라 가리산 방향으로 오르면 '가래매기, 새덕이, 연장골, 미골(묘골)' 등이 나온다.

[유래] 『북산면사람들』에 못자리를 많이 썼던 골짜기를 미(묘)골이라 불렀다고 하였다.

[어원풀이] '미/묘(墓)+골[谷]'로 분석된다.

● 미륵보살상(彌勒菩薩像)

[별칭] 치성단

[위치] 은주사(연국사) 아래에 있다.

● 박서방네옹이나와죽은무덤

[형태] 묘

[위치] 앞에 도룡소가 있다.

[유래] 옛날에 여기서 장수를 넣았는데 난지 일주일도 안되어 하늘을 훨훨 날아다녔다. 장사를 넣으면 역적이 나와 3대를 멸한다고 하여 자는 야기를 강제로 죽였다. 3일만 있으면 가져갈 텐데 주인이 죽었으니 날아다니는 말이 떨어져 죽었다. 그래서

‘박서방네 용이 나와 죽은 무덤’이라고 한다.

[어원풀이] ‘박(朴)+서방(書房)+네(복수접미사)+용(龍)+이(주격조사)+{나오-(出)+이(부사형어미)}+{죽-死}+{-은(관형사형어미)}+무덤[墓]’으로 분석할 수 있다.

● 배나뭇골

[형태] 골짜기

[위치] 기준문현에 배나무가 많았다고 하였다.

[어원풀이] ‘배나무[梨]+ㅅ+골[谷]’로 분석된다. 산촌에서는 대부분 ‘돌배나무’를 가리킨다.

● 범들엄골

[형태] 골짜기

[위치] 물로리로 들어온 소양호에서 동쪽으로 난 세 번째 포구에 들어와 다시 북쪽으로 난 골짜기는 ‘김신재골 – 모치락골 – 여우골 – 범들엄골 – 고개골’ 등이 있다.

[어원풀이] ‘범[虎]+(들엄/들어오-[侵入])+{-ㄴ(관형사형어미)}+골[谷]’로 분석된다.

● 부귀터

[형태] 마을

[위치] 기준문현에 물안에 떨린 마을이라 하였다.

[어원풀이] ‘부귀(富貴)+터[垈]’로 분석된다. ‘부귀리(富貴里)’와 같은 뜻을 가진 지명이다.

● 빨래여울

[별칭] 발레여울

[형태] 여울

[위치] 기준문현에 소양강에 있는 여울이라 하였다. 부귀리에도 있다고 전해지는 것으로 보아 물로리와 부귀리에 겹치는 소양강에 있던 여울이었는

데 현재는 소양호에 수몰된 것으로 보인다.

[어원풀이] ‘빨래/빨리+여울[灘]’로 분석된다.

● 사창골

[형태] 골짜기

[위치] 물로1리마을회관 맞은편 작은 골짜기이다.

[어원풀이] ‘사창(司倉)+골[谷]’로 분석된다. 조선시대 곡식창고가 있던 골짜기이다.

● 삽다리골

[형태] 마을

[위치] 물로리(勿老里)에서 조교리(照橋里)로 가는 길목에 있는 마을의 이름이 ‘삽다리’인데, 그곳을 넘어가는 고개를 ‘삽다리골(고개)’이라 부른다. ‘삽다리골’은 소양호에 닿는 물로리뱃터 안 마을이다. 가리산에서 물로리로 내려가는 소양호 쪽 큰 골짜기는 현재 물로리의 중심인 도로지명 ‘물로길’, 물로길 우측 ‘은주사’에서 내려오는 ‘절골길’ 서쪽 곧은봉 쪽 ‘갈골길’ 그리고 물로길 동쪽 ‘삽다리길’ 등이다. ‘삽다리골’은 물로리 동편 긴 골짜기로, 넘어가면 조교리이다.

[유래] 기준문현에 물로리의 마을로 삽다리고개, 삽다리골이 있고 조교리로 가는 골짜기를 삽다리골짜기라 한다고 하였다. 요즘은 ‘삽다리골’까지 소양호가 들어와 수영 강습 등과 여름 피서지로 각광을 받고 있다.

[어원풀이] 조교리 ‘삽다리’ 참조.

● 새덕이

[별칭] 새덕, 새덕이고개

[형태] 고개

[위치] 물로리선착장에서 물로리로 들어서면 ‘물로교’ 근처에서, 두 갈래로 동편 ‘물로길’과 서편 ‘절

골길’로 이어지며 가리산을 향하게 된다. ‘굼벙골’은 두 갈림길에서 ‘물로길’로 2km 정도 거리에 있다. ‘새덕이’는 ‘굼벙골’에서 2km 정도 더 오르면 나온다.

[유래] 『북산면사람들』에 “새초가 많아서 ‘새덕이’라 불렸다. 새초는 억새의 방언인데 이 지역에 억새풀이 많았다.”고 하였다.

[어원풀이] ‘새/새초[억새]+덕[언덕, 둔덕]+이(파생 접미사)’로 분석된다. ‘새/새초’는 ‘억새’의 강원 방언이다. ‘억새’는 벚과의 여러해살이풀로서, 높이는 1~2미터이다.

● 서낭거리

[별칭] 성황가

[형태] 마을

[유래] 기존문헌에 성황당이 있었다고 하였다.

[어원풀이] ‘서낭/서낭당/성황당(城隍堂)+거리[街]’로 분석된다.

● 석동골

[형태] 골짜기

[위치] 물로리로 들어온 소양호에서 남서쪽 난 골짜기로, ‘안질재골’과 ‘오기터골’ 사이에 있다. ‘곧은봉’과 멀지 않다.

[어원풀이] ‘석(石)+동(洞)+골[谷]’로 분석할 수 있다.

● 석장골

[별칭] 석장아찌골

[형태] 골짜기

[위치] ‘절골길’로 들어가 ‘굼벙골’과 ‘노장골’ 사이에 있다.

[유래] 『북산면사람들』에 예전에 고려장 풍습이 있었을 때, 이곳에 고려장을 했다고 하였다.

[어원풀이] ‘석(石)+장(葬)+골[谷]’로 분석할 수 있다.

● 세집매

[형태] 마을

[위치] 미상이다.

[유래] 기존문헌에 세 집[三家]이 살았다고 하였다.

[어원풀이] ‘세[三]+집[家]+매/메/뫼[山]’로 분석된다. ‘세 가구가 있는 산 아래’가 된다.

● 소의동(小衣洞)

[별칭] 오띠기, 칠곡(漆谷)

[형태] 마을

[위치] 『춘천의지명유래』에 무라니와 여오내 중간에 있는 마을이라 하였다.

[어원풀이] ‘오띠기’의 한자지명 ‘소의동(小衣洞)’을 고려하면 ‘옷(衣)/온+터[峙]+기(基)’로 분석된다. 또 다른 별칭인 ‘칠곡(漆谷)’을 고려하면 ‘옻[漆]+들이기’도 가능하다. 그러나 ‘소의동(小衣洞)’과 ‘칠곡(漆谷)’을 연결하기 어렵다. 『춘천의지명유래』에 ‘순동골’을 “오십동(五十洞), 칠곡(漆谷). 무라니와 여오내 중간에 있는 마을”이라 한 점으로 미루어 ‘소의동(小衣洞)’은 ‘소(小)’와 ‘의동(衣洞)’으로 분리하여 보아야 할 것으로 추정된다. ‘옻골’을 ‘옻골’로 보아 한자로 표기한 것이 ‘의동(衣洞)’이고, ‘옻골’을 ‘오십골’로 보아 ‘순동골’로도 부른 것이다.

● 솔둔지골

[형태] 골짜기

[위치] 물로2리마을회관을 지나 ‘물로교’ 근처에서 절골길로 가다보면 ‘은주사’ 못 미쳐 동쪽에 있는 작은 골짜기이다. 바로 옆에 ‘솔둔지골’이 있다.

[어원풀이] ‘솔[松]+둔지[둔치]+골[谷]’로 분석된다. ‘둔지’는 ‘둔치’의 강원 방언으로, 물가의 언덕

이나, 강, 호수 따위의 물이 있는 곳의 가장자리를 뜻한다.

● 쇠판이골

[형태] 마을

[위치] 물로리배터에서 ‘절골길’로 들어가 ‘물안골’을 지나 동쪽 골짜기로 빠지는 곳이다. 그 서쪽 가까이에 ‘작은설악골’이 있다.

[유래] 소를 판 사람이 살던 곳이란 유래가 전한다.

[어원풀이] 유래를 고려하면 ‘쇠/소[牛]+{팔-[賣]}+{-ㄴ(관형사형어미)}+이(사람, 人)+골[谷]’로 분석할 수 있다. 그런데 옛날에 광물을 캐던 곳이란 의미에서 ‘쇠[鐵]+판[掘]+이+골[谷]’로 분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신랑바위

[형태] 바위

[위치] 각시바위 맞은 편에 있는 바위이다. ‘각시바우’ 참조.

● 신촌(新村)

[형태] 마을

[위치] 기존문현에 새로 생긴 마을이라 하였다.

[어원풀이] ‘신(新)+촌(村)’으로 분석된다.

● 아래목화골

[형태] 골짜기

[위치] 소양호가 물로리로 들어와 ‘물로길’과 ‘갈골길’로 갈라지는 지점에 ‘아래목화골’이 있고, 그 다음에 ‘중애기골’이 있고, 그 다음에 ‘윗목화골’이 있다.

[어원풀이] ‘아래[下]+목화(木花)+골[谷]’로 분석된다.

● 아랫성골

[별칭] 아래성골

[형태] 골짜기

[위치] 물로2리마을회관과 ‘물로고개’ 사이, 위쪽엔 ‘윗성골’이 있고 아래쪽엔 ‘아랫성골’이 있다.

[어원풀이] ‘아래[下]+ㅅ+성(聲)+골[谷]’로 분석된다.

● 안질재골

[형태] 마을

[위치] 『북산면사람들』에 “안질재골을 넘어가면 길이 평평하고 유해서 앓아서 넘는다는 뜻으로 안질재골이라 불렀다.”고 하였다.

[어원풀이] ‘{앉-[坐]}+{-으(으(관형사형어미))}+재[峙]+골[谷]’로 분석된다.

● 암지터골

[별칭] 암자터골

[형태] 골짜기

[위치] 물로2리마을회관을 지나 ‘물로교’ 근처에서, 물로길이 끝나는 산길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 가장 높은 곳에 자리한 ‘은주사’ 옆에 있다. 더 오르면 ‘한천자묘’가 나온다.

[유래] 『북산면사람들』에 예전에 암자가 있었던 자리를 암지터골이라 부른다고 하였다.

[어원풀이] ‘암지/암자(庵子)+터[垈]+골[谷]’로 분석된다.

● 약수골

[별칭] 약숫골

[형태] 골짜기

[위치] 가리산 북쪽, ‘한천자묘’ 옆에 있다.

[유래] 『북산면사람들』에 “한천자묘 뒤쪽으로 가면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에서 약수물이 나온다. 이

골짜기를 약수골이라 하는데 현재도 이곳을 약수터로 이용하고 있다.”라 하였다.

[어원풀이] ‘약수(藥水)+골[谷]’로 분석된다.

● 양지말

[별칭] 물로2리

[형태] 마을

[위치] 현재 ‘물로리마을회관, 경로당’이 있는 자리이다.

[유래] 기존문헌에 양지쪽에 있는 마을이라 하였다. 물로리의 자연마을은 ‘갈골, 삽다리골, 양지말, 절골, 청춘밀’이 있다. 1973년 물로리 본마을이 수몰된 이후, 현재 물로2리 ‘양지말’이 물로리의 중심 마을이며, 물로리마을회관과 경로당이 있다.

[어원풀이] ‘양지(陽地)+말[村]’로 분석된다.

● 양지터골

[형태] 골짜기

[위치] 물로리배터에서 ‘절골길’로 올라가 ‘도솔사, 관음정사’ 동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어원풀이] ‘양지(陽地)+터[垈]+골[谷]’로 분석된다.

● 여우내

[별칭] 여오천리(汝吾川里), 여우내골

[형태] 마을

[위치] 무라니 남동쪽 냇가에 있는 마을인데 현재 소양호에 수몰되었다.

[어원풀이] ‘여우[狐]+내[川]’로 분석되며, 한자지명은 ‘여오/여우[狐]+천(川)+리(里)’로 분석된다. 부귀리에도 동일한 지명이 전한다. 부귀리와 물로리에 동일한 지명이 전한다는 점과 소양호에 수몰되기 전에는 물길이 거셌다는 점으로 미루어 여울이 많은 물이란 뜻의 ‘여울내’로 불리던 것이 와전

된 것으로 추정된다.

● 연국사(蓮國寺)

[별칭] 은주사로 개명

[형태] 사찰

[위치] 물로리 도로지명 ‘절골길’ 끝에 있는 연국사(은주사)가 있다. 북산면 물로리 산223-1번지에 소재한다. 지금 ‘절골, 절골길’의 바탕이 되었다.

● 연장골

[형태] 골짜기

[위치] 조교리 ‘큰골’에서 서쪽으로 들어간 골짜기로, 물로리의 ‘굼벙골’과 ‘석장골’로 연결된다. 물로리선착장에서 물로리로 들어서면 ‘물로교’ 근처에서, 두 갈래로 동편 ‘물로길’과 서편 ‘절골길’로 이어지며 가리산을 향하게 된다. 이 ‘물로길’ 끝에서 산골길을 따라 가리산 방향으로 오르면 ‘가래매기, 새덕이, 연장골, 미골(묘골)’ 등이 나온다.

[어원풀이] ‘연장(延長)+골[谷]’로 분석할 수 있다.

● 염장골

[형태] 골짜기

[위치] 물로리배터에서 ‘절골길’로 한참 올라가다가 ‘미골(묘골)’ 가까이에 있다.

[어원풀이] ‘염장(殮葬)+골[谷]’로 분석할 수 있다.

● 오기터골

[형태] 골짜기

[위치] 물로리 서쪽, ‘갈골’로 들어가다가 ‘곧은봉’ 쪽 가까이에 있다.

[어원풀이] ‘오기(烏耆)+터[垈]+골[谷]’로 분석할 수 있다. ‘오기(烏耆)’는 불교와 관련된 용어이다.

● 용바위

[별칭] 용발자국바위

[형태] 바위

[유래] 『북산면사람들』에 용마가 가다가 바위에 말발자국을 냈다고 해서 그렇게 불렀다고 하였다.

[어원풀이] ‘용(龍)+바위[岩]’로 분석된다.

● 원골

[별칭] 원꼴

[형태] 골짜기

[위치] ‘한천자묘’가 있는 골짜기를 원골이라 부른다. 뒤쪽에 ‘약수골’이 있다.

[어원풀이] ‘원(原)+골[谷]’로 분석된다.

● 윗목화골

[형태] 골짜기

[위치] 소양호가 물로리로 들어와 ‘물로길’과 ‘갈골길’로 갈라지는 지점에 ‘아래목화골’이 있고, 그 다음에 ‘중애기골’이 있고, 그 다음에 ‘윗목화골’이 있다.

[어원풀이] ‘위[上]+목화(木花)+골[谷]’로 분석된다.

● 웃성골

[별칭] 웃성골

[형태] 골짜기

[위치] 물로2리마을회관과 물로고개 사이, 위쪽엔 ‘웃성골’이 있고 아래쪽엔 ‘아랫성골’이 있다.

[어원풀이] ‘위[上]+ㅅ+성(聲)+골[谷]’로 분석된다.

● 자래바웃골

[별칭] 자라바우골

[형태] 골짜기

[위치] 미상이다.

[유래] ; 기존문헌에 자라처럼 생긴 바위가 있다고

하였다.

[어원풀이] ‘자래/자라[鼈]+바우[岩]+ㅅ+골[谷]’로 분석된다.

● 작은도치골

[별칭] 작은돗치골, 작은돗지골, 작은독지골

[형태] 골짜기

[위치] 물로리배터와 물로2리마을회관에서 ‘물로교’ 근처에서, 물로길로 가다가 산골길로 들어서는데, 몇 골짜기를 지나면 ‘새덕이’를 지나 ‘가는골’ 위쪽이 ‘큰도치골’이고, ‘고개골’로 위쪽은 ‘작은도치골’이다. 이 지역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골짜기이며, 바로 위는 가리산 동쪽 능선이다.

[어원풀이] ‘작은[소]+도치골’로 분석된다. ‘도치골’ 참조.

● 작은설악골

[형태] 골짜기

[위치] 물로리배터에서 절골길로 들어가 ‘물안골’을 지나면 ‘물안골고개’ 쪽에 ‘큰설악골’이 있고, ‘쇠판이골’ 쪽에 ‘작은설악골’이 있다.

[어원풀이] ‘{작은-[小]}+{-은(관형사형어미)}+설악(雪嶽)+골[谷]’로 분석된다.

● 작은진퍼리골

[형태] 골짜기

[위치] 물로리로 들어오는 동쪽 세 번째 소양호 포구로 들어가 이어진 골짜기가 ‘진퍼리골’이며, 끝에 이르러 남쪽으로 난 큰 골짜기는 ‘큰진퍼리골’이고, 작은 골짜기는 ‘작은진퍼리골’이다.

[어원풀이] ‘작은(小)+진퍼리골’로 분석된다. ‘진퍼리골’ 참조.

● 절골

[별칭] 사동(寺洞)

[형태] 마을

[위치] 물로리선착장에서 물로1리를 지나 도로지
명 ‘물로길’과 ‘절골길’이 갈라지는 지점에서 500m
정도 거리인 ‘절골길’ 초입에 있다. ‘절골길’ 끝엔
가리산 아래 은주사가 있다.

[유래] 『북산면사람들』에 “하촌 남쪽 골짜기에 있
는 마을. 사동(寺洞)이라고 부른다. 절이 있었던 자
리를 절골이라 했는데 일제강점기 때부터 있었다.
이곳에는 빈대가 너무 많아서 절을 철거했다.”고
하였다.

[어원풀이] ‘절[寺]+골[洞]’로 분석된다. ‘연주사(은
주사)’가 지금 ‘절골, 절골길’의 바탕이 되었다.

● 정막골

[형태] 골짜기

[위치] 물로리배터에서 절골길 막바지까지 들어가
'은주사'를 지나 '한천자묘' 남서쪽으로 빠지면 '정
막골'이다. 그 동쪽 가까이에 '원골'이 있다.

[어원풀이] '정막/적막(寂寞)-강산(江山)+골[谷]'로
분석할 수 있다.

● 중간말

[별칭] 중리(中里)

[형태] 마을

[위치] 예전 물로리 본마을에서 소양강 쪽으로 '중
리(중간말)' 그 다음이 '아래말(물어구, 수구동)'이다.
[어원풀이] '중간(中間)+말[村]'로 분석된다.

● 중애기골

[형태] 골짜기

[위치] 소양호가 물로리로 들어와 '물로길'과 '갈골

길'로 갈라지는 지점에서 '물로길' 쪽에서 북쪽으
로 난 첫 번째 골짜기이다. 앞엔 '아래목화골'이 뒤
엔 '윗목화골'이 있다. 좀더 동진하면 조교리로 가
는 '물로고개'가 있다.

[어원풀이] '중[僧]+애기/아기[兒]+골[谷]'로 분석
된다.

● 진퍼리골

[형태] 골짜기

[위치] 물로리로 들어오는 동쪽 세 번째 소양호 포
구로 들어가 이어지는 골짜기가 '진퍼리골이며, 끝
에 이르러 남쪽으로 난 큰 골짜기는 '큰진퍼리골'
이고, 작은 골짜기는 '작은진퍼리골'이다.

[어원풀이] '진퍼리(진펠)+골[谷]'로 분석된다. '진
퍼리(진펠)'는 시궁의 바닥 또는 그 속이다.

● 째작나무골

[별칭] 자작나무골

[형태] 마을

[위치] 기존문헌에 자작나무가 많았던 마을이라 하
였는데 위치는 미상이다.

[어원풀이] '째작나무/자작나무+골[谷]'로 분석된다.

● 참배나뭇골

[별칭] 진리동(眞梨洞)

[형태] 마을

[위치] 가리산 동편 아래 북봉 지나 북쪽 골짜기로
내려가면 '참배나뭇골'이 나온다. 물로리선착장에
서 물로리로 들어서면 두 갈래로 동편 '물로길'과
서편 '절골길'로 이어지며 가리산을 향하게 된다.
가리산에서 물로리로 내려가는 계곡물(개천)은 크
게 세 줄기인데, 물로길'과 '절골길' 결으로 흐르는
물줄기와, '물로길'이 다시 중간 '굼벙골' 근처에서

두 갈래지며 곧장 이어진 ‘물로길’ 골짜기와 아래로 갈라진 골짜기로 나뉘는데 이 아래 골짜기가 ‘참배나뭇골’이다. 이 ‘참배나뭇골’ 개천과 합류한 물로길 개천을 ‘물로천’이라 부른다. 즉, ‘물로길’과 ‘절골길’ 사이로 흐르는 ‘물로천’ 계곡이 ‘참배나뭇골’이다.

[유래] 『북산면사람들』에 굽병골 남쪽 골짜기에 있는 마을이라 하였다. 큰 참배나무가 있었다.

[어원풀이] ‘참배나무[眞梨]’+‘골[谷, 洞]’로 분석된다. ‘참배나무’는 장미과의 낙엽 교목. 4~5월에 흰 꽃이 피고 둥근 모양의 열매는 갈색으로 익는다. 과실나무로 재배한다. 우리나라 중부에 분포한다. ‘진리동(眞梨洞)’은 한자표기지명이다.

● 창촌말

[별칭] 장촌말

[형태] 마을

[위치] ‘물로리고개(삽다리고개)’ 맞은편에 있다.

[유래] 기존문헌에 ‘장촌말’이라 하고 조선시대 장씨(張氏)가 처음 개간했다는 마을이라 하였다. 요즘은 ‘장촌말’보다 ‘창촌말’로 불린다.

[어원풀이] ‘장(張氏)+촌(村)+말/마을[村]’로 분석된다. ‘촌말’은 같은 의미의 한자어와 고유어가 ‘처-가집, 역-전앞’처럼 중복되어 쓰였다. 외국어가 외래어로 정착하는 과도기적 현상의 한 모습이다.

● 칼골

[형태] 골짜기

[위치] 『한국지명총람』에 갈골에 있는 골짜기라 하였는데 정확한 위치는 미상이다.

[어원풀이] ‘칼[刀]+골[谷]’로 분석된다.

● 큰도치골

[별칭] 큰돗치골, 큰돗지골, 큰독지골

[형태] 골짜기

[위치] 물로리배터와 물로2리마을회관에서 ‘물로교’ 근처에서, 물로길로 가다가 산골길로 들어서는데, 몇 골짜기를 지나면 ‘새덕이’를 지나 ‘가는골’ 위쪽이 ‘큰도치골’이고, ‘고개골’로 위쪽은 ‘작은도치골’이다. 이 지역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골짜기이며, 바로 위는 가리산 동쪽 능선이다.

[어원풀이] ‘크-[大]}+{-ㄴ(관형사형어미)}+도치골’로 분석된다. ‘도치골’ 참조.

● 큰설악골

[형태] 골짜기

[위치] 물로리배터에서 절골길로 들어가 ‘물안골’을 지나면 ‘물안골고개’ 쪽에 ‘큰설악골’이 있고, ‘쇠판이골’ 쪽에 ‘작은설악골’이 있다.

[어원풀이] ‘크-[大]}+{-ㄴ(관형사형어미)}+설악(雪嶺)+골[谷]’로 분석된다.

● 큰진퍼리골

[형태] 골짜기

[위치] 물로리로 들어오는 동쪽 세 번째 소양호 포구로 들어가 이어진 골짜기가 ‘진퍼리골’이며, 끝에 이르러 남쪽으로 난 큰 골짜기는 ‘큰진퍼리골’이고, 작은 골짜기는 ‘작은진퍼리골’이다.

[어원풀이] ‘크-[大]}+진퍼리골’로 분석된다. ‘진퍼리골’ 참조.

● 텃골

[별칭] 대곡(大谷)

[형태] 마을

[위치] 『춘주지』에 “대곡. 부귀터 남쪽에 있는 마을”

이라 하였다.

[어원풀이] ‘터[垈]+ㅅ+골[谷]’로 분석된다.

● 평내고개

[별칭] 평넷고개, 평내현(平內峴).

[형태] 고개

[위치] 물로리선착장에서 도로지명 ‘물로길’로 끝까지 오르면 직진하는 물로천 상류와 아래쪽 ‘참배나뭇골’로 갈라지는 지점에서, ‘참배나뭇골’로 넘어가는 초입에 있는 고갯길이다.

[유래] 기존문헌에 홍천군 두촌면 평내로 넘어가는 고개라 하였다.

[어원풀이] ‘평(平)+내(内)+고개[峴]’로 분석된다.

● 풀못골

[형태] 골짜기

[위치] 물로리에서 물로리배터로 들어오는 소양호 협곡은 남동쪽으로 위치하는데, 협곡 남북으로 여러 골짜기가 산재한다. 그 북쪽 첫 번째 골짜기는 ‘막골’이고, 두 번째 골짜기가 ‘풀못골’이다. ‘풀못골’ 소양호 건너 남쪽인 맞은편에 ‘안질재골’이 있다.

[유래] 기존문헌에 예전에 대장간이 있던 골짜기라 하였다.

[어원풀이] ‘풀무+ㅅ+골[谷]’로 분석된다. 불을 피울 때에 바람을 일으키는 기구를 ‘풀무’라 하는데 특히 지명에 쓰일 때는 ‘대장간’을 특정한다. 쇠가 나온다는 ‘쇠골, 금대골, 쇠골산’ 등과 연관되곤 한다.

● 한천마을

[별칭] 한천자마을

[형태] 마을

[위치] 물로리선착장에서 물로2리마을회관을 지나 ‘물로길’과 ‘절골길’이 갈라지는 지점에 있는 ‘물로

교’ 근처에서 ‘절골길’로 올라가, 가장 고지대에 있는 ‘은주사(恩珠寺)’에서 남쪽 500m 정도에 있다.

[유래] 한천마을은 내평리에 살던 머슴이 물로리 가리산 자락에 무덤을 써 그 후손이 중국의 천자가 됐다고 하는 ‘한천자묘’의 유래에서 비롯됐다.

[어원풀이] ‘한(漢)+천/천자(天子)+마을[村]’로 분석된다.

[유래담] 한천자묘 전설이 전한다.

● 한천자묘

[별칭] 한천자무덤, 한총(漢塚)

[형태] 무덤

[위치] ‘은주사(恩珠寺)’에서 남쪽 200m 정도 더 올라가면 나온다. 현재 ‘한천자묘’가 있는 골짜기를 ‘원골’이라 한다.

[유래] 한천자묘 전설이 전한다.

● 화채바웃골

[형태] 골짜기

[위치] 미상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화채(상여)처럼 생긴 바위가 있는 골짜기라 하였다.

[어원풀이] ‘화채[喪輿]+바우[岩]+ㅅ+골[谷]’로 분석된다. ‘화채’는 ‘상여(喪輿)’의 비표준어이다.

5절

부귀리(富貴里)

위치와 현황 | 부귀리는 소양강댐이 있는 호수 주변의 산간마을이다. 북쪽에서 남쪽으로 부귀천이 흐르고, 남쪽에 소양호가 있다. 자연마을로는 물안리, 텁골, 아랫말, 여우내 등이 있다.

연혁 | 『춘주지』를 보면 북산외(北山外)에 건천(乾川)이 표기되어 있는데 나중에 부귀리가 되었다. 『여지도서』, 『호구총수』, 『춘천읍지』, 『춘천부지』, 『관동읍지』는 부창리(富昌里), 건천리(乾川里)로 표기하였다. 『조선지지자료』는 북산외면(北山外面) 하건천리(下乾川里), 여오천리(汝吾川里)가 부귀리가 되었다. 『강원도지지조서』는 북산외면(北山外面) 하건천리(下乾川里), 부창리(富昌里), 여오천리(汝吾川里)로, 『강원도지』, 『수춘지』, 『춘주지』, 『춘천백년사』는 북산면(北山面) 부귀리(富貴里)로 표기하였다. 현재 행정리와 법정리는 동일하게 부귀리다.

유래 | 본래 부귀터, 부귀대(富貴垈)라고도 부른다.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여오천리, 하건천리를 병합하여 부귀리(富貴里)라 한다.

● 간척고개

[별칭] 건천령(乾川嶺)

[형태] 고개

[위치] 부귀리 최북단에서 화천군 간동면 간척리로 넘어가는 580m 고개로, 그 소재지는 화천군 간동면 간척리이다.

[유래] 기존문헌에 부귀리에서 화천군 간동면 간척리(看尺里)로 넘어가는 고개라 하였다. 같은 고개인데, 부귀리에서는 ‘건청령(乾川嶺)’이라 부르고, 추곡리에서는 ‘추곡령(楸谷嶺)’이라 부르고, 화천군 간동면 간척리(看尺里)에서는 ‘간척고개(看尺고개)’라 부른다.

[어원풀이] ‘간척(看尺-里)+고개[峴]’로 분석된다. 이곳 ‘간척’은 화천군 간동면 간척리를 가리킨다. 별칭인 ‘건천령(乾川嶺)’은 ‘건천(乾川)+령(嶺)’으로 분석된다. ‘건천(乾川)’은 ‘물이 마른 개천’이며 그 부근의 고개가 ‘건천령(乾川嶺)’이다.

● 갈동골

[형태] 골짜기

[위치] ‘물안골(물안마을)’에서 청평리로 넘어가는 ‘하우고개’ 북쪽에 난 골짜기로, ‘하우고개’와 ‘석장골’ 사이에 ‘갈동골’이 있다.

[어원풀이] ‘갈(葛)+동(洞)+골[谷]’로 분석된다. ‘갈동’ 및 ‘갈동골’은 전국에 산재하며 대부분 ‘갈나무, 떡갈나무, 신갈나무가 많은 골짜기’와 관련된다.

● 건봉령승호대

[형태] 산, 전망대

[위치] 부귀리 ‘물안마을’에서 남쪽으로 ‘삼막길’을 따라 부귀리 최남단에 이르면, 소양호를 전망하기 좋은 ‘건봉령승호대’가 나온다. 계속 삼막길로 2.5km 서쪽으로 진행하면 ‘산막골(청평2리)’에 당

는다.

[유래] ‘물안마을’에서 남쪽 소양호로 가다가 소양호가 다 드러나 보이는(好) 장소(臺)에 ‘명승(名勝)/ 절승(絕勝)’을 합해 ‘승호대(勝好臺)’라 하였다.



건봉령승호대 1



건봉령승호대 2

● 고사리덕

[형태] 산

[위치] ‘부귀고개(물안골고개)’ 북쪽, ‘문바우골’과 ‘병풍바우골’ 위에 있다. 오흥리와 부귀리를 접하고 있다.

[유래] 『북산면사람들』에 예전에 고사리가 많이 났다고 해서 부른 산이라 하였다.

[어원풀이] ‘고사리[蕨]+덕[둔덕, 山]’으로 분석된다. 지명접미사 ‘덕’은 고구려어의 유산으로 그 의미는 ‘높다[高], 크다[大]’로 전의(轉義)되었다. 이

형태로는 ‘덕/덕이/더기’가 있다. 여기서는 ‘산(山)’으로 쓰였다.

● 논양짓들

[형태] 들

[위치] 기존문헌에 소양강 가에 있는 들이라 하였다. 북산면의 낮은 평지, 양지바른 평지는 모두 소양호에 수몰되어 ‘논농사’를 할 수 없게 되었다.

[어원풀이] ‘논[畜]+양지(陽地)+ㅅ+들[坪]’로 분석된다. ‘양지바른 논이 된 들’이다.

● 뒷벼덩

[형태] 들

[위치] ‘물안마을(무라니/물안리)’에서 남쪽 가끼이에 ‘야금물(골)’이 있으며, 그 안쪽에 ‘뒷벼덩’이 있다.

[유래] ‘뒷벼덩’ 북쪽 ‘야금물’에서 금을 채취했었다고 한다.

[어원풀이] ‘뒤[後]+ㅅ+벼덩’으로 분석된다. ‘벼덩’은 높고 평평하며 나무는 없이 풀만 우거진 거친 들이다.

● 무라니

[별칭] 물안리, 물안마을

[형태] 마을

[위치] 부귀리의 도로망은 크게 남북로인 남쪽 길 ‘삼막길’과 북쪽 길인 ‘텃밭길’이 있고, 동서로 뻗은 큰길 ‘부귀로’가 있다. 이 남북로와 동서로가 교차하고 있는 마을이 ‘무라니/물안리/물안마을’이다. 부귀리마을회관이 있다.

[유래] 기존문헌에 텃골 남쪽에 있는 마을이라 하였다. 지금은 ‘물안리’ 또는 ‘물안마을’로 부르는 부귀리 본마을이다. 폐교된 천천초등학교 부귀분교 자리에 성공적인 귀농정책과 대기업과의 활발한

교류 등을 통해 ‘농촌체험마을(팜스테이마을)’이 조성되면서, 말 그대로 부귀를 누리는 마을이 되었다. 2022년엔 부귀분교 자리에 강원도교육청에서 ‘청소년인생학교’를 개강하였다. 한편, 해마다 봄이 오면 행락객들이 부귀리 물안마을 벚꽃길벚꽃축제길에 넘쳐난다.

[어원풀이] ‘무/물[水]+안[內]+리(里)’로 분석된다. ‘물안리’가 변음(變音)되어 ‘무란리/무라니’라고도 하며, 그 한자 표기 ‘物安里’는 음차자(音借字)이다. 예전 소양강안쪽에 있는 마을이다. 지금은 ‘물안마을’이라고 한다.

● 물안교

[형태] 다리

[위치] ‘물안마을(무라니/물안리)’에서 북쪽 400m 지점에서 삼막길이 부귀천을 넘어가는 곳에 놓인 다리이다. ‘물안교’를 건너 삼막길을 진행하면 다시 ‘물안마을’로 빙 돌아 나온다.

● 봉화산(烽火山)

[형태] 산

[위치] 청평리와 부귀리 사이에 있는 고도 733m의 산이다. 봉화산 정상에 서면 소양호가 다 내려다보인다. 청평리 하우고개가 뒤 북쪽 능선에 있다.

[유래] 봉화(烽火)를 올리던 산이라 전한다.

● 봉호골

[별칭] 봉화골

[형태] 골짜기

[위치] 부귀리마을회관(물안리) 남쪽 ‘솔모정(서당벌)’ 아래에서 ‘봉화산’ 쪽으로 들어간 골짜기이다.

[어원풀이] ‘봉호/봉화(烽火)+골[谷]’로 분석된다.

● 부귀고개

[별칭] 무라니고개, 물안고개

[형태] 고개

[위치] ‘물안골’에서 북동쪽으로 ‘부귀고개’를 구불 구불 지나면 북산면행정복지센터가 있는 오항리 (吾項里)에 이른다. ‘부귀교’를 중심으로 서쪽 청평리로 가는 고개는 ‘하우고개’이고, 동쪽 ‘오항리’로 가는 고개는 ‘부귀고개’이며, 도로지명은 양쪽 모두 ‘부귀로(富貴路)’이다.

● 부귀교(富貴橋)

[형태] 다리

[위치] 부귀로와 삼막길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부귀천을 지나는 부귀로 위에 놓인 다리이다.

● 부귀대(富貴垈)

[별칭] 부귀터, 부귀리

[형태] 마을

[위치] 지금은 부귀리 큰 마을인 ‘물안골/물안마을’에서 북쪽 길인 ‘텃밭길’ 맨 끝에 있다. 오항리에서 서진하여 ‘부귀고개’를 넘어 부귀리에 이르고, 다시 서진하여 ‘하우고개’를 넘어 청평리로 넘어가는, 그 한 가운데 ‘부귀리에서 북진하여 5km 정도에 이르면 그곳이 ‘부귀터’이고 ‘부귀텃골’이다.

[유래] 행정명 부귀리(富貴里)의 바탕이 되는 마을이다. ’물안동’과 ’부귀터(부귀대)’가 합해서 부귀리(富貴里)가 되었다.

[어원풀이] ‘부귀(富貴)+대(垈)’로 분석된다.

[유래담] 부귀리에 대한 확실한 지명 유래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부귀리라는 지명은 부자들이 많이 사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다. 근처에 있는 다른 마을 보다는 잘 사는 편이었다. 다른 마을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부잣집에서 빌려다 먹거나 감자를 구

워 먹었다고 하는데 이 마을에서는 거의 빌려 먹는 일이 없었고 다른 마을에서 보리밥을 주로 먹을 때에도 흰 쌀밥을 먹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다른 마을에서는 부귀리에는 부자들이 많이 산다고 생각했다.『북산면사람들』

● 부귀리벚꽃길

[별칭] 부귀리벚꽃길, 벚꽃축제길

[형태] 도로

[위치] 부귀리 산 68-4번지로 물안마을 일대이다.

[유래] 춘천에서 가장 늦게 벚꽃길이 만들어지는 물안마을 벚꽃잔치, 일명 ‘부귀리벚꽃길벚꽃축제’이다. 나선형으로 휘어지는 꼬부랑 벚꽃터널이 길게 펼쳐져, 산책이나 드라이브 하기에 좋은 길이다.



부귀리벚꽃길

● 부귀분교(폐교)

[별칭] 천전초등학교 부귀분교, 산촌생태체험장, 청소년인생학교

[형태] 학교

[위치] 북산면 텃골길 57번지이다.

[유래] 폐교된 천전초등학교 부귀분교 터에 산촌생태체험장이 들어서 있고, 다시 2022년 ‘청소년인생학교’가 개강하였다.

● 부귀천(富貴川)

[형태] 하천

[위치] 부귀리 동쪽으로 ‘부귀고개’를 넘어가면 오항리에 이르고, 부귀리 서쪽으로 ‘하오고개’를 넘어가면 청평리에 이르는데, 이들 두 고개 사이로 남북으로 길게 이어져 부귀리를 관통하여 흐르다가 소양호에 합류하는 소하천이다. 부귀리의 주요 도로인 삼막길과 퇴골길이 부귀천과 나란히 어이진다.

● 부귀터골

[형태] 마을

[위치] 부귀리 상리(上里), ‘대터골(垈골)’ 맞은편 골짜기이다.

[어원풀이] ‘부귀(富貴-里)+터[垈]+골[谷]’로 분석된다.

● 부용산(芙蓉山)

[형태] 산

[위치] 부귀리와 청평리, 그리고 화천군 간동면 간척리가 접경을 이루는 곳에 있는 고도 881m의 산이다.

[유래] 부용산 서쪽의 오봉산(五峯山, 779m)과 능선으로 연결되어 있어 종주 등반도 할 수 있다. 산세가 그리 험하지 않고, 산 아래 소양호에서 배를 탈 수도 있어서 다양한 재미를 맛볼 수 있는 산이다.

● 부창고개(富昌고개)

[별칭] 부창고개, 부창현(富昌峴)

[형태] 고개

[위치] 부귀리와 청평리 사이에 있는 큰 고개로 현재 행정구역상 주소로는 내평리에 속한다.

[유래] 기존문헌에 조선시대 부창역(富昌驛)이 있었

다고 하였다. 내평리-부귀리-청평리를 오가던 고개였으나, 내평리 쪽 ‘부창고개’가 대부분 소양호에 잠기면서 예전 고갯길은 행적이 끊어지고, 지금은 그 북쪽에 있는 ‘산막길’을 이용하거나, 오항리를 거쳐 추곡리로 나가 ‘춘양로’로 통행한다.

[어원풀이] ‘부창(富昌)+고개[峴]’로 분석된다. 조선 시대 부창역(富昌驛)이 있었으므로 별칭 ‘부청고개’보다 ‘부창고개’가 본래 이름이다.

● 빨래여울

[형태] 여울

[위치] 기존문헌에 소양강에 있는 여울이라 하였다. ‘빨래여울’은 물로리에도 있다. ‘물로리’와 ‘부귀리’에 겹치는 소양강에 있던 ‘빨래여울’이 1973년 소양호에 수몰된 것으로 보인다.

[유래] 예전의 빨래터로 겨울에 물이 차지 않았다고 한다. 현재는 사용하지 않는다.

[어원풀이] ‘빨래+여울[灘]’로 분석된다. ‘빨래’는 더러운 옷이나 피륙 따위를 물에 빼는 일을 말한다.

● 삼신재

[별칭] 삼승재

[형태] 고개

[위치] ‘부귀리마을회관(물안리)’에서 ‘천동골’로 가는 도중에 있는 고개이다.

[유래] 삼신할미에게 자식을 잘 낳게 해달라고 빌던 고개이다.

[어원풀이] ‘삼신(三神/삼신할미)+재[峙]’로 분석된다. ‘삼신할미’는 출산 전 기자(祈子)의 대상으로 아이를 점지해 주는 역할을 하면서 산모 및 태어난 아이의 출산과 건강을 관장하는 신이다. ‘삼신’은 삼신(三神), 산신(產神)으로 표기하기도 한다. 삼신은 한 분이라고도 하고 삼신할아버지와 함께 둘이

라고도 한다. 그리고 삼신의 삼을 숫자 삼(三)으로 해석하여 세 분이라고도 한다. 이런 이유로 밤 세 그릇, 국 세 그릇, 정화수 세 그릇을 제물로 올리기도 한다.

● 생기마을

[별칭] 물안마을2

[형태] 마을

[위치] 부귀리 상리(上里)로 ‘호터골’과 ‘부귀터골’ 사이에 있다. 부귀리 446-1번지 일대이다.

[유래] 부귀리 중리(中里)에 있는 부귀리 본마을은 ‘물안리(물안마을)’인데, 부귀리 상리(上里)에 있는 ‘생기마을’을 요즘 ‘물안마을2’라 부른다. 부귀리의 지형은 남북으로 길게 뻗어 있어, 북쪽에서 남쪽으로 ‘상리(上里), 중리(中里), 하리(下里)’로 나누어 부르기도 한다.

[어원풀이] ‘생기+마을[村]’로 분석할 수 있다. ‘생기’의 의미는 불분명하다. ‘생기마을’은 전국에 5곳 정도 있으며, 대부분 전통마을이 아니고 생기(生氣)를 불어넣은 도자기[牲器] 따위를 만드는 공장이나 산야초 따위를 재배하는 산촌밭이다.

● 서낭거리 1

[별칭] 솔무정, 서당벌, 성황가(城隍街)

[형태] 마을

[위치] ‘물안리’ 인근이며 ‘솔무정’이 있다. ‘부귀고개’ 남쪽 아래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성황당이 있었다고 하였고, 『복산면사람들』에 “성황당은 현재는 없어졌다. 지금은 소나무가 많이 자라고 있어서 솔무정이라 한다. 여기서 부귀리 사람들은 개를 잡아서 도깨비를 달래는 거리제를 지낸다.”라 하였다.

[어원풀이] ‘서낭(서낭堂)+거리[街]’로 분석된다.

● 서낭거리 2

[형태] 마을

[위치] 부귀리 상리(上里) 북단에 위치하며, 화천군 간동면 간척리 가까이에 있다. ‘부귀터골’과 ‘대터골(텃골)’이 그 남쪽에 있다.

[어원풀이] ‘서낭(서낭堂)+거리[街]’로 분석된다.

● 서당벌

[별칭] 서낭벌

[형태] 마을

[위치] ‘물안리’ 인근 ‘솔무정’이 있는 곳의 별판이다. 부귀리의 자연마을은 ‘물안골’과 ‘서당벌’과 ‘순동골’이다.

[어원풀이] ‘서당/서낭당/성황당(城隍堂)+벌[坪, 街]’로 분석된다.

● 석장골

[형태] 골짜기

[위치] 부귀리의 상리(上里), 중리(中里), 하리(下里)에서 중리(中里)에 있다. ‘하우고개’ 북쪽 멀지 않은 곳이다.

[유래] 큰 돌, 바위가 많은 곳으로 고려장(高麗葬)을 했던 곳이라고 한다.

[어원풀이] ‘석(石)+장(葬)+골[谷]’로 분석된다.

● 세집매

[형태] 마을

[위치] 미상이다.

[유래] 기존문헌에 세 집[三家]이 살았다고 한다. 물로리에도 동일한 지명이 전한다.

● 소막골

[형태] 마을

[위치] 부귀고개 북쪽, 오항리에 가까운 곳에 있는 작은 마을이다. 그 위쪽으로는 오항리 ‘가맛골’이 있다.

[유래] 골짜기 안이 막힌 작은 골짜기에 몇 가구가 살았었다.

[어원풀이] ‘소(小)+막-[閉]+골[谷]’로 분석된다.

● 솔모정

[별칭] 서낭별, 서당별, 성황가, 서낭거리

[형태] 마을

[위치] ‘물안리’ 인근이며 ‘서당별’에 있다. ‘부귀고개’ 남쪽 아래이다.

[어원풀이] ‘솔[松]+모정(茅亭)’으로 분석된다. ‘모정(茅亭)’은 짚이나 풀 따위로 지붕을 한 정자이다.

● 솔모정 고인돌

[형태] 유적

[위치] ‘물안리’ 바로 아래 ‘솔모정’ 옆에 있다.

[유래] ‘솔모정’ 옆에 오래된 제법 큰 넓은 바위가 있는데, 고인돌의 일부라고 전한다.

● 친동골

[별칭] 신동골

[형태] 마을

[위치] ‘물안리’에서 소양호 쪽 300m 정도에 있으며 더 나아가면 ‘전봉령승호대’가 나오고, 더 나아가면 소양호가 생기기 전 춘천으로 가던 ‘부창고개’가 나온다. 부창고개 다음은 소양호다.

[유래] 별칭인 ‘신동골’은 부귀리 본마을인 ‘물안리(물안마을)’에서 동쪽 골짜기에 ‘새로 들어선 마을 [新洞]’이라 그렇게 불렀다고 한다. 그러나 지금의 행정지명은 ‘친동골’이다.

[어원풀이] ‘순(50)+동(洞)+골[谷]’로 분석되며, ‘신

동골’은 ‘신(新)+동(洞)+골[谷]’로 분석된다. 전국에 산재하는 ‘친동골’은 대부분 ‘오십(50)여 가구’가 사는 골짜기(마을)’에서 유래한다.

● 아래말

[별칭] 아랫말, 하촌(下村)

[형태] 마을

[위치] 부귀리에서 가장 남쪽에 있는 마을이다.

[어원풀이] ‘아래[下]+말[村]’로 분석된다.

● 야금물

[형태] 골짜기

[위치] ‘물안마을’에서 남쪽 가까이에 ‘야금물(풀)’이 있다. 그 안쪽에 ‘뒷버덩’이 있다.

[유래] ‘뒷버덩’ 위쪽 광산에서 금을 캤는데(야금 治金), 물이 야금야금 나오는 곳이라, 이 둘을 합하여 ‘야금(冶金)풀’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전한다..

[어원풀이] ‘야금(冶金)+풀[水]’로 분석된다.

● 여우내

[별칭] 여오천리(汝吾川里)

[형태] 마을

[위치] 부귀리 최남단인 소양호에 가까이 있으며, 인근에 ‘절골’과 ‘사래바웃골’이 있다.

[유래] 『춘천의지명유래』에 무라니 남동쪽 냇가에 있는 마을이라 하였다.

[어원풀이] ‘여우[狐, 狼]+내[川]’로 분석된다. ‘여오천리(汝吾川里)’는 한자표기 지명이다.

● 응장골

[형태] 골짜기

[위치] ‘물안골(물안마을)’에서 청평리로 넘어가는 ‘하우고개’ 북쪽에 난 큰 골짜기로, ‘배치고개’에서

청평사로 내려오는 곳으로 향해 있다. ‘하우고개’와 ‘옹장골’ 사이에 ‘갈동골’이 있다.

[어원풀이] ‘옹장(甕場)+골[谷]’로 분석된다. ‘옹장골’은 전국에 산재하며, 대부분 ‘옹기’를 굽던 곳과 관련된다.

● 옻골

[형태] 골짜기

[위치] 부귀리 최남단인 소양호에 가까이 있으며, 인근에 ‘여우내’와 ‘자래바웃골’이 있다. ‘옻골’을 오르면 북산면 내평리에 소재하는 ‘오뚜기/오퇘기(옻퇘기)’에 이른다.

[유래] 옻나무가 많이 자생하고 있었다고 한다.

[어원풀이] ‘옻[漆]+골[谷]’로 분석된다.

● 자래바웃골

[별칭] 자라바우골

[형태] 골짜기

[위치] 부귀리 최남단인 소양호에 가까이 있으며, ‘여우내’와 ‘옻골’ 사이에 있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자라처럼 생긴 바위가 있다고 하였다.

[어원풀이] ‘자래/자라[鼈]+바우[岩]+ㅅ+골[谷]’로 분석된다.

● 절골

[형태] 골짜기

[위치] 부귀리 최남단인 소양호에 가까이 있으며, 인근에 ‘여우내’와 ‘자래바웃골’이 있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절이 있었다고 하였다.

[어원풀이] ‘절[寺]+골[谷]’로 분석된다.

● 제비여울

[형태] 수리

[위치] 기존문헌에 소양강에 있는 여울이라 하였다.

[어원풀이] ‘제비[燕]+여울[灘]’로 분석된다.

● 칠고개

[형태] 고개

[위치] ‘부귀리마을회관(물안리)’에서 ‘부귀고개’로 들어가는 초입에 있는 고개이다.

[유래] 예전에 ‘칠고개’ 주변 기슭에 옻나무가 많이 자생했다.

[어원풀이] ‘칠(漆)+고개[峴]’로 분석된다.

● 큰골

[별칭] 대곡(大谷)

[형태] 골짜기

[위치] ‘대터골(덧골)/대곡(垈谷)’의 위치인 부귀리 상리(上里)에 있다.

[유래] 기존문헌에 골짜기가 크다고 하였다. ‘대터골(덧골)’의 한자 표기 ‘대곡(垈谷)’이 한자 지명(별칭)으로 쓰이면서 일반적으로 쓰이는 한자 지명인 ‘대곡(大谷)’으로 받아드리고, 다시 그에서 고유지 명인 ‘큰골’로까지 와전되었다. 즉, ‘큰골[大谷]’은 실재하지 않으며, ‘대터골(덧골)/대곡[垈谷]’과 같은 곳이다.

● 텃골

[별칭] 대곡(垈谷), 대터, 대터골

[형태] 마을

[위치] 청평리와 부귀리가 접하는 ‘부용산(881m)’ 동쪽 기슭에 있다. 부귀리 상리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부귀터 남쪽에 있는 마을이라 하였는데, ‘남쪽’보다는 ‘부귀터골’과 마주하

고 있다. 요즘은 ‘텃골’로 부르며, 도로지명 ‘텃골길’이 부귀리를 ‘부귀천’을 따라 남북으로 지난다.

[어원풀이] ‘터[垈]+ㅅ+골[谷]’로 분석된다. ‘대곡(垈谷)’은 ‘텃골’의 한자 지명이다.

● 하우고개

[별칭] 하우현(夏牛峴), 하령(夏嶺)

[형태] 고개

[위치] ‘부귀교’를 중심으로 서쪽 청평리로 가는 고개이다. 하우고개 마루(정상)의 소재지는 부귀리이다. 부귀리 하우고개 정상~청평리 소양예술농원 4.3km 구간을 정비하여 오봉산~부용산 등산코스 와 이어져 소양강댐 맞은편 산자락에 닿을 수 있다. 능선을 따라 호젓한 산길과 소양호의 풍광을 동시에 즐길 수 있다. 목재, 돌계단으로 정비하고 갈림길마다 표지판을 설치하여 쾌적한 등산코스 나 둘레길이 되었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하령(夏嶺). 청평골에서 부귀리의 무라니로 넘어가는 고개”라 하였다.

[어원풀이] ‘하우(숨이 찬 소리)+고개[峴]’로 분석된다. ‘하우’는 ‘숨이 차서 하우하우 하며 고개를 넘는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별칭인 한자지명 ‘하령(夏嶺)’의 ‘夏’는 음차자(音借字)이다. ‘하우고개’는 전국적으로 많은 곳에 있으며, 그 유래도 사뭇 다양하다. 고도 600m 정도면 ‘숨이 차서 하우하우 하며 고개를 넘는다’고 하거나 ‘늘 안개와 운무가 께 하우(霞雨)’라고 한다. 그리고 비교적 낮은 고개이면 곳곳마다 다른 유래(화해->하우-하며 넘었다는 등)를 듣는다.

● 호터골

[형태] 골짜기

[위치] 부귀리 상리(上里)와 중리(中里) 사이 ‘옹장

골’ 맞은편 골짜기이다. ‘호터골’ 북쪽에 ‘부귀터골’이 있다.

[어원풀이] ‘호터+골[谷]’로 분석되는데 ‘호터’의 의미는 불분명하다.

● 화채바웃골

[형태] 골짜기

[위치] ‘솔모정, 서당벌’ 남쪽 가까이에 ‘화챗간’이 있던 골짜기이다.

[어원풀이] ‘화채[喪輿]+바우[岩]+ㅅ+골[谷]’로 분석된다. ‘화채’는 ‘상여(喪輿)’의 비표준어이다.

위치와 현황 | 소양강댐으로 형성된 소양호 주변에 있는 마을로 동쪽으로 추전리, 서쪽으로 부귀리, 남쪽으로 내평리와 부귀리, 북쪽으로 추곡리와 접한다. 자연마을로는 횟골, 천리터, 수청골, 벌말, 장재골, 안말 등이 있다.

연혁 | 『춘주지』에 북산외(北山外) 건천(乾川), 고곡(古谷), 무노곡(無老谷), 조탄(照吞), 대동(大洞), 기곡(基谷), 당동(堂洞), 수정동(水精洞), 추동(楸洞), 누항(樓項), 수산(水山) 등이 기록되어 있는데 오항리가 어디에 있는지 자세히 알 수 없다. 『여지도서』, 『호구총수』, 『춘천읍지』, 『춘천부지』, 『관동읍지』는 북산외면(北山外面) 오항리(廳項里)로 표기하였다. 『조선지자료』, 『강원도지지조서』는 북산면(北山面) 오항리(吾項里)로, 『강원도지』, 『수춘지』는 북산면(北山面) 오항리(吾項里)로, 『춘주지』, 『춘천백년사』는 북산면 오항1리, 오항2리로 표기하였다. 현재 행정리는 오항리고 법정리는 오항1리, 오항2리다.

유래 | 이곳의 지형이 다람쥐의 목처럼 생겼다 하여 다라메기 또는 오항(廳項)이라 불렸다고 한다.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안말, 떡갈매기, 새무골, 수청골, 장재골, 천리터, 횟골, 벌말을 병합하여 오항리(吾項里)라 하였다.

● 가래나무골

[형태] 골짜기

[위치] ‘천리터’ 우측에 ‘보래골, 가래나무골’이 있고, ‘가래나무골’ 맞은편엔 ‘우물골’이 있다.

[어원풀이] ‘가래나무+골[谷]’로 분석된다. ‘가래나무’는 가래나뭇과의 낙엽 활엽 교목이다. 높이는 20미터 정도이며, 잎은 우상 복엽으로 7~15개이다. 4~5월에 꽃이 피고 열매는 달걀 모양의 핵과(核果)로 9~10월에 익는다. 열매의 씨는 먹거나 약용한다. 산기슭이나 약간 습한 곳에서 자라는데 한국, 만주 등지에 분포한다.

● 가맛골

[별칭] 가마골

[형태] 골짜기

[위치] 동쪽 ‘고양이봉’과 서쪽 ‘부귀고개(물안리고개)’ 사이에 있으며, 남쪽에 ‘화채봉’과 그 너머에 ‘떡갈메기(떡갈목)’가 있다. 오항리에서 수청골 다음으로 큰 골짜기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떡갈메기 부근에 있는 골짜기라 하였고, 『북산면사람들』에 이곳에 400여년 된 소나무가 있다고 하였다.

[어원풀이] ‘가마[釜]+ㅅ+골[谷]’로 분석된다.

● 갈밭골

[형태] 골짜기

[위치] ‘천리터’ 위쪽에 ‘우물골’이 있고 그 맞은편에 ‘가래나무골’과 ‘갈밭골’이 있다.

[어원풀이] ‘갈(갈대)+밭[田]+골[谷]’로 분석된다. ‘갈밭’은 갈대가 우거진 곳이다.

● 감마지골

[별칭] 감맞이골

[형태] 골짜기

[위치] ‘천리대’ 북동쪽 골짜기로, ‘우물골’과 ‘뒷골’ 사이에 있는 ‘일어서기산’ 옆에 있다.

[어원풀이] ‘감/검/곰[神]+마지/맞이[迎]+골[谷]’로 분석할 수 있다.

[유래담] 임진왜란 때 산신령이 백발노인으로 변하여 왜놈들의 약탈로부터 마을을 구했다는 천리터 전설이 전한다. (『강원의 설화』, 〈산신령이 구한 천리터〉)

● 고물개봉

[형태] 산

[위치] ‘수청골’에서 ‘수채골’로 갈라지는 사이에 있다.

[유래] 『북산면사람들』에 불을 때서 재를 담는 고물개처럼 생겼다고 하였다.

[어원풀이] ‘고물개(고무래)+봉(峰)’으로 분석된다. ‘고물개’는 ‘고무래’의 방언(강원, 충남, 황해)으로, 곡식을 굽어모으고 폐거나, 밭의 흙을 고르거나 아궁이의 재를 굽어모으는 데에 쓰는 ‘丁’ 자 모양의 기구이다.

● 고사리덕

[형태] 산

[위치] ‘부귀고개(물안골고개)’ 북쪽, ‘문바우골’과 ‘병풍바우골’ 위에 있다. 오항리와 부귀리를 접하고 있다.

[유래] 『북산면사람들』에 예전에 고사리가 많이 났다고 해서 부른 산이라 하였다.

[어원풀이] ‘고사리[蕨]+덕[둔덕, 山]’으로 분석된다. 지명접미사 ‘덕’은 고구려어의 유산으로 그 의미는 ‘높다[高], 크다[大]’로 전의(轉義)되었다. 이 형태로는 ‘덕/덕이/더기’가 있다. 여기서는 ‘산(山)’으로 쓰였다.

● 고양이봉

[별칭] 고냥이산, 꽁이산, 괘산

[형태] 산

[위치] ‘부귀고개(불안리고개)’ 남쪽 ‘삿갓봉’ 아래에 있다. 동쪽에 ‘작은수청골’이, 서쪽에 ‘가맛골’이 있다. 오항리에서 부귀고개 남쪽 능선은 ‘삿갓봉-고양이봉-화채봉-봉의산’으로 이어진다.

[유래] 『북산면사람들』에 고양이처럼 생겼다고 해서 불려졌다고 하며 예전에 서낭당이 있었다고 하였다.

[어원풀이] ‘고양이’[猫]+봉(峰)으로 분석된다.

은 골짜기가 있다.

[유래] 『북산면사람들』에 “마을에서 가장 높은 봉으로 38선이 지나갔던 곳이다. 예전에 군인들이 이곳에 깃발을 세웠다고 해서 깃대봉이라고 불렀다.”라 하였다.

[어원풀이] ‘기(旗)+ㅅ+대(殆)+봉(峰)’으로 분석된다.

● 공골고개

[별칭] 북산로

[형태] 고개

[위치] 기존문헌에 ‘공골’로 가는 고개라 하였다. ‘공골’의 행정구역은 추곡리이다.

[유래] 추곡리와 오항리를 넘나들던 고개로, 지금은 도로지명 ‘북산로(北山路)’로 정비되었다.

[어원풀이] ‘공골+고개’로 분석된다. 추곡리 ‘공골’ 참조.

● 곰에골

[별칭] 곰의골, 고매골

[형태] 골짜기

[위치] 북산면행정복지센터 ‘벌밀’에서 북동쪽 ‘배나무골’ 너머에 있다.

[유래] 『북산면사람들』에 곰이 들어가 앓아 있다고 해서 불려졌다고 하였다.

[어원풀이] ‘곰[熊]+에(처격조사)+골[谷]’로 분석된다.

● 깜부데이

[형태] 마을

[위치] ‘수청골’ 상류, 내평리 가기 전 ‘암두자리’ 조금 지나 있다.

[어원풀이] ‘깜부/깜부기[衺]+데이/뎅이’로 분석된다. ‘깜부기(깜부댕이)’는 솛뎅이이다. ‘뎅이’는 작게 풍쳐서 이루어진 것이다.

● 금골

[형태] 마을

[위치] ‘장재골’ 북쪽, ‘오항리청소년야영장’ 북쪽 가까이에 있다.

[유래] 마을의 어떤 부자가 한국전쟁이 나자, 이 골짜기에 금궤를 묻었다고 전한다.

[어원풀이] ‘금[金]+골[谷]’로 분석된다.

● 냉천골

[형태] 골짜기

[위치] 오항리 최남단 대곡리 쪽 소양호 앞에 있다.

[유래] 『북산면사람들』에 대곡리 가는 길에 있는 골로 찬바람이 나온다고 해서 냉천골이라 불렸다고 하였다.

[어원풀이] ‘냉(冷)+천(泉)+골[谷]’로 분석된다.

● 깃대봉

[형태] 산

[위치] 오항리 동쪽 끝에 있다. 오항리에서 가장 높은 산으로, 오항리 중심과 ‘깃대봉 사이에는 수많

● 농어촌인성학교

[별칭] 소양호농어촌인성학교

[형태] 학교

[위치] 북산면 장재골길 12-32번지로 ‘다람이마을’ 안에 있다.

[유래] 폐교된 ‘오항분교’를 ‘농어촌인성학교’로 개조하여 다양한 체험학습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오항리청소년야영장’과 ‘춘천시청소년여행의집’이 들어섰다. 인성학교는 농림축산식품부와 교육부가 공동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양호농어촌인성학교는 2013년에 지정됐다.

● 늘목고개

[별칭] 판항령(板項嶺), 판항현(板項峴), 판항(板項)고개

[형태] 고개

[위치] 오항리(吾項里) 북서쪽 끝, 추곡리(楸谷里) 쪽 ‘종로산’과 부귀리(富貴里) 쪽 ‘수리봉’ 사이에 있다. 지금은 ‘늘목고개’를 두고 오항리와 부귀리 양쪽 능선으로 임도가 지난다.

[유래] 『북산면사람들』에 “부귀리로 넘어가는 고개. 포수들이 짐승이 넘나드는 고개에서 자리(목)를 잡고 기다리고 있었다고 해서 늘목고개라고 부른다.”라 하였다.

[어원풀이] ‘늘/널[板]+목[項]+고개[嶺,峴]’로 분석된다. 지명접미사 ‘목[項]’은 ‘목/목이/메기/매기/모기’ 등의 이형태를 가지며 ‘좁다란 산협이나 물속을 가로지르는 길목’을 뜻한다.

● 능봉

[별칭] 늘봉

[형태] 산

[위치] 오항리 북단 ‘수리봉’과 ‘늘목고개’ 사이에

있다.

[유래] ‘늘목고개’에 있는 산이다.

[어원풀이] ‘늘목/늘-/능+봉(峰)’으로 분석된다.

● 다라매기

[별칭] 다라매기, 오항리

[형태] 마을

[위치] ‘오항리’ 본마을로, 북산면행정복지센터와 오항1리마을회관이 있는 곳이다. ‘별밀’과 ‘안말’ 사이이며, ‘부귀고개’인 ‘부귀로’와 추곡리를 오가는 ‘북산로’가 만나는 곳이다. 북산면행정복지센터 조금 남쪽 ‘오항교’에서 추전리와 내평리로 갈라진다.

[유래] 기존문헌에 이곳의 지형이 다람쥐의 목처럼 생겼다 하여 생겨난 지명이라 하였다. 『북산면사람들』에는 지역민의 증언에 따라 다라매기의 유래에 대해서는 몇 가지 설로 설명하였다. 첫 번째, 오항리 주민들 사이에서는 1) 자라목 2) 떡갈목 3) 용소목 4) 늘목 5) 새목의 다섯 곳을 합해 ‘5항’이라 한다. 다만 이 5항 안에 ‘다라매기/다람쥐목’은 없다. 두 번째, 목이 다섯이라고 오항리라는 이름이 붙었다. 떡갈목, 자라목, 용소목, 늘목, 새목을 합쳐 오항이라 한다. 늘목은 느려서 늘목이라고 했고, 용소목은 깊은 소용돌이가 있어서 그렇게 이름을 붙였다. 떡갈목에는 큰 떡갈나무가 많아서 이름을 떡갈목이라고 지었다. 또는 천리터, 수청동, 내촌, 하촌, 장재동, 그렇게 다섯 개 마을이라서 오항리라고 불렀다고도 한다. 오항리에는 용소목, 늘목, 두목(떡갈목), 다리목, 새목골의 다섯 개의 목이 있다. 다섯 개의 목(입)이 있는 마을이라고 하여 다섯 오(五)자 밑에 입 구(口)자를 써서 오항리라고 부른다. 이 목들은 어디서 봐도 들어오는 입구라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로 경계가 매우 뚜렷하다. 오항리로 들어오는 마을입구에는 다람쥐를 조각해

놓았다. 이는 이곳에 다라메기(다리목)로 다라메기와 다람쥐가 비슷한 음을 가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항2리를 다람이마을이라고도 한다. 이곳을 다람이마을로 부른 것은 2008년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하면서부터이다. 그때 이 마을의 상징으로 다람쥐를 조각해 놓았다. 원래는 장자골이라 불렸다. 오항1리는 오빛뜰마을이라고도 한다. 오빛뜰은 오항리에서 유래한 것인데, 다섯 빛이 드는 마을, 또는 무지개빛 마을이라는 뜻이다.

[어원풀이] ‘다라/다람(다람쥐, 鼷)+메기/매기/뫼기/모기/목이/목[項]’으로 분석된다. ‘오항(鶴項)’을 행정지명 ‘오항(梧項-里)’으로 표기한다. 음차표기인 셈이다.

● 다람이마을

[별칭] 오항리체험휴양마을

[형태] 마을

[위치] 북산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북서쪽으로 1.5km쯤 가면 오항2리마을회관이 나오고, 400m 정도 더 가면 ‘다람이마을’이 나온다.

[유래] 농어촌 체험 휴양 마을로 2008년에 이름지었다. 마을 앞에 풋살장과 농구장이 있다.

[어원풀이] ‘다람이(다람쥐의 고어)+마을[村]’로 분석된다.

● 다목적문화센터

[형태] 건물

[위치] 북산리행정복지센터 일원

[유래] 오항리에 조성된 다목적문화센터는 2011년, 연면적 300여 m^2 2층 건물로 1층에는 사무실과 체험장 식당이, 2층에는 대회의실과 휴게실 등이 들어섰다. 이 시설은 앞으로 마을 커뮤니티센터 기능뿐만 아니라 도농교류 프로그램을 운영, 농촌체

험 활동의 중심 시설로 활용된다. 또 추곡리 ‘가루체험장’에는 연자, 물레방아 등 옛 방아가 설치됐다. ‘오빛뜰마을 체험장’은 정자와 구름다리 등 농촌의 정취를 살린 시설물로 구성됐다.

● 당골고개

[별칭] 당꼴고개

[형태] 고개

[위치] ‘부귀고개(물안골고개)’ 남쪽, ‘가맛골’ 아래, ‘화채봉’ 아래에 있다. ‘화채봉’과 ‘봉의산’ 사이에 있다.

[유래] 기존문헌에 옛날에 당(堂)이 있었다고 하였다.

[어원풀이] ‘당(서낭堂)+골[谷]+고개[峴]’로 분석된다.

● 동재골

[형태] 골짜기

[위치] 오항리 동쪽에 끝에 있는 ‘깃대봉’에서, 그 남서쪽 골짜기로, ‘새무골(새막골)’ 아래에 있다.

[어원풀이] ‘동(오항리 동쪽)+재[峙]+골[谷]’로 분석된다.

● 두리봉

[형태] 산

[위치] 기존문헌에 등지봉 옆에 있는 산이고 수리봉 옆에 있는 산이 등지봉이라 하였다. ‘두리봉-등지봉-수리봉’으로 이어진다. ‘수리봉’은 북산면 추곡리와 가까운 오항리 북서단(北西端)에 있다.

[어원풀이] ‘두리/등글-[圓, 두리동설]+봉(峰)’으로 분석된다. 두리봉은 전국에 산재한다.

● 등지봉

[형태] 산

[위치] 오항리 중간쯤으로 북산면행정복지센터 서

쪽 가까이에 있는 ‘안말’ 아래에 있다. ‘등지봉’ 남쪽 가까이에 ‘부귀고개(불안골고개)’가 있다. ‘등지봉’과 ‘등지봉’은 따로 있으며, ‘등지봉’은 오항리 북단에 있고, ‘등지봉’은 오항리 중간쯤에 있다.

[유래] 『북산면사람들』에 봉의 모양이 등지 모양으로 생겨서 생겨난 이름이라 하였다.

[어원풀이] ‘등지[圓]+봉(峰)’으로 분석된다. 새의 ‘등지’처럼 둥글게 생긴 산이다.

● 뒷고개

[형태] 고개

[위치] 오항2리마을회관이 있는 ‘상촌(上村)’인 ‘장재골/장재동’에서 북쪽으로 난 첫 고개로, 더 북진하면 북산면 부귀리로 통하는 ‘늘목고개’에 이른다.

[유래] ‘상촌(上村)’인 ‘장재골/장재동’에서 북쪽으로 난 고개여서, ‘장재동’ 뒤에 난 고개라 ‘(동네)뒷고개’라 부른다.

[어원풀이] ‘뒤[後]+ㅅ+고개[峴]’로 분석된다.

● 뒷골

[형태] 골짜기

[위치] ‘천리대’ 약간 북쪽에 난 골짜기로 ‘감마지골’ 다음에 있다.

[어원풀이] ‘뒤[後]+ㅅ+골[谷]’로 분석된다.

● 등지봉

[형태] 산

[위치] 기준문현에 수리봉 옆에 있는 산이라 하였다.

[어원풀이] ‘등지/등지[圓]+봉(峰)’으로 분석된다. 새의 ‘등지’처럼 둥글게 생긴 산이다.

● 떡갈나무고개

[별칭] 덕갈현(德葛峴), 두목

[형태] 고개

[위치] 오항리 남단, 소양호 서쪽으로 난 골짜기로, 위아래로 ‘떡갈나무고개’와 ‘떡갈메기’로 갈라진다.

[어원풀이] ‘떡갈나무+고개[峴]’로 분석된다.

● 떡갈메기

[별칭] 떡갈목, 떡갈목리, 덕갈항리(德葛項里)

[형태] 마을

[위치] 오항리(吾項里) 남단, 소양호 서쪽으로 난 골짜기로, 위아래로 ‘떡갈나무고개’와 ‘떡갈메기’로 갈라진다.

[유래] 기준문현에 수청골 남서쪽에 있는 마을로 뒤에 큰 고개가 있다고 하였다.

[어원풀이] ‘떡갈(-나무)+메기’로 분석된다. 지명첩 미사 ‘메기’는 그 어원형이 ‘목[項]’으로 ‘목/목이/메기/매기/모기’ 등의 이형태로 나타나는데, 그 지명이 지칭하는 뜻은 ‘마을, 고개, 골, 산’ 등으로 확대되어 쓰인다. ‘메기’가 ‘고개’로 쓰여 그 한자 지명이 ‘덕갈현(德葛峴)’이 되었다. ‘덕갈(德葛)’은 음차 표기이다.

● 떡갈목

[형태] 나무

[위치] 수청골에서 내평리로 가는 길목의 아래에 있다. 지금은 새로 길이 나서 그곳으로 가지는 않는다.

[유래] 『북산면사람들』에 “300여 년 된 떡갈나무가 있다. 오항리를 들어오는 다섯 목 중의 하나이다. 또 떡갈목은 큰 떡갈나무가 있어서 떡갈목이라고 한다. 떡갈목은 달리 두목이라고도 부른다. 이곳의 떡갈나무는 약 300년 이상이 되었는데, 6.25 한국전쟁 때 총에 맞아 불에 타서 나무속이 비어있다. 옛날에 이 나무에서 서낭제를 지냈다.”라 하였다.

[어원풀이] ‘떡갈목’은 ‘떡갈나무’이다.

● 마른개울

[형태] 하천

[위치] 북산면행정복지센터에서 남쪽으로 가는 북 산로와 내평길이 만나는 지점 근처에 ‘수청교’가 있으며, 그곳에서 동쪽으로 막 꺾어지는 곳에 있다.

[유래] 『북산면사람들』에 예전에 흐르던 개울에 물이 밀려 없어서 마른개울이라 했다고 하였다.

[어원풀이] ‘마르-[乾]+{-ㄴ(관형사형어미)}+개울 [川]’로 분석된다.

[형태] 들

[위치] 오항리행정복지센터, ‘별말’ 북동쪽 ‘배나무 골’ 위에 ‘못장배기’가 있다.

[유래] 『북산면사람들』에 작은 연못이 있어서 그렇게 불렀다고 하였다.

[어원풀이] ‘못/연못[淵]+장(場)+배기’로 분석된다. ‘배기’는 ‘점박이, 불박이, 차돌박이’에 접미된 ‘무 엇이 박혀 있는 것을 나타내는 뜻’을 가진 ‘-박이’의 방언형(-배기)이 지명으로 접미사화한 것이다.

● 망두자리

[형태] 마을

[위치] ‘수청골’ 남쪽 ‘벼들골’ 근처에 있다.

[유래] 『북산면사람들』에 “일제강점기 때, 일본 순 사가 술을 못 먹게 했었는데 이곳에서 망을 보면 올라오는 모습이 다 보였다. 그래서 망두자리에서 망을 보고 그 위에서 몰래 술을 마셨는데, 그때부터 망보는 자리를 망두자리라고 불렀다.”라 하였다.

[어원풀이] ‘망(望)+두(頭)+자리[垈]’로 분석된다.

● 무라니고개

[별칭] 무라리고개, 물안리고개, 부귀고개

[형태] 고개

[위치] 부귀리의 무라니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유래] ‘무라니고개’는 요즘은 ‘물안리고개’ 또는 ‘부귀고개’로 불린다. 또한 ‘무라니(마을)’은 ‘물안 리마을’로 불린다. 부귀리에서는 ‘부귀고개’로 오 항리에서는 ‘물안골고개’로 부른다.

[어원풀이] ‘무라니/무라리’는 ‘물안리’의 변이형이며, ‘물[水]+안[内]+리[里]’로 분석된다.

● 망태산

[별칭] 망태봉

[형태] 산

[위치] 소재지는 내평리이다.

[유래] 북산면 내평리에 소재하는 ‘망태바우’가 망 태를 닮아 그리 부르고, ‘망태바우’가 있는 산도 그 에 따라서 ‘망태산/망태봉’이라 부르게 되었다. 고 도는 550m이다.

[어원풀이] ‘망태(망태기)+산(山)’으로 분석된다. ‘망 태’는 ‘망태기(網胎기)’의 준말이다.

● 문바우골

[별칭] 병풍바위골

[형태] 골짜기

[위치] ‘부귀고개(물안골고개)’와 ‘고사리덕’ 사이에 있는 ‘부귀고개(물안골고개)’ 북쪽 골짜기를 ‘문바우 골’ 또는 ‘병풍바우골’이라 부른다.

[유래] 『북산면사람들』에 “병풍바위골이라고도 불 렀다. 바위가 마치 병풍처럼 생겼다고 해서 그렇게 불렀다.”라 하였다.

[어원풀이] ‘문(門)+바우[岩]+골[谷]’로 분석된다.

● 못장배기

[별칭] 못장등

● 문지방바위

[형태] 바위

[위치] ‘수청교’ 동쪽 ‘마른개울’ 위에 ‘웃방골’이 있고, 그 주변에 ‘문지방바위’가 있다.

[유래] 『북산면사람들』에 웃방골에 있는 바위인데, 바위의 모양이 문지방처럼 생겼다고 하였다.

[어원풀이] ‘문지방(門地榜)+바위[岩]’로 분석된다. ‘문지방(門地榜)’은 출입문 밑의, 두 문설주 사이에 마루보다 조금 높게 가로로 댄 나무이다.

● 박달고치

[형태] 산

[위치] 미상이다.

[유래] 『북산면사람들』에 박달나무가 많아서 생긴 이름이라 하였다.

[어원풀이] ‘박달나무+고(高)+치[峙]’로 분석된다. ‘고치(高峙)’는 ‘높은 고개’로 ‘높은 능선’이며, 넓은 의미로 ‘산(山)’에 해당한다.

● 배나무골

[형태] 마을

[위치] ‘벌말’ 바로 위로 난 골짜기이다. 더 북진하면 ‘곰의굴’과 ‘세재봉’으로 갈라진다.

[어원풀이] ‘배나무[梨]+골[谷]’로 분석된다.

● 벼들골

[형태] 골짜기

[위치] 북산면행정복지센터에서 남쪽 내평리 방향 1km쯤 거리에 있다. 오항리와 내평리 중간쯤인데 소재지는 내평리이다.

[유래] 기존문헌에 벼드나무가 많은 골짜기라 하였다.

[어원풀이] ‘벼들[柳]+골[谷]’로 분석된다.

● 베실아우

[별칭] 베실바우

[형태] 바위

[위치] 미상이다.

[어원풀이] ‘벼실/벼섯[菌]+아우/바우[岩]’로 분석된다. ‘벼실’은 ‘벼섯(菌)’의 방언이다. ‘벼실아우’의 별칭 ‘벼실바우’에서 보듯, ‘바위’의 방언형 ‘바우’에서 어두(語頭) ‘ㅂ’이 탈락하여 ‘아우’가 되었는데, 산간지방의 지명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변이형이다.

● 베실아우여울

[별칭] 베실바우여울

[형태] 여울

[위치] 『한국지명총람』에 베실아우라는 바위 밑에 있는 여울이라 하였다.

[어원풀이] ‘벼실아우+여울’로 분석된다. ‘벼실아우’ 참조.

● 벌말

[별칭] 하촌(下村)

[형태] 마을

[위치] ‘오항리배터’에서 북쪽으로 가면 북산면행정복지센터가 나온다. ‘벌말’은 그곳에서 이어져 북동쪽에 펼쳐진 마을이다.

[유래] 『북산면사람들』에 벌이 넓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하였다.

[어원풀이] ‘벌(벌판, 野, 坪)+말[村]’로 분석된다.

● 벌말안산

[별칭] 안산(案山)

[형태] 산

[위치] ‘벌말’ 남쪽, 북산면행정복지센터 아래에 있

으며, 동쪽에 ‘천리대’가, 서쪽에 ‘수청골’이 있다. ‘별말’과 이어진 ‘다라매기(오항리 본마을)’의 안산(秦山)이다.

[어원풀이] ‘별말+안산(秦山)’으로 분석된다. ‘별말’과 ‘안산’ 두 지명을 결합한 지명이다. 안산(秦山)은 풍수지리에서, 집터나 빛자리의 맞은편에 있는 산이다.

● 벼락바우

[형태] 바위

[위치] 미상이다.

[유래] 기존문헌에 큰 소나무가 벼락을 맞으면서 밑에 있던 바위를 때려서 벼락바위라고 불렀는데 현재는 길이 새로 나는 바람에 없어졌다고 하였다.

[어원풀이] ‘벼락[雷]+바우[岩]’로 분석된다.

● 병풍바우골

[별칭] 문바우골

[형태] 골짜기

[위치] ‘부귀고개(물안골고개)’와 ‘고사리덕’ 사이에 있는 ‘부귀고개(물안골고개)’ 북쪽 골짜기를 ‘문바우골’ 또는 ‘병풍바우골’이라 부른다.

[어원풀이] ‘병풍(屏風)+바우[岩]+골[谷]’로 분석된다.

● 보래골

[형태] 골짜기

[위치] ‘천리터’ 동쪽 첫 번째 골짜기이다. 그 맞은 편은 ‘우물골’이다.

[어원풀이] ‘보래(‘쐐기’의 강원 방언)+골[谷]’로 분석 할 수 있다

● 봉의산(鳳儀山)

[별칭] 봉화산(烽火山)

[형태] 산

[위치] 오항리 남서쪽 끝, 부귀리 가까이에 있으며, 그 북쪽 가까이에 ‘당골고개’를 너머 ‘화채봉’으로 이어진다. 오항리에서 부귀고개 남쪽 능선은 ‘삿갓봉-고양이봉-화채봉-봉의산’으로 이어진다. 참고로 부귀리와 청평리 경계에 ‘봉화산(烽火山, 733.5m)’이 있다. ‘봉의산’은 부귀리 남동쪽과 오항리 남서쪽 인근에 있다.

[유래] 『북산면사람들』에 “화채봉 옆에 있다. 춘천봉의산과 봉화로 연락했다고 똑같이 봉의산이라 불렀다.”고 하였다.

[어원풀이] ‘봉의(鳳儀)+산(山)’으로 분석할 수 있다.

● 북산보건지소

[별칭] 춘천시 북산면 보건지소

[형태] 건물

[위치] ‘북산면행정복지센터’와 나란히 있다. 북산면 북산로 493번지이다.

[유래] 1986년 06월 02일에 개원하였다.

● 사실재

[형태] 산

[위치] 오항리 북단, ‘오항리청소년야영장’ 북쪽에 있다. ‘금골’이 바로 아래(남쪽)에 있고, ‘일옹골’이 옆(동쪽)에 있다.

[어원풀이] ‘사실+재[峙]’로 분석할 수 있다. ‘사실’의 의미는 불분명하다.

● 삿갓봉

[형태] 산

[위치] 북산면행정복지센터와 ‘부귀고개(물안골고개)’ 남쪽에 있다. 오항리에서 부귀고개 남쪽 능선은 ‘삿갓봉-고양이봉-화채봉-봉의산’으로 이어진다.

[어원풀이] ‘삿갓+봉(峰)’으로 분석된다. 봉우리의 모양이 삿갓처럼 생겨서 만들어진 이름이다.

● 새무골

[별칭] 샘골, 샘꼴

[형태] 골짜기

[위치] 오항리 동쪽 끝, 오항리에서는 가장 높은 산인 깃대봉 못 미친 곳에 있다.

[유래] 기존문헌에 좋은 우물이 있는 마을이라 하였다. 늘 물이 마르지 않아 예전엔 다행이 논이 있었다고 한다.

[어원풀이] ‘새무/샘[泉]+골[谷, 村]’로 분석된다. ‘새무’는 ‘샘물’에서 ‘근 탈락’이 되었다.

부르기도 하였다고 전한다.

[어원풀이] ‘석(石)+동(洞)+골[谷]’로 분석된다.

● 세재봉

[별칭] 송이봉

[형태] 산

[위치] 오항리행정복지센터에서 오항리 북단 못 미친 곳에 있다. 바로 남쪽엔 ‘못장등(못장매기)’가 있다.

[유래] 추곡리와 접하며, 세 개의 재(능선)가 모여 이루어진 산이다. 송이가 많은 곳이라 ‘송이봉’이라고도 한다.

[어원풀이] ‘세[三]+재[峙]+봉(峰)’으로 분석할 수 있다.

● 서낭고개

[형태] 고개

[위치] 북산면행정복지센터에서 ‘부귀고개’로 꺾어지는 첫 고개이다.

[유래] 서낭당이 있었던 고개를 서낭고개라 불렀다. 이곳에 ‘서낭목’이 있었는데, 이 나무를 자른 사람�이 시들시들 앓다가 죽었다고 한다.

[어원풀이] ‘서낭(서낭堂)+고개[峴]’로 분석된다. ‘서낭’은 토지와 마을을 지켜 준다는 신이거나, 서낭신이 불어 있다는 나무를 가리킨다.

● 소떨어진골

[형태] 골짜기

[위치] 소양호 오항리뱃터 맞은편 작은 골짜기이다.

[유래] 예전에 소가 떨어져 죽었다고 한다.

[어원풀이] ‘소[牛]+{떨어지-[落]}+{-ㄴ(관형사형어 미)}+골[谷]’로 분석된다.

● 석동골

[별칭] 신동골, 혼동골

[형태] 마을

[위치] 오항리 북단에 있으며 추곡리에 가깝다. 오항2리마을회관에서 가까우며, 그 아래는 ‘피장아치골’이다.

[유래] 이곳에서 마을 사람들이 일하다가 쉰 막걸리를 마셔서 우스개 소리로 ‘신동골, 혼동골’이라

● 쇠자산

[형태] 산

[위치] 기존문헌에 벌말 부근에 있는 산이라 하였다. ‘벌말’은 북산면행정복지센터가 있는 오항리의 본마을 이름인 ‘다라매기’가 있는 초입이다. ‘쇠자산’은 ‘다라매기’ 동쪽에 있다..

[유래] ‘다라매기(오항리)’ 동쪽에서 아침 해를 맞이하는 산이다.

[어원풀이] ‘쇠자[새다]+산(山)’으로 분석할 수 있다. ‘쇠자/새자/새다’는 ‘날이 새다’는 의미를 가진다.

● 수리봉

[별칭] 독수리봉, 독수리봉

[형태] 산

[위치] 오항리 북서쪽 부귀리에 가까우며, 오항2리 마을회관 북서쪽 ‘웃장재골’ 서쪽에 있다. ‘수리봉’ 북쪽으로 ‘능봉, 늘목고개’ 능선으로 이어진다.
[어원풀이] ‘수리(禿水리, 禿鷺)+봉(峰)’으로 분석된다. ‘독수리’는 수리 가운데서 뒷목 머리 부분이 털이 없이 벗겨져 있으므로, ‘불모(不毛)’를 뜻하는 ‘독(禿)’을 접두(接頭)하여 ‘독수리’라 한 것이다.

● 수채골

[형태] 골짜기

[위치] ‘수청골’ 중간쯤에서 남쪽으로 ‘화채봉’과 ‘떡갈매기(떡갈목)’로 난 골짜기이다. ‘수청골’은 ‘벌말’에 있는 북산면행정복지센터 남쪽에 있으며, ‘수청교(水清橋)’로부터 내평리로 가는 길가를 따라 이어지다가 ‘깜부데이’ 정도에서 좁은 계곡이 된다. 도중에 ‘수채골’로 갈라진다.

[어원풀이] ‘수(水)+채(彩)+골(谷)’로 분석할 수 있다.

● 수청골

[별칭] 수청동(水清洞)

[형태] 마을

[위치] ‘벌말’에 있는 북산면행정복지센터 남쪽에 있으며, ‘수청교(水清橋)’로부터 내평리로 가는 길가를 따라 이어지다가 ‘깜부데이’ 정도에서 좁은 계곡이 된다. 도중에 ‘수채골’로 갈라진다. 도로지명 ‘대평길’이 지나는 행정지번 122번지 일대 마을이다.

[유래] 『북산면사람들』에 “천리터 남서쪽 골짜기에 있는 마을이다. 물이 맑다고 해서 수청골[水清洞]이라 부른다. 오항교를 건너서 작은수청골과 큰수

청골로 나뉜다.”고 하였다.

[어원풀이] ‘수청(水清)+골[谷, 洞]’로 분석된다.

● 수청골고개

[형태] 고개

[위치] 수청골에 있는 고개이다.

[어원풀이] ‘수청골+고개’로 분석된다. ‘수청골’ 참조.

● 수청교(水清橋)

[형태] 다리

[위치] 북산면행정복지센터 남쪽, 오항리를 지나는 북산로와 내평길이 만나는 지점 부근에 있는 ‘오항천(吾項川)’ 위에 놓인 다리로서, ‘내평리’로 이어진다.

● 숯가마골

[형태] 마을

[위치] 오항리 북단, ‘늘목고개’와 ‘사실재’ 사이에 있다.

[유래] 숯가마가 있었다고 한다.

[어원풀이] ‘숯[炭]+가마[釜]+골[谷]’로 분석된다.

● 신배나무골

[형태] 골짜기

[위치] 오항리 북단, 추곡리와 경계한 ‘종로산(종느산)’ 바로 서쪽에 있다. 그 다음은 ‘일옹골’이다.

[유래] 신배나무(돌배나무)가 많이 있었다고 한다.

[어원풀이] ‘신배나무+골[谷]’로 분석된다. ‘신배나무’는 ‘돌배나무’이다.

● 안말

[별칭] 내촌(內村)

[형태] 마을

[위치] ‘다라매기’에 있는 북산면행정복지센터에서, 그 원쪽(서쪽) ‘부귀고개’ 쪽 골짜기로 조금 들어가면 ‘내촌(內村)/안밀’이 나온다. ‘안밀’에서 북진하면 ‘오항2리마을회관’이 있다. ‘장재골’로 이어진다. 오항리 본마을 ‘다라매기’ 안쪽 마을이다.

[유래] 기존문헌에 다래매기 안쪽에 있는 마을이라 하였다.

[어원풀이] ‘안[內]+밀[村]’로 분석된다. ‘내촌(內村)’은 한자지명이다.

● 암두자리

[형태] 들

[위치] 오항리 남단, 내평리 가는 길(내평길) 동쪽으로 조금 들어간 골짜기에 있다.

[유래] 구명난 바위가 있는 곳이다.

[어원풀이] ‘암두(巖竇)+자리[席,坪]’로 분석할 수 있다. ‘암두’는 구명난 바위이다.

● 오빛뜰마을

[별칭] 무지개마을

[형태] 마을

[위치] 오항리배터 부근에 있다.

[유래] 오항리를 달리 오빛뜰마을이라고도 한다. 오빛뜰은 오항리에서 유래한 것인데, 다섯 빛이 드는 마을, 또는 무지개빛 마을이라는 뜻이다.

[어원풀이] ‘오(五)+빛[光]+뜰[뜨락]+마을[村]’로 분석된다.

● 오항리배터

[별칭] 오항리선착장

[형태] 나루

[위치] 북산면 오항리 97번지 일대로 오항리배터에서 북서쪽 2km 남짓한 거리에 있는 오항리 중

십 마을에 북산면행정복지센터와 오항1리마을회관이 있다.

[유래] 소양호에서 오항리로 들어가는 배터이다.

● 오항리산촌생태마을

[별칭] 산촌생태마을, 생태마을

[형태] 마을

[위치] 북산면 오항리 일대

[유래] 오항리에 산촌 문화와 자연자원을 활용, 도시 청소년들을 위한 인성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방문객 체류시설과 캠핑장, 생태공원, 조각거리 등을 조성했다.

● 오항리청소년야영장

[별칭] 춘천시청소년여행의집

[형태] 레저

[위치] ‘장재골’ 북쪽 가까이에 있다.

[유래] 폐교된 ‘오항분교’를 ‘농어촌인성학교’로 개조하여 다양한 체험학습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오항리청소년야영장’과 ‘춘천시청소년여행의집’이 들어섰다.

● 오항천(梧項川)

[형태] 하천

[위치] 오항리의 북쪽 길인 북산로와 서쪽 길인 부귀로를 따라 흘러내려와, 오항리 본마을(북산면행정복지센터)에서 합류하여 남쪽으로 흘러 소양호로 들어가는 소하천이다. ‘웃장재골’에서 ‘오항리배터’로 이어진다.

● 우물골

[형태] 골짜기

[위치] ‘오항리배터’에서 북서쪽 ‘수청교’ 못 가, 동

쪽에 ‘천리터(천리대)’가 있으며, 그 바로 위에 ‘우물골’이 있다. 주변에 비교적 작은 골짜기들이 많이 있다. ‘천리터(천리대)’와 연관되는 골짜기이다.

[어원풀이] ‘우물[井, 泉]+골[谷]’로 분석된다.

● 웃말

[별칭] 장재골, 장재동(長財洞), 상촌(上村), 웃마을
[형태] 마을
[위치] ‘장재골’ 곧 오항2리이다. 오항2리마을회관이 있다. 오항리 북쪽을 ‘위’로, 남쪽을 ‘아래’라 할 경우, 오항2리는 추곡리 쪽인 ‘위에 있는 마을(웃말)’이 된다.
[유래] ‘다래마을(오항리 본마을)’에서 위치에 따라 ‘안말’, ‘웃말(장재골, 오항2리)’로 부른다.
[어원풀이] ‘우[上]+ㅅ+말[村]’로 분석된다. ‘상촌(上村)’은 한자지명이다.

● 웃방골

[형태] 골짜기
[위치] ‘수청교’ 동쪽 ‘마른개울’ 위에 있다. ‘웃방골’ 인근에 ‘문지방바위’가 있다.
[유래] 『북산면사람들』에 골이 우뚝하고 좁게 파여서 아득하다고 해서 웃방골이라 불렀다고 하였다.
[어원풀이] ‘우[上]++방(房)+골[谷]’로 분석된다.

● 웃장재골

[별칭] 웃장재동(長財洞)
[형태] 마을
[위치] ‘장재골’은 오항2리마을회관 북쪽으로 난 골짜기이며, 계속 ‘뒷고개’를 넘으면 ‘웃장재골’이 있다.
[어원풀이] ‘우[上]+ㅅ+장재골’로 분석된다. ‘장재골’ 참조.

● 일공일일 일년길

[별칭] 1011 1년길
[형태] 길
[위치] 오항리와 추전리를 연결하는 임도 겸 오지마을 연결 도로이다.

[유래] ‘1011 1년길’은 오항리에서 추전리까지 이어지는 산책로이다. 오항리와 추전리를 연결하는 임도 겸 오지 마을 연결 도로였는데 2007년에 ‘1011 1년길’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보수했다. ‘1011’의 뜻은 10시부터 11시까지 한 시간 거리라는 것과 이 시간에 걸으면 건강에 좋다는 의미이다. ‘1년길’은 그 시간에 걸으면 삼림욕과 운동을 병행하게 되므로 수명이 1년 연장된다는 뜻이다. 거리는 편도 3.5km, 왕복 7km로 일반 성인의 걸음으로 만보정도 된다.

● 일어서기

[별칭] 일어서기산
[형태] 산
[위치] ‘천리터’ 북동쪽 ‘우물골’ 다음에 있는 작은 산이다. 근처에 ‘감마지골’이 있다.
[어원풀이] ‘일어서-[起立]+{-기}(명사형어미)+산(山)’으로 분석된다.

● 일옹골

[별칭] 이릉골
[형태] 골짜기
[위치] 오항리 북단 ‘신배나무골’과 ‘사실재’ 사이에 있다.
[유래] 이 골짜기로 소에게 먹이는 풀인 ‘소풀/쇠꼴’을 하려 다녔는데, 언젠가 소를 잃은 적이 있다고 한다.
[어원풀이] ‘일옹/잃은[失]+골[谷]’로 분석할 수 있다. ‘잃은골’의 변이형이다.

● 작은고개

[별칭] 백민터고개

[형태] 고개

[위치] 오항리 수청골에서 내평리로 넘어가는 고개로, 행정구역상 소재지는 내평리이다.

[유래] 추곡리, 오항리 등지에서 내평초등학교로 오가던 ‘작은고개’라 부르기도 하는 고개이다.

[어원풀이] ‘{작-[小]}+{-은(관형사형어미)}+고개[峴]’로 분석된다.

● 장재골

[별칭] 장재동(長財洞), 상촌(上村), 웃마을, 이동골, 오항2리

[형태] 마을

[위치] 오항2리마을회관 북쪽으로 난 골짜기이며, 이어 ‘뒷고개’를 넘으면 ‘웃장재골’이 있다. ‘오항리 배터’에서 북쪽으로 가면 북산면행정복지센터가 나온다. 그 바로 위쪽에 있는 마을이 ‘벌밀’인데 ‘하촌(下村)’이라고도 부른다. 그 반대 ‘위쪽 마을(上村)’이 곧 ‘장재골’이다. ‘장재골’에 오항2리마을회관이 있다.

[유래] 기존문헌에 다라메기 북서쪽에 있는 마을로 큰부자가 살았다고 하였다.

[어원풀이] ‘장(長)+재(財)+골[谷, 洞]’로 분석된다. 장재(長財)는 큰 부자를 뜻한다.

[유래담] 다라메기 북서쪽에 있는 마을이다. 큰 부자가 살았다 한다. 장재골에 사는 장자가 본인은 군것질을 많이 하므로 끼니때마다 밥을 조금씩 먹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찾아가면 밥을 조금씩 밖에 주지 않으므로 배가 고파서 일을 하면서 애를 먹었다. 이에 동네 노인들이 장자를 골려주려고, 장자를 데리고 고기잡이를 가자고 하여 배를 쫄쫄 굶겼다가 밥을 주니 엄청 많이 먹었다. 동네

노인들이 자네 배고픈 것을 알겠는가 하였다. 이에 장자가 뉘우쳤다.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장자가 사람들이 찾아가면 밥을 많이 주었다는 설화가 전한다.『북산면사람들』

● 쟁깃골

[별칭] 쟁기골

[형태] 골짜기

[위치] 『한국지명총람』에 오항리에 있는 골짜기라 하였다.

[유래] 『북산면사람들』에 “절골로 가는 고개이다. 예전에 배를 만드는 나무를 쟁기라고 불렀는데, 이 곳에서 나는 나무로 배를 만들었다. 쟁기가 나는 곳이라는 뜻의 쟁기골이라고 불렀다.”라 하였다.

[어원풀이] ‘쟁기+ㅅ+골[谷]’로 분석된다. ‘쟁기’는 논밭을 가는 농기구로서, 술, 성에, 한마루를 삼각으로 맞춘 것으로, 술 끝에 보습을 끼우고, 그 위에 한마루 몸에 의지하여 벗을 덧대고, 성에 앞 끝에 줄을 매어 소에 명예를 전다. 거리와 호리 두 가지가 있다.

● 절꼴고개

[별칭] 절꼴고개

[형태] 고개

[위치] 『한국지명총람』에 절꼴로 가는 고개라 하였다.

[어원풀이] ‘절[寺]+ㅅ+꼴[谷]+고개[峴]’로 분석된다.

● 종로봉

[별칭] 종노봉, 종느봉, 종늬봉, 종누봉

[형태] 산

[위치] 『한국지명총람』에 수리봉 건너편에 있는 산이라 하였다. 오항리 북단과 추곡리 남단이 접하는 곳에 위치하나, 그 소재지는 추곡리이다.

[어원풀이] ‘종로(?)+봉(峰)’으로 분석할 수 있다.
‘종로(終路)’는 북한어로는 ‘종점(終點)’을 뜻한다.
‘종로봉/종노봉’은 오항리 북쪽 끝에 있다.

● 집뒷골

[형태] 골짜기
[위치] ‘수청골’에서 ‘수채골’로 가기 전에 서쪽으로 난 골짜기이다.
[어원풀이] ‘집[家]+뒤[後]+ㅅ+골[谷]’로 분석된다.

● 천리대(泉李垈)

[별칭] 철리터, 철리대(泉李垈), 천전리(泉田里)
[형태] 마을
[위치] ‘오항리배터’ 가기 전, 동편에 있는 마을이다.
[유래] 『북산면사람들』에 “벌말 남동쪽에 있는 마을. 현재 집이 있는 터에서 맑은 물(샘)이 나서 천리터라 부른다. 또, 장마 때 집터마다 샘이 나온다고 해서 천리대이다.”라 하였다. 요즘은 ‘천전리(泉田里)’라 부른다.

[어원풀이] ‘천(泉)+리(里, 洞)+대(垈)’로 분석된다.
한자지명 ‘泉李垈’는 ‘좋은 샘[泉]과 고운 배꽃[李]’이 있는 멋지고 살기 좋은 터이고 마을이다. 유래에 따르면 ‘천리터’는 ‘샘터마을’인 천리(泉里)이고, ‘泉李’보다 ‘泉里’가 ‘[철리]’로 발음됨이 자연스럽다.

● 큰골

[형태] 골짜기
[위치] ‘다라매기(오항리)’ 안산(案山) 남쪽, 작은 산 ‘갈밭봉’ 아래에 있다. 그 다음엔 ‘떨어진골’이 있다.
[어원풀이] ‘크-[大]+[-ㄴ(관형사형어미)]+골[谷]’로 분석된다.

● 피란바우

[형태] 바위
[위치] 미상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밑에 굴이 있어 전란때 피난을 했다고 하였다.
[어원풀이] ‘피란(避亂)+바우[岩]’로 분석된다.

● 피장아치골

[별칭] 피짱아치골, 피짱아찌골
[형태] 마을
[위치] 오항리 북단, ‘석동골’ 바로 아래에 있다.
[유래] 예전에 가죽이 붙은 채로 있는 사냥감을 잡던 사냥꾼이 살았다고 한다.
[어원풀이] ‘피장(皮張)+아치/-아치)[-人]+골[谷]’로 분석할 수 있다. ‘피장(皮張)’은 조선 시대에, 가죽이 붙은 채로 있는 사냥감을 이르던 말이다. ‘-아치’는 ‘동냥아치, 장사아치(장사치), 벼슬아치’처럼 ‘그 일에 종사하는 사람’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이다.

● 화채봉

[형태] 산
[위치] ‘부귀고개(물안리고개)’ 남쪽, ‘가맛골’ 아래에 있다. ‘화채봉’ 동쪽엔 ‘수채골’이 있고, 남쪽엔 ‘떡갈메기(떡갈목)’가 있다. 오항리에서 부귀고개 남쪽 능선은 ‘삿갓봉-고양이봉-화채봉-봉의산’으로 이어진다.

[유래] 『북산면사람들』에 예전에 상여를 화채라고도 불렀는데 이 봉의 모양이 상여처럼 생겨서 화채봉이라 불렀다고 하였다.
[어원풀이] ‘화채[喪輿]+봉(峰)’으로 분석된다. ‘화채’는 ‘상여(喪輿)’의 비표준어이다.

● 횃골

[별칭] 회동(灰洞)

[형태] 골짜기

[위치] ‘오항리배터’ 우측 가까이에 있는 작은 마을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철리터 남동쪽에 있는 마을로 석회를 많이 만들었다고 하였다.

[어원풀이] ‘회(灰)+ㅅ+골[谷]’로 분석된다. ‘회(횟가루)’는 특히 묘(墓)를 쓸 때 많이 사용했다.

위치와 현황 | 조교리는 소양강댐이 있는 호수 주변의 산간마을이다. 북서쪽으로 소양호가 위치하고, 북동쪽으로 바위산 자락이 펼쳐져 있다. 자연마을로는 지장골, 무애리, 창말, 삽다리 등이 있다.

연혁 | 『춘주지』를 보면 북산외(北山外)에 조탄(照吞)이 기록되어 있다. 『여지도서』, 『호구총수』, 『춘천읍지』, 『춘천부지』, 『관동읍지』는 북산외면(北山外面) 조탄리(照吞里)로 표기하였다. 『조선지지자료』, 『강원도지지조서』는 북산외면(北山外面) 조탄리(朝吞里), 삽교리(挿橋里)로, 『강원도지』, 『수춘지』는 북산면(北山面) 조교리(照橋里), 『춘주지』, 『춘천백년사』는 북산면 조교1리, 조교2리로 표기하였다. 현재 행정리는 조교리고 법정리는 조교1리, 조교2리다.

유래 | 본래 춘천군 북산외면 지역이었는데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조탄리(照吞里)와 삽교리(挿橋里)를 병합하여 조교리(照橋里)라 하였다.

● 가는골

[형태] 골짜기

[위치] ‘조교리벳터’에서 ‘삼거리’를 지나 동쪽으로 가면 ‘중발골’에 이른다. 그 북쪽 골짜기가 ‘가는골’이다.

[어원풀이] ‘{가늘-[細]}+{-ㄴ(관형사형어미)}+골[谷]’로 분석된다.

● 가매소

[별칭] 가마소

[형태] 소(沼)

[위치] 기준문현에 조교리 앞에 있는 큰 소(沼)라 하였는데 현재는 소양호에 수몰된 것으로 추정된다.

[어원풀이] ‘가매/가마[鼎]+소(沼)’로 분석된다.

● 가사골

[별칭] 가새골

[형태] 마을

[위치] 조교리에서 소양호의 모습은 조교로 쪽으로 들어오자마자 초승달 모양으로 소양호의 협곡이 남북으로 갈라진다. 남북으로 갈라지는 조금 남쪽

소양호가에 ‘가사골’이 있다. ‘가사골’ 북쪽으로 ‘느릅나무골’이 있고 ‘가사골’ 남쪽에 ‘장막골’이 있다.

[어원풀이] ‘가사/가새/갓[邊]+에(저격조사)+골[谷]’로 분석할 수 있다. ‘길가나 물가에 있는 마을’이란 뜻인 ‘갓골’이 변해 생긴 이름이다.

● 갈매기골

[형태] 골짜기

[위치] ‘(조교리)삼거리’ 조금 북쪽에서 동쪽으로 난 골짜기이다. 그 바로 북쪽엔 ‘텃골’이 있다.

[어원풀이] ‘갈매기+골[谷]’로 분석된다. ‘갈매기’의 의미는 불분명하다.

● 개고개

[형태] 고개

[위치] 기준문현에 대동리(大同里)로 가는 고개라 하였다. ‘개고개’는 조교리 이외에 대곡리, 대동리에도 있다

[어원풀이] ‘개/개울[溪]+고개[峴]’로 분석된다. 하천 부근에 있는 고개란 의미로 추정된다. 전국적으로 ‘개고개’의 유래는 대부분 ‘개가 주인을 구했다’는 배경을 가지고 있다.

● 건년골

[형태] 골짜기

[위치] 조교리 ‘삼거리’에서 원동조교로로 가다가, ‘번개골’ 지나고, ‘무애골’과 ‘작은무애골’ 사이에 있다. ‘무애골’에서 ‘건년골’을 넘어가면 ‘작은무애골’에 이른다.

[어원풀이] ‘건너-[과]+{-ㄹ(관형사형어미)}+골[谷]’로 분석된다. 건너편에 있는 골짜기란 의미이다.

● 고개골 1

[형태] 골짜기

[위치] ‘(조교리)삼거리’에서 남동진하여 ‘중발골’ 입구를 지나 ‘번개골’ 못 미친 곳에 있다. 계속 ‘고개골’을 넘어가면 ‘조교보건진료소’가 있는 ‘아래텃골’에 이른다. 조교리의 ‘고개골’은 대부분 이곳 ‘고개골 1’을 지정하고 있다.

[유래] 조교리엔 ‘고개골’로만 부르는 곳이 세 곳이 있다. 세 곳 모두 예전에 홍천으로 넘어가는 길목에 있다. 지금은 예전 ‘狎다리고개’를 포장 개설한 도로지명 ‘원동조교길’을 이용한다. 조교리에 있던 모든 고갯길들은 포장 개설된 뒤, 모두 ‘원동조교길’이 되었다.

[어원풀이] ‘고개[峴]+골[谷]’로 분석된다. 고개가

있는 골짜기란 의미이다.

● 고개골 2

[형태] 골짜기

[위치] '(조교리)삼거리'에서 남동진하여 '영매골(영무애골)'을 지나 홍천군 경계에 이르는 곳에 있다.

[유래] '고개골 1' 참조.

● 고개골 3

[형태] 골짜기

[위치] '(조교리)삼거리'에서 남동진하여 '중발골' 입구를 지나 '번개골'에서 '무애골'로 꺾어져 '건년골'과 '도적골'을 지나 '석장골' 사이에 있다. 못 미친 곳에 있다. 계속 '고개골3'을 넘어가면 '고개골2'와 가까운 곳에서 서로 '홍천군으로 넘어간다.

[유래] '고개골 1' 참조.

● 고골

[형태] 골짜기

[위치] 소양호 '조교리뱃터' 들어오기 전, 바로 북쪽에 있다.

[어원풀이] '고/가[邊]+골[谷]'으로 분석된다. '고'는 '가[邊]'의 옛말로, 경계에 가까운 바깥쪽 부분이나 어떤 중심 되는 곳에서 가까운 부분을 가리킨다.

● 곤대문골

[형태] 골짜기

[위치] '조교리뱃터'에서 '삼거리'를 지나 계속 가면 '번개골'에 이르고, 좀 더 가면 남동쪽 '영매골'과 동쪽 '무애골'로 갈라진다. '무애골' 북쪽 골짜기가 '곤대문골'이다. 옆에 '집뒷골'이 있다.

[어원풀이] '곤대[고운 대, 竹]+문(門)+골[谷]'로 분석할 수 있다.

● 구아홉골

[형태] 골짜기

[위치] '조교리뱃터'에서 '삼거리'를 지나 '조교리마을회관' 쪽으로 들어가 '밤까시' 남쪽으로 난 골짜기 끝에 있다. 바로 우(남쪽)에 '등잔봉'이 있다.

[어원풀이] '구아홉+골[谷]'로 분석된다. '구아홉'의 의미는 불분명하다.

● 나든골

[형태] 골짜기

[위치] '(조교리)삼거리'와 '물로리고개' 중간쯤에서 동쪽으로 난 작은 골짜기이다.

[어원풀이] '{나들-[出入]}+{-ㄴ(관형사형어미)}+골[谷]'로 분석된다.

● 논골

[형태] 골짜기

[위치] 조교리마을회관에서 '조교천'을 남동진하다가 골이 깊은 '지장골'로 들어가 맨 위쪽에 있다.

[유래] 다랭이논이 있던 골짜기이다.

[어원풀이] '논[畠]+골[谷]'로 분석된다.

● 누리삼마을

[별칭] 조교2리, 조교2리누리삼마을, 조교리누리삼마을, 조교2리농촌체험관

[형태] 마을

[위치] 조교리뱃터에서 남동쪽으로 500m쯤 떨어져 있다. 조교리 342-1번지이다.

[유래] 『북산면사람들』에 "조교 2리의 별칭으로 지은 이름이다. 누리삼 마을이라는 뜻은 삼의 품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누리고 산다는 의미를 담은 것이다."라 하였다. '누리삼마을'은 '육지 속의 섬'으로 불리는 오지마을이다. '누리삼마을'

이, 향토 식단, 보양 식단으로 치유 식단을 마련하며, 약초꽃차와 더불어 자연 명상과 숲, 계곡 트레킹을 통한 운동요법으로 고객과 공감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숙박과 농·어·산촌의 체험을 하는 곳으로 탈바꿈하여 ‘조교2리농촌체험관’이 있는 곳이 되었다. 대표 체험은 특산물인 산양삼을 직접 캐보는 심마니 체험이다.

[어원풀이] ‘누리[世上]+삼(蔴)+마을[村]’로 분석된다.



누리삼마을

● 느릅나무골

[형태] 골짜기

[위치] 조교리에서 소양호의 모습은 조교로 쪽으로 들어오자마자 초승달 모양으로 소양호의 협곡이 남북으로 갈라진다. 남북으로 갈라지는 조금 남쪽 소양호가에 ‘가사골’이 있다. ‘가사골’ 북쪽으로 ‘느릅나무골’이 있고 ‘가사골’ 남쪽에 ‘장맛골’이 있다.
[어원풀이] ‘느릅나무[榆]+골[谷]’로 분석된다. ‘느릅나무’는 느릅나뭇과의 낙엽 활엽 교목으로, 높이는 15미터 정도이며, 잎은 어긋나고, 긴 타원형으로 톱니가 있다.

● 대룡골

[형태] 골짜기

[위치] 소양호에서 ‘조교리벳터’로 들어오는 동쪽

으로 난 골짜기로 ‘가사골’ 아래(남쪽)에 있다. ‘대룡골’ 아래에 있던 ‘조룡골’은 1973년 소양호에 수몰되었다.

[어원풀이] ‘대(大)+룡(龍)+골[谷]’로 분석된다.

● 도지밭골

[형태] 골짜기

[위치] ‘조교리벳터’에서 ‘삼거리’를 지나 ‘조교리마을회관’ 바로 옆 골짜기이다. 조교리 본마을인 ‘삼교리’ 맞은편이다.

[어원풀이] ‘도지(賭地)+밭(田)+골[谷]’로 분석된다.

● 동굴(洞窟)

[별칭] 광산(礦山)

[형태] 산

[위치] 조교보건진료소에서 북쪽으로 원동조교로를 따라가다가 ‘물로리골’ 동쪽 조교천(照橋川) 너머 맞은편 능선 아래 있다.

[유래] 『북산면사람들』에 “조교리에 동굴이 하나 있는데 자연적으로 생긴 동굴이 아니고 일제강점기 때 금을 캐기 위한 광산으로 파여졌다.”라 하였다.

● 등잔봉

[형태] 산

[위치] 조교리 최남단에 있는 산(860m쯤)이며, 홍천군 두촌면 원동리와 접한다.

[어원풀이] ‘등잔(燈盞)+봉(峰)’으로 분석된다.

● 막터골

[형태] 마을

[위치] 조교리 ‘삼거리’에서 남동쪽으로 가다가 ‘중밭골’ 가는 만큼 더 가면 ‘막터골’이 나온다. ‘막터골’은 ‘중밭골’과 ‘무애골’ 중간쯤에 있다. ‘막터골’

동쪽으로 ‘매봉(802m)’이 보인다.

[유래] 『북산면사람들』에 막 집이 많았던 골짜기라 하였다.

[어원풀이] ‘막/음막/음집+터[垈]+골[谷]’로 분석된다. ‘음막(음幕)’은 땅을 파고 위에 거적 따위를 얹고 흙을 덮어 추위나 비바람만 가릴 정도로 임시로 지은 집으로, ‘음집’보다 작다. ‘음집’은 움을 파고 지은 집으로, ‘음막’보다 조금 크다.

● 매봉

[형태] 산

[위치] ‘무애골’에서 40분 정도 오르면 ‘매봉(802m)’에 도착한다. 정상은 숲으로 가려져 있어 전망이 막혀 있다. 조교리와 인제군 남면 수산리와 접경을 이룬다.

[어원풀이] ‘매[鷹]+봉(峰)’으로 분석된다.

● 매봉고개

[별칭] 작은매봉, 수산재

[형태] 고개

[위치] ‘조교리뱃터’에서 동쪽으로 10km 정도거리에 있으며, ‘무애골’로 들어간다. ‘매봉고개(700m)’ 너머 ‘매봉(802m)’이 있다.

[어원풀이] ‘매봉+고개’로 분석된다. 매봉에 있는 고개란 의미이다.

● 매봉골

[형태] 골짜기

[위치] ‘무애골’에서 40분 정도 오르면 ‘매봉(802m)’에 도착한다. 정상은 숲으로 가려져 있어 전망이 막혀 있다. 조교리와 인제군 남면 수산리와 접경을 이룬다.

[어원풀이] ‘매(鷹)+봉(峰)+골[谷]’로 분석된다. 매

봉에 딸린 골짜기란 의미이다.

● 면하채골

[형태] 골짜기

[위치] ‘조교리뱃터’에서 ‘삼거리’를 지나 ‘조교리마을회관’ 쪽으로 들어가 ‘밤까시’ 남쪽으로 난 골짜기로 가다가 다시 동쪽으로 들어간 골짜기이다. ‘밤까시’에서 계속 남쪽으로 난 골짜기로 들어가면 ‘구아홉골’이다.

[어원풀이] ‘면(面)+하채/화채[喪輿]+골[谷]’로 분석할 수 있다. 정확한 유래는 불분명하다.

● 무애

[별칭] 무애리(無涯里), 무애골, 모애, 모애리(牟厓里)

[형태] 마을

[위치] 조교리에서 매봉을 등산하려면, 조교2교를 건너 조금만 지나면 갈림길이 나오는데 원쪽이 ‘중발골’ 가는 길이고 오른쪽 계곡은 ‘무애골’로 이어진다. 조교리에서 홍천 사이는, 가리산(1051m)에서 매봉(802m)으로 해발 700m 정도의 산맥이 가로막고 있는데 ‘매봉고개’ 또는 ‘작은매봉(700m)’이라 부른다. 이 ‘매봉(802m)’과 ‘작은매봉/매봉고개(700m)’ 사이에 ‘무애리(無涯里)’가 있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삼다리 동북쪽에 있는 마을이라 하였고, 『북산면사람들』에 사람들이 ‘모인다’는 뜻의 마을이라 하였다.

[어원풀이] ‘무애/무어/무오-(築造)+아/어(부사형어미)’로 분석된다. 현대국어 ‘모으다[築造]’의 옛말은 ‘무오다’이다. ‘무오다’에 부사형어미 ‘아/어’가 결합한 ‘무애/무어’는 현대국어 ‘모아’가 된다. 한자 표기 ‘무애(無涯)’와 별칭인 ‘모애(牟厓)’는 모두 음차자(音借字)이다.

● 물로리골

[별칭] 물로골

[형태] 골짜기

[위치] 물로리에서 ‘물로리고개’를 넘어, ‘조교보건 진료소’에서 소양호 방향으로 원동조교길을 따라 1km쯤에 가면, 길 서쪽 골짜기가 ‘물로리골’이다. 계속 가면 ‘조교리뱃터’에 이른다.

[어원풀이] ‘물로리(勿老里)+골[谷]’로 분석된다.

● 밀벼덩

[별칭] 밀평(蜜坪)

[형태] 마을

[위치] ‘조교리뱃터’ 조금 북쪽에 있으며, ‘밀벼덩’ 위에 ‘장막골’이 있다.

[유래] 『북산면사람들』에 예전에 밀을 많이 심었던 마을이라 하였다. ‘밀벼덩’과 ‘밀벼덩보’는 1973년 소양호에 수몰되었다.

[어원풀이] ‘밀[麥]+벼덩’으로 분석된다. ‘벼덩’은 높고 평평하며 나무는 없이 풀만 우거진 거친 들이다. ‘벼덩농사’는 벼덩을 일구어 짓는 농사이다.

● 바랑골

[형태] 골짜기

[위치] 조교리 남단에 있다. ‘물로리고개(삽다리고 개)’ 남쪽에 있으며, 조교마을회관 아래 조교장로 교회 뒤편 긴 골짜기 안으로 들어가는 골짜기는 ‘바랑골’이고, 그 옆에 있는 ‘바랑골고개’ 동쪽에 ‘어두원/어두워니’가 있다.

[어원풀이] ‘바랑(승려의 등봇짐)+골[谷]’로 분석된다. ‘바랑’은 ‘배낭’의 변한 말로서, 승려가 등에 지고 다니는 자루 모양의 큰 주머니를 가리킨다.

● 바랑골고개

[형태] 고개

[위치] 조교리 남단에 있다. ‘물로리고개(삽다리고 개)’ 남쪽에 있으며, 조교마을회관 아래 조교장로 교회 뒤편 긴 골짜기 안으로 들어가는 골짜기는 ‘바랑골’이고, 그 옆에 있는 ‘바랑골고개’ 동쪽에 ‘어두원/어두워니’가 있다.

[유래] 기존문헌에 바랑처럼 생긴 고개라 하였다.

[어원풀이] ‘바랑골+고개’로 분석된다. ‘바랑골’ 참조.

● 바위산

[형태] 산

[위치] 조교리뱃터에서 동쪽 2시 방향으로 8km 정도 거리에 있다. 대동리와 조교리와 접경을 이루는 고도 858m의 산이다.

[유래] 『북산면사람들』에 “조교리에 있는 암벽식 산으로 산에 바위가 많아서 포(砲)의 표적장 역할을 했다. 춘천의 대룡산에서 포를 바위산으로 쐬는데, 그 때문에 10년 전까지만 해도 포를 이곳에 쏴서 항상 불이 나있었다.”라 하였다.

[어원풀이] ‘바위[岩]+산(山)’으로 분석된다.

● 밤까시

[형태] 마을

[위치] 조교리 남단에 있으며, 조교리에서 홍천군 두촌면 원동리로 가려면 ‘삽다리’를 지나 ‘어두원/어두워니’를 지나고, ‘밤까시’를 지나 ‘홍천고개(원무조교로)’를 넘어간다. ‘밤까시’와 ‘밤까시골’은 1km쯤 떨어져 있다. ‘밤까시골’ 옆엔 ‘채종골’이 있고 모두 홍천 원무동 경계에 가깝다.

[유래] 기존문헌에 들어갈 때는 한 골짜기이나 들어가면 밤까시처럼 골짜기가 많다고 하였다.

[어원풀이] ‘밤까시’는 앞의 [유래]가 의심스럽다. ‘밤[栗]+갓>갓/까[枝]+실/시[村]’로 분석할 수 있다. ‘밤나무가 많은 마을’이다.

● 밤까시골

[형태] 골짜기

[위치] 조교리 남단에 있으며, 조교리에서 홍천군 두촌면 원동리로 가려면 ‘삽다리’를 지나 ‘어두원/어두워니’를 지나고, ‘밤까시’와 ‘밤까시골’을 지나 ‘홍천고개(원무조교로)’를 넘어간다.

[유래] ‘밤까시’ 참조.

● 벼들골

[형태] 골짜기

[위치] ‘조교리뱃터’에서 ‘삼거리’에서 동쪽 ‘중발 골’로, 골짜기 끝까지 들어가면 ‘매봉(802m)으로 난 골짜기가 ‘벼들골’이다. 그 앞(서쪽) 골짜기는 ‘주천지골’이다.

[어원풀이] ‘벼들[柳]+골[谷]’로 분석된다.

● 번개골

[형태] 골짜기

[위치] 조교리 ‘삼거리’에서 동쪽 원동조교로를 가다가 ‘무애골’로 꺾기 전, 그 맞은편에 난 작은 골짜기이다.

[유래] 『북산면사람들』에 “이 지역의 나무와 바위들이 번개를 많이 맞아서 번개골이라 부른다. 또한 이 골짜기는 번개가 많이 쳐서 번개석이 많다. 번개석은 번개를 많이 맞아 돌이 넓적해진 돌을 뜻한다. 아직도 이곳은 험하고 번개가 많이 쳐서 마을 사람들이 이곳을 지날 때면 조심한다.”라 하였다.

[어원풀이] ‘번개[雷]+골[谷]’로 분석된다. ‘번개’는 구름과 구름, 구름과 대지 사이에서 공중 전기의

방전이 일어나 번쩍이는 불꽃이다.

● 부채바우

[별칭] 부채바위

[형태] 바위

[위치] 소양호 조교리뱃터 들어오기 전, ‘가사골’과 ‘대룡골’ 아래에 1973년 소양호에 수몰된 ‘조룡골’에 있었다.

[유래] 기존문헌에 지금은 수몰된 지역에 있던 바위로 바위가 부채 모양으로 서있었다고 하였다.

[어원풀이] ‘부채[扇]+바우[岩]’로 분석된다.

● 삼거리

[형태] 마을

[위치] 기존문헌에 이상수 남동쪽에 있는 마을로 세 갈래 길이 있다고 하였다. 조교리 배터 바로 위 농촌체험마을’인 ‘누리삼마을’을 조금 올라가면 ‘무애골’ 가는 ‘삼거리’가 있다. 계곡으로 향한 가파른 길은 겨우 차 한 대가 지날 수 있고 소양호로 흘러드는 무애골 계곡은 수 km나 이어진다. ‘이상수(梨上守)’는 ‘삼거리’ 북동쪽에 있게 된다.

[어원풀이] ‘삼[三]+거리[街]’로 분석된다.

● 삼형제봉

[형태] 산

[위치] 조교리 동쪽 끝, 북쪽 바위산과 남쪽 매봉 사이에 있다.

[유래] 『북산면사람들』에 봉우리 3개가 똑같이 생겼다고 해서 삼형제봉이라고 부른다고 하였다.

[어원풀이] ‘삼(三)+형제(兄弟)+봉(峰)’으로 분석된다.

● 삽다리

[별칭] 삽교리(挿橋里)

[형태] 마을

[위치] 조교리에서 홍천군 두촌면 원동리를 넘어가는 고갯길 입구에 있는, 조교리의 중심이 되는 마을이다. ‘삽다리고개’의 연장선에 있다. 즉 삽다리 고갯길은 ‘물로리-조교리-홍천군 두촌면 원동리’까지 이어진다. 조교리에서 홍천군 두촌면 원동리로 가려면 ‘삽다리’를 지나고, ‘어두월/어두워니를 지나 ‘밤까시’를 지나 홍천고개를 넘어가기도 한다. [유래] 기준문헌에 조교리의 중심이 되는 마을이라 하였다.

[어원풀이] ‘삽/섶+다리/들[坪, 野]’로 분석된다. ‘삽다리’는 ‘다리’가 아니다. ‘섶+들’로 분석되며 잎나무, 풀거리 등을 총칭하는 ‘섶나무’가 ‘섶/섶>삽’의 과정을 거쳤고, ‘-다리’는 ‘들[坪, 野]’의 변이형이다. 별칭 ‘삽교(挿橋)’는 ‘삽다리’가 전의(轉意)된 한자 지명이다. 또 ‘삽다리’는 ‘샅>삽>사이[間]+다리/달/들[坪, 野]’로도 분석된다. ‘사이[間]’의 옛말 ‘샅’은 ‘고샅, 살바, 사태살, 사타구니, 살샅이’ 등에 남아 있으며, ‘들[坪, 野]’의 옛말 ‘다리/달/털’은 ‘방아다리, 달구질, 덜머리, 들판’ 등에 남아 있다.

● 삽다리고개

[형태] 고개

[위치] 삽다리에서 홍천으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어원풀이] ‘삽다리+고개’로 분석된다. ‘삽다리’ 참조.

● 상상골

[형태] 골짜기

[위치] 물로리로 넘어가는 ‘물로리고개’ 초입 바로 아래쪽(남쪽)에 있다. 그 아래쪽은 ‘바랑골’이다.

[어원풀이] ‘상(上)+상(上)+골[谷]’로 분석된다.

● 상천초등학교 조교분교(폐교)

[별칭] 조교분교

[형태] 학교

[위치] 홍천군 두촌면 원동2리를 지나 한적한 홍천고개를 구불구불 넘어야 한다. 도로지명 원동조교로를 타고 직진하면 ‘조교보건진료소’가 있는 곳이 조교1리, ‘누리삼마을’은 ‘조교리벳터’가 있는 조교2리. 물로리 가는 삼거리를 지나면 곧 ‘조교보건진료소’가 있다. ‘조교보건진료소’ 길 건너에는 폐교된 ‘조교분교’가 있다.

● 서낭골

[형태] 골짜기

[위치] ‘조교리벳터’에서 ‘삼거리’를 지나 계속 가면 ‘번개골’에 이르고, 좀 더 가면 남동쪽 ‘영매골’과 동쪽 ‘무애골’로 갈라진다. ‘무애골’로 들어가 북쪽으로 ‘마을아랫골’과 ‘서낭골’이 나온다. 그 맞은편엔 ‘건넌골’이 있다.

[어원풀이] ‘서(水)낭(壘)당(壘)[城隍堂]+골[谷]’로 분석된다.

● 석장골

[형태] 골짜기

[위치] 조교리 동쪽 멀리, 바위산과 삼형제봉 사이에 ‘석장골 1’이 있고, 매봉 남쪽에 ‘석장골 2’가 있다.

[유래] 『북산면사람들』에 “‘석장’을 했던 골짜기라는 뜻으로 무덤을 돌로 쌓았다. 그리고 옛날에 고려장 풍습이 있었던 골짜기라고 한다. 마을에 석장골이 총 3개가 있다.”라 하였다.

[어원풀이] ‘석(石)+장(葬)+골[谷]’로 분석된다.

● 선녀탕

[형태] 계곡

[위치] ‘누리삼마을’에서 동쪽으로 40여 분 계곡을

따라가면 5m 폭포 아래에 있다.

[유래] 암벽으로 둘러싸인 5미터 폭포 아래 넓고 푸른 웅덩이에, 달 밝은 밤이면 선녀가 내려와 목욕했다는 전설이 어려 있다.

[어원풀이] ‘선녀(仙女)+탕(湯)’으로 분석된다.

● 송골

[형태] 골짜기

[위치] ‘조교리뱃터’ 바로 앞, 북동쪽으로 난 작은 골짜기이다.

[어원풀이] ‘송/속[裏]+골[谷]’로 분석된다.

● 쇠덕골

[형태] 골짜기

[위치] ‘조교리뱃터’에서 ‘삼거리’를 지나 ‘조교리마을회관’ 쪽으로 들어가 ‘밤까시’를 지나 남쪽으로 난 골짜기이다. 그 다음 골짜기는 ‘채종골’이며, 더 동진하면 ‘삽다리고개(홍천고개)’를 넘어 홍천이다. 남쪽으로 난 골짜기 끝에 있다. 바로 우(남쪽)에 ‘등잔봉’이 있다.

[유래] 쇠를 녹이는 산로가 있던 덕에 위치해 있다.

[어원풀이] ‘쇠[鐵]+덕(둔덕)+골[谷]’로 분석할 수 있다.

● 서낭들

[별칭] 성황들, 성황평(城隍坪)

[형태] 마을

[위치] 1973년 소양호에 수몰되었다.

[어원풀이] ‘서낭/성황(城隍-堂)+들[坪]’로 분석된다.

● 수산재

[별칭] 매봉고개, 작은매봉

[형태] 고개

[위치] ‘수산재’는 조교리에서 대동리와 인제군 남면 수산리로 넘어가는 고갯길이다.

[유래] 인제군 남면 수산리 쪽에 가까워 ‘수산재’라는 이름을 얻었다.

[어원풀이] ‘수산(水山-里)+재[峙]’로 분석된다. ‘수산’은 인제군 남면 수산리이다.

● 수자골

[형태] 골짜기

[위치] ‘(조교리)삼거리’에서 남쪽으로 가다가 서쪽으로 난 골짜기이다. 그 맞은편엔 ‘나든골’이 있다.

[어원풀이] ‘수자(守者)+골[谷]’로 분석할 수 있다.

● 순애골

[형태] 골짜기

[위치] ‘(조교리)삼거리’에서 남동진하여 ‘무애(모애골)’ 입구를 지나 ‘영매골(영무애골)’로 들어가는 초입에 있다.

[어원풀이] ‘순애/수내(水內)+골[谷]’로 분석할 수 있다. 하천 안쪽에 있는 골짜기란 의미이다.

● 신배나무골

[형태] 골짜기

[위치] 조교리 ‘삼거리’에서 원동조교로로 가다가, ‘무애골’로 꺾어져 좀더 동진하면 ‘신배나무골’에 이른다. 더 동진하면 ‘석장골’이 나온다. ‘매봉’ 서쪽이다.

[어원풀이] ‘신배나무+골[谷]’로 분석된다. 특히 산촌 지명에서 ‘배나무골’이나 ‘신배나무골’은 대부분 ‘돌배나무’를 가리킨다.

● 아래뒷골

[형태] 골짜기

[위치] ‘조교보건진료소’ 바로 북쪽 가까이에 있다.
‘조교보건진료소’ 남쪽 가까이엔 ‘윗뒷골’이 있다.
[어원풀이] ‘아래[下]+뒤[後]+ㅅ+골[谷]’로 분석된다.

● 아래물골

[별칭] 아랫물골, 아래우물골
[형태] 골짜기
[위치] ‘조교리뱃터’에서 ‘삼거리’를 지나 ‘조교보건진료소’ 남쪽 가까이에 ‘윗뒷골’이 있고, 그 다음 골짜기가 ‘아래물골’이다. 그 다음은 ‘윗우물골’이다.
[어원풀이] ‘아래[下]+물/우물[井]+골[谷]’로 분석할 수 있다.

● 아래용수골

[형태] 골짜기
[위치] 소양호 ‘조교리뱃터’ 뒤(서쪽)로 난 골짜기이다.
[어원풀이] ‘아래[下]+용(龍)+수(水)+골[谷]’로 분석된다.

● 안아지골

[형태] 골짜기
[위치] 조교리 북단, 소양호에 닿는 ‘통골’ 다음으로 난 골짜기이다.
[어원풀이] ‘안[內]+아지/가지[枝]+골[谷]’로 분석할 수 있다.

● 어두령골

[형태] 골짜기
[위치] ‘조교리뱃터’에서 ‘삼거리’를 지나 동쪽 ‘중발골’로 들어가다가 ‘바위산을 북쪽으로 바라보는 골짜기’가 ‘어두령골’이다.
[유래] ‘어두령/어두린[暗]+골[谷]’로 분석된다. ‘어두린’은 ‘어두운’의 방언이다.

● 어두워니

[별칭] 어두원
[형태] 골짜기

[위치] 조교리 ‘삼거리’에서 홍천 방향 원동조교로 가다가, ‘물로리고개(삽다리고개)’와 ‘바랑골’을 지나면 ‘어두원/어두워니’가 나온다. 좀더 가면 ‘밤까시’에 이른다.

[유래] 기존문헌에 길고 어두운 골짜기라 하였다.
[어원풀이] ‘어두워/어두원/어둡-[暗]+{ -ㄴ (관형사 형어미)}+이(명사화생접미사)’로 분석된다.

● 연제기골

[형태] 골짜기
[위치] ‘중발골(중촌)’ 바로 동쪽에서 ‘뒷골재’ 쪽으로 난 골짜기이다. ‘연제기골’ 맞은편 가까이에 ‘막터골(마을)’이 있다.
[어원풀이] ‘연(鶯)+제기(제기하다)+골[谷]’로 분석할 수 있다.

● 염장골

[형태] 골짜기
[위치] ‘조교리뱃터’에서 ‘삼거리’를 지나 ‘조교리마을회관’ 쪽으로 들어가 ‘어두워니’ 남쪽으로 난 ‘큰골’ 골짜기 도중에 서쪽으로 난 골짜기이다.
[어원풀이] ‘염장(殮葬)+골[谷]’로 분석할 수 있다.

● 영무애

[별칭] 영뫼골, 작은무애, 영무애골, 영매골, 소무애(小無涯), 소무애리(小無涯里)

[형태] 마을
[위치] 조교리에서 홍천은 가리산에서 매봉으로 해발 700m 정도의 산맥이 가로막고 있는데 ‘매봉고개’ 또는 ‘작은매봉’이라 부른다. 이 ‘매봉’과 ‘작은

매봉/매봉고개’ 사이에 ‘무애리’가 있다. ‘영무애/작은무애’는 ‘무애리’ 남쪽 ‘건넌골’ 너머에 있다. [유래] 기존문헌에 무애의 작은 마을이라 하였다. [어원풀이] ‘영(零, 작은)+무애’로 분석된다. ‘무애’ 참조.

[형태] 골짜기

[위치] ‘조교리뱃터’에서 ‘삼거리’를 지나 ‘조교보건진료소’ 남쪽 가까이에 ‘윗뒷골’이 있고, 그 다음 골짜기가 ‘아래물골’이다. 그 다음은 ‘윗우물골’이다. [어원풀이] ‘위[上]+ㅅ+우물[井]+골[谷]’로 분석된다.

● 오봉산

[형태] 산

[위치] 가리산에서 매봉 사이 동서를 가로지르는 산맥엔 700m를 오르내리는 봉우리가 많고, 남북으로도 500~600m의 봉우리가 산재한다.

[유래] 기존문헌에 조교리에 있는 산으로 다섯 봉우리로 되어 있다고 하였다.

[어원풀이] ‘오(五)+봉(峰)+산(山)’으로 분석된다.

● 장막골

[별칭] 장맛골, 장마골

[형태] 골짜기

[위치] 조교리에서 소양호의 모습은 조교로 쪽으로 들어오자마자 초승달 모양으로 소양호의 협곡이 남북으로 갈라진다. 남북으로 갈라지는 조금 남쪽 소양호가에 ‘가사골’이 있다. ‘가사골’ 북쪽으로 ‘느릅나무골’이 있고 ‘가사골’ 남쪽에 ‘장막골’이 있다. [유래] 기존문헌에 옛날 장수가 장막을 쳤다는 골짜기라 하였다.

[어원풀이] ‘장[將帥]+막(幕)+골[谷]’로 분석된다.

● 웃버덩

[형태] 들

[위치] 미상이다.

[유래] 기존문헌에 위쪽에 있는 버덩이라 하였다.

[어원풀이] ‘우[上]+ㅅ+버덩’으로 분석된다. ‘버덩’은 높고 평평하며 나무는 없이 풀만 우거진 거친 들이다.

● 조교리뱃터

[별칭] 조교리배터

[형태] 나루

[위치] 조교리 산1-20번지로 조교리뱃터에서 남동쪽으로 5km 정도에 조교리마을회관이 있다.

[어원풀이] ‘조교리(照橋里)+배[舟]+ㅅ+터[垈]’로 분석된다.

● 윗뒷골

[별칭] 웃뒤골

[형태] 골짜기

[위치] ‘조교보건진료소’ 바로 북쪽 가까이에 있다. ‘조교보건진료소’ 남쪽 가까이엔 ‘윗뒷골’이 있다.

[어원풀이] ‘위[上]+ㅅ+뒤[後]+ㅅ+골[谷]’로 분석된다.

● 조교보건진료소

[별칭] 춘천시 북산면 조교보건진료소, 조교리보건소, 조교리보건지소, 조교보건지소

[형태] 건물

[위치] 조교리 299-1번지로 남동쪽 500m 쯤에 ‘조교리마을회관’이 있다. 이곳 도로지명이 ‘원동조교로’인 것은 이곳에서 계속 남동쪽으로 가면 홍

● 윗우물골

[별칭] 웃우물골, 웃우무골

천군 두촌면 원동리에 이르기 때문이다.

[유래] 1992년 개원하였다.

● 조롱골

[형태] 마을

[위치] ‘조교리벳터’ 들어오기 전, ‘가사골’과 ‘대룡골’ 다음에 있었다. 1973년 소양호에 수몰되었다.

[유래] 『북산면사람들』에 “옛날에 조롱골이라는 마을이 있었는데 현재는 수몰되었다. 마을이 조교리에서 가장 커서 마을 사람들이 춘천 시내라고 부르기도 했다.”라 하였다.

[어원풀이] ‘조롱+골[谷]’로 분석된다. ‘조롱(鳥籠)’은 새를 넣어 기르는 장이다.

● 중발

[별칭] 중촌, 중전리(仲田里)

[형태] 들

[위치] 조교리에서 매봉을 등산하려면, 조교2교를 건너 조금만 지나면 갈림길이 나오는데 왼쪽이 ‘중발골’ 가는 길이고 오른쪽 계곡은 ‘무애골’로 이어진다. ‘중발골’은 출입통제구간이다. ‘비밀의 금’이다. 노송과 어우러진 다양한 수종의 나무들이 우거진 원시림이다. 계곡을 따라 2km쯤 더 올라가면 작은 폭포 아래 깊은 소와 넓은 자갈밭이 무릉도원이다. 어느 골짜기로 들어서든 매봉 정상으로 연결되지만 ‘중발골’ 쪽 금길이 길고도 아름답다. 이 길은 북산면 대동리와 인제군 남면 수산리로 이어진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삼거리 동쪽 면 골짜기에 있는 마을로 매봉 밑이 된다고 하였다. 요즘은 ‘중촌’으로 부른다. 조교리의 자연마을은 ‘무애, 삼거리, 지장골, 중촌, 통골’이 있다.

[어원풀이] ‘중(中, 仲)+발[田]’으로 분석된다.

● 지장골

[형태] 골짜기

[위치] ‘조교리벳터’에서 ‘삼거리’를 지나 계속 가면 ‘번개골’에 이르고, 좀 더 가면 남동쪽 ‘영매골’과 동쪽 ‘무애골’로 갈라진다. ‘영매골’ 끝에서 남서쪽으로 난 작은 골짜기이다.

[어원풀이] ‘지당/제당(祭堂)+골[谷]’로 분석된다.

● 지장골

[별칭] 지장곡(地長谷)

[형태] 마을

[위치] ‘삽다리’ 동쪽으로 ‘ 지장골’을 지나, 온 만큼 더 산을 올라가면 ‘텃골재’에 올라서게 된다. 내려가면 홍천군 두촌면 원동리이다. ‘ 지장골’은 ‘삽다리’와 ‘텃골재’의 중간쯤에 있다.

[유래] 기존문헌에 삽다리 동쪽에 있는 마을이라 하였다.

[어원풀이] ‘ 지장(地長)+골[谷]’로 분석된다.

● 창말

[별칭] 창촌(倉村)

[형태] 마을

[위치] 기존문헌에 옛날에 춘천부의 북사창(北社倉)이 있던 마을이라 하였다.

[어원풀이] ‘창(倉, 北社倉)+말[村]’로 분석된다.

● 채종골

[형태] 골짜기

[위치] 조교리 남단에 있으며, 조교리에서 홍천군 두촌면 원동리로 가려면 ‘삽다리’를 지나 ‘어두원/어두워니’를 지나고, ‘밤까시’에서 1km쯤 지나면 ‘밤까시골’에 이른다. 더 나아가면 곧 ‘홍천고개(원무조교로)’를 넘어간다. 이 ‘밤까시골’ 옆에 ‘채종골’

이 있으며, 모두 홍천 원무동 경계에 가깝다.

[어원풀이] ‘채종(採種밭)+골[谷]’로 분석할 수 있다. ‘채종밭’은 질 좋은 씨앗을 골라서 빙기 위하여 특별히 마련하여 가꾸는 밭이다.

● 천적골

[형태] 골짜기

[위치] 조교리뱃터 들어오기 전, ‘장막골’ 맞은편에 있다.

[어원풀이] ‘천적(遷谪/遷謫)+골[谷]’로 분석할 수 있다. ‘천적(遷谪/遷謫)’은 죄를 지은 탓으로 관위(官位)를 내리고 외진 곳으로 쫓아 보내거나 쫓겨나 지내는 곳을 뜻한다.

● 큰골

[형태] 골짜기

[위치] ‘조교리뱃터’에서 ‘삼거리’를 지나 ‘조교리마을회관’ 쪽으로 들어가 ‘어두워니’ 남서쪽으로 난 긴 골짜기이다. ‘큰골’을 끝까지 오르면 ‘동장봉’ 능선에 닿는다.

[어원풀이] ‘큰[大]+골[谷]’로 분석된다.

● 큰돌매기골

[별칭] 큰돌매기골

[형태] 골짜기

[위치] 소양호가 조교리로 들어오는 남편 강변 골짜기로 ‘천적골’ 다음에 난 골짜기이다. 그 다음 골짜기는 ‘큰양지골’과 ‘고골’이다.

[어원풀이] ‘큰[大]+돌[石]+매기/목이/목[項]+골[谷]’로 분석된다. 지명첩미사 ‘목(項)’은 ‘목/목이/메기/매기/모기’ 등의 이형태를 가지며 ‘좁다란 산 협이나 물속을 가로지르는 길목’을 뜻한다. :

● 큰무애

[형태] 마을

[위치] 기존문헌에 무애의 큰 마을이라 하였다.

[어원풀이] ‘큰[大]+무애’로 분석된다. ‘무애’ 참조.

● 큰양지골

[형태] 골짜기

[위치] 소양호가 조교리로 들어오는 남편 강변 골짜기로 ‘천적골’ 다음에 난 골짜기는 ‘큰돌매기골’이다. 그 다음 골짜기가 ‘큰양지골’과 ‘고골’이다. 그 다음엔 ‘조교리뱃터’이다.

[어원풀이] ‘큰[大]+양지(陽地)+골[谷]’로 분석된다.

● 텃골

[별칭] 터골, 토골, 토골계곡

[형태] 골짜기

[위치] 바위산과 매봉 중간쯤에 있는 긴 골짜기이다. ‘삼거리’에서는 바위산과 중간쯤에 있다. ‘텃골재(650m)’는 고개의 기능은 일찍이 상실된 곳인 듯 고갯길 흔적은 완전히 사라졌다. ‘텃골재’에서 무명(無名) 봉(峰) 하나를 넘어서서 완만하게 올라서면 695봉이다.

[어원풀이] ‘터[垈]+ㅅ+골[谷]’로 분석된다.

● 텃골재

[별칭] 톳골재

[형태] 고개

[유래] ‘텃골’ 참조.

● 통골

[별칭] 통곡(通谷)

[형태] 마을

[위치] 소양호에서 조교리뱃터 들어오기 전, 동쪽

소양호 지류로 들어가 바위산 방향 크게 통한 골짜기가 ‘통골(通谷)’이다. 바위산에서 바위산 북서쪽 2km쯤에 있으며, 소양호에 가깝다. 대동리에도 ‘통골’이 있는데, 바위산에서 북쪽 1.5km쯤에 있으며, 대동리 배터 쪽으로 난 큰 골짜기이다.

[유래] 기존문헌에 외따른 곳에 있는 마을이라 하였다.

[어원풀이] ‘통(通)+골[谷]’로 분석된다.

다. ‘화채’는 ‘상여(喪輿)’의 비표준어이다.

● 피아골

[형태] 골짜기

[위치] ‘조교리뱃터’에서 ‘삼거리’를 지나 ‘조교리마을회관’ 쪽으로 나아가 ‘어두워니’ 가기 전에 있는 골짜기이다.

[유래] 옛날 이 일대에 피밭[稷田]이 많아서 ‘피밭골’이라는 이름이 생겼고 이것이 변해 피아골이 되었다고 한다.

[어원풀이] ‘피[稷]+아/앗/밭/밭[田]+골[谷]’로 분석된다.

● 홍천고개

[별칭] 홍천현

[형태] 고개

[위치] 조교리에서 홍천군 두촌면 원동리로 넘어가는 가리산 능선의 산 고갯길(600m정도)이다.

[어원풀이] ‘홍천(洪川)+고개[峴]’로 분석된다.

● 화채집골

[형태] 골짜기

[위치] ‘조교보건진료소’에서 물로리로 넘어가는 ‘물로고개’ 초입 남쪽으로 난 작은 골이다.

[유래] 화채간이 있었다.

[어원풀이] ‘화채[喪輿]+집[家]+골[谷]’로 분석된

위치와 현황 | 다른 지역보다 높은 곳에 위치하며 오봉산, 가리산, 계명산, 매봉 등 험준한 산악에 둘러싸여 있다. 자연마을로 산막골, 물어구가 있다. 문화재로는 청평사, 청평사 회전문, 청평사 삼층석탑이 있다.

연혁 | 『춘주지』를 보면 북산외(北山外) 건천(乾川)이라고 표시하였다, 『여지도서』, 『호구총수』, 『춘천읍지』, 『춘천부지』, 『관동읍지』는 북산외면(北山外面) 부창리(富昌里), 건천리(乾川里)로 표기하였다. 『조선지지자료』, 『강원도지지조서』는 북산외면(北山外面) 상건천리(上乾川里), 부창리(富昌里)라 기록하였는데 청평리가 되었다. 『강원도지』, 『수춘지』는 북산면(北山面) 청평리(淸平里)로, 『춘주지』, 『춘천백년사』는 북산면(北山面) 청평1리, 청평2리로 표기하였다. 현재 행정리는 청평리고 법정리는 청평1리, 청평2리다.

유래 | 청평산 밑이 되므로 청평골이라 하였으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상건천리와 부창리를 병합하여 청평리라 하였다.

● 갯골

[별칭] 개골

[형태] 골짜기

[위치] 청평리 최남단 소양호에서 들어가는 작은 골짜기이다. 조금 동진하면 ‘젖은골’이 있고, 계속 더 동진하면 ‘바른골(바람골)’과 ‘산막골’이 나온다.

[유래] 『북산면사람들』에 “청평산 밑에 있는 골짜기이다. 청평리 봉의산의 호랑이가 이곳을 내려다 보고 있는데, 이곳을 지날 때는 개와 함께 가야 한다. 그래야만 호랑이가 사람을 물어가지 않고, 개만 물어갔다고 한다. 그래서 이 골을 호랑이가 개를 물어 간 골짜기라 해서 개골이라 한다.”라 하였다. ‘청평리 봉의산’은 지금 ‘봉화산(733.5m)’이다.

[어원풀이] 유래에 따르면 ‘개[犬]+ㅅ+골[谷]’로 분석된다. ‘갯골’은 전국적인 지명으로, 일상적으로 ‘갯고랑’ 또는 ‘개골창/갯골창/깨골창’ 등으로 쓴다.



거북바위

● 건봉령(乾烽嶺)

[형태] 산

[위치] ‘건봉령’은 청평리와 부귀리에 걸쳐 있으며, 그 소재지는 북산면 부귀리이다. 건봉령에서 탁 트인 소양호를 전망하기 좋은 곳에 포토존을 마련한 ‘건봉령승호대(乾烽嶺勝湖臺)’는 북산면 부귀리 산 59-8번지에 있다.

● 거북바위

[형태] 바위

[위치] 청평사(淸平寺) 가기 전, ‘구성폭포(九聲瀑浦)’ 못 가서 길가 서쪽에 있다.

[유래] 『북산면사람들』에 “청평사로 들어가는 길목에 있는 바위이다. 거북처럼 생겼다고 해서 거북바위로 일컫는다. 이 바위에 작은 돌을 붙이면 아들을 낳는다는 전설이 있다.”라 하였다. ‘거북바위’는 자연 암석으로, 예전부터 거북이가 물을 바라보게 되면 청평사(淸平寺)가 크게 용성할 것이라는 전설이 있다. 이 바위 하단에 신규선이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는데, 1915년 청평사를 정비하고 청평사의 역사책인 청평사지(淸平寺誌)를 편찬하도록 한 사람이다.

[어원풀이] ‘거북[龜]+바위[岩]’로 분석된다.

● 건천리(乾川里)

[별칭] (지금의) 청평리

[형태] 마을

[위치] 본래 위치는 소양호에서 ‘청평사뱃터’ 동쪽에 있는 청평2리로 곧 ‘삼막골(삼막동)’이며, 청평리 전체를 가리키기도 한다.

[유래] 조선시대에는 ‘삼막골’이 물이 나오지 않아 이곳을 ‘건천리(乾川里)’로 불렸고, 지금 청평사가 있는 청평1리는 ‘상건천리’로, 청평2리인 ‘삼막골’은 ‘하건천리’로 불렸다. 즉 ‘건천리’는 지금 ‘청평리’이기도 하였다. 현재 ‘상, 하 건천리, 건천리’는 쓰지 않고 ‘건천고개(건천현)’에 이름이 남아 있다.

[어원풀이] ‘건천(乾川)+리(里)’로 분석된다.

● 건폭포

[형태] 수리

[위치] 선착장 근처에 있는 청평1리마을회관 동쪽 멀지 않은 산속에 있다.

[유래] 마른 폭포이다.

[어원풀이] ‘건(乾)+폭포(瀑布)’로 분석된다.

● 공주굴

[형태] 굴

[위치] 청평사로 올라가는 넷가의 구성폭포 옆에 있다.

[유래] 중국의 공주가 이곳에서 쉬었다고 해서 불여진 이름이다. ‘공주탑’, ‘상사뱀’, ‘청평사(회전문)’ 등과 같은 전설을 가진다.

[어원풀이] ‘공주(公主)+굴(窟)’로 분석된다.

[유래담] <청평사(清平寺), 공주와 상사뱀의 전설>
이 전한다.



공주굴

● 공주탑

[별칭] 삼층석탑(三層石塔)

[형태] 탑

[위치] 청평사로 올라가는 넷가의 구성폭포 바로 위에 있다.

[유래] ‘공주굴’과 같은 유래를 가지며, 공주(公主)

와 상사뱀이라는 전설에 의한 것으로, 공주가 쌓았다고 한다. 청평사(清平寺)로 향하던 옛길 가에 있는 삼층석탑(三層石塔)이다.

[어원풀이] ‘공주(公主)+탑(塔)’으로 분석된다.



공주탑

● 구멍바우

[별칭] 홈통바위

[형태] 바위

[위치] 청평리 북단, 오봉산 정상, ‘오봉산 5봉’과 청평사 북쪽 ‘칼바우’가 있는 ‘오봉산 소봉’ 사이에 있다.

[유래] 오봉산 완주를 하려면 반드시 9m 정도를 비스듬이 구멍이 진 이 ‘구멍바위’를 통과해야만 지나갈 수 있다.

[어원풀이] ‘구멍[穴]+바우[岩]’로 분석된다.

● 구송폭포(九松瀑布)

[별칭] 구성폭포(九聲瀑布)

[형태] 폭포

[위치] 청평사 조금 못 미친 곳에 있다. 높이 9m로 고 아홉 그루 소나무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유래] 청평사 구송폭포와 삼악산 등선폭포, 문배마을 구곡폭포를 ‘춘천의 3대 폭포라 한다.

[어원풀이] ‘구(九)+송(松)+폭포(瀑布)’로 분석된다.



구송폭포

아홉 가지 소리를 낸다고 하여 구성폭포(九聲瀑布)로도 불린다.

● 깃대봉

[형태] 산

[위치] 봉화산과 소양호 중간쯤에 있다. 깃대봉 남쪽에 ‘스무나무재’가 있다.

[어원풀이] ‘기(旗)+ㅅ+대(抬)+봉(峰)’로 분석된다.

● 꺼먹바우

[별칭] 벼락바우

[형태] 바위

[위치] 청평2리 ‘작은산막골’에서 부귀리 쪽에 ‘횃골(재터)’이 있는데, 그 북쪽 가까이에 ‘벼락바우(꺼먹바우)’가 있다.

[유래] 기존문헌에 벼락을 맞은 바위라 하였다. 벼락을 맞아 바위가 까맣게 되었다.

[어원풀이] ‘꺼먹/꺼명/까망[黑]+바우[岩]’로 분석된다.

● 끝봉

[형태] 산

[위치] 청평리 서쪽 신북읍에 가까운, 경운산 남쪽에 있는 고도 712m의 봉우리이다.

[유래] 청평사는 5개 봉(峰)들이 이어진 오봉산을 중심으로, 북북동쪽 부용산과 북서쪽 경운산과 끝봉으로 둘러싸여 있다. 이렇게 둘러친 산 중에, 서쪽 끝에 있는 산이 ‘끝봉(712m)’이다.

[어원풀이] ‘끝[終]+봉(峰)’으로 분석된다.

● 냉장골

[형태] 골짜기

[위치] ‘소양호선착장’에서 ‘배치고개’ 쪽으로 오르다가 ‘청평사관광지(마을)’ 다음에 서쪽으로 난 골짜기이다.

[어원풀이] ‘냉장(冷藏)+골[谷]’로 분석된다.

● 농바우

[형태] 바위

[위치] 미상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농처럼 생긴 바위라 하였다.

[어원풀이] ‘농(籠)+바우[岩]’로 분석된다.

● 당고개

[별칭] 웃당고개, 헐떡고개

[형태] 고개

[위치] ‘산막골(청평2리)’에 부귀리 쪽에 있는 ‘진골’과 ‘부창고개’ 사이에 있는 고개로, ‘웃당고개’와 ‘아랫당고개’가 있다. 대부분 1973년 소양호에 수몰되었다.

[유래] 고갯마루에 돌탑 서낭이 있었고 고개가 가파라서 ‘헐떡고개’라고도 불렸다.

[어원풀이] ‘당(서낭당, 堂)+고개[峴]’로 분석된다.

● 도독바우

[형태] 바위

[위치] 미상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바위 밑에 은신처(隱身處)가 있다고 하였다.

[어원풀이] ‘도독/도둑[盜]+바우[岩]’로 분석된다.

● 두루봉

[별칭] 두루미봉

● 산

[위치] ‘갯골’ 바깥쪽, 즉 예전 소양강가에 있었는데, 지금은 소양호에 수몰되었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청평리에 있는 산이라 하였다. 소양강으로 흐르던 땐, 청평리 최남단에 있는 ‘갯골’ 남쪽을 ‘갯골 바깥쪽(춘천시 동면 쪽)’이라 했는데, ‘두루미봉, 송산, 송산여울, 주걱재’ 등이 ‘갯골 바깥쪽’에 있다고 하였다.

[어원풀이] ‘두루/드름/드르/두르미[鶴]+봉(峰)’으로 분석된다. ‘두루미’가 여러 변이형을 가짐은 방언차이기도 하지만 근원적으로는 ‘학(鶴)’이 터키어를 포함한 알타이어에서 기원하기 때문이다. 칠전동과 의암리를 이어져 의암댐 앞에서 끝나는 ‘드름산(357m)’과 그 어원을 같이 한다.

● 두무소

[형태] 소(沼)

[위치] 기존문현에 소양강에 있는 소(沼)라 하였는데 현재는 수몰되었다.

[어원풀이] ‘두무/드므(넓적한 독)+소(沼)’로 분석된다. ‘두무’는 ‘드므’의 방언으로 ‘넓적하게 생긴 독’이다. ‘넓적하게 생긴 소(沼, 연못)’이다.

● 마당바우

[형태] 바위

[위치] 미상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넓적하게 생긴 바위라 하였는데 현재는 수몰된 것으로 추정된다.

[어원풀이] ‘마당[場]+바우[岩]’로 분석된다.

● 말골

[별칭] 마곡(馬谷), 말곡

[형태] 골짜기

[위치] 청평사선착장에서 ‘하우고개’로 진입하면 곧 ‘청평골’이고, 더 부귀리 쪽으로 내려가면 ‘말골/마곡(馬谷)’이다. 요즘은 ‘말골’이라고 한다.
 [어원풀이] ‘말[馬]+골[谷]’로 분석된다.

● 말잡은골

[형태] 골짜기

[위치] 『한국지명총람』에 예전에 어떤 사람이 말을 타고 가다가 말이 굴러떨어져 죽었다고 하였는데 현재는 수몰된 것으로 추정된다.

[어원풀이] ‘말[馬]+잡은[捕]+골[谷]’로 분석된다.

● 문수원(文殊院)

[별칭] 청평사의 옛 명칭. 고려 시대 이자현(李資玄)이 이곳에 와 살면서 명명했다.

[형태] 고적

[위치] 청평사에 있다. <진락공중수청평산문수원기(眞樂公重修清平山文殊院記)>가 전하는데 비문은 김부철(金富轍, 1079~1136)이 이자현(李資玄)의 문인으로서 당시 문수원(청평사)의 주지이었던 조원(祖遠)의 부탁을 받아 1130년(인종 8)에 지었으며, 이자현에게 수학하였던 대감국사 탄연(大鑑國師 坦然, 1070~1159)이 글씨를 썼다. 이자현이 중창한 청평산 문수원(文殊院)의 내력 및 이자현의 생애가 기록되어 있다.

● 물어구

[별칭] 물의구, 수구동(水口洞)

[형태] 마을

[위치] 『한국지명총람』에 청평내 어귀에 있는 마을이라 하였다.

[유래] 『춘천의지명유래』에 “수구동(水口洞). 청평내 어귀에 있던 마을. 소양댐이 건설되고 소양호에

물이 차서 물밑에 잠겼다. 물의구 남동쪽 소양강가에 있던 마을을 수무나무정, 이십목정이라 불렀다. 지금은 소양호 물밑에 잠겼다.”라 하였다.

[어원풀이] ‘물[水]+어구[口]’로 분석된다.

● 바른골

[별칭] 바람골, 어두어니, 어두어니골

[형태] 골짜기

[위치] 청평리 남단, 소양호에 가까이에 있는 ‘젖은 골’과 ‘삼막골(큰삼막골, 작은삼막골)’ 사이로 소양호가 작은 협곡을 이루는 곳에 난 골짜기이다.

[유래] 『북산면사람들』에 6km 정도 되는 골로서 사람이 똑바로 쳐다보는 모습과 닮았다고 하여 바른골이라 불렀다고 하였다. 예전엔 늘 어두운 골짜기여서 ‘어두어니/어두어니골’이라 했다.

[어원풀이] ‘바른[直]+골[谷]’로 분석된다.

● 박씨묘

[형태] 묘

[위치] 소양호 옆 청평사 들어가는 입구에 있다. 더 들어가면 ‘황골’에 이른다.

[유래] 춘천박씨 박원비의 묘이다.

[어원풀이] ‘박(朴)+씨(氏)+묘(墓)’로 분석된다.

● 배치고개

[별칭] 백치고개, 백치령(白峙嶺)

[형태] 고개

[위치] 오봉산과 부용산 사이 중간쯤에 있는 고개이다. 청평리와 화천군 간동면 간척리와 접경을 이루는 고개이지만, 그 소재지는 화천군 간동면 간척리에 속한다. 예전에는 ‘배치고개’를 넘어 화천군 간동면 간척리인 ‘간척’을 거쳐, 신복읍 ‘샘밭(샘밭장)’으로 나갔다.

[유래] 『춘천의지명유래』에 흰 자갈이 많았다고 하였다.

[어원풀이] ‘배치/백치(白峙)+령(嶺)’으로 분석된다. 요즘은 ‘백치고개’로 자주 불린다.

● 뱀박골

[형태] 골짜기

[위치] 청평2리 ‘큰산막골’ 동쪽 가까이에 난 골짜기이다. ‘큰산막골’ 북쪽엔 ‘북청골’이 있다.

[어원풀이] ‘뱀[蛇]+박[밤/밭]+골[谷]’로 분석된다. 흔히 ‘뱀이 자주 나온는 밭골’에서 ‘뱀밭골’이라 하는 경우가 많다.

● 봉화산(烽火山)

[별칭] 봉의산(鳳儀山)

[형태] 산

[위치] 청평리 동쪽 끝, 청평리와 부귀리가 접경을 이루는 산으로 고도는 733.5m이다.

[유래] 옛날 봉화(烽火)를 올리던 산이다.

[어원풀이] ‘봉화(烽火)+산(山)’으로 분석된다.

● 부용계곡

[형태] 계곡

[위치] 소양호가 청평리로 들어와 오봉산과 부용산 사이에 있는 계곡으로, ‘배치고개’ 아래로 뻗은 계곡이다. ‘부용계곡’을 따라 난 골짜기는 ‘큰골’이고, 계곡의 이름은 ‘배치고개’ 동쪽에 있는 ‘부용산’에서 이름을 취했다.

[어원풀이] ‘부용(芙蓉-山)+계곡’으로 분석된다.

● 부용교

[형태] 다리

[위치] 오봉산과 부용산 사이에 있는 ‘큰골’이 청평

사 동쪽에서 교차하는 곳에 놓인 다리이다.

[어원풀이] ‘부용(芙蓉-山)+교(橋)’로 분석된다.

● 부용산(芙蓉山), 881m

[형태] 산

[위치] 부귀리와 청평리, 그리고 화천군 간동면 간척리가 접경을 이루는 산으로 고도는 881m이다.

[유래] 부용산 서쪽의 오봉산과 능선으로 연결되어 있어 종주 등반도 할 수 있다. 산세가 그리 험하지 않고, 산 아래 소양호에서 배를 탈 수도 있어서 다양한 재미를 맛볼 수 있는 산이다.

[어원풀이] ‘부용(芙蓉)+산(山)’으로 분석된다. ‘부용(芙蓉)’은 ‘연(蓮)’의 꽃을 가리킨다.

● 북청골

[별칭] 뱀박골

[형태] 골짜기

[위치] 청평2리, ‘큰산막골’ 북쪽으로 난 골짜기이다. ‘큰산막골’ 동쪽 가까이엔 ‘뱀밭골’이 있다.

[유래] ‘부창(부청)고개’에서 이름을 얻었다.

[어원풀이] ‘북청/부청/부창(富昌-고개)+골[谷]’로 분석된다.

● 불기여울

[형태] 여울

[위치] 기존문헌에 소양강에 있는 여울이라 하였다.

[어원풀이] 내평리 소재 ‘불기여울’이 참조된다.

● 산막골

[별칭] 산막동(山幕洞), 삼막골, 큰산막골, 건천리, 하건천리

[형태] 마을

[위치] 청평사가 있는 청평1리 오른편(동쪽) 골짜기

로 청평2리(큰산막골)이다. 더 동편으로 가면 ‘작은 산막골’이 있다. ‘삼막길’이 청평리에서 부귀리까지 소양호를 바라보며 이어져 있다. 산막골선착장에서 소양호로 나갈 수 있다. ‘큰산막골’과 ‘작은산막골’이 있으며, ‘큰산막골’에 청평2리마을회관이 있다. 청평리의 자연마을은 ‘삼막골’과 ‘청평골’이다.

[유래] 기존문헌에 수무나무정 동북쪽 골짜기에 있는 마을로 산막이 있었다고 하였다.

[어원풀이] ‘산(山)+막(幕)+골(洞)’로 분석된다. ‘산막’은 사냥꾼이나 숯쟁이 및 약초를 캐는 사람이 임시로 쓰려고 산속에 간단히 지은 집이다. 요즘, ‘산막’은 산지에 있는 숙박 및 휴게 시설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기도 하다. 별칭인 ‘삼막골’이 본래 지명이라고도 한다. 이곳의 조선조 고을 이름은 ‘건천리(乾川里)’이며, 소양강 뱃길로 이곳으로 들어오는 포구가 ‘세 곳 막힌 골짜기’여서 ‘삼막골’이라 부르다가 ‘산막골’로 변음되어 ‘산막(山幕)골’로 전의되었다고 한다. ‘삼막골’은 ‘삼(三)+막[閉]+골[谷]’로 분석된다.

● 삼포(參圃)

[별칭] 삼포(三浦)

[형태] 마을

[위치] 300년 동안 산막골에서 집성촌을 이루어온 노인회장의 제보에 의하면 한자를 달리하는 별칭인 ‘삼포(三浦)’는 현재 청평2리의 고유 이름인 ‘산막골’의 별칭인 ‘삼막골(세 포구가 있는 막힌 골)’과 상통한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옛날에 삼을 많이 심던 마을이라 하였다.

[어원풀이] ‘삼(蔞)+포(圃)’로 분석된다. 유래에 의하면 ‘삼포(參圃)’의 ‘參’은 음차자(音借字)이다.

● 상사뱀 동상

[형태] 동상

[위치] 청평사로 올라가는 냇가의 구성폭포 바로 위에 ‘공주굴’, ‘공주탑’ 등과 가까이 있다.

[유래] ‘공주와 상사뱀, 청평사’ 전설이 전한다.

[어원풀이] ‘상사/상사병(相思病)+뱀[蛇]+동상(銅像)’으로 분석된다.



상사뱀 동상

● 샘골

[별칭] 쉬임골

[형태] 골짜기

[위치] 소양호에 수장된 ‘물어구(수구동)’에서 ‘청평사 선착장’으로 들어가는 초입 우측에 난 골짜기로, 골 안쪽에 ‘소양예술농원’이 있다. 더 들어가면 좌우로 ‘석동골’과 ‘깃대봉’이 있다.

[어원풀이] ‘샘[泉]+골[谷]’로 분석된다.

● 샘말래

[별칭] 새말래

[형태] 산(능선)

[위치] ‘큰산막골’과 ‘작은산말골’을, 골짜기 위 산마루 능선으로 이어진 지역이다.

[유래] ‘큰산막골’과 ‘작은산말골’을 오고 갈 때 ‘샘말래’를 간다고 한다.

[어원풀이] ‘샘/새/사오][間]+말(마루/산마루)+래(來)’로 분석할 수 있다.

● 석동골

[형태] 골짜기

[위치] 청평리 소양호선착장 입구에서 ‘샘골’을 지나, 좌우로 ‘스무나무재’와 ‘깃대봉’으로 난 골짜기이다. ‘샘골’을 지나 ‘석동골’ 못 가서 ‘소양예술농원’이 있다.

[어원풀이] ‘석(石)+동(洞)+골[谷]’로 분석된다.

● 성동계곡

[형태] 골짜기

[위치] 청평사에서 적멸보궁터로 올라가는 중간 못 가서 있는 계곡이다. 오봉산 2봉에서 하산하여 적멸보궁터를 지나 성동계곡으로 내려오면 청평사에 이른다.

[어원풀이] ‘성동(聲動)+계곡(溪谷)’으로 분석된다.

● 성동교(聲動橋)

[형태] 다리

[위치] 청평사 앞, ‘장수샘/청평약수’ 바로 아래로 흐르는 ‘성동계곡’ 위에 놓인 다리이다.

[어원풀이] ‘성동(聲動)+교(橋)’로 분석된다.

● 세심폭포

[형태] 폭포

[위치] ‘건봉령승호대’에서 부귀리로 가는 길목에 있다.

[유래] 여름철이면 청평리 산막골 사람들이 더위를 피한다고 한다. 산막골로 들어올 때 마음을 깨끗이 씻고 들어오라고 해서 ‘씻을 세(洗)’에 ‘마음 심(心)’ 자를 써서 세심폭포라고 하였다.

[어원풀이] ‘세(洗)+심(心)+폭포(瀑布)’로 분석된다.

● 소양예술농원

[형태] 농원

[위치] 부귀리 하우고개 정상~청평리 소양예술농원 4.3km 구간을 정비하여, 오봉산~부용산 등산코스와 이어져 소양강댐 맞은편 산자락에 닿을 수 있다.

[유래] 능선을 따라 호젓한 산길과 소양호의 풍광을 동시에 즐길 수 있다. 소양예술농원은 주말 다양한 공연으로 잘 알려진 관광농원으로 이곳에서 소양강댐까지는 배로 이동해야 해 산행의 묘미를 더한다.



소양예술농원

● 소양호일주유람선터미널

[별칭] 소양호선착장

[형태] 선착장

[위치] 청평사 관광 유람선이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선착장은 소양댐 아래, 따로 마련된 ‘소양호일주유람선터미널’이다. 대부분 ‘소양호선착장’이라고 부른다. 예전 ‘청평사배터’는 대부분 ‘청평사선착장’이라고 부른다.



소양호일주유람선터미널

● 소요대(逍遙臺)

[형태] 바위

[위치] 청평사에서 오봉산으로 오르다가 ‘천단’을 지나 ‘홈통바위(구멍바위)’ 못 미친 곳에 있다.

[유래] 이곳에서는 청평사를 한 눈에 바라볼 수 있어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아 왔다. 서종화의 <청평산(淸平山記)>에 의하면 “산기슭의 머리부가 잘려져 대(臺)가 된 것인데, 그 위에 4~5인이 앉을 만하다. 대 아래에는 깎아지른 듯한 절벽이 있다.”고 하였다. 이밖에도 ‘소요대’란 기록이 여러 문헌에 전한다.

[어원풀이] ‘소요(逍遙)+대(臺)’로 분석된다. ‘소요(逍遙)’는 슬슬 거닐며 돌아다닌다는 말로 산책과 비슷하다.

● 송산

[형태] 산

[위치] ‘갯골’ 바깥쪽, 즉 예전 소양강가에 있었는데 지금은 소양호에 수몰되었다.

[어원풀이] ‘송(松)+산(山)’으로 분석된다. ‘송산(松山)’은 전국적으로 산재하는 산 이름이다.

● 송산여울

[형태] 여울

[위치] 송산 밑에 있는 여울인데 지금은 수몰되었다.

[어원풀이] ‘송산(松山)+여울[灘]’로 분석된다.

● 수용골

[별칭] 수용(水龍), 수룡골

[형태] 골짜기

[위치] 기존문헌에 청평산 밑에 있는 골짜기라 하였다.

[어원풀이] ‘수(水)+용(龍)+골[谷]’으로 분석된다.

● 스무나무재

[형태] 고개

[위치] ‘소양호선착장’ 동쪽 ‘깃대봉’ 아래에 있다. 예전엔 1973년 소양호에 일부가 물에 잠긴 부귀리와 내평리에서, 지금은 소양호에 둘러싸여 고갯마루만 남아있는 ‘부창고개’를 넘고, 청평리 ‘스무나무재’를 지나, ‘수구동(水口洞)’에서 청평사를 갈 수 있었다. 그 아래에 ‘수무나무정’이 있었으나 소양호에 수몰되었다.

[어원풀이] ‘스무나무[刺榆樹]+재[峙]’로 분석할 수 있다. 『역어유해(譜語類解, 1690년)』에 ‘스미나모(刺榆樹)’가 기재되어 있다. ‘스무나무’는 느릅나뭇과에 속한 낙엽 교목이다. 높이는 20미터 정도이고, 잎은 어긋나고 텁니가 있다. 5월에 노란색 꽃이 피고 산기슭이나 개울가에 자란다.

● 스무나무정

[별칭] 수무나무정, 이십목정(二十木亭)

[형태] 마을

[위치] ‘수무나무정’ 북쪽에 ‘수무나무재’가 있고, 남쪽엔 ‘왜덕’이 있다.

[어원풀이] ‘스무나무+정(亭)’으로 분석된다. ‘스무나무재’ 참조.

● 아랫당고개

[형태] 고개

[위치] ‘산막골(청평2리)’에 부귀리 쪽에 있는 ‘진골’과 ‘부청고개’ 사이에 있는 고개로, ‘웃당고개’와 ‘아랫당고개’가 있다.

[유래] 고갯마루에 돌탑 서낭이 있었고 고개가 가파라서 ‘당고개’를 ‘헐떡고개’라고도 불렀다고 한다.

[어원풀이] ‘아래[下]+ㅅ+당(서낭堂)+고개[峴]’로 분석된다.

● 야야바우

[형태] 바위

[위치] 미상이다.

[유래] 기존문헌에 “아”하고 부르면 “야”하고 대답한다고 하였다.

[어원풀이] ‘아야(의성어)+바우[岩]’로 분석된다.

● 안장바우

[별칭] 암반지

[형태] 바위

[위치] 청평사 선착장 입구에서 ‘샘골’을 지나 ‘석동골’ 인근에 있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안장처럼 생겼다고 하였다.

[어원풀이] ‘안장(鞍裝)+바우[岩]’로 분석된다.

● 역갯골

[별칭] 엽개꼴

[형태] 골짜기

[위치] 『한국지명총람』에 청평산 밑에 있는 골짜기라 하였다.

[어원풀이] ‘역갯골’은 별칭인 ‘엽개꼴’과 더불어 ‘역/엽/옆[近]+개[溪]+ㅅ+골[谷]’로 분석된다. ‘갯골’은 흔한 지명이며, ‘역’은 ‘엽’은 ‘옆’이 변한 말이다. ‘갯골’ 옆에 있는 골짜기이다.

● 영지(影池)

[별칭] 청평사 영지

[형태] 연못

[위치] 청평사 아래에 있는 고려 시대 정원 양식을 가진 연못이다.

[유래] 청평사 밑에 있는 샘으로 옛날 견성암(見性庵)의 그림자가 이 샘에 비친다 하여 영지(影池)라 하는데, 수량이 한결같아서 날씨가 가물고, 비가 많이 오더라도 줄거나 느는 일이 없다고 한다. 청평사 앞에 있는 고려정원은 현재 남아있는 정원으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정원이다.

[어원풀이] ‘영(影)+지(池)’로 분석된다. 고려 시대 정원(庭園)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 영하대

[형태] 마을

[위치] 기존문헌에 청평리 부근에 있는 옛터라 하였다.

[어원풀이] ‘영/령(嶺)+하(下)+대(垈)’로 분석된다.

● 오봉산동굴

[형태] 굴

[위치] 청평리 북단, 오봉산에서 소양호 오봉산 5봉에서 ‘청평사’로 내려가지 않고, 곧바로 내려가다가 보면 ‘오봉산동굴’을 지나 하산하게 된다.

[어원풀이] ‘오봉산(五峯山)+동굴(洞窟)’로 분석된다.



오봉산동굴

● 웃장골

[별칭] 웃장골

[형태] 골짜기

[위치] 청평2리, ‘큰산막골’과 ‘바른골’ 사이로 난 골짜기이다.

[유래] 웃나무 많은 골짜기라 한다.

[어원풀이] ‘웃/웃[漆]+장(長)+골[谷]’로 분석된다.

● 작은산막골

[형태] 마을

[위치] 소양호가 ‘산막골’로 들어오는 포구는 크게 두 개가 있는데, ‘작은산막골’은 서쪽 포구 앞에 있다. ‘큰산막골’ 서쪽에 있으며, ‘큰산막골’과 ‘작은 산막골’을 어여주는 ‘샘말래’라는 능선이 위쪽에 있다.

[유래] ‘산막골’ 참조.

● 외덕골

[별칭] 웨덕골

[형태] 골짜기

[위치] 소양호에 수몰된 ‘물어구(수구동)’ 북쪽 깃대봉 아래에 ‘수무나무재’가 일부 수몰되지 않고 남아 있으며, 그 아래 ‘수무나무정’은 수몰되었다. 그 ‘수무나무정’ 아래에 ‘웨덕’이 있었으나 역시 수몰되었다.

[어원풀이] ‘외/왜(倭)+덕(언덕, 둔덕)+골[谷]’로 분석된다. ‘왜’는 짧고 작다는 뜻이고, ‘덕’은 ‘언덕/둔덕’이다.

● 웃당고개

[별칭] 당고개, 웃당고개, 헐떡고개

[형태] 고개

[위치] ‘산막골(청평2리)’에 부귀리 쪽에 있는 ‘진골’과 ‘부창고개’ 사이에 있는 고개로, ‘웃당고개’와 ‘아랫당고개’가 있다.

[유래] ‘당고개’ 참조.

● 장수샘

[별칭] 청평약수

[형태] 샘

[위치] 청평사 입구, 바로 아래 마당에 있다.

[어원풀이] ‘장수(長壽)+샘[泉]’으로 분석된다.



장수샘

● 적멸보궁터

[별칭] 적멸보궁

[형태] 사찰

[위치] 오봉산 2봉 아래에 있다. 성동계곡으로 이어지며 계속 내려가면 청평사에 이른다.

[유래] 석가모니불의 진신사리(眞身舍利)를 봉안한 사찰이나 당우(堂宇)를 적멸보궁(寂滅寶宮)이라 하는데. 청평사에 딸린 이 적멸보궁은 그 터만 남았다가, 석가모니불의 진신사리를 봉안하지 않은 채로 작은 암자만으로 재건하였다.

● 점골

[별칭] 점꼴

[형태] 골짜기

[위치] 미상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옹기점이 있던 골짜기라 하였는데 수몰된 것으로 추정된다.

[어원풀이] ‘점(옹기店)+골[谷]’로 분석된다.

● 젖은골

[별칭] 저즌골, 저진골

[형태] 골짜기

[위치] 소양호에 맞닿은 청평리 최남단에 ‘갯골’과 ‘젖은골’이 있다. 계속 동진하면 청평2리마을회관이 있는 ‘산막골(산막동)’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청평산 밑에 있는 골짜기라 하였다.

[어원풀이] ‘젖-[漏]+{-(은(관형사형어미))}+골[谷]’로 분석된다.

● 주걱재

[별칭] 죽재

[형태] 산

[위치] ‘갯골’ 바깥쪽, 즉 예전 소양강가에 있었는데, 지금은 소양호에 수몰되었다.

[유래] 기존문헌에 주걱처럼 생겼다고 하였다.

[어원풀이] ‘주걱(밥주걱)+재[峙]’로 분석된다. 주걱은 죽, 쥬게, 쥬걱, 주걱 등으로 나타난다.

● 진골

[별칭] 긴골

[형태] 골짜기

[위치] ‘작은산막골’에서 부귀리 쪽으로 가다가 ‘진골’ 다음에 난 골짜기가 ‘진골’이며, 그다음 골짜기는 ‘뱀발골’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길게 생긴 골짜기라 하였다.

[어원풀이] ‘진[긴][長]+골[谷]’로 분석된다.

● 집텃골

[별칭] 집터골

[형태] 골짜기

[위치] 삼막골 좌우 골짜기들을 ‘집텃골’이라고 한다.

[어원풀이] ‘집[家]+터[垈]+ㅅ+골[谷]’로 분석된다.

● 척번대(獮煩臺)

[형태] 바위(유적)

[위치] 청평사 북서쪽 ‘적멸보궁’이 있는 ‘청평선동’ 바로 위에 있다.

[유래] 길이가 5.5m, 높이는 3.3m로 비교적 큰 자연석이다. 계곡의 아래쪽에는 ‘청평선동’, 위쪽에는 ‘청평식암’이라는 이자현의 큰 새김글이 있다. 주변에는 나한전터 등 여러 건물터와 폭포가 있다. 골짜기가 조용하고 전망이 좋아 수행자들이 이 바위에 앉아 참선수행을 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래서 이 바위의 이름을 번뇌와 망상이 사라진다고 하여 척번대라 하였다. 바위의 윗면은 참선수행을

할 수 있을 만한 공간인데 지금도 몇 명이 함께 모여 앉아 전망을 즐길 만큼 넓다.

[어원풀이] ‘척(滌)+번(煩)+대(臺)’로 분석된다. 번뇌를 씻어내는 곳이란 의미이다.

● 천단(天壇)

[별칭] 태을단(太乙壇)

[형태] 바위(제사터)

[위치] 청평사 뒤쪽 오봉산에 있는 암반지대에 있다고 한다. 오봉산에서 청평사 쪽으로 하산할 때, 청평사로 꺾어 하산하기 전에 위치한 오봉산 소봉인 668봉(배꼽봉) 주변 암반지대가 ‘천단’이 있었던 곳으로 알려져 온다.

[유래] 오봉산에는 ‘제석단’과 ‘천단’이 있었다고 한다. ‘천단’의 위치는 불분명하여 부용봉 아래 어딘가라고 한다. 그 위치가 정확하지 않으나 ‘천단’ 주변에 촛대 모양의 촛대바위와 거북바위, 송대바위 등이 있었다고 하며, 이곳에서 북두칠성을 향해 제사를 지내기 위해 쌓은 단을 ‘태을단(太乙壇)’이라고 한다. ‘태을(太乙)’은 중국 도교에서 사용하는 말이다. 천지만물의 출현 또는 성립의 근원인 우주의 본체를 인격화한 말이 ‘태을’이며, 노자(老子)를 도교에서 최고의 신으로 모시면서 붙인 이름 또한 ‘태을’이다. 그리고 천체(天體)가 항상 존재하는 곳이라고 여겨지는 북극성을 지칭하는 말이기도 하다.

[어원풀이] ‘천(天)+단(壇)’으로 분석된다. 이 ‘천단(天壇)’은 ‘태을단(太乙壇)’이다.

● 청솔바위

[형태] 바위

[위치] 오봉산 2봉과 3봉 사이, 3봉 가까이에 있는 바위이다.

[유래] 바위 꼭대기에 소나무가 살아서 붙여진 이

름이다. 바위 위에 대리석으로 청솔마위라 표식을 해 놨다.

[어원풀이] ‘청(青)+솔[松]+바위[岩]’로 분석된다.

● 청평골

[별칭] 청평동(淸平洞)

[형태] 골짜기, 마을

[위치] 오봉산(청평산)에서 발원하여 남쪽으로 이어진 계곡이다.

[유래] 청평리의 자연마을은 ‘삼막골’과 ‘청평골’이다.

[어원풀이] ‘청평(淸坪)+골[谷]’로 분석된다.

● 청평교

[형태] 다리

[위치] 청평사 아래에 놓인 ‘성동교’와 부용산에서 내려온 ‘큰골’ 끝에 놓인 ‘부용교’ 사이에 놓인 다리이다.

● 청평내

[별칭] 청평천

[형태] 하천

[위치] 청평산에서 발원하여 남쪽으로 흘러 소양호로 들어가는 소하천이다.

● 청평사(淸平寺)

[별칭] 청평사고려선원

[형태] 사찰

[위치] 청평리 674번지 오봉산(청평산) 아래에 있다.

[유래] 고려 광종(光宗) 24년(973)에 선사(禪師) 현승(玄承)이 창건하여 백암선원(白巖禪院)이라 하였고, 문종 22년(1068)에 이의(李顥)가 춘주도감창사(春州道監倉使)가 되어 이 절을 중건하고 보현원(普賢院)이라 하였는데, 나중에 그의 아들 이자현(李資

玄)이 벼슬을 버리고 여기에 와서 문수원(文殊院)이라 고쳤고, 조선 명종(明宗) 5년(1550)에 중보우(普雨)가 이를 수리, 확장하여 경운산만수성청평사(慶雲山萬壽聖清平寺)로 고쳤다. 극락전(極樂殿)과 남쪽 정문(正門)인 회전문(回轉門)은 보물로 지정되어 있다.

● 청평사계곡

[별칭] 청평계곡, 청평골

[형태] 골짜기

[위치] 선착장에서 청평사로 가는 계곡이다.

● 청평사배터

[별칭] 청평리배터, 청평사선착장

[형태] 나루

[위치] 청평리 674번지로 소양호에 뱃길이 생겨 소양댐배터에서 청평사배터로 여객선, 유람선이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다닌다. 요즘은 ‘청평사선착장’이라 부른다.

● 청평사주목

[형태] 보호수

[위치] 청평사 극락보전 우측 10m 지점에 위치한 고목이다. ‘청평사주목 2’는 조금 떨어져 있다.

[유래] 1982년 11월 13일에 춘천의 보호수로 지정되었다. 품격은 도나무, 수종은 주목, 수령은 800년, 수고는 10m, 나무둘레 150cm, 고유번호 강원-춘천-2호이다. 이자현(李資玄)이 고려정원을 조성할 때 심었다고 전하는 것으로 미루어보아 1125년대로 추정한다.

● 청평사 돌배나무

[형태] 보호수

[위치] 청평사 경내에 위치하며, 오봉산 등산로 출입구에 있다.

[유래] 높이 27m, 수관직경 15m, 흥고 2.5m, 지하 2m이다. 전해오는 말에 의하면 이자현(李資玄)이 고려정원을 조성할 때 심은 주목나무가 있기 전의 것이라고 하니 천년은 족히 되었으리라 본다.

● 청평사 은행나무

[형태] 보호수

[위치] 청평사 입구에 있다.

[유래] 1982년 11월 13일 보호수로 지정되었다. 수령 250년, 수고 17m, 나무둘레 290cm이다.

● 청평초등학교(폐교)

[형태] 학교

[위치] ‘수구동’에서 청평사 쪽으로 들어가는 길에 학교가 있었다.

● 촛대바위

[별칭] 칼바위

[형태] 바위

[위치] 청평사에서 오봉산을 오르다가 오봉산 소봉인 668봉(배꼽봉) 아래에 있다. 인근에 ‘천단’이 있다.

[유래] 촛대 모양의 바위이다.

[어원풀이] ‘초[燭]+へ+대(臺)+바위[岩]’로 분석된다. ‘초’를 한자 ‘촛불 촛(燭)’으로 쓰지만, ‘초へ 촛(燭)’과 같은 과정을 거친 ‘초’는 순우리말이다.



촛대바위

● 큰골

[형태] 골짜기

[위치] 오봉산과 부용산 사이에서 청평사로 내려오는 골짜기이다. ‘배치고개’에서 소양호로 내려오는 골짜기로, 지금은 청평사로 접근하는 2차선포장으로인 ‘오봉산길’이다.

[어원풀이] ‘큰[大]+골[谷]’로 분석된다.

● 큰산막골

[형태] 마을

[위치] 청평사가 있는 청평1리 오른편(동쪽) 골짜기로 소양호를 돌아가면 청평2리이다. ‘청평2리는 크게 두 포구가 있는데, 동쪽 포구 앞에 ‘큰산막골’이 있으며, 청평2리마을회관이 있다. ‘삼막길’이 청평리에서 부귀리까지 소양호를 바라보며 이어져 있다. ‘산막골선착장’에서 소양호로 나갈 수 있다.

[유래] ‘산막골’ 참조.

● 함지바우

[형태] 바위

[위치] 미상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모양이 함지처럼 넓적하게 생긴 바위라 하였다.

[어원풀이] ‘함지+바우[岩]’로 분석된다. ‘함지’는 나무로 네모지게 짜서 만든 그릇으로 흔히 통나무의 속을 파서 큰 바가지같이 만든 그릇이다. ‘함지박’이라고도 한다.

● 행짓골

[형태] 골짜기

[위치] 미상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행길이 있던 골짜기라 하였다.

[어원풀이] ‘행(行)+지/질/길[路]+ㅅ+골[谷]’로 분석된다. ‘행길’은 ‘行길’로 한자어와 고유어 결합한 중의적 혼종어(混種語)이다.

● 황골

[형태] 골짜기

[위치] ‘소양호선착장’ 안에 있는 ‘청평사선착장’에서 북서쪽 가까이에 ‘황골’이 있다.

[유래] 기존문헌에 서낭재 밑에 있는 골짜기라 하였다. 박씨묘를 지나 더 가면 나온다.

[어원풀이] ‘황(黃)+골[谷]’로 분석된다.

● 횃골

[별칭] 회골, 재터

[형태] 골짜기

[위치] ‘작은산막골’, ‘집텃골’과 ‘진골’ 사이에 있다.

[유래] 회(灰)가 나는 골짜기이다.

[어원풀이] ‘회(灰)+ㅅ+골[谷]’로 분석된다.

● 회전문(迴轉門)

[별칭] 청평사회전문

[형태] 고적

[위치] 청평사에 있는 남쪽 정문이다.

[유래] 보물 제164호로 지정되어 있다. 회전문은 정면 3칸 측면 1칸인 단층 맞배지붕 건물로 극락전 앞에 세워져 있던 불문(佛門)이다. 이문은 단독으로 세워져 있던 것이 아니라 양옆에 익랑을 두고 있었으므로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보이도록 계획된 것이 아니다. 양식적으로는 주심포계에서 익공계로 넘어가는 과도기적인 양식을 보이는데 기둥머리와 창방, 익공과 보 등이 틈없이 직접(直接) 해 있는 점은 익공식과 같으며, 다만 보머리를 그대로 밖으로 빼지 않은 점은 익공식과 다르다. 상부 구조도 3량으로 외목도리와 마루보를 쓰지 않은 간략한 모습이다. 평면은 어カン의 간살을 넓게 잡아 통로로 삼고, 좌우 협간은 아주 좁게 하여 신장상을 봉안하였던 것 같다. 통로 내부의 좌우에도 기둥 2개를 세워 문짝을 달도록 하였으나 현재는 문얼굴이나 문짝이 달려 있지 않다.

[어원풀이] ‘회(廻)+전(轉)+문(門)’으로 분석된다. ‘회(廻)’ ‘돌다, 방향을 바꾸다’라는 뜻이다. 윤회(輪廻, samsāra)에서 그 이름을 가져왔다. 큰 진리를 깨달아 윤회전생(輪廻前生)의 고통을 끊고 극락(極樂)으로 가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고 있다.



청평사회전문

추곡리(楸谷里)

위치와 현황 | 북에서 서쪽으로 죽엽산 자락이 펼쳐져 있고 동쪽으로는 소양호가 위치한 호수 주변의 산간마을이다. 자연마을로는 공골, 새마을터, 느티나무골, 횟골 등이 있다.

연혁 | 『춘주지』를 보면 북산외(北山外)에 추동(楸洞)이 기록되어 있다. 『여지도서』, 『호구총수』, 『춘천읍지』, 『춘천부지』, 『관동읍지』는 북산외면(北山外面)에 추곡리(楸谷里)로 표기하였다. 『조선지지자료』, 『강원도지지조서』는 북산외면(北山外面) 상추곡리(上楸谷里), 중추곡리(中楸谷里)로, 『강원도지』, 『수춘지』는 북산면(北山面) 추곡리(楸谷里)로, 『춘주지』, 『춘천백년사』는 추곡1리, 추곡2리로 표기하였다. 현재 행정리는 추곡리고 법정리는 추곡1리, 추곡2리다.

유래 | 추곡리는 가랫골 또는 추곡(楸谷)이라고도 불렸다. 추곡리에서 화천군 간척으로 넘어가는 고개인 추곡령(간척고개)에서 유래되었다고 전해진다. 행정구역 폐합 때 공골, 빈지두루, 웃가래골, 약수터, 중추곡을 병합하여 추곡리(楸谷里)라 하였다.

● 38평화문화마을

[별칭] 38평화마을, 38문화마을

[형태] 마을

[위치] 추곡리에서 위도 38선에 위치한 마을이다.

[유래] 추곡리에서 위도 38선에 위치한 마을로, 38선이 가지는 평화를 구현하려는 취지로 조성된 마을이다.

● 가랫골

[별칭] 추곡(楸谷), 추곡리(楸谷里)

[형태] 마을

[위치] 추곡2리마을회관에서 동쪽 '추곡약수' 오기전 '추곡삼거리' 못 미친 곳에 있다. 지금은 '가래골마을'이라 한다.

[유래] 『부산면사람들』에 가래나무가 많아서 가랫골이라 불렸으며 1960년경에 추곡으로 바뀌었다고 하였다. 지역민의 증언으로는 '중추곡(가랫골)'에 성황목인 큰 가래나무가 있어 마을의 유래가 되었는데 한국전쟁 때 불타 없어졌다고 한다. 추곡리 전체를 가리키는 행정명 '추곡리(楸谷里)'의 바탕이 되는 마을이다. '추곡약수터'가 유명하다.

[어원풀이] '가래[楸]+ㅅ+골[谷]'로 분석된다. '가래나무'는 추자목(楸子木)이라고도 하고 열매를 추자(楸子)라 한다. 또 삼거리처럼 마을 어귀가 갈라지는 곳이면 '가래골(마을)'은 '가래/가라/갈-[分,岐]+ㅅ+골[谷, 村]'로도 분석된다.

● 가루체험장

[별칭] 춘천시 북산면 소양호권역 가루체험장

[위치] 추곡2리

[유래] 2012년부터 춘천시 북산면 소양호권역 운영위원회는 10월 20일 마을의 캐릭터인 북산리를 주제로 체험축제를 열었다.

[어원풀이] '가루(食用 가루[粉])+체험장(體驗場)'으로 분석된다. '가루'는 '감자가루, 도토리가루, 메밀가루, 약초가루' 등 각종 식약품 가루를 뜻한다.

● 가장골

[형태] 골짜기

[위치] 『한국지명총람』에 추곡리 북쪽에 있는 산골짜기라 하였다.

[어원풀이] '가장+골[谷]'로 분석된다. '가장'의 의미는 불분명한데 '가재'의 방언형 '가장구/가장'을 취한 것일 수도 있고 '가(假)+장(葬)+골'로 분석하면 '가매장하던 곳'이 된다.

● 간척고개

[별칭] 추곡령

[형태] 고개

[위치] 간척고개의 소재지는 화천군 간동면 간척리(看尺里)이다. 같은 고개인데 추곡리에 오르는 고개는 '추곡령'이고, 화천군 간동면 간척리에서 오르는 고개는 '간척고개'이다.

[어원풀이] '간척(看尺-里)+고개[峴, 嶺]'로 분석된다. '간척'은 화천군 간동면 간척리(看尺里)를 가리킨다.

● 갈가지골

[형태] 골짜기

[위치] '추곡약수터'에서 북쪽으로 가다가 '아들나무'와 '토보' 맞은편에 있는 골짜기이다.

[유래] 『부산면사람들』에 "갈가지라는 짐승이 있었던 골이란 뜻이며, 이곳에는 개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제사터로 이용하기도 했다."라 하였다.

[어원풀이] '갈가지[개호주 ; 범의 새끼]+골[谷]'로 분석된다. '갈가지'는 고유어 '개호주'의 강원, 경상

방언이다. ‘개호주’는 ‘범의 새끼[虎種]’이다. ‘개호주’의 전국 방언형으로는 ‘갈가지, 개오지, 개호지’ 등이 있다.

● 곰터

[형태] 마을

[위치] 상추곡 부근이며, ‘애막골’ 북쪽에 있다.

[어원풀이] ‘곰[熊]+터[垈]’로 분석된다.

● 공골

[별칭] 공굴, 공동(孔洞)

[형태] 마을

[위치] 추곡리를 지나는 46번국도 춘양로에서 ‘추곡약수’ 못 가 추곡삼거리가 있다. 좌우 춘양로에서 남쪽 소양호 방향으로 북산로를 따라가면, 이내 추곡1리마을회관이 나온다. 더 내려가면 ‘허브캠프농원’이 자리한 동편 골짜기가 나온다. 이곳이 ‘공골’이며 그 끝에 소양호가 보인다.

[유래] 기존문헌에 가랫골 남쪽에 있는 마을이라 하였다. 추곡리 자연마을은 ‘공골, 느티나무골, 번지두루, 상추곡, 새말터, 약수골, 양지말, 응달말, 횟골’이 있다.

[어원풀이] ‘공/곰[熊, 神]+골[谷]’로 분석된다. ‘공골/공굴/공동(孔洞)’에서 ‘공(孔)’은 음차자(音借字)이다. ‘뱀골(蛇谷)/뱅골’에서 보듯, ‘곰골[熊谷]/공골’에서, 비음(ㅁ~ㅇ) 사이 교체는 지명에서 흔한 현상이다. 평안남도 회창군 대곡리 소재한 ‘공골’은 ‘금골’이라고도 한다. 이 ‘금골’의 ‘금’은 ‘곰’과 더불어 ‘곰/금/감/검/굼/금마/개마’ 등의 이형태를 가진 것들로서, 그 기본어원형은 ‘kVm(V)’이며, 그 기본의미는 ‘신(神), 승(崇)’이다. 전의(轉義)되어 ‘고(高), 대(大)’를 뜻하기도 한다.

이외에 ‘공골’은 ‘구석>구역>구영>공[隅]+골[谷]’

로 분석할 수 있다. 구석에 있는 마을이란 의미이다. ‘공골’은 전국 여러 곳에 있는데, 특별한 지명 의미(유래)를 밝히지 않는다. 일부 ‘공골’의 ‘공’에 ‘공(孔), 공(貢), 공(共)’을 썼으나 모두 음차자(音借字)로 보인다.

● 과골

[형태] 골짜기

[위치] 추전리 방향으로, 소양호에 가까운 곳에 있다. 소양호 건너 맞은편에 ‘솟돌봉’이 보인다.

[어원풀이] ‘과/과가리[急]+골[谷]’로 분석할 수 있다. 옛말 ‘과골이>과가리>과가’ 등을 거치며, ‘급자기(急)’란 뜻을 가진다.

● 깨바우골

[형태] 마을

[위치] ‘작은나있다골’ 너머 가까이에 있다.

[어원풀이] ‘깨(깨진, 破)+바우[岩]+골[谷]’로 분석될 수 있다.

● 내평리(內坪里)

[별칭] 빙지두루, 빙지평(冰地坪)

[형태] 마을

[위치] 예전에 ‘공골’ 안쪽(서쪽)은 소양강에서 면쪽, 내륙을 가리킨다. 지금은 추곡삼거리에서 남쪽으로 내려와 처음 소양호가 보이는 골짜기 앞이 바로 ‘빙지두루(내평리)’이다. 부근에 ‘허브캠프농원’도 있다. 북산면 내평리와는 다른 지명이다.

[유래] 기존문헌에 공골 바깥쪽에 있는 마을이라 하였다.

[어원풀이] ‘내(內)+평(坪)+리(里)’로 분석된다.

● 놋골

[별칭] 놋골

[형태] 마을

[위치] 추곡2리마을회관에서 윤수현으로 들어가는 초입에 있다.

[어원풀이] ‘궤/뇌(雷)+ㅅ+골[谷]’로 분석할 수 있다. 양양, 영월, 제천, 충주에 ‘놋골’이 있으며 ‘뇌(雷)+ㅅ+골[谷]’로 분석하고 있다.

● 느티나무골

[별칭] 느티나무배기, 중추곡, 서낭거리.

[형태] 마을

[위치] 추곡초등학교 위에 있다.

[유래] 『춘천의지명유래』에 느티나무가 있는 마을이라 하였다.

[어원풀이] ‘느티나무[槐木]+골[谷]’로 분석된다. 별칭인 ‘중추곡(中楸谷)’은 ‘중(中)+추곡(楸谷)’으로 분석되며, ‘가랫골 가운데 쪽 마을’을 뜻하는 한자 지명이다.

● 대방골

[형태] 골짜기

[위치] ‘영석교’에서 동쪽 ‘추곡약수터’로 가지 않고, 북쪽으로 조금 가면 ‘사방댐’이 나온다. 이 ‘사방댐’ 북동쪽 가까이에 ‘대방골’이 있다.

[유래] 『북산면사람들』에 약수터로 올라가기 전에 난 골짜기라 하였다.

[어원풀이] ‘대방(大防)+골[谷]’로 분석된다. ‘대방(大防)’은 큰 제방이다.

● 문바위

[형태] 바위

[위치] 사명산 추곡약수 방향 산기슭에 있다.

[유래] 『북산면사람들』에 “바위가 대문처럼 생겼다고 해서 문바위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문바위가 있는 곳에서 사방을 둘러보면 춘천, 양구, 화천의 삼군이 다 보인다.”라 하였다.

[어원풀이] ‘문(門)+바위[岩]’로 분석된다.

● 문쇄골

[별칭] 문쇄골, 문쇠골, 문세골

[형태] 골짜기

[위치] 중추골 북쪽에 ‘큰골’이 있고, ‘큰골’ 북쪽에 ‘문쇄골’이 있다. ‘문쇄골’ 서쪽 가까이에 ‘횃골’이 있다.

[유래] 마을에 살던 선비가 일은 하지 않고 책만 읽고 있어서 ‘문세(文世)-골’이라 했다고 한다.

[어원풀이] 별칭은 유래에 의하면 ‘문(文)+세(世)+골[谷]’로 분석된다. ‘문쇄골’의 ‘문쇄’는 농(籠)이나 장(檻) 따위의 한 부분으로, 문짝 바로 옆에 세로로 댄 나무이다.

● 문박골

[별칭] 문바골

[형태] 골짜기

[위치] 소양호가 추곡리로 거의 다 들어오는 동쪽 산기슭에 난 골짜기이다. ‘문박골’ 북쪽 가까이에 ‘수인터널’이 있다.

[유래] 『북산면사람들』에 서낭당 비슷하게 생긴 것 이 있었다고 하였다.

[어원풀이] ‘문(門)+박/밖[外]+골[谷]’로 분석할 수 있다.

● 바깥공골

[형태] 마을

[위치] ‘공골’ 바깥쪽이란 말은 ‘안쪽’의 반대말이니

예전엔 소양강 쪽을 가리킨다. ‘공골’ 안쪽은 ‘빈지두루’가 있고, 그 바깥쪽은 1973년 소양댐 건설로 소양호가 수몰되었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공골 바깥쪽에 있는 마을 이라 하였다.

[어원풀이] ‘바깥[外]+공골’로 분석된다. ‘공골’ 참조.

● 배나뭇골

[별칭] 배나무골

[형태] 마을

[위치] ‘새말터’ 남쪽에서 오항리 가는 곳에 있다.

[유래] 기준문헌에 배나무가 있는 골짜기라 하였다.

[어원풀이] ‘배나무[梨]+ㅅ+골[谷]’로 분석된다.

● 뱀골

[형태] 골짜기

[위치] 1973년 소양호에 수몰되었다.

[어원풀이] ‘뱀[蛇]+골[谷]’로 분석된다.

● 벼들구미

[별칭] 벼들그미, 벼들금이, 벼들지미, 벼들짐

[형태] 골짜기

[위치] 상추곡에 있다. ‘벼들구미’ 서쪽은 ‘추곡령’

이다. 상추곡 아래쪽 오목한 골짜기로 양쪽에 개울 이 흐른다.

[어원풀이] ‘벼들/벼드나무[柳]+구미’로 분석된다. 지명접미사 ‘-구미’는 ‘바다나 강가 주변에서 음푹 들어간 곳이나 후미진 곳’을 뜻한다.

● 병골

[형태] 골짜기

[위치] 추곡리 ‘운수골’ 북단, 화천군 간동면 간척리 가까이에 있다. ‘사방댐’ 북쪽에서도 가까운 편이다.

[어원풀이] ‘병(瓶)+골[谷]’로 분석된다. ‘병(瓶)’은 주로 액체나 가루를 담는 데에 쓰는 목과 아가리가 좁은 그릇이다.

● 복희골

[형태] 골짜기

[위치] 상추곡, ‘산지당골’ 서쪽 가까이에 있다. 춘천시 북산면 추곡리와 화천군 간동면 간척리와 접경을 이루는 죽엽산(竹葉山) 남쪽이다.

[어원풀이] ‘복희+골[谷]’로 분석된다. ‘복희’의 의미는 불분명하다. 고대 전설상의 제왕으로 삼황(三皇)의 한 사람인 복희씨(伏羲氏/伏羲氏)가 있다.

● 북산공소

[별칭] 천주교 춘천교구 샘밭성당 북산공소, 샘밭성당 북산공소

[형태] 종교

[위치] 추곡1리, 공골로 가기 전 북산로 남쪽 가까이에 있다.

[어원풀이] ‘북산(北山-面)+공소(公所)’로 분석된다. ‘공소(公所)’는 가톨릭에서 본당보다 작은 교회 단위로, 신부가 상주하지 않는 예배소나 그 구역을 이른다.

● 빈지두루

[별칭] 번지두루, 빈지평(彬地坪)

[형태] 마을

[위치] 예전에 ‘공골’ 안쪽(서쪽)은 소양강에서 면쪽, 내륙을 가리킨다. 지금은 추곡삼거리에서 남쪽으로 내려와 처음 소양호가 보이는 골짜기 앞이 바로 ‘빈지두루’이다. ‘공골’ 남쪽 산릉 너머 소양호에 닿는 비탈진 곳이 ‘빈지두루’이고, 그 남쪽 오항리로 향하는 곳이 ‘새말터’이다. ‘빈지두루’ 부근에

‘로템수양관’과 ‘허브캠프농원’이 있다.

[어원풀이] ‘빈지(門의 일종)+두루/들[野, 坪]’로 분석할 수 있다. ‘빈지’는 한 장씩 끼었다 폐었다 하게 만든 문(門)이다. 별칭에 보이는 ‘번지’는 논밭의 흙을 고르는 데 쓰는 농기구로서, 보통 씨를 뿌리기 전에 모판을 판관하게 고르는 데 쓴다. 고유지명인 ‘번지두루’가 별칭 ‘내평리(內坪里)’를 가지는 것은 ‘번지’가 농사와 관련한 것으로 볼 수 있게 한다. 한편 ‘번지두루’의 한자 지명인 ‘빈지평(彬地坪)’은 음차자(音借字)이고, ‘빈지두루’는 그에 따른 변이음(變異音)이다. 이곳은 ‘번지바우’가 있던 둘이다.

● 번지바우

[별칭] 번지바위

[형태] 바위

[위치] ‘빈지두루’가 있는 곳이다.

[유래] 빈지를 닮은 바위이다.

[어원풀이] ‘빈지+바우[岩]’로 분석된다. ‘빈지두루’ 참조.

● 사명산(四明山)

[별칭] 삼연산(三連山)

[형태] 산

[위치] 추곡리와 양구군과 화천군에 걸쳐 있는 산으로 행정구역상 주소는 화천군 간동면 방천리 산 1~24번지이다.

[유래] 『북산면사람들』에 “해발 1198m이다. 사명산을 삼연산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는 춘천, 양구, 화천의 3개 면이 맞닿아 있다는 뜻이다.”라 하였다.

● 사방댐

[형태] 수리

[위치] 대방골 아래에 있다. 추곡약수터 북서쪽 가까이에 있다.

[유래] 산림 내 황폐계류(계곡)의 침식을 방지하고, 산사태 발생으로 인한 토사, 석력, 유목 등의 유출 방지를 목적으로 설치한 재해 예방 시설이다.

● 상추곡(上楸谷)

[별칭] 웃가랫골

[형태] 마을

[위치] ‘웃가래골/상추곡(上楸谷)’은 추곡1리 지역이다. 근처 도로지명은 ‘웃가래골길/상추곡로’가 아니라 ‘중추곡길’과 ‘상추곡길’로 산재되어 있다.

[어원풀이] ‘상(上)+추곡(楸谷)’으로 분석된다.

● 산지당골

[형태] 골짜기

[위치] 상추곡 ‘복희골’ 옆에 있다. 추곡리와 화천군 간동면 간척리와 접경을 이루는 죽엽산 남쪽이다.

[유래] 『북산면사람들』에 산신제를 지내던 곳이라 서 산지당골이라고 불렸다고 하였다.

[어원풀이] ‘산지당/산제당(山祭堂)+골[谷]’로 분석된다.

● 새마을터

[별칭] 새말터

[형태] 마을

[위치] ‘빈지두루’ 남쪽에 있으며, ‘배나무골’ 북쪽에 있다. 그 동쪽으로 ‘솟돌봉’이 보인다.

[유래] 기준문헌에 새로 생긴 마을이라 하였다.

[어원풀이] ‘새[新]+마을[村]+터[垈]’로 분석된다.

● 서돌골

- [별칭] 서덜골, 석돌골
- [형태] 골짜기
- [위치] 상추곡 북쪽으로, 추곡리와 화천군 간동면 간척리와 접경을 이루는 죽엽산 남쪽 가까이에 있다.
- [유래] 『북산면사람들』에 땅을 개간하려고 하면 땅에서 돌이 많이 나와서 서돌골이라 이름 지었다고 하였다.
- [어원풀이] '서돌/서덜+골[谷]'로 분석된다. '서덜'은 냇가나 강가 따위의 돌이 많은 곳이다. '서덜밭'은 강가나 냇가의 돌이 많이 깔린 땅에 있는 밭이다.

● 석장골

- [형태] 골짜기
- [위치] 상추곡 서쪽으로, '추곡령' 북쪽 가까이에 있다.
- [유래] 차돌을 캐는 광산이 있었다고도 하며 돌이 많아 그것을 가지고 장사를 지냈다고도 하였다.
- [어원풀이] '석(石)+장(葬)+골[谷]'로 분석된다. '석장/채석장(採石場)+골[谷]'로도 분석된다.

● 소양호권역홍보관

- [별칭] 소양호홍보관, 홍보관
- [형태] 건물
- [위치] 오항리 2리마을회관 바로 아래쪽에 있다.
- [유래] 북산면 일대의 소양호 권역의 자연 경관과 농어산촌의 특산품을 홍보하는 곳이다.

● 소양호물안개캠핑장

- [형태] 레저
- [위치] 소양호가 추곡리로 들어와 '추곡천'으로 이어지는 초입 바로 북동쪽에 있다. 추곡리 산 145-4번지이다.

● 수인(水仁)터널

- [형태] 터널
- [위치] 추곡리에서 양구읍 수인리(水仁里)로 이어지는 춘양로에 있다.

● 숫돌골

- [별칭] 숫돌골, 숫돌봉
- [형태] 골짜기
- [위치] 추곡리 최남단, 소양호 동쪽 가까이, '숯돌봉' 아래에 있다.
- [유래] 쟁기를 가는 숫돌이 많이 난다고 한다.
- [어원풀이] '숯돌+골[谷]'로 분석된다. '숯돌'은 칼이나 낫 따위의 연장을 갈아 날을 세우는 데 쓰는 돌이다. 별칭인 '숯돌골'은 전의(轉義)된 것이다.

● 아갈바우

- [형태] 바위
- [위치] 횃꼴, 횃꼴고개 안쪽에 있다. 지금은 도로를 개설하면서 훼손되었다고 한다. 다.
- [어원풀이] '아갈/아가리[口]+바우[岩]'로 분석된다. '이가리'는 '입'을 속되게 이르는 말이다.

● 아들나무

- [형태] 나무
- [위치] 큰길에서 추곡야수터로 가는 길가에 있다.
- [유래] 『북산면사람들』에 “물푸레나무이다. 예전에 아들을 못 낳는 사람이 돌을 나무 사이에 난 구멍 속으로 던져서 넣으면 아들을 낳는다는 전설이 전한다.”라 하였다.

- [어원풀이] '아들[男兒]+나무[木]'로 분석된다.

● 안공골

- [별칭] 안공굴

[형태] 마을

[위치] ‘공골’ 안 마을인 ‘안공골’은 1973년 소양댐(소양호) 안에 수몰되었다.

[어원풀이] ‘안[内]+공골’로 분석된다. ‘공골’ 참조.

● 안버덩

[형태] 들

[위치] ‘새말터’ 바로 북쪽(안쪽)에 있다.

[어원풀이] ‘안[内]+버덩’으로 분석된다. ‘버덩’은 높고 평평하며 나무는 없이 풀만 우거진 거친 들이다.

● 약수골

[별칭] 약수곡, 여동(汝洞)

[형태] 마을

[위치] 추곡약수터 부근에 있는 마을이다.

[어원풀이] ‘약수(藥水)+골[谷]’로 분석된다. 약수는 추곡약수를 말한다.

● 약수교(藥水橋)

[형태] 다리

[위치] 추곡약수터로 올라가는 입구에 있다.

[유래] 총연장 12m, 교폭 13m로 1996년 완공되었다고 하였다.

● 약수터

[형태] 터

[위치] 추곡약수가 있는 곳이다.

[어원풀이] ‘약수(藥水)+터[垈]’로 분석된다. ‘약수’는 추곡약수를 말한다.

● 애내골

[형태] 마을

[위치] 추곡2리마을회관에서 춘양로 북쪽 추곡천

가에 있다. 그 서편에 ‘애막골’이 있다.

[어원풀이] ‘애/아[兒]+내[川]+골[谷]’로 분석된다.

‘애내’는 ‘여우내’에서 와전된 것으로 보인다.

● 애막골

[형태] 마을

[위치] 상추곡 동쪽 가끼이에 있다. ‘애막골’ 북쪽엔 ‘곰터’가 있다.

[유래] 아이가 죽으면 이 골짜기에 묻었다고 한다.

[어원풀이] ‘애/아이[兒]+막(幕)+골[谷]’로 분석할 수 있다. ‘애막’은 ‘움집’이고, ‘산막’이다.

● 양지말

[형태] 마을

[위치] ‘중추곡’ 남쪽 마을이다. ‘양지말’ 서쪽에 ‘종노골/종늦골’이 있다.

[유래] 기존문헌에 양지쪽에 있는 마을이라 하였다.

[어원풀이] ‘양지’(陽地)+‘말[村]’로 분석된다.

● 영석교(永夕橋)

[형태] 다리

[위치] 추곡삼거리에서 ‘추곡약수터’로 가기 전에 ‘추곡천(楸谷川)’에 놓인 다리이다.

[유래] 1993년 완공된 8m의 다리이다.

● 원짝골

[형태] 골짜기

[위치] 추곡리에서 양구읍 수인리(水仁里)로 이어진 춘양로에 있는 ‘수인터널’ 바로 위에 ‘작은덕골’과 그 위로 ‘큰덕골’이 있다. ‘큰덕골’ 바로 위엔 ‘원짝골’이 있다.

[어원풀이] ‘원[左]+짝[雙]+골[谷]’로 분석된다.

● 운수현

[형태] 고개

[위치] 추곡리 북단에 있으며, 운수현 서쪽으로 가면 화천군 간동면 방천리와 접경을 이루는 죽엽산이 나오고, 운수현에서 북쪽으로 가면 양구군 간동면 방천리 파라호에 이른다.

[어원풀이] ‘운수(雲水)+현(峴)’으로 분석된다.

● 웃가랫골

[별칭] 상추곡(上楸谷)

[형태] 마을

[위치] ‘웃가래골/상추곡(上楸谷)’은 추곡1리 지역이다. 근처 도로지명은 ‘웃가래골길/상추곡로’가 아니라 ‘중추곡길’과 ‘상추곡길’로 산재되어 있다.

[어원풀이] ‘우[上]+ㅅ+가래[楸]+골[谷]’로 분석된다.

● 음달말

[별칭] 음달말

[형태] 마을

[위치] 추곡삼거리 북쪽 가까이 있으며, 그 서쪽에 약수교가 있다.

[어원풀이] ‘응달[陰地]+말[村]’로 분석된다.

● 임사나무골

[별칭] 임사나뭇골

[형태] 골짜기

[위치] ‘새말터’ 남쪽, 오항리 가기 전에 있다.

[유래] 『북산면사람들』에 예전에 임씨라는 부자가 살던 땅이 있었는데, 그가 죽고 나서 사람들이 그 지역을 임씨네 땅이라는 뜻으로 ‘임사나무골’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이 유래라고 하였다.

[어원풀이] ‘임사/임씨(林氏)+나무[木]+골[谷]’로 분석할 수 있다.

● 작은나있다골

[형태] 마을

[위치] 추곡2리마을회관 남쪽 ‘소양강권역홍보관’ 조금 아래에 ‘큰나있다골’이 있고, 그 옆에 ‘작은나있다골’이 있다.

[유래] 『북산면사람들』에 노인들이 ‘내가 여기 있다’라고 해서 그렇게 이름 지었다고 하였다.

[어원풀이] ‘작은[小]+나[我]+있다[有]+골[谷]’로 분석된다.

● 작은덕골

[형태] 골짜기

[위치] 추곡리에서 양구읍 수인리(水仁里)로 이어진 춘양로에 있는 ‘수인터널’ 바로 위에 ‘작은덕골’과 그 위로 ‘큰덕골’이 있다. ‘큰덕골’ 바로 위엔 ‘원짜골’이 있다.

[어원풀이] ‘작은[小]+덕(둔덕)+골[谷]’로 분석된다. ‘덕’은 고구려어의 유산으로 그 의미는 ‘높다[高], 크다[大]’로 전의(轉義)되었다.

● 장수하늘소 비석

[별칭] 거무성, 거무성산

[형태] 비석

[위치] ‘추곡약수터’ 아래 산기슭에 천연기념물 제75호로 지정된 ‘장수하늘소(돌다래미)’ 비석이 있다. 1973년 소양호 수몰을 피해 추전리 ‘거무성/거무성산’에서 추곡리 ‘추곡약수터’ 아래 길목으로 비석을 옮겨놓았다.

[유래] 천연기념물 제75호로 지정된 ‘장수하늘소(돌다래미)’가 발견된 곳은 북산면 대곡리 맞은 편, 북산면 추전리 소양호 인근에 있는 ‘거무성/거무성산’이다. 1930년대 춘천중학생이 곤충채집을 나갔다가 ‘장수하늘소’를 잡아옴으로써 이곳이 ‘장수

하늘소’의 남방한계서식지로 알려지게 된 것이다. ‘장수하늘소’는 러시아-만주 국경 ‘우수리’ 지방에 서만 사는 곤충으로, 학술적인 중요성 때문에 이곳은 일제강점기 때부터 보호구역으로 설정돼 오던 곳이었다. 그러나 이곳이 1973년 소양호에 완전히 잠기게 됨으로써 서식지의 이동이 불가능한 ‘장수하늘소’는 우리나라에서 영영 사라져버리는 셈이었다.

● 종늦골

[별칭] 종느꼴, 종느골, 종늦골, 종루골, 종노골, 종로골

[형태] 골짜기

[위치] ‘종노봉/종누봉’은 오항리 북단과 추곡리 남단이 접하는 곳에 위치하나 그 소재지는 추곡리이다.

[유래] 골짜기가 길어서 종로골이라고 했다고 한다.

[어원풀이] 별칭과 유래에 따르면 ‘종로골’은 ‘종(終)+로(路)+골[谷]’로 분석할 수 있다. 또는 ‘종루(鐘漏)+人+골[谷]’로 분석할 수도 있다. ‘종루(鐘漏)’는 ‘때를 알리는 종과 물시계’. 또는 그런 설비가 있는 곳’이고 ‘종루(鐘樓)’는 ‘종을 달아 두는 누각’이다.

가는 ‘종로골’의 길이 멀어서 ‘종로봉(終路峰)’이라 부른다고도 전한다.

[어원풀이] ‘종늦골’ 참조.

● 죽엽산(竹葉山)

[형태] 산

[위치] 추곡리와 화천군 간동면 방천리와 접경을 이루는 고도 859m의 산으로 행정구역상 소재지는 화천군 간동면 방천리이다.

● 차바위

[별칭] 차바우

[형태] 바위

[유래] 『북산면사람들』에 자동차처럼 생긴 바위가 도로 옆에 있었는데 지금은 수몰되었다고 하였다.

[어원풀이] ‘차(車)+바위[岩]’로 분석된다.

● 추곡계곡

[형태] 계곡

[위치] ‘중추곡’에서 소양호에 이르는 계곡이다. 주변에 ‘양지말’이 있다.

[어원풀이] ‘추곡(楸谷)+계곡(溪谷)’으로 분석된다.

● 종로봉

[별칭] 종누산(鐘漏山), 종노봉, 종느봉, 종누봉, 종로봉, 종루봉, 종류봉

[형태] 산

[위치] 오항리 북단과 추곡리 남단이 접하는 곳에 위치하나 그 소재지는 추곡리이다.

[유래] 『북산면사람들』에 “현재 추곡초등학교가 있는 곳의 뒷산이다. 학교는 종을 쳐서 수업시간을 알리므로 ‘종을 친다’라는 의미에서 이름을 종로골이라고 부른다.”라 하였다. ‘종누산/종로봉’으로

● 추곡사(楸谷寺)

[형태] 사찰

[위치] 추곡약수터 동편 산속에 있는 사찰이다.

● 추곡삼거리

[형태] 도로

[위치] ‘추곡삼거리’에서 서쪽으로는 ‘중추곡’을 지나 ‘상추곡’으로, 동쪽으로는 ‘추곡약수터’로 갈라진다. 남쪽으로는 소양호와 추전리와 오항리 방향을 향한다.

● 추곡약수

[별칭] 사명약수

[형태] 샘

[위치] 약수골에 있는 샘이다.

[유래] 추곡 동쪽에 있는 약수터로 옛날 추곡리에 사는 장님 김성련(金成練)의 현몽으로 약수터를 발견했다 하는데, 위장병에 효험이 있다고 한다. 약수가 솟는 곳이 두 군데인데 위에 있는 약수는 강원보라는 사람이 꿈에 사명산 산신령의 계시를 받고 발견하였고, 아래에 있는 약수는 맹인(盲人) 김성련이 이곳을 지나가다 돌부리에 채여 넘어졌는데 바로 그곳에서 샘이 솟았다는 전설이 있다. 약수 효험이 알려지면서 1980년대까지 요양이나 약수 명소로 큰 인기를 끌었다. 당시의 명성이 남아 아직도 추곡리 일대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빼놓을 수 없는 장소로 손꼽히고 있다.

[어원풀이] ‘추곡(楸)+약수(藥水)’로 분석된다. 사명산 남쪽자락에 있어서 ‘사명약수’라고도 부른다.

● 추곡터널

[형태] 터널

[위치] 춘양로가 지나는 추곡리 서쪽 끝과 화천군 간동면 간척리 사이에 있는 터널이다. 추곡터널 위 능선으로 상추곡길이 있다. 이 터널이 생기기 전에는 운수골로 해서 산을 넘어 다녔다고 한다.

● 큰골

[형태] 골짜기

[위치] 추곡리마을회관이 ‘큰골’ 입구에 있다. ‘중추곡’ 북쪽이다. 바로 위에 ‘문쇄골(문세골)’이 있다. [어원풀이] ‘큰[大]+골[谷]’로 분석된다.

● 큰나있다골

[형태] 마을

[위치] 추곡2리마을회관 남쪽 ‘소양강권역홍보관’ 조금 아래에 있다. 그 옆에 ‘작은나있다골’이 있다.

[어원풀이] ‘큰[大]+나있다골’로 분석된다. ‘작은나있다골’ 참조.

● 큰덕골

[형태] 골짜기

[위치] 추곡리에서 양구읍 수인리(水仁里)로 이어진 춘양로에 있는 ‘수인터널’ 바로 위에 ‘작은덕골’과 그 위로 ‘큰덕골’이 있다. ‘큰덕골’ 바로 위엔 ‘왼쪽골’이 있다.

[어원풀이] ‘큰[大]+덕골’로 분석된다. ‘덕골’ 참조.

● 토보등

[별칭] 토봇등, 토보등

[형태] 마을

[유래] 『북산면사람들』에 의병이 활동할 당시 돌담을 쌓았다고 해서 토보 이라고 부른다고 하였다.

[어원풀이] ‘토(土)+보(堡)+ㅅ+등(등성이)’으로 분석된다. ‘등(등판)’은 산등성이의 평평하게 넓은 곳을 가리킨다.

● 회곡령(灰谷嶺)

[별칭] 횃골고개.

[형태] 고개

[위치] 추곡2리마을회관에서 서편 추곡1리마을회관 방향으로 ‘춘양로’가 아래 ‘중추곡로’가 산재한 곳, 아래쪽 산등성이에 자리한 작고 깊은 고개이다.

[유래] 묘를 쓸 때 이곳에서 나는 횃가루를 많이 썼다고 한다.

[어원풀이] ‘회(灰)+곡(谷)+령(嶺)’으로 분석된다.

● 횃골

[별칭] 회골

[형태] 마을

[위치] 추곡2리마을회관에서 서편 추곡1리마을회
관 방향으로 ‘춘양로’가 아래 ‘중추곡로’가 산재한
곳, 아래쪽 산능성이에 자리한 작고 짧은 고개 아
래 마을이다. 앞래 ‘횃골천’이 흐른다.

[유래] 회곡령(灰谷嶺) 밑에 있는 마을이라 하였다.

[어원풀이] ‘회(灰)+へ+골[谷]’로 분석된다.

● 횃골천

[형태] 하천

[위치] 횃골 마을 앞으로 흐르는 개천이다. ‘추곡천’
의 한 지류(支流)이다.

위치와 현황 | 마을 대부분 지형이 비교적 완만한 구릉성 지대로 이루어져 있으며, 동쪽에 소양호가 자리하고 있다. 자연마을로는 가랫골, 가랫양지, 모래밭, 바깥모래밭 등이 있다.

연혁 | 『춘주지』를 보면 북산외(北山外)에 추동(楸洞)이 표시되어 있는데 추전리를 의미하는지 추곡리를 의미하는지 명확하지 않다. 『여지도서』, 『호구총수』, 『춘천읍지』, 『춘천부지』, 『관동읍지』는 북산외면(北山外面) 추곡리(楸谷里)로 표기하였다. 『조선지지자료』, 『강원도지지조서』는 북산외면(北山外面) 하추곡리(下楸谷里), 사전리(沙田里)라 표기하였는데 나중에 추전리(楸田里)가 되었다. 『강원도지』, 『수춘지』, 『춘주지』, 『춘천백년사』는 북산면(北山面) 추전리(楸田里)로 표기하였다. 현재 행정리와 법정리는 동일하게 추전리다.

유래 | 본래 춘천군 북산외면 지역이었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하추곡리(下楸谷里)와 사전리(沙田里)를 병합하여 추전리(楸田里)라 하였다.

● 가랫골

[별칭] 추곡(楸谷), 추곡리(楸谷里)

[형태] 마을

[위치] 기존문헌에 추전리와 추곡리에 걸쳐있는 마을이라 하였다.

[유래] ‘가랫골’은 곧 ‘추곡리(楸谷里)’로서, ‘추곡리’의 일부와 예전 ‘사전리(沙田里)’를 병합하여 ‘추전리(楸田里)’가 되었다. 예전에는 ‘가랫골’이 추전리와 추곡리에 걸쳐있는 마을이었는데, 1973년 소양호에 여러 곳이 수몰되면서, 추전리와 추곡리에 걸쳐있던 가랫골 지역도 수몰되어, 이젠 육로로 추곡리와 추전리를 오가려면 소양호가 가로막고 있어서 ‘오항리’를 거쳐 가야만 한다.

[어원풀이] ‘가래[楸]+ㅅ+골[谷]’로 분석된다. ‘가래나무가 많은 골짜기, 마을’이 된다. 삼거리처럼 마을 어귀가 갈라지는 곳이면 갈라진 마을이나 골짜기가 된다.

● 가래양지

[별칭] 가래양지, 추양(楸陽), 가래양지포구

[형태] 마을

[위치] 추전리 북쪽, 추곡리와의 경계이다.

[유래] 기존문헌에 가랫골 양지쪽 마을이라 하였다. ‘가랫골’ 안에 있던 ‘양지들(마을)’에서, ‘가랫골’ 초입에 있던 소양강 포구 마을을 ‘가래양지’ 또는 ‘가래양지포구’라 한다. 소양강에서 배를 대던 ‘가래양지포구’가 있고, 그에 따른 ‘가래양지내(추양천), 가래양지보, 가래양지주막’ 등이 있었으나, 1973년 소양호에 모두 수몰되었다.

[어원풀이] ‘가래[楸]+ㅅ+양지(陽地)’로 분석된다.

● 감투바우

[형태] 바위

[위치] 미상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감투처럼 생긴 바위라 하였다.

[어원풀이] ‘감투+바우[岩]’로 분석된다. ‘감투’는 ‘탕건’을 속되게 이르는 말이며, 예전에 머리에 쓰던 의관(衣冠)의 하나로서, 말총, 가죽, 형걸 따위로 텡건과 비슷하나 턱이 없이 빛밋하게 만들었다.

● 개여울

[형태] 여울

[위치] 『한국지명총람』에 소양강에 있는 여울이라 하였다.

[어원풀이] ‘개[溪]+여울[灘]’로 분석된다.

● 거무성

[별칭] 거무성산

[형태] 산

[위치] 북산면 대곡리 맞은 편, 추전리 소양호 인근, 속칭 ‘거무성산’에 있는 천연기념물 75호 ‘장수하늘소’ 발생지다. 1973년 소양호 수몰을 피해 추곡리 ‘추곡약수터’ 아래 길목으로 천연기념물 제75호로 지정된 ‘장수하늘소(돌다래미)’ 비석을 옮겨놓았다.

[어원풀이] ‘거무/검/감[黑, 神, 崇]+성(城)+산(山)’으로 분석할 수 있다. ‘거무성’은 ‘거무/거무/거미/거미[蜘蛛]+성(城, 家)’으로 분석되며, ‘거미집’이다.

● 굴바우

[형태] 바위

[위치] 미상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바위 밑에 굴이 있다고 하였다.

[어원풀이] ‘굴(窟)+바우[岩]’로 분석된다.

● 깃대봉

[형태] 산

[위치] 추전리, 소양호 서남단에 일부 남은 ‘안모래 빙’ 북쪽, ‘뒷골’ 위에 있는 측량의 깃점이 되던 산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측량 표준기를 끊은 산이라 하였다.

[어원풀이] ‘기(旗)+ㅅ+대(始)+봉(峰)’으로 분석된다.

콩이나 팥 따위의 꽃이다.

● 논꼴

[별칭] 논골

[형태] 골짜기

[위치] 『한국지명총람』에 논이 있는 골짜기라 하였는데 현재는 수몰되었다.

[어원풀이] ‘논[畠]+ㅅ+꼴[谷]’로 분석된다.

● 냉정터

[형태] 폭포

[위치] 추전리에 있는 폭포로 물이 매우 차서 여름에 냉천(冷泉)으로 이용된다고 하였는데 수몰되었다.

[어원풀이] ‘냉(冷)+정(井)+터[基]’로 분석된다. ‘찬 우물물과 같은 터전(폭포)’이다.

● 대장바웃골

[형태] 골짜기

[위치] 『한국지명총람』에 여냇골 밑에 있는 골짜기라 하였다.

[어원풀이] ‘대장(大將)+바우[峯]+ㅅ+꼴[谷]’로 분석된다. 주변 바위들 사이에서 가장 큰 바위가 있는 골짜기이다.

● 노장골

[형태] 골짜기

[위치] ‘노장골’과 ‘집장골’은 서로 옆에 있다. 양구읍 수인리 방면 소양호로가 막 추전리를 벗어나 ‘양구농업기술학교’에 다다르기 전, 서쪽으로 깊이 들어가는 골짜기가 있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양구군과의 경계에 있는 골짜기라 하였다.

[어원풀이] ‘노/로(路)+장(長)+골[谷]’로 분석된다.

● 돌력네미

[형태] 골짜기

[위치] 미상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돌아서 넘어간다는 골짜기라 하였다.

[어원풀이] ‘{돌아가-[廻]/돌-}+[악/억(파생접미사)}+네미(지명접미사)’로 분석된다. 지명접미사 ‘-내미/-네미’는 전국적으로 공존한다. 그 어원형은 {-나미}이며, 모음교체로 {-너미}를 가지며, 그리고 모음변이에 의한 {-내미/-네미}형이 흔히 쓰인다.

● 녹박골

[별칭] 늑박골

[형태] 골짜기

[위치] ‘선드레’ 근처에 있던 골짜기였으나 수몰되었다.

[어원풀이] ‘녹/노굿+박/밭[田]+골[谷]’로 분석할 수 있다. ‘녹’은 ‘노굿’의 강원 방언이다. ‘노굿’은

● 동동산

[형태] 산

[위치] 기존문헌에 추전리 가운데 있는 작은 산이라 하였다.

[유래] 동네 한가운데에 동동 떠 있는 듯한 작은 산

이다.

[어원풀이] ‘동동(의태어)+산(山)’으로 분석된다. ‘동동’은 작은 물체가 떠서 움직이는 모양을 표현하는 의태어이다.

● 뒷골

[형태] 골짜기

[위치] ‘안모래밭(내사전)’ 뒤쪽 골짜기이다.

[유래] 기존문헌에 추전리 뒤에 있는 골짜기라 하였다.

[어원풀이] ‘뒤[後]+ㅅ+골[谷]’로 분석된다.

● 마산

[형태] 산

[위치] 미상이다.

[유래] 기존문헌에 말등처럼 생긴 산이라 하였다.

[어원풀이] ‘마(馬)+산(山)’으로 분석된다.

● 모래밭

[별칭] 사전(沙田), 사전리(沙田里)

[형태] 마을

[위치] 기존문헌에 가랫양지 남쪽 소양강가에 있는 마을로 모래가 많다고 하였다.

[유래] ‘모래밭’ 곧 ‘사전리(沙田里)’는 조선시대 광해군 때 ‘칠서의 난’으로 역사를 바꾸었던 무륜당의 산채가 있었던 곳으로, 1934년 동아일보에 연재되었던 윤백남의 ‘흑두건’은 역사 속의 이곳을 담고 있다. 허균의 ‘홍길동 모티브가 되었던 이 사건은 잘 알려진 서양갑, 박옹서 외에 당시 춘천부사의 아우였던 심우영도 등장한다. 이 일대는 ‘모래밭(上村), 안모래밭(內沙村), 웃모래밭(上沙村), 아래모래밭(下沙村)’으로 지명이 세분화되어 있는데, 추전리는 이들 소양강가의 모래밭 마을인 예전 ‘사

전리(沙田里)’가 추곡리의 일부가 병합되면서 생긴 행정구역이다.

[어원풀이] ‘모래(沙)+밭(田)’으로 분석된다.

● 문바우

[형태] 바위

[위치] 미상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문처럼 생긴 바위라 하였다.

[어원풀이] ‘문(門)+비우[岩]’로 분석된다.

● 문바웃골

[형태] 골짜기

[위치] 미상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문바우가 있는 골짜기라 하였다.

[어원풀이] ‘문(門)+바우[岩]+골[谷]’로 분석된다.

● 물방앗골

[형태] 골짜기

[위치] 미상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물방아가 있는 골짜기라 하였다.

[어원풀이] ‘물방아+ㅅ+골[谷]’로 분석된다. ‘물방아’는 물의 힘으로 공이를 오르내리게 하여 곡식을 찧거나 빻는 기구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 막골

[형태] 골짜기

[위치] 『한국지명총람』에 밀바닥에 있는 골짜기라 하였는데 현재는 수몰되었다.

[어원풀이] ‘막/밋/밀[低]+골[谷]’로 분석된다.

● 바깥모래밭

[별칭] 외사전(外沙田).

[형태] 마을

[위치] 기준문현에 모래밭 바깥쪽에 있는 마을이라 하였다.

[어원풀이] ‘바깥[外]+모래밭’으로 분석된다. ‘모래밭’ 참조.

● 반쟁이

[형태] 골짜기

[위치] 오항리에서 추전리로 가는 지점과 ‘안모래밭(내사전)’ 중간에 있다.

[유래] 기준문현에 뒷골 옆에 있는 골짜기라 하였다. 오항리에서 추전리로 가는 지점과 ‘안모래밭(내사전)’ 중간에 있는 모퉁이 마을이어서 ‘반쟁이’라 한다. 소양호에 대부분 수몰되고 지금은 한 가구만 있다.

[어원풀이] ‘반(半)+쟁이/장이’로 분석된다. 지명첩 미사 ‘-쟁이’는 ‘골짜기’, 모퉁이, 고개, 마을’ 등의 의미로 쓰인다.

● 방애골

[형태] 골짜기

[위치] 미상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방아처럼 생겼다는 골짜기라 하였다.

[어원풀이] ‘방애/방아+ㅅ+골[谷]’로 분석된다. ‘방아’는 곡식 따위를 짚거나 빻는 기구나 설비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 벼실아우

[형태] 바위

[위치] 『한국지명총람』에 추전리에 있는 바위라 하

였다.

[어원풀이] ‘벼실/벼섯[菌]+아우/바우[岩]’로 분석 할 수 있다. ‘벼실’은 ‘벼섯’의 방언이다.

● 새덕

[형태] 산

[위치] 오항리 ‘천리대’에서 추전리를 가다가 동쪽 으로 휘여지는 길목에 도드라진 둔덕으로, 아래에 서 보면 낭떨어지가 된 곳이다. 계속 동진하면 ‘반쟁이’가 나온다.

[유래] 오항리와 추전리 사이를 가르며, 이곳 소양강(소양호 수몰 이전)에서 물고기가 많이 잡혔다고 한다.

[어원풀이] ‘새/사이)[間]+덕(둔덕)’으로 분석된다.

● 서낭골

[별칭] 서낭꼴, 서낭목

[형태] 골짜기

[위치] 추전리 남단, 소양호에 가까이 있다. ‘안모래밭(내사전)’ 동편 가까이에 있으며, 좀 더 동진하면 ‘절골’이 있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서낭이 있던 골짜기라 하였는데, 2018년경에 불이 나서 ‘서낭목’이 상당히 훼손되었다고 한다.

[어원풀이] ‘서낭(서낭-堂/城隍-堂)+ㅅ+골[谷]’로 분석된다.

● 석장골

[형태] 골짜기

[위치] 『춘주지』에 녹박골 부근에 있는 골짜기라 하였다.

[어원풀이] ‘석(石)+장(葬)+골(谷)’로 분석할 수 있다.

● 선드레

[별칭] 선드래

[형태] 마을

[위치] ‘선드레(마을)’는 대동리(大同里) 남서쪽에 있는 ‘파수골(파소골)’ 맞은편에 있으며, 추전리 들어가는 소양호 협곡 입구에 일부가 남아 있다. 1973년 소양호에 수몰되고 아주 일부만 남았으나, 육로는 갈 수 없다.

[어원풀이] ‘선[立]+들/돌[石]+에(처격조사)’로 분석된다.

밭’ 참조.

● 안모래밭

[별칭] 안모래골, 내사전(內沙田)

[형태] 마을

[위치] 추전리, 소양호 서남단에 소양호에 수몰되지 않고 남아 있다. 그 바로 북쪽 골은 ‘뒷골’이다. 오항리 ‘천리대’에서 추전리로 들어가는 비포장 산길이 끝나는 곳에 있다. 지금은 네 가구가 살고 있다.

[어원풀이] ‘안+모래밭’으로 분석된다. ‘모래밭’ 참조.



안모래밭

● 선드레골

[별칭] 선드래골

[형태] 골짜기

[위치] ‘선드레’가 있는 골짜기이다. ‘선드레골’ 서쪽에는 추전리와 오항리가 접하는 추전리에서 가장 높은 ‘670고지’ 산이 있다.

[어원풀이] ‘선드레+골[谷]’로 분석된다. ‘선드레’ 참조.

● 시루돌

[형태] 바위

[위치] 미상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시루처럼 생긴 바위라 하였다.

[어원풀이] ‘시루[甑]+돌[石, 岩]’로 분석된다.

● 약과바우

[형태] 바위

[위치] 미상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약과처럼 네모난 작은 돌이 깔려있는 바위라 하였다.

[어원풀이] ‘약과(藥菓)+바우[岩]’로 분석된다.

● 아랫모래밭

[별칭] 하사촌(下沙村)

[형태] 마을

[위치] 『한국지명총람』에 모래밭 아래쪽에 있는 마을이라 하였다.

[어원풀이] ‘아래[下]+모래밭’으로 분석된다. ‘모래

● 양지들

[별칭] 양지평(陽地坪)

[형태] 마을

[위치] ‘가랫양지(포구)’ 뒤에 있는 마을이다.

[유래] 예전 소양강 포구이던 ‘가랫양지’의 뒤에 있는 양지바른 마을이었으나, 1973년 소양호에 수

몰되었다.

[어원풀이] ‘양지(陽地)+들(坪)’로 분석된다.

● 용늪

[별칭] 용소, 용소메기

[형태] 여울

[위치] 『한국지명총람』에 소양강 가에 있는 늪이라 하였다. 1973년 소양댐으로 소양호에 수몰되었다.

[어원풀이] ‘용(龍)+늪[沼]’으로 분석된다. ‘용늪’, 용소, 용소메기, 용소항’은 모두 같은 곳을 다양하게 부르는 경우다. 고유어 지명과 한자 지명이 여러 모습으로 뒤섞여 쓰였다. ‘용늪’, 용소’에서는 ‘용늪’이 오래된 지명이고, ‘용소메기’, ‘용소항’에서는 ‘용소메기’가 그 지형을 간직한 오래된 지명이다.

● 운수현(雲水峴)

[형태] 고개

[위치] ‘운수골(마을)’은 양구군 방천2리에 있다. 그 곳에서 남진하여 산속을 ‘운수골길’로 넘으면 북산면 추곡리에 닿는다. 추전리 경계와는 너무 동떨어졌다.

[유래] 기존문헌에 양구군 운수골로 가는 고개라 하였다.

[어원풀이] ‘운(雲)+수(水)+현(峴)’으로 분석된다.

● 웃모래밭

[별칭] 상사촌(上沙村), 상촌(上村)

[형태] 마을

[위치] 『한국지명총람』에 모래밭 위쪽에 있는 마을이라 하였다.

[어원풀이] ‘우[上]+ㅅ+모래밭’으로 분석된다. ‘모래밭’ 참조.

● 절골

[별칭] 절꼴

[형태] 골짜기

[위치] ‘선드레’ 남쪽으로 ‘서낭목/서낭골’이 소양호 가까이에 있으며, 그 북쪽에 ‘절골’이 있다.

[유래] 기존문헌에 절이 있던 골짜기로 한국전쟁 때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고 하였다.

[어원풀이] ‘절[寺]+ㅅ+골[谷]’로 분석된다.

● 제당골

[별칭] 제당꼴

[형태] 골짜기

[위치] 『한국지명총람』에 산제당이 있던 골짜기라 하였는데 현재는 수몰되었다.

[어원풀이] ‘제(祭, 山祭)+당(堂)++골[谷]’로 분석된다.

● 중소(中沼)

[형태] 소(沼)

[위치] 『한국지명총람』에 소양강에 있는 소(沼)라 하였는데 현재는 수몰되었다.

[어원풀이] ‘중(中)+소(沼)’로 분석된다.

● 집장골

[형태] 골짜기

[위치] 양구 가는 소양호로가 막 추전리를 벗어나 ‘양구농업기술학교’에 다다르기 전, 서쪽으로 깊이 들어가는 골짜기가 있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노장골 옆에 있는 골짜기라 하였다. ‘노장골’과 ‘집장골’은 서로 옆에 있다.

[어원풀이] ‘집+장+골[谷]’로 분석된다. ‘집장’의 의미는 불분명하다.

● 천내(川内)

[별칭] 개울안, 개안

[형태] 마을

[위치] 『한국지명총람』에 가랫양지 북서쪽 내 안쪽에 있는 마을이라 하였는데 현재는 수몰되었다.

[어원풀이] ‘천(川)+내(内)’로 분석된다. ‘개울안/개안’의 한자 지명이다.

● 추전리(楸田里)

[형태] 마을

[위치] 추전리는 1973년 소양호에 대부분 지역이 수몰된 이후, 소양호에 의해 영역이 남북으로 분리되어있다. 북쪽 지역에는 거주하는 주민 없이 양구방향으로 가는 구도로와 일부 소규모 경작지만이 존재하며, 남쪽 지역에는 오항리 버스종점에서도 약 5km 정도 떨어진 거리에 소수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유래] 추전리(楸田里)는 추곡리(楸谷里)의 일부와 사전리(沙田里)가 병합되면서 생긴 행정구역으로, 추곡리(楸谷里)의 ‘추(楸)’와 ‘사전리(沙田里)’의 ‘전(田)’을 합하여 만든 지명이다.

● 추전리(楸田里) 선사유적

[형태] 고적

[위치] 추전리에서 발굴된 유적은 1979년 7월 8일 춘천교육대학 운동장 끝 화단 부근으로 옮겨졌다. 토기편들은 교대 향토자료관에 보관되었다.

[유래] 소양댐 건설로 1971년 수몰 지역탐사 때, 함께 출토된 대곡리 고인돌로부터 300m 정도 떨어져 있었다. 여러 개의 고인돌과 세 개의 원시 주거지, 1개 석간묘, 주거지 안에서 벗살무늬토기편들이 나왔다.

● 추전리지석묘(楸田里支石墓)

[별칭] 추전리고인돌무덤

[형태] 고적

[유래] 소양댐 건설로, 1971년 수몰 지역탐사 때, 함께 출토된 대곡리 고인돌로부터 300m 정도 떨어져 있었다. 여러 개의 고인돌과 세 개의 원시 주거지, 1개 석간묘, 주거지 안에서 벗살무늬토기편들이 나왔다. 턱자식(卓子式)이 도괴된 것으로 고임돌(支石) 1매는 뚜껑돌(上石)의 아래에 묻혀있었고 장벽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2매의 고임돌은 뚜껑돌에서 벗어난 곳에 엎어진 상태로 남아있었다. 이들 주위에서 잡석들이 분산된 것으로 보아 부석(敷石)시설이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 파소(波沼)

[형태] 소(沼)

[위치] 추전리와 가까운, 대곡리 남단, 깃대봉 서쪽, 소양강 가까이에 있었는데 소양호에 수몰되었다.

[어원풀이] ‘파(波)+소(沼)’로 분석할 수 있다.

● 파소골

[별칭] 과수골

[형태] 골짜기

[위치] 파소(波沼) 뒤에 있는 골짜기이다. ‘파소(波沼)’는 1973년 소양호에 수몰되었고, 그 뒤에 있는 ‘파수골(파소골)’은 대곡리 남서단에 상당 부분 남아 있다.

● 행경판

[형태] 들

[위치] 기준문현에 추전리 북쪽에 있는 벼덩이라 하였다.

[어원풀이] ‘행경(行徑)+판(坂, 阪)’으로 분석된다. 행

경(行徑)은 ‘좁은길’이다. ‘판’은 지명의 모습과 관련되는데 높고 평평하며 나무는 없이 풀만 우거진 거친 들을 뜻하는 ‘벼덩’이므로, 이곳 ‘판’은 ‘제방’, ‘득, 비탈’을 함유한 ‘坂, 阪’이다.

● 황새봉

[별칭] 두루미봉

[형태] 산

[위치] 미상이다.

[유래] 기존문헌에 황새처럼 생긴 봉우리라 하였다.

[어원풀이] ‘황새(두루미, 鶴)+봉(峰)’으로 분석된다.



사북면(史北面)

동쪽으로 신북읍(新北邑)과 화천군 간동면(看東面), 남쪽으로 신북읍·서면(西面), 서쪽으로 경기도 가평군 북면(北面)과 화천군 사내면(史內面), 북쪽으로 화천군 하남면(下南面)에 접한다.

신포리·지촌리·지암리·고탄리·송암리 등 10개의 행정리를 관할한다. 용화산·춘천댐 등이 있다. 『춘주지』에 북내(北內)의 가라항(加羅項), 우두(牛頭), 칠산(漆山), 대포곡(大浦谷), 도정(陶井), 돌고지(夏古之), 월봉동(月峰洞), 어전(於田), 송현(松峴), 회동(檜洞), 고탄(古吞), 가곡(加谷)이 있는데 이 가운데 일부가 포함되고, 사탄현(史吞縣)의 서오지(鋤五芝), 방단리(方端里), 내창리(內倉里), 박단리(朴端里), 시천(是川) 중에서 일부가 포함된다. 『여지도서』에는 사탄항의 바깥쪽에 있다고 하여 사탄외면(史吞外面)이라 했으며, 오리동리(五里洞里)·서오지리(鋤五芝里)의 위치와 호구가 기록되어 있다. 『해동지도』에는 사탄외창(史吞外倉), 마현(馬峴)의 지명도 보인다. 마현은 현재 화천으로 넘어가는 말고개이다. 1895년(고종 32)에 사외면(史外面)으로 고쳤다가 1914년 사외면과 북내이작면이 통합되면서 한 글자씩 따서 사북면이라고 하였다. 고탄리에는 고란산이 있는데, 산의 이름은 옆드려 있던

돌이 일어났다는 것에서 유래한다. 현재도 돌이 길가에 있는데 학질이 있는 사람이 꼭대기에 오르면 낫는다는 속설이 있다. 1934년 4월 1일 서상면(西上面)의 원평(圓坪)·지암(芝岩) 2개리를 편입하고 1945년 38선이 생기면서 신포·지촌·가일·오탄의 4개 리는 북한에 들어갔다가 1953년 수복되었다. 1995년 춘천시에 편입되었다.

주요 농산물은 옥수수·콩이고, 특히 양봉이 활발하다. 면내를 관통하는 화천~홍천 간 국도와 지방도가 잘 포장되어 있다. 면 중앙의 춘천호는 관광·낚시터로 유명하다.

위치와 현황 | 서쪽으로 북한강이 흐르고, 동쪽으로 용화산이 자리 잡고 있다. 북한강의 골짜기에 위치한 마을로 벌말, 중간말, 안가일 등이 있다.

연혁 | 『조선지지자료』는 북내이작면(北內二作面)에 가일리(佳日里)를 표시하였다. 『강원도 지지조서』, 『강원도지』, 『수춘지』, 『춘주지』, 『춘천백년사』는 사북면(史北面) 가일리(佳日里)로 표기하였다. 현재 행정리와 법정리는 동일하게 가일리다.

유래 | 본래 춘천군 북내이작면의 지역으로서 북한강가 골짜기에 있으므로 가일이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안가일, 벌가일, 중간말을 병합하여 가일리(佳日里)라 하였다.

● 가일고개

[형태] 고개

[위치] 사북면 송암리와 가일리 경계에 있다.

[유래] 가일리에서 송암리로 넘나드는 고개로, 기존문헌에 안가일 뒤에 있다고 하였다. 높이는 352m이다.

[어원풀이] ‘가일/가일리(佳日里)+고개[峴]’로 분석된다.



가일고개

● 가일배터

[형태] 나루

[위치] 가일리 벌말 끝부분에 있다.

[유래] 기존문헌에 가일리에 있는 나루터라 하였다. 화천 낭천강(북한강)과 사창리에 내려온 사내천이 합류하는 신포리와 수계를 나누는 곳이다. 가일리에서 가장 큰 마을인 ‘벌가일’의 배터(현 가일리도 선장)이다. 신포리도선장이 북한강을 사이에 두고 마주한다. 지금의 배터는 춘천댐 건설 이후 옮긴 자리이다.

[어원풀이] ‘가일+배터’로 분석된다.

● 갯고개

[별칭] 개고개

[형태] 골짜기

[위치] 미상이다.

[유래] 기존문헌에 가일리 있는 골짜기라 하였다.

[어원풀이] ‘개+ㅅ+고개’로 분석된다.

● 고개골

[별칭] 고갯골

[형태] 골짜기

[위치] 미상이다.

[유래] 기존문헌에 고개가 있는 골짜기라 하였다.

[어원풀이] ‘고개[峴]+골[谷]’로 분석된다.

● 구재바우

[별칭] 구재바위

[형태] 바위

[위치] 큰재골 산꼭대기에 있다.

[유래] 기존문헌에 가일리에 있는 바위라 하였다.

[어원풀이] ‘구재+바우/바위[峩]’로 분석된다. 유래는 불분명하다.

● 귀비개터골

[별칭] 귀비개골, 구부개골, 구비개턱골

[형태] 골짜기

[위치] 미상이다.

[유래] 『조선지지자료』에 ‘구부개골(具夫皆谷)’로 기재되어 있다. 기존문헌에 귀비개라는 부자가 살았던 곳이라 하였다.

[어원풀이] ‘귀비개+골[谷]’로 분석된다. ‘귀비개’는 ‘귀이개’의 강원 방언이다.

● 까치여울

[형태] 여울

[위치] 가일리 벌말 배 다니는 데에 있다.

[유래] 기존문헌에 북한강의 여울이었으나 지금은

춘천호에 수몰되었다고 하였다.

[어원풀이] ‘갖이(가치)+여울’로 분석된다. 가장자리를 의미하는 ‘갓’, ‘갓’이 거센소리가 되어 ‘갓’이 되면서 ‘가치’가 되고, 다시 된소리가 되면서 ‘까치’로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갓이여울>갓이여울>가치여울>까치여울’이 된 것이다.

● 다래골

[별칭] 다릿골

[형태] 골짜기

[위치] 가일교 앞에 있는 가일교회 일대이다.

[유래] 기존문헌에 안가일 동쪽에 있는 골짜기라 하였다.

[어원풀이] ‘다래/다리/달[野]+골[谷]’로 분석된다. ‘달’과 ‘다리’는 ‘들[野]’의 의미를 지닌다.



다래골

● 대명탄

[별칭] 대탄(大灘)

[형태] 여울

[위치] 가일리 북한강 기에 있었다. 지금은 춘천호에 수몰되었다.

[유래] 기존문헌에 북한강에 있는 여울로 춘천호 물속에 잠겼다고 하였다.

[어원풀이] ‘대명(大鳴)+탄(灘)’으로 분석된다. 큰 소

리를 내며 흐르는 여울이란 뜻이다. 별칭인 ‘대탄’도 ‘큰 여울’이라는 의미의 한자지명이다.

● 매치고개

[형태] 고개

[위치] 충충골의 산을 넘어가는 고개이다.

[유래] 기존문헌에 화천군 하남면 거례리의 매치로 통하는 고개라 하였다.

[어원풀이] ‘매[山]+치(峙)+고개[峴]’로 분석된다. 산에 있는 고개란 의미이다. 또는 ‘매치’를 ‘묘지’의 변형으로 볼 수도 있다. 무덤이 많은 골짜기에 있는 고개란 의미가 된다.

● 모래재

[형태] 고개

[위치] 가일리마을회관에서 내려오다가 왼편에 있는 고개이다.

[유래] 기존문헌에 잿마루에 모래가 많다고 하였다. 지금은 한 가구가 거주하고 있다.

[어원풀이] ‘모래+재[峙]’로 분석한다. ‘산이나 산모텅이’를 함유하는 고어 ‘몰’이 ‘몰/모로/모리/모오리/모루/마루/모래’ 등으로 고지명에 흔적을 남긴다. 산모퉁이에 있는 고개, 또는 얇으막한 산에 있는 고개란 의미이다.

● 벌말

[별칭] 벌가일, 본말

[형태] 마을

[위치] 가일리 벌말과 절골 갈림길에서 왼편 다리 건너편에 있다.

[유래] 기존문헌에 가일리 벌판에 있는 마을로 가일리에서 유품이 되던 마을이라 하였다. 『조선지지자료』에 ‘벌가일’로 기재되어 있다. 가일리에서

가장 넓은 벌판으로 가일리 본 마을이다.

[어원풀이] ‘벌[野]+말[村]’로 분석된다. 벌판에 형성된 마을이라는 의미이다.



벌말

● 삼포밭

[형태] 들

[위치] 미상이다.

[유래] 기존문헌에 가일에 있는 밭으로 인삼을 갈았다고 하였다.

[어원풀이] ‘삼포(蔘圃)+밭[田]’으로 분석된다. 인삼밭이 많은 들판이란 의미이다.

● 싸리재

[형태] 고개

[위치] 가일리마을회관이 있는 북한강 초입에서 동쪽으로 3km 거리에 위치한다. 가일리 동쪽 끝 근방이다.

[유래] 기존문헌에 싸리나무가 많은 재라 하였다.

[어원풀이] ‘싸리(싸리나무)+재[峙]’로 분석된다. ‘싸리재, 싸리골’은 전국적으로 산재하며, 대부분 ‘싸리나무’와 관련짓는다. 또는 두 마을 사이에 있는 고개란 의미의 ‘사이[間]+재[峙]’에서 유래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 싸리재골

[형태] 골짜기

[위치] 가일리마을회관 북한강 초입에서 동쪽으로 3km 거리에 있는 싸리재에 떨린 골짜기이다. 인람리에서 화천 거례리로 넘나드는 골짜기이다.

[유래] 기존문헌에 싸리재에 떨린 골짜기라 하였다. 지금은 한 가구가 거주하고 있다.

[어원풀이] ‘싸리재+골[谷]’로 분석된다. ‘싸리재’ 참조.

● 안말

[별칭] 안골, 안가일, 내촌

[형태] 마을

[위치] 가일리 서쪽 끝 벌가일에서 동쪽 안에 있다. 한강가 초입에서 북한강 서쪽으로 1.5km 못미쳐 에 ‘안가일’이 있다.

[유래] 기존문헌에 가일리 안쪽에 있는 마을이라 하였다.

[어원풀이] ‘안[内]+말[村]’로 분석된다.



안말

● 안골개울

[형태] 하천

[위치] 충충골 다리를 건너면 바로 있는 개울이다.

[유래] 기존문헌에 안골에 있는 개울이라 하였다.

[어원풀이] ‘안[內]+골[谷]+개울’로 분석된다.



안골개울

[유래] 기존문헌에 벌가일과 안가일 사이에 있는

골짜기라 하였다.

[어원풀이] ‘작은[小]+재[峙]+골[谷]’로 분석된다.



작은재골

● 역밭구미

[형태] 들

[위치] 미상이다. 춘천호에 수몰된 것으로 추정된다.

[유래] 기존문헌에 옛날 역(驛)에 떨렸던 밭이라 하였다. 옛날 인람리에 인람역이 있었다.

[어원풀이] ‘역(驛)+밭[田]+구미’로 분석된다. 지명 접미사 ‘-구미’는 ‘바다나 강가 주변에서 읍쪽 들 어간 곳이나 후미진 곳’을 뜻한다.

● 은팡니메

[형태] 골짜기

[위치] 미상이다.

[유래] 기존문헌에 안가일 부근에 있는 골짜기라 하였다.

[어원풀이] ‘은팡니+메[山]’로 분석된다. 유래는 불분명하다.

● 작은재골

[형태] 골짜기

[위치] 큰재골과 벌말 사이에 있다. 큰재골을 지나서 벌말 방면으로 가다보면 작은재골이 위치해 있다.

● 절골

[형태] 골짜기

[위치] 작은재골에서 벌말 방면으로 가다가 다리에서 오른편 작은 셋길로 올라가면 있다. 가일리선착장 마을인 ‘벌가일’에서 안쪽(동쪽) ‘안가일’에 이르러 북쪽 1시 방향 골짜기로 1km쯤이다.

[유래] 기존문헌에 약 100년 전 절이 있었던 골짜기라 하였다. 어떤 할머니가 제당을 지어놓았다는 설도 전한다.

[어원풀이] ‘절[寺]+골[谷]’로 분석된다. 절이 있던 골짜기란 의미이다.



절골

● 절터

[형태] 터

[위치] 가일리 절골에 있다.

[유래] 기존문헌에 예전에 절이 있던 터라 하였다.

[어원풀이] ‘절[寺]+터[垈]’로 분석된다.

● 정자터

[별칭] 정지터

[형태] 골짜기

[위치] 충충골에서 올라가면 있는 골짜기이다.

[유래] 기존문헌에 정자나무가 있던 골짜기라 하였다.

[어원풀이] ‘정자나무(亭子)+터[垈]’로 분석된다. 별칭이 ‘정지터’인 점을 고려하면 부엌의 고어가 ‘정지’이므로 깊숙한 곳에 있는 골짜기란 의미로 볼 수도 있다.

● 중간말

[별칭] 중자말

[형태] 마을

[위치] 가일리마을회관에서 서쪽 북한강변으로 1km쯤에 있다.

[유래] 기존문헌에 “중간에 있는 마을. 가일리 중심부에 있는 마을. 중자말이라고도 부른다.”라 하였다.

[어원풀이] ‘중간+말[村]’로 분석된다. 별말과 안말



중간말

중간에 있는 마을로 가일리 중심부에 있는 마을이란 의미이다.

● 지웃골

[형태] 골짜기

[위치] 미상이다.

[유래] 기존문헌에 가일리 동쪽에 있는 골짜기라 하였다.

[어원풀이] ‘지웃/지옥(地獄)+골[谷]’로 분석된다. 지옥처럼 컴컴하고 음산한 골짜기란 의미로 추정된다.

● 질갯등

[별칭] 질개등, 진갯등

[형태] 산

[위치] 가일리 뒤편에 위치한다.

[유래] 기존문헌에 가일리 동쪽에 있는 산이라 하였다.

[어원풀이] ‘질/길[長]+갯등/잿등’으로 분석된다. ‘길다’는 ‘길다’의 강원 방언이고, ‘갯등’은 고개등성이를 의미하는 ‘잿등’의 이형태이다. 산등성이가 길다는 의미이다.

● 집뒤골

[별칭] 집뒷골

[형태] 골짜기

[위치] 미상이다.

[유래] 기존문헌에 가일리 뒤에 있는 골짜기라 하였다.

[어원풀이] ‘집[家]+뒤[後]+골[谷]’로 분석된다. 집 뒤에 있는 골짜기란 의미이다.

● 천내골

[별칭] 천내골

[형태] 골짜기

[위치] 가일리마을회관에서 안말 북동쪽 700m쯤에 위치한다. 가일천(佳日川) 안쪽이며, 안말 동북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유래] 기존문헌에 안가일 동북쪽에 있는 골짜기라 하였다.

[어원풀이] ‘천(川)+내(內)+골[谷]’로 분석된다. 하천 안쪽에 있는 골짜기란 의미이다.



천내골

[유래] 기존문헌에 안가일 동북쪽에 있는 마을이라 하였다. 『조선지지자료』에 ‘충충골(沖沖谷)’이 기재되어 있다.

[어원풀이] ‘충충/충충+골[谷]’로 분석된다. 충충으로 이루어진 골짜기란 의미로 추정된다.

● 큰재골

[형태] 골짜기

[위치] 가일리 안말 서쪽에 있다. 큰재골은 작은재골 가기 전에 위치한다.

[유래] 기존문헌에 별가일과 안가일 사이에 있는 골짜기라 하였다.

[어원풀이] ‘큰[大]+재[峙]+골[谷]’로 분석된다. 큰고개가 있는 골짜기란 의미이다.



큰재골

● 춘나무젖골

[별칭] 추나무젖골

[형태] 골짜기

[위치] 가일리 안말에 위치한다.

[유래] 기존문헌에 안가일 부근에 있는 골짜기라 하였다.

[어원풀이] ‘춘나무+젖/뒷/뒷[後]+ㅅ+골[谷]’로 분석된다. 춘나무는 참죽나무의 방언이다.

● 충충골

[별칭] 중추골, 충충골

[형태] 마을

[위치] 안가일 동북쪽에 위치한다.

고성리(古城里)

위치와 현황 | 서쪽으로 양통천이 흐르고, 북쪽과 동쪽으로 용화산이 있다. 바위와 골짜기가 많은 지역이다. 자연마을에는 도장골, 양통, 가재골, 덕박골 등이 있다. 고룬고개, 사이고개 등의 고개와 장랫골, 정짓골, 지당골 등 골짜기가 많다. 학이 날았다는 학골이나 칼날처럼 생긴 칼새봉이라는 바위도 있다.

연혁 | 『춘주지』를 보면 북내(北內)에 고탄(古吞)이 보인다. 『여지도서』, 『호구총수』, 『춘천읍지』, 『춘천부지』, 『관동읍지』도 북내면(北內面) 고탄리(古吞里)를 표시하였다. 『조선지지자료』는 북내이작면(北內二作面)의 고탄상리(古吞上里)에 해당된다. 『강원도지지조서』, 『강원도지』, 『수춘지』는 사북면(史北面) 고성리(古城里)로 표기하였다. 『춘주지』와 『춘천백년사』는 사북면(史北面) 고성1리, 고성2리로 분할하였다. 현재 행정리는 고성리고 법정리는 고성1리, 고성2리이다.

유래 | 고성리와 인람리까지 통틀어 고룬리라 하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고탄상리, 도장골, 새남골, 양통을 병합하여 고탄(古吞)과 용화산성(龍華山城)의 이름을 따서 고성리라 하였다.

● 가마바우

[별칭] 가마바위

[형태] 바위

[위치] 용화산휴양림 방면으로 가다가 오른편에 족두리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 맞은편에 있다.

[어원풀이] ‘가마[鼎]+바우/바위[岩]’로 분석된다.

바위 형상이 가마[鼎]처럼 생겨서 붙여진 이름이다.



가마바우

● 가매소

[별칭] 가마소

[형태] 소(沼)

[위치] 사여길 입구 왼편 축사 아래에 있는 웅덩이다.

[유래] 기존문헌에 소(沼)가 가마처럼 생겼다고 하였다.

[어원풀이] ‘가마[鼎]+소(沼)’로 분석된다. 가마솥처

럼 둥글게 패인 웅덩이를 말한다.



가매소

● 가재골

[형태] 마을

[위치] 고성1리 도장골 입구에서 마을회관 가기 전 오른편에 위치한다. 고성1리마을회관에서는 약 200m 거리이다.

[유래] 기존문헌에 고성리에 떨린 마을이라 하였다.

[어원풀이] 가재골은 전국에 널리 분포한 지명인데 크게 세 가지로 설명된다. 먼저 중심지에서 떨어져 끝에 있는 경우 가장자리에 있는 골짜기로 해석되며, 두 번째로 가재가 많이 사는 골짜기란 의미로도 쓰이며, 마지막으로 양쪽으로 갈라진 지형일 경우에도 쓰인다. 고성리 가재골은 지형적인 면을 고려했을 때 세 번째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가재[枝, 分]+골[谷]’로 분석할 수 있다.



가재골

● 감투바우

[형태] 바위

[위치] 용화산에 있다고 하는데 정확한 위치는 미상이다.

[유래] 기존문헌에 감투처럼 생긴 바위라 하였다.

[어원풀이] ‘감투+바우[岩]’로 분석된다. ‘감투’는 텅건과 비슷하나 턱이 없이 민듯한 관모로써 말총이나 가죽·헝겊 등으로 차양없이 만든다.

● 고양바우

[별칭] 고양이바우, 고양이바위

[형태] 바위

[위치] 용화산 아래의 소태골 안으로 도트매기 바로 위에 있다.

[유래] 바위 형상이 고양이처럼 생겨서 붙여진 이름이다. 고양바우 근처에 돌부처가 있는데 누군가 목을 쳐서 지금은 돌부처에 머리가 없다.

[어원풀이] ‘고양+(이)+바우[岩]’로 분석된다.

의 바위란 의미이다.



곰바우

● 고탄상리(古吞上里)

[형태] 마을

[위치] 양통 동북쪽에 있다. 과거에는 고탄상리였으나 1914년 이후 고성리가 되었다.

[유래] 기존문헌에 양통 동북쪽에 있는 마을, 고탄 위쪽에 있는 마을이라 하였다. 고탄리는 본래 고탄 상리(古吞上里)와 고탄하리(古吞下里)로 구분되었다가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고탄상리(古吞上里), 도장골, 새남골, 양통을 병합하여 고탄(古吞)과 용화산성(龍華山城)의 이름을 따서 고성리(古城里)라 하여 사북면에 편입시켰다. 그러므로 고탄상리(古吞上里)는 고성리로 편입되기 이전의 고탄리 지역으로 고탄리 위쪽에 있는 마을을 의미한다.

[어원풀이] ‘고탄(古吞)+상(上)+리(里)’로 분석된다.

● 곰바우

[별칭] 곰바위

[형태] 바위

[위치] 용화산에 있다.

[유래] 바위가 곰의 형상을 닮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바위의 머리는 절벽을 향해 있고, 바위 바로 앞에는 소나무가 있다.

[어원풀이] ‘곰[熊]+바우[岩]’로 분석된다. 곰 모양

● 낭자바우

[별칭] 낭자바위

[형태] 바위

[위치] 용화산 족두리바위 옆에 있다.

[유래] 기존문헌에 족두리바위 옆에 있는 바위라 하였다.

[어원풀이] ‘낭자(娘子)+바우[岩]’로 분석된다.

● 너럭바우

[별칭] 너럭바위

[형태] 바위

[위치] 용화산 족두리바위 옆에 있다.

[유래] 기존문헌에 넓고 평평한 바위라 하였다.

[어원풀이] ‘너럭/넓은[廣]+바우[岩]’로 분석된다.

● 눈바우

[별칭] 눈바위

[형태] 바위

[위치] 용화산 휴양림 방면으로 가다가 오른편으로 보이는 족두리바위로 가기 전 200m 아래에 있다.

[어원풀이] ‘눈[雪]+바우[岩]’로 분석된다. 바위가 눈처럼 하얗기에 붙여진 이름이다.

● 느락골

[별칭] 부락골

[형태] 골짜기

[위치] 고성리 학골에서 원편으로 넘어가는 골짜기이다.

[어원풀이] ‘느락[延]+골[谷]’로 분석된다. ‘느락’은 ‘늘-(延)’의 어형으로 길게 늘어진다는 의미를 지닌다.



느락골

● 느락재

[별칭] 성재[城峴]

[형태] 고개

[위치] 고성리 석봉산 오른편 능선이다.

[유래] 느락재는 길게 늘어진 고개로 추정된다. 성곽과 연관되어 성재[城峴]라고도 부른다. 지역민은 예전에 성터(성곽)가 있었다고 증언한다. 춘천 외곽에는 3개의 산성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2개가 사북면에 있다. 고탄리의 고성(古城)과 용화산고성(龍華山古城)이다. 용화산성은 춘천분지를 지키는 군사 요충지였다.

[어원풀이] ‘느락[延]+재[峴]’로 분석된다. 성처럼 길게 늘어진 고개란 의미이다.

● 늘재

[형태] 고개

[위치] 고성리 장랫골 부근이다.

[유래] 기존문헌에 장랫골 부근에 있는 재라 하였다. [어원풀이] ‘늘[延]+재[峙]’로 분석된다. ‘길게 늘어진 고개’는 ‘늘/느릅/느릇/느락/늘티, 유현(榆峴)’ 등으로 나타난다. ‘낮은 고개’를 늘재라 부르기도 한다.

● 닥밤나무골

[형태] 골짜기

[위치] 고성1리 여우골과 지당골 사이에 있다.

[유래] 기존문헌에 닥밤나무가 있었던 골짜기라 하였다.

[어원풀이] ‘닥밤나무+골[谷]’로 분석된다. 닥밤나무란 이름은 현재 확인이 되지 않는다.



닥밤나무골

● 대틀골

[형태] 골짜기

[위치] 고성리 정짓골 건너편에 있다.

[유래] 기존문헌에 정짓골 건너편에 있는 골짜기라 하였다.

[어원풀이] ‘대틀+골[谷]’로 분석된다. ‘대틀’의 의미는 불분명한데 ‘배틀’의 오기로 추정된다.

● 덕박골

[형태] 마을

[위치] 양통산촌생태마을이 있는 곳으로 사북면 고성리 280-1번지 일대이다.

[유래] 기존문헌에 고성리에 있는 마을이라 하였다.

[어원풀이] ‘덕(德)+박[岩]+골[谷]’로 분석된다. ‘덕’은 고구려어의 유산으로 ‘達=高=山=德’의 관계에 있으며 현대국어에는 ‘언덕, 둔덕’의 지명으로 그 흔적을 남기고 있다. ‘박’은 ‘바우’의 ‘우’가 털락하고 뒷음절 ‘골’의 영향으로 ‘ㄱ’이 침가된 것으로 보면 ‘바위’이다. 큰 바위, 큰 돌이 많은 골짜기란 의미이다.



덕박골

● 덕재

[형태] 고개

[위치] 미상이다.

[유래] 기존문헌에 고성리에 있는 재라 하였다.

[어원풀이] ‘덕(德)+재[峙]’로 분석된다. ‘덕박골’ 참조.

● 덜머리

[별칭] 들머리, 덜머리들

[형태] 들

[위치] 고성1리 성탄교를 지나 장군봉 아래쪽으로, 도장골 초입에 있는 들판이다.

[어원풀이] ‘덜/들[入]+머리’로 분석된다. ‘덜’은 ‘들’의 강원 방언이며, ‘머리’는 처음을 뜻한다. 특정한 지역으로 들어가는 첫 구역이란 의미이다.



덜머리

● 도장골

[형태] 마을

[위치] 고성1리마을회관 서쪽이다. 더 북진하면 ‘큰도장골’, 동쪽 가까이엔 ‘작은도장골’이 있다.

[유래] 기존문헌에 도장나무가 많은 골짜기라 하였다.

[어원풀이] ‘도장(안방)+골[谷]’로 분석된다. ‘도장’은 ‘안방[閨]’의 고어이다. 도장골은 고성1리의 중심 마을로 사방이 산이나 둔덕으로 둘러싸여 안방(도장)처럼 아늑하기에 붙여진 이름으로 추정된다.



도장골

● 도트매기

[형태] 골짜기

[위치] 고성리 절터 서쪽에 있다. 용화산 남동쪽 네

번째 봉인 ‘고탄령’ 남쪽 골짜기 해발 580m쯤에 ‘절터’가 있다. 이 ‘절터’가 있는 ‘절골’ 바로 서쪽 골짜기가 ‘도트매기골’이다.

[유래] 기존문헌에 절터 부근에 있는 골짜기라 하였다.

[어원풀이] ‘도트/돛[豚]+매기[項]+골[谷]’로 분석된다. ‘-매기’의 어원형, 지명접미사 ‘목[項]’은 ‘목/목이/매기/매기/모기’ 등의 이형태를 가지며 ‘좁다란 산협이나 물속을 가로지르는 길목’을 뜻한다. 특히 ‘통로의 다른 곳으로는 빠져나갈 수 없는 중요하고 좁은 곳’을 가리킨다. 따라서 ‘도트매기’는 산돼지 길목인 골짜기이다.

● 독바우

[형태] 바위

[위치] 용화산자연휴양림 방면 사여길로 오르다가 하얀집 가기 직전 왼편에 있다.

[유래] 기존문헌에 바위 형상이 독(옹기)처럼 생겨서 붙여진 이름이라 하였다.

[어원풀이] ‘독(장독, 옹기)+바우[岩]’로 분석된다. 항아리처럼 생긴 바위란 의미이다.



독바우

● 돌모랭이

[형태] 마을

[위치] 미상이다.

[유래] 기존문헌에 돌아가는 모퉁이에 있다고 하였다.

[어원풀이] ‘돌[回]+모랭이’로 분석된다. 모퉁이는 ‘산 모퉁이의 휘어들린 곳’을 뜻하는 지명접미사이다. 이형태는 ‘모퉁이/모퉁이/모탱이/모탱이/모팅이/모랭이/모랭이/모링이/모롱/모루’처럼 무척 다양하다.

● 둔덕갈래

[형태] 들

[위치] 매산골에서 양통고개 방면으로 가다가 두 갈래로 갈라지는 지점에 있다.

[유래] 기존문헌에 둔덕진 곳에 있는 들이라 하였다.

[어원풀이] ‘둔덕+갈래’로 분석된다. 둔덕이 진 곳에 두 갈래로 갈라지는 지형으로 인해 생겨난 지명이다.



둔덕갈래

● 등짐뱅이

[형태] 고개

[위치] 양통고개 넘어가는 초입이다.

[유래] 등짐을 지고 올라갈 준비를 하는 곳이라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어원풀이] ‘등침+뱅이’로 분석된다. ‘뱅이’는 방어, 방비하는 장소의 지명으로 많이 사용된다.



등침뱅이

● 마귀할미오줌자리

[형태] 바위

[위치] 용화산 불알바위 가기 전에 암벽이 있고, 조금 더 올라가면 마귀할미오줌자리가 나온다.

[유래] 기존문헌에 마귀할미가 오줌을 누어서 파인 자리가 있는 바위라 하였다. 바위 가운데가 뚫려 있고, 끝이 주전자 부리처럼 생겼다고 하여, ‘주전자(부리)바위’라고 부르기도 한다. 또한 부리처럼 붙여진 바위의 끝이 벼랑인데, 물이 바위의 끝 아래 벼랑으로 흘러나간다고 하여 ‘수채바우’라고 부르기도 한다. 화천 사람들은 가뭄이 들면 개를 잡아 주전자 부리 밑에서 기우제를 지내기도 하였다.



마귀할미오줌자리

용화산에는 마귀할미가 들어서 손자국이 남아있는 바위도 있다고 한다.

[어원풀이] ‘마귀할미+오줌자리’로 분석된다. ‘마귀할미’는 마고할미의 오기이다.

● 매산이

[별칭] 매산골

[형태] 마을

[위치] 고성리 양통 일대이다.

[유래] 기존문헌에 산의 형세가 매부리처럼 생겼다고 하였다.

[어원풀이] ‘매(매부리)+산[山]+이(첩미사)’로 분석된다. 매의 부리처럼 생긴 산이란 의미이다.



매산이

● 맥국성터(貊國城墟)

[형태] 성터

[위치] 『조선지지자료』에 고탄상리에 있었다는 기록이 있지만,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다.

[어원풀이] ‘맥국(貊國城)+터[墟]’로 분석된다.

● 먼갯벼덩

[별칭] 먼개벼덩

[형태] 들

[위치] 봇다래고개 밑에서 산신암 위로 올라가면

양쪽으로 보이는 들판이다.

[유래] 기존문헌에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갯가에 있는 들이라 하였다.

[어원풀이] ‘먼[遠]+개[溪]+ㅅ+버덩’으로 분석된다.

● 무당소 1

[형태] 소(沼)

[위치] 고성2리마을회관의 맞은편, 산수촌 음식점 바로 앞에 있다.

[유래] 기존문헌에 무당이 빠졌다라는 소(沼)라 하였다.

[어원풀이] ‘무당(巫堂)+소(沼)’로 분석된다.



무당소 1

● 무당소 2

[형태] 소(沼)

[위치] 고성1리 상보들 앞에 있다.



무당소 2

[유래] 기존문헌에 무당이 빠졌다라는 소(沼)라 하였다. 고성1리와 2리에 무당소가 각각 남아 있는데 고성1리 주민이 ‘무당이 빠져서 생긴 소(沼)’라 증언하였다.

[어원풀이] ‘무당(巫堂)+소(沼)’로 분석된다.

● 문안골

[별칭] 물안골

[형태] 골짜기

[위치] 고성2리마을회관 삼거리에서 용화산 방면 우측도로 1.5km 정도의 첫 골짜기이다.

[어원풀이] ‘문/물[水]+안[內]+골[谷]’로 분석된다. ‘문’은 ‘물’의 변이음이다. 하천 안쪽에 있는 골짜기란 의미이다.



문안골

● 물방아골

[별칭] 물방앗골

[형태] 골짜기

[위치] 장랫골 근처이다.

[유래] 기존문헌에 옛날에 물방아가 있던 골짜기라 하였다.

[어원풀이] ‘물방아(물레방아)+골[谷]’로 분석된다.

● 바둑판바우

[형태] 바위

[위치] 용화산에 소재한 마귀할미오줌자리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다.

[유래] 선녀가 내려와서 바둑을 두었던 바위여서 붙여진 이름으로 크기는 가로, 세로 2m 정도 된다.

[어원풀이] ‘바둑판+바우[岩]’로 분석된다. 바둑판처럼 네모난 바위이다.



배나무골

● 반석개울

[형태] 하천

[위치] 고성리 사여길에 있는 각종 바위 앞에 흐르는 개울이다.

[유래] 기존문현에 반석에서 흐르는 개울이라 하였다.

[어원풀이] ‘반석(盤石)+개울[川]’로 분석된다. 넓고 평평한 큰 돌[盤石]위로 흐르는 개울이다.



반석개울

● 배나무골

[별칭] 배나뭇골

[형태] 골짜기

[위치] 고성리 학골에서 넘어오는 골짜기이다.

[어원풀이] ‘배나무+골[谷]’로 분석된다. 큰 배나무가 있는 마을이라는 의미이다.

● 벌아골

[별칭] 벼락골, 벌아홉골, 보락골

[형태] 골짜기

[위치] 고성1리에서 고성2리로 넘어가는 신작로 오른쪽으로 올라가는 골짜기이다. 고성1리 ‘시냇가’ 건물 맞은편에 있다.

[어원풀이] ‘벌[蜂]+아/아홉[九]+골[谷]’로 분석된다. ‘벌아홉골’의 변음이다. 벌통을 많이 놓았던 골짜기라는 의미로 하루에 벌통이 아홉 통이 들어섰다고 해서 ‘벌아홉골’로 불렀다고 한다.



벌아골

● 베틀바우

[형태] 바위

[위치] 고성리 고양바우 옆에 있다.

[유래] 기존문헌에 배틀처럼 생긴 바위라 하였다.

[어원풀이] ‘배틀+바우[岩]’로 분석된다. ‘배틀’은 명주·모시·무명·삼베 등 실로 옷감을 짜는 틀이다.

● 벼루구미

[형태] 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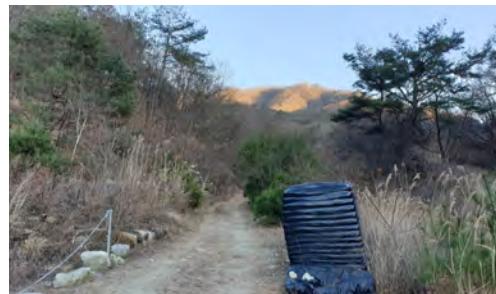
[위치] 미상이다.

[유래] 기존문헌에 위가 낭떠러지로 된 후미라 하였다.

[어원풀이] ‘벼루[崖]+ㅅ+구미’로 분석된다. 벼루는 ‘벼랑[崖]’의 이형태이고, 지명접미사 ‘-구미’는 ‘바다나 강가 주변에서 음푹 들어간 곳이나 후미진 곳’을 뜻한다.

골 맨꼭대기로 올라가면 큰불당골과 작은불당골로 갈라진다.

[어원풀이] ‘불당(佛堂)+골[谷]’로 분석된다. 불당이 있었던 골짜기란 의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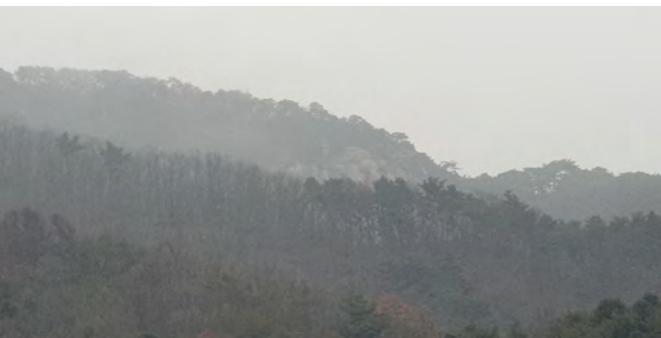
불당골

● 병풍바우

[형태] 바위

[위치] 고성리 학골에서 올라가는 골짜기 윗산에 있다.

[어원풀이] ‘병풍+바우[岩]’로 분석된다. 바위 형상이 병풍처럼 생겨서 붙여진 이름이다.



병풍바우

● 불당골

[형태] 골짜기

[위치] 고성리 큰범잡은골 원편에 있다. 큰범잡은

● 불알바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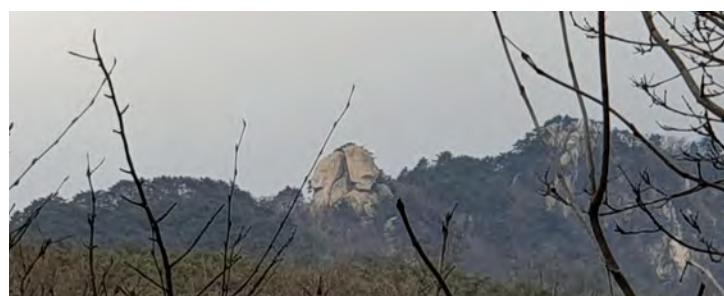
[별칭] 부랄바우, 쌍바우, 쌍아우, 득남바우

[형태] 바위

[위치] 용화산자연휴양림방면으로 반석개울을 따라 형성된 용화산 등산로에 위치한다.

[유래] 기존문헌에 두 개가 나란히 있는 바위라 하였다.

[어원풀이] ‘불알[孽]+바우[岩]’로 분석된다. 별칭인 ‘쌍아우’는 ‘쌍(雙)+아우/바우[岩]’로 분석되며, 남성의 생식기를 의미하는 표현을 순화하여 ‘득남바위’라 부르기도 한다. 바위의 형상이 양물(陽物)처럼 생겼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불알바우

● 복다리고개

[별칭] 부다리고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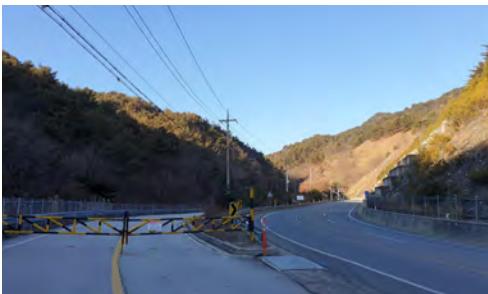
[형태] 고개

[위치] 고성리에서 화천군 하남면 거례리를 잇는 고개이다. 행정구역상으로는 화천에 속한다.

[유래] 기존문헌에 방아다리처럼 생긴 고개라 하였다.

[어원풀이] ‘복다리’/보따리+고개[峴]’로 추정된다.

[유래담] 복다리를 지고 이 고개를 넘어가다가 무거워서 한탄한다고 한다.



복다리고개

● 빨래바위

[별칭] 빨래바우

[형태] 바위

[위치] 고성리 매산이 고개잔등에 있다.

[유래] 빨래를 한 바위여서 붙여진 이름이라는 설



빨래바위

이 있다. 또 날씨가 맑으면 바위가 하얗게 보이고 흐리면 어두워서 보이지 않는데, 날씨가 맑은 날 보이는 하얀 바위가 마치 깨끗하게 빨아놓은 빨래와 같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는 설도 있다.

[어원풀이] ‘빨래+바우[岩]’로 분석된다.

● 사여고개

[별칭] 사여령(似如嶺)

[형태] 고개

[위치] 고성리 사여길에서 화천군 간동면 오음리로 이어지는 고갯길이다.

[유래] 『조선지지자료』에 ‘사여고개[似如嶺]’가 등재되어 있다.

[어원풀이] ‘사여(似如)/상여(喪輿)+고개[嶺]’로 분석된다. 상여(喪輿)의 강원 방언이 ‘사여’이다. 상여가 넘어다니던 고개란 의미로 추정된다.

● 사여교(似如橋)

[형태] 다리

[위치] 고성리 양통 바로 아래에서 동쪽 사여골로 들어가는 사여천 위에 위치한다.

● 사여골

[형태] 골짜기

[위치] 용화산 남동쪽 다섯 번째 봉인 ‘사여령’ 아래에 있다. ‘새남고갯골’ 초입에서 동쪽으로 갈라져 용화산자연휴양림 있는 곳으로 들어가는 긴 골짜기도 ‘사여골’이다. ‘사여골’을 따라 ‘사여길’과 ‘사여천’이 나란히 이어진다.

[유래] 기존문헌에 고성리에 있는 골짜기라 하였다.

[어원풀이] ‘사여(似如)/상여(喪輿)+골[谷]’로 분석된다. ‘사여고개’ 참조.



사여골

● 사이고개

[형태] 고개

[위치] 기존문헌에 고성리에 있는 고개라 하였다.
‘사여고개’와 동일한 고개인지 여부는 알 수 없다.

● 사평천

[형태] 하천

[위치] 고성1리 성탄교 아래로 흐르는 개울로 용화산에서 발원하여 춘천호까지 흘러가는 물줄기이다.
[어원풀이] ‘사평(沙平)+천(川)’으로 분석된다. 모래밭을 이룬 하천이란 의미이다. 용화산에서 발원하여 춘천호 수몰 전에는 떼둔지에서 모진강(북한강)으로 흘러 들어가면서 곳곳에 모래벌판이 만들어졌다.



사평천

● 산제단

[형태] 제단

[위치] 고성리 사여길에서 용화산자연휴양림 방면으로 오르다가 하얀집에 못 미쳐 원편에 있다.

[어원풀이] ‘산/산신(山神)+제단(祭壇)’으로 분석된다. 고성2리에서 산신에게 제를 올리는 제단이다.



산제단

● 산촌생태마을

[형태] 마을

[위치] 덕박골에 있다. 사북면 매산골길 8-17번지이다.

[유래] 도농교류를 위한 체험과 휴양시설을 두루 갖춘 관광농원이다. 숙박시설, 수영장, 산책로, 운동기구, 공연장 등 각종 휴양시설이 있다.



산촌생태마을

● 상보들

[형태] 들

[위치] 고성1리 ‘시냇가’라는 건물 아래 개울의 상류에 상보가 있다. 그 주변의 들판을 말한다.

[유래] 고성리에서 고탄리를 거쳐 춘천호로 유입되는 사평천 줄기에 하천 유량 조절을 위해 설치한 저수시설이 있다.

[어원풀이] ‘상(上)+보(洑)+들[野]’로 분석된다.



상보들

● 새남골

[별칭] 새남바웃골, 사인암골[舍人岩谷]

[형태] 골짜기

[위치] 고성리 양통에서 화천군 하남면 삼화리로 넘어가는 새남바위고개와 새남바위가 있는 골짜기이다.

[유래] 기존문헌에 새남바위가 있는 골짜기라 하였다. 『조선지지자료』에 고탄상리 소재 골짜기 이름으로 ‘새남골[鳥岩洞]’이 등재되어 있다.

[어원풀이] ‘새남/사인암(舍人岩)+골[谷]’로 분석된다. ‘사인암(舍人岩)’은 ‘새/사이[間]+암(岩)’으로 분석된다. ‘사이암’이 변음(‘-ㄴ’첨가)되어 ‘사인암/사이남/새남’의 이형태를 가지게 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한자 지명 사인(舍人)은 음차자로 볼 수 있다. 별칭인 ‘새암[鳥岩]’은 ‘새가 난다’는 의미인

새남바위 형상, 즉 비상(飛上), 승천(昇天)과 관련하여 해석할 수 있다. ‘새남바위’는 새암(鳥岩)에서 한자어 ‘암(岩)’에 이미 ‘바위’의 뜻을 포함하고 있지만, 뒤에 고유어 ‘바위’를 덧붙여 ‘바위’임을 강조한 표현으로 볼 수 있다.

● 새낭골

[별칭] 양지울, 양지말

[형태] 마을

[위치] 고탄리의 춘천호 동쪽 끝에서 춘화로를 따라 1km 정도 동진하다가 도로지명 ‘도장골길’로 꺾어 ‘양지들’과 ‘상보들’ 사이를 북진하면 곧 ‘고성1리회관’이 나온다. ‘새낭골’은 ‘상지들’ 동쪽 큰 골짜기로 들어가 ‘고성1리마을공동농기계보관창고’를 지나 300m쯤 북진하면 나온다. ‘새낭골’ 서쪽 나지막한 능선 너머에 ‘춘천위성항법사무소’가 있다.

[유래] 양지쪽에 있는 마을이다. 『조선지지자료』에 마을명으로 ‘양지울(陽芝村)’로 기재되어 있고, 현 새낭골 입구에 세워진 입간판에 ‘석봉산 기슭 양지마을, 새낭골’이라고 적혀 있다.

[어원풀이] ‘새낭+골[谷]’로 분석된다. 유래는 불분명하다. ‘새낭골’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새낭골

● 새남바우

[별칭] 새남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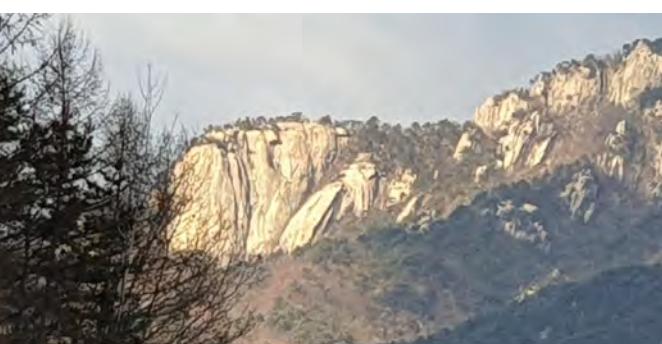
[형태] 바위

[위치] 용화산을 800m쯤 오르면 나타나는 큰 암반 지대가 ‘새남바위’이다. 용화산 정상 조금 아래에 있으나 용화산에서 전망이 가장 좋은 곳이다.

[유래] 기준문현에 고성리에 있는 바위라 하였다.『조선지지자료』에 ‘새남산(鳥岩山)’으로 기재되어 있다.

[어원풀이] ‘새남/사인암(舍人岩)+바우[岩]’로 분석된다. ‘사인암(舍人岩)+바우[岩]’와 같은 말이다. ‘새남골’ 참조.

[유래담] ‘새남바위’는 지네와 뱀이 승천했다는 전설이 전해진다. 또 ‘세남바위’로 칭하며, 〈三男(세남자) 바위 유래담〉이 전해진다. 이 전설은 용화산에 사이가 좋지 않은 세 남자와 네 여자가 살고 있었는데 서로 짹이 맞지 않아 극심한 질투와 투기를 일삼다가 땅이 척박해졌다는 내용이다. 이곳 바위가 바로 이 세 남자와 네 여자라고 한다.



새남바우

● 새남바우고개

[별칭] 새남바위고개, 큰고개, 태현(泰峴)

[형태] 고개

[위치] 고성리 양통에서 용화산을 넘어 화천군 하남면 삼화리로 넘어가는 고갯길이다.

[유래] 기준문현에 큰고개라 하였다.

[어원풀이] ‘새남/사인암(舍人岩)+고개[峴]’로 분석된다. ‘새남골’ 참조.

● 새밀고개

[형태] 고개

[위치] 고성리 덕박골에서 신북읍 산천리를 넘나드는 고갯길이다.

[유래] 『조선지지자료』에 고탄상리(현 고성리) 소재 고개이름으로 ‘성밋고개(城低峴)’가 기재되어 있다. 고탄상리와 병합된 고성리의 지명이 외곽의 군사 요충지였던 용화산성(龍華山城)에서 유래했고, 춘천지역 외곽의 3개 산성 중 2개가 사북면 소재인데, 하나는 고탄리의 고성(古城)이고 또 하나는 용화산고성(龍華山古城)이다. 그에 따라 고성리 새밀고개를 포함하여 성재, 고탄리의 새밀고개, 성문안고개와 같이 고탄리와 고성리 인근에 ‘성(城)’과 관련된 지명이 많다.

[어원풀이] ‘새/성(城)+밀[低]+고개[峴]’로 분석된다. ‘새밀’은 ‘성밀[城低]’의 와음을으로 보이며, ‘성(城) 아래에 있는 고개’라는 의미로 추정된다.

● 석봉구령

[별칭] 석봉구령

[형태] 골짜기

[위치] 고성리 석봉 아래에 위치한다.

[유래] 기준문현에 석봉 밑에 있는 골짜기라 하였다.

[어원풀이] ‘석(石)+봉(峰)+구령’으로 분석된다. ‘구령’은 움푹하게 파인 땅으로 ‘고랑, 수렁, 구렁텅이/구렁텅이’ 등으로 쓰인다. 석봉 아래에 움푹 패인 골짜기란 의미이다.

● 석봉(石峯)

[별칭] 석봉산

[형태] 산

[위치] 고성리 도장골 뒤에 있는 돌산이다.

[유래] 기존문헌에 돌로 이루어진 산이라 하였다.

[어원풀이] '석(石)+봉(峰)'으로 분석된다.



석봉



선돌바위

● 선돌고개

[형태] 고개

[위치] 2019년에 개통된 새길터널을 지나는 '새길로'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춘화로' 500m쯤 서진하면 '선돌고개'가 있다.

[유래] 선돌이 있는 고개라는 의미이다.

[어원풀이] '선돌바위' 참조.



선돌고개

● 선돌안

[형태] 마을

[위치] 고성리 선돌 안쪽에 위치한다.

[유래] 기존문헌에 선돌 안쪽 마을이라 하였다. 마을을 바깥쪽에 선돌과 서낭나무(소나무)가 있다. 지금은 4가구 정도 거주한다.

[어원풀이] '선({서-[立]}+{-ㄴ})+돌[石]+안[内]'으로

분석된다.

[유래담] 서낭나무가 두 개 있었다. 3중대가 용화산궁당 근처에 주둔하면서 도로 확장 작업을 했다. 어느 날 한 사병이 서낭나무를 베지 말리는 꿈을 꾸었다. 사병은 꿈 내용을 상관에게 전했다. 그러나 서낭나무 절단 작업이 강행되었다. 나무를 베던 군인 한 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났다. 그리고 며칠 후 폭우가 쏟아졌는데 다리를 건너던 군인 한 명이 물에 빠져 익사하는 사고가 났으며 작업을 강행한 책임자도 다쳤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선돌안

● 성지골

[별칭] 성짓골

[형태] 골짜기

[위치] 용화산 방면으로 옛날 서낭나무 자리를 지나면 오른편에 다리가 나오는데 그 다리 건너편에 있는 골짜기이다. ‘선돌안’ 춘화로 건너 맞은편에 있다.

[어원풀이] ‘성지(城址)+골[谷]’로 분석된다. ‘성지골’은 읍성이나 산성이 있던 곳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다.

● 성탄교(城吞橋)

[형태] 다리

[위치] 고성2리에서 고탄리 방면으로 가다가 오른 편 도장골로 들어가는 초입에 있다.

[유래] 사평천을 가운데 두고 개울 안쪽으로는 고성1리 도장골, 바깥쪽으로는 고탄리 용달말이 마주하고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성탄교(城吞橋)는 고성리(古城里)와 고탄리(古吞里)에서 각 가운데 글자 ‘성(城)’과 ‘탄(吞)’을 따서 합친 것이다.



성탄교

● 세밋고개

[별칭] 새밋고개, 세미고개

[형태] 고개

[위치] 고성1리에서 상송암으로 넘나드는 고갯길이다.

[유래] 고성1리에서 상송암으로 넘나드는 고갯길에 나무꾼들이 자주 이용했던 샘이 있었다고 한다.



세밋고개

[어원풀이] ‘새미/세미[泉]+ㅅ+고개[峴]’로 분석된다. ‘새미’는 ‘샘’에서 받침 ㅁ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의 첫소리로 옮겨진 것이다. 일반적으로 ‘새미(세미)’ 지명은 ‘샘’과 관련된다.

● 소태골

[별칭] 소랫골

[형태] 골짜기

[위치] 용화산 방면으로 옛날 서낭나무를 지나 올라가 오른편에 있는 다리를 건너면 있는 골짜기이다.

[유래] 기존문헌에 소태나무가 많은 골짜기라 하였다.

[어원풀이] ‘소태(소태나무)+골[谷]’로 분석된다. 소태나무는 고목(苦木)이라고도 하는 소교목이다. 옛날부터 이 마을에 소태나무가 많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소태골

● 손가락바우

[별칭] 손가락바위

[형태] 바위

[위치] 용화산에 있다.

[유래] 손가락 형상이 손가락을 펴고 있는 것처럼 생겨서 붙여진 이름이다.

[어원풀이] ‘손가락+바우[岩]’로 분석된다.



손가락바우

● 숲디

[형태] 숲

[위치] 고성리 배나무골 옆에 있다.

[유래] 배나무골 옆 전체가 숲이었는데, 지금은 집들이 들어섰다.



숲디

● 쉬영골

[형태] 골짜기

[위치] 고성리 배나무골 위, 큰 범잡은골 맞은편에 있다.

[어원풀이] ‘쉬영/숨어[隱]+골[谷]’로 분석된다. 마을이 산으로 가려져 있어 잘 보이지 않아 숨어 있는 것 같다는 의미로 ‘숨어골’이라고 불렸다가 나중에 ‘쉬영골’이 되었다는 유래가 전해진다.



쉬영골

는 계곡이라는 의미이다.

● 약물바우

[별칭] 약수바위

[형태] 바위

[위치] 고성리 용화산궁당 아래쪽 강원석재 근처이며, 석봉으로 오르는 초입에 위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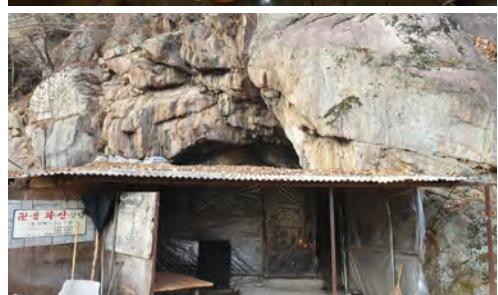
[유래] 기존문헌에 큰 바위 밑에서 약물이 흐른다고 하였다.

[어원풀이] ‘약물[藥水]+바우[岩]’로 분석된다. 석봉에서 흘러 내려오는 약물이 흐르는 바위란 의미이다. 무속인들 사이에는 물할머니 기도 도량으로 알려져 있다.

[유래답] 옛날에 피부병 있는 사람이 마시면 낫는 효험이 있다고 한다. 눈병이 심한 자가 공양을 올려 정성을 들인 뒤 약물로 눈을 씻었더니 눈병이 나았다는 경험담도 전해진다. 이곳의 영험을 받기 위해 무속인들이 자주 찾아 기도를 올린다. 지금은 물의 효능이 많이 떨어졌다고 한다.



안장바우



● 암반합수곡

[형태] 계곡

[위치] 용화산 남동쪽 3번지 봉 아래 ‘도트매기골’과 용화산 남동쪽 4번지 봉인 ‘고탄령’ 아래 ‘절골’ 그리고 용화산 남동쪽 5번지 봉인 ‘사여령’ 아래 ‘사여골’이 합수하는 곳이다.

[어원풀이] ‘암반(巖盤)+합수(合水)+곡(谷)’으로 분석된다. 도트매기, 절골, 사여골의 물이 한데 모이

약물바우

● 약물바위구렁

[별칭] 약물바위구렁

[형태] 골짜기

[위치] 약물바위 근방으로 고성리 산50번지 일대이다.

[유래] 기존문헌에 약물바우가 있는 골짜기라 하였다.

[어원풀이] ‘약물[藥水]+바우[岩]+구렁’으로 분석된다.

된다. ‘구렁’은 움푹하게 파인 땅으로 ‘고랑, 수렁, 구렁텅이/구렁텅이’ 등으로 쓰인다.



약물바우구렁

● 앗말

[형태] 마을

[위치] 미상이다.

[유래] 기존문헌에 고성리에 떨린 마을이라 하였다.

[어원풀이] ‘약/약(藥)+말[村]’로 추정된다. ‘약물마을’의 이칭으로 보인다.

● 양통

[형태] 마을

[위치] 고성리 ‘용화산양통마을등산로입구’에 있는 마을로, 사북면 고성리 195번지 일대이다. 용화산에서 남쪽 자락을 타고 흐르는 ‘양통개울’이 ‘양통(마을)’ 앞을 지나간다.

[유래] 기존문헌에 양달에 있는 마을이라 하였다.

『조선지지자료』에 ‘양통리(陽通里)’가 기재되어 있다.

[어원풀이] ‘양(兩/陽)+통(通)’으로 분석된다. 『조선지지자료』를 근거로 하면 별이 잘 통하는, 별이 잘 드는 마을의 의미를 지닌다. 지리적 위치를 고려할 때 양쪽으로 통하는 마을이라는 점에서 ‘양통(兩通)’으로 볼 수도 있다.

● 양통개울

[별칭] 양통계(陽通溪)

[형태] 하천

[위치] 고성리 ‘용화산양통마을등산로입구’에 있는 마을로, 용화산에서 남쪽 자락을 타고 흐르는 개울이다.

[유래] 기존문헌에 양통에 있는 개울이라 하였고, 『조선지지자료』에 고탄상리 소재 개울이름으로 ‘양통계(陽通溪)’가 기재되어 있다. 매산골, 소태골, 용화산휴양림, 봇다리에서 내려오는 개울물은 모두 고성2리 무당소로 합수한다.



양통개울

● 양통고개

[형태] 고개

[위치] 고성2리마을회관에서 남동쪽 수리봉 서쪽 능선이다. 신북읍 발산3리를 넘나드는 고개이다.

[유래] 기존문헌에 양통에서 신북읍으로 넘어가는 고개라 하였다.

[어원풀이] ‘양통’ 참조.

● 여우골

[형태] 골짜기

[위치] 고성1리 도장골 초입 원편에 위치한다.

[유래] 기존문헌에 여우가 많았던 골짜기라 하였다.

[어원풀이] ‘여우[狐]+골[谷]’로 분석된다.



여우골

● 용화산굿당

[형태] 무속

[위치] 선돌고개 모퉁이로, 춘화로 691번지이다.

[유래] 용화산 물할머니 굿당, 물할머니 기도터로 알려져 무속인들이 굿이나 기도를 하기 위해 많이 찾아온다. 특히 경기도 지역에서 많이 온다고 한다.



용화산굿당

● 용화산자연휴양림

[형태] 숲

[위치] 고성리 용화산등산로입구 양통(마을)에서 남동쪽 계곡 끝자락으로 사북면 사여골길 294번지이다. 용화산에서 가장 큰 계곡이며, 용화산자연휴양림에 들어오기 전에 ‘암반합수곡’을 지나는데, 이 근처에서 용화산으로 오르기도 한다.

[유래] 2006년 9월에 개장했다. 면적 2,089만 m^2 면적에 인공침엽수림과 활엽수림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고, 암반 계곡과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한다. 이곳에 야영과 숙박시설을 갖추고 있고, 용화산자연휴양림 관리를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에서 하고 있다.



용화산자연휴양림

● 움터골고개

[별칭] 움텃골고개

[형태] 고개

[위치] 고성1리 도장골에서 석봉산 정면으로 올라가는 고개로 넘어가면 송암리로 연결된다.

[유래] 기존문헌에 송암리 움텃골로 가는 고개라 하였다.

[어원풀이] ‘움+터+ㅅ+골[谷]+고개[峴]’로 분석된다.



울터골고개

● 장수발자국

[형태] 바위

[위치] 용화산에 위치한다.

[유래] 기존문헌에 옛날에 장수가 밟아서 패인 자국이 있는 바위라 하였다.

[어원풀이] ‘장수+발자국’으로 분석된다.

[유래답] 옛날에 힘센 장수가 말을 타고 힘차게 날아올랐는데 한 발은 용화산, 한 발은 화악산을 디뎠다는 전설이 전한다.



장수발자국



작은범잡은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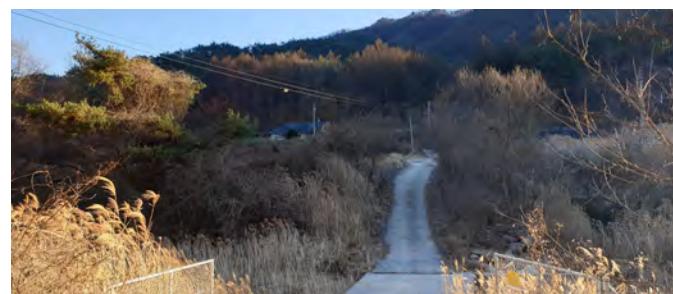
● 정지골

[별칭] 정짓골, 정자골(亭子谷)

[형태] 골짜기

[위치] 고성리 선돌안 개울 건너편, 정지소 뒤에 위치한다.

[유래] 기존문헌에 정지소 뒤에 있는 골짜기라 하였다.



정지골

● 장댓골

[별칭] 장대골

[형태] 골짜기

[위치] 고성리 물방앗간 근처에 위치한다.

[유래] 기존문헌에 물방앗골 부근에 있는 골짜기라 하였다.

[어원풀이] ‘장대+ㅅ+골[谷]’로 분석된다. 유래는 불분명하다.

[어원풀이] ‘정지+골’로 분석된다. ‘정지’는 ‘부엌’의 고어이다.

● 절골

[형태] 골짜기

[위치] 용화산 남동쪽 4번째 봉인 ‘고탄령’ 남쪽 골짜기 해발 580m쯤의 절터가 있는 골짜기이다.

[어원풀이] ‘절[寺]+골[谷]’로 분석된다. 옛날에 절이 있던 골짜기란 의미이다.



정지소

● 절터

[별칭] 법화사지터

[형태] 터

[위치] 용화산 남동쪽 4번째 봉인 ‘고탄령’ 남쪽 골짜기 해발 580m쯤에 위치한다.

[유래] 옛날에 절이 있던 골짜기라는 의미이다.『조선지지자료』에 고탄상리에 속한 고개이름으로 ‘사허현(寺墟峴)’이 기재되어 있다.

[어원풀이] ‘절[寺]+터[墟]’로 분석된다.

● 정지소

[별칭] 정자소(亭子沼)

[형태] 소(沼)

[위치] 고탄리에서 고성2리 방면 남쪽에 있는 드림파크(춘화로 736) 바로 아래에 위치한다.

[유래] 기존문헌에 고성리에 있는 소(沼)라 하였고,『조선지지자료』에는 ‘정자소(亭子沼)’로 기재되어 있다.

[어원풀이] ‘정지/정자(亭子)+소(沼)’로 분석된다. 정지는 정자(亭子)의 변음으로 볼 수 있다. 소(沼)의 길이가 길고 폭이 좁지만 물이 많고 수심이 깊다. [유래담] 조선 광해군 때에 출옹(尤翁) 이주(李胄)가 고탄상리(古吞上里)에 은거했는데, 소(沼) 근처에 정자를 지어놓고 풍류를 즐겼다고 한다.

● 지당골 1

[형태] 골짜기

[위치] 고성2리 ‘사여길’로 용화산자연휴양림 방면으로 올라가다 보면 왼편에 산신제단이 있다.

[유래] 기존문헌에 산제당이 있던 골짜기라 하였다.

[어원풀이] ‘지당[祭堂]+골[谷]’로 분석된다. ‘지당’은 ‘제당(祭堂)’의 강원 방언이다.



지당골 1

● 지당골 2

[형태] 골짜기

[위치] 고성1리 도장골 왼편 골짜기애 위치한다. 그곳에 서낭나무가 있다.

[유래] 기존문헌에 산제당이 있던 골짜기라 하였다. 1980년대까지는 산제를 지냈다고 한다.

[어원풀이] ‘지당[祭堂]+골[谷]’로 분석된다. ‘지당’

은 ‘제당(祭堂)’의 강원 방언이다.



지당골 2

● 질재

[형태] 고개

[위치] 읍터골에서 석봉산으로 넘어가는 능선이며, 석방구령 건너편에 위치한다.

[유래] 기존문헌에 석방구령 건너편에 있는 재라 하였다.

[어원풀이] ‘질[長]+재[峙]’로 분석된다. ‘질’은 ‘길다[長]’의 강원 방언이다. 긴 골짜기에 있는 고개란 의미이다.

● 쪽두리바우

[별칭] 쪽두리바우, 쪽두리바위

[형태] 바위



쪽두리바우

[위치] 용화산에 소재한다.

[유래] 기존문헌에 쪽두리처럼 생긴 바위라 하였다.

[어원풀이] ‘쪽도리/쪽두리+바우[岩]’로 분석된다.

● 쪽소들

[별칭] 쪽수들

[형태] 들

[위치] 고성1리 도장골에서 장군봉 방면에 있는 작은 들판이다.

[유래] 기존문헌에 고성리 앞에 있는 들이라 하였다.

[어원풀이] ‘쪽/쪽빛[藍]+수/소(沼)+들[野]’로 분석된다. 쪽빛처럼 파란 소(沼) 부근에 있는 들판이란 의미이다.



쪽소들

● 칼새봉

[별칭] 칼바위

[형태] 산

[위치] 용화산 동쪽 근방에 위치한다. 불알바우 근처이다.

[유래] 기존문헌에 칼날처럼 생긴 바위라 하였다.

[어원풀이] ‘칼+새+봉’으로 분석된다.



칼새봉

● 학골

[별칭] 약초마을

[형태] 골짜기

[위치] 매산골에서 개울을 따라 올라가다가 왼편에 있는 골짜기로 사북면 고성리 180번지 일대이다.

[유래] 기존문헌에 학이 날았다는 골짜기라 하였다. 지금은 약초마을로도 부른다.

[어원풀이] ‘학(鶴)+골[谷]’로 분석된다.



학골

● 큰골

[형태] 골짜기

[위치] 고성리 양통에 위치한다.

[유래] 기존문헌에 부근에서 가장 큰 골짜기라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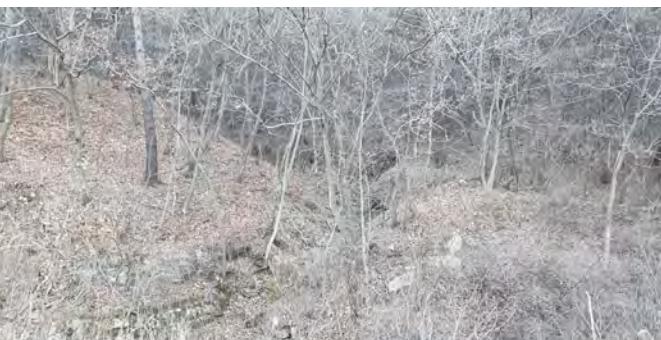
[어원풀이] ‘큰[大]+골[谷]’로 분석된다.

● 큰범잡은골

[형태] 골짜기

[위치] 고성리 작은범잡은골에서 한 고개 넘어서 있는 깊숙한 골짜기다. 대추나무 하우스가 있는 개울 건너편에 위치한다.

[어원풀이] ‘큰[大]+범[虎]+잡은+골[谷]’로 분석된다. 큰 범을 잡은 골짜기란 의미이고, 이곳에는 호랑이굴도 있다고 한다.



큰범잡은골

● 활골

[형태] 골짜기

[위치] 고성2리와 용화산 입구 ‘양통’ 사이에 동쪽으로 길게 휘어진 골짜기이다. 족두리바위를 넘어서 용화산휴양림 끝에 위치한다.

[유래] 기존문헌에 활처럼 굽은 골짜기라 하였다.

[어원풀이] ‘활[弦]+골[谷]’로 분석된다.

● 황새버덩

[형태] 들

[위치] 고성1리 도장골 오른편 골짜기 방면의 석봉 아래에 위치한다.

[유래] 기존문헌에 들이 황새 목처럼 길게 생겼다고 하였다.

[어원풀이] ‘황새+버덩’으로 분석된다. 지명접미사

‘벼덩’은 높고 평평하며 나무는 없이 풀만 우거진
거친 들이다.



황새벼덩

위치와 현황 | 서쪽으로 춘천호, 남쪽으로 춘천댐이 있다. 자연마을에는 고습(古習), 응달말, 양지말, 구만리골, 적둔지골 등이 있다. 장망터나 설통골 등 골짜기가 많다.

연혁 | 『춘주지』를 보면 북내(北內)에 고탄(古吞)이 기록되어 있다. 『여지도서』, 『호구총수』, 『춘천읍지』, 『춘천부지』, 『관동읍지』는 북내면(北內面) 고탄리(古吞里)로 표기하였다. 『조선지지자료』는 북내이작면(北內二作面) 고탄상리(古吞上里), 고탄하리(古吞下里)로, 『강원도지지조서』, 『강원도지』, 『수춘지』, 『춘주지』, 『춘천백년사』는 사북면(史北面) 고탄리(古吞里)로 표기하였다. 현재 행정리와 법정리는 동일하게 고탄리다.

유래 | 본래 춘천군 북내이작면의 지역으로서 이 부근인 고성리와 인람리까지를 통틀어 고륜리라 하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고습, 구마니, 양지울, 응달말, 적둔리를 병합하여 고탄리라 하였다.

● 가는장등

[형태] 골짜기

[위치] 고탄리 해피초원목장 뒤 범잡은골 옆에 위치한다.

[어원풀이] ‘가는+장(長)+등’으로 분석된다. 능선이 가늘고 길어서 생긴 이름이다.



가는장등

● 가마소

[별칭] 가매소

[형태] 소(沼)

[위치] 고탄리 석동거리 고습과 고탄의 경계에 위치한다. 지금은 춘천호에 수몰되었다.

[어원풀이] ‘가마[鼎]+소(沼)’로 분석된다. 소(沼)가 가마[鼎]처럼 생겨서 붙여진 이름이다. 가마소에 물고기가 많았다고 한다.



가마소

● 고습

[형태] 마을

[위치] 고탄리 석동거리에서 전방 50m쯤에 있는 안산 바로 아래에 위치한다. 지금은 춘천호에 수몰되었다.

[유래] 고륜(고탄리) 서쪽에 있는 마을이며, 떼둔지에서 들어오는 첫 마을이다. 『조선지지자료』에는 ‘고습리(高習里)’로 기재되어 있고, 기존문헌에는 고습(古習)으로 기재되어 있다.

[어원풀이] ‘고(古)+습(習)’으로 분석된다. 유래는 불분명하다.



고습

● 고습안산

[형태] 산

[위치] 인람리, 송암리, 고탄리를 휘돌아 고습 앞에 있으며, 솔디원나눔터에서 한국수력원자력한강수력본부 방면의 정면에 있는 산이다. 행정구역상 주소는 사북면 인람리 산1-1번지이다.

[유래] 기존문헌에 고습 앞에 있는 산이라 하였다.

[어원풀이] ‘고습(古習)+안산(秦山)’으로 분석된다. ‘안산’은 풍수지리에서 마을이나 무덤 앞의 산을 밀한다.



고습안산

● 고탄개울

[별칭] 고탄계, 사평천

[형태] 하천

[위치] 고탄 산들미 농촌체험 휴양마을(송화초등학교 옛터) 뒤에 위치한다.

[유래] 고성리에서 발원하여 고탄리를 거쳐 춘천호로 들어가는 개울이라는 의미이다. 과거에는 모래는 많지 않고 돌이 많던 개울이었다. 그런데 일제 강점기 때 용화산에서 10년간 산판을 했었고, 춘천호 수몰 전에는 용화산에서 발원하여 떼둔지에서 모진강(북한강)으로 흘러 들어가면서 곳곳에 모래벌판이 만들어졌다. 요즘은 사평천(沙平川)이라 부르기도 하는데, 춘천호 수몰 후에 호수 접변 지역에 넓은 모래밭을 이루고 있는 하천이란 의미이다. 고탄리 일대에 흐르는 사평천 물줄기를 고탄계

(古吞溪)라고도 부른다.

[어원풀이] ‘고탄(古吞)+개울[川]’로 분석된다.

● 고탄교(古吞橋)

[형태] 다리

[위치] 고성리에서 성탄교를 지나 고탄산들미농촌체험휴양마을과 솔다원나눔터 사이에 위치한다.

[유래] 고탄교는 고탄리 적두니, 송암리, 인람리, 가일리로 가는 주요한 길목이다. 고탄교에 들어서서 정면은 전원마을, 원편으로 꺾어서 오른편 첫 길은 적두니, 직진하다가 삼거리에서 오른편 길은 송암리 본마을과 가일리 방면, 직진하면 인람리를 넘어 가는 고개로 이어진다. 2018년에 폭우로 다리 일부가 유실되어 공병대원들이 다리를 재건했다.

[어원풀이] ‘고탄(古吞)+교(橋)’로 분석된다.



고탄교

● 괴이산

[별칭] 괴산, 고양이산

[형태] 산

[위치] 고탄리 구마니 뒤편으로 고탄리 산60번지이다. 송암리 초입에 있는 쥐산과 마주하고 있다.

[유래] 기존문헌에 형세가 고양이처럼 생긴 산이라 하였다.

[어원풀이] ‘괴[猫]+이+산(山)’으로 분석된다. ‘괴’는



고탄개울

일부 속담에 ‘고양이’로 쓰인다.

[유래담] 괴산에 사는 고양이들이 틈만 나면 쥐산에 침범하여 쥐를 잡아먹었다. 불안한 쥐들이 힘을 합쳐서 고양이에게 대항하여 무찔렀다는 내용의 괴산 전설이 『강원의 설화 I』에 채록되어 있다. 괴산이 있는 고탄리와 쥐산이 있는 송암리 사이에 다리를 놓으면 사이가 좋지 않게 된다고 하여 다리를 놓지 않았다고 한다.



괴이산

● 구마니

[별칭] 구만이, 구마니골, 구만리

[형태] 마을

[위치] 고탄리 석동거리에서 동남쪽 50m 거리에 위치한다. 춘천호에 일부 수몰된 자리는 낚시터로 변했고, 일부는 남아있다.

[유래] 기존문헌에 고습 동남쪽에 있는 마을이라고 하였고, 『조선지지자료』에는 ‘구만리(九萬里)’로 기재되어 있다. 6.25전쟁 전에는 5가구가 살았던 마을이다.

[어원풀이] ‘구(九/古)+만(萬)+리(里)’로 분석된다. 고탄리의 옛지명 ‘고난산현(古蘭山縣)’을 세간에서는 ‘고만’이라고 부르기도 했는데, ‘구만’은 ‘고만’의 변이음으로도 볼 수 있다. 또는 산줄기가 강쪽으로 돌출되어 나와서 생긴 움푹한 지형을 의미하

는 ‘굼+안[內]’으로 볼 수도 있다.



구마니

● 구마니들

[형태] 들

[위치] 고탄리 구마니에 위치한다.

[유래] 『조선지지자료』에 고탄하리 소재 들판이름으로 ‘구만니들(九萬坪)’이 기재되어 있다.

[어원풀이] ‘구마니+들[野]’로 분석된다.

● 날근터

[형태] 터

[위치] 적두니 쥐산에서는 동쪽, 적두니 능재 오른쪽 방면의 방아다리를 끝머리 뒤편에 위치한다.

[유래] 옛날에 큰 부자가 살았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날근터

[어원풀이] ‘날근(낡은)+터’로 분석된다. ‘날근’은 ‘오랜 세월이 흘러서 헐고 너절하게 되다’ 의미이다.

● 능장골

[형태] 골짜기

[위치] 고탄리 송화초등학교 남쪽으로, 사북면 고탄리 191-1번지 일대이다.

[유래] 기존문헌에 예전에 지위가 높은 사람의 무덤이 있었던 골짜기라 하였다.

[어원풀이] ‘능(陵)+장(葬)+골[谷]’로 분석된다.



능장골

● 능재

[형태] 산

[위치] 고탄리 송화초등학교 남쪽에 위치한다.

[유래] 기존문헌에 능장골이 있는 산이라 하였다.



능재

[어원풀이] ‘능(陵)+재[峙]’로 분석된다. 강원도 지명에서 산을 ‘재’로 표현한 곳이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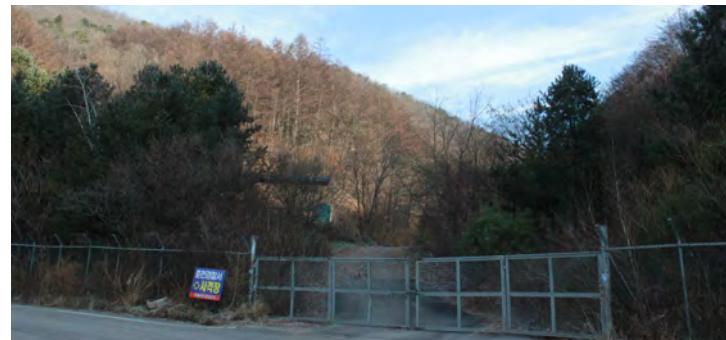
● 다릿골고개

[형태] 고개

[위치] 고탄리에서 고습안산 방면으로 407번 지방도를 따라가면 나오는 춘천경찰서 사격장에 위치한다.

[유래] 기존문헌에 가일리 다릿골로 가는 고개라 하였다. 다릿골고개는 고탄리에서 다릿골까지 이어졌는데 지금은 상당 부분이 춘천호에 수몰되었고, 일부만 남아있다. 고탄리에서 다릿골로 오고가는 고갯길에 사람들이 쉬어가던 커다란 단풍나무가 석동거리 옆에 있었는데, 그 나무도 춘천호에 수몰되었다.

[어원풀이] ‘다리+ㅅ+골+고개’로 분석된다.



다릿골고개

● 단배나무골

[별칭] 단배나뭇골

[형태] 골짜기

[위치] 고탄리 산29-5번지 일대이다.

[유래] 기존문헌에 단배나무[甘梨]가 있던 골짜기라 하였다.

[어원풀이] ‘단배나무[甘梨]+골[谷]’로 분석된다.



단배나무골

● 덕재

[형태] 골짜기

[위치] 사북면 춘천경찰서 사격장이 있는 다릿골 일대에 위치한다. 덕재는 고탄리, 고성리, 용화산 까지 이어진다.

[유래] 기존문헌에 높은 산에 있는 골짜기라 하였다.

[어원풀이] ‘덕(德)+재[峙]’로 분석된다. ‘덕’은 언덕, 둔덕, 산을 의미하고, ‘재[峙]’도 언덕을 의미한다.



덕재

● 덜머리

[별칭] 들머리, 덜머리를

[형태] 들

[위치] 고탄 산들미 농촌체험 휴양마을(옛 송화초등 학교터) 개울 건너편에 위치한다.

[유래] 적두니골 첫머리에 있는 들판이란 의미이

다. 이곳에 물레방아가 있었다. 『조선지지자료』에 고탄하리 소재 마을이름으로 덕두리(德頭里)가 기재되어 있는데 동일한 지명으로 추정된다.

[어원풀이] ‘덜/들[入]+머리[頭]’로 분석된다. 특정한 곳으로 들어가는 첫 부근이란 의미이다.



덜머리

● 뒷버덩

[형태] 들

[위치] 고탄교에서 직진 방면, 적두니 동북향에 있는 전원마을의 평평한 곳이다.

[유래] 기존문헌에 뒤편에 있는 버덩이라 하였다.

[어원풀이] ‘뒤[後]+ㅅ+버덩’으로 분석된다. ‘버덩’은 높고 평평하며 나무는 없이 풀만 우거진 거친 들이며, ‘버덩/빼덩/버든/편덩’ 등의 이형태가 있다.



뒷버덩

● 물맞는골

[별칭] 물많은골, 물먹는골

[형태] 골짜기

[위치] 적두니 송암고개 오른편 골짜기에 샘이 있다.

[유래] 기존문헌에 나무꾼이 물을 먹는 샘이 있는 골짜기라 하였다. 실제 물이 많지는 않다.

[어원풀이] ‘물+맞는+골’로 분석된다.



물맞는골

● 방아다리들

[형태] 들

[위치] 송암리 초입 방면의 적두니 앞쪽으로 사북면 고탄리 866번지 일대이다.

[유래] 기존문헌에 지형이 방아의 다리처럼 생긴 들이라 하였고, 『조선지지자료』에는 ‘방화다리들(訪花坪)’로 기재되어 있다. 적두니 앞 너른 들판을 의미한다. 옛날에 이곳에 물레방아가 두 개 있었다.

[어원풀이] ‘방아+다리+들’로 분석된다. 디딜방아



방아다리들

처럼 Y자형의 갈라진 지형에서 유래한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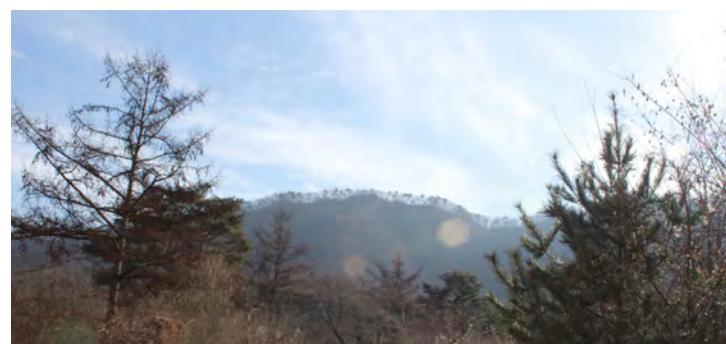
● 범잡은골

[형태] 골짜기

[위치] 고탄리 양지울마을 위 북쪽 전원주택 옆 골짜기이다.

[유래] 기존문헌에 옛날에 범을 잡은 골짜기라 하였다. 덕재의 여러 골짜기 중 하나로 두 골짜기 사이에 골이 들어간 곳이다.

[어원풀이] ‘범[虎]+잡은[捕]+골[谷]’로 분석된다.



범잡은골

● 벼락바우

[별칭] 벼락바위

[형태] 바위

[위치] 고습안산 맞은편에 위치한다.

[유래] 벼락바위 일부는 춘천호에 수몰되었고, 일부는 남아있다.

[어원풀이] ‘벼락+바우/바위[岩]’로 분석된다.

● 사직개울

[별칭] 사지개울

[형태] 하천

[위치] 적두니 저수지 왼편 사직골에 위치한다.

[유래] 사직골에 있는 개울이다. 『조선지지자료』에 고탄하리 소재 하천이름으로 ‘사실골개울(四實溪)’이 기재되어 있다.

[어원풀이] ‘사직(社稷)+개울[川]’로 분석된다.

● 사직골

[별칭] 사시골, 사실골

[형태] 골짜기

[위치] 적두니 저수지 왼편에 위치한다.

[어원풀이] ‘사직(社稷)+골[谷]’로 분석된다.



사직골

● 산이골

[별칭] 사니골

[형태] 골짜기

[위치] 고탄리 큰쇠가지골 아래에 위치한다.



산이골

[어원풀이] 응달말에 있는 골짜기인데 유래는 불분명하다.

● 산지당골

[별칭] 산제당골

[형태] 골짜기

[위치] 고탄리 송화초등학교 아래 응달말 방면에 위치한다.

[유래] 기준문헌에 예전에 산제당이 있던 골짜기라 하였다.

[어원풀이] ‘산지당[山祭堂]+골[谷]’로 분석된다. ‘지당’은 ‘제당’의 강원 방언이다.



산지당골

● 삼대골

[형태] 골짜기

[위치] 적두니에 있는 저수지에서 송암고개 가는 방면 오른쪽에 위치한 마지막 산골짜기이다.



삼대골

[어원풀이] 송암고개 밑에 있는 골짜기인데 유래는 불분명하다.

● 삿갓봉

[형태] 산

[위치] 고탄리 응달말 남쪽에 위치한다. 고탄리 안산과 신북읍 발산 사이에 놓인 산으로 고탄리 안산에서 오른편, 신북읍 발산에서 왼편에 있다.

[어원풀이] ‘삿갓+봉(峰)’으로 분석된다. 산 형세가 삿갓처럼 생겨서 붙여진 이름이다.



삿갓봉

● 삿갓봉골

[형태] 골짜기

[위치] 삿갓봉 안에 있는 골짜기로 사북면 고탄리 산24번지 일대이다.

[어원풀이] ‘삿갓봉’ 참조,

● 새밑고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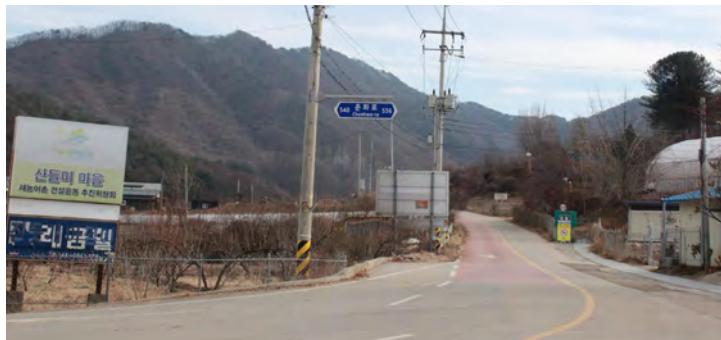
[별칭] 고륜고개

[위치] 고탄리에서 신북읍 지내리로 넘나드는 고갯길이다. 고탄리 길성주유소 왼편으로 사북면 고탄리 산 14-2번지이다.

[유래] 『조선지지자료』에 고탄상리(현 고성리) 소재 고개이름으로 ‘성밋고개(城低峴)’가 기재되어 있고,

기준문헌에 고개 너머 신북면 새밑으로 가는 고개라 하였다. 고탄상리와 병합된 고성리의 지명이 외곽의 군사 요충지였던 용화산성(龍華山城)에서 유래했고, 춘천지역 외곽의 3개 산성 중 2개가 사북면 소재인데, 하나는 고탄리의 고성(古城)이고 또 하나는 용화산고성(龍華山古城)이다. 그에 따라 고성리 새밑고개를 포함하여 성재, 고탄리의 새밑고개, 성문안고개와 같이 고탄리와 고성리 인근에 ‘성(城)’과 관련된 지명이 많다.

[어원풀이] ‘새/성(城)+밑[低]+고개[峴]’로 분석된다. ‘새밀’은 ‘성밀[城底]’의 와음으로, ‘성(城) 아래에 있는 고개’라는 의미로 추정된다.



새밑고개

● 서낭바우

[별칭] 서낭바위

[형태] 바위

[위치] 고탄리 응달말 들어가는 길가 넓은 공터에 있었는데 지금은 파묻혀 확인할 수 없다.

[어원풀이] ‘서낭+바우[峩]’로 분석된다.

● 석갓산

[형태] 산

[위치] 고탄리 응달말 동쪽에 위치한다.

[어원풀이] ‘석갓+산(山)’으로 분석된다. 삿갓처럼

뾰족하게 생긴 돌산이란 의미이다.

● 석동거리

[형태] 마을

[위치] 고탄리 괴이산 아래, 구마니 옆에 위치한다.
지금은 춘천호에 수몰되었다.

[유래] 기존문헌에 ‘석동거리’라 하고 절터 부근에 있는 마을이라 하였는데, 절터는 상당히 먼 거리에 있으며, 과거에는 지금과는 달리 고탄개울에 모래가 많지 않고 돌이 많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석동거리’가 타당해 보인다. 마을에 돌이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수몰 전에 4가구가 살았는데, 소나무로 덮힌 산과 200m 넓이의 개울이 있었던 마을이라고 한다.

[어원풀이] ‘석동(石洞)+거리[街]’로 분석한다. 돌이 많은 동네란 의미이다.



석동거리

● 설통골

[형태] 골짜기

[위치] 고탄리 우내박골 부근에 위치한다.

[유래] 기존문헌에 설통을 놓았던 골짜기라 하였다.

[어원풀이] ‘설통+골[谷]’로 분석된다. ‘설통’은 벌통을 말하기도 하고 강이나 개울의 상류에서 내려오는 물고기를 잡으려고 물속에 거꾸로 놓은 통발을 말하기도 한다.

● 성문안

[형태] 산

[위치] 고탄리 양지울 남쪽, 고탄 전원주택 맨꼭대기 뒤편에 위치한다.

[유래] 기존문헌에 옛날의 성터 안에 있는 산이라 하였다.

[어원풀이] ‘성(城)+문(門)+안[內]’으로 분석된다.



성문안

● 성문안고개

[형태] 고개

[위치] 고탄리에서 신북읍 지름물을 넘나드는 고개로 고탄리 양지울 남쪽, 고탄 전원주택 맨꼭대기에 위치한다.

[어원풀이] ‘성(城)+문(門)+안[內]+고개[峴]’로 분석된다. ‘성문안’ 참조.



성문안고개

● 성재

[형태] 고개

[위치] 양통에서 고탄리 새밀고개 동쪽으로 넘어가는 고개로, 사북면 고탄리 36번지 일대이다.

[어원풀이] ‘성(城)+재[峙]’로 분석된다. 고개의 생김새가 누에머리 끝처럼 생겼다. 옛날에 고개 능선을 따라가면 성곽이 있었다고 하므로 산성(山城)과 관련된 지명으로 보인다.



송암고개

성재

● 성재골

[형태] 골짜기

[위치] 고탄리 새밀고개에서 약 1km 즈음 왼편에 위치한다.

[어원풀이] ‘성(城)+재[峙]+골[谷]’로 분석된다.

● 송암고개

[형태] 고개

[위치] 적두니에 있는 저수지에서 올라가서 송암리 방면과 연결되는 고개이다.

[유래] 기존문헌에 송암리로 가는 고개라 하였다. 송암리에서는 사실고개를 통해 적두니로 넘어온다.

[어원풀이] ‘송암(松岩里)+고개[峴]’로 분석된다.

● 쇠파니

[형태] 골짜기

[위치] 고탄리 웅달말에서 우측에 있는 새밀고개 바로 밑에 위치한다. 능장골 옆 길성주유소 바로 뒤로, 사북면 고탄리 153번지 일대이다.

[유래] 기존문헌에 옛날에 쇠를 판 골짜기라 하였다.

[어원풀이] ‘쇠[鐵]+파/판/파다[鑿]+○(접미사)’로 분석된다. 지금도 굽이 남아 있다.



쇠파니

● 씨아구불탱이

[별칭] 췌구불탱이

[형태] 골짜기

[위치] 다릿골에서 인람리 삼팔교를 거쳐 화천으로 넘어가는 골짜기이다. 지금은 인람리 방면은 수몰되었고, 고탄리 방면에서 다릿골 직전까지는 407

번 지방도가 되었다.

[어원풀이] ‘씨아+구렁탱이’으로 분석한다. ‘구렁탱이’는 움푹하게 파인 땅으로 ‘구렁, 고랑, 수렁, 구렁텅이’ 등으로 쓰인다. 골짜기가 목화씨를 빼는 도구인 ‘씨아’처럼 구부러져서 붙여진 이름이다.



씨아구불탱이

● 아갈바우

[별칭] 아갈바위

[형태] 바위

[위치] 고탄리 방갈로 식당에서 수물된 구마니 방면의 맞은편에 위치한다.

[어원풀이] ‘아갈[口]+바우[岩]’로 분석된다. 바위가 입을 벌리고 있는 형상을 닮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아갈바우

● 알비봉

[형태] 산

[위치] 적두니 송암고개 방면 오른편에 위치한다.

[어원풀이] ‘알[卵]+봉(峰)’으로 분석된다. 산봉우리가 알처럼 뾰족하게 생겨서 붙여진 이름이다.



알비봉

● 양지울

[별칭] 양지말, 양짓말, 주재미골

[형태] 마을

[위치] 고탄리 춘천호 동쪽 끝자락 바로 앞으로, 고탄리 914번지 일대이다.

[유래] 기존문헌에 양지쪽에 있는 마을이라 하였다.

[어원풀이] ‘양지(陽地)+울[村]’로 분석된다. 고탄리 중심 마을로 남쪽에 울타리 모양의 산줄기가 이어져 있다.



양지울

● 양지울들

[형태] 들

[위치] 양지울 앞쪽에 위치한다.

[유래] 양지울 앞 너른 들판이다. 『조선지지자료』에 고탄하리 소재 들판이름으로 ‘양지울들(陽芝坪)’이 기재되어 있다.

[어원풀이] ‘양지(陽地)+울[村]+들[野]’로 분석된다. ‘양지울’ 참조.

● 용수보

[형태] 보(洑)

[위치] 고탄개울에 있는 보(洑)이며, 줄기가 고성리 양통까지 이어진다.

[유래] 개울이 아홉구비를 돌아흐르는 곳이다. 보(洑) 가운데에 있는 바위에는 구곡탄(九曲灘)이라 새겨져 있었다고 한다. 고성리에서 시작하여 고탄리를 거쳐 북한강(춘천호)로 들어가는 사평천 줄기이며 현재 보(洑)는 없다. 『조선지지자료』에는 고탄상리 소재 여울이름으로 ‘구용탄(九龍灘)’이 기재되어 있다.

[어원풀이] ‘용(龍)+수(首/頭)+보(洑)’로 분석된다.



용수보

[위치] 용수보의 물 가운데 있던 바위이다.

[유래] 기존문헌에 바위의 형상이 용의 머리처럼 생겼다고 하였다.

[어원풀이] ‘용(龍)+수(首, 頭)+암(岩)’으로 분석된다.

● 우내박골

[형태] 골짜기

[위치] 고탄리 설통골 부근에 위치한다.

[유래] 기존문헌에 설통골 부근에 있는 골짜기라 하였다.

[어원풀이] ‘우내박+골[谷]’로 분석된다. 유래는 불분명하다.

● 응달말

[형태] 마을

[위치] 송화초등학교에서 동쪽으로 600m 남짓한 거리에 ‘응달말마을회관’이 있다. 사북면 고탄리 98-1번지 일대이다.

[유래] 기존문헌에 고둔(고탄리) 응달쪽에 있는 마을이라 하였다.

[어원풀이] ‘응달+말[村]’로 분석된다.



응달말

● 용수암

[형태] 바위

● 작은단배나무골

[형태] 골짜기

[위치] 단배나무골 일대에 위치한다.

[어원풀이] ‘작은[小]+단배나무[甘梨]+골[谷]’로 분석된다. 단배나무(甘梨)가 있던 작은 골짜기란 의미이다.



작은단배나무골

● 작은쇠가지골

[별칭] 작은세가지골

[형태] 골짜기

[위치] 고탄리 길성주유소 오른편 새밀고개로 440m 정도 넘어가면 서쪽 방면에 위치한다. 중산이골 아래, 단배나무골 위에 있다.

[유래] 새밀고개로 가는 서쪽 골짜기이다.

[어원풀이] ‘작은[小]+쇠/세(細)+가지[枝]+골[谷]’로 분석된다. 세 갈래로 갈라지는 골짜기란 의미로 추정된다.



작은쇠가지골

● 작은애골벼덩

[형태] 들

[위치] 해피초원목장 주차장 가는 길목으로 큰애골벼덩 바로 옆에 위치한다. 사북면 고탄리 산29-5번지 일대이다.

[어원풀이] ‘작은+애+골[谷]+벼덩’으로 분석된다. ‘벼덩’은 높고 평평하며 나무는 없이 풀만 우거진 거친 들이며, 유래는 불분명하다.



작은애골벼덩

● 장군봉

[형태] 산

[위치] 도장골 뒤에 있는 큰 봉우리이다.

[유래] 기존문헌에 장군이 났다는 산이라 하였다.

[어원풀이] ‘장군(將軍)+봉(峰)’으로 분석된다.

[유래담] 옛날에 어떤 장군이 진을 치고 적의 침입을 막은 산이라는 유래도 전한다.



장군봉

● 장망터

[형태] 골짜기

[위치] 적두니 투구봉 부근에 위치한다.

[유래] 기존문헌에 투구처럼 생긴 투구봉 부근에 있는 골짜기라 하였다.

[어원풀이] ‘장+망+터’로 분석된다. 유래는 불분명하다.

[어원풀이] ‘적(赤)+둔(屯)+이(里)’로 분석된다. 붉은 흙이 많은 마을이란 의미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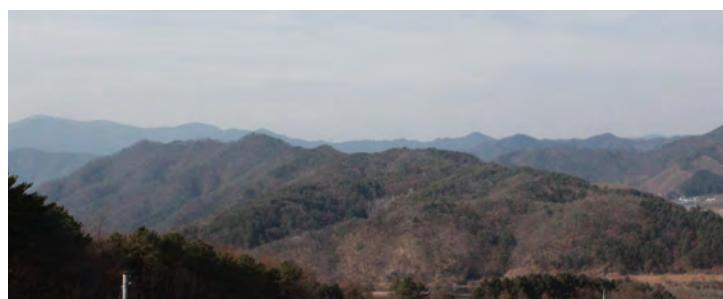
● 절골

[형태] 골짜기

[위치] 고탄리 석동거리 개울 맞은편에 위치한다.

[유래] 기존문헌에 옛날에 절이 있던 골짜기라 하였다.

[어원풀이] ‘절[寺]+골[谷]’로 분석된다.



절골

● 적두니

[별칭] 적두니골, 적둔이

[형태] 마을

[위치] 고탄교에서 왼편으로 돌아 버스정류장 맞은 편에 위치한 마을이다. 송암리와 경계에 있다.

[유래] 기존문헌에 양지울 동쪽에 있는 마을이라 하였고, 『조선지지자료』에 ‘적두니(赤屯里)’로 기재되어 있다.

● 절터

[형태] 터

[위치] 양지울 남서쪽 성문안고개 산 중턱에 있던 골짜기이다. 해피초원목장 산꼭대기 위의 두 봉우리 사이에 움푹 들어간 곳이다.

[어원풀이] ‘절[寺]+터[垈]’로 분석된다. 성문안고개에 있던 절터라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적두니



절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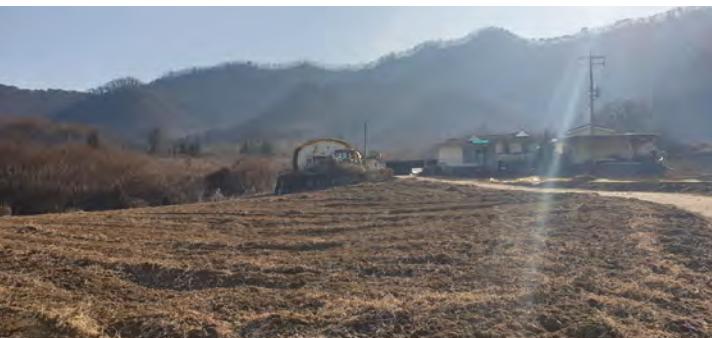
● 중산이골

[별칭] 중사리골

[형태] 골짜기

[위치] 고탄리 새길고개에서 신북읍 방면 400m 오른편에 있는 골짜기이다.

[어원풀이] '중[僧]+산이/사리[生]+골[谷]'로 추정된다. 스님이 살던 골짜기란 의미이다.



중산이골

● 쥐산

[형태] 산

[위치] 고탄리 적두니 서쪽, 송암리 초입에 위치한다.

[유래] 기준문헌에 산 형세가 쥐처럼 생겨서 붙여진 이름이라 하였다.

[어원풀이] '쥐[鼠]+산(山)'으로 분석된다.

[유래답] 괴산에 사는 고양이들이 틈만 나면 쥐산



쥐산

에 침범하여 쥐를 잡아먹었다. 불안한 쥐들이 힘을 합쳐서 고양이에게 대항하여 무찔렀다는 내용의 괴산 전설이 『강원의 설화 I』에 채록되어 있다. 괴산이 있는 고탄리와 쥐산이 있는 송암리 사이에 다리를 놓으면 사이가 좋지 않게 된다고 하여 다리를 놓지 않았다고 한다.

● 증병소

[형태] 소(沼)

[위치] 미상이다. 춘천호에 수몰된 것으로 추정된다.

[유래] 『조선지지자료』에 고탄하리 소재 소(沼) 이름으로 '증병쇼(增并沼)'가 기재되어 있다. 의미는 불분명하다.

● 진짜배기

[형태] 골짜기

[위치] 고탄리 고습안산 앞쪽에 위치하며 맞은편에 벼락바위가 있다. 지금은 골짜기가 춘천호에 수몰되었고, 벼락바위는 일부만 남아있다.

[유래] 기존문헌에 예전에 군사가 진을 친 곳이라 하였다.

[어원풀이] '진짜+배기'로 분석한다. 강원도에서는 솟대를 '짐대'라 부르기도 하였으므로 솟대가 박혀 있는 곳이란 의미의 '짐대박이'에서 유래한 것으로 추정된다.



진짜배기

● 청춘나들이보

[형태] 보(洑)

[위치] 솔다원나눔터와 적두니 초입 고탄개울에 있던 보(洑)인데 현재는 없다.

[유래] 보에 쌓은 돌다리로 개울을 건너다녔다고 한다.

[어원풀이] '청춘(青春)+나들이+보(洑)'로 분석한다. 청춘나들이보에서 송암리 방면으로 흐르는 고탄개울에 물레방아와 보(洑)가 있었다고 한다.



청춘나들이보

● 충효정(忠孝亭)

[형태] 정자

[위치] 고탄교 들어가는 길 원편에 있다.

[유래] 충과 효를 기리는 정자라는 의미로 1993년 도에 건립되었다.



충효정

● 큰쇠가지골

[별칭] 큰세가지골

[형태] 골짜기

[위치] 새밀고개 북서쪽에 위치한다. 중산이골 맞은편 50m 위이다.

[유래] 새밀고개 북서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어원풀이] '큰[大]+쇠/세(細)+가지[枝]+골[谷]'로 분석된다. 세 갈래로 갈라진 골짜기란 의미로 추정된다.



큰쇠가지골

● 큰애골버덩

[형태] 들

[위치] 해피초원목장 주차장으로 가는 길목에 있으며, 작은애골버덩 바로 옆이다. 사북면 고탄리 산 29-5번지 일대이다.



큰애골버덩

[어원풀이] ‘큰+애+골[谷]+벼덩’으로 분석된다. ‘벼덩’은 높고 평평하며 나무는 없이 풀만 우거진 거친 들이며, 유래는 불분명하다.

● 투구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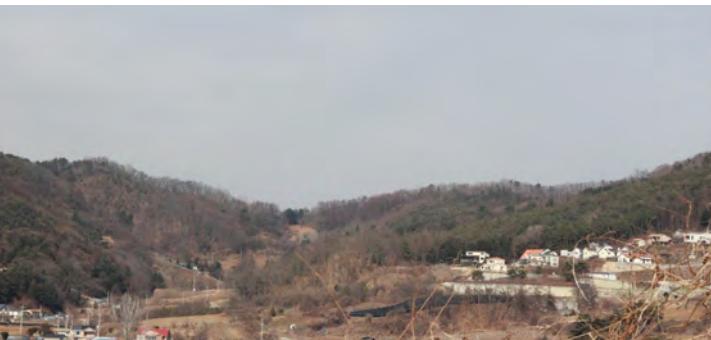
[형태] 산

[위치] 고탄리 적두니와 산꼭대기 전원마을 사이에 위치한다.

[유래] 기준문헌에 산 형세가 투구처럼 생겨서 불여진 이름이라 하였다.



해피초원목장



투구봉

[어원풀이] ‘투구(鬪具)+봉(峯)’으로 분석된다. ‘투구((鬪具)’는 군인이 전투할 때에 적의 화살이나 칼날로부터 머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쓰던 쇠로 만든 모자이다.

● 해피초원목장

[별칭] 하이록 한우 체험목장

[형태] 목장

[위치] 사북면 춘화로 330-48번지로, 왼쪽에 안산, 가운데에 춘천호, 건너편에 괴이산이 있다.

[유래] 소(하이록), 양, 토끼, 당나귀’를 방목하거나 사육하며, 자연학습장, 야생화꽃밭, 꽃호박터널, 소나무산책로 등이 있다.

송암리(松岩里)

위치와 현황 | 서쪽으로 춘천호가 위치하는 호수 주변의 마을로 골짜기와 바위가 많은 지역이다. 자연마을에는 뒷골, 상송암 등이 있다.

연혁 | 『춘주지』는 북내(北內)에 송현(松峴)이라 표기하였는데 이곳이 송암리인지 확실하지 않다. 『여지도서』, 『호구총수』, 『춘천읍지』, 『춘천부지』, 『관동읍지』는 북내면(北內面) 송암리(松巖里), 『조선지지자료』는 북내이작면(北內二作面)의 송암상리(松岩上里), 송암하리(松岩下里), 『강원도지지조서』, 『강원도지』, 『수춘지』, 『춘주지』, 『춘천백년사』는 사북면(史北面) 송암리(松岩里)라 표시하고 있다. 현재 행정리와 법정리는 동일하게 송암리다.

유래 | 송암리는 이 지역에 소나무와 바위가 많아서 송암(松岩)이라 했다고 한다.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뒷골, 삽수리, 상송암, 재골을 병합하여 송암리라 하였다.

● 가운데구령

[형태] 골짜기

[위치] 미상이다.

[유래] 기존문헌에 한가운데 있는 골짜기라 하였다.

[어원풀이] ‘가운데[中]+구령’으로 분석된다. ‘구령’은 움푹하게 파인 땅으로 ‘고랑, 수령, 구령텅이/구령텅이’ 등으로 쓰인다.

● 가일고개

[형태] 고개

[위치] 송암리 북쪽과 가일리 동쪽 접경을 넘나드는 고갯길이다.

[유래] 기존문헌에 송암리에서 가일리로 넘나드는 고개라 하였다.

[어원풀이] ‘가일/가일리(佳日里)+고개[峴]’로 분석 된다.



가일고개

● 강성재

[별칭] 강선재

[형태] 고개

[위치] 6.25 전쟁 이전 공회당(公會堂) 근방에 위치 한다.

[유래] 송암리 재골로 가는 고개로, 『조선지지자료』에 송암하리 소재 고개이름으로 ‘강성재(降仙峴)’가

기재되어 있다. 마을 사람들이 소나 가축을 데리고 자주 왕래하던 고개이다.

[어원풀이] ‘강(降)+성/선(仙)+재[峴]’로 분석된다.



강성재

● 개적심터

[형태] 터

[위치] 송암골 골짜기에 있다. 왼편에는 절골로 가는 길이 있고 길 오른편으로 안쪽에 산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이 고여있는 개적심터가 있다.

[유래] 기존문헌에 “가물 때 개를 잡아서 물에 적시며 제사를 지내면 비가 온다고 했다.”라 하였다. 오랜 가뭄으로 농작물의 피해가 커지면 마을 사람들이 개를 잡아서 물에 피를 적시며 비가 오기를 기원하는 기우제를 올리는 곳이다. 1965년 이후에는 개피를 적시는 행위가 중단되었다.



개적심터

[어원풀이] ‘개[犬]+적심((적시-[滴])+{-ㅁ))+터[基, 垈]’로 분석된다. 개파를 적시던 곳이란 의미이다.

● 캠벌

[형태] 들

[위치] 송암리 초입에 있는 쥐산 근방의 뒷골 언덕에 있다.

[유래] 기존문헌에 뒷골 안산 밑에 있는 벌이라 하였다.

[어원풀이] ‘가암/캠(개암나무)+벌’로 분석된다. ‘개암’의 강원 방언은 ‘가암’이다. ‘가암벌’이 ‘캠벌’이 된 것으로 추정된다. 개암나무가 많은 벌판을 ‘캠벌’로 지칭하기도 하는데 어릴 때 이곳에서 개암을 따먹었다는 증언이 있기에 ‘개암나무가 많은 벌판’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캠벌

● 고개울

[별칭] 갯구덩

[형태] 골짜기

[위치] 송암리마을회관에서 가일고개 방면으로 400m쯤 가다보면 갈림길이 있다. 윈편으로는 가일리 방면이고, 오른편으로는 송암리 끝 잔등에 해당하는 상송암 방면이다. 고개울은 갈림길에서 왼쪽으로 100m쯤 올라가면 나온다. 싸리아치고개와

이어진다.

[유래] 싸리아치고개(싸리재) 부근에 있는 골짜기로, 기존문헌에는 ‘갯구덩’으로 기재되어 있다.

[어원풀이] ‘고개[峴]+울[谷]’로 분석된다. 고개가 있는 골짜기란 의미이다.



고개울

● 고개울모퉁이

[별칭] 갯구덩모퉁이

[형태] 골짜기

[위치] 송암리에 있는 고개울로 진입하는 초입이다.

[유래] 고개울로 가기 위해 꺾어져 돌아가는 자리라는 의미이다.

[어원풀이] ‘고개[峴]+울[谷]+모퉁이’로 분석된다. ‘고개울’ 참조.



고개울모퉁이

● 궁골

[형태] 골짜기

[위치] 괴이산 골짜기에 있다.

[유래] 기존문헌에 송암리에 있는 골짜기라 하였다.

[어원풀이] ‘궁/구유+골[谷]’로 분석된다. ‘궁(구유)’은 소의 여물통을 말하므로 여물통처럼 길고 곧게 뻗은 골짜기란 의미로 추정된다.

● 궁골빙

[형태] 벼랑

[위치] 괴이산 골짜기 궁골에 있는 벼랑이다.

[유래] 기존문헌에 궁골 부근에 있는 벼랑이라 하였다.

[어원풀이] ‘궁/구유+골[谷]+빙/벼랑[崖]’으로 분석된다. ‘빙’은 ‘빙애/벼랑(崖)’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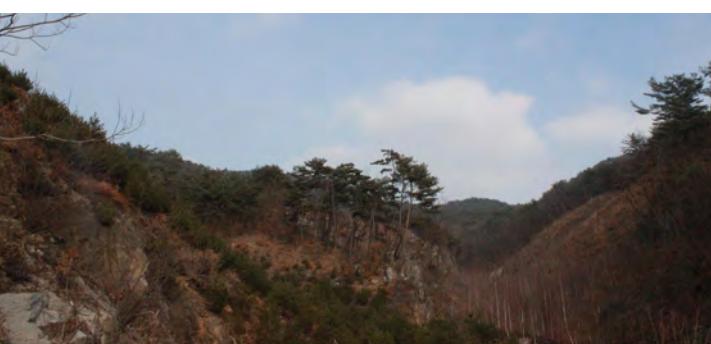
● 깃대봉

[별칭] 촛대봉

[형태] 산

[위치] 가일리, 송암리, 고성2리에 있는 봉우리 가운데 가장 높은 봉우리다. 『조선지지자료』에 송암하리 소재 봉우리 이름으로 ‘촛대봉(燭臺峰)’이 기재되어 있는데 동일한 봉우리로 추정된다.

[어원풀이] ‘깃대+봉’으로 분석된다.



깃대봉

● 닥밭골

[별칭] 닥밭

[형태] 골짜기

[위치] 미상이다.

[유래] 기존문헌에 “닥나무밭[楮田]이 있었다. 닥밭골 부근에 있는 벼랑은 닥밭골빙”이라 하였다.

[어원풀이] ‘닥/닥나무[楮]+밭[田]+골[谷]’로 분석된다. 종이를 만드는 닥나무가 많은 골짜기란 의미이다.

● 닥밭골빙

[형태] 벼랑

[위치] 미상이다.

[유래] 기존문헌에 닥밭골 부근에 있는 벼랑이라 하였다.

[어원풀이] ‘닥밭골+빙/벼랑[崖]’으로 분석된다. ‘닥밭골’ 참조.

● 덕두고개

[별칭] 덕두리, 덕두렁고개, 덕두현(德頭峴)

[형태] 고개

[위치] 송암리마을회관에서 가일고개 쪽으로 가다가 보면 승방골로 빠지는 오른편 길이 나온다. 승방골에서 가일리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덕두고개

[유래] 기존문헌에 덕두리로 가는 고개라 하였다. 덕두고개를 ‘덕두리’라 부르기도 한다. 한국전쟁 전에는 승방골 꼭대기에 2가구, 아래에 4가구, 총 6가구가 살았다고 한다.

[어원풀이] ‘덕두(德頭里)+고개[峴]’로 분석된다.

● 도릿골

[형태] 골짜기

[위치] 미상이다.

[유래] 기존문헌에 돌아앉은 골짜기라 하였다.

[어원풀이] ‘도리-[廻]+ㅅ+골[谷]’로 분석된다. ‘도리-’는 ‘돌아앉다/돌아가다’란 의미이다.

● 도릿골빙

[형태] 벼랑

[위치] 미상이다.

[유래] 기존문헌에 도릿골에 있는 벼랑이라 하였다.

[어원풀이] ‘도리-[廻]+ㅅ+골[谷]+빙/벼랑[崖]’으로 분석된다.

● 돼지텃밭

[별칭] 돼지텃굴

[형태] 골짜기

[위치] 상송암으로 가는 길에서 오른쪽, 사설골 방



돼지텃밭

면에서는 왼쪽 골짜기에 들어선 많은 하우스 자리이다.

[유래] 기존문헌에 산돼지가 많은 골짜기라 하였다.

[어원풀이] ‘돼지[豚]+터[垈]+ㅅ+골[谷]’로 분석된다.

● 뒷골

[별칭] 뒷골

[형태] 마을

[위치] 송암리 1반 올라오는 길의 뒤편이다.

[유래] 고탄리의 적두니와 송암리 경계이자 송암리 초입에 있는 마을로, 기존문헌에는 송암리 뒤에 있는 마을이라 하였다.

[어원풀이] ‘뒤[後]+골[谷]’로 분석된다.



뒤골

● 무네빙

[별칭] 무넷빙

[형태] 벼랑

[위치] 송암리 촛대봉 건너편에 위치한다.

[유래] 기존문헌에 촛대봉 건너편에 있는 벼랑이라 하였다.

[어원풀이] ‘무네+빙/벼랑[崖]’으로 분석된다. ‘무네미’는 ‘물념이/무념이/무너미/무네미’가 된 것으로 강물 건너편이라는 의미이다.

● 배나무골

[별칭] 배나뭇골

[형태] 골짜기

[위치] 송암리에서 가일리로 넘어가는 가일고개 바로 아래 갈림길에서 왼편 300m쯤으로 송암리 220-7번지 일대이다.

[유래] 기존문헌에 배나무가 있는 골짜기라 하였다. 큰배나무골과 작은배나무골이 있다. 한국전쟁 당시 폭격과 전쟁 이후 벌목으로 민동산이었는데 지금은 수풀이 우거졌다.

[어원풀이] ‘배나무[梨]+ㅅ+골[谷]’로 분석된다.



배나무골

● 벼들골

[형태] 골짜기

[위치] 송암리마을회관에서 인람리 방면의 남서쪽에 있는 골짜기다.



벼들골

[유래] 기존문헌에 벼드나무가 많은 골짜기라 하였다. 벼들골에는 마을이 없어 명이나물, 과수 등을 심어놓았다. 벼들골에 산림작물단지가 조성되어 있다.

[어원풀이] ‘벼들/벼드나무[柳]+골[谷]’로 분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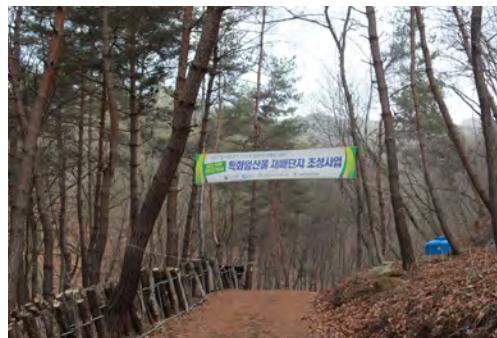
● 베틀굴

[형태] 굴

[위치] 송암리 제당골에서 오른편 원골 1km쯤 올라가면 굴이 있다.

[유래] 베틀을 놓고 베를 짜던 굴이다. 일제강점기 때 공출을 피해 베틀굴에서 몰래 베를 짠 것에서 유래되었다.

[어원풀이] ‘베틀+굴’로 분석된다.



베틀굴

● 복고개울

[별칭] 복고개(福庫溪)

[형태] 하천

[위치] 미상이다.

[유래] 『조선지지자료』에 송암하리 소재 개울이름으로 ‘복고개울(福庫溪)’이 기재되어 있다.

● 빙집터

[형태] 터

[위치] 미상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옛날에 빙집이 있었다고 함”이라 하였다.

● 사방댐

[형태] 보(洑)

[위치] 송암리 송암골 초입에 있다.

[유래] 산림의 투사 유출 방지와 산사태 예방을 목적으로 설치된 재해 예방 시설이다.



사방댐

● 사실고개

[형태] 고개

[위치] 사실골에서 오르는 두 갈래길에서 오른편에 있는 고개이다. 송암리에서 사실골로 들어가는 길의 도로명은 가실고개길이다.



사실고개

[유래] 사실골에서 고탄 적두니로 넘어가는 고개로, 『조선지지자료』에는 ‘적둔리고개(赤屯里峴)’로 기재되어 있다. 사실골에서 사실고개로 넘어가면 고탄 적두니가 나온다. 이 고개를 고탄리에서는 송암고개라고 부른다.

[어원풀이] ‘사(寺)+실(室, 村)+고개[峴]’로 추정된다. ‘사실골’ 참조.

● 사실골

[형태] 골짜기

[위치] 송암리마을회관에서 상송암 방면으로 가다가 첫 오른편 갈림 작은길로 들어가 길을 따라가면 나오는 오른편 솔바우길의 끝자락에 위치한다.

[유래] 기존문현에 제당골 부근에 있는 골짜기라 하였다. 그런데 제당골은 사실골에서 깊숙이 들어가는 송암골에 속해 있어 거리가 상당히 멀다. 사실고개가 있는 골짜기이다.

[어원풀이] 제당골 부근이라 하면 ‘사(寺)+실(室, 村)+골[谷]’로 추정된다. 정확한 유래는 불분명하다.



사실골

● 삽수리

[형태] 마을

[위치] 송암리 본마을에서 북서쪽 800m 남짓한 거리에 있다. 인람리 방면으로 재골과 승지골 사이에

위치한다.

[유래] 기존문헌에 송암리 서쪽에 있는 마을이라 하였다.

[어원풀이] ‘삽/첩[薪]+수(藪)+리(里)’로 분석된다. ‘삽’은 ‘섶[薪]’을 어원으로 ‘첩/삽, 섯, 서’ 등의 이 형태를 가지며, ‘수리’는 ‘수(藪)’를 어원으로 ‘숲/수(숲의 고어)’로 추정된다. ‘섶나무 숲마을’, 또는 ‘섶나무와 덤불이 많은 마을’이란 의미이다.



삽수리

● 삽수리고개

[별칭] 인람리고개

[형태] 고개

[위치] 송암리 삼거리에서 인람리 방면으로 직진하여 인람리로 넘나드는 고갯길이다.

[어원풀이] ‘삽수리+고개[峴]’로 분석된다. ‘삽수리’ 참조.



삽수리고개

● 삿갓골

[형태] 골짜기

[위치] 송암리마을회관 앞 삼거리에서 인람리 방면 원편 벼들길 한참 너머에 있는 골짜기이다.

[어원풀이] ‘삿갓+골[谷]’로 분석된다. 삿갓봉이 있는 골짜기이다.



삿갓골

● 삿갓봉

[형태] 산

[위치] 송암리 산 174번지 일대이다.

[유래] 기존문헌에 삿갓모양의 산이라 하였다. 삿갓봉의 높이는 358.1m이다.

[어원풀이] ‘삿갓+봉(峰)’으로 분석된다.

● 상송암(上松岩)

[형태] 마을

[위치] 송암리 본마을에서 2시 방향 2km쯤에 위치 한다. 상송암에는 승방골, 배나무골이 속해 있다.

[유래] 기존문헌에 송암리 위쪽에 있는 마을이라 하였다.

[어원풀이] ‘상(上)+송암(松岩)’으로 분석된다.



상송암

● 송공지뫼

[별칭] 송공지묘(宋公之墓)

[형태] 묘

[위치] 가일고개 가는 방면에서 삼거리 원편 100m 즈음 서쪽에 비각이 있다. 송암리 가일길 1-15번지이다.

[유래] 송의(宋儀)의 묘와 신도비를 말한다. 비석에 “송공지묘(宋公之墓)”가 새겨있다. 신도비를 보호하기 위하여 1989년에 비각을 건립했으며, 담장 안에 개천군수신도비각건립기념비(价川郡守神道碑閣建立記念碑)가 세워져 있다.

[어원풀이] ‘송공(宋公)+지(之)+묘(墓)’로 분석된다. 임진왜란 때 선조가 파천하여 청천강에 이르렀는데 배를 구하지 못해 애태웠다. 이때 개천군수로 재직 중이던 송의가 강을 헤엄쳐 배를 구해왔다.



송공지뫼

그 공으로 임진왜란 직후 원종공신에 봉해졌다.

● 송공지뫼구렁

[형태] 골짜기

[위치] ‘송공지뫼(宋公之墓)’ 비각의 뒤편 나무가 우거진 산 일대이다.

[유래] 기존문헌에 송씨의 묘가 있는 골짜기라 하였다.

[어원풀이] ‘송공지뫼(宋公之墓)+ㅅ+구렁’으로 분석된다. ‘구렁’은 음쑥하게 파인 땅으로 ‘고랑, 수렁, 구렁텅이/구렁텅이’ 등으로 쓰인다.



송공지뫼구렁

● 송암개울(松岩溪)

[별칭] 송암계

[형태] 하천

[유래] 송암리에 있는 개울이다. 『조선지지자료』에



송암개울

송암하리 소재 개울이름으로 ‘송암개울(松岩溪)’이 기재되어 있다. 송암골 산줄기에서 흘러 내려오는 개울로 사방댐이 설치되어 있다.

[어원풀이] ‘송암(松岩)+개울[溪]’로 분석된다.

● 송암골

[형태] 골짜기

[위치] 송암리 북동쪽 장군봉과 깃대봉 사이에 위치한다. 송암리마을회관에서 도로명 가실고개길로 들어서서 큰다리를 건넌 뒤 송암골로 들어가는 길목 갈림길에서 원편길을 따라가면 나오는 사방댐 부근이 송암골 초입이다.

[유래] 기존문헌에 송암리에 있는 골짜기라 하였다. 산체당골, 읍터골, 절골, 개적쉼터, 승방골이 송암골에 속한다.

[어원풀이] ‘송암(松岩)+골[谷]’로 분석된다.



송암골

● (송암) 작은다리

[형태] 다리

[위치] 송암골로 들어가는 길목에 있다.

[유래] 송암골로 들어가는 길목에 있는 작은 다리로, 1970년대 새마을사업 때 송암리 5반 주민 모두가 참여하여 열흘 만에 완성한 다리라고 한다. 주민들이 장례를 치를 때 쓰기 위해 집집마다 보관

하고 있던 ‘널’을 가지고 와서 건축 자재로 사용했다고 한다. 마을에서 별다르게 부르는 명칭은 없다.



(송암) 작은다리

● 수항골

[형태] 골짜기

[위치] 송암골 북쪽에 위치한다.

[유래] 송암리 송암골 북쪽에 있고, 그 안에 수항골 주말농원이 있다. 송암리마을회관에서 2.2.km거리에 팜스테이 관광농원이 있다.

[어원풀이] ‘수항+골[谷]’로 분석된다. 의미는 불분명하다.

● 승방골

[별칭] 승방곡(僧房谷)

[형태] 마을

[위치] 송암리 상송암에서 북동쪽으로 1.5km 쯤에 있다. 배나무골 가기 전에 가일길 오른편으로 들어가서 1.5km 쯤에 있는 다리를 건너면 된다. 승방골은 여러 길을 통해 갈 수 있다.

[유래] 기존문헌에 상송암 북동쪽에 있는 마을로 승방이 있었다고 하였다.

[어원풀이] ‘승방(僧坊)+골[谷]’로 분석된다.



승방골

● 승지골

[별칭] 승짓골

[형태] 골짜기

[위치] 송암리 삽수리고개에서 인람리로 넘어가기 전 경계에 위치한다. 승짓골은 큰승지골과 작은승지골이 있다. 큰승짓골은 송암리 서쪽 끝에 있으며 인람리 동쪽 경계에 가까운 곳이다. 작은승지골은 큰승지골 바로 남쪽에 있다.

[어원풀이] ‘승지+골[谷]’로 분석된다. 승지골은 응달이 드는 응지말에서 유래한 경우가 많다. ‘응달/응달-골/마을’은 때때로 ‘응달’의 고어(방언형)로 ‘승지골/승짓골, 승잇골, 승지동’이라고도 한다. 또는 여승이 살던 암자를 승지라고도 한다.



승지골

● 싸리아치고개

[별칭] 싸리재, 사리아짓고개, 싸리재고개,

[형태] 고개

[위치] 송암리마을회관에서 가일고개 방면으로 가다 보면 갈림길이 있는데 가일리 방향인 원편으로 100m쯤 올라가면 싸리재고개가 있는 고개울이다.

[유래] 가일리로 가는 고개이다. ‘싸리아치고개’는 『한국지명총람』에 가일리로 가는 고개로, 『춘주지』에 상암 북동쪽에 있는 마을로 승방이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싸리재’는 여러 문헌에서 송암리에 있는 고개라 하였다. 송암리에서 가일리로 가는 고개는 가일고개, 덕두고개, 싸리아치고개 등 여러개가 있다.

[어원풀이] 정확한 의미는 불분명하다. 별칭인 싸리재는 싸리나무가 있는 고개란 의미이다.



싸리아치고개

● 앞골

[형태] 골짜기

[위치] 송암리마을회관에서 상송암 방면으로 1km 쯤에 위치한다. 송암리 인삼밭 버스정류장 오른편 골짜기로 두 산맥 사이의 오목한 골짜기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앞에 있는 골짜기라 하였다.

[어원풀이] ‘앞[前]+골[谷]’로 분석된다.



앞골

● 오디진골

[형태] 마을

[위치] 송암리로 들어가는 초입으로 괴이산 북쪽 가까이에 있는 골짜기이다.

[어원풀이] ‘오디진+골[谷]’으로 분석되는데, 정확한 유래는 불분명하다.

● 우물둔지

[형태] 마을

[위치] 송암리마을회관에서 상송암 방면으로 약 200m 원편에 위치한다.

[유래] 기존문헌에 우물 위편에 있는 언덕이라 하였다. 상송암 방면으로 원편에 짧은 길 안쪽에 있는 집이 옛날 우물이 있던 자리이고 갈림길 오른편 둔덕이 우물둔지이다. 지금은 우물둔지에 집이 들어섰다.



우물둔지

[어원풀이] ‘우물[井]+둔지’로 분석된다. ‘둔지’는 ‘둔치’의 강원 방언이며 강, 호수 따위의 물이 있는 곳의 가장자리를 가리킨다.

● 움터골

[별칭] 움텃골

[형태] 골짜기

[위치] 송암리 산제당에서 오른편으로 돌아 들어가는 골짜기 너머에 위치한다.

[유래] 기존문헌에 제당골 옆에 있는 골짜기라 하였다.

[어원풀이] ‘움/우목+터[垈]+골[谷]’로 분석된다. 우목한 곳에 있는 골짜기란 의미이다.



움터골

● 응달말

[별칭] 음지말

[형태] 마을

[위치] 송암리 삼거리에서 송암리마을회관 남동쪽에 위치한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응달쪽에 있는 마을이라 하였다.

[어원풀이] ‘응달+말[村]’로 분석된다.



응달말

● 작은배나무골

[형태] 골짜기

[위치] 가일고개 바로 아래 갈림길에서 왼편에 있는 배나무골의 왼편 구렁이 좁은 골짜기이다.

[어원풀이] ‘작은[小]+배나무[梨]+골[谷]’로 분석된다. 배나무가 있는 작은 골짜기이다. 구렁이 좁고 쌔리재로 가는 골짜기 사이에 있다.



작은배나무골

● 응랫골

[별칭] 응애잇골, 응애골

[형태] 마을

[위치] 송암리마을회관에서 도로명 가실고개길로 들어서서 큰다리를 건넌 뒤 송암골로 들어가는 길목 갈림길에서 왼편에 위치한다. 오른편 상향은 사실골이다.

[유래] 기존문헌에 송암리 서쪽에 있는 골짜기라 하였다.

[어원풀이] ‘옹애이/옹앵이(진딧물)+ㅅ+골[谷]’로 분석된다. ‘옹앵이’는 ‘진딧물’의 강원 방언이므로 ‘옹애잇골/옹앵이골’은 진딧물이 많은 골짜기 또는 진딧물 피해를 많이 겪은 골짜기로 추정된다.



응랫골

● 재골

[형태] 골짜기

[위치] 송암리 본마을에서 11시 방향 1km 남짓한 거리에 있다. 송암리 은재된장 버스정류장이 재골 초입이다.

[유래] 기존문헌에 송방골 스님들이 재를 올리던 골짜기라 하였고, 『조선지지자료』에 ‘재골(才谷)’로 기재되어 있다.



재골

[어원풀이] ‘재(齋)+골[谷]’로 분석된다. 옛날에 재골에 제당과 제당나무가 있었다. 큰 소나무가 제당나무였는데, 근래에 죽었다. 재골 제사는 3년 전까지 제당에서 지냈으나 지금은 송암골에 있는 제당에서 제를 같이 지낸다.

● 절골

[형태] 골짜기

[위치] 송암리 개적쉼터 맞은편 왼쪽 골짜기에 위치한다.

[유래] 절터가 있는 골짜기라는 의미이다. 개적쉼터 앞쪽에는 절골에 살던 스님의 무덤이 있다. 절골에 있던 절에 살던 스님이 사망하자 마을주민들이 이 이 자리에 묘를 썼다고 한다. 무덤과 소나무가 같은 자리에 있다.

[어원풀이] ‘절[寺]+골[谷]’로 분석된다.



절골

● 절터

[형태] 터

[위치] 송암리 절골의 두 골짜기 사이에 있는 평평한 자리이다.

[유래] 절이 있었던 자리라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절터에서 송암리 방면으로 내려가면 승방골이 나온다.

[어원풀이] ‘절[寺]+터[垈]’로 분석된다.



절터

● 정참판집툇구렁

[형태] 골짜기

[위치] 송암리 청강골 정참판의 무덤 일대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정참판의 무덤이 있는 골짜기라 하였다.

[어원풀이] ‘정(鄭)+참판(參判)+집[宅]+툇[墓]+ㅅ+구렁’으로 분석된다. ‘구렁’은 움푹하게 파인 땅으로 ‘고랑, 수렁, 구렁텅이/구렁텅이’ 등으로 쓰인다.



정참판집툇구렁

● 조산(造山)

[형태] 산

[위치] 송암리 돔지턱골에서 올라가면 왼쪽에 보이는 뾰족한 산이다.

[유래] 『조선지지자료』에 송암상리 소재 산 이름으로 ‘조산(造山)’이 기재되어 있다. 쥐산과 능선이 어져 있다.



조산

● 쥐산

[형태] 산

[위치] 고탄리와 송암리 경계에 있다. 송암리 초입 오른편에 있는 산이고 산 아래에 교회가 있다.

[유래] 산 형세가 쥐처럼 생겨서 붙여진 이름이다.

[어원풀이] ‘쥐[鼠]+산(山)’으로 분석된다. 쥐처럼 생긴 산이라는 의미이다.

[유래담] 괴산에 사는 고양이들이 틈만 나면 쥐산에 침범하여 쥐를 잡아먹었다. 불안한 쥐들이 힘을 합쳐서 고양이에게 대항하여 무찔렀다는 전설이 『강원의 설화 I』에 체록되어 있다.



쥐산

● 지당골

[별칭] 제당골, 산지당골

[형태] 골짜기

[위치] 송암리 개적심터 가는 중간에 큰 바위로 된 제단이 있고, 그 일대가 지당골이다.

[유래] 기존문헌에 산제당이 있던 골짜기라 하였다. 제단은 큰 바위 아래에 있다. 바위 아래 원편은 제단이고 오른편은 제주를 두는 곳이다. 산제당에서 산제는 매년 음력 11월 1~3일 중 하루를 택해서 지낸다. 제물은 돼지(통돼지), 북어, 실을 올려놓고, 제주를 직접 빚고, 떡을 해서 제단에 올린다.

[어원풀이] ‘지당[山祭堂]+골[谷]’로 분석된다. ‘지당’은 ‘제당’의 강원 방언이다.



지당골

● 지당구렁

[별칭] 제당구렁

[형태] 구렁

[위치] 송암리 산제당이 있는 지당골에 위치한다.

[유래] 기존문헌에 산지당골에 있는 구렁이라 하였다. 지당구렁을 포함하여 송암골에 속한 구렁을 상송암구렁이라고 불렸다고 한다.

[어원풀이] ‘지당[山祭堂]+구렁’으로 분석된다. ‘구렁’은 움푹하게 파인 땅으로 ‘고랑, 수렁, 구렁텅이/구렁탱이’ 등으로 쓰인다.

● 진장등

[별칭] 진갯등

[형태] 산

[위치] 송암골에 속한 절골, 개적쉼터에서 깃대봉으로 가는 긴 능선이다.

[유래] 기존문헌에 길게 뻗은 등성마루라 하였다. 송암골에 속한 절골, 개적쉼터에서 깃대봉으로 가는 긴 능선을 말한다. 능선을 따라가면 가일리까지 이어지며, 절터에서 내려가면 송암리 송방골로 이어진다. 과거에는 능선이 이어졌으나 지금은 송암리에서 가일리까지 이어지는 둘레길을 조성하느라 산맥 가운데를 뚫어서 산맥이 갈라졌다.

[어원풀이] ‘진[長]+장(長)+등(등성마루)’으로 분석된다. ‘진’은 ‘긴[長]’의 강원 방언이며, ‘장등(長嶝)’을 다시 강조하여 ‘긴 장등’이라 한 것이다.



진장등

다’는 두 개 이상으로 갈라지게 한다는 의미의 ‘짜개다’의 강원 방언이다. ‘원골에서 짜개진(갈라진) 작은 구렁’이라는 의미이다.

● 째기빙

[형태] 벼랑

[위치] 송암리와 고성리 경계에 있다.

[유래] 기존문헌에 가일리 쪽에 있는 산벼랑이라 하였다.

[어원풀이] ‘째기+빙/벼랑[崖]’으로 분석된다. ‘빙’은 ‘빙애/벼랑[崖]’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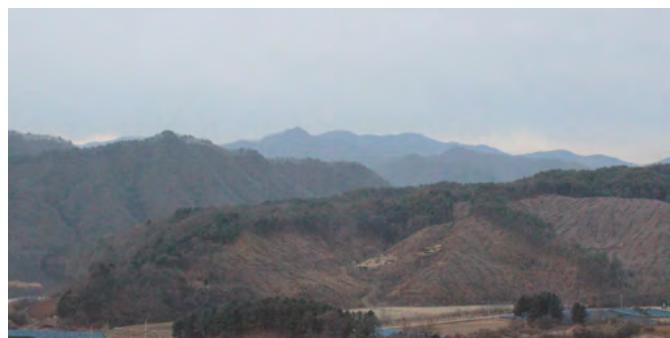
● 청강골

[형태] 골짜기

[위치] 송암리 초입에 있는 쥐산 맞은편 괴이산 사이에 위치한다.

[유래] 기존문헌에 정참판묘역 옆에 있는 골짜기라 하였다. 청강골에는 정참판집 묘가 있고 사람은 살지 않는다. 일제강점기 때 일본인들이 쇠를 판다고 청강골 땅을 수십 미터를 팔다고 한다. 그 구덩이에 물이 시퍼렇게 들어차 있었다고 한다.

[어원풀이] ‘청강+골(谷)’로 분석된다. 의미는 불분명하다.



청강골

● 째기골

[별칭] 째기골, 쐐기골

[형태] 구렁

[위치] 송암리 일대이다.

[유래] 기존문헌에 굽골빙 옆에 있는 골짜기라 하였다. 그런데 지역민은 별도의 지명이 아니라 원골안에 있는 조그마한 구렁을 ‘째기골’ ‘째기구렁’이라 불렀다고 증언한다.

[어원풀이] ‘째기/짜개+골[谷]’로 분석된다. ‘째기

● 큰배나무골

[별칭] 큰배나뭇골

[형태] 골짜기

[위치] 가일고개 바로 아래 갈림길에서 윈편에 있는 배나무골의 오른편 구렁이 깊은 골짜기이다.

[어원풀이] ‘큰[大]+배나무[梨]+골[谷]’로 분석된다. 배나무골에서 큰 골짜기란 의미이다.



큰배나무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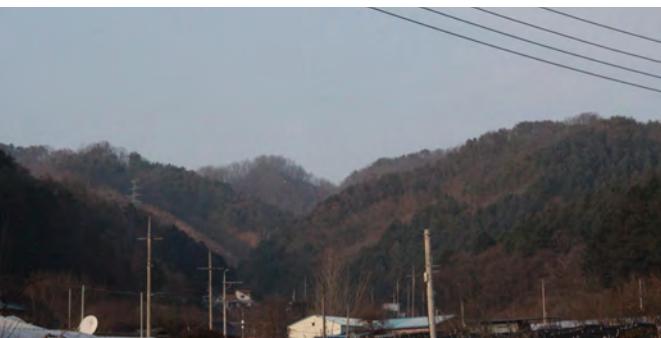
● 형제봉

[형태] 산

[위치] 봇다리고개 잔등에 위치한다.

[유래] 기존문헌에 두 봉우리가 형제처럼 서 있다고 하였다. 송암리 재골에서 보면 두 봉우리의 형세가 선명하게 보인다.

[어원풀이] ‘형제(兄弟)+봉(峰)’으로 분석된다.



형제봉

[유래담] 한국전쟁 때 형제봉 방면의 골짜기에 인민군이 주둔하고 재골 방면의 골짜기에 국군이 대치하여 전투를 벌였다고 한다.

● 화채집골

[형태] 골짜기

[위치] 송암리 본마을에서 북쪽 1km 남짓한 거리에 위치한다. 가일고개 방면의 송암리 인삼밭 버스정류장 건너 윈편으로 150m 정도 들어가면 있다.

[유래] 기존문헌에 화채집(상여집)이 있던 골짜기라 하였다. 화채집골에 있던 화채집은 50여 년 전에 지금의 송암리 1반과 2반 사이로 옮겼다. 새로 옮긴 화채집은 지금도 남아있다.

[어원풀이] ‘화채집(상여집)+골[谷]’로 분석된다.



화채집골

위치와 현황 | 동쪽으로 북한강이 흐르고, 남쪽으로 춘천호가 있으며, 서쪽으로 화악산이 있는 산간마을이다. 자연마을로는 군량대, 광산골, 도두니, 석동거리 등이 있다. 신포리(新浦里)는 논개, 담포(畜浦)라고도 부르는데, 갯가에 논이 많이 있다.

연혁 | 『춘주지』를 보면 사탄현(史吞縣) 서오지(鋤五芝)의 일부가 신포리였다. 『여지도서』, 『호구총수』, 『춘천읍지』, 『춘천부지』, 『관동읍지』는 사탄외면(史吞外面) 서오지리(鋤五芝里)로 표기하였다. 『조선지지자료』는 사외면(史外面) 군량대리(軍糧垈里)로, 『강원도지지조서』, 『강원도지』, 『수춘지』는 사북면(史北面) 신포리(新浦里)로 표기하였다. 『춘주지』는 사북면(史北面) 신포1리, 신포2리, 신포3리로, 『춘천백년사』는 신포1리, 신포2리로 표기하였다. 현재 행정리는 신포리, 법정리는 신포1리, 신포2리이다.

유래 | 춘천군 사외면 지역으로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군량터, 서오지하촌 일부를 병합하여 신포리라 하였다. 갯가에 논이 많이 있어서 논개, 담포(畜浦)라고도 부른다.

● 군량대(軍糧塹)

[별칭] 군량터

[형태] 마을

[위치] 말고개에서 신포리로 넘어온 말고개길과 말고개터널을 통과한 영서로가 만나는 삼거리 부근에 있었다고 하며, 현재는 군부대가 위치하고 있다.

[유래] 기존문헌에 구한국 때 군량을 쌓아둔 마을이라 하였다.

[어원풀이] ‘군량(軍糧)+대(塹)’로 분석된다. 군량을 쌓아 둔 터란 의미이다.

● 광산골

[형태] 골짜기

[위치] 수리봉마을에서 서쪽으로 1.2km쯤 들어가면 남북 두 골짜기로 갈라지는데 북쪽 골짜기로 600m 남짓 안쪽에 위치한다. 신포리 686-1번지 일대이다. 광산이 문을 닫으며 마을도 쇠락했다.

[유래] 기존문헌에 광산이 있던 골짜기라 하였다. 광산업이 흥할 때 마을이 형성되었으며, 신포광산, 즉 삼화광산(三和礦山)이 있었다. 신포광산은 형석의 산지로 유명했다.

[어원풀이] ‘광산(礦山)+골[谷]’로 분석된다.



광산골

● 건너들

[형태] 들

[위치] 신포리쪽에서 바라봤을 때 신포천(新浦川)의 건너편 남쪽의 ‘토둔리/토둔이/도두니’에서 더 남쪽으로 간 지역으로 들이 넓은 신포리 222-2번지 일대이다.

[유래] 기존문헌에 큰 개울 건너편에 있는 들이라 하였다. 여기서 개울은 신포천을 가리킨다.

[어원풀이] ‘건너[越]+들[野]’로 분석된다. 개울 건너편에 있는 들판이란 의미이다.



건너들

● 걸기

[별칭] 궤기

[형태] 마을

[위치] 말바우터널을 나와 신포리로 향하는 영서로에서 ‘만민이 복을받는 기도원’ 안쪽으로 1km 정도 올라간 곳에 있다. 신포리 608번지 일대이다. 골짜기의 더 안쪽에는 군부대 사격장과 헬리콥터 착륙장이 있다. 큰걸기와 작은걸기가 있다.

[유래] 기존문헌에 신포리 서쪽에 있는 마을이라 하였다.

[어원풀이] ‘걸(傑)+기(基)’로 분석된다. 지명접미사 ‘-기’는 ‘터(基)’이고, ‘걸(傑)’은 음차자이다. ‘걸’은 고어로 ‘개울, 도량’을 뜻한다. 작은 개울(실개천)이

흐르는 곳이라는 의미이다.



걸기

● 곡둔산

[형태] 산

[위치] 신포리 산22번지 일대를 말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유래] 기존문헌에 신포리 북쪽에 있는 산이라 하였다.

[어원풀이] ‘곡(穀)+둔(屯)+산(山)’으로 추정된다. 부근에 군량대라는 지명이 있기에 곡식(穀食)을 쌓아둔 진(屯)이 있던 산이란 의미로 추정된다.

● 논개

[별칭] 답포(沓浦)

[형태] 들, 마을

[위치] 신포리 북쪽 사북면행정복지센터에서 북한강 사이의 들로, 신포리 760번지 일대이다.



논개

[유래] 기존문헌에 갯가에 논이 많이 있다고 하였다.

[어원풀이] ‘논[沓]+개[浦]’로 분석된다. ‘답포(沓浦)’는 한자표기 지명이다. 논이 있는 물가라는 뜻이다.

● 도두니

[별칭] 토둔리(土屯里), 토툌이, 도두니

[형태] 마을

[위치] 신포천이 남쪽 북한강을 향하는 하류 지역인 신포리 288-1번지 일대이다.

[유래] 기존문헌에 언덕빼기가 있는 마을이라 하였다.

[어원풀이] ‘도/토(土)+둔이/둔지/둔치’로 분석된다. ‘토둔이’가 변이되어 ‘토둔리’가 되고, 다시 ‘도두니’로 변음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흙이 도드라진 ‘둔지’에 있는 마을이라는 뜻이다. 둔지는 ‘둔치’의 강원 방언이며 ‘물가의 언덕이나 강, 호수 따위의 물이 있는 곳의 가장자리’를 의미한다.



도두니

● 맘고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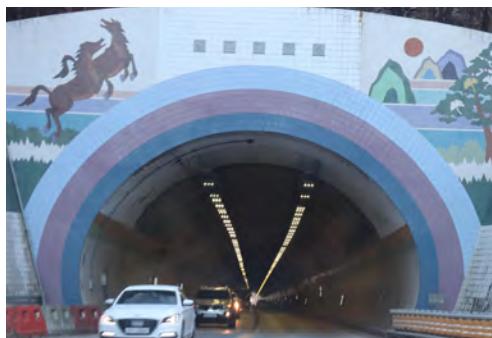
[형태] 고개

[위치] 신포리에서 영서로를 따라 원평리로 향하는 곳에 있는 고개로 신포리 288-1번지 인근에 걸쳐 있다. 신포리와 원평리의 경계이다. 과거에는 고개를 넘어 다녀야 했지만, 지금은 터널을 통해 이동

하는 경우가 많다.

[유래] 기존문헌에 원평리의 마평(馬坪)으로 가는 고개라 하였다.

[어원풀이] ‘말+고개[峴]’로 분석된다. ‘말’은 ‘크다’는 뜻을 지닌 고유어이므로 큰 고개란 의미이다.



말고개

● 문골

[형태] 골짜기

[위치] ‘신포리 남쪽’이 북한강 유역이라면 지금의 ‘신포리도선장’ 인근인 신포리 31번지 일대로 추정된다.

[유래] 기존문헌에 신포리 남쪽에 있는 골짜기라 하였다.

[어원풀이] ‘문/물[水]+골[谷]’로 추정된다. ‘문’은 ‘물’의 변이형으로 보이므로 원형은 ‘물골[水谷]’이다. 물과 만나는 골짜기라는 의미이다.



문골

● 바른골

[형태] 골짜기

[위치] ‘수리봉마을’에서 서쪽으로 1.2km쯤 들어가면 남북 두 골짜기로 갈라지는데 남쪽 골짜기 안쪽이 바른골이다. 신포리 669-6번지 일대이다.

[유래] 기존문헌에 신포리 서남쪽에 있는 골짜기라 하였다.

[어원풀이] ‘바른[直/右+골[谷]’로 분석된다. 골짜기의 모양이 바르고 곧게 뻗었다고 해서 생겨난 지명이라고도 하고, 산에서 수리봉마을쪽으로 내려올 때 바른쪽(오른쪽)에 있어서 생겨난 지명이라고도 한다.



바른골

● 산골샘

[형태] 샘

[위치] '수리봉마을'에서 서쪽으로 1.2km쯤 들어가면 남북 두 골짜기로 갈라지는데 북쪽 골짜기 안쪽의 광산골이 있는 곳으로 추정된다. 신포리 686-1번지 일대이다.

[유래] 기존문헌에 뼈 다친 데 치료하는 산골이 나는 샘이라 하였다.

[어원풀이] '산골+샘[泉]'으로 분석된다. '산골[自然銅]'이 나는 샘이라는 의미이다. 산골은 이황화철, 산화철을 주성분으로 하는 황화 철강을 말한다. 구리가 나는 곳에서 산출되는 푸른빛을 띤 누런색의 쇠붙이인데 접골 약으로 쓰인다. 산골샘에서 산골을 얻을 수 있었다고 한다.

● 살구골

[별칭] 살구골

[형태] 골짜기

[위치] '수리봉마을'에서 북서쪽 1.2km 지점에 있다. 원평리에서 말고개길(영서로가 아님)로 말고개를 넘어 신포리에 내려가자마자 동쪽으로 꺾이는 삼거리를 만나는데 그 삼거리에서 북서쪽으로 1km 들어가면 나온다.

[유래] 기존문헌에 신포리 서남쪽에 있는 골짜기라 하였다.

[어원풀이] '살구+골[谷]'로 분석된다. 살구나무가 있는 골짜기란 의미이다.

● 삼화광산

[별칭] 신포광산

[형태] 광산

[위치] '수리봉마을'에서 서쪽으로 1.2km쯤 들어가면 남북 두 골짜기로 갈라지는데 북쪽 골짜기 안쪽의 광산골이 있는 곳이다. 신포리 686-1번지 일대이다.

[유래] 기존문헌에 신포리에 있는 광산이라 하였다. 지금은 신포광산이라 한다.

● 석동거리

[형태] 길

[위치] 사북면행정복지센터 북쪽 100m 못 미친 지점에 있는 영서로와 북한강변으로 들어가는 삼거리(사북면 신포리 410-3)를 말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웃한 지촌3리에 있는 삼거리(지촌리 432-2)라고 하는 증언도 있다.

[유래] 기존문헌에 세거리 길이 있는 마을이라 했다.

[어원풀이] '석[三]+동(洞)+거리[路]'로 분석된다. 세 동네가 만나는 거리라는 의미이다.

● 섬바우

[형태] 바위

[위치] 말바우터널을 나와 신포리로 향하는 영서로에서 '만민이 복을 받는 기도원' 안쪽으로 1km정도 올라간 곳에 있는 결기에 있다. 신포리 608번지 일대이다.

[유래] 기존문헌에 큰결기에 있는 바위라 하였다.

[어원풀이] '섬/선[立]+바우[岩]'로 분석된다. '섬바우'는 대부분 '선바우[立石]'의 변이형이다. 지명에서 어말 자음들이 자주 비음(鼻音 Nasal sound) 'ㄴ,ㅁ,ㅇ'으로 상호 변용된다.

● 성장군묘

[형태] 무덤

[위치] '원댕이/원당/원당리'는 원평리에 있고, '원댕이 뒷산(지곡산)'에 명탄(鳴灘) 성규현(成揆憲) 선생 묘소가 있다.

[유래] 기존문헌에 원댕이 뒷산에 있는 옛 무덤으로 여기서 옛 도자기가 나왔다고 하였다.

[어원풀이] ‘성(成)+장군(將軍)+묘(墓)’로 분석된다. 조선시대 문인으로 화천의 곡운서원에 배향된 성 규현(成揆憲, 1647~1741)의 무덤이 있다.

● 소말미산

[별칭] 소알미산

[형태] 산

[위치] 신포리와 지촌리와 오탄리 세 지역과 경계를 두고 있는 해발 464m의 산이다.

[어원풀이] ‘소말미+산[山]’으로 분석된다. 의미는 불분명하다.

● 승지골

[별칭] 승짓골

[형태] 골짜기

[위치] 신포리 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신포리 473번지 일대이다.

[유래] 기존문헌에 신포리 남쪽에 있는 골짜기라 하였다.

[어원풀이] ‘승지+ㅅ+골[谷]’로 분석된다. 승지골은 응달이 드는 응짓말이다. ‘음달/응달-골’은 때때로 ‘응달’의 고어(방언형)로 ‘승지골/승짓골, 승잇골, 승지동’이라고도 한다.



승지골

● 수리봉마을

[형태] 산, 마을

[위치] 신포리에서 원평리쪽으로 향하는 영서로를 따라가다가 말고개터널 전 광산골방면으로 우회전하여 300m정도 들어가면 보이는 마을이다. 터널이 생기기 전에는 수리봉마을 입구에서 말고개를 넘어야 원평리로 갈 수 있었다.

[어원풀이] ‘수리봉+마을’로 분석된다. 마을에서 바라보이는 수리봉에서 따온 이름이다.



수리봉마을

● 작은궐기

[별칭] 작은궐기

[형태] 마을

[위치] 말바우터널을 나와 신포리로 향하는 영서로에서 ‘만민이 복을받는 기도원’ 안쪽으로 1km 정도 올라간 곳에 있다. 신포리 608번지 일대이다.

골짜기의 더 안쪽에는 군부대 사격장과 헬리콥터 착륙장이 있다. 큰결기와 작은결기가 있다.

[유래] 기존문헌에 결기의 작은 마을이라 하였다.
[어원풀이] ‘작은[小]+결기’로 분석된다. ‘결기’ 참조.

● 장텃거리

[형태] 마을

[위치] 신포리 본마을 신포1리마을회관 서쪽 가까이에 있다.

[유래] 기존문헌에 가축시장이 있는 마을이라 하였다.
[어원풀이] ‘장(가축시장)+터+ㅅ+거리’로 분석된다.
장터가 서던 거리란 의미이다.

● 재주재

[형태] 산

[위치] 미상이다.

[유래] 기존문헌에 신포리 서쪽에 있는 산이라 하였다.

[어원풀이] ‘재주+재[峙]’로 분석된다. ‘재주’의 의미는 불분명하다. ‘재[峙]’는 돌탑신앙 등 서낭과도 관련되므로, ‘재주(齋主)’를 상정해 본다. ‘재주(齋主)’는 재를 올리는 주인이고, 천도재의 경우는 자녀와 가족이 재주가 되며, 위령재 등과 같은 경우는 위령의 대상에 따라 특정인을 재주로 정하거나 참석 대중이 모두 재주가 된다.

● 지역골

[형태] 골짜기

[위치] 원평리에서 말고개길(영서로가 아님)로 말고개를 넘어 신포리에 내려가자마자 동쪽으로 꺾이는 삼거리를 만나는데 그 삼거리에서 북서쪽으로 1km 들어가면 나온다.

[유래] 기존문헌에 살굿골 옆에 있는 골짜기로 옛날에 귀양살이 하던 곳이라 하였다.

[어원풀이] ‘지역[地獄]+골[谷]’로 분석된다. 귀양살이를 할 정도로 오지인 곳이기에 ‘지옥골’의 와전으로 추정된다.

● 짹박골

[형태] 골짜기

[위치] 기존문헌에 말고개 밑에 있는 골짜기라 하였다.

[어원풀이] ‘쫙박+골[谷]’로 분석된다. ‘쫙박’의 의미는 불분명하다.

● 큰결기

[별칭] 큰궐기

[형태] 골짜기

[위치] 작은결기에서 산속으로 더 들어가면 나온다.

[유래] 기존문헌에 결기의 큰 마을이라 하였다.

[어원풀이] ‘큰[大]+결기’로 분석된다. ‘결기’ 참조.

● 한치짓골

[별칭] 한치지골

[형태] 골짜기

[위치] ‘수리봉마을’에서 서쪽으로 1.2km쯤 들어가면 남북 두 골짜기로 갈라지는데 북쪽 골짜기로 600m 남짓 더 들어가면 나온다. 남쪽 골짜기는 ‘바른골’이다. 요즘은 ‘한치지골’이라 부른다.

[유래] 기존문헌에 바른골 옆에 있는 골짜기라 하였다.

[어원풀이] ‘한[大]+치[峙]+지[地]+골[谷]’로 분석된다. 큰 고개가 있는 골짜기란 의미이다.

오탄리(梧灘里)

위치와 현황 | 북쪽으로 두류산 자락이 펼쳐져 있고, 동쪽으로 토보산이 있는 전형적인 산간마을이다. 자연마을로는 배울골, 마루터, 뒷말, 잔등말 등이 있다. 토보산(土堡山)은 임진왜란 때 토성을 쌓고 보루로 삼아 대처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연혁 | 『여지도서』, 『호구총수』, 『춘천읍지』, 『춘천부지』, 『관동읍지』는 사탄외면(史吞外面) 오리동(五里洞), 『조선지지자료』는 사외면(史外面) 탄감리(灘甘里), 오리동(梧里洞)으로 표기하였다. 『강원도지지조서』, 『강원도지』, 『수춘지』는 사북면(史北面) 오탄리(梧灘里)로 표기하였다. 『춘주지』, 『춘천백년사』는 사북면(史北面) 오탄1리, 오탄2리, 오탄3리로 표기하였다. 현재 행정리는 오탄리, 법정리는 오탄1리, 오탄2리, 오탄3리다.

유래 |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오리동(梧里洞)과 탄감리(灘甘里)의 이름을 따고 화천군 하서면 서오지리 일부를 병합하여 오탄리(梧灘里)라 하였다.

● 광대봉

[형태] 산

[위치] 기존문헌에 오탄리에 있는 산이라 하였는데 정확한 위치는 미상이다.

● 구중골

[형태] 골짜기

[위치] 기존문헌에 숯가마골 부근에 있는 골짜기라 하였는데, 정확한 위치와 유래는 불분명하다.

● 놀미골

[별칭] 늘미, 놀미, 늘미골, 판미동(板尾洞)

[형태] 마을

[위치] 토보산(590m)에서 직선거리로 북서쪽 2.5km쯤에 있다. 오탄리를 가로지르는 사내천길과 ‘놀미’로 가는 도로 ‘놀미길’이 만나는 지점에서 ‘놀미’ 쪽으로 2.5km쯤 북진하면 닿는다. 오탄리 883번지 일대이다.

[유래] 기존문헌에 멱우니 북서쪽에 있는 마을로 화천 놀미로 가는 길이라 하였다.

[어원풀이] ‘놀/널[板]+미[山]+골[谷]’로 분석된다. ‘늘’의 기본형은 ‘널판[板]’의 ‘널’이고, ‘미’의 훈자는 ‘산(山)’이다. 넓은 평지가 있는 마을이란 의미이다.



놀미골

● 대추나무골

[형태] 마을

[위치] 오탄1리 커뮤니티센터에서 사내천로를 따라 화천방면으로 진행하다가 만나는 미리내 쉼터에서 길 아래쪽에 위치한 열개미와 그 위쪽마을을 통칭하여 대추나무골이라고 한다. 오탄2리 마을회관이 있는 오탄리 629-1번지 일대이다.

[유래] 옛날 이 마을에 대추나무가 많았다는 데서 유래한 이름이다. 과거에 있었던 토종 대추나무는 빗자루병에 걸려 모두 죽었다고 한다. 2010년 농어촌체험휴양마을로 지정, 2012년 산촌생태마을로 지정, 2021년에는 오탄2리 춘천 귀농, 귀촌 체험마을로 지정되었다.

[어원풀이] ‘대추나무+골[谷]’로 분석된다.



대추나무골

● 두짝골

[형태] 골짜기

[위치] 기존문헌에 역골 건너편에 있는 골짜기라 하였다. 두짝골 건너편에 역골이 있고, 역골 부근에 서직골이 있다. 서직골은 오탄리 북쪽에 있다.

[어원풀이] ‘두짝+골[谷]’로 분석된다. ‘두짝’의 의미는 불분명하다.

● 마늘고개

[별칭] 마늘고개, 만화고개, 만월고개, 만월현(滿月峴)
[형태] 고개
[위치] 놀미골 남쪽, 메구짓골 서쪽에 있는 고개로
오탄리 산61-34번지 일대이다.
[유래] 기존문헌에 메구지와 놀미골의 중간에 있는
고개라 하였다.
[어원풀이] ‘마늘+고개[峴]’로 분석된다. ‘마늘’의
의미는 불분명한데 부인을 뜻하는 ‘마누라’나 낚시
에서 물고기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만든 ‘미늘’에
서 유래한 것으로 추정된다.

● 마루터

[별칭] 마루테미, 컷말
[형태] 마을
[위치] 오탄1리 마을회관과 그 위쪽 마을로 오탄리
197-3번지 일대이다. ‘소알미산/소말미산’ 북쪽,
‘사내천로’ 남쪽에 있다.
[유래] 기존문헌에 “마루테미라 부른다. 마루턱이
있는 마을”이라 하였다.
[어원풀이] ‘마루+터[垈]’로 분석된다. ‘마루’는 고
갯마루에서 유래했다고 보이는데 마름집이 있었
다는 데서 유래했다고도 하기도 한다. 또 마을이
산의 귀퉁이에 있다고 해서 ‘컷말’이라 부르기도
한다.



마루터

● 마산(馬山)

[형태] 산
[위치] 오탄리 산29번지이다.
[유래] 기존문헌에 산이 말같이 생겼다고 하였다.
해발 297m의 얇으막한 산이다.
[어원풀이] ‘마(馬)+산(山)’으로 분석된다. 말 모양의
산이란 의미이다.

● 메구지

[별칭] 벽우지(覓友地)
[형태] 골짜기
[위치] 열개미와 늘미 중간쯤으로 오탄리 857번지
일대이다. 열개미에서 늘미 방면으로 가는 도중 용
화사 풋말을 따라 올라가면 나온다.
[유래] 기존문헌에 열개미 북서쪽 골짜기에 있는
마을이라 하였다.
[어원풀이] ‘메[山]+구지/곶이[串]’로 분석된다. 산
이 들판쪽으로 툭 튀어나온 지형에서 유래한 것으
로 추정된다.



메구지

● 물꼬탄

[형태] 골짜기
[위치] 우레골 남쪽으로 신포리 경계에 있는 골짜
기로 추정된다.

[유래] 기존문헌에 우릿골에 떨린 골짜기라 하였다.
 [어원풀이] ‘물꼬+탄’으로 분석된다. 정확한 의미는 불분명하다.

● 명류동(鳴流洞)

[별칭] 면류동

[형태] 마을

[위치] 열개미 남쪽 골짜기에 있는 마을이다. 열개미/탄감리(灘甘里)’에서 직선 거리로 1km 정도 거리에 있다. ‘열개미’에서 남쪽으로 1km쯤에 ‘우레골’이 있고, 다시 ‘우레골’에서 북서쪽으로 500m쯤 들어가면 ‘명류동(鳴流洞)’이다.

[유래] 기존문헌에 열개미 남쪽 골짜기에 있는 마을로 골짜기 물이 소리를 내며 흐른다고 하였다.

[어원풀이] ‘명(鳴)+류(流)+동(洞)’으로 분석된다. 골짜기 물이 소리를 내며 흘러 생겨난 지명이다.



방화기

● 배걸이

[별칭] 배거리

[형태] 산

[위치] 외창 뒷산으로 오탄리 422-9번지 일대이다.

[유래] 기존문헌에 외창 뒷산이라 하였다.

[어원풀이] ‘배[舟]+걸이’로 분석된다. 배를 걸었던 곳이라고 해서 생겨난 지명이다.

[유래담] 먼 옛날 오탄리 일대가 모두 물에 잠겼던 시절에 산에 배를 걸었다고 한다.

● 방화기

[별칭] 방화계(傍花溪), 방야학

[형태] 계곡, 폭포

[위치] 사내천로를 따라 화천방향으로 진행하면 표지석을 만날 수 있다. 오탄리 산61-24번지 일대이다.

[유래] 기존문헌에 폭포가 떨어져서 돌이 방아학처럼 패었다고 하였다.

[어원풀이] ‘방화/방야+기/계(溪)’로 분석된다. 폭포가 떨어지는 것이 마치 방아를 짹는 것 같아 생겨난 지명으로 추정된다.



● 배울

[별칭] 배울곡, 배율, 이곡(梨谷)

[형태] 마을

[위치] ‘사내천’이 지촌리 오면 ‘지촌천’이라 부르는데, 그 지점 남쪽 가까이로 오탄리 36-2번지 일대이다. ‘iveryeoksan(299m)’이 남동쪽 600m쯤에 있다.

[유래] 기존문헌에 오리동 동쪽 골짜기에 있는 마을이라 하였다.

[어원풀이] ‘배[梨]+울[谷]’로 분석된다. 배나무와 관련된 지명으로 추정된다.

● 서직골

[형태] 마을

[위치] ‘두작골’ 건너편에 ‘역골’이 있고, ‘역골’ 부근

에 ‘서직골’이 있다. 오탄리 629-5번지 일대이다.

[유래] 기존문헌에 오탄리 북쪽에 있는 골짜기라 하였다.

[어원풀이] ‘서직/서지+골[谷]’로 분석된다. 서직(黍稷)은 곡식으로 볼 수도 있고, 지초(芝草)로 볼 수도 있다.

● 소랫벌

[별칭] 소태벌, 소떼벌

[형태] 마을

[위치] 마산(297m)에서 북서쪽 1km 거리이고, 토보산(590m)에서 남동쪽 1.5km 거리에 있다. 오탄리 418-2번지 일대이다.

[유래] 기존문헌에 외창 동쪽에 있는 마을로 소태나무가 많이 있었다고 하였다.

[어원풀이] ‘소태(소태나무)+벌[野]’로 분석된다. ‘소



소랫벌

태나무’는 고목(苦木)이라고도 하는 소교목이다. 맛이 몹시 쓴데, ‘소태나무맛 같다’는 말은 쓴맛을 뜻한다. 옛날부터 이 마을에 소태나무가 많았다고 하여 소태벌이라고 부른다. 또 한편에서는 소가 새끼를 낳고 나온 태처럼 평평한 들이 펼쳐져 있다고 해서 생겨난 지명이라고도 한다.

● 속가마골

[형태] 골짜기

[위치] 미상이다.

[유래] 기존문헌에 예전에 속을 구웠다고 하였다.

[어원풀이] ‘속가마+골[谷]’로 분석된다.

● 아랫말

[형태] 마을

[위치] 오탄1리 커뮤니티센터에서 사내천로를 따라 화천방면으로 700m쯤 진행하다가 우측으로 내려간 자리에 있다. 오탄리 465번지 일대이다.

[유래] 기존문헌에 오탄리 아래쪽에 있는 마을이라 하였다.

[어원풀이] ‘아래[下]+ㅅ+말[村]’로 분석된다. 오탄리 마루테미보다 아래쪽에 있는 마을이다.



아랫말

● 역골

[형태] 골짜기

[위치] ‘두작골’ 건너편이다.

[유래] 기존문헌에 서직골 부근에 있는 골짜기라 하였다.

[어원풀이] ‘역(驛)+골[谷]’로 분석된다. 예전에 역원이 있던 골짜기란 의미이다.

● 열개미

[별칭] 탄감리(灘甘里)

[형태] 마을, 개천

[위치] 오탄1리 커뮤니티센터에서 사내천로를 따라 화천방면으로 진행하다가 만나는 미리내 쉼터에서 길 아래쪽에 위치한 마을로 오탄리 631-4번지 일대이다.

[유래] 기존문헌에 “탄감리. 오리동 서쪽에 있는 마을. 사내천의 여울이 있음”이라 하였다.

[어원풀이] ‘열/여울[灘]+개[溪]+미[村]’로 분석된다. ‘열’은 ‘여울’, ‘미’는 ‘미, 메, 매, 꾀’ 등으로 이형태도 다양하고 또한 의미전성도 다양하게 전개되어 ‘마을, 산, 골, 들, 터, 고개’ 등의 의미로 실현된다. 여울이 있는 개천이란 뜻의 ‘여울개’에서 유래한 것으로 추정된다.



열개미

● 외창(外倉)

[형태] 마을, 관방

[위치] ‘열개미’ 북쪽 가까이 사내천이 S자로 흐르는 곳에 소태벌이 있고, 다시 사내천이 감싸흐르는 안쪽에 ‘외창’이 있다. 오탄리 420번지 일대이다.

[유래] 기존문헌에 옛날에 사단현(史吞縣)의 외창이 있었다고 하였다.

[어원풀이] ‘외(外)+창(倉)’으로 추정된다. 사단현(史吞縣)의 외창(外倉)을 말한다.



외창

● 우레골

[별칭] 우뢰골, 우릿골, 우렛골, 우래골, 오리동(梧里洞)

[형태] 마을

[위치] ‘열개미’에서 남쪽으로 1km쯤 거리에 있다. 사내천의 지류가 앞을 흐른다. 오탄3리 마을회관이 있는 오탄리 719-1번지 일대이다.

[유래] 기존문헌에 산울림이 자주 일어난다고 하였다.

[어원풀이] ‘우레[雷]+골[谷]’로 분석한다. 마을에



우레골

외지인이 들어오면 우레가 쳤다고 해서 생겨난 지명이라고 한다.

● 잔잘고개

[형태] 고개

[위치] 마산에서 남쪽 800m쯤에 있다. 오탄리 산19번지 일대이다. 오탄1리마을회관에서 북쪽 1시방향으로 100m 가면 오탄리를 지나는 사내천로가 나오고 길 건너에 오탄1리커뮤니센터가 있다. 그곳에서 150m쯤 북진하면 ‘온세미마을’이 나오고, 다시 150m쯤 북진하면 ‘잔잘고개’이다.

[유래] 기존문헌에 지촌리와 오탄리 사이에 있는 고개라 하였다.

[어원풀이] ‘잔잘+고개[峴]’로 분석된다. ‘잔잘’의 의미는 불분명하다.



장승배기

● 지느레미

[별칭] 진내, 진소

[형태] 하천

[위치] 오탄2리 버스 회차 지점이 있는 부근으로 오탄리 959-10번지 일대이다.

[어원풀이] 유래는 불분명한데 ‘긴내’가 ‘진내’로 된 것으로 보이는 바 하천의 굽이가 상대적으로 길게 이어진다고 해서 붙은 이름으로 추정된다.



지느레미

● 장승말

[별칭] 잔등말

[형태] 마을

[위치] 미상이다.

[유래] 기존문헌에 산등에 있는 마을이라 하였다.

[어원풀이] ‘장등+말[村]’로 추정된다. 산등성이에 있는 마을이란 의미이다.

● 장승배기

[형태] 마을

[위치] 오탄1리 커뮤니티센터가 있는 자리로 오탄리 171번지이다.

[유래] 과거에 이곳에 장승이 서 있었다고 해서 장승배기라고 불렀다.

[어원풀이] ‘장승+배기’로 분석된다.

● 토보산(土堡山)

[형태] 산

[위치] 마산 북서쪽에 있는 해발 590.7m의 산으로 오탄리 산61-32번지이다.

[유래] 기존문헌에 임진왜란 때 토성을 쌓고 보루로 삼아 대적하였다고 하였다.

[어원풀이] ‘토보(土堡)+산(山)’으로 분석된다.

7절

원평리(圓坪里)

위치와 현황 | 화악산의 동쪽 자락에 위치한 산간마을로, 남쪽으로 마평천이 흐르고 동쪽으로 춘천호가 있다. 자연마을로는 원당리, 마평(馬坪), 응달말 등이 있다.

연혁 | 『여지도서』, 『호구총수』는 서상면(西上面) 원당리(院堂里), 『춘천읍지』는 서상면(西上面) 완당리(浣堂里), 『춘천부지』, 『관동읍지』는 서상면(西上面) 원당리(院堂里)로 표기하였다. 『조선지지자료』는 서상면(西上面) 마평리(馬坪里)와 원당리(圓塘里), 『강원도지지조서』는 서상면(西上面) 원평리(圓坪里), 『수춘지』, 『춘주지』, 『춘천백년사』는 사북면(史北面) 원평리(圓坪里)로 표기하였다. 현재 행정리와 법정리는 동일하게 원평리다.

유래 | 춘천군 서상면 지역으로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원당리(圓塘里)와 마평리(馬坪里)를 병합하여 원평리(圓坪里)라 하였다.

● 가마소

[형태] 소(沼)

[위치] 미상이다. 춘천호에 수몰된 것으로 추정된다.

[유래] 기존문헌에 가마처럼 생긴 소(沼)라 하였다.

[어원풀이] ‘가마[鼎]+소(沼)’로 분석된다.



구명터

● 고시락고개

[별칭] 고수령(高秀嶺)

[형태] 고개

[위치] 마평천이 흐르는 골짜기에서 지암리로 넘어 가던 옛 고개이다.

[유래] 기존문헌에 원평리와 지암리 사이에 있는 고개라 하였다.

[어원풀이] ‘고시락+고개[嶺]’로 분석된다. ‘고시락’의 의미는 불분명하다.

● 고시락골

[형태] 골짜기

[위치] 미평천이 흐르는 골짜기로 고시락고개 밑이다.

[유래] 기존문헌에 고시락고개 밑에 있는 골짜기라 하였다.

[어원풀이] ‘고시락+골[谷]’로 분석된다. ‘고시락’의 의미는 불분명하다.

● 구명터

[형태] 터

[위치] 사직골 초입으로 원평리 682번지 부근이다.

[유래] 기존문헌에 사직골 들머리에 있는 터라 하였다.

[어원풀이] ‘구명+터’로 분석된다. ‘구명’의 의미는 불분명하다.

● 굴아우

[별칭] 굴바우, 굴바위

[형태] 바위

[위치] 미상이다.

[유래] 기존문헌에 밑에 굴이 뚫려 있는 바위라 하였다.

[어원풀이] ‘굴+아우/바우/바위’로 분석된다.

● 궁소

[별칭] 꽉소

[형태] 소(沼)

[위치] 미상이다. 춘천호에 수몰된 것으로 추정된다.

[유래] 기존문헌에 구유처럼 되어있다는 소(沼)라 하였다.

[어원풀이] ‘궁/구유+소(沼)’로 분석된다.

● 깊은골

[형태] 골짜기

[위치] ‘장구매기골’ 서편 가까이에 있는 골짜기이다.

[어원풀이] ‘깊은[深]+골[谷]’로 분석된다. 골짜기가 깊어서 생겨난 지명이다.

● 능실

[형태] 마을

[위치] 기존문헌에 예전에는 마을이었으나 지금은 춘천호에 수몰되었다고 하였다. 도로명 영서로에 있는 원평제2교에서 서쪽 산 방향으로 나있는 골짜기가 ‘큰습실골’인 점으로 미루어 그 골짜기 앞에 있던 마을로 추정된다.

[어원풀이] ‘늪+실[村]’로 분석된다. 늪이 있는 마을이란 의미이다.

● 마평(馬坪)

[별칭] 마평리(馬坪里), 마람또리, 마랑또리

[형태] 마을

[위치] 말고개 가기 전 원평리 본마을 중앙 ‘말고개길’ 안쪽(동쪽)에 있다. 원평리 476-1번지 일대이다. 삼팔선을 표지하는 ‘삼팔선탑’이 주변에 있다.

[유래] 기존문헌에 장승터 서쪽에 있는 마을로 서울 장수들이 말을 많이 매고 유숙하였다고 하였다.

[어원풀이] ‘마(馬)+평(坪)’으로 분석된다. 말을 방목한 들판, 또는 크고 넓은 들판이란 의미이다.



마평

● 매나골

[형태] 골짜기

[위치] 밤나뭇골에서 북한강변(춘천호)을 따라 2km 더 동진하면 ‘매나골’ 입구가 나온다.

[어원풀이] ‘매나+골[谷]’로 분석된다. ‘매나’의 의

미는 불분명하다.

● 모진강(母津江)

[형태] 하천

[위치] 원평리 마을회관에서 북한강 방향을 모진강이라고 하고, 그곳에 있던 나루를 모진나루, 예전에 놓였던 다리를 모진교라고 했다. 모진나루와 모진교는 수몰되었다.

[유래] 모진강은 강원도 낭천현(狼川縣)을 흐르던 하천으로, 금강산에서 발원하는 북한강 상류를 부르는 이름이다. 한강의 근원이라는 의미에서 생겨난 이름이라 한다.

● 모통이비골

[형태] 소(沼)

[위치] 원평리마을회관에서 동쪽 1.2km쯤, 북한강(춘천호)가에 있다.

[유래] 기존문헌에 가마처럼 생긴 소(沼)라 하였다.

[어원풀이] ‘모통이+비+골[谷]’로 분석된다. 북쪽 산세가 모통이가 진 지역이어서 붙여진 지명이다.

● 무시덕

[형태] 들

[위치] 38선을 표지하는 ‘삼팔선탑’ 주변으로 추정된다.



무시덕

[유래] 기존문현에 마람또리(마평)에 있는 벼덩이
라 하였다.

[어원풀이] ‘무시+덕(벼덩)’으로 분석된다. ‘무시’의
의미는 불분명하다.

● 미약골

[형태] 골짜기

[위치] 미상이다.

[유래] 기존문현에 작은미약골과 큰미약골로 나뉜
다고 하였다.

[어원풀이] ‘미약+골[谷]’로 분석된다. ‘미약’의 의
미는 불분명한데 ‘아름다운 바위’의 뜻을 지닌 ‘미암(美岩)’이나 ‘미륵(彌勒)’의 와전으로 추정된다.

● 밤나무골

[별칭] 밤나뭇골, 밤골

[형태] 마을

[위치] 원댕이 뒤편, 밤나무가 많이 있는 마을이다.
원평리마을회관에서 동쪽 2.2km쯤 멀어진 북한강
(춘천호) 가로 원평리 181번지 일대이다.

[유래] 기존문현에 밤나무가 많이 있는 마을이라
하였다.

[어원풀이] ‘밤나무+골[谷]’로 분석된다.



밤나무골

● 배릇골

[별칭] 배릇골

[형태] 골짜기

[위치] 원댕이 뒤편, 밤나뭇골 옆 골짜기이다.

[유래] 기존문현에 밤나뭇골 옆에 있는 골짜기라
하였다.

[어원풀이] ‘배루/벼랑[崖]+へ+골[谷]’로 분석된다.
‘배루’는 ‘벼랑’의 방언이다. 가파른 절벽이 있는 골
짜기, 또는 물가 벼랑에 있는 골짜기란 의미로 추
정된다.



배릇골

● 사자사(獅子寺)터

[형태] 터

[위치] 원평리에서 가장 서쪽에 있는 골짜기인 사
직골(사자동) 안에 있는 절터이다. 사북면 원평리
704-1 부근이다.

[유래] 지금은 폐사되어 주춧돌만 남았지만, 과거
에 사자사(獅子寺)라는 절이 있었던 곳이다. 병자호
란 때 많은 사람들이 이 절에서 피난하였다고 전
한다.

[어원풀이] ‘사자(獅子)+사(寺)+터(垈)’로 분석할 수
있다.

● 사직골

[별칭] 사자동(獅子洞)

● 형태] 골짜기

[위치] 원평리에서 가장 서쪽에 있는 골짜기로 화악산(1138m) 다음에 매봉(1436m)이 지암리, 화천과 접경을 이룬다. ‘사직골/사자동’ 들머리에 ‘구명터’가 있고, ‘섬재’와 ‘말근터’도 인근에 있다. 원평리 704-1번지 부근이다.

[유래] 기존문헌에 원평리에서 가장 서쪽에 있는 골짜기라 하였다.

[어원풀이] ‘사직+골[谷]’로 분석된다. 과거에 있었던 사자사(獅子寺)로부터 사자동이라는 이름이 유래한 것으로 보인다.

● 산막골

[별칭] 삼막골

[형태] 골짜기

[위치] ‘큰아홉골’ 동편 가까이에 있다. 북한강 쪽에 ‘작은삼막골’이 있고 서쪽 방향 산쪽으로 ‘큰삼막골’이 있다. 그 동쪽은 원평리 동쪽 끝으로 신포리로 휘돌아가는 ‘원평길’과 북한강이 있다.

[유래] 기존문헌에 배못골 옆에 있는 골짜기라 하였다.

[어원풀이] ‘산+막+골[谷]’로 분석된다. 산으로 막혀 있는 골짜기란 의미이다. ‘삼막골’로도 불리는 데 이 경우 삼을 캐던 움막이 있는 골짜기란 의미가 된다.



산막골

● 새터

[별칭] 신대(新垈)

[형태] 마을

[위치] 미상이다.

[유래] 기존문헌에 새로 생긴 마을이라 하였다.

[어원풀이] ‘새[新]+터[垈]’로 분석된다.

● 섭재

[형태] 마을

[위치] 원평리에서 가장 서쪽에 있는 골짜기인 사직골 인근으로 원평리 704-1번지 부근이다.

[유래] 기존문헌에 사직골에 있는 터라 하였다.

[어원풀이] ‘섭[薪]+재[峙]’로 분석된다. ‘섭’은 대부분 ‘섶(섶나무, 薪)’의 의미이다.

● 안마골

[형태] 골짜기

[위치] 원평리마을회관에서 동쪽 2.2km쯤, 북한강(춘천호)가에 ‘밤나뭇골’이 있고 그곳에서 북한강변(춘천호)을 따라 300m 더 동진하면 ‘안마골’ 입구가 나온다. ‘호수낚시터’가 있는 입구에서 더 들어간다.

[어원풀이] ‘안마+골[谷]’로 분석된다. ‘안마’의 의미는 불분명하다.

● 양짓골

[형태] 골짜기

[위치] 응달말 옆 골짜기이다.

[유래] 기존문헌에 양지쪽에 있는 골짜기라 하였다.

[어원풀이] ‘양지(陽地)+ㅅ+골[谷]’로 분석된다.



양짓골

● 웃닭골

[형태] 골짜기

[위치] 밤나뭇골에서 북한강변(춘천호)을 따라 2km 더 동진하면 ‘매나골’ 입구가 나오는데 거기서 200m 서쪽에 있다. 골이 깊은편이다.

[어원풀이] ‘웃닭+골[谷]’로 분석된다. ‘웃닭’을 기르던 골짜기란 의미로 추정된다.

● 원댕이

[별칭] 원데이, 원당

[형태] 마을

[위치] 원평리마을회관에서 동쪽 2.2km쯤, 북한강(춘천호)가에 ‘밤나뭇골’이 있고 그 앞이 지금의 ‘원댕이/원당리’이다. 원평리 181번지 부근이다. 예전 원댕이는 1965년 춘천댐 건설로 거의 춘천호에 수몰되었다.

[유래] 기존문헌에 마평리 동쪽 북한강 가에 있는 마을이라 하였다.

[어원풀이] ‘원(院)+댕이’로 분석된다. 조선시대 문인으로 화천의 곡운서원에 배향된 성규현(成揆憲·1647~1741)이 숙종 15년(1689) 기사환국으로 파직당한 후 북한강 가의 풍광에 매료되어 이곳에 터를 잡고 연못을 만들어 ‘원당(圓塘)’이라 불렀던 데서 유래하였다고 전해진다. 춘천호가 생기면서

집터와 원당은 모두 물에 잡겨 사라졌다. 호수에 잠긴 못(圓塘)과 여울 그리고 성규현을 회억(回憶)하고자 그의 후손들과 주민들이 2007년도에 둑근못을 만들고 조형물을 세워 원당을 기념하고 있다. 그런데 그 이전부터 역원이 있었던 곳이란 의미에서 생겨난 지명으로 추정된다.



원댕이

● 응달말

[형태] 마을

[위치] 원평리 본마을에서 서쪽으로 3km 쯤으로 원평리 121번지 부근이다.

[유래] 기존문헌에 응달쪽에 있는 마을이라 하였다.

[어원풀이] ‘응달+말[村]’로 분석된다.



응달말

● 작은샘말골

[형태] 골짜기

[위치] ‘안마골’ 초입 동편에 있는 작은 골짜기이다.
 [어원풀이] ‘작은[小]+샘[泉]+말[村]+골[谷]’로 분석된다. 샘이 나는 마을에 있는 골짜기란 의미이다.

● 잘벼덩골

[형태] 골짜기

[위치] 원평리 동쪽 끝 가장자리로, 신포리의 ‘신포리도선장’에 가까우며, 북한강이 휘도는 중앙 부근에 위치한다. ‘큰아홉골’ 쪽 북단에 있는 ‘춘천사슴농장’이 남서쪽 가까이에 있다.

[어원풀이] ‘잘/자리(가장자리)+벼덩+골[谷]’로 추정된다.



장승대

● 장구매기골

[형태] 골짜기

[위치] ‘사당골’과 ‘옻닭골’ 사이에 있는 골짜기이다.

[어원풀이] ‘장구+매기+골[谷]’로 분석된다. 장구 모양의 산이 있는 골짜기란 의미로 추정된다.

● 장승대

[별칭] 장승터, 장승배기

[형태] 마을

[위치] 영서로에서 마을길인 원천로로 원천교를 넘어서자마자 동쪽 들이 ‘장승대/장승터’이다. 그 남동쪽 가까이에 원평리마을회관이 있다.

[유래] 기존문헌에 원평리 어귀에 장승이 서 있었다고 하였다.

[어원풀이] ‘장승+대(垈)’로 분석된다. ‘장승’은 돌이나 나무에 사람의 얼굴을 새겨서 마을 또는 절 어귀나 길가에 세운 풋말로 10리나 5리 간격으로 이 수(里數)를 나타내 이정표 구실을 하거나, 마을의 수호신 역할을 한다. 과거 마을의 장승이 서있던 곳이라서 장승대라고 불린다.

● 지당골

[별칭] 사당골

[형태] 골짜기

[위치] 원평리마을회관에서 동쪽 2.2km쯤, 북한강(춘천호)가에 ‘밤나뭇골’이 있고 그곳에서 북한강변(춘천호)을 따라 1km 더 동진하면 ‘지당골’ 입구가 나온다. 원평리 94-5번지 부근이다.

[유래] 기존문헌에 산제당이 있던 골짜기라 하였다.

[어원풀이] ‘지당/제당(祭堂)+골[谷]’로 분석된다.



지당골

● 진골골

[형태] 골짜기

[위치] ‘장구매기골’과 ‘깊은골’ 사이에 있는 골짜기이다.

[어원풀이] ‘진/긴[長]++골[谷]+골[谷]’로 분석된

다. 긴 골짜기란 의미로 추정된다.

있는 내[川]라 하였다.

● 짹발골

[형태] 골짜기

[위치] 원평리마을회관에서 북쪽 700m 남짓한 거리로 원평리 산84-1번지 일대이다.

[어원풀이] ‘쫙발+골[谷]’로 분석된다. ‘쫙발’의 의미는 불분명하다.

[어원풀이] ‘해+ㅅ+나드리+개울’로 분석된다. 정확한 의미는 불분명하다.

● 큰늠실골

[형태] 골짜기

[위치] 도로명 영서로에 있는 원평제2교에서 서쪽 산 방향으로 나있는 골짜기이다.

[어원풀이] ‘큰[大]+늠실골’로 분석된다. ‘늠실’ 참조.

● 큰아홉골

[형태] 골짜기

[위치] 원평리마을회관에서 동쪽 끝 못 미쳐 5km쯤, 북한강(춘천호)가에 ‘큰아홉골’ 입구가 있다. 입구에서 1km쯤 더 들어간다. 원평리에서 가장 동쪽 끝에 있는 큰 골짜기이다.

[어원풀이] ‘큰[大]+아홉[九]+골[谷]’로 분석된다. ‘아홉(九)’은 ‘구만리 머너 먼 길’처럼 큰 수를 의미한다. 원평리 동쪽 산골짜기 중에 가장 크고 긴 골짜기이다. 바로 북쪽 위에 ‘춘천사슴농장’이 있다.

● 헛나드리개울

[형태] 하천

[위치] 지금은 ‘마평천’ 이외에는 원평리에서 외지로 나가는 개천은 없다. 춘천호에 수몰된 것으로 추정된다.

[유래] 기존문헌에 원평리에서 나드리하는 길목에

위치와 현황 | 서쪽과 남쪽으로 춘천호에 둘러싸여 있고 남쪽에 춘천댐이 있다. 낮은 산지와 평야로 이루어져 있다. 자연마을에는 점말, 본부락 등이 있다. 모진교나 폐둔지 다리, 인람나루터가 있었으나 지금은 춘천호 물밑에 잠겼다.

연혁 | 『여지도서』, 『호구총수』, 『춘천읍지』, 『춘천부지』, 『관동읍지』는 북내면(北內面) 인람리(仁嵐里)로 표기하였다. 『조선지지자료』는 북내이작면(北內二作面)에 인람리(仁嵐里)로, 『강원도지지조서』, 『수춘지』, 『춘주지』, 『춘천백년사』는 사북면(史北面) 인람리(仁嵐里)로 표기하였다. 현재 행정리와 법정리는 동일하게 인람리다.

유래 | 춘천군 북내이작면 지역으로 조선시대 성종 때 시인 이주의 인람정이 있었으므로 인람이라 하였다고 전해진다.

● 거리말

[별칭] 중간말

[형태] 마을

[위치] 인람리마을회관에서 인람리 마을버스 종점 까지가 중간말(거리말)이다. 거리말은 마을의 70% 정도가 춘천호에 수몰되었다.

[유래] 인람리 초입 점말과 원마을인 인람리 중간에 있는 마을이다. 기존문헌에 지금은 춘천호에 묻혔다고 하였다.

[어원풀이] ‘거리[街]+말[村]’로 분석된다.



거리말



● 공동묘골

[형태] 골짜기

[위치] 삼팔교 500m 아래 정도에 있다. 인람리마을회관 직전에 있는 오른편 다리를 지나 원평리(저수지) 방면으로 넘어간 뒤 잘 가꿔놓은 산책로를

따라서 끝까지 가면 일제강점기에 조성했던 공동묘지터가 있다.

[유래] 공동묘지가 있는 골짜기라는 의미이다. 일제강점기에 주민들의 땅을 강탈하여 공동묘지를 조성했다. 당시 인람리에서 초상이 나면 모두 그곳에 매장하도록 강제했다. 해방 후 땅임자들이 땅을 되찾았고 공동묘지에 있던 무덤을 대다수 이장했다. 공동묘골의 터는 지금 90%는 춘천호에 수몰되었고 10% 정도만 남아있다.

[어원풀이] ‘공동(共同)+묘(墓)+골[谷]’로 분석된다.



공동묘골

● 다릿골

[형태] 골짜기

[위치] 인람리 수청령고개를 넘어가면 나오는 춘천경찰서 사격장 근방이다.

[유래] 기존문헌에 다리가 있는 골짜기라 하였다.

두 산맥 사이가 빙빙 둘러있고, 낮에도 음산한 골짜기이다. 다릿골의 첫째골, 둘째골, 셋째골 고개를 넘어가면 바로 고탄리가 나온다.

[어원풀이] ‘다리+ㅅ+골[谷]’로 분석된다.



다릿골

● 텁바웃골

[별칭] 텁박골, 설들아웃골

[형태] 골짜기

[위치] 인람리 점말고개 골짜기에 있다. 인람리마을 회관에서 서낭고개 방면으로 오른편에 위치한다.

[유래] 기존문헌에 ‘텁바웃골’과 ‘설들아웃골’이 동일한 지명이라 하며 인람리에 있는 골짜기로 큰 바위가 있다고 하였다.

[어원풀이] ‘텁(덤)+바우[岩]+ㅅ+골[谷]’로 분석된다. 덤바위는 작은 돌덩어리가 여러개 붙어 있는 바위를 말한다. 별칭의 ‘설들아웃골’에서 ‘설들아우’는 ‘선돌바위’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인다.



텁바웃골

● 떼둔지

[별칭] 사평리(沙平里)

[형태] 마을

[위치] 인람리 3반에 위치한다. 지금은 춘천호에 수몰되었다.

[유래] 뗏목이 내려와서 쉬었다가 가는 곳이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옛날에는 목재를 떼로 만들어 한강 하류로 운반했으나 지금은 춘천호에 수몰되었다. 떼둔지에서 춘천댐 방면의 물살이 거세어 떼 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떼둔지에서 떼를 보수했다고 한다. 일제강점기 때는 떼둔지 강가에 모래벌이 넓어서 사평리(沙平里)라고 부르기도 했다.

[어원풀이] ‘떼[뗏목]+둔지’로 분석된다. ‘둔지’는 ‘둔치’의 강원 방언이며 강, 호수 따위의 물이 있는 곳의 가장자리를 가리킨다.



떼둔지

● 떼둔지다리

[별칭] 사평교(沙平橋)

[형태] 다리

[위치] 인람리에서 화천으로 가는 도로에 있었으나 지금은 춘천호에 수몰되었다.

[유래] 떼둔지에 있는 다리라는 의미이다. 일제강점기에는 사평교(沙平橋)라고 부르기도 했다. 한국

전쟁 때 폭격으로 끊어져서 전쟁 후 군인들이 떼둔지다리 옆에 다시 다리를 만들어주었다고 한다.
새로 지은 다리를 인람교라고 불렀다.

[어원풀이] ‘떼[뗏목]+둔지+다리[橋]’로 분석된다.

● 모진교(母津橋)

[별칭] 모진강다리

[형태] 다리

[위치] 원평리 방면으로 3km 인람리 끝에 위치했으나 춘천호에 수몰되었다.

[유래] 인람리에서 원평리로 넘나드는 긴 다리로 신포리까지 이어진다. 한국전쟁 때 폭격으로 끊겼다가 미군이 임시로 이어서 사용했다. 춘천댐 건설 때 상판만 제거된 채 교각은 물속에 잠겼다.



1934년 12월 10일 <조선신문>에 수록된 모진교

● 배고개

[별칭] 배고개

[형태] 고개

[위치] 중간말 일부가 잠긴 춘천호 건너편에 위치한다.

[유래] 『조선지지자료』에 ‘배고개(舟峴)’가 기재되어 있다.

[어원풀이] ‘배(舟)+고개(峴)’로 분석된다.



배고개

● 본부락

[별칭] 원마을, 인람리

[형태] 마을

[위치] 사북면 면사무소와 지서가 있던 인람리 원마을이다. 지금은 춘천호에 수몰되었다.

[유래] 인람리 중심이 되는 원마을이라는 의미의 일본식 지명이다. 마을에 면사무소, 지서, 배나루터가 있었다. 마을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던 지명은 아니라고 한다.

[어원풀이] ‘본(本)+부락’으로 분석된다. ‘부락’은 일본식 지명으로, 본부가 되는 마을의 의미를 지니다.



본부락

● 삼막골

[형태] 골짜기

[위치] 인람리 텁바웃골 맞은편에 위치한다.

[유래] 기존문헌에 인삼 캐는 사람의 막이 있었던

골짜기라 하였다.

[어원풀이] ‘삼(夢)+막(幕)+골[谷]’로 분석된다.



삼막골

● 서낭고개

[별칭] 인람고개, 인람현(仁嵐峴)

[형태] 고개

[위치] 송암리에서 인람리로 이어지는 고개이다.

[유래] 기존문헌에 서낭이 있던 고개라 하였고, 『조선지지자료』에는 ‘닐남고개(仁嵐峴)’로 기재되어 있다. 서낭고개가 예전에는 사람이 오르내리기 힘들 정도로 높았다. 1970년대 초에 춘성군에서 지원을 받아서 지금의 높이로 10m 이상 낮추었다. 서낭당은 1970년대 이전에 없어졌다. 송암리에서 는 이 고개를 삽수리고개라고 부른다.

[어원풀이] ‘서낭+고개[峴]’로 분석된다.



서낭고개

● 속새골

[형태] 골짜기

[위치] 인람리마을회관에서 서낭고개 방면의 텁바웃골에 가기 전 원편 8시 방향이다.

[유래] 기존문헌에 속새라는 풀이 많던 골짜기라 하였다.

[어원풀이] ‘속새(속새풀)+골[谷]’로 분석된다. ‘속새풀’은 강원 이북에서 주로 자라는 식물이다.



속새골

● 수청령(水淸嶺)

[별칭] 수청령고개, 물푸레고개, 뭇푸레고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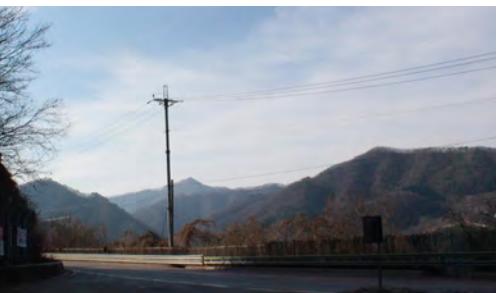
[형태] 고개

[위치] 인람리마을회관에서 2km 정도에 위치한다. 인람리 남쪽 안산(317m) 너머, 신북읍 용산리로 넘어가는 고개로 용산리와 접경을 이룬다. 춘천댐과 춘천호가 서편에 보인다.

[유래] 기존문헌에 뭇푸레고개라 하였다. 인람리에서 수청령고개를 넘어가면 매치골(현 신동리)이 나온다. 수청령은 일제강점기 때 일본인들이 길을 닦았다. 고개 위에서 내려다보면 강물이 시퍼렇게 보인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도 한다. 수청령 고갯마루는 한국전쟁 전에 1개 분대 군인들이 천막을 치고 모든 행인을 검문했던 자리이다.

[어원풀이] ‘수청령(水淸嶺)’은 ‘물푸레고개’의 한자

표기 지명이다. 높은 고개에서 내려보면 강물이 시 펴렇게 보인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또 는 ‘몰푸레나무’가 많은 고개란 의미도 지닌다.



수청령

● 융모번드기

[별칭] 육모번드기

[형태] 벼덩

[위치] 인람리 서낭고개를 넘어 산 양지쪽으로 집 한 채 있는 부근에 위치한다.

[유래] 기존문헌에 인람리에 있는 벼덩이라 하였다. 융모번드기에 여섯 모가 나온다고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예전에는 땅이 좋지 않아서 묵혔던 땅이다.

[어원풀이] ‘융/육(六)+모[角]+번드기(벼덩)’로 분석 된다. ‘벼덩’은 높고 평평하며 나무는 없이 풀만 우거진 거친 들이다. ‘융모’는 육각형 모양을 의미하는 ‘육모’의 이형태이다.



융모번드기

● 인람배터

[별칭] 인람나루터

[형태] 나루

[위치] 인람리 지서 앞에 있었으나 1965년 춘천댐 건설로 수몰되었다.

[유래] 기존문헌에 인람리에 있던 나루터인데 춘천 호에 수몰되었다고 하였다. 인람배터는 오월리와 지암리를 오고 가는 나루터였다. 배터 근방에는 3~4가구가 살았다. 그중 뱃사공이 언덕 위에 살았는데 행인이 언덕 아래에서 “배 건네요.”하고 소리 치면 뱃사공이 내려와 배를 태워 건네줬다고 한다.

[어원풀이] ‘인람(仁嵐)+배+터’로 분석된다.



인람배터

● 인람저수지

[형태] 저수지

[위치] 인람리 점밀에서 인람리마을회관 가는 방면 오른편에 위치한다.

[유래] 논에 물을 대기 위해 하천이나 골짜기를 막아 만든 큰 못이다.

[어원풀이] ‘인람(仁嵐)+저수지(貯水池)’로 분석된다.



인람저수지

[유래] 기존문헌에 예전에 옹기점이 있었다고 하였다.
 [어원풀이] ‘점(店)+말[村]’로 분석된다. 옹기점이
 있던 마을이란 의미이다.

● 인람역(仁嵐驛)

[형태] 역(驛)

[위치] 가일리 역밭구미 근처에 있었는데 지금은
 춘천호에 수몰되었다.

[유래] 조선시대에 설치한 역원으로 말을 터고 오
 는 사람들이 인람리에 와서 말을 쉬게 하거나 마
 필(馬匹)을 공급받던 곳이다.

[어원풀이] ‘인람(仁嵐)+역(驛)’으로 분석된다.

● 점말

[별칭] 점촌(店村)

[형태] 마을

[위치] 인람리 서낭고개 직전에 있다.



점말

위치와 현황 | 북쪽으로 지암천이 흐르고, 몽덕산과 화악산 자락 사이에 위치한 전형적인 산간마을이다. 자연마을로는 샛말, 삼거리, 마장리(馬場里), 탑두레기 등이 있다.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강원도자연휴양림이 있다. 지암리는 지개미, 지가암(芝加哥岩)이라고도 불렸다.

연혁 | 『여지도서』는 서상면(西上面) 지가암리(芝可巖里)로 표기하였다. 『호구총수』는 지분암리(芝芬巖里)로, 『춘천읍지』, 『춘천부지』, 『관동읍지』, 『조선지지자료』는 서상면(西上面) 지가암리(芝可巖里)로 표기하였다. 『강원도지지조서』는 서상면(西上面) 지암리(芝岩里), 『강원도지』, 『수준지』, 『춘주지』, 『춘천백년사』는 사북면(吏北面) 지암리(芝岩里)로 표기하였다. 현재 행정리와 법정리는 동일하게 지암리다.

유래 | 본래 춘천군 서상면의 지역으로서 지개미 또는 지가암이라 하였다.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동가정이, 마장리, 여우새, 샛말, 뱃말, 조계, 집다리, 탑둔지를 병합하여 지암리(芝岩里)라 하고 1934년 4월 1일 사북면에 편입했다.

● 동가정이

[별칭] 동가정

[형태] 마을

[위치] 지암리 본마을인 지암리마을회관에서 ‘마장리’는 3.5km쯤 서편에 있고, ‘동가정이’는 2km에 있다. 지암리 473-5번지 일대이다.

[유래] 기존문헌에 마장리 건너편에 있는 마을이라 하였다.

[어원풀이] ‘동[東]+가정이/가쟁이’로 추정된다. 동쪽 가장자리란 의미이다.



동가정이

● 뒷말

[형태] 마을

[위치] 지암리마을회관에서 서쪽 4km쯤 거리에 있다. 지암리 107번지 부근이다.



뒷말

[유래] 기존문헌에 집다리 뒤에 있는 마을이라 하였다.

[어원풀이] ‘뒤[後]+ㅅ+말[村]’로 분석된다.

● 마장리(馬場里)

[별칭] 마장이, 마쟁이

[형태] 마을

[위치] 지암리마을회관과 지촌초교지암분교에서 2.5km 쯤 서진하면 두 갈래길이 나온다. 그곳에서 남쪽 길로 들어서마자 다시 두 갈래길이 나온다. 그곳에서 다시 남쪽길을 택하고 1km 가면 ‘마장이’가 나온다. 마을이 있는 골짜기는 ‘마장이골’이라고 한다.

[유래] 기존문헌에 초신골 남쪽에 있는 마을로 옛날 서울 행상들이 말을 매고 유숙하였다고 하였다.

[어원풀이] ‘마장(馬場)+리(里)’로 분석된다. 말을 방목하던 목장이 있던 마을이란 의미이다.



마장리

● 본마을

[별칭] 지개미, 지가암

[형태] 마을

[위치] 춘천호와 지암천이 합류하는 곳에 놓인 ‘남실교’ 또는 지암리 입구 ‘오월유원지’에서 지암천과 나란히 이어지는 도로지명 ‘화악지암길’로 4km

서진하면 만나게 되는 넓은 벌판에 바둑판처럼 잘 정비된 마을로 지암리 687-5번지 일대이다. 지암리마을회관이 있다.

[유래] 기존문헌에 지암리의 본마을이라 하였다.

[어원풀이] ‘본(本)+마을’로 분석된다.



본마을

● 샛말

[별칭] 간촌(間村), 사잇말

[형태] 마을

[위치] 지암리는 계곡을 따라 길게 형성되어 있는 데, 오월리에서 지암리로 들어오면서 만나게 되는 마을로 지암리 126-1번지 일대이다. 원당리와 지암리 중간에 있는 마을이라고 한다.

[유래] 기존문헌에 지암리 중간에 있는 마을이라 하였다.

[어원풀이] ‘새[間]+ㅅ+말[村]’로 분석된다.



샛말

● 여우내

[별칭] 방학둔지(芳確屯地)

[형태] 마을

[위치] 지암리마을회관과 지촌초교지암분교에서 600m쯤 서진하면 지암계곡 앞에 세 갈래길이 나온다. 그곳에서 북쪽 작은 화악지암길로 휘돌아 2km쯤 북진하면 ‘여우내’가 나온다.

[유래] 기존문헌에 ‘여우내’는 ‘방학둔지(芳確屯地)’로 방아학처럼 우뚝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현재는 ‘여우내’로 부른다.

[어원풀이] ‘여우[狐]+내[川]’로 분석된다. 평소에는 말라 있다가 큰 비가 내릴 때만 흐르는 건천(乾川)이란 의미이다. 별칭인 방학둔지(芳確屯地)는 ‘방학(芳確)+둔지(屯地)’로 분석되는데 ‘둔지’는 ‘둔치’의 강원 방언으로 강, 호수 따위의 물이 있는 곳



여우내

의 가장자리를 가리킨다. ‘방화’은 ‘방아화’으로 방앗공이로 찡을 수 있게 돌절구 모양으로 우뚝하게 판 돌이다. 마을의 모양이 방아화처럼 생겼다고 해서 생긴 이름으로 추정된다.

● 웃덤벙

[별칭] 방학둔지(芳確屯地)

[형태] 마을

[위치] 지암리마을회관에서 1km쯤 서진하면 여러 팬션들이 나온다. 이곳이 ‘웃덤벙’마을이다. ‘탑둔지’ 가기 전 자연마을이다.

[어원풀이] ‘우/위[上]+ㅅ+덤벙’으로 분석된다. ‘덤벙’은 ‘웅덩이’의 방언이다. 특히 남쪽에 골짜기가 많아 비가 오면 자주 웅덩이(덤벙)지는 곳이다.



조계

● 지가암(芝歌岩)

[별칭] 지암리, 지개미

[형태] 마을

[위치] 지암리 본마을이다. ‘본마을’ 참조.

[어원풀이] ‘지가암(芝歌岩)’ ‘지개미’의 의미는 불분명하다. ‘지(地)+감[崇]+이(揖美사)’로 추정해 본다. ‘감’은 ‘신성함, 숭상함, 현묘함’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고유어이다. 따라서 ‘지감이’는 ‘성스러운 지역, 신령스러운 땅, 소도와 같은 은밀한 특수지역’이 된다. ‘지감이/지가미’가 ‘지개미’(지팡이가 지팽이로 되는 것처럼 ‘이모음역행동화’)로 변음되었다.



지가암

● 집다리골

[별칭] 직교리(直橋里), 직교(直橋)

[형태] 마을

● 조계(鳥溪)

[별칭] 조계리, 조개리, 조교리

[형태] 마을

[위치] 지암리마을회관과 지촌초교지암분교에서 2.5km 쯤 서진하면 두 갈래길이 나온다. 북쪽길 2km 지점에 집다리골자연휴양림이 있고, 남쪽길로 들어서 2.5km쯤 가면 ‘이상원미술관뮤지엄스테이’에 도착한다. 이곳에서 서쪽으로 500m 들어가면 ‘조계(鳥溪)’이다. ‘조계’ 남쪽에 ‘홍적령(526m)’이 있고 가평으로 넘어간다. 지암리 593번지 주변이다.

[유래] 기존문헌에 집다리 서남쪽에 있는 마을이라 하였다.

[어원풀이] ‘조(鳥)+계(溪)’로 분석된다. ‘조(鳥)’는 동쪽을 의미하는 우리말 ‘새’를 훈차한 것이다. 따라서 ‘새내’를 한자로 표기한 지명이 ‘조계(鳥溪)’이다. ‘새내’는 ‘동쪽에 있는 하천, 동쪽으로 흐르는 하천’이란 의미이다.

[위치] 집다리골자연휴양림이 있는 부근이다.

[유래] 기존문헌에 지개미 서쪽으로 떨어져 있는 마을이라 하였다.

[유래담] ‘집/직[直]+다리[橋]+골[谷]’로 분석된다. 짚으로 만든 다리란 의미로 짚을 묶어 헵곡 사이에 만든 다리가 있었다는 증언이 있다. 그런데 지형적인 특성을 고려할 때 곧게 뻗은 들판이란 의미로 추정된다. 지명에서 ‘다리[橋]’는 ‘들[野]’의 의미인 경우가 많다.

● 집다리골자연휴양림

[형태] 숲

[위치] 지암리마을회관과 지촌초교지암분교에서 4km 정도 서쪽으로 가면 나온다. 지암리 521-2 일대이다.

[유래] 집다리골 자연휴양림은 응봉과 촛대봉 사이에서 시작된 개울이 춘천호로 흘러가는 계곡 중간에 있다. 그러므로 어느 곳보다도 산이 높고 가까워 자연조건이 좋다고 할 수 있다. 개다가 숲도 울창하고 계곡은 경관이 좋다. 이곳에는 높은 산을 뚫고 광물을 채굴하던 광산이 남아있다.



집다리골자연휴양림

● 초신골

[별칭] 초화동(草靴洞)

[형태] 골짜기

[위치] 집다리 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지암리 656 번지 일대이다.

[유래] 기존문헌에 집다리 남쪽에 있는 골짜기라 하였다.

[어원풀이] ‘초(草)+신[靴]+골(洞)’로 분석된다. ‘초신’의 의미는 불분명하다.



초신골

● 탑두레기

[별칭] 탑둔지, 탑두육

[형태] 마을

[위치] 지암리마을회관과 지촌초등학교지암분교장에서 남서쪽으로 1.5km쯤에 있는 ‘지암2교’에서



탑두레기

300m 정도 북쪽으로 가면 ‘탑둔지’에 이른다. 지암리 467번지 일대이다.

[유래] 기존문헌에 옛날에 탑이 있던 마을이라 하였다.

[어원풀이] ‘탑(塔)+둔지(屯地)’로 분석된다. ‘둔지’는 ‘둔치’의 강원 방언이며 강, 호수 따위의 물이 있는 곳의 가장자리를 가리킨다.

● 흥적령(紅積嶺/弘積嶺)

[별칭] 홍지기고개, 홍지고개

[형태] 고개

[위치] 지암리마을회관과 지촌초교지암분교에서 2.5km 쯤 서진하면 두 갈래길이 나온다. 북쪽길 2km 지점에 짐다리골자연휴양림이 있고, 남쪽길로 들어서 2.5km쯤 가면 이상원미술관에 도착한다. 이상원미술관 남쪽 다음 골짜기에 있는 고개가 홍적령(526m)으로 고개를 넘어가면 가평군 북면이 나온다.

[유래] 기존문헌에 조계에서 경기도 가평군 북면으로 가는 고개라 하였다.

[어원풀이] ‘홍(紅/弘)+적(積/磧)+령(嶺)’으로 분석된다. 홍적령(弘磧嶺)으로 표기된 한자지명에 의하면 커다란 자갈이 많은 고개란 의미가 된다.



흥적령

위치와 현황 | 북쪽에서 동쪽으로 지촌천이 흐른다. 서쪽으로 소알미산이 있으며, 낮은 산지와 평야로 이루어져 있다. 자연마을로는 상촌, 양지말, 밧서오지, 시장, 비석거리 등이 있다.

연혁 | 『춘주지』를 보면 사탄현(史眷縣) 서오지(鋤五芝)로 표기되었다. 『여지도서』, 『호구총수』, 『춘천읍지』, 『춘천부지』, 『관동읍지』는 사탄외면(史眷外面) 서오지리(鋤五芝里)로 표기하였다. 『조선지지자료』는 사외면(史外面) 상촌리(上村里), 하촌리(下村里), 외촌리(外村里)로, 『강원도지지조서』, 『강원도지』, 『수춘지』는 사북면(史北面) 지촌리(芝村里)로 표기하였다. 『춘주지』, 『춘천백년사』는 사북면(史北面) 지촌1리, 지촌2리, 지촌3리로 표기하였다. 현재 행정리는 지촌리, 법정리는 지촌1리, 지촌2리, 지촌3리이다.

유래 | 서오지하촌(鋤吾芝下村)과 화천군 하서면(下西面)의 서오지상촌(鋤吾芝上村), 서오지 외촌(鋤吾芝外村)을 병합하여 지촌리(芝村里)라 한다.

● 가마소

[형태] 소(沼)

[위치] 기존문헌에 지촌리에 있는 소(沼)라 하였는데 현재 수몰된 것으로 보인다.

[어원풀이] ‘가마[鼎]+소(沼)’로 분석된다. 가마솥 모양의 소(沼)란 의미이다.

● 가치물

[형태] 우물

[위치] 지촌리 본마을 인근에 있는 우물로 지촌리 563번지 부근이다.

[유래] 기존문헌에 지촌리에 있는 우물이라 하였다.

[어원풀이] ‘가치+물/우물[井]’로 분석된다. ‘가치’는 ‘까치[雀]’의 고어이다.

● 궁산말

[별칭] 궁산촌(弓山村), 궁상촌

[형태] 마을

[위치] 지촌3리마을회관에서 오탄 방면으로 500m 정도 가다가 원편에 있는 마을이다. 지촌리 548-5 번지 부근으로 신포리 공소가 있다. 현재는 군시설이 들어서 있다.

[유래] 기존문헌에 산이 궁(弓)자 모양으로 생겼다고 하였다.

[어원풀이] ‘궁(弓)+산(山)+말[村]’로 분석된다.



궁산말

● 대알미산

[별칭] 큰알미산, 대안미산(大雁尾山)

[형태] 산

[위치] 소안미산 북동쪽에 있는 고도 315.1m의 산으로 지촌리 산 38-1번지 일대이다.

[어원풀이] ‘대(大)+알/안(內)+미/Փ[[山]]+산(山)’으로 분석된다. 소알미산(464m)이 대알미산(320m)보다 고도가 높지만 작다고 불린 것은 ‘큰알미산(320m)’에서 장사가 태어났기에 ‘크다’고 표현한 것으로 추정된다.

● 텁박산

[형태] 산

[위치] 사북면 보건지소 등의 시설 뒤에 있는 고도 298m의 산으로, 지촌리 산17-1번지 일대이다.

[유래] 기존문헌에 산이 뒤옹박처럼 생겼다고 하였다.

[어원풀이] ‘텀박/뒤옹박/뒤옹박+산(山)’으로 분석된다.



텀박산

● 마구뚝

[형태] 제방

[위치] 기존문헌에 북한강 가의 천연적인 뚝이라 하였다.

[어원풀이] ‘마구/막은+뚝/뚝’으로 분석된다.

● 마라소

[형태] 소(沼)

[위치] 미상이다. 현재 수몰된 것으로 보인다.

[유래] 기존문헌에 큰개울에 있는 소(沼)라 하였다.

[어원풀이] ‘마라+소(沼)’로 분석된다. ‘마라’는 고어 ‘므르다(마르다)’에서 유래하여 ‘마라[裁]+소(沼)’로

볼 수 있으므로 물이 자주 마르는 소(沼)란 의미로 추정된다.

● 만아버덩

[형태] 산

[위치] 지촌리 산25-1번지 일대로 추정된다.

[유래] 기존문헌에 밧서오지 동남쪽에 있는 산이라 하였다.

[어원풀이] ‘만아+버덩’으로 분석된다. ‘만아’의 의미는 불분명하다.

● 문등골

[형태] 골짜기

[위치] 지촌리 247번지 일대로 추정된다.

[유래] 기존문헌에 만아버덩 옆에 있는 골짜기라 하였다.

[어원풀이] ‘문등+골[谷]’로 분석된다. ‘문등’의 의미는 불분명하다.

● 물레방앗간터

[형태] 터

[위치] 미상이다.

[유래] 기존문헌에 예전에 물방아가 있던 터라 하였다.

[어원풀이] ‘물레방앗간+터’로 분석된다.

● 미륵댕이

[형태] 터

[위치] 미상이다.

[유래] 기존문헌에 예전에 미륵당이 있었다고 하였다.

[어원풀이] ‘미륵(彌勒)+댕이/당(堂)+○(첩미사)’로 분석된다.

● 바리여울

[형태] 여울

[위치] 미상이다. 현재는 수몰된 것으로 추정된다.

[유래] 기존문헌에 큰 개울에 있는 여울이라 하였다.

[어원풀이] ‘바리+여울’로 분석된다. ‘바리’는 ‘여울’과 관련지으면 단순히 절에서 쓰는 승려의 공양 그릇 ‘바리’와 연결할 수 있다.

● 밧서오지

[별칭] 받서오지, 서오지외촌

[형태] 마을

[위치] 지촌3리 마을회관이 있는 지촌리 458번지 일대이다.

[유래] 기존문헌에 서오지 밖에 있는 마을이라 하였다.

[어원풀이] ‘밧[外]+서오지’로 분석된다. ‘서오지’ 밖에 있는 마을이란 의미이다. 현재 ‘서오지리’는



밧서오지

화천군 하남면에 속하는데 옛날 이곳에 살던 세 노인이 '자신[吾]의 호미[鋤]로 약초[芝]를 깼다'는 의미로 불린 이름이라 전해진다. 이는 표기된 한자의 뜻에 얹매인 풀이이다. '서(鋤)+오지/고지[串]'로 분석하여 호미처럼 물가로 툭 튀어나온 지형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 비석거리

[형태] 마을

[위치] 미상이다.

[유래] 기존문헌에 비석이 있던 마을이라 하였다.

[어원풀이] '비석(碑石)+거리[路]'로 분석된다.

● 서오지상촌(鋤吾芝上村)

[별칭] 상촌

[형태] 마을

[위치] 지촌리 126번지 인근지역이다.

[유래] 기존문헌에 서오지 위쪽에 있는 마을이라 하였다.

[어원풀이] '서오지+상(上)+촌(村)'으로 분석된다.



서오지상촌

● 석금바우

[별칭] 석금바위

[형태] 바위

[위치] 채벌에서 200m정도 더 올라가면 석금바우가 있다. 지촌리 4-3번지 부근이다.

[유래] 기존문헌에 바위 빛이 누렇다고 하였다.

[어원풀이] '석금(石金)+바우[岩]'로 분석된다.

● 석금소

[형태] 소(沼)

[위치] 석금바위 밑에 있는 소(沼)이다. 사북면 지촌리 4-3 부근이다.

[유래] 석금바위 아래 있기는 소이기에 석금소라고 불린다.

[어원풀이] '석금+소(沼)'로 분석된다.

● 소알미산

[별칭] 작은일미산, 소말미산, 소안미산

[형태] 산

[위치] 신포리와 지촌리와 오탄리 세 지역과 경계를 두고 있는 고도 464m의 산으로 지촌리 산 50번지 일대이다.

[유래] 기존문헌에 옛날 장사가 안미산에서 태어났다고 하였다. 포털사이트 지도에는 '소말미산'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오류로 보인다.

[어원풀이] '소(小)+알/안(內)+미/뫼[山]+산(山)'으로 분석된다. 장사가 태어났다고 전해지는 '안미산'은 마을이나 강 안쪽에 있는 산이란 뜻이고 그 가운데 작은 봉우리란 의미로 추정된다.

● 스무나무여울

[형태] 여울

[위치] 미상이다.

[유래] 기존문헌에 스무나무 밑에 있는 여울이라 하였다.

[어원풀이] '스무나무+여울'로 분석된다. 스무나무

는 느릅나뭇과에 속한 낙엽 교목으로 높이는 20미터 정도이고 잎은 어긋나고 톱니가 있다. 5월에 노란색 꽃이 피고 산기슭이나 개울가에서 자란다. 나무는 기구를 만드는 데나 땔감으로 쓰고, 잎은 사료로 쓴다.

● 시장(市場)

[형태] 마을

[위치] 신포리에서 오탄리 방면으로 영서로를 따라 만나게 되는 농협 하나로마트와 성심약국 등이 있는 곳으로 지촌리 662번지 일대이다.

[유래] 기존문헌에 장이 서는 마을이라 하였다. 춘천호가 만들어지기 전 장이 서던 마을이라는 의미에서 붙은 이름이다.



시장

● 어름치

[형태] 바위

[위치] 지촌리 본마을 뒤에 있는 바위로 지촌리 산 10-2번지 일대로 추정된다.

[유래] 기존문헌에 마을 뒷산에 있는 바위라 하였다.

[어원풀이] ‘어름+치(峙)’로 분석된다. ‘어름’의 의미는 불분명한데 ‘(남녀가 서로) 어르다’의 동명사형 (어름)일 가능성이 있다.

● 어리고개

[형태] 고개

[위치] 지촌리 본마을 뒤에 있는 고개이다. 예전에 지촌리에서 서오지리(화천)로 가는 작은 고갯길인데, 지금은 영서로가 통과하여 넘으면 곧 지촌삼거리이다. 지촌2리마을회관에서 서쪽 300m 남짓한 거리이다.

[유래] 기존문헌에 마을 뒤에 있는 고개라 하였다.

[어원풀이] ‘어리+고개[峴]’로 분석된다. ‘어리’는 ‘우리’의 고어이다. ‘우리 (동네) 고개’란 의미로 추정된다.

● 웨갈동산

[형태] 고개

[위치] 화천성당 서쪽에 있는 고도 163.8m의 동산으로 지촌리 282-1번지 일대이다.

[유래] 기존문헌에 예부터 웨가리가 집을 지었다고 하였다.

[어원풀이] ‘웨갈/웨가리+동산’으로 분석된다.

● 잔잘고개

[형태] 고개

[위치] 오탄1리커뮤니센터에서 150m쯤 북진하면 ‘온세미마을’이 나오고, 다시 150m쯤 북진하면 ‘잔잘고개’이다. 현재 오탄리에 소재하는 ‘잔잘고개’와 지촌리의 경계와는 사뭇 거리가 멀지만 ‘잔

찰골’은 오탄리 ‘온세미마을’ 북쪽으로 멀지 않다.
 [유래] 기존문헌에 오탄리로 가는 고개라 하였다.
 [어원풀이] ‘잔잘+고개[峴]’로 분석된다. ‘잔잘’의 의미는 불분명하다.

● 찬잘골

[형태] 골짜기
 [위치] 오탄리 ‘온세미마을’ 북쪽에 있다.
 [유래] 기존문헌에 잔잘고개 밑에 있는 골짜기라 하였다.
 [어원풀이] ‘잔잘+골[谷]’로 분석된다. ‘잔잘’의 의미는 불분명하다.

● 점말

[별칭] 점촌(店村)
 [형태] 마을
 [위치] 지촌2리 남쪽 현지사 부근으로 지촌리 109번지 일대이다.
 [유래] 기존문헌에 옹기점이 있던 마을이라 하였다.
 [어원풀이] ‘점(店)+말[村]’로 분석된다.



점말

● 쟁바우

[별칭] 차양바우
 [형태] 바위

[위치] 지촌2리마을회관에서 북쪽 300m에 ‘챙벌 마을’이 있고, 400m 인근이 ‘챙벌’이다. ‘챙바우/차양바우’는 ‘챙벌’ 서쪽 숲에 있다.

[유래] 기존문헌에 밧서오지 동쪽에 있는 바위라 하였다.

[어원풀이] ‘챙/차양(遮陽)+바우[岩]’로 분석된다. ‘챙/차양(遮陽)’은 ‘챙모자’처럼 모자 끝에 대서 햇볕을 가리는 부분을 가리킨다. 비나 햇빛을 가릴 만한 움푹 들어간 바위가 ‘차양(遮陽)/챙바우’다.

● 쟁벌

[별칭] 창평(昌坪), 차양평(遮陽坪)

[형태] 들

[위치] 지촌2리마을회관에서 북쪽 300m에 ‘챙벌 마을’이 있고, 400m 인근이 ‘챙벌’이다. 현재 ‘챙벌(챙벌들)’은 지촌천이 휘도는 강변까지 잘 정비되었다.

[유래] 기존문헌에 쟁바우 밑에 있는 들이라 하였다.

[어원풀이] ‘챙/차양(遮陽)+벌[野]’로 분석된다. ‘챙/차양(遮陽)’은 ‘챙모자’처럼 모자 끝에 대서 햇볕을 가리는 부분을 가리킨다. 비나 햇빛을 가릴 만한 움푹 들어간 바위가 ‘차양(遮陽)/챙바우’다. 이 바위 아래에 있는 들이라는 의미에서 쟁벌이라고 부른다.



쟁벌 1



챙벌 2

● 호랑바우

[별칭] 호랑바위

[형태] 바위

[위치] 미상이다.

[유래] 기존문헌에 금산소 위에 있는 바위라 하였다.

[어원풀이] ‘호랑+바우[岩]’로 분석된다.

20장



서면(西面)

서면

북쪽으로 사북면(史北面), 동쪽으로 신북읍(新北邑)과 소양호(昭陽湖), 남쪽으로 신동면(新東面)과 남산면(南山面), 서쪽으로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북면(北面)과 접한다. 서쪽에 몽덕산(660m)·가덕산(858m)·북배산(867m) 등이 솟아있으며, 중동부의 소양강·의암호(衣岩湖) 연안의 평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산지이다. 주요 농산물로는 쌀·옥수수·보리 외에 마늘·양배추를 비롯한 채소류와 수박·복숭아·배·포도 등 원예작물 및 잎담배 생산이 많고 양계·양잠·사슴 사육도 이루어진다. 하천과 호수를 따라 화천~홍천 간 국도와 지방도가 지난다. 북·동·남의 3면이 북한강과 의암호로 둘러싸여 있어 관광지가 많다.

현암리·금산리·방동리·덕두원리 등 10개의 행정리를 관할한다. 예전 기록에는 서상면과 서하면으로 분리되어 있다. 『춘주지』는 서하(西下)에 기사동(耆士洞), 가마리(加馬里), 보월천(甫月川), 장군기(將軍基), 방동리(方洞里), 갈둔리(葛屯里)를, 서상(西上)엔 권산(權山), 사리(沙里), 보가기(寶加基), 새동(塞洞), 노기리(蘆其里), 월굴리(月窟里), 수정(脩井)을 포함하고 있다. 『여지도서』에 서상면은 수정리(水井里)·월굴리(月窟里)·화천리(花川里)·향천리(香川里) 등으로, 서하면은 마당리(馬堂里)·명월리(明月里)·예동리(齋洞里) 등의 위치와 호

구가 표기되어 있다. 현재 서면의 행정리와는 다른 명칭이 많다.『해동지도』에는 서상면과 서하면의 경계는 가평계(加平界)와 신연강(新然江)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주위에 장절공묘(壯節公墓), 삼악사(三岳寺), 안보역(安保驛)이 표시되어 있다. 서상면과 서하면으로 나뉘었던 것을 1934년 지암리와 원평리를 사북면(史北面)에 이관한 후 서면으로 개칭하였고, 1995년 춘천시에 편입되었다.

위치와 현황 | 동쪽으로 의암호와 접해 있어 나루터가 많았다. 금산리는 전형적인 농촌마을이다. 자연마을로는 점말, 진박골, 우무골, 장승부락, 장군터 등이 있다.

서면

연혁 | 『춘주지』를 보면 서하(西下)에 갈둔리(葛屯里)만 표기하였다. 『여지도서』, 『호구총수』, 『춘천읍지』, 『춘천부지』, 『관동읍지』는 서하면(西下面)에 갈둔리(葛屯里), 와빈리(臥濱里)를 표기하였고, 『조선지지자료』는 서하일작면(西下一作面)에 갈둔리(葛屯里), 금산리(錦山里), 와빈리(臥濱里)를 각각 표기하였다. 『강원도지지조서』는 서하면(西下面) 금산리(錦山里)로, 『강원도지』, 『수춘지』는 서면(西面) 금산리(錦山里)로 표기하였다. 『춘주지』와 『춘천백년사』는 서면(西面) 금산1리, 금산2리, 금산3리로 표기하였다. 현재 행정리는 금산리이고 법정리는 금산1리, 금산2리, 금산3리다.

유래 |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와빈리, 갈둔리를 병합하여 금산리(錦山里)라 하여 서하면(서면)에 편입하였다. 한자지명을 보면 비단 병풍처럼 산이 둘러싼 마을이란 의미인데, 금산(禁山)이라 표기한 자료도 있기에 일반인들의 출입을 금지한 산이 있어서 생겨난 지명으로도 추정할 수 있다.

● 갈둔리(葛屯里)

[별칭] 갈둔

[형태] 마을

[위치] 금산길 및 금산1길 일대로 원금산(장군봉 아래 마을) 동쪽에서 금산2리까지 일대이다.

[유래] 칡과 갈대가 무성한 둔덕진 곳에 형성된 마을이라는 의미로 갈둔이라 불렸다고 한다. 지역민의 말로는 장군봉(금산) 동쪽 금산교회 일대에서부터 북쪽의 금산2리 마을회관 일대에 이르는 넓은 지역을 ‘갈둔’이라 불렸다고 한다. 이곳에서도 구석기 유물이 많이 출토된다고 한다. 현재 서비스되고 있는 지도에서는 ‘원금산’이 현암리 쪽에 있는 산으로 검색되나 이는 잘못된 것이며, ‘장군봉’이 곧 ‘금산’이며 ‘원금산’은 장군봉 밑에 조성된 마을이다.

[어원풀이] ‘갈(葛)+둔(屯)+리(里)’로 분석된다. 갈대가 많은 둔덕에 형성된 마을이란 의미이다. ‘갈(葛)’은 ‘칡’을 의미하지만 여기에서는 훈이 아닌 음만 취해서 ‘갈대’를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둔(屯)’은 ‘진을 치다’, ‘모이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지명에서는 지명접미사로서 ‘둔덕/언덕’을 뜻한다.



갈둔리 전경

● 눈늪

[별칭] 와빈(臥濱)

[형태] 마을

[위치] 서면 금산2길 14번지 일대이다.

[유래] 갈둔 동쪽 소양강 가에 있는 마을이라고 전해진다. ‘갈둔리’ 동쪽으로 ‘와빈리’가 있는데 그 동쪽이 북한강, 그 너머가 지금의 중도, 그 다음이 소양강이다. ‘갈둔 동쪽 소양강가에 있는 마을’이라면 지금의 중도로 추정할 수도 있겠으나, ‘갈둔(리)’와 ‘와빈(리)’라는 지명이 있었을 당시 중도는 ‘신촌’으로 불렸으므로, ‘갈둔리’와 ‘신촌(상중도)’ 사이의 강가 지역을 ‘눈늪(와빈)’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곳에 길게 누워있는 것처럼 생긴 늪이 있었다고 하여 ‘눈늪’ 또는 ‘와빈’이라는 명칭이 전해지지만 현재 늪은 남아있지 않다. 현재 지역민들이 ‘눈늪’으로 부르고 있는 곳은 금산2길 14번지 일대이다. 현재는 이곳 주변에 높이 담을 올려 북한강 자전거길이 조성되어 있다. 의암댐 건설 이전, 의암호가 없던 당시에는 상당히 넓은 지역을 일컫는 지명이라 추정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추정으로 미루어 보면 현재의 상중도 맞은편 쪽으로 ‘눈늪’에 해당했던 상당 지역은 수몰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눈늪에는 중도로 가는 나루터가 있었으며 이곳을 ‘눈늪나루’라 했다.

[어원풀이] ‘누운[臥]+늪[沼]’으로 분석된다. ‘누운늪’에서 ‘누운’이 축약 후 어휘화한 형태로 볼 수 있다. 어원을 고려할 때 강가를 따라 상당히 길쭉한 형태로 늪이 형성되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한자 지명 ‘臥濱’은 ‘늪(누운)’에 해당하는 한자 어로 ‘와(臥)’를, ‘늪’에 해당하는 한자어로 ‘빈(濱)’을 차용한 것이다. ‘빈(濱)’이 일반적으로 ‘늪’이 아닌 ‘물가’의 의미로 다른 지명에 활용된 것으로 보아 이 경우에도 ‘늪’이라는 의미보다는 ‘물가’의 의

미로 활용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즉 ‘물가 옆으로 누워(뻗어) 있는 긴 지역’ 정도의 의미로 한자지명이 만들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유래담] 눈늪의 한 언덕 위에 산소가 하나 있었는데 산소 앞에 세워진 비석에 쓰인 내용에 따르면 산소에 묻힌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해로하다가 한 날한시에 돌아가셨다고 한다. 지금은 비석이 남아 있지 않은데, 후에 자손들이 산소를 이장하면서 비석도 함께 가지고 간 것으로 추정된다.



눈늪 일대에 쌓은 제방위에 설치된 자전거길

● 눈늪나루

[별칭] 눈늪나루터

[형태] 나루

[위치] 서면 박사로 1092번지 일대이다.

[유래] 서면에서 북한강을 건너 반대편 나루터까지 갈 수 있는 여러 곳의 나루터 가운데 ‘눈늪(와빈)’의 강가에 위치한 나루터(터)이다. ‘눈늪’은 ‘와빈’으로 불리기도 하지만 ‘눈늪나루’는 ‘와빈나루’로 불리지 않는다. 땅과 다리가 건설되기 전까지는 이곳에서 시내를 오가는 배가 다녔다. 이곳 눈늪나루에서 배를 타고 상중도와 하중도 사이에 있는 나루를 거쳐 근화동에 위치한 나루터에 도착할 수 있었다고 한다. 예전에 ‘눈늪’이 ‘갈둔(葛屯)’ 동쪽 소양강 가에 있던 마을이었다는 기록에 의하면, 의암호가

없던 때의 북한강(중진강)을 너머 소양강가로 추정 할 수 있다. 이러한 기준으로는 ‘눈늪나루’ 역시 ‘눈늪’과 함께 소양호에 수몰된 것으로 보인다. 눈늪나루 추정지의 원쪽 방향으로 1km쯤 위치에 성지봉(성재봉)이 있다.

[어원풀이] ‘눈늪+나루’로 분석된다. ‘눈늪’ 참조.



옛 눈늪나루터 부근

● 도하마을(渡河-)

[별칭] 도하부락

[형태] 마을

[위치] 박사로 851번지 일대로 추정된다.

[유래] 강을 건너다니던 배터가 있는 마을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이곳에 금산나루터가 있었다. 땅이 생기기 전까지는 시내를 오가던 배가 눈늪나루터에서 출발했는데, 땅이 생긴 후에 배터가 이곳 금산나루터로 옮겨왔다. 금산나루터에서는 2000년도에 신매대교가 개통되기 전까지 시내를 오가는 작은 배가 다녔다고 한다. 둑을 막아 지형이 변해서 현재로는 금산나루터의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기 힘들지만 현재 애니메이션 박물관 정도 위치에 금산나루터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기에 이곳을 기준으로 강가에 형성된 마을을 가리킨다.

[어원풀이] ‘도하(渡河)+마을’로 분석된다. 물(강)을 건넌다는 뜻을 가진 한자어 ‘도하(渡河)’에 ‘마을’이

붙은 지명이다. 금산나루터가 있는 마을이었으므로 이런 이름이 붙었다.

● 뒷말

[형태] 마을

[위치] 금산2리로 추정된다.

[유래] 기존 문헌자료에 ‘금산리의 뒤쪽에 있는 큰 마을’이라는 설명이 나와 있으나 현재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다. ‘금산리 – 뒷말 – 진박골’로 연결되어 ‘금산리’를 금산1리로, ‘금산리 뒤쪽 큰 마을’은 금산2리로 추정할 수 있다.

[어원풀이] ‘뒤[後]+ㅅ+말(마을)’로 분석된다. 뒤쪽에 있는 마을이란 의미이다.

● 밤자골

[별칭] 밤자꼴

[형태] 골짜기

[위치] 수정2길 75-28 서쪽 골짜기로, 수정2길 위에 있는 수정2교에서 북쪽으로 600m가량 올라가서쪽에 위치한 골짜기이다.

[유래] 『춘주지』에 오소릿골 옆에 있는 골짜기라 하였다.

[어원풀이] ‘밤+자/재[峙]+골[谷]’로 분석된다. ‘자’는 ‘재[峙], 성(城)’의 의미를 가진 고어이다. 이곳에 성은 없으므로 ‘밤나무재(고개)에 있는 골짜기’로 볼 수 있다.

● 방뚝개

[형태] 하천

[위치] 서면 박사로 948(서면도서관) 뒤쪽 강 주변이다.

[유래] 방뚝(제방)이 있던 곳에 있던 개울을 말한다. 현재는 수몰되고 지형이 바뀌어 정확한 위치를 확

인하기 힘들지만 서면도서관 뒤쪽에 강과 연결되는 개울을 방뚝개라고 불렀다고 한다. ‘개’라는 지명으로 보아 강과 개울(냇물)이 만나는 지점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그 근처 개울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다. 현지 토박이에 따르면 그 근처를 이를 때 사용하는 명칭이었다고 한다.

[어원풀이] ‘방뚝(防뚝)+개[川, 浦]’로 분석된다. ‘방뚝’은 ‘방뚝’이 경음화된 형태로 물을 막기 위해 쌓은 둑을 의미하며 ‘개’는 원래 바닷물과 하천이 만나는 곳을 의미한다. 이곳은 하천과 강이 만나는 곳으로 바다와는 관계가 없으나 규모가 다른 두 개의 물이 만나는 곳이므로 ‘개’라는 어휘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개울’의 단순 형태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방뚝 근처의 개 또는 개울 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

● 서낭고개

[형태] 고개

[위치] 강원애니고등학교를 지나 신매리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유래] 금산리에서 신매리로 넘어가는 고개로, 고개의 정상 부근에 강원애니고등학교가 있으며 강원애니고등학교를 조금 지나가면 서낭(목)이 있다. 서낭(목)이 있는 고개라 하여 서낭고개로 불린다.

[어원풀이] ‘서낭+고개’로 분석된다. ‘서낭’은 ‘서낭신’ 또는 ‘서낭신이 붙어 있는 나무’를 의미한다. 따라서 서낭고개는 ‘서낭(목)이 있는 고개’라는 의미이다.

● 성지봉

[별칭] 성재봉

[형태] 산

[위치] 금산리 신매리 경계에 위치한 서낭목과 소

양강 사이이다.

[유래] 금산리에 위치하며 여러 개의 봉우리가 나란히 있는 산이라 기록되어 있다. 정확한 위치를 확인할 수는 없으나 토박이 주민의 말에 의하면 눈높나루 추정지의 북쪽 방향으로 1km쯤 위에 있는 산이라고 한다. 이 말에 따르면 성지봉은 서낭고개의 서낭(목)과 강변 자전거 도로 사이에 있는 산으로 추정할 수 있다. 소양강가로 이어진 자전거 도로가 성지봉을 지난다. 조선시대 문신인 ‘정이주(鄭以周)가 은거한 곳이기에 그의 호인 ‘성재(醒齋)’에서 따온 것이라는 설도 있다.

● 수정골

[형태] 골짜기

[위치] 금산1리와 금산2리 사이 의암호에서 북쪽 4km 거리에 있다. 주변 도로지명으로 ‘수정길’이 산재하며 ‘수정2길’로 계속 북진하면 월송리가 나온다. 금산리 일대에서 가장 넓고 평평한 땅을 가지고 있어 주변 지역에 비해 논농사가 발달했다.

[어원풀이] ‘수정+골[谷]’로 분석된다. ‘수정’의 의미는 불분명하다.



수정골 전경

● 수정골개울

[형태] 하천

[위치] 월송리에서 발원하여 수정골을 지나 흐르는

개울이다.

[유래] 월송리에서 시작되어 수정골을 거쳐 내려오는 개울 또는 시냇물을 말한다. 수정골에서 수정2길을 나란이 흘러내려오는 개울이 ‘수정골개울’이며 의암호에 합류한다.

[어원풀이] ‘수정+골[谷]+개울’로 분석된다. 수정골에 흐르는 개울이라는 의미이다.

● 신선골

[별칭] 신선

[형태] 마을

[위치] 도로명 ‘수정골길’을 따라 월송리 쪽으로 가다가 좌측으로 있는 골짜기이다.

[유래] 기존문헌에 장승배기 북쪽에 있는 마을이라고 하였다.

[어원풀이] ‘신선+골[谷]’로 분석된다. ‘신선’의 의미는 불분명하다.

● 우무골

[별칭] 우묵골, 움묵골

[형태] 마을, 골짜기

[위치] 금산2리 마을회관 북서쪽, 산 아래로 추정된다.

[유래] 이전 자료를 종합해 보면, 갈둔 안쪽에 우묵하게 들어간 곳에 형성된 마을로 볼 수 있다. ‘갈둔’은 원금산(장군봉) 북쪽에 있는 마을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갈둔’을 원금산(장군봉) 동쪽 금산교회 일대에서부터 북쪽의 금산2리 마을회관 일대에 이르는 넓은 지역으로 설정하면 ‘우무골’은 그 북쪽에 위치한 산에 가까운 곳으로 설정할 수 있다.

[어원풀이] ‘우무(우묵하다)+골(고을 또는 골짜기)’로 분석된다. 우묵하게 생긴 곳에 위치한 마을 또는 우묵하게 들어간 골짜기란 의미이다.

● 여냈개울

[형태] 하천

[유래] 금산리에서 북한강(의암호)으로 합류하는 개울은 세 개다. 금산리 최남방 ‘신승겸로’와 나란히 흐르는 ‘유천’과 금산1리와 2리 사이로 ‘수정2길’과 나란히 흐르는 ‘수정천’이 있다. 나머지는 장군봉 북쪽 기슭과 금산2리 사이에 도로지명 ‘월송길’과 나란히 흐르는 개울이다. 토박이 지역민의 말에 의하면 현재 협암막국수(유천길 863) 근처의 개울을 일컫는 말이었다고 하는데, 이곳에는 유천이 흐른다. 자료와 지형, 제보를 토대로 보았을 때, 유천의 하류 부분을 여냈개울이라고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어원풀이] ‘여+내+ㅅ+개울’로 분석된다. ‘여우[狐]’가 ‘여우[여우]’로 발전하였고, 방언형으로 ‘여시[여시]’ 등이 있는 것으로 미루어 ‘여우내’에 본래 지형인 ‘개울’이 더해서 ‘여우냇개울’로 부르다가 지명에 혼한 변이형 ‘여냇개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 오릿골

[형태] 골

[위치] 미상이다.

[유래] 기존 문헌에 금산 동쪽에 있는 골짜기라고 설명되어 있으나, 금산(장군봉)을 기준으로 동쪽에 특별한 골짜기를 찾기 힘들다.

[어원풀이] ‘오리+ㅅ+골[谷]’로 분석된다.

● 오소릿골

[형태] 골

[위치] 금산1리와 금산2리 사이 의암호 북쪽 3km 거리에 위치한 ‘밤자골’의 남쪽 능선 너머이다.

[유래] 『춘주지』에 ‘금산리 북쪽에 있는 골짜기’라

고 하였으며, ‘밤자골’의 설명에 ‘오소릿골 옆에 있는 골짜기’라고 한 것으로 미루어 ‘밤자골’ 주변으로 추정된다. ‘밤자골’은 금산1리와 금산2리 사이 의암호 북쪽 3km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이 남쪽 능선 너머에 있는 골짜기가 ‘오소릿골’로 추정된다. [어원풀이] ‘오소리+ㅅ+골[谷]’로 분석된다.

● 원금산(元錦山)

[별칭] 금산(錦山)

[형태] 마을

[위치] 금산리 장군봉 아래 마을 일대이다.

[유래] ‘금산(錦山)’ 또는 ‘원금산(元錦山)’은 현재의 행정지명 금산리(錦山里)의 바탕이 된다. 현재 포털 사이트 지도에서는 현암리 쪽에 있는 산으로 겹색되나 현암리에 있는 산을 ‘원금산(금산)’으로 보게 되면 ‘원금산’을 기준으로 하는 대부분의 지명이 현재의 현암리 쪽에 위치하게 되며 옛 지명 자료와 일치하지 않는다. 토박이 주민의 말에 따르면 ‘장군봉’이 곧 ‘금산’이다. 또한 옛 문헌 자료에 ‘원금산’이 ‘산’이 아닌 ‘마을’로, ‘장군봉’이 ‘원금산 뒤에 있는 산’으로 기술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원금산’은 ‘장군봉(금산)’ 밑에 있는 마을을 일컫는 지명이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금산 아래에 조성된 마을을 금산과 구분하기 위해 ‘원금산’이라고 불렀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금산’으로 불리기도 했다고 한다.

[어원풀이] ‘원(元)+금(錦)+산(山)’으로 분석된다. ‘금산’은 ‘산’을 의미하는 한자 ‘산(山)’에 비단을 의미하는 한자 ‘금(錦)’이 붙어 ‘비단과 같이 고운 산’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여기에 ‘으뜸, 처음’을 의미하는 한자어 ‘원(元)’이 붙은 지명으로서, ‘금산의 처음(토대)’을 의미하며 금산 밑의 평지에 조성된 마을을 가리켰을 것으로 보인다. ‘금산’은 ‘산’을 지

칭하기도 하고 ‘금산 밑 마을’을 지칭하기도 한다.

● 윗두루

[형태] 들

[위치] 장승배기에 있는 들이라 알려져 있으나 현재는 이 지역에 집이 많이 지어져 위치를 특정하기 힘들다.

[어원풀이] ‘위[上]+ㅅ+두루[坪]’로 분석된다. ‘두루’는 편평하고 넓게 트인 땅을 의미하는 ‘들’의 각 자음에 모음 ‘ㅜ’가 결합한 형태로 볼 수 있는데 일반적인 현상은 아니나 같은 음소가 삽입되는 것으로 보아 발음의 편의를 위한 음소 삽입 현상이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 장군봉(將軍峰)

[별칭] 금산

[형태] 산

[위치] 원금산 뒤에 있는 봉우리이다.

[유래] 원금산 뒤에 있는 산으로 높이 187m이다. 이 산에서 장군이 났다는 전설이 있어 ‘장군봉’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다는 설도 있고 그 기상이 장군과 같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는 설도 있다. 또한 역사적으로 장절공 신승겸, 충장공 한백록, 의병장 지용기 세 명의 장군과 관련이 깊다. 지역 토박이의 말에 따르면 ‘장군봉’은 ‘금산’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따라서 ‘장군봉’을 기준으로 장군봉 아래에 조성된 마을 지명으로 ‘장군터’, ‘원금산’이 각각 기록되어 있는데 현재로서는 이 둘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

[어원풀이] ‘장군(將軍)+봉(峰)’으로 분석된다. ‘장군’이 태어난 봉우리’ 또는 ‘장군의 기상을 닮은 봉우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장군봉이 있는 ‘금산’을 ‘錦山’ 또는 ‘禁山’으로 표기하기에 ‘비단과 같

이 고운 산’ 또는 ‘함부로 오르기를 금하는 산’이란 의미로 풀이된다. 산의 외형이 아름다워 전자와 같은 의미로 불렸다는 설이 많으나 일부에서는 신성한 산으로서, 함부로 오르기를 금했다고 하여 후자와 같이 해석하기도 한다.

[유래담] 장군봉에 올라가면 굴이 있다. 처음에는 하나인데 들어가다 보면 두 갈래로 갈라진다.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은 굴인데 큰 굴은 장군이 나온 굴이고 작은 굴은 호랑이가 나온 굴이다. 옛날에 이 산에서 거드랑이에 날개가 달린 동자가 태어났다. 기골이 장대하고 날개까지 있어서 장수가 태어났다는 소문이 났다. 나라의 임금이 그 사실을 알고는 후환을 염려하여 그 동자를 죽이라고 명령했다. 아기 장수가 커서 역적이 될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기 장수를 동굴에 가두고 무衩물을 부어서 죽였다고 한다. 장군봉에서 태어난 장군이 전사한 후 장군이 탔던 말을 중도에 묻고 장군이 쓰던 칼은 장군봉 밑 현재의 방동리에 묻었다.

● 장군터

[형태] 마을

[위치] 금산리 장군봉(將軍峰) 아래 마을 일대이다.

[유래] 장군봉 밑에 있는 마을이다. 장군봉은 원금산 뒤에 있는 높이 187m의 산인데 그 기상이 장군과 같다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장군터에서 장군이 났다고도 하고 장군봉에서 나온 장군이 처음 내려온 터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른다는 말도 있다. ‘원금산’과 ‘장군터’ 모두 장군봉 아래에 있는 마을이므로 현재로서는 ‘원금산’과 ‘장군터’의 구분이 불분명하다. ‘원금산’ 내에 ‘장군터’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고 ‘원금산’과 다른 방향으로 ‘장군터’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또한 ‘원금산’의 다른 이름인 ‘장군터’였을 가능성도 있다.

[어원풀이] ‘장군(將軍)+터[垈]’로 분석된다. 군을 지휘하고 통솔하는 무관을 의미하는 ‘장군’에 빙 땅을 의미하는 ‘터’가 합쳐진 지명이다. ‘장군봉’과 관련하여 장군의 탄생과 관련된 의미를 지닌다.

[유래담] 장군봉에 올라가면 굴이 있다. 처음에는 하나인데 들어가다 보면 두 갈래로 갈라진다.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은 굴인데 큰 굴은 장군이 나온 굴이고 작은 굴은 호랑이가 나온 굴이다. 큰 굴에서 나온 장군이 산에서 내려와 처음 발을 디딘 곳이 장군터이다.



장군봉과 장군터

● 장승마을

[별칭] 장승부락, 장승배기

[형태] 마을

[위치] 금산길79 일대이다.

[유래] 이 마을에는 거리의 이정표이자 상징물로서 장승이 서 있었기 때문에 장승마을, 장승배기, 장승부락으로 불렸다고 한다. 특히 장승이 서 있던 곳을 기준으로 월송리, 금산리, 방동리, 눈늪나루 터 방향으로 네 갈래의 길이 나 있어 여러 마을을 연결하는 (도보)교통의 중심지점이었다. 이곳을 지나는 사람이 많아 자연스럽게 주막이 자리했었으나 지금은 없어졌다. 주막의 위치는 현재 주소로 금산길80이다. 아래 사진 중 비닐하우스가 있는

곳이 장승이 위치했던 곳이며 집 사진이 현재 없어진 주막이 위치했던 곳이다.

[어원풀이] ‘장승+마을’로 분석된다. 별칭인 ‘장승부락’에서 ‘부락’은 시골에서 여러 민가가 모여 이룬 마을을 뜻하는 일본식 한자어이다. ‘장승배기’에서 ‘-배기’는 지명접미사로 활용되었다. ‘-배기’는 ‘점박이, 불박이, 차돌박이’ 등의 어휘에서 볼 수 있듯 ‘무엇이 박혀 있는 것을 나타내는 뜻’을 가진 접미사 ‘-박이’의 방언형이 지명으로 접미사화한 것이다.



옛날 장승이 서 있었던 사거리



예전 주막이 있었던 민가

● 점말촌

[별칭] 점말

[형태] 마을

[위치] 서면 박사로 1045번지 일대이다.

[유래] 강서중학교 뒤쪽 마을로 예전에는 ‘점말’로 불렸으나 현재는 일반적으로 ‘점말촌’으로 부르며

토박이들은 ‘점밀’로 부른다. 예전에 옹기점(질그릇, 오지그릇 따위를 만들어 파는 곳)이 있던 곳이라 하여 ‘점밀’이라고 불렸다고 한다. 현지 지역민의 증언에 따르면 옹기를 만들기 위한 재료인 붉은 빛깔의 ‘점토질’ 흙이 많아 ‘점밀’이라고 했다는 설도 있다. ‘옹기점’에서 유래되었는지 ‘점토’에서 유래되었는지 판단할 수 없지만 ‘점밀’의 한자어 ‘가게’의 의미를 가진 점이나 ‘점밀’이라는 이름을 가진 다른 지역의 지명들이 대부분 ‘가게’와 관련된 것으로 보아 ‘옹기점’에서 유래한 지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개벽』에 실린 차상찬의 기록에 따르면 일제강점기에 춘천에 항아리를 납품하던 지역으로, 옹기를 만드는 가마가 여러 개 있었다고 한다. 이러한 지역적 특성이 이어져 현재는 도예마을로 특화되었다. 또한 매실농원이 있어 매년 매실축제도 개최되고 있다.

[어원풀이] ‘점(店)+밀(마을)+촌(村)’으로 분석된다. 가게를 의미하는 한자어 ‘점(店)’과 ‘마을’의 축약형인 ‘밀’, 마을을 의미하는 한자어인 ‘촌(村)’이 합쳐진 지명이다. 의미상 ‘마을’에 해당하는 어휘 요소가 ‘밀’과 ‘촌(村)’으로 중복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점밀’에서 ‘마을’의 의미가 퇴색되어 ‘촌(村)’이 덧붙는 형태로 굳어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점’이 ‘옹기점’이 아닌 ‘점토’에서 유래된 것이라면 ‘끈끈하다, 차지다’의 의미를 가진 ‘점(粘)’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점밀촌

● 진박골

[형태] 마을

[위치] 서면 금산1길 75번지 일대 또는 그 뒤쪽 골짜기이다.

[유래] 현재 금산2리 마을회관을 기준으로 북서쪽 방향 500m 정도에 조성되어 있던 마을, 또는 그 지역 뒤쪽으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춘천의지명유래』에 따르면 ‘길게 생긴 마을’이라는 설명이 나와 있는데 이를 토대로 판단해 보면, ‘진’이 ‘길다[長]’의 구개음화 형태인 ‘절다’와 관련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경우에도 ‘박’의 어원을 재구하기 힘들다. 타 지역 지명 가운데 ‘진박골, 진밭골, 짐박골’ 등을 참고해 보았을 때, ‘진박’은 ‘긴 밭’에서 유래된 경우가 많으나 이곳에 ‘긴 모양의 밭’이 있었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어 단정하기 힘들다.

[어원풀이] ‘진/긴[長]+박/밭[田]+골[谷]’로 분석된다. 긴 밭을 가지고 있는 마을 또는 긴 밭 근처의 골짜기란 의미이다. 또는 진(물이 많은) 밭을 가지고 있는 마을 또는 진 밭 근처의 골짜기란 의미도 가능하다.

● 횟골

[형태] 골짜기

[위치] 강서중학교 뒤 점밀촌 입구 왼쪽 골짜기이다.

[유래] 옛날 이곳에서 횃돌이 났다고 한다.

[어원풀이] ‘회(灰)+ㅅ+골[谷]’로 분석된다. 석회(횃

돌)를 의미하는 ‘회(灰)’와 골짜기를 의미하는 ‘골’

이 결합할 때 사잇소리 현상이 일어나 ‘횃골’이라

는 명칭이 되었다.

위치와 현황 | 마을 대부분 지형이 비교적 완만한 구릉성 지대로 이루어져 있으며, 남서 쪽방향으로 하천이 흐르고 있다. 마을 곳곳 산지가 분포해 있다. 자연마을로는 당림, 고개 밑, 안반지 마을 등이 있다.

연혁 | 『여지도서』, 『호구총수』, 『춘천읍지』, 『춘천부지』, 『관동읍지』에는 서하면(西下面) 마당리(馬堂里)로 되어 있다. 『강원도지지조서』는 서하면(西下面) 당림리(塘林里)로 되어 있다. 『강원도지』, 『수춘지』는 서면(西面) 당림리(塘林里)로, 『춘주지』와 『춘천백년사』는 당림 1리, 당림2리로 구분하였다. 현재 행정리는 당림리고 법정리는 당림1리, 당림2리이다.

유래 | 신당을 모신 숲이 있으므로 당숲 또는 당림이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백일동, 마당동을 병합하여 당림리(塘林里)라 하여 서하면(서면)에 편입하였다.

● 고개밑

[형태] 마을

[위치] 기존문헌에 쇠파랑고개 밑에 있는 마을로 기록되어 있다.

[어원풀이] ‘고개+밑’으로 분석된다. 고개 아래에 있는 마을이란 의미이다.

● 고역교(古驛橋)

[별칭] 당림교, 교역교

[형태] 다리

[위치] 강촌교에서 서울방향 경춘국도를 따라 2.5km 정도 거리에 있다.

[유래] 당림리 입구에 있는 다리이다. 옛 안보역에서 다리를 건너 삼거리에서 좌측으로 들어가면 당림리로, 오른쪽으로 가면 경춘국도로 진입할 수 있다. 안보리에 있는 고역촌(古驛村)으로 통합되었는데 고역(古驛)은 ‘옛 안보역(安保驛)’을 말한다. 서면 안보리에 ‘옛 안보역’이 있었기에 ‘고역터’라고 부른다. 계관산에서 발원한 물이 당림리를 관통하여 흐르며 고역교 아래를 지나 북한강에 이른다. 이를 당림천이라고 한다.

[어원풀이] ‘고(古)+역(驛)+교(橋)’로 분석된다. 다리의 소재지를 따서 ‘당림교’로 불리기도 하고 ‘고역교’가 와전되어 ‘교역교’로 불리기도 한다.



고역교

● 고역촌(古驛村)

[형태] 마을

[위치] 옛 안보역과 고역교 사이에 위치한 마을로 추정된다. 고역교를 건넌 후 오른편에도 몇 가구가 살고 있지만 그 수가 적다. 현재는 안보역과 고역교 사이에 더 많은 가구가 살고 있어 여기로 추정된다.

[유래] 전에 역(驛)이 있던 마을이다. 서면 안보리에 ‘옛 안보역(安保驛)’이 소재하는데, ‘고역터’라 부른다. ‘고역’은 옛 안보역인데, 현재 행정구역상 ‘안보리’에 속해 있다. 현재 옛 안보역 터 근처에 몇 가구가 살고 있으며, 고역교 오른쪽 아래에도 몇 가구가 거주하고 있다.

[어원풀이] ‘고(古)+역(驛)+촌(村)’으로 분석된다.



고역촌

● 당림농공단지

[형태] 터

[위치] 당림리 435-1번지 일대이다. 당림리 입구에서 2시 방향으로 1km쯤 북진하면 ‘당림초등학교’가 나오는데 그곳에서 다시 좌측 골짜기로 들어가 1km쯤 북진하면 당림농공단지가 나온다. 바로 이어서 풀무원 춘천공장이 있다. 당림농공단지와 풀무원 춘천공장이 위치한 골짜기를 마당골, 당금안, 당수반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유래] 1990년 12월 27일 농공지구로 지정되고 54.407m²에 1992년 12월 30일에 완공되었다.



당림농공단지

● 당림보건진료소

[별칭] 당림보건소, 보건소

[형태] 관공서

[위치] 당림리 입구에서 북동쪽 1km쯤에 있다. 안반지 안쪽에 있는 예현병원과 약 2km 거리이다. 차도를 경계로 당림초등학교와 마주하며, 당림보건진료소 뒷편으로 정지골이 있다.

[유래] 1984년 문을 열고 진료를 시작하였다.



당림보건진료소

● 당림천(塘林川)

[형태] 하천

[위치] 계관산(736m)의 주된 상류로 당림 1리를 관

통하여 흐르는 개천이다.

[유래] 마당골에서 나오는 물과 안반지 쪽에서 나오는 물이 당림초등학교와 마당교 사이에서 하나로 합쳐진 후에 북한강으로 흘러나간다. 계관산에서 발원한 물이 당림리를 관통하여 흐르며 고역교 아래를 지나 북한강에 이른다. 이를 당림천이라고 한다.

● 당숲

[별칭] 당림(塘林), 당림리(塘林里), 당숲안, 당수반, 당숲마을

[형태] 마을

[위치] 경춘국도를 따라 삼악산 다음에 있는 지역으로 서면 덕두원리와 안보리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당림1리와 2리 모두를 '당숲'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당림1리의 '마당골' 일대를 '당숲'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유래] 당림초등학교에서 500m쯤 북쪽으로 들어가면 1시 방향 초입에 당림1리 마을회관이 있고, 11시 방향 골짜기 입구에 당림농공단지와 풀무원 춘천공장이 있다. 농공단지 방향으로 계속 1.5km 정도 들어가면 '당숲, 당림, 당숲안, 당수반, 당림리'에 이른다. 당림1리 마을회관 오른편으로 가면 안반지에 이르는데, 일반적으로 '당숲안'이라고 하



당숲

서면

면 당림 1리에서 안반지 쪽을 제외한 마당골 쪽을 말한다.

[어원풀이] ‘당(塘)+金[林]’으로 분석된다. ‘당림(塘林)’은 행정지명 ‘당림리(塘林里)’의 바탕이 된다. ‘당숲안’은 ‘당(塘)+金[林]+안[内]’으로 분석되며, ‘당수반’은 ‘당숲안’의 연철표기이다.

● 마당리

[별칭] 마당(馬塘/馬堂)골, 면골

[형태] 마을

[위치] 당림1리 마당교 삼거리로 분기점으로 좌측에 있는 골짜기와 그 마을을 말한다. 당림1리 입구에서 북쪽으로 1km 거리에 있다.

[유래] 기존 문현에는 당림리의 중심이 되는 마을이라 하였다. 마당교 삼거리로 분기점으로 하여 왼쪽에 있는 당림농공단지와 풀무원 춘천공장이 있는 골짜기를 마당골이라고 부르며, 그 안에 형성된 마을도 마당골, 마당리라고 칭한다. 당림리 안쪽에 형성되어 있어 이곳을 당숲안으로 칭하는 사람들도 있으나 지역 주민들은 오래전부터 마당골, 마당리라고 불러왔다고 한다. 사진에 보이는 마당교 뒷편에 위치한 마을이다.

[어원풀이] ‘마당(馬塘)+리(里)’로 분석된다. ‘마당’의 의미는 불분명하다. 안보역이 있었기에 예전에



마당교

말을 키우던 곳이 있어 ‘마장(馬場)’이라 부르던 것이 와전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또는 ‘마당(馬堂)’으로 표기한 문현도 있기에 말을 제사지내던 당집이 있던 곳이란 의미도 가능해 보인다.

● 말골고개

[별칭] 말꼴고개, 싫골고개, 싫풀고개

[형태] 고개

[위치] 당림리와 덕두원을 넘나드는 고갯길로 예현 병원 근처에 그 입구가 형성되어 있다. 왼편에 있는 싫골교를 건너 골짜기로 들어가면 골짜기가 세 개가 있다.

[유래] 기존 문현에는 싫골고개로 기재되어 있는데, 석파령 너미길을 통해 덕두원으로 가기 위해서는 예현병원 오른쪽에 위치한 골짜기로 진입해야 한다. 골짜기의 깊이는 병원 왼편에 있는 골짜기가 오른쪽 골짜기보다 훨씬 깊게 형성되어 있다. 예현 병원의 좌측 입구에는 싫골교가 있는데, 싫골교를 건너 골짜기로 들어가면 골짜기가 세 개가 있다. 그 중 두 개를 말골 고개, 싫골 고개로 부른 것으로 추정된다. 지역 주민에 따라 병원 좌측에 형성된 골짜기를 싫골 고개, 오른쪽을 말골 고개로 부르기도 한다.

[어원풀이] ‘말[馬]+ㅅ+골[谷]+고개[峴]’로 분석된



말골고개 입구

다. ‘말골’에 사이시옷이 삽입되어 후행하는 ‘ㄱ’이 경음화되었다.

● 매낙골

[형태] 골짜기

[위치] 서면 당림리 산9-2번지 일대로 ‘우목골’ 초입에 있는 골짜기이다.

[유래] 유래는 불분명하다.

● 명골

[형태] 골짜기

[위치] 강촌대교에서 북한강, 경춘로를 따라 서울 방향 1.5km쯤에 있다. 계속 1km쯤 가면 당림2리에 이른다.

[어원풀이] ‘명+골[谷]’로 분석된다. 유래는 불분명하다.

● 배일동

[별칭] 배일골, 배일리, 백일동(白日洞), 파일골

[형태] 마을

[위치] 당림 북동쪽 골짜기에 있는 마을로, 당림2리 마을회관에서 2시 방향으로 1km쯤 북쪽으로 들어가면 ‘배일리’가 나온다.

[유래] 기준 문헌에서는 배일골, 백일동, 파일골 등으로 기록되어 있다. 현재는 ‘배일골’로 부른다. 파일골교 뒷편으로 보이는 골짜기를 파일골, 파일골 등으로 부른다.

[어원풀이] ‘배일+골[洞]’로 분석된다. ‘배일’의 의미는 불분명하다.

[유래담] 옛날 마귀할미가 베틀 바우에서 소변을 보는데 그 오줌줄기가 강해서 골짜기가 패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전한다.

● 배일골교

[형태] 다리

[위치] 당림2리 입구 버스정류장에서 2시 방향으로 2km쯤 들어가면 당림2리마을회관을 지난 후에 보이는 다리이다.



배일골교

● 복사골

[형태] 골짜기

[위치] 예현병원에서 2km쯤 더 북진하여 동쪽으로 꺾어진 골짜기이다.

[유래] 기준 문헌에서는 모두 안반지에 있는 골짜기라고 기록하고 있다. 복사골 아래에 형성된 마을은 계관산에서 발원한 두 개의 지류가 합쳐지는 곳에 형성되었다.

[어원풀이] ‘복사+골[谷]’로 분석된다. 복승아가 많은 골짜기란 의미로 추정된다.



복사골

● 삼박골덕

[형태] 골짜기

[위치] 당림1리 5반 베스종점에서 오른쪽에 형성된 골짜기이다.

[유래] 예전에 이 지역에 삼밭이 있어서 삼박골이라고 부른다. 삼박골 건너편에 가평 계곡리로 넘어갈 수 있는 소자골이 있다.

[어원풀이] ‘삼(蔴)+박/밭[田]+골[谷]+덕[둔덕]’으로 분석된다.



삼박골덕

● 샛말

[형태] 마을

[위치] 마당골과 안반지를 나누는 마당교 삼거리에서 안반지 방향으로 2-3km 정도 진입하면 나오는 마을이다. 당림1리 마을회관과 예현병원 사이에 위치한다.

[유래] 마을 근교의 도로지명이 ‘샛말길’이다. 당림초등학교와 당림보건소 근처에 형성된 마을은 ‘새말’이라고 부르는데, 지역 주민이 아니면 안반지 쪽에 있는 ‘샛말’과 혼동해서 사용하기도 한다.

[어원풀이] ‘새[사이], 間]+ㅅ+말[村]’로 분석된다.



샛말교

● 새말

[형태] 마을

[위치] 당림리 입구에서 마당교까지 이르는 지역으로 1km 정도에 이르는 평지이다.

[유래] 기존 문헌에는 ‘새로 생긴 마을’로 기재되어 있다. 고역교를 지나 당림리 입구의 새성교회부터 마당교까지 이르는 곳에 형성된 마을로 마을의 주요 시설로는 당림초등학교와 당림보건소, 구 당림리 마을회관, 하늘낚시공원이 있다. 마을의 왼쪽으로는 당림천이 흐르고 있으며, 주변은 모두 농지이다. 당림초등학교 입구 근처에는 당림리 마을회관으로 사용하던 건물이 있다.

[어원풀이] ‘새[新]+말[村]’로 분석된다.

● 석파령(席破嶺)

[별칭] 사직고개

[형태] 고개

[위치] 당림리와 덕두원리 경계에 위치한 고개로 옛 문헌에 의하면 부의 서쪽 30리 또는 부의 서쪽 25리에 있다고 하였다. 석파령 양쪽으로 안보리와 덕두원리가 있는데 과거 공공 교통시설인 안보역(安保驛)과 덕두원(德斗院)이 있었던 것에서 유래한 것으로, 석파령이 춘천과 외부 지역을 연결하는 교통의 중심지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유래] 경춘국도가 개설되기 전 춘천의 관문이었으며 춘천 고지도는 물론 많은 유람기에 등장한다.

고개가 너무 험해 말을 타고 넘지 못했다고 하며, 신(新), 구(舊) 춘천 부사가 자리 하나를 둘로 나눠 앉아 교구식을 해서 석파령이라고 불렀다고 하는데, 지금은 임도로 개설되어 있다.

[어원풀이] ‘석(席)+파(破)+령(嶺)’으로 분석된다.

[유래담] 고서에서는 “옛날에 춘천에서 한양으로 가려면 신연강나루를 건너 덕두원에서 석파령을 넘어야 했다. 석파령은 춘천으로 부임하는 부사와 이임하는 부사가 영마루에서 뜻자리를 나누어 깔고 환송하던 곳에서 유래하며, 석파령에는 당시의 주막과 민가가 있었던 유적이 발굴된다.”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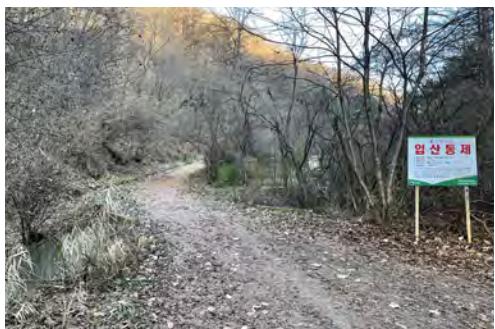
석파령너미길

● 석파령너미길

[형태] 고개

[위치] 예현병원 뒤에 위치한 고갯길로 안보역을 지나 덕두원으로 가는 길이다. 춘천 예현병원의 좌측 입구에는 섯골교가 있는데, 섯골교를 건너 골짜기로 들어가면 골짜기가 세 개가 있다. 그 중 두 개를 말골고개, 섯골고개로 부른 것으로 추정된다. 지역 주민에 따라 병원 좌측에 형성된 골짜기를 섯골고개, 오른쪽을 말골고개로 부르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석파령너미길이라고 부르는 관도는 예현 병원 오른쪽 골짜기로 들어가야 한다. 석파령너미길에서 수레너미길을 넘어 서면으로 이어진다.

[어원풀이] ‘석파령+너미[越]+길[路]’로 분석된다.



● 소자골

[형태] 골

[위치] 당림농공단지에서 4km쯤 북쪽으로 들어가면 ‘소자골’이다. 소자골 북쪽 4km 어름에 작은 촛대봉(소계관산, 690m)이 보인다. 건너편에 삼박골이 있다.

[유래] 기존 문헌에는 당숲 안에 있는 골짜기로 기록되어 있다. 소자골을 넘어 가평 계곡리로 넘어다닌 것으로 추정된다.

[어원풀이] ‘소자+골[谷]’로 분석된다. ‘소자’의 의미는 불분명하다.



소자골 입구

● 쉬골

[별칭] 섯골

[형태] 골짜기

[위치] 예현병원 위 오른편 골짜기이다.

[유래] 곡식을 재배하던 논밭이 있는 골짜기란 의미이다.

[어원풀이] ‘쉬[禾]+골[谷]’로 분석된다. ‘쉬’는『조선 말큰사전』에 ‘곡식 열리는 풀’을 말하는 고어라 하였고,『신증유합』에는 ‘禾’를 ‘쉬 화’로 풀이하였다.

● 아랫말

[형태] 마을

[위치]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다.

[유래] 기존 문헌에는 아래쪽에 있는 마을로 기록하고 있다. 마당골에 사는 사람들은 마을의 위치에 따라 윗말, 중간말, 아랫말로 불렀다고 한다. 현재 당림 1리 마을회관 근처로 추정된다.

[어원풀이] ‘아래[下]+ㅅ+말[村]’로 분석된다.



안반지

● 안반지

[별칭] 암반지

[형태] 터

[위치] 북한강과 나란히 놓인 경춘로 당림리 입구에서 2시 방향으로 5km쯤 북진하면 ‘안반지’에 이른다.

[유래] 기존 문헌에서는 지형이 안반같이 생겨서 ‘안반지’라 부른다고 하였다. 지역이 큰 암반(巖盤)으로 형성되어 있어서 ‘암반지’로 부르던 것이 ‘안반지’로 바뀌었다는 설도 있다. 실제 심정(深井)을 파기 어렵다고 한다. 마당교 분기점에서 춘천예현 병원까지 이르는 곳은 마당골에 비하면 지형이 평평하여 농지가 많으나 춘천예현병원을 지난 후부터는 골짜기로 이루어져 농지로 사용할 곳이 거의 없다.

[어원풀이] ‘안반+지(地)’로 분석된다. ‘안반’은 떡을 칠 때 쓰는 두껍고 넓은 나무 판을 말한다.

● 안반지골

[형태] 골짜기

[위치] 서면 당림리 산90번지로 당림1리 안반지 일대 골짜기이다.

[어원풀이] ‘안반지’ 참조

● 우목골

[형태] 골짜기

[위치] 서면 당림리 산9번지 강촌검문소 건너편에 위치한 골짜기이다.

[어원풀이] ‘우목+골[谷]’로 분석된다. ‘우목’은 ‘우뚝하다’를 근거로 하여 어근 ‘우뚝’이 변화한 형태로 볼 수 있다. 지형적으로 우뚝하게 들어간 곳이 있다.

● 정지골

[별칭] 정짓골

[형태] 골짜기

[위치] 당림리 입구에서 북동쪽 1km쯤에 있다. 가까이에 당림초등학교가 있다.

[유래] 기존 문헌에는 현 당림초등학교 뒤에 있는 골짜기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당림보건소 뒷편에 형성되어 있는 골짜기이다. 정지골을 넘어 당림2리로 다닌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행정지명으로는

‘정지골’로 기록되어 있다. 쇠골고개를 통해 석파령너미길로 갈 수 있는 것처럼 정지골로 진입하여 당림1리와 2리를 나누는 약 300m 높이의 산을 지나 석파령너미길에 접근이 가능하다.

[어원풀이] ‘정지+ㅅ+골[谷]’로 분석된다. ‘정지’의 의미는 불분명하다.



정지골

● 중간말

[형태] 마을

[위치]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다.

[유래] 기준문헌에는 당림리 중간에 있는 마을로 기록되어 있다. 마당골에 사는 사람들은 마을의 위치에 따라 윗말, 중간말, 아랫말로 불렀다고 한다. 현 당림5반 버스종점 근처로 추정된다.

[어원풀이] ‘중간(中間)+말[村]’로 분석된다.



중간말

● 춘천예현병원

[형태] 병원

[위치] 당림농공단지에서 당림리마을회관 방향으로 1.8km쯤 들어가면 동쪽 산자락에 있다. 계속 북진하면 골짜기 끝에 ‘안반지’가 나온다. 예현병원의 좌측 입구에는 쇠골교가 있는데, 쇠골교를 건너 골짜기로 들어가면 골짜기가 세 개가 있다.

[유래] 2013년에 개원하였다.

● 풀무원춘천공장

[별칭] 풀무원 공장

[형태] 공장

[위치] 당림리 입구에서 북동쪽 2km쯤에 당림1리 마을회관이 있는데 그곳에서 11시 방향 골짜기 입구 가까이에 당림농공단지가 있고, 300m를 더 가면 풀무원춘천공장이 있다. 풀무원춘천공장은 당림1리 마당골이라고 불리는 곳에 있는데, 당림리 사람들은 마을의 위치에 따라 윗말, 중간말, 아랫말로 부른다. 공장은 아랫말에 위치한 것으로 추정된다.

[유래] 현재 풀무원 춘천공장에서는 두부나 생수 등을 생산하고 있다.



풀무원춘천공장

● 큰골

[형태] 골짜기

[위치] ‘안반지’에서 북쪽 2.5km 지점에 있다. ‘작은촛대봉(소 계판산)’에서 5시 방향 남쪽이다.

[유래] 기존 문현에는 안반지에 있는 큰 골짜기 또는 안반지에 있는 골짜기로 기재되어 있다. 마당골에서 안반지로 넘어가는 골짜기인데 마당골에서는 큰골이라고 부르며 안반지에서는 안골이라고 부른다. 마당골과 안반지에서 구분해서 사용하던 것이 양쪽에서 섞어서 사용하였고 현재는 그 위치의 지명까지 달라진 것으로 보인다.

[어원풀이] ‘큰[大]+골[谷]’로 분석된다.



큰골

위치와 현황 | 북쪽으로 주산, 남쪽으로는 삼악산(三岳山)이 있다. 자연마을로는 물개말, 웃말, 고도트미 등이 있다. 덕두원의 삼학산(三鶴山)은 해발 654m로 세 개의 봉우리로 이루어져 삼악산이라 부르며, 폭포 및 등산로로 유명하다.

서면

연혁 | 『여지도서』, 『호구총수』, 『춘천읍지』, 『춘천부지』, 『관동읍지』에는 서하면(西下面) 명월리(明月里)로, 『조선지지자료』는 서하일작면(西下一作面)에 덕두원리(德斗院里), 명월리(明月里)로 표시하였다. 『강원도지지조서』는 서하면(西下面) 덕두원리(德斗院里), 『강원도지』, 『수춘지』는 서면(西面) 덕두원리(德斗院里)라 하였다. 『춘주지』와 『춘천백년사』에는 서면(西面) 덕두원1리, 덕두원2리, 덕두원3리라 표기되었다. 현재 행정리는 서면 덕두원리고 법정리는 덕두원1리, 덕두원2리, 덕두원3리이다.

유래 | 덕두원은 조선시대 역원인 덕두원(德斗院)에서 유래하였다. 한양과 춘천으로 통하는 길목이었다.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명월리, 상방동 일부를 병합하여 덕두원리(德斗院里)라 하여 서하면(서면)에 편입하였다.

● 고도트미

[형태] 마을

[위치] 덕두원2리 4반이다. 덕두원2리에서 ‘명월길’로 4km 정도 북서쪽으로 가면 제법 넓은 들녘 이 나오고 좀 더 널따란 북쪽 마을과 상대적으로 좁은 서편 쪽 마을이 있는데 북쪽 초입이 ‘고도트미’이다.

[유래] 돌과 돌 사이(틈)에 흙(땅)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옛말에 ‘고도트미’는 ‘잔돌이 많은 땅’을 말한다.

[어원풀이] ‘고도+트+미’로 분석된다. 돌과 돌 사이(틈)에 흙(땅)이 있다는 뜻이다. 지명접미사 ‘-미/매/뫼’의 어원적 의미는 ‘산(山)’이나 의미의 전성 으로 ‘마을, 들, 땅, 고개’ 등을 뜻하기도 한다.



고도트미

● 구석말

[형태] 마을

[위치] 덕두원1리 3반이다.

[유래] 구석에 있는 마을이라는 의미이다.

[어원풀이] ‘구석+말[村]’로 분석된다.

● 달개지고개

[별칭] 달계지고개, 달고개

[형태] 고개

[위치] 덕두원리 북서쪽 끝 부근에 있는 ‘덕두원 유원지’에서 북서쪽 700m 쯤에 위치하는 ‘떡갈무기’를 지나면 보이는 고개이며, ‘소계관산(작은촛대봉)’ 서쪽 2.3km쯤에 있다. 덕두원에서 서면 당립리나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개곡리의 ‘달개지’를 갈 때 이용하던 고개이다.

[유래] 춘천의 덕두원과 가평 개곡리의 ‘달개지’를 이어주는 고개로, ‘달개지고개’라는 지명은 가평에서 쓰이고, 춘천에서는 ‘달고개’라는 지명을 더 많이 사용한다.

[어원풀이] ‘달개지+고개’로 분석된다. 고개를 넘어 가면 가평읍 개곡리 ‘달개지’에 이르기 때문에 생겨난 지명이다.



달개지고개

● 대궐터

[형태] 터

[위치] 삼악산 꼭대기 삼악산성이 있던 터를 말한다.

[어원풀이] ‘대궐(大闕)+터[垈]’로 분석된다.

[유래담] 맥국과 관련된 전설과 의병과 관련된 전설이 전한다. 옛날 샘밭에 있던 맥국이 적국의 침입을 받아 왕조가 망할 지경에 이르렀다. 그때 왕이 여기 와서 성을 쌓고 대궐을 지었다. 대궐터는 흥국사라는 절 앞에 있다. 적국이 맥국을 무너뜨리

기 위해 쫓아와서 삼악산을 포위했는데, 산세가 험하고 지세가 불리하여 올라가서 싸울 수가 없었다. 적들은 광주리 장사로 꾸민 할머니를 보내 물건을 팔려 왔다고 속여서 성문을 열게 했고 결국 맥국은 망하게 되었다. 할머니가 들어간 문을 ‘할미문’이라고 부른다. 다른 하나는 의병들이 쫓기다가 대궐터로 피난을 갔다. 그때 사람이 많아서 강에서 사람을 연결해서 돌을 날렸다. 그렇게 강에 있던 돌로 성을 쌓았다. 그 성이 바로 대궐터에 있는 성인데, 지금도 가면 강가에 있던 돌들을 볼 수 있다.

● 덕두원(德斗院)

[형태] 마을

[위치] 서면의 남쪽에 위치한 지역으로 서면에서 면적이 가장 넓은 법정리이다. 덕두원2리에 해당한다.

[유래] 조선시대 관영 여관인 덕두원(德斗院)이 행정지명이 되었다.



옛 덕두원 자리로 추정되는 곳

● 덕두원교

[형태] 다리

[위치] 봉어섬 남쪽 의암호에서 덕두원리로 들어가는 초입이며, 덕두원천이 의암호로 들어가는 관문과 같은 다리이다. 다리 위의 길은 ‘박사로’이다.

● 덕두원유원지

[형태] 유원지

[위치] 덕두원2리에서 명월길로 4km 정도 북서쪽으로 올라가면 제법 넓은 들녁이 나오고 좀더 널따란 북쪽 마을과 상대적으로 좁은 서편쪽 마을이 있는데, 북쪽 초입이 ‘고도트미’이다. 서쪽 초입엔 ‘덕두원유원지’가 있다.

● 떡갈무기

[별칭] 떡갈매기

[형태] 마을

[위치] 덕두원리 북서쪽 끝 부근에 있는 ‘덕두원유원지’에서 북서쪽으로 700m쯤에 위치하며, 떡갈무기 마을을 지나면 당림리와 가평 달개지로 넘어갈 수 있는 달고개가 나온다. 계관산(736m) 동편 기슭으로 산행코스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

[유래] 떡갈나무가 많아서 붙여진 지명이다.

[어원풀이] ‘떡갈(-나무)+무(무수하다, 많다)+기(基)’로 분석된다. 떡갈나무가 많은 마을이라는 뜻이다.



떡갈무기

● 독가동(獨柯洞)

[별칭] 독가맛골

[형태] 마을

[위치] 덕두원2리 4반 고도트미의 북쪽에 위치한

다. 덕두원 본 마을 북서쪽 끝 부근에 ‘덕두원 유원지’가 있는데 여기에서 북서쪽으로 2.5km쯤 올라가면 ‘독가동/독가맛골’에 닿는다. 독가동을 지나면 가평 목동으로 이어지는 쌔리재 고개가 나온다.

[유래] 기존문헌에 “옛날에 독접(장독, 옹기가게)이 있었던 마을이다.”라 소개되어 있는데 옹기접이 있었다는 이야기는 없고, 땅도 옹기를 만들만한 흙이 아니다. 지역 토박이의 증언으로는 지형의 모양이 독(항아리)처럼 생겨서 독가동이 되었다는 것이 유력하다.

[어원풀이] ‘독(장독,옹기)+가[가마]+골’로 분석된다. 한자표기 ‘독가동’은 음차자이다.



독가동

● 등선풍포(登仙瀑布)

[별칭] 등선풍, 경천폭, 경천폭포, 삼학폭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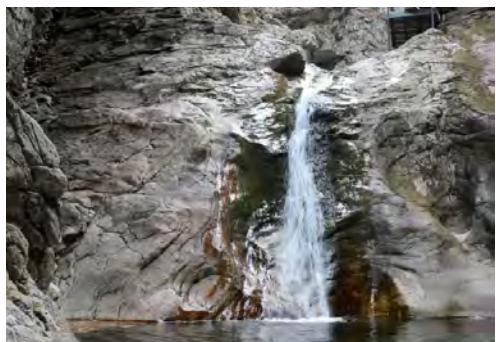
[형태] 폭포

[위치] 서면 덕두원3리에 있는 폭포로 삼악산의 대표적인 폭포이다. 삼악산이 가로막고 있어 덕두원리 중심부와는 거리가 있다. 춘천 중심부에서는 남서쪽으로 1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다.

[유래] 일제강점기인 1922년 경춘가도가 개통되고서 세상에 알려졌다. 문헌상 최초의 등장은 춘천 출신의 저널리스트 차상찬이 1923년 기록한 『개벽』 제42호 <조선문화의 기본조사 춘천군> 편에

등장하는데, ‘덕두원의 삼학폭포三鶴瀑布(일명 경천농境川瀧 길이 1장 5척 여)’로 소개되어 있다.

[유래담] ‘선녀와 나무꾼’ 전설이 전하는 선녀탕이 있다.



등선풍포

● 등폭

[형태] 마을

[위치] 덕두원3리 3반이다.

[유래] 등선풍포가 있는 마을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어원풀이] ‘등폭[登仙瀑]’으로 분석된다.

● 명월리(明月里)

[형태] 마을

[위치] 덕두원 북서쪽 골짜기에 있는 마을로 덕두원2리 본(큰) 마을이다. 덕두원2리의 마을회관 이름도 ‘덕두원2리 마을회관’이 아니라 ‘명월마을회관’이며, 덕두원2리 방면 도로명은 ‘명월길’이다. 명월리 마을을 지나면 떡갈무기, 독가동, 고도트미 등 산 아래 작은 마을들이 나타난다.

[유래] 기존 문헌에 덕두원리 북서쪽 골짜기에 있는 마을이라 하였다.

[어원풀이] ‘명(明)+월(月)+리(里)’로 분석된다. 달이 밝은 마을이라는 뜻을 가진다.

[유래담] 예전에 이곳에 광산이 있었는데 한때 금이 잘 나와서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다고 한다.

● 물개말

[별칭] 물가말

[형태] 마을

[위치] 덕두원1리 1반을 말한다.

[유래] 봉어섬 남쪽 의암호에서 덕두원리로 가는 초입으로 덕두원교 북쪽에 위치한다. 현재 서면파출소 의암치안센터 앞 도로 건너편 마을이라 볼 수 있다. 마을을 따라 앞쪽이 신연강이 흐르며, 물가(신연강 가)에 있는 마을이라는 의미이다.

[어원풀이] ‘물[江]+개/가[邊, 가장자리]+말[村]’로 분석된다. ‘말’은 마을, ‘개’는 가장자리를 뜻하는 방언이다.



물개말

● 벼덩말

[별칭] 벼덩말들

[형태] 마을

[위치] 덕두원1리 2반으로 덕두원교를 지나 덕두원 초입에 있는 마을이다.

[유래] 평평한 벼덩에 있는 마을이라는 의미이다. ‘벼덩말들’이라고도 한다.

[어원풀이] ‘벼덩+말[村]’로 분석된다. ‘벼덩’은 높

고 평평하며 나무는 없이 풀만 우거진 거친 들이라는 의미이다.

● 봉덕사

[형태] 사찰

[위치] 서면 덕두원길 101-30번지이다.

[유래] 원래 연못이 있는 가파른 화전이었는데 각립 화상이 1971년 삼악산 비탈에 도량을 열었다.

● 불당터

[형태] 터

[위치] ‘덕두원교’에서 덕두원 쪽으로 1km 거리에 있는 ‘원터’를 지나 덕두원1길 맨 위쪽에 있다. 포털사이트 지도에는 ‘원터’ 맞은편을 ‘불당터’로 표시하고 있다.

[유래] 옛날 이곳에 불당이 있어 ‘불당터’라고 불렸지만 현재는 흔적이 없고 마을 사람들을 통해서만 확인이 가능하다. 불당터는 길 끝쪽으로 확인되며, 불당터에서 내려다보면 덕두원리가 한눈에 보이고 날씨가 좋으면 삼악산 케이블카도 볼 수 있다. 현재는 마을 원주민보다 외지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다.

[어원풀이] ‘불당(佛堂)+터[垈]’로 분석된다.



불당터



불당터 건너편

● 비선거리

[형태] 거리

[위치] 물가 근처에 있었던 거리로 현재는 의암댐 건설로 수몰되었다.

[유래] 춘천에 부임하여 일을 잘하고 가는 관리의 경우 그 공적을 치하하기 위해 비석을 세웠고 그 러한 비석을 세워둔 거리를 비선거리라 불렀다.

[어원풀이] ‘비(碑)+선[立]+거리[街]’로 분석된다. 본래 명칭은 길가에 비석이 많다고 해서 비석거리라고 불렸는데 언제부턴가 비선거리로 이름이 바뀌었다고 한다

재, 싸리골’이라는 명칭은 전국적으로 산재하며, 대부분 ‘싸리나무’와 관련짓는다. 이곳도 싸리나무가 많아 ‘싸리재고개’가 되었다는 설이 가장 유력하다.



싸리재고개

● 싸리재고개

[별칭] 사리현(沙里峴)

[형태] 고개

[위치] 덕두원 북서쪽에서 가평군 북면 목동리로 넘어가는 고개로 ‘독가동’ 마을을 지나가면 나온다.

[유래] ‘덕두원유원지’를 기준으로 서쪽으로는 떡갈무기 마을, 동쪽으로는 고도트미 마을이 있고, 위쪽(북쪽)으로 더 올라가면 ‘독가동’이 나온다. 싸리재 안쪽 마을을 독가동이라 부르고 싸리재를 지나면 가평군 북면 목동리가 나온다.

[어원풀이] ‘싸리(싸리나무)+재+고개’로 분석된다. 한자지명 ‘사리현(沙里峴)’은 음차표기이다. ‘싸리

● 신연교(新延橋)

[형태] 다리

[위치] 의암호 위에 놓인 다리로, 덕두원리와 의암리를 이어준다. 신연강은 행정구역상 덕두원리로 되어 있지만 ‘신연교’는 신동면 의암리 관할이다.

[유래] 의암호가 생김으로써 신연강은 흐르지 않는 강이 되었고, 신연교(1967년)는 호수 위에 놓인 다리가 되었다. 현재 있는 신연교는 1939년에 세워진 신연교를 없애고 1967년 새로 건설된 것이다. 신연교 아래를 자세히 보면 옛 신연교의 흔적이 남아 있다.



신연교

● 왕서덜

[형태] 마을

[위치] 덕두원유원지 1km쯤 못 미쳐 있다. 의암호 덕두원 초입 ‘의암교’에서 7km쯤 북서쪽으로 올라 가면 ‘왕서덜’이 나온다.

[어원풀이] ‘왕(王)+서덜’로 분석된다. ‘서덜’은 강이나 냇가에 작은 돌멩이들이 널부러져 있는 것을 말한다. 또 많은 돌이 깔려있는 곳을 ‘서덜밭’이라 하는데, ‘왕서덜’도 이에 해당한다.

● 웃말

[형태] 마을

[위치] 덕두원1리 5반에 위치한다.

[어원풀이] ‘우[上]+ㅅ+말[村]’로 분석된다. 위쪽에 있는 마을이라는 의미이다.

● 원당(元塘)

[별칭] 원당리(元塘里)

[형태] 마을

[위치] 덕두원3리의 1반과 2반으로, 북한강이 의암댐을 지나 내려가다가 의암리 앞에서 직각으로 꺾이는데 바깥쪽이 의암리이고, 안쪽 마을을 원당리라 부른다. 경춘로와 서면을 지나온 박사로가 교차하는 ‘의암교차로’ 바로 북쪽 마을이다.

원당

[유래] 기존문헌에 당집이 있던 마을이라 하였다.

[어원풀이] ‘원(元)+당(堂)’으로 분석된다. ‘당(堂)’은 서낭당을 말한다.

● 원터

[형태] 마을

[위치] 덕두원1리 4반이다. 덕두원 초입에 있는 ‘덕두원교’에서 덕두원 쪽으로 1km 거리에 있으며, 석파령을 넘어서 내려오면 그 아래에 있는 마을이다.

[유래] 옛날 덕두원이 있던 마을이어서 생겨난 이름이다.

[어원풀이] ‘원(院)+터[基]’로 분석된다. ‘원(院)’은 덕두원을 말한다.



원터

● 자작고개

[별칭] 째작고개

[형태] 고개

[위치] ‘덕두원 유원지’ 북동쪽에 있는 고개로, ‘수레넘이길’과 함께 덕두원리에서 방동리를 오가던 고갯길이다. ‘고도트미’ 마을을 지나면 다리를 수 있다. ‘자작고개’를 넘어 방동리에 닿으면 ‘장철공 신송겸 장군 묘역’이 나온다.

[어원풀이] ‘자작(나무)+고개’로 분석된다.





자작고개

● 주막거리

[형태] 거리

[위치] 덕두원1리 4반 원터 앞 동네이다.

[유래] 서울에서 부임하는 관원을 비롯하여 많은 사람이 석파령을 통해 오갔기 때문에 석파령 골짜기에 주막들이 많이 생겼다. 또 명월리에 금광산이 있어서 부유한 사람들이 많아졌고, 이로 인해 사람들이 유흥을 즐길 수 있는 주막이나 술집이 많이 생겼다. 현재는 사라지고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로 만들을 수 있다.

[어원풀이] ‘주막(酒幕)+거리[街]’로 분석된다. 주막이 있던 거리라는 의미이다.



주막거리

● 주산(主山)

[형태] 산

[위치] 덕두원1리 경로당에서 북서쪽으로 1km 남짓, 덕두원2리 명월 마을회관에서 남쪽 1km 정도 거리에 있는 산이다. 해발 334.5m이다.



주산

● 태실

[형태] 태실

[위치] 서면 덕두원리 산72-34~35번지이다. 현재는 봉덕사가 있다.

[유래] 고려와 조선시대 왕실에서 왕자나 공주·옹주가 태어나면 길지를 정해 ‘태’를 봉인하는 태(胎)문화가 있었다. 그렇게 뽑힌 길지가 춘천에는 세 곳이 있다. 서면에 두 군데 덕두원 태실, 현암리 태실이 있었으며, 신북읍에 용산리 태실이 있다. 태실비의 전체 높이는 129cm이고 덮개의 높이는 48cm, 비신의 높이는 81cm이다. 덮개에는 양련(仰蓮)과 보주(寶珠)가 장식되어 있고, 비대좌 윗면은 복련(覆蓮)으로 장식되어 있다. 비 정면의 명문은 마모가 심해 ‘명(明)’자 외의 다른 글씨는 알아볼 수 없으며, 비 후면에는 “황명만력십칠년오월초 팔일사사립”이라는 명문이 새겨져 있다. 이로 보아 태실의 주인은 조선 선조 22년(1589)에 태어난 왕자로 추정된다.

[어원풀이] ‘태(胎)+실(室)’로 분석된다. 태를 묻은 곳이란 뜻이다.

● 통천굴(通天窟)

[형태] 굴

[위치] 삼악산 중턱에 있는 굴로 상원사 죄측이다.

[유래] 굴이 하늘을 향해 뚫려 있어 하늘로 통하는

굴이라는 의미이다.



통천굴

옆 산성 가운데 궁궐이 있던 자리가 지금도 남아 있어 대궐터라 부른다. 고려시대에는 규모가 큰 절 이었으나 현재는 조그마한 암자로 명맥만 유지하고 있다.



흥국사

서면

● 흥국사

[형태] 사찰

[위치] 서면 덕두원리 산183번지이다. 해발고도 654m의 삼악산 서쪽 등선폭포 위쪽에 있는 사찰이다.

[유래] 894년경 궁예가 창건한 사찰로 궁예가 왕 건을 맞아 싸운 곳이라 전해진다. 궁예는 이곳 터가 함지박처럼 넓으므로 궁궐을 지었고 당시 절

위치와 현황 | 서쪽으로 북배산이 위치하고, 동쪽으로 의암호가 있다. 자연마을로는 두둑부리, 양지말, 응달말, 샛골 등이 있다. 방동리에는 고려 개국공신 신승겸의 무덤인 장절공묘(壯節公墓)가 있다.

연혁 | 『춘주지』를 보면 서하(西下)에 방동리(方洞里)가 있다. 『여지도서』, 『호구총수』, 『춘천읍지』, 『춘천부지』, 『관동읍지』는 서하면(西下面) 방동리(方洞里)로 표시하였다. 『조선지지자료』는 서하일작면(西下一作面)에 상방동(上芳洞), 하방동(下芳洞)으로 표기하였다. 『강원도지지조서』는 서하면(西下面) 방동리(芳洞里), 『강원도지』, 『수춘지』는 서면(西面) 방동리(芳洞里)가 되었다. 『춘주지』, 『춘천백년사』는 방동1리, 방동2리로 나뉘었다. 현재 행정리는 방동리고 법정리는 방동1리, 방동2리이다.

유래 | 밤골 또는 방동(方洞)이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상방동, 하방동을 병합하여 방동리(芳洞里)라 하여 서하면(서면)에 편입하였다.

● 가지곡(可芝谷)

[별칭] 가주리니, 가지린이, 가주언리, 가줄언리, 가주머리

[형태] 마을

[위치] 담벼덩과 두둑부리 남쪽에 있는 마을로 두둑부리에서 가지교를 건너서 갈 수 있다. 방동1리에 소재하며 도로명주소로 '신승겸로'에 해당한다.

[유래] 장절공묘 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다수의 기존문헌에는 '가주리니'로 기재되어 있고 일부 문헌에는 '가줄언리'로 기재되어 있다. 현재는 '가지곡'이라 부른다. 가지곡 남쪽에 '가주머리저수지'가 있으며, 이를 '농촌용수종합시스템'에서는 '가지린이저수지'로 표기하고 있다.

[어원풀이] '가지[枝]+곡(谷)'으로 분석된다. '가지'는 '나뭇가지[枝]'이기에 '갈라진 골짜기'를 뜻한다. '가지[枝] → 가줄 → 가주'로 변이되었다. '-러니'는 아래 '가주머리저수지'를 참조하면 '머리'의 변음이라 할 수 있다. 이때 지명접미사 '-머리/멸'은 '대상의 앞부분이나, 짐승의 머리(頭)'를 뜻한다. '가주머리/가주리니'는 '갈라진 골짜기의 머리 위치' 정도의 의미가 된다.



가지곡

● 고깔바우

[형태] 바위

[위치] 미상이다.

[유래] 기존문헌에는 종자리에 있는 바위라 하였다.

[어원풀이] '고깔+바우[巖]'로 분석된다. 고깔 모양의 바위란 의미이다.

● 고봇골

[형태] 골짜기

[위치] 서면 방동리 당미 근처에 있는 골짜기이다.

[유래] 담벼덩, 당미 남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기준문헌에는 장절공묘 서남쪽에 있는 골짜기라 하였다.

[어원풀이] '고부+ㅅ+골[谷]'로 분석된다. '고부'의 의미는 불분명하다.



고봇골

● 당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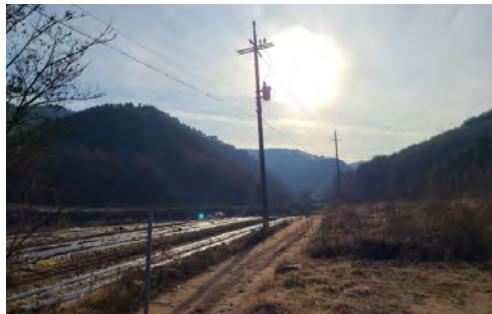
[별칭] 당산(唐山)

[형태] 마을

[위치] 담벼덩 서남쪽에 있으며, 방동리에서 수레너미고개로 가는 골짜기에 있는 마을이다. 방동1리 마을회관과 방동1리 게이트볼장이 있다. 덤벼덩에서 방동대교를 건너면 당미이다.

[유래] 기존 문헌에서 방동 서쪽에 있는 마을이라 하였다.

[어원풀이] '당(唐)+미[山]'로 분석된다. 서낭당이 있는 산이란 의미로 추정된다.



당미

● 덧재

[형태] 고개

[위치] 방동리에서 덕두원리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유래] 방동리에서 당미를 지나 덕두원리로 넘어가는 고개로, 수레넘이길로 이어진다.

[어원풀이] ‘덧[德]+재[峙]’로 분석된다. 둔덕처럼 높은 곳에 있는 고개란 의미이다.



덧재

● 대서비

[별칭] 대세비

[형태] 골짜기

[위치] 종자리에서 북배산을 올라 뒷골로 가는 길목에 있는 골짜기이다.

[유래] 기존문헌에는 장절공묘 북쪽에 있는 골짜기라 하였다. 종자리에서 뒷골로 넘어가는 골짜기로, 북배산, 몽덕산, 가덕산으로 이어지는 큰 골짜기이다. 장절공묘 서북쪽에 위치하며 작은대서비와 큰 대서비로 나뉜다. 종자리에서 왼쪽으로 가면 자작고개를 넘어 덕두원리로 갈 수 있고, 오른쪽으로 가면 대서비를 넘어 뒷골로 갈 수 있다. 유래가 불분명하다.



대서비

● 두둑들

[형태] 들

[위치] 서면 방동리 덤벼덩과 홍골 사이에 있는 넓은 들이다.

[유래] 기존문헌에 두둑부리 근처에 있는 들이라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홍골, 담벼덩(장평), 두둑부리(두평)와 모두 맞닿아 있는 넓은 들이다. 알빛부리와 두평저수지가 근처에 있다.



두둑들

[어원풀이] ‘두둑+들[坪]’로 분석된다. 두둑부리 근처에 있는 들판이란 의미이다.

● 두평(斗坪)

[별칭] 두둑부리

[형태] 마을

[위치] 담버덩 동남쪽에 있는 마을로 도로명주소 ‘두평길’이 있다.

[유래] 두둑이 벼랑(부리)처럼 뚝 떨어지는 모양으로 생긴 마을이라고 해서 두둑부리라고 부른다. 이러한 지형으로 인해 두둑부리 아래쪽은 응달이 되어 응달말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요즘은 ‘두평(斗坪)’이라 부른다.

[어원풀이] ‘두(斗)+평(坪)’으로 분석된다. ‘두(斗)’는 ‘두둑’의 음차자로 보인다. 별칭인 ‘두둑부리’는 ‘두둑+부리[벼랑]’으로 분석된다. ‘두둑’은 논이나 밭 가장자리에 경계를 이룰 수 있도록 두도록하게 만든 것이고, ‘-부리’는 백제어 ‘부리(夫里)’로 소급되며 고구려어 ‘홀(忽)’과 신라어 ‘불(火)’과 동계(同系)로 파악되는 지명접미사이다. 후대에 다양한 의미로 확장되어 ‘마을, 산, 벼랑, 바위’ 등으로 쓰인다. ‘부리’를 새의 주둥이로 보아 땅이 부리 모양으로 튀어나와 있어 생겨난 지명으로 보기도 한다.



두평

● 두평저수지(斗坪貯水池)

[별칭] 두둑못

[형태] 저수지

[위치] 두둑부리에 있는 저수지이다.

[어원풀이] ‘두평(斗坪)+저수지(貯水池)’로 분석된다.

‘두평’ 참조.



두평저수지

● 마산

[형태] 산

[위치] 방동리 동남쪽에 있는 산으로 응달말에서 대통교 쪽을 바라봤을 때 그 뒤로 보이는 산이다.

[유래] 담버덩의 동남쪽에 있는 산으로 오얏골 뒤쪽에 있다. 현재 소재지는 현암리이다. 문현마다 이름이 다르게 기재되었는데, ‘당버덩, 담버덩, 덤버덩의 서남쪽에 있는 산’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산

[어원풀이] ‘마+산(山)’으로 분석된다.

● 방동(芳洞)

[별칭] 방골

[형태] 마을

[위치] 서면 방동리를 말한다.

[유래] 기존 문헌에는 방동리로 기재되어 있다. ‘방골/방동(芳洞)’은 행정지명 ‘방동리(芳洞里)’의 바탕이 되었다.

[어원풀이] ‘방(芳)+동(洞)’으로 분석된다. ‘방(芳)’은 ‘방골’의 음차자이다. ‘밤골[栗谷]’에서 ‘밤’이 ‘방’으로 변음된 것으로 추정된다. 지명에서 말음 ‘ㅁ’이 비음 사이에서 ‘ㅇ’으로 교체되는 현상은 ‘뱀골->뱅골, 한골->항골’처럼 흔하게 볼 수 있다.

● 사그막골

[별칭] 사기막골

[형태] 골

[위치] 방동2리 하늘캠핑장 뒤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유래] 예전에 사기그릇을 굽던 곳이라서 사그막골이라고 불린다. 기존 문헌에는 사기막이 있던 골짜기로 기재되어 있다.

[어원풀이] ‘사그막/사기막(沙器幕)+골[谷]’로 분석된다. 예전에 사기를 굽던 곳으로 지금도 사금파리가 나온다고 한다.



사그막골

● 상방동(上芳洞)

[형태] 마을

[위치] 서면 방동리 중 위쪽 일대를 상방동이라고 한다.

[유래] 기존 문헌에는 방동 위쪽에 있는 마을로 기재되어 있다.

[어원풀이] ‘상(上)+방동(芳洞)’으로 분석된다. ‘방동’ 참조.

● 샛골

[형태] 마을

[위치] 방동2리이다.

[유래] 방동2리에 있는 마을로, 방동리 사이에 있는 마을이라 샛골이라 부른다고 한다.

[어원풀이] ‘새[間]+ㅅ+골[谷, 村]’로 분석된다. ‘새’는 ‘사이’의 줄임말이다.



샛골

● 수레넘이

[별칭] 수리네미

[형태] 골짜기

[위치] 서면 방동리에서 덕두원리로 넘어가는 곳에 있는 골짜기이다.

[유래] 기존문헌에 ‘장절공묘 서남쪽에 있는 골짜기’라 하였다.

[어원풀이] ‘수레[車]+넘이[越]’로 분석된다.

꼭 넘었는데, 그때 수레를 타고 넘어왔다고 한다.



수레넘이

● 수레넘이고개

[별칭] 거현(車峴), 수리너미고개, 수리네미고개, 수레너미고개, 수레넘어고개

[형태] 고개

[위치] 서면 덕두원리와 방동리를 넘나드는 고개로, 고갯마루의 위치가 두 동리 중간쯤이 된다. 방동리에서 당산을 지나 들어간다.

[유래] 기존 문헌에는 장절공묘 서남쪽에 있는 골짜기를 수리네미로 부른다고 기재되어 있다. 옛날에 춘천 유수(留守)가 도입할 때 수레를 타고 넘었다고 한다.

[어원풀이] ‘수레[車]+넘이[越]+고개[峴]’로 분석된다. 예전에 춘천 유수(留守)가 부임할 때 이 고개를



수레넘이고개

● 신선바우

[형태] 바위

[위치] 서면 방동리 대서비에 있는 바위이다.

[어원풀이] ‘신선(神仙)+바우[岩]’로 분석된다.

● 안장바우

[형태] 바위

[위치] 미상이다.

[유래] 기존 문헌에 안장처럼 생긴 바위로 기재되어 있다.

[어원풀이] ‘안장(鞍裝)+바우[岩]’로 분석된다. 안장처럼 생긴 바위이다.

● 알밋부리

[형태] 산

[위치] 홍골, 두둑들 근처에 있는 산이다.

[유래] 두둑부리와 마찬가지로 툭 튀어나온 지형이다. 기존 문헌에는 ‘두둑들 건너편에 있는 들’로 기재되어 있다.

[어원풀이] ‘알[卵]+미[山]+ㅅ+부리’로 분석된다. 지명에서 ‘알’은 ‘아리/어리/열/알’ 등의 이형태를 가지며 ‘卵, 魂, 생명’ 등의 의미를 함축하게 된다.



알밋부리

‘미’는 ‘매/뫼’ 등의 이형태를 가지며 ‘산(山)’을 의미한다. ‘-부리’는 백제어 ‘부리(夫里)’로 소급되며 고구려여 ‘흘(忽)’과 신라어 ‘불[火]과 동계(同系)로 파악되는 지명접미사이다. 후대에 다양한 의미로 확장되어 ’마을, 산, 벼랑, 바위‘ 등으로 쓰인다. ‘알’을 ‘아래[下]’의 이형태로 보아 산 아래쪽에 부리처럼 툭 튀어나온 지형이라 할 수도 있다.

● 양지말

[형태] 마을

[위치] 두둑부리에서 동북쪽에 있는 마을로, 음지 말에서 방동교, 방동2교를 건너서 갈 수 있다. 도로명주소로 방동1길에 해당한다.

[유래] 응달말에 대하여, 양지쪽에 있는 마을이라 하여 양지말이라고 부른다.

[어원풀이] ‘양지(陽地)+말[村]’로 분석된다.



양지말

● 오얏골

[형태] 골

[위치] 의암호에서 방동리 초입에 있는 방동보건진료소 남쪽 큰 골짜기 1km쯤에 위치한다. 두둑부리에서 오야교를 건너서 갈 수 있다.

[유래] 두둑부리 아래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그 서쪽 능선 너머엔 가주머리저수지가 있다. 기존 문헌

에는 장절공묘의 남쪽에 있는 골짜기라 기재되어 있다.

[어원풀이] ‘오얏[李]+골[谷]’로 분석된다.



오얏골

● 응달말

[형태] 마을

[위치] 두둑부리에서 동북쪽에 있는 마을로 도로명주소로 방동길에 해당한다.

[유래] 음지 쪽에 있는 마을이라 하여 응달말이라고 부른다. 두둑부리는 넓은 들이 이어지다 갑자기 벼랑처럼 뚝 떨어지는 듯한 지형인데, 그 밑에 있어 예전부터 별이 잘 들지 않는 응달이었다고 한다. 방동2리 마을회관이 있다.

[어원풀이] ‘응달+말[村]’로 분석된다.



응달말

● 장절공묘(壯節公墓)

[별칭] 신장절공 묘역, 신승겸묘

[형태] 무덤

[위치] 서면 방동리 산 816-1번지로 홍골 바로 북쪽에 있다.

[유래] 고려 개국공신 신승겸(申崇謙) 장군의 묘이다. 강원도기념물 제21호로 1976년 6월 17일에 지정되었다. 도굴을 막기 위하여 묘는 하나인데 봉분을 3개 만들었다고 전해지고 있으며, 현재 이 묘에는 3개의 봉분이 나란히 있다. 묘역에는 신도비 및 묘비가 서 있다.

● 장절공산(壯節公山)

[형태] 산

[위치] 장절공묘가 있는 산이다.



장절공산

● 장평(墻坪)

[별칭] 담벼덩, 덤벼덩, 당벼대, 당벼덩

[형태] 마을

[위치] 서면 방동리의 중심 위치에 있는 마을로 행정구역상 방동1리에 해당하며, 도로명주소로는 장평길과 당산길을 포함한다.

[유래] 기존문헌에는 ‘당벼덩, 장평(墻坪)’으로 기재되어 있다. 요즘은 ‘장평(墻坪)’이라 부른다.

[어원풀이] ‘장(牆)+평(坪)’으로 분석된다. 집이나 일정한 공간을 둘러막기 위해 쌓는 ‘담’의 한자어인 ‘장(牆)’과 편평하고 넓게 트인 땅을 의미하는 ‘평(坪)’이 합쳐진 지명이다. ‘담벼덩’이라는 고유어 지명의 한자음 표기가 굳어져 현재에 이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장평

● 종자리

[형태] 골짜기

[위치] 장절공묘, 홍골의 서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유래] 방동리에서 덕두원리와 퇴골로 갈 수 있는 길목이다. 종자리에서 왼쪽으로 가면 자작고개를 넘어 덕두원리로 갈 수 있고, 오른쪽으로 가면 대서비를 넘어 퇴골로 갈 수 있다. 유래는 불분명하다.

● 하방동(下芳洞)

[형태] 마을

[위치] 서면 방동리에서 아래쪽 일대를 말한다.

[유래] 기존 문헌에는 방동리의 아랫마을로 기재되어 있다.

[어원풀이] ‘하(下)+방동(芳洞)’으로 분석된다. ‘방동’ 참조

● 흥골

[별칭] 홍곡(洪谷)

[형태] 마을

[위치] 서면 방동리 819-1번지 일대로, 담벼덩 북쪽에 있는 마을이다.

[유래] 방동리의 자연마을 중 하나인 ‘담벼덩/덤벼덩’ 북쪽에 있는 마을이며, 홍곡(洪谷)이라고도 한다. 바로 뒤에 신승겸 장군의 묘인 장절공묘가 있으며 동쪽으로 일밋부리와 두평저수지, 두둑들이 보인다.

[어원풀이] ‘홍(洪)+골[谷]’로 분석된다. 남양홍씨가 모여 살았다고 해서 홍골이라 불렸다는 설이 전한다. 또는 흠통처럼 옴푹 파인 골짜기의 모양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기도 한다.



황골



흥골

● 황골

[형태] 골짜기

[위치] 당미에서 덧재 쪽으로 가는 길에서 오른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유래] 기존문헌에는 장절공묘 서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기재되어 있다.

[어원풀이] ‘황(黃)+골[谷]’로 분석된다. ‘황(黃)’의 뜻이 ‘누른’인데, 이는 ‘넓은’을 훈차표기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넓은 골짜기란 의미이다.

위치와 현황 | 동쪽으로 북한강이 흐르고 남쪽으로 월송천이 흐른다. 자연마을에는 웃말, 화전마을, 소징갯골, 쇠막골 등이 있다.

서면

연혁 | 『춘주지』는 서상(西上)에 권산(權山), 사리(沙里), 보가기(寶加基), 새동(塞洞), 노기리(蘆其里), 월굴리(月窟里), 수정(脩井) 등을 포함시켰다. 『여지도서』, 『호구총수』, 『춘천읍지』, 『춘천부지』, 『관동읍지』는 서상면(西上面)에 권산리(權上里), 신포리(薪浦里)를 표기하였다. 『조선지지자료』에 서상면(西上面)의 권산중리(權上中里), 퇴동리(退洞里), 신포리(薪浦里)가 표기되어 있는데, 신포리는 나중에 서상리가 된다. 『강원도지지조서』는 서상면(西上面) 서상리(西上里)로 표기하였다. 『강원도지』는 신요리(新搖里), 흥묘리(興廟里)로, 『수춘지』는 서면(西面) 서상리(西上里)로 표기하였다. 『춘주지』와 『춘천백년사』는 서면(西面) 서상1리, 서상2리로 구분하였다. 현재 행정리는 서상리고 법정리는 서상1리, 서상2리이다.

유래 |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권산리, 신포, 뒷골을 병합하여 서상면사무소가 있으므로 서상리(西上里)라 하고 1934년 4월 1일 서면에 편입되었다.

● 곧은골

[별칭] 바른골

[형태] 골짜기

[위치] 북배산 밑에 있는 골짜기이다. 북배산은 서상리 남서쪽 끝에 있다.

[유래] 지역민은 ‘곧은골’로 부르지만, 최근 강원도 산림개발원에서 세운 종합안내도에는 ‘곧은골’이 ‘바른골’로 표기되어 있다. 의미상에서 차이가 없기에 함께 사용한다.

[어원풀이] ‘곧은[直]+골[谷]’로 분석된다. 곧게 뻗은 골짜기란 뜻으로 ‘바른골’도 같은 의미이다.

지명 ‘권산(權山)’은 ‘곡산(谷山)’에서 유래하였다.



골미

● 골미나루터

[별칭] 권산진두(權山津-)

[형태] 나루

[위치] 골미에 있던 나루터로, 서상1리 마을회관에서 직진으로 가장 가까운 북한강 강변에 위치한다. 현재는 나루터 흔적이 남아있지 않다.

[유래] ‘골미에 있는 나루터’. ‘권산진(權山津)’에 ‘-두(頭)’가 첨가된 것은 이 일대가 특이한 지형임을 보여준다. ‘마작구미’도 그 지형의 특이성으로 하여 이 일대에 소재하는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골미나루터

● 골미

[별칭] 곡미(谷尾), 권산리(權山里)

[형태] 마을

[위치] 서면 서상리 북쪽 일대로 서상1리 전역을 ‘골미’라고 한다. 서상2리는 ‘툇골’이라 부른다. 북한강에 가까이 있으며 북한강 너머로 용산3리가 보인다.

[유래] 서상리에서 가장 큰 마을이다. 골미에 있는 나루터를 골미나루 혹은 권산진두(權山津-)라고 한다. 도로지명 ‘골미길’이 산재한다. 권산리 지역은 1950년대 지도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어원풀이] ‘골[谷]+미/매/뫼[山]’로 분석된다. 한자

● 킹골

[형태] 골짜기

[위치] 미상이다.

[유래] 기준문헌에 구유처럼 생긴 골짜기라 하였다.

[어원풀이] ‘꿩/꿩[구유]+골[谷]’로 분석된다. ‘구유’는 소나 말 따위의 가축들에게 먹이를 담아 주는 그릇으로 흔히 큰 나무토막이나 큰 돌을 길쭉하게 파내어 만든다. ‘꿩’과 ‘꿩’ 모두 ‘구유’의 강원도 방언형이다.

● 널미들

[형태] 들

[위치] 월송천이 직각으로 꺾이는 안쪽 지점 남쪽 가까이에 있다.

[어원풀이] ‘널미+들’로 분석된다. 인근의 지형이 넓은 평지인 것으로 미루어 ‘널미’는 ‘넓은’의 의미를 지닌 어휘로 추정된다.

널미들



● 노루목고개

[형태] 고개

[위치] 다릿골을 지나 들어가면 나오는 고개로, 고개를 넘으면 오월리에 이른다.

[유래] 기준문헌에 ‘노루가 다니는 목이었던 고개’라 하였다.

[어원풀이] ‘노루[獐]+목[項]+고개[峴]’로 분석된다. 지명접미사 ‘목[項]’은 ‘목/목이/폐기/매기/모

기’ 등의 이형태를 가지며 ‘좁다란 산협이나 물속을 가로지르는 길목’을 뜻한다. 특히 ‘통로의 다른 곳으로는 빠져나갈 수 없는 중요하고 좁은 곳’을 말한다. 지명에서 ‘노루[獐]’는 실제 노루를 말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길게 늘어진’이란 뜻을 지닌 ‘늘, 느르’를 뜻한다.



노루목고개

● 논막골

[형태] 골짜기

[위치] 뒷골 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행정구역상 서상2리 1반이다.

[유래] 서상리 입구에서 안쪽으로 들어와 한마음리 조트 덜 가서 양지들 건너편 산에 있다.

[어원풀이] ‘논+막+골[谷]’로 분석된다. 유래는 불분명하다.



논막골

● 높은데기

[형태] 골짜기

[위치] 뱃골 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신매저수지에서 오월리 쪽 산간으로 가다보면 산을 개간해서 농사를 지었던 곳이 있다고 하는데 현재는 흔적을 찾을 수 없다.

[유래] 높은 곳이란 의미에서 생겨난 지명이다.

[어원풀이] ‘높은+데기’로 분석된다. ‘데기’는 다시 ‘덕(둔덕)+이(첩미사)’로 분석할 수 있다.

이다.

[유래] ‘두 개울이 합친 곳에 있는 골짜기’라는 뜻이다. 실제로 두 개의 개울이 합쳐지는 곳에 있다.

[어원풀이] ‘다리+ㅅ+골[谷]’로 분석된다. 디딜방아처럼 두 갈래로 갈라진 지형에서 유래하였다.



다리골

● 느릅나뭇들

[형태] 들

[위치] 서상리 입구에서 안쪽으로 들어오다가 ‘양지들’ 털 가서 있는 들이다.

[유래] 기존문헌에는 예전에 느릅나무가 있던 들이라 하였다.

[어원풀이] ‘느릅나무+ㅅ+들’로 분석된다.



느릅나뭇들

● 다리골

[별칭] 다릿골

[형태] 골짜기

[위치] 신매저수지에서 곧은골(바른골)로 가기 전 북쪽으로 난 길로, 신매저수지가 ‘ㄴ’자 모양이라고 보았을 때 짧은 쪽을 따라가면 나오는 골짜기

● 더랭이

[형태] 골짜기

[위치] 뱃골 북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신매저수지 동쪽에 있는 ‘뱃골’(서상리에 소재) 북쪽으로, ‘안지 매기들’ 북쪽 비교적 짧은 골짜기로 추정된다.

[유래] ‘다랭이’(썰매) 형상인 골짜기’ 또는 ‘작은 도랑이 있는 골짜기’란 의미로 추정된다.

[어원풀이] ‘더랭이’는 ‘다랭이’의 변형으로 추정된다. 긴 통나무 따위를 운반할 때에 그 통나무의 뱃부분을 얹어 끄는 데 쓰는 작은 썰매를 말한다. 이 경우 다랭이 형상의 골짜기가 된다. 이외에 ‘도랑/또랑(실개천)’의 방언형이라면 ‘더랭이’는 작은 도랑이 있는 골짜기가 된다.

● 또리골

[형태] 골짜기

[위치] 뱃골 동쪽 500m 지점에서 북쪽으로 곧게 들어가면 나온다. 행정구역상 서상2리 2반이다.

[유래] 기존문헌에 뱃골 북쪽에 있는 골짜기라 하였다.

[어원풀이] ‘또리+골[谷]’로 분석된다. ‘또리’의 의미는 불분명하다.



또리골

● 또리골고개

[형태] 고개

[위치] 또리골에 있는 고개로 뱃골에서 오월리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유래] 기존문헌에 또리골에 있는 고개라 하였다.
[어원풀이] ‘또리+골+고개’로 분석된다.

● 마당재

[형태] 골짜기

[위치] 미상이다.

[유래] 기존문헌에 뱃골 남쪽에 있는 골짜기라 하였다.

[어원풀이] ‘마당+재[峴]’로 분석된다. 비교적 넓고 평평한 고개란 의미로 추정된다.

● 마착구미

[형태] 터

[위치] 미상이다.

[유래] 기존문헌에 북한강이 마을쪽으로 후미져 들

어온 곳이라 하였다.

[어원풀이] ‘마착+구미’로 분석된다. 지명접미사 ‘-구미’는 ‘바다나 강가 주변에서 읍쪽 들어간 곳이 나 후미진 곳’을 뜻한다. 그 이형태는 ‘구미/귀미/후미’가 있다. ‘마착’의 의미는 불분명하다.

● 망태정골

[형태] 골짜기

[위치] 다리골 안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유래] 기존문헌에 옛날 어떤 사람이 망태 하나를 지고 와서 여러 대를 살았던 곳이라 하였다.

[어원풀이] ‘망태(망태기)+정+골[谷]’로 분석된다. 망태기 모양의 골짜기, 또는 망태기 모양의 정자가 있던 골짜기란 의미로 추정된다.

● 먹골

[별칭] 묵골

[형태] 골짜기

[위치] 가덕산에서 남동쪽 1.5km 거리에 있고, 신매저수지 서쪽 끝에서는 10시 방향 서쪽으로 1.8km 거리쯤에 있다. 어영골 안쪽 골짜기이다.

[유래] 기존문헌에 가덕산 밑에 있는 골짜기라 하였다.

[어원풀이] ‘먹(墨)+골[谷]’로 분석된다. ‘먹골배’는 배의 품종이 아니라 ‘묵골’에서 나는 품질이 좋은 배를 가리킨다.

● 면터골

[형태] 골짜기

[위치] 뱃골 서쪽에 있는 골짜기로 다릿골 쪽이다.

[유래] ‘뱃골’ 서쪽은 신매저수지(뱃골저수지)가 있어 수몰되었고 이로 인해 면터골도 수몰되었다.

[어원풀이] ‘면+터[垈]+골[谷]’로 분석된다. ‘면’은

대부분 ‘면사무소’와 관련된다. 이로 볼 때 ‘면터’는 과거에 면사무소가 있던 곳으로 추정할 수 있다.

● 멍에더기

[별칭] 가덕산

[형태] 산

[위치] 서상리와 오월리, 가평군이 만나는 곳에 있는 높이 858m의 산이다. ‘몽가북계’ 산행 코스 중 하나이다.

[어원풀이] ‘멍에+덕[둔덕]+이(첩미사)’로 분석된다. ‘가덕산(駕德山)’은 훈차표기이다.



바다리골

● 무지버덩

[별칭] 무지들

[형태] 들

[위치] 신매저수지에서 동쪽으로 2.5km 거리에 있다. 계속 2km쯤 동진하면 산자락을 벗어나 서상리 벌판에 이른다.

[유래] 기존문헌에 “예전에 숲이었던 곳을 개간하였다 함.”이라 하였다. 현재는 ‘무지들’이라 부른다.

[어원풀이] ‘무지(無枝)+버덩’으로 분석된다. 숲이 있던 곳을 개간하여 나무가 없는 버덩이 된 것이다. 지명첩미사 ‘버덩’은 높고 평평하며 나무는 없이 풀만 우거진 거친 들을 말한다.

● 바다리골

[별칭] 바타리골

[형태] 골짜기

[위치] ‘횡골’ 바로 위 북쪽에 ‘바다리골’이 있다.

[유래] 유래는 불분명하다.

● 범골

[형태] 골짜기

[위치] 미상이다.

[유래] 기존문헌에 뱃골 남쪽에 있는 골짜기라 하였다.

[어원풀이] ‘범[虎]+골[谷]’로 분석된다.

● 봉구실

[별칭] 범구실, 봉구개

[형태] 마을

[위치] 봉구교 인근으로 추정된다. 비교적 인근에 ‘모니정사(사찰)’와 ‘툇골자연화로오리(음식점)’가 있다. 봉구교는 신매저수지에 나온 월송천이 동쪽으로 흐르다가 ‘석갓(마을)’에 이르기 전 1km 전곡선으로 휘어져 흐르는 곳에 있다.

[유래] 기존문헌에 뱃골 어귀에 있는 마을이라 하였다. ‘산에 부엉이가 많고 하천에 거북이를 닮은 바위가 있는 마을’ 또는 ‘범이 사는 곳’이라는 유래가 있는데, 답사 결과 ‘부엉이가 많았던 지역’이라는 설명이 가장 유력해 보인다.

[어원풀이] ‘봉[부엉이]+구(龜)+실(室, 村)’로 분석된다. 이 마을의 산에 옛날부터 부엉이가 많았고, 그 옆에 있는 하천에는 거북이를 닮은 바위가 있었다고 한다. 이 바위는 봉구실 바위라고 한다. ‘봉’은

‘부엉이’의 줄임말인 ‘병’의 이형태로 볼 수 있다. 별칭인 ‘범구실’은 ‘범[虎]+구(口)+실(室, 村)’로 분석된다. 호랑이가 입을 벌리고 있는 모양이란 의미이다.

[유래담] 옛날 어느 집에서 보리타작을 한 뒤 너무 더워서 강에 가서 목욕을 하고 돌아와 마당에다 명석을 깔고 누워 있었다. 집에 울타리가 있기는 했으나 대충 만든 것이어서 약하고 불풀이 없었다. 그때 뭔가 굉장히 소리가 나면서 획 지나갔는데, 자세히 보니 범이 그 집 딸을 물어간 것이었다. 동네에 있던 포수 한 명이 범구실에서 내려온 호랑이일 거라 생각하여 재빨리 뒤따라갔다. 그러나 이미 호랑이가 처녀의 머리만 남기고 몸은 먹어치운 뒤였다. 예부터 호랑이가 사람 고기를 먹으면 꼬박 하루를 취해서 잔다는 말이 있다. 호랑이가 취해서 어딘가에서 자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 포수는 계속 해서 호랑이를 찾았다. 날이 샌 후에 그 밑에 있는 절벽 아래에서 자고 있는 호랑이를 발견하고는 총을 쏴서 죽였다. 커다란 호랑이는 순간 참나무를 물고 발악을 하다가 죽었다.



봉구실

● 봉구실바우

[형태] 바위

[위치] 기준문헌에 봉구실에 있는 바위라 하였다.

[어원풀이] ‘봉구실+바우[岩]’로 분석된다. ‘봉구실’

참조.

● 북배산

[형태] 산

[위치] 서면 서상리 산 147-2번지로 경기도 가평군과 강원도 춘천시에 걸쳐있는 산이다.

[유래] 산의 높이는 867m로, 가평군 북면과 춘천시 서면의 경계를 이룬다. 북쪽으로 뻗은 능선은 가덕산과 몽덕산을 지나 화악산에 이어진다. 남쪽으로는 계관산과 능선이 이어진다.



북배산

● 불당터

[별칭] 절골

[형태] 터

[위치] 서상리 동쪽 북한강 인근에 있는 마을이다.

[유래] ‘옛날에 불당이 있던 터’로 ‘탑말, 불당터, 양화사터, 절골’이 한 곳을 부르는 말로 추정된다. 서면에서 ‘불당터, 불당골’이라 불리는 곳은 현암리, 서상리, 오월리, 덕두원리, 안보리 등에 산재해 있다.

[어원풀이] ‘불(佛)+당(堂)+터[垈]’로 분석된다. 절(불당)이 있었던 곳이라 하여 ‘절골’이라고도 부른다.

● 삿갓봉

[형태] 산

[위치] ‘삿갓봉’은 한복정맥을 주맥으로 하여 귀목봉(1,036m), 화악산(1,468m), 응봉(1,436m)을 거쳐 북배산(867m)의 지맥이 뻗어 내려오다 가덕산(858m) 동쪽에서 솟은 산이다.

[유래] 기존문헌에 삿갓처럼 생긴 산이라 하였다.

[어원풀이] ‘삿갓+봉(峰)’으로 분석된다. ‘삿갓’은 비나 햇볕을 막기 위하여 대오리나 갈대로 거칠게 엮어서 만든 것이다.



삿갓봉

● 샛골

[형태] 골짜기

[위치] ‘황골’ 바로 위 북쪽에 ‘바다리골’과 ‘바다리골’ 북쪽 춘천댐 가까이에 ‘벌둔이골’이 있다. ‘벌둔이골’ 안쪽(서쪽)에 ‘샛골’이 있다. 행정구역상으로 서상1리이다.

[어원풀이] ‘새+ㅅ+골[谷]’로 분석된다. 지명접두어로 쓰이는 ‘새’는 ‘사이[間]’, ‘동쪽’ 등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기에 정확한 유래는 불분명하다.

● 서낭들

[형태] 들

[위치] 서상2리 2반으로 서상리에 있는 폐교 옆에 위치한 ‘들’이다.

[유래] 기존문헌에 예전에 서낭당이 있었던 들이라

하였다. 서면에 ‘서낭-’과 관련된 지명이 있는 마을은 서상리, 금산리, 현암리, 서상리, 신매리, 덕두원리 등이다.

[어원풀이] ‘서낭(서낭당)+들’로 분석된다.



서낭들

● 서상대교

[형태] 다리

[위치] 신매대교를 지나 서상리 북단부터 춘천댐까지 이어주는 서상리 북한강을 따라 강 위로 놓인 다리이다. 현재 행정구역상 오월리로 되어있다.

[유래] 기존교량을 제거하고 2013년 새로 건설되었으며, 서울에서 춘천시를 거치지 않고 춘천 서면을 통해 춘천과 화천을 직접 오가는 길인 북한강길 다리이다.

● 서상리삼층석탑(西上里三層石塔)

[형태] 탑

[위치] 서면 서상리 247번지이다.

[유래] 신라시대에 창건된 것으로 추정되는 양화사(楊花寺)에 있던 석탑이다. 탑신이 기울어져 지난 1980년에 해체 복원하였다. 높이 3.5m.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16호이다.



서상리삼층석탑

석갓

[별칭] 신포(薪浦)

[형태] 마을

[위치] 서상로와 월송천이 만나는 지점에서 서쪽으로 약 600m 거리에 있으며 월송천 바로 남쪽이다.

[유래] ‘섶(펠나무)이 많은 물가’란 의미이다. 신포(薪浦)라고도 한다.

[어원풀이] ‘석/섶[薪]+갓/가[浦]’로 분석된다. ‘섶(薪)’은 ‘펠나무’라는 뜻으로 ‘섬/섶/서’ 등의 이형태가 있다. 월송천 바로 아래에 있는 이곳은 옛날에 섶(펠나무)이 많았다고 한다.



석갓

소징갯골

[별칭] 소진갯골

[형태] 골짜기

[위치] 뱃골 서쪽에 있는 골짜기로, 지금은 신매저수지(뱃골저수지)가 생기며 수몰되었다.

[어원풀이] ‘소징/소진+개[溪]+ㅅ+골[谷]’로 분석된다. ‘송진(松津)’의 고어인 ‘소진/소징’과 연관 지을 수 있다. ‘소징갯골’보다 ‘소진갯골’로 많이 부른다.



소징갯골

쇠막골

[별칭] 새막골

[형태] 골짜기

[위치] 뱃골에서 북쪽으로 갈라져 들어간 골짜기로, 또리골 위쪽으로 첫 번째 골짜기이다.

[유래] 기존문헌에 옛날에 쇠[金]가 났던 골이라 하였다.

[어원풀이] ‘쇠[鐵]+막(幕)+골[谷]’로 분석된다.



쇠메기

[형태] 골짜기

[위치] 미상이다. ‘쇠막골’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유래] 기존문헌에 소가 누운 듯한 모양의 골짜기라 하였다.

[어원풀이] ‘쇠/소[牛]+메기’로 분석된다.

● 수여울

[별칭] 쉬여울

[형태] 여울

[위치] 기존문헌에 북한강에 있는 여울이라 하였다. 현재는 수몰된 것으로 추정된다.

● 신매저수지

[별칭] 뒷골저수지

[형태] 저수지

[위치] 서면 서상리 931-2번지로, 서상리 북한강변에서 서쪽으로 5km 거리에 있다.

[유래] 현지에서는 ‘뒷골 저수지’라고도 불리는 신매저수지는 1985년에 준공된 4만8천평의 계곡이다. ‘춘천의 소양호’라고 불릴 만큼 경치가 아름답고 물이 맑은데 평균수심이 5~6m로 깊다.



신매저수지

● 신탑들

[형태] 들

[위치] 서상3교를 거슬러 올라가는 방면으로 오른쪽에 펼쳐진 들이 ‘신탑들’이다. 월송천과 마을회관 사이의 들이라고 할 수 있다.

[어원풀이] ‘신+탑(塔)+들[坪]’로 분석된다. 탑마을 동쪽 들판이란 의미로 추정된다.

● 아랫걸찌

[형태] 골짜기

[위치] 서상리 뒷골 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서상리에 남아있는 폐교 터 정문 앞이다. 폐교는 중간말에 있다. 주변에 ‘윗걸찌’라고 불리는 골도 있는데 골이 상대적으로 작다.

[유래] 아랫개천(도랑)이 있는 골짜기이다.

[어원풀이] ‘아래[下]+ㅅ+걸찌’로 분석된다. ‘걸찌’를 다시 ‘걸+ㅅ+지’로 형태소 분석하면 ‘걸’은 ‘개울, 도랑, 실개천’을 의미하는 고어로 볼 수 있다. ‘-지’는 땅(골짜기)이다.



아랫걸찌

● 아랫말

[형태] 마을

[위치] 신매저수지에서 동쪽으로 월송천이 흘러 북한강에 이르는데 그 중간쯤에 ‘아랫말’이 있다.

[유래] 서상리 아래쪽에 있는 마을이다.

[어원풀이] ‘아래[下]+ㅅ+말/마을’로 분석된다.

● 안지매기

[별칭] 안지매기들

[형태] 들

[위치] 신매저수지에서 동쪽으로 1km 정도 거리에 있는 들로 그 중간쯤에 ‘툇골’이 있다. ‘안지매기들’ 북쪽 골짜기는 ‘또리골’이고 동편 바로 건너편에 ‘양짓들’이 있다.

[유래] 기존문헌에 안지매기고개 밑에 있는 들이라 하였다. 요즘은 ‘안지매기들’이라 부른다.

[어원풀이] ‘안지(安地)+매기[項]’로 분석된다. ‘안지(安地)’는 비탈이 심하여 앓아서 안전하게 가야 하는 땅 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 지명접미사 ‘-매기’는 ‘통로의 다른 곳으로는 빠져나갈 수 없는 중요하고 좁은 곳’을 가리킨다. 또는 ‘앓다’의 이형태인 ‘안다’에 ‘기다’의 방언형인 ‘지다’가 결합한 형태로 분석할 수도 있다. 앓아서 기어가야 하는 고개란 의미이다.



안지매기

고개라 부른다.

[유래] 기존문헌에 비탈이 심하여 앓아서 기어간다는 고개라 하였다.

[어원풀이] ‘안지(安地)+매기[項]+고개’로 분석된다. ‘안지매기’ 참조.



안지매기고개

● 양지뜰

[별칭] 양짓들

[형태] 들

[위치] 신매저수지에서 동쪽으로 1.1km 정도 거리에 있는 들로, 그 중간쯤에 ‘툇골’이 있다. ‘안지매기들’의 동쪽 바로 건너편이다.

[유래] 기존문헌에 양지 쪽에 있는 들이라 하였다.

[어원풀이] ‘양지(陽地)+뜰’로 분석된다.



양지뜰

● 안지매기고개

[형태] 고개

[위치] 안지매기들 뒤쪽에 가파른 고개를 안지매기

● 양화사터(楊花寺-)

[별칭] 절골

[형태] 터

[위치] 서상리 동쪽 북한강 인근의 텁마을에 있는 절터이다.

[유래] 텁마을에 있었던 절터로 양화사에 있던 서상리3층 석탑이 고개에 남아 있다.

[어원풀이] ‘외+자국+고개’로 분석된다. 유래는 불분명하다.



외자국고개

● 어영골

[별칭] 광산골

[형태] 골짜기

[위치] 신매저수지 남쪽에 있는 골로 ‘곧은골(바른골)’에서 갈라진 골짜기이다. ‘광산골’로 이어져 ‘광산골’이라고도 부르며 ‘광산골’과 반대로 갈라진 ‘가지골’은 ‘멱골’이라 부른다.

[유래] 기존문헌에 외양간 모양으로 생긴 골짜기라 하였다.

[어원풀이] ‘어영+골[谷]’로 분석된다. ‘어영’은 ‘외양(-간)’의 이형태이다.



어영골

● 외자국고개

[형태] 고개

[위치] 서상리에서 월송리로 가는 고개로 고갯길은 예전과 차이가 있다.

● 웃걸찌

[형태] 골짜기

[위치] 서상리 뒷골 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서상리에 남아있는 폐교터 정문 앞이다. 폐교는 중간말에 있다.

[유래] 기존문헌에 뒷골 남쪽에 있는 골짜기라 하였다.

[어원풀이] ‘우[上]+ㅅ+걸찌’로 분석된다. ‘걸찌’를 다시 ‘걸+ㅅ+지’로 형태소 분석하면 ‘걸’은 ‘개울, 도량, 실개천’을 의미하는 고어로 볼 수 있다. ‘-지’는 땅(골짜기)이다.

● 웃말

[별칭] 상촌(上村)

[형태] 마을

[위치] 신매저수지 서쪽 끝으로 들어오는 골짜기에 있는 마을이다. 현재 인근에 캠핑장들이 있다.

[유래] 서상리 위쪽에 있는 마을이라고 해서 웃말 또는 상촌(上村)이라 부른다.

[어원풀이] ‘우[上]+ㅅ+말/마을’로 분석된다.



웃말

● 응달들

[형태] 들

[위치] 서상2리 양지들 건너편으로 현재 한마음리 조트 자리이다.

[유래] 기존문헌에 뒷골 남쪽 응달쪽에 있는 들이라 하였다.

[어원풀이] ‘응달+들’로 분석된다.



응달들

● 장설맷들

[형태] 들

[위치] 기존문헌에 뒷골 북쪽에 있는 들이라 하였다.

[어원풀이] ‘장(長)+설+매/미/뫼[山]+ㅅ+들[野]’로 분석된다. ‘-설매/설뫼/설미-’는 신동면 팔미리 지명에도 나오는데 ‘야트막한 산’으로 해석된다. 따

라서 ‘장설맷들’은 ‘야트막한 산등성이로 길게 이어진 들녘’이란 의미로 추정된다.

● 중간말

[형태] 마을

[위치] 서상리 중간에 있는 마을 또는 ‘사리와 보가터의 중간에 있는 마을이다. ‘사리’와 ‘보가터’는 신매리 소재이다.

[유래] 예전엔 월송천과 위도 북단의 북한강의 소지류가 만나 오미나루로 흘러(오미강/오매강) 다시 북한강에 합류했다. 북한강에 홍수가 나면 이곳(사리沙里, 사리들, 중간말, 보가대, 된섬/위도)을 휩쓸곤 하였다.

[어원풀이] ‘중간[間]+말/마을’로 분석된다.



중간말

● 탑골

[형태] 골짜기

[위치] 서면 서상리 동쪽 북한강 인근에 있는 골짜기로 탑마을 쪽이다. 행정구역으로는 서상1리이다.

[유래] 통일신라 후기 때 창건된 양화사(楊花寺)는 없어졌고 삼층석탑만 남아있기에 이 탑이 있는 마을의 골짜기이다.

[어원풀이] ‘탑(塔)+골[谷]’로 분석된다.

● 텁말

[별칭] 텁마을

[형태] 마을

[위치] 서상리 동쪽 북한강 인근에 있는 마을로 서상1리이다.

[유래] 텁이 있는 마을로 양화사(楊花寺)에 딸렸던 높이 424cm의 3층 석탑을 말한다. 월송천과 서상로가 교차하는 지점 북동 사이에 ‘신탑들’이 있다. ‘텁말’은 현재 동과 북에 서너 가구뿐이다. 옛날에 절이 있던 터로 ‘텁말’, ‘불당터’, ‘양화사터’, ‘절골’이 한 곳을 부르는 말로 추정된다.

[어원풀이] ‘텁(塔)+말/마을’로 분석된다.

쉬다가 나갔다고 하여 물러날 ‘퇴(退)’ 자를 써서 뒷골이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어원풀이] ‘퇴(退)+ㅅ+골[谷]’로 분석된다.



뒷골 입구 안내판



텁말

● 뒷골

[별칭] 퇴동리(退洞里)

[형태] 마을

[위치] 신매저수지에서 동쪽으로 1km 정도 거리에 있다. ‘뒷골’ 앞으로 월송천과 도로지명 ‘뒷골길’이 나란히 이어진다.

[유래] 조선시대에 윤세호(尹世豪)라는 사람이 불인 이름이라고 한다. 당시 당쟁으로 인해 정권 다툼이 심해지자 윤 판서가 이곳에 들어와서 은거 생활을 했다. 그러다가 정권이 바뀌면서 다시 조정의 부름을 받고 나가게 되었다. 윤 판서가 이곳에 와서 잘

● 퇴동현

[별칭] 퇴동현(退洞峴), 깎은봉

[형태] 고개

[위치] 기존문현에 뒷골에 있는 고개라 하였다.

[어원풀이] ‘퇴(退)+ㅅ+골[谷]+고개[峴]’로 분석된다.

● 화전마을

[형태] 마을

[위치] 석갓마을 쪽을 말한다.

[유래] 화전민들이 모여 살게 되며 만들어진 마을이 아니라 서면 일대에 있는 사람들을 모아 화전민 이주정책을 펼치며 만든 마을이다.

[어원풀이] ‘화전(火田)+마을[村]’로 분석된다.

● 황골

[형태] 골짜기

[위치] 서상리 북쪽 좁혀지는 길목에서 춘천댐으로 향하는 서편에 있다. ‘뒷골’은 서상리 서쪽 내륙이고 ‘황골’은 북한강가에 있다. ‘황골’ 바로 위 북쪽

에 ‘바타리골’과 ‘바타리골’ 안쪽(서쪽)에 ‘샛골’이 있다. 현재 행정구역상으로는 서상1리이다.

[유래] 기존문헌에 뒷골 북쪽에 있는 골짜기라 하였다.

[어원풀이] ‘황(黃)+골[谷]’로 분석된다. 길게 늘어진 골짜기란 의미로 추정된다.



황골

● 흑칫골

[형태] 골짜기

[위치] 다리골 안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유래] 기존문헌에 뒷골 북서쪽에 있는 골짜기라 하였다.

[어원풀이] ‘흑(黑)+칫(峙)+골[谷]’로 분석한다. 유래는 불분명하다.

위치와 현황 | 동쪽으로 북한강이 흐르며, 골미나루터와 위도유원지가 있다. 자연마을로는 사리말, 오미(梧美), 우앵이 등이 있다.

연혁 | 『춘주지』를 보면 서상(西上)에 사리(沙里), 보가기(寶加基)가 있다. 『여지도서』, 『호구총수』, 『춘천읍지』, 『춘천부지』, 『관동읍지』는 반송리(盤松里), 오매리(梧梅里), 사리(沙里), 보가대리(寶加垈里)를 표시하였는데 나중에 이곳이 신매리가 된다. 『조선지지자료』는 서상면(西上面) 오매상리(梧梅上里), 오매하리(梧梅下里), 보대리(寶垈里), 사리(沙里)를 표시하였다. 『강원도지지조서』는 서상면(西上面) 신매리(新梅里)라 하였고, 『수춘지』는 서면(西面) 신매리(新梅里)라 표기하였다. 『춘주지』와 『춘천백년사』는 서면(西面) 신매1리, 신매2리, 신매3리로 구분하였다. 현재 행정리는 신매리고 법정리는 신매1리, 신매2리, 신매3리다.

유래 |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오매하리, 사리, 반송하리, 신포리의 각 일부와 오매상리, 보가대리를 병합하여 신포(新浦)와 오매(梧梅)의 이름을 따서 신매리(新梅里)라 하고 1934년 서면에 편입하였다.

● 고슴도치섬

[별칭] 위도(蠣島), 된섬

[형태] 섬

[위치] 신매리 3번지이다. 춘천시 서북쪽 8km 지점의 의암호에 있는 섬으로 북한강 줄기에 있다.

[유래] 섬의 모양이 고슴도치를 닮았다 하여 고슴도치섬, 혹은 위도(蠣島)라 부른다.

[어원풀이] 1. ‘고슴도치[蠣]+섬[島]’으로 분석된다. 예전 모습이 고슴도치를 닮았다 하여 고슴도치섬이라 불렀다고 한다. 혹은 돼지의 모습을 닮아 돼지의 방언인 ‘돗’을 붙여 ‘돗섬’이라 불렀는데, 이후 ‘돗→도치→고슴도치’가 되었다는 설도 있다.
2. ‘위[上]+도(島)’로 분석하기도 한다. 서면 일대 북한강에 있는 섬 중 가장 위쪽에 있어 ‘윗섬→위섬→위도’가 된 것이라는 설이 있다.
3. ‘된+섬’으로 분석하기도 한다. ‘된’은 ‘된바람[北風]’처럼 ‘북쪽’을 가리키는 옛사람들의 은어이다. ‘된섬’은 예전 수로를 이용하던 춘천 사람들에게는 북한강의 북쪽 섬으로 인식되었을 것이다. 반면 북한강, 소양강, 공자천이 합류하는 지역을 ‘마삼내(마삼천, 三川洞)’라 한 것은 춘천 사람들에게 ‘마파람[南風]’처럼 남쪽 마을이 되어, 북쪽 ‘된섬[北島]’과 대응하게 되었다. 혹은 ‘되다→된’에서 온 것으로 땅이 척박해서 농사짓기 어렵다는 의미이다.



고슴도치섬

● 독바우

[형태] 바위

[위치] 성재봉과 고산 사이에 있는 바위로, 현재는 수몰되었으나 수위가 낮아지면 가끔 그 모습이 보이기도 한다.

[유래] 독처럼 생겼다는 바위이다.

[어원풀이] ‘독(옹기)+바우(바위)’로 분석된다.

● 뒷개벼덩

[형태] 들

[위치] 신매리 뒤쪽에 있는 개흙으로 된 벼덩을 말한다.

[어원풀이] ‘뒤[後]+ㅅ+개[溪]+벼덩’으로 분석된다. 지명첩미사 ‘벼덩’은 높고 평평하며 나무는 없이 풀만 우거진 거친 들을 말한다.

● 뒷골

[형태] 골

[위치] 신매리에서 금산리로 가는 길 중간에 있는 골짜기로 장산과 서낭고개 근처에 있는 골짜기이다.

[어원풀이] ‘뒤[後]+ㅅ+골[谷]’로 분석된다.



뒷골

● 모자바우

[별칭] 사포바우

[형태] 바위

[위치] 신매리 620번지에 있다.

[유래] 모자(사포)처럼 생긴 바위를 말한다.

[어원풀이] ‘모자+바우[岩]’로 분석된다. 모자처럼 생긴 바위란 의미이다. 별칭인 ‘사포바우’에서 ‘사포’는 ‘전립(戰笠)’을 속되게 이르는 말이다. 조선 시대에 무관이 쓰던 모자의 하나로써, 붉은 텔로 둘레에 끈을 꼬아 두르고 상모(象毛), 옥로(玉鷺) 따위를 달아 장식하였으며 안쪽은 남색의 운문대단으로 꾸몄다. 일명 ‘벙거지’라고도 한다.

[유래담] 반남박씨 종중산에 있는 큰 바위로, 예전에 길을 만드느라 바위를 부수었더니 바위가 쪼개진 곳에서 붉은 피가 흘러내렸다고 한다. 그 이후로 반남박씨 가문이 망했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모자바우

● 뵈밀

[별칭] 뵈밀터

[형태] 마을

[위치] 장산 밑에 있는 마을. 장산 밑 춘천신매리석 실고분에서 신매터널까지의 일대를 이른다.

[유래] 신매리에서 금산리 방향으로 아래쪽에 있는 마을이다. 장산 밑에 있는 마을이라 하여 산 밑에 있다는 뜻으로 ‘뵈밀’이라고 부르다가 ‘뵈밀터’로 변했다. 뵈밀의 ‘뵈’가 ‘묘(墓)’의 이형태라는 설도

있으나, 춘천신매리석실고분이 발견되기 이전부터 ‘뵈밀’이라 불렸기 때문에 여기서 ‘뵈’는 산을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어원풀이] ‘뵈[山]+밀+터[垈]’로 분석된다. 장산 밑에 있어 뵈밀이라 한다.



뵈밀

● 바닷들

[별칭] 해평(海坪), 바다뜰

[형태] 들

[위치] 신매터널에서 보가터, 사리말까지 이르는 넓은 들을 말한다. 오미나루에서 ‘바닷들’까지 포함하는 넓은 일대를 아울러 오미라고 한다.

[유래] ‘바닷들’의 안쪽을 ‘안바닷들/내해평(內海坪)’이라 부른다. 신매리에서 가장 넓은 들은 예전부터 북한강의 홍수 피해를 자주 입던 ‘사리’로부터 서쪽으로 ‘보가터’를 지나 ‘널미들’에 이르는 들 넓이다. 홍수로 물이 범람하면 물이 가득 찬 모습이 넓은 바다와 같다고 하여 ‘바닷들’이라고 부르며, 그중 안쪽을 ‘안바닷들/내해평(內海坪)’, 바깥쪽을 ‘빗바닷들/외해평(外海坪)’이라 한다. ‘안바다뜰’, ‘바깥바다뜰’이라고도 불렸다. 을축년 장맛비가 많이 와서 이곳에 바다처럼 물이 가득 쌌었다고 한다. 그때 배를 타고 다니기도 해서 ‘바다뜰’이라고 불렸다는 설도 전한다.

[어원풀이] ‘바다[海]+ㅅ+들[坪]’로 분석된다.



바닷들

● 뱃바닷들

[별칭] 바깥바다뜰, 외해평(外海坪)

[형태] 들

[위치] 신매리 북쪽 일대에 있는 들을 ‘바닷들’이라고 하는데, 그중 바깥쪽 강가에 있는 넓은 들을 말한다. 신매터널과 사리말 사이에 있다.

[유래] ‘바닷들’의 바깥쪽을 ‘밧바닷들/외해평(外海坪)’이라 부른다.

[어원풀이] ‘밧/밖[外]+바다[海]+ㅅ+들[坪]’로 분석된다. ‘바닷들’ 참조.



밧바닷들

● 보가터

[별칭] 보가대(寶家垈), 보가대(寶加垈), 보가사

[형태] 마을

[위치] 신매리 489번지 일대로, 신매리 서북쪽에 있는 마을이다. 월송천과 서상로가 만나는 지점에서 남쪽으로 700m 거리에 있으며, 월송천을 사이에 두고 월송리와 맞닿아 있다.

[유래] 주민들이 살기 좋은 마을이라 하여 보가터 또는 보가대라 불렀으며, 보가사라고도 한다. 지금은 ‘보가터’라 부른다.

[어원풀이] ‘보가(寶家)+대[垈]’로 분석된다. ‘터’는 집이나 건물을 지었거나 지을 자리이다.



보가터

● 사리들

[별칭] 사릿들

[형태] 들

[위치] ‘사리’에 있는 들을 말한다. ‘보가터’ 동쪽,



사리들

북한강변 가까이에 있으며, 월송천에서부터 남쪽으로 1km 정도 펼쳐진 북한강변 들녁이다. [어원풀이] ‘사리(沙里)+들[坪]’로 분석된다. ‘사리 말’ 참조.

● 사리말

[별칭] 사리(沙里)

[형태] 마을

[위치] 신매리 북동쪽 일대로 ‘보가터’의 동쪽에 있는 마을이다. 보가터와 작은 내를 사이에 두고 있다. 북한강변 가까이에 있으며, 월송천의 남쪽이다. [유래] 땅에 모래가 많아 사리라고 부른다. 예전엔

월송천과 위도 북단의 북한강의 소지류가 만나 오미나루로 흘러(오미강/오매강) 다시 북한강에 합류했다. 북한강에 홍수가 나면 이 영역(사리沙里, 사리들, 중간말, 보가대, 된섬/위도)을 휩쓸곤 하였다. 지금은 ‘사리말’로 부른다.

[어원풀이] ‘사[沙]+리(里)+말[村]’로 분석된다. 강가에 있어 땅에 모래가 많은 마을이다.



사리말

● 상두개울

[별칭] 월송천, 상뚜깨울, 헛골개울

[형태] 하천

[위치] 헛골에서 내려와 신매리와 서상리 사이를

흐르는 개울

[유래] 월송리에서 발원하여 북한강으로 흘러 들어가는 내라고 하여 ‘월송천’이라 부르나, 실제로는 서상리 헛골에서 발원하여 신매저수지를 거쳐 북한강으로 내려오는 물이다. 헛골에서 내려오는 물이라 하여 지역 사람들은 헛골개울이라고도 한다. 월송천은 신매리와 서상리의 경계를 두고 흐른다.

[어원풀이] ‘상두/상투+개울’로 분석된다. ‘상투’의 본디말은 ‘상두’이고, ‘상여(喪輿)’의 속어도 ‘상두’라 한다. 속담 ‘상두 술에 낮내기’는 남의 것을 가지고 제 생색을 낸다는 말이다. ‘상두 술’은 상가(喪家)에서 내는 술이다.



상두개울

● 샛골

[형태] 골짜기

[위치] 신매리와 월송리 경계에 있는 골짜기이다.

[유래] 신매리와 월송리 경계에 있는 골짜기로, 두 마을 사이에 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신매리 서상초등학교 서쪽과 월송리 한국농어촌공사서상 저수지 사이 골짜기로 개울이 흐른다. 이 ‘사이 골짜기’가 예전의 ‘샛골’이다. 지금은 주변 일대가 크게 개간되어 예전 골짜기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다.

[어원풀이] ‘새/사이[間]+ㅅ+골[谷]’로 분석된다. 두 마을 사이에 있는 골짜기란 의미이다.



샛골

● 서낭고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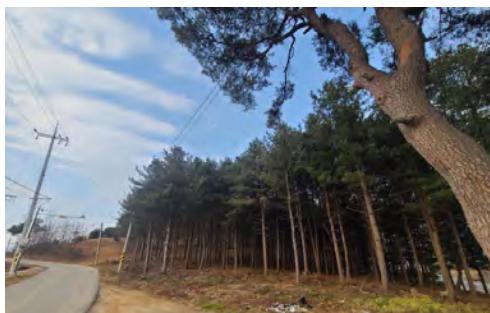
[별칭] 짜작고개, 자작고개

[형태] 고개

[위치] 월송2리와 신매3리를 넘나드는 고갯길이다.

[유래] 월송2리와 신매3리를 넘나드는 고갯길로 자작나무와 서낭이 있었다. ‘짜작고개’라고도 불렸다. 요즘은 ‘서낭고개’로 부른다. 덕두원리와 방동리를 넘나드는 고개도 ‘자작고개’라 부른다.

[어원풀이] ‘서낭+고개’로 분석된다. ‘서낭’은 서낭신이 붙어 있는 나무를 말한다. 실제로 고개 초입에 커다란 소나무가 하나 있다. 별칭인 ‘자작고개/짜작고개’는 ‘자작/짜작[자작나무]+고개’로 분석된다.



서낭고개

● 서원터

[별칭] 도포서원터(道浦書院-)

[형태] 터

[위치] 박사로 1148-15번지로 우양마을 근처이다.

[유래] 장절공(壯節公) 신승겸(申崇謙)을 배향했던 도포서원(道浦書院)의 터이다. 예전에 서원이 있던 곳이라 하여 이렇게 부른다.

[어원풀이] ‘서원(書院)+터[垈]’로 분석된다. 여기서 서원은 도포서원(道浦書院)을 말한다.



서원터

서면

● 소떼매기

[별칭] 소떼배기, 쇠때매기, 쇠떼배기

[형태] 마을

[위치] 오미나루와 강원경찰총혼탑 근처에 있는 마을

[유래] 소 떼를 매어 놓던 들이 있는 마을이라 하여 소떼매기, 소떼배기라 부른다. 예전에 솟대가 서 있던 마을이라 솟대배기라고 부른다는 설도 전한다.



소떼매기

[어원풀이] ‘소[牛]+떼[群]+매+기[基]’로 분석된다.

또는 ‘소떼[牛群]+매기[馬基]’로도 분석된다.

● 신동배터

[형태] 나루

[위치] 서상리삼층석탑 근처에 있는 배터이다.

[유래] 서상리삼층석탑에서 용산리로 넘어가는 배터이다. 신매리 오미나루터에서 신동의 배터인 옥산포로 통하는 배터라는 설도 있다.



신동배터

● 신매대교

[형태] 다리

[위치] 신동과 신매리를 오가는 위도(고슴도치섬) 위를 지나는 신샘밭로 다리이다.



신매대교

● 신매리 석실고분

[형태] 무덤

[위치] 신매리 177-14번지로 장산 아래쪽 끼밀터 초입에 있다.

[유래] 고구려형식의 무덤으로 1982년 11월 3일에 강원도기념물 제46호로 지정되었다. 형식적인 면으로 보아 고구려의 전통무덤 축조형식을 따르고 있어 6세기 전후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신매리 석실고분

● 신매리 유적

[형태] 터

[위치] 신매리 302번지 일대이다.

[유래] 청동기시대에서 삼국시대의 다양한 유적이 발굴된 신매리유적은 2007년 11월 14일에 사적 제489호로 지정되었다. 북한강 옆의 충적대지에 형성된 취락유적으로, 1981년 국립중앙박물관이 청동기시대 주거지를 처음 발굴조사 한 이후 한림대학교박물관, 강원문화재연구소에 의한 지속적인 지표조사와 발굴조사를 통하여 신석기~삼국시대에 이르는 주거지와 무덤이 밀집 분포된 복합유적으로 확인된다. 특히 지난 1996년 신매대교 접속 도로 개설을 위한 발굴조사에서 우리나라 청동기 시대의 유적으로는 이른 시기에 속하는 주거지와 유물들이 확인되었을 뿐만 아니라 시기를 달리하

는 주거지와 유물들이 출토되어 우리나라 동북지역과 한강유역을 연결하는 중요한 유적으로 확인되었다.

● 신매터널

[형태] 터널

[위치] 신매교차로를 지나 서상로로 북진하자마자 이어지는 터널이다. 터널을 지나 월송리, 오월리로 갈 수 있으며, 화천까지 이어진다.



신매터널

● 안바닷들

[별칭] 안바다뜰, 내해평(內海坪)

[형태] 들

[위치] 신매리 북쪽 일대에 있는 들을 바닷들이라고 하는데, 그중 안쪽에 있는 넓은 들을 말한다. 신매터널과 보가터 사이에 있다.



안바닷들

[유래] ‘바닷들’의 안쪽을 ‘안바닷들/내해평(內海坪)’이라 부른다.

[어원풀이] ‘안[内]+바다+ㅅ+들[坪]’로 분석된다. ‘바닷들’ 참조.

● 오미(梧美)

[형태] 마을

[위치] 오미나루에서 서상초등학교까지의 일대로 신매 2리이다.

[유래] 신매리의 중심이 되는 마을로 오미나루와 사리말 사이에 있다. 어느 한 마을만이 아닌 신매2리 일대 혹은 오멋들 전체를 오미라고 부르기도 한다.

[어원풀이] 1. ‘오미’는 평지보다 낮으면서 늘 물이 파여 있는 곳을 이르는 토박이말이다. 북한강이 ‘위도’ 주변을 흐르는 ‘오미강/오매강’과 ‘오미나루’ 등의 지형지세에서 ‘오미/오매’에 대한 해석은 일단 ‘평지보다 조금 얕은 곳으로, 늘 물이 파여 있는 곳’을 뜻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2. ‘오(鰐)+뫼[山]’로 분석되어 ‘자라산’이란 의미를 지닌다. 마을 앞에 있는 ‘고산’을 말한다. 고산이 보이는 마을이라 하여 오미라고 한다는 설도 전한다.



오미

● 오미나루

[별칭] 오미나루터, 진두

[형태] 나루

[위치] 오미에 있는 나루이다. 위도와 고구마섬 사이에 있으며, 신매3리마을회관 남동쪽 300m 거리에 있다. 강원경찰총thon 탑 바로 앞에 있던 나루이다.

[유래] 진두마을로 불리던 마을과 건너편의 춘천시 사농동을 이어주던 나루터이다. 나루터로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6세기 무렵으로 추정된다. 예전에는 우마차를 건네주던 규모였다고 한다. 1968년 의암댐이 생긴 뒤로 동력선 선착장으로 사용하였으나 2000년 신매대교가 개통된 이후로는 이용하지 않는다.

[어원풀이] ‘오미(梧美)+나루’로 분석된다. ‘오미’ 참조. 별칭인 ‘진두(津頭)’는 강이나 내, 또는 좁은 바닷목에서 배가 건너다니는 일정한 곳을 말한다.



오미나루

● 오미들

[형태] 들

[위치] 오미나루터와 신매 3리 근방의 넓은 들넓이다. 진두마을, 오미나루, 쇠때배기를 모두 포함하는 넓은 지역이다.

[어원풀이] ‘오미(梧美)+들[坪]’로 분석된다. ‘오미’ 참조.



오미들

● 우양(禹楊)

[별칭] 우앵이, 우예, 우양이, 해양

[형태] 마을

[위치] 신매리 904-9번지 일대이다.

[유래] 수백년 전에 우(禹) 씨네와 양(楊) 씨네가 많이 살았던 마을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 전한다.

[어원풀이] ‘우(禹氏)+ 양(楊氏)’으로 분석된다. 우씨와 양씨가 살았던 마을이란 의미이다.

[유래담] 어느 우씨네 청년이 강에 나갔다가 커다란 잉어를 잡아 왔다. 잉어를 대문에 놨더니 꼬리로 문지방을 톡톡 치면서 눈에서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이것을 본 양씨네 할아버지가 “이렇게 큰 것은 영물이니 먹으면 안 된다. 갖다 놔 줘라.”하고 말했다. 그러나 젊은이는 어차피 물고기인데 먹어서 안 될 게 뭐 있느냐면서 그걸 잡아먹었다. 그날 밤 노인이 잠을 자는데 꿈에 하얀 산신령이 나와서 “당신은 어서 피하시오. 잉어를 죽였기 때문에 너는 여기를 가만둘 수가 없소. 그러니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고 그냥 도망가시오.”하고 알려주었다. 노인은 급하니 할 수 없이 손주 하나만 안고 도망쳤다. 산 정상으로 올라가니까 큰 소리와 함께 억수같이 비가 내리고, 샛강이 톡 터지면서 홍수가 나서 동네가 물마다가 되어 벼렸다. 그렇게 동네에 살던 우씨네와 양씨네가 모두 망했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우양

● 우양이여울

[별칭] 우양리여울

[형태] 여울

[위치] 우양리와 고산 사이에 있는 여울이다. 의암 호에 수몰되었다.

● 장산(長山)

[별칭] 긴산

[형태] 산

[위치] 신매리 산25번지 일대로, 춘천신매리석실 고분 뒤쪽에 있는 산이다.

[유래] 야트막한 산이 길게 쭉 뻗어 있어 장산(長山), 또는 긴산이라고 한다. 산의 골이 깊지 않고 평坦한 산등성이가 길게 이어진다. 현재는 주로 장산이라 불린다.



장산

[어원풀이] ‘장(長)+산(山)’으로 분석된다. 야트막한 산이 길게 쭉 뻗어 있어 장산이라고 한다.

● 쟁강여울

[별칭] 잔강여울, 잔여울

[형태] 여울

[위치] 고구마섬과 고산 사이를 흐르는 물을 말한다.

[유래] 고구마섬과 고산 사이에 있는 여울이다. 오미나루 근처에 있었으나 의암호로 인해 현재는 수몰되었다.

[어원풀이] ‘쟁강[자양강]+여울’로 분석된다. 쟁강에 있는 여울이란 의미로, 신매강을 자양강이라고도 한다.

● 진두말

[별칭] 진두촌(津頭村), 진두위상, 진터, 진두마을

[형태] 마을

[위치] 오미나루와 서면파출소 사이에 있는 마을이다.

[유래] 오미나루 근처에 있는 마을로 진두마을, 진두촌(津頭村)이라고도 부른다.

[어원풀이] ‘진두(津頭)+말(마을)’로 분석된다. 진두 즉 나루터가 있는 마을이라는 뜻이다. 오미나루 근처에 있는 마을이라 붙은 이름이다.



진두말

● 하퇴동

[별칭] 아랫툇골

[형태] 골짜기

[위치] 서상리를 지나는 서상로와 ‘월송천’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서쪽 ‘신매저수지’ 방향으로 2.5km쯤 가면 ‘하퇴동’이다. ‘툇골’은 다시 2.5km쯤 서진하면 나온다.

[유래] ‘툇골’ 아래에 있다 해서 ‘하퇴동(아랫툇골)’이라고 붙여진 지명이다.

[어원풀이] ‘하(下)+퇴동(退洞)’으로 분석된다.

● 형제바우

[형태] 바위

[위치] 북한강 가에 있는 바위이다.

[유래] 바위 셋이 형제처럼 나란히 서 있어서 ‘형제바위(바우)’라고 부른다고도 한다.

위치와 현황 | 북쪽으로 계관산이 있고 남쪽으로 북한강이 흐른다. 자연마을로는 고역터, 노동골, 안비, 안말 등이 있다.

서면

연혁 | 『여지도서』, 『호구총수』, 『춘천읍지』, 『춘천부지』, 『관동읍지』는 서하면(西下面) 안보리(安保里)라 표기하였다. 『조선지지자료』는 서하이작면(西下二作面)에 고역촌(古驛村), 안보리(安保里), 탑동(塔洞)을 표기하였다. 『강원도지지조서』는 서하면(西下面) 안보리(安保里)를, 『수춘지』는 서면(西面) 안보리(安保里)라 표기하였다. 『춘주지』와 『춘천백년사』는 서면 안보1리, 안보2리로 구분하였다. 현재 행정리는 안보리고 법정리는 안보1리, 안보2리이다.

유래 | 『신증동국여지승람』은 안보역(安保驛)이 부의 서쪽 42리에 있다고 설명한다. 안보역이 있었으므로 안보리(安保里)라 하였으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고역촌, 노동, 안비, 밤기리, 줄길리, 탑골을 병합하여 안보리(安保里)라 하여 서하면(서면)에 편입하였다.

● 강신터

[형태] 골짜기

[위치] 마을 입구로부터 율장길을 따라 약 1.5Km 지점 서쪽 골짜기이다.

[유래] 기존문헌에 뱀기리 서쪽에 있는 골짜기라고 설명하고 있다. 지역민의 말에 따르면 강신터는 율장길을 따라 올라가다가 요양병원까지 가기 전 베스정류장이 있는 곳에서 왼쪽(서쪽)으로 들어가면 나오는 골짜기라고 한다. 제를 지내던 터가 있었던 것을 기억은 하지만 강신터의 정확한 위치는 기억하지 못했다. 현재는 골짜기에 가기 전에 ‘무림정사’라고 하는 곳이 있다.

[어원풀이] ‘강신(降神)+터[垈]’로 분석된다. ‘강신(降神)’은 신을 모시는 의식이나 신내림을 말한다. 신에게 제를 올리던 터란 의미이다.



강신터

● 경강교(京江橋)

[별칭] 구 경강교

[형태] 다리

[위치] 경춘로의 끝 부분으로, 옛 경춘국도에서 강원도와 경기도의 경계에 위치한 다리이다.

[유래] 강원도와 경기도의 경계에 있는 다리이다. 새로운 경춘국도에서 강원도와 경기도(가평)를 잇는 경강교(경강대교)가 생겨 지금은 흔히 ‘구 경강

교’라 부른다.

[어원풀이] ‘경(京)+강(江)+교(橋)’로 분석된다. 경기 도와 강원도의 앞 글자를 각각 따서 명명하였다.



경강교

● 고역촌(古驛村)

[별칭] 고역터, 역말

[형태] 마을

[위치] 안보1리 1반이다.

[유래] 조선시대 안보역(安保驛)이 있었던 곳으로 행정지명 ‘안보리(安保里)’의 바탕이 되었다. 옛날에는 막걸리춘, 주막, 숙박시설 등이 모여 있었다고 한다.

[어원풀이] ‘고(古)+역(驛)+촌(村)’으로 분석된다. 옛 역이 있던 마을이란 의미이다. ‘역(驛)+말[마을]’로 부르기도 한다.



● 깃대봉



고역촌

[형태] 산

[위치] 뱈기리 동북쪽에 있는 산이다.

[유래] 기존문헌에 뱈기리 동북쪽에 있는 산이라 하였다. 지역민의 말에 따르면 율장길 위쪽 요양병원 뒤쪽에 있는 봉우리라고 한다.

[어원풀이] '기(旗)+스+대+봉(峰)'으로 분석된다. 깃대처럼 뾰족하게 높이 솟은 봉우리란 의미이다.



깃대봉

● 귀바우

[형태] 바위

[위치] 지역민의 말에 따르면 귀바우는 안보2리 마을회관 남동쪽으로 율장천 옆에 있는 산 중간에 있는 바위라고 한다.

[유래] 기존문헌에서 뱈기리 서남쪽에 있는 바위라 설명하고 있다. 예전에 비가 많이 와서 바위가 굴러떨어져 지금은 볼 수 없다고 하나, 바위가 있던 터는 멀리서도 볼 수 있다고 한다.

[어원풀이] '귀[耳]+바우[岩]'로 분석된다. '바우'는 여러 지역에서 '바위'의 방언형으로 나타난다. '귀 모양의 바위' 또는 '귀의 위치에 있는 바위' 정도의 어원을 가진 것으로 추정된다.



귀바우가 있던 곳

● 노동골

[별칭] 노동(蘆洞), 노동곡(蘆洞谷)

[형태] 마을

[위치] 안보1리 2반이다.

[유래] 예전에 갈대밭이 있던 곳에 생긴 마을이라는 유래가 전한다. 경춘국도를 기준으로 서쪽(춘천)에서 동쪽(강촌) 방향으로 안보1리 1반, 2반, 3반, 4반이 차례대로 이어져 있다. 옛 지명으로 '고역촌(안보1리 1반)'과 '안비(안보1리 3반)' 사이에 위치한다. 아래쪽 경춘국도에서 북쪽으로 노동골을 가로지르는 도로인 '노동길'이 나 있다. 노동길의 최북단에는 경춘공원묘원이 자리하고 있다.

[어원풀이] '노(蘆)+동(洞)+골(谷)'로 분석된다. 표기된 한자의 뜻으로는 갈대가 있는 곳에 생긴 마을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그런데 경춘국도에서 북

쪽 골짜기로 갈라진 지형적인 면을 고려할 때 ‘갈라진 골짜기’란 의미의 ‘갈골’을 한자로 표기하면서 갈대를 의미하는 한자어인 ‘노(蘆)’를 차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 능산

[형태] 산

[위치] 미상이다.

[유래] 기존문헌에 뱠기리 동북쪽에 있는 산이라 하였다.

[어원풀이] ‘능(陵)+산(山)’으로 추정된다. 특정한 무덤이 있는 산, 또는 무덤처럼 완만하게 솟은 산 정도의 의미로 추정된다.



덕거리

● 대대울고개

[형태] 고개

[위치] 미상이다.

[유래] 기존문헌에 뱠기리 북쪽에 있는 고개라 하였다.

[어원풀이] ‘대(大)+대(垈)+울[村]+고개[峴]’로 분석 할 수 있다. 큰 터가 있는 고개로 추정된다.

● 덕거리

[형태] 골짜기

[위치] 율장리 게이트볼장 뒤쪽이다.

[유래] 기존문헌에 뱠기리 서쪽에 있는 골짜기라 하였다. 덕거리가 골짜기라면 게이트볼장 뒤쪽에 위치한 월두봉과 이어지는 골짜기로 볼 수 있다.

[어원풀이] ‘덕+거리’로 분석된다. ‘덕’은 ‘언덕, 둔덕’을 의미한다. 언덕이 있는 거리 또는 그곳에 인접한 골짜기를 의미한다.

● 돼지바우

[형태] 바위

[위치] 미상이다.

[유래] 기존문헌에 모양이 돼지처럼 생겼다고 하였다.

[어원풀이] ‘돼지+바우[岩]’로 분석된다. 돼지처럼 생긴 바위란 의미이다.

● 디령골

[형태] 골짜기

[위치] 안보2리 마을회관과 강신터 사이에 있는 율장길 서쪽 골짜기이다.

[유래] 기존문헌에 뱠기리 북쪽에 있는 골짜기라 하였다. ‘디령골’은 어원상 ‘들영골’이 변화된 형태로 풀이되며 ‘깊이 들어가 있는 골짜기’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골짜기에 ‘디령바우’가 있다.



디령골

[어원풀이] ‘디령/들영+골[谷]’으로 추정된다. ‘들영’에서 ‘영(嶺)’은 길이 나 있는 고개라는 의미로 여기에 ‘들다(들어가다)’가 결합하여 형성된 지명이다.

● 디령바우

[형태] 바위

[위치] 디령골 내에 위치한다.

[유래] 기존문헌에 디령골에 있는 바위라 하였다.

[어원풀이] ‘디령+바우[岩]’로 분석된다. 디령골에 있는 바위란 의미이다.

● 물개말

[별칭] 물깨말, 물가말

[형태] 마을

[위치] 경춘국도와 율장길이 만나는 곳 일대이다.

[유래] 안보2리 입구쪽에 조성된 마을로 현재는 경춘국도와 율장길이 만나는 곳이다. 북한강가에 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토박이 지역민의 말에 따르면 현재 안보2리 안내판이 위치해 있는 곳 일대를 가리킨다고 한다.

[어원풀이] ‘물+개/가[가장자리]+말(마을)’로 분석된다. 물가에 있는 마을이란 의미이다.



물개말

● 매봉산

[형태] 산

[위치] 안보2리 노인회관 동쪽에 있다.

[유래] 기존문헌에 예전에 매사냥을 하던 산이라고 하였다.

[어원풀이] ‘매[鷹]+봉(峰)+산(山)’으로 분석된다. 전국적으로 산재한 지명으로 흔히 ‘매사냥을 하던 산’ 또는 ‘지역에서 가장 높은 산’ 정도의 의미로 풀이된다.



매봉산

● 뱃기리

[별칭] 뱌기리, 뱌길이, 밤기리, 율장리(栗長里), 율장(栗長),

[형태] 마을

[위치] 율장리 전체 또는 율장길 주변지역을 말한다.

[유래] 율장리 중간을 가로지르는 율장길과 그 일대를 일컫는 지명. 즉 율장리 전체를 말한다. 현재 현지 토박이의 발음은 ‘벵기리’에 가깝다.

[어원풀이] ‘밤길이/밤기리’가 구개음화 현상으로 ‘뱀기리’가 되고 이것이 다시 발음의 편의 등을 이유로 ‘뱀’이 비음화되어 ‘벵기리’로 된 것으로 추정된다. 밤나무가 길을 따라 자라고 있는 곳이란 의미이다. 또는 골짜기가 뱀처럼 길게 뻗어 있어서 생긴 ‘뱀골’이란 지명이 와전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뱅기리

● 불당골

[형태] 골짜기

[위치] 성법사 입구에서 1Km 안쪽에 위치한 골짜기이다.

[유래] 예전에 불당이 있었다고 한다.

[어원풀이] ‘불당(佛堂)+골[谷]’로 분석된다. 불당(佛堂)이 있는 골짜기란 의미이다.



불당골

● 비석바우

[형태] 바위

[위치] 미상이다.

[유래] 기존문헌에 뱀기리 동쪽에 있는 바위라 하였다.

[어원풀이] ‘비석(碑石)+바우[岩]’로 분석된다. ‘비석’처럼 오똑하게 솟은 모양을 가진 바위’로 추정된다.

● 쇠파니고개

[형태] 고개

[위치] 울장길 최북단 위쪽의 골짜기이다.

[유래] 기존문헌에 뱀기리 동북쪽에 있는 고개라 하였다. 지역민의 말에 따르면 요양병원을 지나 울장길 끝까지 올라가서 있는 골짜기이다. 쇠파니고개를 넘으면 가평의 ‘쇠판리’가 나왔다고 한다.

[어원풀이] ‘쇠파니+고개[峴]’로 분석된다. ‘쇠파니’는 전국적으로 산재한 지명인데, 예전에 ‘쇠’를 팔던 곳’이란 설명이 대부분이다. ‘쇠/사이[間]+판(坂)+’로 분석할 경우 ‘두 지역 사이에 있는 비탈’ 정도의 의미로도 추정이 가능하다.

● 승지골

[형태] 골짜기

[위치] 암스트롱 요양병원 동쪽 산자락에 있는 골짜기이다.

[유래] 기존문헌에 뱀기리 동쪽에 있는 골짜기라 하였다. 승지골을 넘으면 당림리의 ‘당수반’ 쪽으로 연결된다.

[어원풀이] ‘승지+골[谷]’로 분석된다. ‘승지골’은 전국적으로 산재한 지명인데 ‘응달진 골짜기’, ‘불당이나 암자가 있던 골짜기’ 등의 의미로 풀이된다.



승지골

● 신도비(神道碑)

[별칭] 김우명신도비

[형태] 비석

[위치] 경춘로 667-9번지로 경춘선 백양리역에서 강 건너 마주 보이는 언덕에 자리 잡고 있다.

[유래] 충익공 김우명의 신도비로 서포 김만중의 글씨이다. 신도비는 왕이나 고관 등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무덤 근처 길가에 세운 비석이다.



신도비

● 안비(雁飛)

[별칭] 안비마을

[형태] 마을

[위치] 안보1리 3반이다.

[유래] 기러기 형상의 산이 있는 마을이라 하여 지은 이름으로 알려져 있다. ‘노동골(안보1리 2반)’ 남



안비

동쪽으로 아래쪽 경춘국도와 매우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다.

[어원풀이] ‘안(雁)+비(飛)’로 분석된다. 마을의 모습 또는 마을 뒤쪽 산이 기러기가 날아드는 형상이라 하여 지어진 이름이라 한다.

● 안장바우

[형태] 바위

[위치] 미상이다.

[유래] 기존문현에 북한강 가에 있는 바위로 모양이 안장처럼 생겼다고 소개되어 있다.

[어원풀이] ‘안장(鞍裝)+바우(岩)’로 분석된다.

● 율장교(栗長橋)

[별칭] 밤기리다리

[형태] 다리

[위치] 구 경춘국도에 위치한 다리로 현재는 새로운 경춘국도가 개통되어 율장교의 통행량은 많지 않다. 마을 안길로 주민들이 주로 이용한다.

[어원풀이] ‘율(栗)+장(長)+교(橋)’로 분석된다. ‘밤기리다리’는 고유어 지명이다. 한자어 율(栗)과 장(長)의 고유어인 ‘밤’과 ‘길이(기리, 길다)’에 교(橋)의 고유어인 ‘다리’가 합쳐진 명칭이다.



율장교

● 안골

[형태] 골짜기

[위치] 매봉(산) 동쪽 골짜기이다.

[유래] 기존문헌에 뱀기리 동쪽에 있는 골짜기라 하였다.

[어원풀이] ‘안[內]+골[谷]로 분석된다. 안쪽으로 난 골짜기란 의미이다.

● 안말

[형태] 마을

[위치] 안보2리 노인회관 북쪽의 안보2리 마을 전체를 말한다.

[유래] 기존문헌에 뱀기리 안쪽에 있는 마을이라 하였다. 안말은 중간말, 물개말과 함께 쓰이며 마을 입구인 하천쪽으로부터 ‘물개말’ – ‘중간말’ – ‘안말’로 연결되어 율장리의 마을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고 있다.

[어원풀이] ‘안[內]+말(마을)’로 분석된다. 안쪽에 위치한 마을이란 의미이다.

● 안보(安保)

[별칭] 안보리

[형태] 마을

[위치] 안보리 전역을 말한다. 안보역은 고역교 근처에 있었다.



안보

[유래] 조선시대 안보역(安保驛)이 있었던 곳으로 행정지명 ‘안보리(安保里)’의 바탕이 되었다.

● 오강재

[형태] 골짜기

[위치] 암스토롱 요양병원 북쪽 골짜기이다.

[유래] 기존문헌에 뱀기리 북쪽에 있는 골짜기라 하였다. 지역민의 말에 따르면 암스트롱 요양병원 위쪽에 있는 골짜기로, 북쪽으로 올라가다가 왼쪽 골짜기는 쇠파니고개, 오른쪽 골짜기는 오강재라고 한다. 오강재를 넘으면 당림리로 넘어갈 수 있다.

[어원풀이] ‘오강+재[峙]’로 분석된다. ‘오강’의 의미는 불분명하다. 강(江)과 관련이 없는 지형이므로 ‘요강’과의 연관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 월두봉(月頭峰)

[별칭] 멸뚱산, 달머리봉

[형태] 산

[위치] 경기도 가평군과 강원도 춘천시 경계의 화악산 끝자락에 있는 산으로 탑골 서쪽에 있다. 높이는 854m이다. 달이 높이 산머리에 걸린다 하여 월두봉이라고도 한다.



월두봉

[어원풀이] ‘멀/머리[頭]+두(頭)+산(山)’은 고유어 ‘머리/멀’와 한자어 ‘頭’가 같은 의미로 혼성된 지명이다.

● 율장천(栗長川)

[별칭] 큰개울

[형태] 하천

[위치] 안보2리의 ‘율장길’과 나란히 흐르는 개천이다.



줄길리

● 줄길리(隻吉里)

[별칭] 주길리, 주을리, 주을길

[형태] 마을

[위치] 서면 보남로 일대이다.

[유래] 기존문헌에 “강원도와 경기도의 경계를 이루는 마을로 1907년 정미의병 때 춘천의병이 왜병과 여기서 싸웠다.”라 하였다. 마을 입구에 ‘주을길마을’이라고 쓰인 바위가 서 있고, 구 경춘국도 건너편에는 6.25 반공 산악대원 전적비가 있다.

[어원풀이] ‘줄(隻)+길(吉)+리(里)’로 분석된다. 지명 독음 ‘줄’을 굳이 ‘隻’로 표기한 것은 표제지명이 ‘줄길리’임을 알려준다고 할 수 있다. 표제지명과 별칭을 종합해 보면 무엇을 묶거나 동이는 데에 쓸 수 있는 가늘고 긴 물건을 가리키는 ‘줄’이 관련이 있어보이지만 불분명하다.



● 중간말

[형태] 마을

[위치] 율장2리 노인회관의 남쪽 아래부분으로, 물개말 위쪽까지의 지역이다.

[유래] 기존문헌에는 중간에 있는 마을이라 하였다. ‘중간말’은 전국적인 지명인데, 마을 입구인 하천쪽으로부터 ‘물개말’ – ‘중간말’ – ‘안말’로 율장리의 마을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고 있다.

[어원풀이] ‘중간+말(마을)’로 분석된다. 중간에 있는 마을이란 의미이다.

● 청풍부원군묘

[별칭] 부원군묘

[형태] 무덤

[위치] 안보1리 155-1번지이다.

[유래] 영의정 김육(金堉)의 아들이자 조선 현종의 장인인 김우명(金佑明, 1619~1675)의 묘역이다. 강원도 내에 있는 왕릉 이외의 묘지에는 담장이 없는데, 이 묘소는 담장이 있는 것이 특색이다. 묘비는 숙종의 친필이며, 신도비는 호조판서를 역임한 이민서가 짓고 윤심이 글씨를 썼고, 전서는 서포 김만중의 솜씨이다.

[유래담] 김우명이 사망하자 조정에서 부원군의 대접을 하기 위하여 강원도 춘성군 신동면 증리에

묘소를 하사하였다고 한다. 시신을 배에 싣고 한강을 거슬러 가던 중 현재의 묘소 앞에 이르렀을 때 배가 움직이지 않고 돌풍에 명정(다홍 바탕에 흰 글씨로 죽은 사람의 평계, 관직, 성씨를 기록한 짓발)이 산으로 날아갔다. 명정이 날아간 곳으로 가보니 그곳이 명당이어서 하사한 땅을 취소하고 이곳에 묘를 썼다고 한다.



청풍부원군묘

● 탑골

[별칭] 탑동(塔洞)

[형태] 마을

[위치] 안보1리 4반으로 경춘로 583길 일대이다.

[유래] 예전에 탑이 있었던 동네라 탑골이라고도 부른다. ‘탑골’ 북쪽 인근에 ‘큰탑골’이 있고, 북서 쪽 인근에 ‘작은탑골’이 있다.

[어원풀이] ‘탑(塔)+골[고을]’로 분석된다.

오월리(梧月里)

위치와 현황 | 서면(西面)의 북부에 있는 마을이다. 서쪽으로는 가덕산(加德山, 858m), 몽덕산(蒙德山, 660m), 삿갓봉(716m) 자락이 펼쳐져 있고, 동북쪽으로는 북한강을 막아 1965년 준공한 춘천댐이 있다. 자연마을로는 윗골·별둔이(별둔리 伐屯里)·납실(納實)·며구너미(오구남리 梧口南里)·가락(갈월리 葛月里) 등이 있으며, 일부 지역은 춘천댐 건설 때 수몰되었다. 산과 호수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풍경으로 인해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으로, 겨울철 춘천호 빙어낚시와 춘천댐 근처에 형성된 매운탕골이 유명하다. 춘천호를 접하고 있는 오월리산림휴양림(강원도립춘천수렵장)은 매년 10월부터 4월까지 사냥을 할 수 있는 산악형수렵장으로 휴양시설과 클레이사격장 등을 갖추고 있다.

연혁 | 『여지도서』, 『호구총수』, 『춘천읍지』, 『춘천부지』, 『관동읍지』는 서상면(西上面)의 갈월리(葛月里)로 표시하였다. 『조선지지자료』는 서상면(西上面) 갈월리(葛月里)와 납실리(納實里)로 표기하였고, 『강원도지지조서』에 와서야 서상면(西上面) 오월리(梧月里)로 표기되었다. 『수춘지』는 서면(西面) 오월리(梧月里), 『춘천백년사』는 서면 오월1리, 오월2리로 표기하였다. 현재 행정리는 오월리이고 법정리는 오월1리, 오월2리이다.

유래 |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갈월리, 납실리, 오구리와 지가암리 일부를 병합하여 오구남리(梧口南里)와 갈월리(葛月里)의 글자 한 자씩을 따서 오월리(梧月里)라 하였으며, 1934년 서면으로 편입되었다.

● 가끄봉

[형태] 산

[위치] ‘옻박골’ 밑에 ‘진삽박골’이 있고, ‘진삽박골’ 밑에 ‘가끄봉’이 있다.

[유래] 기존문헌에는 진삽박골 밑에 있는 산이라 하였다.

[어원풀이] ‘가끄/까끄[削]+봉[峰]’으로 분석된다. 깎아지른 듯 가파른 산이란 의미로 추정된다.

● 가덕산(鷺德山)

[형태] 산

[유래] 경기도 가평군 북면과 강원도 춘천시 서면 오월리 사이에 있는 산으로 높이는 858m이다. 주변으로는 몽덕산과 북배산이 있으며 춘천 오월리에서 삿갓봉을 거쳐 올라가거나 서상리에서 올라가는 등산로 그리고 가평군 북면에서 몽덕산을 거쳐 올라가는 등산로가 있다.

● 가락

[별칭] 갈월(葛月), 갈월리(葛月里)

[형태] 마을

[위치] 춘천댐 북쪽으로 700m 거리에 있다.

[유래] 기존문헌에는 북한강 서안에 있는 마을이라 하였다. 현재는 ‘가락’이라고 부르며, 행정구역상 오월1리 일대의 마을을 가리킨다. 행정지명 ‘오월리(梧月里)’는 ‘오구람리’의 ‘오(梧)’와 ‘갈월(葛月)’의 ‘월(月)’을 합하여 명명한 것이라고 한다.

[어원풀이] ‘가락’은 북한강 가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강(江)’을 의미하는 고유어 ‘가람’에서 유래한 것으로 추정된다. ‘갈월(葛月)’은 한자표기지명이다.

● 가랫골

[형태] 골짜기

[위치] 몽덕산(695m) 동쪽 산자락으로 몽덕산과 삿갓봉(716m) 중간쯤에 있다. ‘납실’ 남서쪽 1km 남짓이다.

[유래] 기존문헌에 납실에 있는 산골짜기라 하였다.

[어원풀이] ‘가래+ㅅ+골[谷]’로 분석된다. ‘가래’는 두 갈래로 갈라진 지형에서 유래한 것으로 추정된다.

● 갈월피암터널

[형태] 터널

[위치] 오월리 산13-7번지이다.

[유래] 춘천댐 위로 지나는 영서로에서 북쪽으로 올라갈 때 첫 번째 나오는 터널이다. 강쪽은 기동 사이사이가 개방되어 있다.



갈월피암터널

● 강원숲체험장

[형태] 기관

[위치] 서면 납실길 107-64번지로 오월유원지에서 남쪽으로 3km 거리에 있다.

[유래] 휴양림에는 회의실, 다중숙소, 원룸, 산막이 있다. 특히 클레이 사격장도 있어 인기가 높다. 산림 종합휴양지, 산림욕(풍림욕장), 활궁체험장, 숲속 모험동산 등을 즐길 수 있다.

● 고든골

[별칭] 곧은골, 고동골, 바른골, 고래논들

[형태] 골짜기

[위치] 오월2리마을회관에서 남쪽으로 2km에 위치한 강원숲체험장 서쪽 가까이에 있다. 오월리 267번지 일대이다.

[유래] 기존문헌에는 납실에 있는 골짜기라 하였다.

[어원풀이] ‘고든/곧은[直]+골[谷]’로 분석된다. 곧게 뻗어있는 골짜기란 의미이다.

● 납실(納實)

[별칭] 납실골

[형태] 마을

[위치] 오월유원지에서 납실길을 따라 1km쯤 남쪽으로 내려가면 ‘하납실’이고, 여기서 500m쯤 더 남쪽으로 내려가면 삼거리가 나온다. 이 삼거리 영역이 ‘납실’이다. 춘천댐에서 영서로로 북진하여 ‘갈월피암터널’과 ‘납실피암터널’과 ‘오월피암터널’을 지나면 서편 가까이에 ‘납실골’이 있다. ‘납실골’ 동쪽 춘천호 너머는 인람리이다. ‘하납실’과 ‘상납실’을 포함하여 오월2리의 모든 마을을 통틀어 가리키는 지명으로도 볼 수 있다.

[유래] 기존문헌에는 머구너미 서남쪽 봉덕산 밑에 있는 마을이라 하였다.

[어원풀이] ‘납(納)+실(實)’로 분석된다. ‘-실’은 지명접미사로 골짜기나 마을이란 의미이다. ‘납(納)’의 의미는 불분명하다. 울진 근남면의 ‘납돌모기’를 ‘광석현(廣石峴)’으로 표기한 것으로 미루어 ‘납[廣]’에서 유래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납실’은 ‘넓은 골짜기’ 정도의 의미가 된다.

● 납실고개

[별칭] 납실현(納實峴)

[형태] 고개

[위치] 가평군 북면 화악리 윗홍적에서 춘천시 서면 오월리 윗납실로 넘어가는 고개로, 봉덕산 정상에서 가덕산으로 향하는 길목에 있다. 고개의 높이는 645m이다.

[유래] 기존문헌에는 납실에 있는 고개라 하였다.

[어원풀이] ‘납실(納實)+고개[峴]’로 분석된다. ‘납실’ 참조.



서면

납실고개

● 납실피암터널

[형태] 터널

[위치] 서면 오월리 산38-3번지이다.

[유래] 춘천댐 위로 지나는 영서로에서 북쪽으로 올라갈 때 두 번째 나오는 터널이다.



납실피암터널

● 땀띠물

[형태] 샘

[위치] 춘천호에 수몰되었다.

[유래] 기존문헌에는 “춘천호 물속에 잠겼으나 예전에 이 우물물이 땀띠에 잘 들었다 함”이라 기록되어 있다.

[어원풀이] ‘땀띠+물[井]’로 분석된다. 피부병의 일종인 땀띠의 치료에 효과가 있는 우물이란 의미이다.

● 마장고개

[형태] 고개

[위치] 오월리 마장이골과 지암리 마장이골 사이에 있는 고개이다.

[유래] 기존문헌에는 사북면 지암리 마장으로 가는 고개라 하였다. 현재 경기도 가평군에 위치한 ‘홍적고개’는 몽덕산으로 올라오는 길목인데, 이를 ‘마장이고개’라 부르기도 한다.

[어원풀이] ‘마장+고개’로 분석된다. ‘마장’이란 지명은 전국적으로 산재하는데, 옛날에 말을 키우던 목장이 있었던 곳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 마장이골

[별칭] 마장이

[형태] 골짜기

[위치] ‘상납실’에서 조금 더 서쪽으로 들어간다.

[유래] 기존문헌에는 마장이고개만 기재되어 있다. 오월2리마을회관에서 남서쪽으로 들어가는 골짜기 끝에 있는 가장 큰 마을인 ‘상납실’이며, ‘상납실’에서 조금 더 서쪽으로 들어가면 ‘마장이/마장이골’이 있다. ‘마장이골’에서 북서쪽으로 올라가면 지암리와 집다리골 휴양림까지 갈 수 있다.

[어원풀이] ‘마장+이+골[谷]’로 분석된다. ‘마장고

개’ 참조.

● 매운탕골

[형태] 골짜기

[위치] 오월리 샷갓봉길1에서 샷갓봉길226 일대이다.

[유래] 춘천댐의 남서쪽 초입에 위치한 매운탕골은 샷갓봉 아래의 골짜기로, 춘천 춘성교(춘천댐)와 서상로가 만나는 지점에서 옆으로 빠져 아래로 내려가는 샷갓봉길 일대를 말한다. 기존문헌에 따르면 춘천호에서 나는 물고기로 매운탕을 만들어 파는 유원지가 생겨 매운탕골로 유명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민물고기 매운탕집이 밀집한 곳이라 매운탕골로 이름 붙여진 것으로 보인다. 매운탕골로 샷갓봉길과 오월천이 나란히 같이 지난다.

[유래담] 1961년 춘천댐 공사가 시작되면서 공사에 투입된 인력들의 식사를 위해 민물고기 매운탕을 주로 하는 음식점들이 생겨났다. 댐이 완공된 이후 내수면 양식 사업과 맞물려 민물고기 매운탕 음식점이 성행하게 되었고 지금까지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매운탕골

● 머구너미

[별칭] 오구남리(梧口南里)

[형태] 마을

[위치] 지암천이 북한강으로 유입되는 부근이다.

[유래] 기존문헌에는 옛적에 북한강 물이 넘쳐서 이 지역까지 범람했다고 하였다.

[어원풀이] ‘머구/마구+너미/넘이[越]’로 분석된다. 물이 마구 넘치는 곳이란 의미이다. 한자지명 오구 남리(梧口南里)는 ‘물어귀 남쪽[앞쪽]에 있는 마을’이란 의미로도 풀이가 가능하다.

● 몽덕산(夢德山)

[형태] 산

[유래] 경기도 가평군 북면과 강원도 춘천시 서면의 경계에 있는 산으로 높이는 690m이다.

● 물어구나루터

[형태] 나루

[위치] 현 오월피암터널 부근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오월리와 인람리를 오가던 나루터이다.

[유래] 기존문헌에는 사북면에서 오월리로 건너는 나루터인데 지금은 춘천댐 저수지에 수몰되었다고 하였다. 실제 위치는 확인할 수 없으나 사북면에서 넘어오는 나루라는 것으로 볼 때 오월피암터널 근처인 것으로 추정된다.

[어원풀이] ‘물[水]+어구/어귀+나루터’로 분석된다.

● 물어귓들

[형태] 들

[위치] 물어귀나루터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오월피암터널 부근이다.

[유래] 기존문헌에는 북한강 어귀에 있었던 들로 지금은 저수지에 수몰되었다고 하였다.

[어원풀이] ‘물[水]+어귀+ㅅ+들[野]’로 분석된다.

● 벌둔이

[별칭] 벌둔, 벌둔리(伐屯里), 벌둔이골, 벌둔마을

[형태] 마을

[위치] 춘천댐 아래 강 서쪽으로 오월리 산46-1번지 일대이다.

[유래] 기존문헌에는 가락리 남쪽 벌판에 있는 마을이라 하였다. 춘천댐 아래 서상리 북쪽에 ‘벌둔이골’이 있다.

[어원풀이] ‘벌[野]+둔[둔덕]+ ’로 분석된다. 벌판과 둔덕이 함께 있는 곳이란 의미로 추정된다.

● 벌둔이고개

[형태] 고개

[위치] 춘천댐 아래 벌둔이에서 서상리 퇴골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유래] 기존문헌에는 벌둔이에 있는 고개라 하였다.

[어원풀이] ‘벌둔이+고개[峴]’로 분석된다. ‘벌둔이’ 참조.

● 범박골

[형태] 골짜기

[위치] 서면 오월리 일대

[유래] 기존문헌에는 머구너미에서 동덕산으로 가는 도중에 있는 골짜기라 하였다. ‘머구너미’에서 ‘범박골’을 지나 ‘동덕산’에 이른다. 다만, ‘동덕산’의 위치는 확인이 불가능하다.

[어원풀이] ‘범[虎]+박+골[谷]’로 분석된다. 유래는 불분명한데 호랑이 모양의 바위가 있는 골짜기란 의미의 ‘범바위골’이 와전된 것으로 추정된다.

● 복수골(福壽谷)

[별칭] 팟골[破谷]

[형태] 골짜기

[위치] 미상이다.

[유래] 기존문헌에는 본래 팟골이라 하였는데 ‘파(破)’자가 좋지 않다 하여 ‘복수골(福壽)’로 고쳤다고 하였다.

[어원풀이] ‘복(福)+수(壽)+ㅅ+골[谷]’로 분석된다. 원 지명인 ‘팟골[破谷]’은 ‘발골’의 와전으로 보이는데 ‘복수골’과의 연관성은 불분명하다.

● 불당골

[형태] 골짜기

[위치] 미상이다. ‘불당골’이란 지명은 서면 일대에 산재한다.

[유래] 기존문헌에는 옛날에 불당이 있던 골짜기라 하였다.

[어원풀이] ‘불당(佛堂)+ㅅ+골[谷]’로 분석된다.

● 삼박골

[형태] 골짜기

[위치] 매운탕골에서부터 시작하는 삿갓봉길 끝자락에서 왼쪽에 위치한 작은 골짜기로 오월리 산 46-1번지 일대이다.

[어원풀이] ‘삼(夢)+박/밭[田]+골[谷]’로 분석된다. 삼밭이 있는 골짜기란 의미이다.



삼박골

● 삿갓봉

[형태] 산

[위치] 서상리와 오월리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가덕산에서 동쪽으로 2.6km 가량 떨어진 삿갓 모양의 봉우리를 말한다.

[유래] 기존문헌에는 머구너미 북쪽에 있는 산으로 삿갓처럼 생겼다고 하였다. 매운탕골 안쪽으로 길(삿갓봉길)을 따라 들어가면 춘천은혜원이라는 기도원을 지나게 되고, 조금 더 들어가면 ‘별둔’과 ‘삿갓봉’으로 갈 수 있는 등산로를 찾을 수 있다. 높이는 716m로 계속 서쪽 능선을 오르면 ‘가덕산(858m)’에 오른다.

[어원풀이] ‘삿갓+봉(峯)’으로 분석된다.

● 상납실

[형태] 마을

[위치] ‘납실’에서 춘천호로 흐르는 지류를 따라 3km가량 남서진하면 오월리종점 버스정류장이 있는데, 이 위쪽에 위치한 마을 일대를 ‘상납실’이라고 한다.

[유래] 기존문헌에는 납실의 위쪽에 있는 마을이라 하였다.

[어원풀이] ‘상(上)+납(納)+실(室, 村)’로 분석된다. ‘납실’ 참조.

● 새미기

[형태] 골짜기

[위치] 미상이다.

[유래] 기존문헌에는 벌둔리에 있는 골짜기라 하였다. ‘벌둔/벌둔리’는 춘천댐 아래 지역이다.

[어원풀이] ‘새[鳥, 間]+미기/매기/목이/목[項]’로 분석된다. 지명접미사 ‘-미기’의 어원형 ‘목[項]’은 ‘좁다란 산협이나 물속을 가로지르는 길목’이란 뜻이

고, ‘새-’는 ‘동쪽’ 또는 ‘사이[間]’의 의미를 지닌다.

● 선골

[형태] 골짜기

[위치] 미상이다.

[유래] 기준문헌에는 벌둔리에 있는 골짜기라 하였다.

[어원풀이] ‘선+골[谷]’로 분석된다. 유래는 불분명하다.

● 양지들

[형태] 들

[위치] 미상이다.

[유래] 기준문헌에는 양지편에 있던 들로 춘천호에 수몰되었다고 하였다.

[어원풀이] ‘양지(陽地)+들[野]’로 분석된다.

● 오월유원지

[형태] 유원지

[위치] 서면 오월리와 사북면 지암리 접경에 있다.

지암리로 들어가는 초입 지암천 인근이다. 오월유원지 옆에 있는 납실교를 기준으로 하여 북쪽은 사북면 지암리, 남쪽은 오월리로 나뉜다.



오월유원지

● 오월피암터널

[형태] 터널

[위치] 오월리 산44-2번지이다.

[유래] 춘천댐 위로 지나는 영서로에서 북쪽으로 올라갈 때 세 번째 나오는 터널이다. 인람리가 춘천호 너머로 보인다.



오월피암터널

● 오월학교

[형태] 건물

[위치] 서면 납실길 160번지이다.

[유래] 1969년 지암국민학교 지암분교로 개교하였다. 이후 오월학교로 이름을 바꾸고 1982년 폐교한 뒤 카페로 개조되었다. 오월유원지에서 남쪽으로 500m쯤 내려온 뒤 서쪽으로 1km 거리에 있다. 사진관, 만들기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



오월학교

영하고 있으며, 숙박 시설도 갖추고 있는 복합 문화공간이다.

● 오현마을

[별칭] 오현부락

[형태] 마을

[위치] 상납실(上納實)을 오현마을 또는 오현부락으로도 부르는 것으로 추정된다.[어원풀이] ‘오현+마을’로 분석된다. ‘오현’의 의미는 불분명하다.

● 웃나무들

[형태] 들

[위치] ‘웃나무들’은 ‘뒷골’ 밑에 있다. ‘뒷골’은 지암천이 춘천호에 합류하기 전 북쪽(뒷쪽)으로 난 골짜기이며, 이 골짜기 아래로 펼쳐진 들이 ‘웃나무들’이다. 오월리 174번지 일대이다.

[유래] 기존문헌에는 뒷골 밑에 있는 들이라 하였다.

[어원풀이] ‘웃나무+들[野]’로 분석된다.

● 웃박골

[형태] 골짜기

[위치] 미상이다. ‘웃나무들’ 부근으로 추정된다.

[유래] 기존문헌에는 웃나무가 있던 골짜기라 하였다.

[어원풀이] ‘웃[漆]+박[밭]+골[谷]’로 분석된다. 웃밭이 있는 골짜기란 의미이다.

● 우이골

[형태] 골짜기

[위치] 매운탕골 입구에서 들어가는 방향으로 약 200m 안쪽 원편, 매운탕 음식점이 밀집되어 있는 곳 뒤쪽으로 하천 건너편에 위치하고 있다.

[어원풀이] ‘우(牛)+이(耳)+골[谷]’로 분석된다. 소의 귀처럼 생긴 골짜기란 의미이다. 또는 ‘윗골/웃

골’의 와전으로 볼 수도 있다.

● 웃골

[별칭] 상촌(上村)

[형태] 마을

[위치] 오월리와 서상리 경계 부근이다.

[유래] 기존문헌에는 머구너미 위쪽에 있는 마을이라 하였다.

[어원풀이] ‘우/위[上]+ㅅ+골[村]’로 분석된다. 서상리 위에 있는 골짜기란 의미로 추정된다.

● 웃골고개

[형태] 고개

[위치] 오월리와 서상리 경계인 웃골에 있다.

[유래] 기존문헌에는 웃골에서 서상리로 가는 고개라 하였다.

[어원풀이] ‘우/위[上]+ㅅ+골[村]+고개[峴]’로 분석된다. 웃골에 있는 고개, 웃골로 가는 고개란 의미이다.

● 윗골

[별칭] 웃골

[형태] 마을

[위치] 윗골의 북쪽에는 삿갓봉이, 서남쪽으로는 납실(納實)이 있다.

[유래] 기존문헌에는 머구너미 위쪽에 있는 마을이라 하였다. ‘머구너미/마구념이’는 춘천호와 가까운 지암리 초입 부근의 서북쪽에 위치한 봉덕산에 있다.

[어원풀이] ‘위[上]+ㅅ+골[谷]’로 분석된다.

● 절골

[형태] 골짜기

[위치] 미상이다.

[유래] 기준문헌에는 절이 있던 골짜기라 하였다.

[어원풀이] ‘절[寺]+골[谷]’로 분석된다.

● 지루너미고개

[형태] 고개

[위치] ‘납실’에서 지암리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상 납실 근처에서 지암리로 넘어가는 고개는 ‘마장고개’이다.

[유래] 기준문헌에는 납실에서 사북면 지암리로 가는 고개라 하였다.

[어원풀이] ‘지루/질러+너미/넘이[越]+고개[峴]’로 분석된다. 돌아가는 길이 아니라 가로질러 넘어가는 고개란 의미이다.

● 진삽박골

[형태] 골짜기

[위치] ‘옻박골’ 아래에 있는 골짜기이다.

[유래] 기준문헌에는 옻박골 밑에 있는 골짜기라 하였다.

[어원풀이] ‘진/긴[長]+삽+박/밭[田]+골[谷]’로 분석된다. 긴 밭이 있는 골짜기란 의미로 추정된다.

● 춘천댐

[형태] 댐

[위치] 서면 오월리와 신북면 용산리 사이로, 오월리 산87번지이다.

[유래] 1965년 2월 8일 완성된 댐으로 오월리와 신북면 용산리의 서원마을을 잇는 북한강을 막아서 만든 댐이며, 춘천댐을 막아서 생긴 호수는 춘천호라 한다. 춘천댐을 가로지르는 도로는 국도 제5호선이며 공도교를 춘성교라 이름 붙였다.



춘천댐

● 하납실

[형태] 마을

[위치] 오월유원지에서 납실길을 따라 1km쯤 남쪽으로 내려오면 ‘하납실’이다. 현재 행정구역상 납실1교 옆쪽으로 위치한 오월2리 일대의 마을을 가리킨다.

[유래] 기준문헌에는 납실의 아래쪽에 있는 마을이라 하였다.

[어원풀이] ‘하(下)+납(納)+실(室, 村)’로 분석된다. ‘납실’ 참조.

위치와 현황 | 북쪽으로 월송천이 흐르고, 동쪽에는 반송저수지와 북한강이 있다. 자연마을로는 압실, 내골, 반송, 꽈씨바웃골 등이 있다.

연혁 | 『춘주지』를 보면 서상(西上)에 월굴리(月窟里), 수정(脩井里)이 표기되어 있다. 『여지도서』, 『호구총수』, 『춘천읍지』, 『춘천부지』, 『관동읍지』에는 서상면(西上面)에 수정리(水井里), 월굴리(月窟里), 향천리(香川里), 반송리(盤松里) 등으로 표기되었다. 『조선지지자료』 서상면(西上面)에 반송상리(盤松上里), 반송하리(盤松下里), 향천리(香川里), 월굴리(月窟里), 수정리(水井里)로 표기된 곳이 월송리가 되었다. 『강원도지지조서』는 서상면(西上面) 월송리(月松里)로, 『수춘지』는 서면(西面) 월송리(月松里)로 표기하였다. 『춘주지』, 『춘천백년사』는 서면(西面) 월송1리, 월송2리, 월송3리로 구분하였다. 현재 행정리는 월송리고 법정리는 월송1리, 월송2리, 월송3리이다.

유래 |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마근골, 반송, 수정, 월굴리, 향천리를 병합하면서 월굴리(月窟里)와 반송리(盤松里)의 이름을 따서 월송리(月松里)라 하고, 1934년 4월 1일 서면에 편입되었다.

● 가제미

[별칭] 가재미

[형태] 마을

[위치] 월송리 중심인 벌판말 북쪽에 있는 마을이다.

[유래] 기존문헌에 벌판말 북쪽에 있는 마을이라 하였다.

[어원풀이] 유래는 불분명한데 ‘가제미’는 ‘가자미’의 방언이다.

● 걱수바웃골

[별칭] 곽씨바웃골

[형태] 골짜기

[위치] 미상이다.

[유래] 기존문헌에 “옛날 이곳에 곽(郭)씨 한 집이 살았다 함”이라 하였다.

[어원풀이] ‘걱수/곽씨(郭氏)+바우[岩]+ㅅ+골[谷]’로 분석된다. ‘각시바위’가 있던 골짜기란 의미로 추정된다.

● 굴바우

[형태] 바위

[위치] 미상이다.

[유래] 기존문헌에 굴이 뚫려 있는 바위라 하였다.

[어원풀이] ‘굴(窟)+바우[岩]’로 분석된다.

● 내골

[별칭] 넷골[川谷]

[형태] 골짜기

[위치] 월송2리에서 금산리로 흘러 의암호에 드는 개천에 있는 마을로 월굴 근처이다.

[유래] 기존문헌에 월송리 넷가에 있는 마을이라 하였다. 내의 이름은 ‘향기 향(香)’자를 써서 ‘향천(香川)’이라고도 하며 마을을 향천리라고 부르기도

한다. 월송리 넷가에 있는 마을은 ‘내골/냇골’이고, 그 근처에 ‘월굴’이 있고, ‘월굴’ 근처에 ‘당두리’가 있으며, ‘월굴’ 동쪽에 ‘수정/수정리’가 있다.

[어원풀이] ‘냇[川]+골[谷]’로 분석한다. 넷물이 흐르는 골짜기란 의미이다.

● 당두리

[형태] 마을

[위치] 월굴 근처인 월송리 넷가에 있는 마을이다.

[유래] 기존문헌에 월굴 근처에 있는 마을이라 하였다. 월송리 넷가에 있는 마을은 ‘내골/냇골’이고, 그 근처에 ‘월굴’이 있고, ‘월굴’ 근처에 ‘당두리’가 있으며, ‘월굴’ 동쪽에 ‘수정/수정리’가 있다.

[어원풀이] ‘당+둘이/두리’로 분석한다. 정확한 유래는 불분명하다.

● 막은골

[별칭] 마근골, 망골, 색동(塞洞), 복골

[형태] 마을

[위치] 반송골짜기 위에 있는 마을로, 월송1리마을 회관에서 11시 방향 북쪽 200m 남짓한 거리에 있다. 10시 방향 바로 아래에는 ‘반송’마을이 있다.

[유래] 기존문헌에 “망골, 색동(塞洞). 반송 골짜기 위에 있는 마을”이라 하였다. 마을을 막았다고 하



막은골

여 붙여진 이름이다. 그런데 동네 사람들의 중언으로는 ‘망골’의 어감이 좋지 않아 ‘복골’로 이름을 바꿨다고 한다.

[어원풀이] ‘막은[塞]+골[谷]’로 분석된다. 고유어와 한자어가 결합한 형태의 지명으로 ‘사방이 막힌 골짜기’ ‘제일 끝에 있는 골짜기’ 정도의 의미이다.

● 못동지

[형태] 들

[위치] 압실 부근 들판이다.

[유래] 기존문헌에 옛날에 못이 있었던 들이라 하였다.

[어원풀이] ‘못[淵]+동지’로 분석된다. 동지 모양의 못이 있는 지역이란 의미로 추정된다. ‘동지’를 ‘둔지’의 와전으로 본다면 못이 있는 들판 정도의 의미로도 가능해 보인다.

● 반송(盤松)

[형태] 마을

[위치] 월송1리마을회관에서 10시 방향 북쪽 200m 남짓한 거리에 있다. 11시 방향 바로 위에는 ‘막은골(망골/색동)’이 있다.

[유래] 기존문헌에 큰 반송이 있는 마을이라 하였다. 조양이라고도 한다. 근처에 반송저수지가 있다.

[어원풀이] ‘반(盤)+송(松)’으로 분석된다. 키가 작으면서 가지가 옆으로 넓게 퍼진 소나무가 있는 마을이란 의미이다.

● 반송저수지(盤松貯水池)

[별칭] 반송못, 서상저수지

[형태] 못

[위치] 반송에 있는 저수지이다.

[유래] 1954년에 착공하여 1957년에 완공된 저수

지이다. 길이 169m, 높이 8.8m의 제방을 쌓아 만들었으며 저수용량은 445천m³이다. 수혜 지역은 월송리, 신매리 지역인데 월송 1리에 저수지를 만들어 놓았지만 서상저수지라는 이름이 붙여져 많은 사람들에게 혼란을 주기도 한다.



반송저수지

● 벌판말

[형태] 마을

[위치] 월송리 중심에 있는 마을이다.

[유래] 기존문헌에 월송리 중심에 있는 마을이라 하였다. 월송리의 중심인 ‘벌판말’은 인근 지명의 지표가 된다.

[어원풀이] ‘벌판+말[村]’로 분석된다. 벌판에 있는 마을이란 의미이다.

● 벼락바우

[형태] 바위

[위치] 흥녕사터 근처에 있는 바위이다.

[유래] 벌판말의 서쪽 흥녕골에 있는 흥녕사터 부근에 있는 바위이다.

[어원풀이] ‘벼락[雷]+바우[岩]’로 분석된다. 벼락을 맞은 바위란 의미이다.

● 복치형무덤

[형태] 무덤

[위치] 미상이다.

[유래] 기존문헌에 황씨의 무덤이라 하였다.

[어원풀이] ‘복치형[황씨]+무덤’으로 분석된다. 유래는 불분명하다.

● 삼승(三僧)

[형태] 마을

[위치] 기존문헌에 당두리 건너편에 있는 마을이라 하였다.

[어원풀이] ‘삼(三)+승(僧)’으로 분석된다. 유래는 불분명하다.

● 상두개

[별칭] 향천(香川)

[형태] 하천

[위치] 기존문헌에 월송리에 있는 내[川]라 하였다.

[위치] ‘상두+개[溪]’로 분석된다. ‘상두’의 의미와 ‘향천(香川)’과의 관련성은 불분명하다.

● 수정(水井)

[별칭] 수정리(水井里)

[형태] 마을

[위치] 월송2리회관과 월송2리마을쉼터 서쪽이며 오월리삼층석탑 동쪽에 있는 마을의 중심이다. 도로지명 수정로가 지난다.

[어원풀이] ‘수정(水井)+리(里)’로 분석된다. 샘물이 있는 마을이란 의미이다.

● 아미산

[형태] 산

[위치] 기존문헌에 벌판말 남쪽에 있는 산이라 하였다.

[어원풀이] ‘아미+산(山)’으로 분석된다. 정확한 유래는 불분명한데 아미타불에서 유래하여 불교와 관련된 지명으로 추정된다.

● 안말

[별칭] 내촌(內村)

[형태] 마을

[위치] 월송리 안쪽에 있는 마을이다.

[어원풀이] ‘안[內]+말[村]’로 분석된다. 안쪽에 있는 마을이란 의미이다.

● 안질목

[형태] 산

[위치] 기존문헌에 뒷골과의 경계가 되는 등성이라 하였다.

[유래] 유래는 불분명하다.

● 압실

[형태] 마을

[위치] 월송리 737번지 일대이다.

[유래] 기존문헌에 못동지 동쪽에 있는 마을이라 하였다.

[어원풀이] ‘압(鴨)+실(室, 村)’로 분석된다. 지형이 오리 형국이어서 생겨난 지명이란 유래가 전한다. 특정한 지역 앞에 있는 골짜기나 마을이란 의미의 ‘앞실’에서 유래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 압실영농조합법인

[형태] 법인

[위치] 서면 월송길 425-120번지이다.

[유래] 차류, 채소작물 재배업, 야생화모종판매, 소스류, 발효식초, 다류, 농촌체험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암실령농조합법인

● 외자국고개

[형태] 고개

[위치] 기존문현에 뒷골과의 경계에 있는 고개라 하였다.

[유래] 유래는 불분명하다.

● 월굴(月窟)

[형태] 마을

[위치] 기존문현에 수정리 서쪽에 있는 마을이라 하였다.

[어원풀이] ‘월(月)+굴(窟)’로 분석된다. 한자표기로 보면 ‘달 모양의 굴’이란 의미인데, 실제로 마을에 굴이 있다는 증언은 없다. ‘월굴’은 ‘들이 있는 골짜기’란 의미의 ‘들골[野谷]’이 ‘달골’로, 다시 이를 한자로 표기하면서 생겨난 지명으로 추정된다.

● 월송리삼층석탑(月松里三層石塔)

[형태] 탑

[위치] 월송2리회관과 월송2리마을쉼터 서쪽 골짜기로, 주소는 서면 수정3길 64-15번지(월송2리)이다.

[유래] 1984년 6월 2일 강원도문화재자료 제9호로 지정되었다. 조면사(造麵寺) 터로 전하는 곳에 있는 탑으로 지금은 석탑만이 민가 골목길에 서

있다. 탑의 기단(基壇)은 맨 윗부분을 제외하고는 땅속에 묻혀있어 정확한 모습을 알 수 없다. 탑신(塔身)은 1층 몸돌만 한돌로 되어 있고, 1층 지붕돌과 2층 몸돌, 2층 지붕돌과 3층 몸돌, 3층 지붕돌과 꼭대기의 네모난 머리장식 반침돌이 합쳐져 각각 한돌을 이룬다. 탑신의 몸돌에는 기둥 모양이 새겼다. 둔하고 무거워 보이는 지붕돌은 낙수면의 경사가 급하고 네 귀퉁이에서의 치켜올림이 거의 없으며 밑면에는 4단의 빙침을 두었다. 탑의 크기는 지면에서 1.5m 높이였다. 화강암을 깎아 만들었으며, 고려시대에 세운 것으로 추정된다.



월송리삼층석탑

● 월송천(月松川)

[형태] 하천



월송천

[위치] 월송리 구역을 넘어 북쪽 서상리에 있는 '신매저수지'로부터 서상리와 신매리 사이로 흘러 북한강에 합류하는 하천이다.

● 응골

[형태] 마을

[위치] 기존문헌에 벌판말 동쪽에 있는 마을이라 하였다.

[어원풀이] '옹+골[谷]'로 분석된다. '옹'은 매나 수리를 의미하는 한자 '옹(鷹)'일 수도 있고, '음지'란 의미를 지닌 '옹달'을 의미할 수도 있다. 따라서 높은 곳에 있는 골짜기, 또는 응달이 지는 골짜기란 의미로 추정된다.

● 제당터

[형태] 터

[위치] 정확한 위치는 불분명하다.

[유래] 기존문헌에 산제당이 있던 터라 하였다.

[어원풀이] '제[山祭]+당(堂)+터[垈]'로 분석된다. 산제당이 있던 터라는 의미이다.

● 탑골

[형태] 마을

[위치] 월송2리 수정동 탑이 있는 마을이다.

[유래] 1984년 6월 2일 강원도문화재자료 제9호로 지정된 월송리삼층석탑(月松里三層石塔)이 있다. 화강암으로 만들어진 높이 2m의 석탑으로, 만든 연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고려시대의 것으로 추정된다. 이 탑은 조면사(造麵寺)라는 절이 있던 곳이라고 전해져오는 곳에 있다.

[어원풀이] '탑(塔)+골[谷]'로 분석된다. 탑이 있는 골짜기, 마을이란 의미이다.

● 하촌

[형태] 마을

[위치] 월송리의 아래쪽에 있는 마을이다.

[어원풀이] '하(下)+촌(村)'으로 분석된다. 아래쪽에 있는 마을이란 의미이다.

● 호리골

[형태] 마을

[위치] 월송3리에 있는 골짜기로, 도로명 월송2길이 지나고 있다.

[어원풀이] '호리+골[谷]'로 분석된다. 호리병 모양으로 가운데가 불룩한 골짜기란 의미로 추정된다.

● 흥녕골

[별칭] 흥용골

[형태] 마을

[위치] 월송리삼층석탑 남쪽 가까이에 있다.

[유래] 기존문헌에 벌판말 서쪽에 있는 마을로 흥녕사 터가 있다고 하였다. 지금은 '흥용골'이라 부른다.

[어원풀이] '흥녕+골[谷]'로 분석된다. 유래는 불분명한데 별칭이 '흥용'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흑룡(黑龍)'에서 유래한 것으로 추정된다. 검게 보일 정도로 무성한 숲이 죽 늘어서 있는 골짜기란 의미이다.

● 흥녕사 터

[형태] 터

[위치] 월송리삼층석탑 남쪽 가까이에 있는 흥녕골에 있는 절터이다.

[유래] 다른 문헌에서는 흥녕사에 대한 기록을 찾을 수 없다.

위치와 현황 | 동쪽으로 의암호가 위치하고, 서쪽으로는 삼악산이 있다. 자연마을에는 지시울, 동지야 등이 있다. 현암리는 구순대, 산매기, 풍승골, 쇠경골 등 골짜기가 많다.

연혁 | 『춘주지』를 보면 서하(西下) 가마리(加馬里)라 표기하였다. 『여지도서』, 『호구총수』, 『춘천읍지』, 『춘천부지』, 『관동읍지』는 서하면(西下面) 예동리(裔洞里)로, 『조선지지자료』는 서하일작면(西下一作面)의 상현암리(上玄岩里), 하현암리(下玄岩里)로, 『강원도지지조서』는 서하면(西下面) 현암리(玄岩里)로 표기하였다. 『강원도지』, 『수춘지』, 『춘주지』, 『춘천백년사』는 서면(西面) 현암리(玄岩里)라 표기하였다. 현재 법정리와 행정리는 동일하게 현암리다.

유래 | 가마리 또는 감화리가 변하여 현암이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동셋들, 지시울, 벼드내, 중도를 병합하여 현암리(玄岩里)라 하여 서하면(서면)에 편입되었다.

● 가래나뭇골

[형태] 골짜기

[위치] 현암리 카페거리 근처로, 버스정류장 1062번 뒷편에 보이는 골짜기이다. 건너편에 어반그린, 이디야 커피, 카페영, 카르페 등의 커피숍과 레스토랑이 분포해 있다. 춘천박사마을 어린이 글램핑장에서 덕두원 방향으로 6~700m 거리에 있다.

[유래]

기존문헌에 가래나무가 많은 골짜기라 하였다.
[어원풀이] ‘가래나무+ㅅ+골[谷]’로 분석된다. 호두나무와 비슷하면서 우리나라 순수한 토종나무인 가래나무가 많은 골짜기란 의미이다.



가래나뭇골

[어원풀이] ‘가마+리(里)’로 분석된다. 한자표기지 명이 ‘현암(玄岩)’인 점으로 미루어 ‘가마’는 ‘검/감 [亥]+암[岩]’으로 분석된다. ‘감’은 ‘감匪, 검匪, 검산, 감악산, 가마산, 가匪산, 흑산(黑山), 신산(神山)’ 등과, ‘감실, 곰실(熊室), 왕검(王儉), 금마(金馬), 개마(蓋馬), 곰티재’ 등에서 추출되는 ‘감/검/곰/굼/금마/개마’ 등의 이형태를 가지며, ‘신성함, 숭상함, 현묘함’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고유어이다. 따라서 검은빛을 띤 신성한 바위가 있는 마을이란 의미로 볼 수 있다.



가마리

● 가마리

[별칭] 감와리(堪臥里), 현암리(玄岩里)

[형태] 마을

[위치] 현암리 남단 태봉(115m) 북쪽 가까이에 있는 마을이다. ‘상현암’은 현재 ‘현암종합복지관’ 부근이고, ‘하현암’은 ‘상현암’ 남쪽 700m쯤이다. 상현암을 지시울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지시울은 상현암과 하현암 사이에 위치해 있다. 하현암은 현암리 아래쪽에 있는 마을을 가리키는데, 태봉을 기준으로 북쪽에 위치하고 있다.

[유래] ‘가마리/감와리’는 행정지명 ‘현암리’의 바탕이 된다.

● 구순대(九脣垈)

[별칭] 구진대(口唇垈), 구진대산(口唇垈山)

[형태] 봉우리

[위치] 현암리와 덕두원리의 경계 지역에 있는 봉우리이다.

[유래] 기존문헌에 깃대봉 밑에 있는 골짜기라 하였다. 지금은 ‘구진대’라 부르고, 측량에 쓰이던 이름 ‘깃대봉’ 대신에 ‘구진대(峰, 387m)’로 대신한다. 즉 ‘구진대’가 봉우리로 대표되고, 예전처럼 ‘구진대골(계곡)’이라 하는 셈이다. ‘구진대봉’은 현암리와 덕두원리 접경에 있지만, 그 소재 행정구역은 현암리에 속한다. ‘구진대’의 위치는 방동리를 관통하여 흐르는 유천(柳川)과 덕두원리를 관통하여

흐르는 덕두원천의 중앙에 있다. 또한 현암리의 본마을인 ‘가마리/감와리’가 ‘구진대’ 정동쪽 북한강(의암호)변에 있다. 현암리 본마을 애니메이션 박물관 앞에 있는 ‘깃대봉’을 ‘구진대/구순대’라고 부르는 이도 있지만 옛 지도를 볼 때 잘못으로 추정된다. 행정구역상 ‘구순대’를 경계로 하여 현암리와 덕두원리를 나누고 있다.

[어원풀이] ‘구순(九脣)+대(垈)’로 분석된다. ‘구진대(口唇垈)’라고도 표기하는 것을 고려하면 ‘구순(九脣)’은 음차자로 추정되는데 ‘구순/구진’의 의미는 불분명하다.

● 궁소

[형태] 소(沼)

[위치] 유포(柳浦) 안쪽에 있는 불당골을 소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다.

[유래] 기존문헌에 궁(구유)처럼 생긴 모양의 소(沼)라 하였다.

[어원풀이] ‘궁/구유+소(沼)’로 분석된다. ‘궁(구유)’는 소나 말 따위의 가축들에게 먹이를 담아 주는 그릇이며, 흔히 큰 나무토막이나 큰 돌을 길쭉하게 파내어 만든다. 구유처럼 길게 파인 곳에 물이 차 있는 곳을 말한다.

● 깃대봉

[형태] 산

[위치] 애니메이션박물관 앞에 솟아있는 봉우리이다. [유래] 기존문헌에 측량을 위한 삼각점이 있는 산이라 하였다.

[어원풀이] ‘깃대+봉(峰)’으로 분석된다.



깃대봉

● 도란지

[형태] 골짜기

[위치] 기존문헌에 ‘가마리(현암리 본마을)’ 뒤에 있는 골짜기라 하였다.

[어원풀이] ‘돌[石]+안[內]+지(地)’로 분석된다. ‘돌안지’의 연철 표기를 그대로 발음한 것이 굳어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 돌고지

[형태] 골짜기

[위치] 미상이다.

[유래] 기존문헌에 돌이 많은 골짜기라 하였다.

[어원풀이] ‘돌[石]+곶이’로 분석된다. ‘곶’은 장산곶, 장기곶 등 일부 고유 명사 뒤에 붙어, ‘바다로 뻗어 나온 모양을 한 곳’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로 쓰인다. 돌이 많고 강쪽으로 툭 튀어나온 지형을 의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 ‘돌고지’는 돌이 많아 척박한 땅(골짜기)을 말하기도 한다. 참고로 ‘메밀곶이’는 돌이 많아 척박하여 메밀밖에 심지 못하는 땅을 말한다.

● 돌뜨기바위

[별칭] 부석(浮石), 들뜨기바우

[형태] 바위

[위치] 기준문헌에 북한강 가운데에 있는 큰 바위라 하였다. 현재는 의암호에 수몰된 것으로 보인다. [어원풀이] ‘돌[石]+{뜨-}[浮]+{-기}(접미사)+바위[岩]’로 분석된다. 물에 떠있는 바위란 의미이다. 상중도 위에 있는 고산(孤山)을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 동잣들

[별칭] 동지야(桐枝野)

[형태] 들, 마을

[위치] 하중도 하단 부근이다. 대부분 의암호에 수몰되고 현재는 하중도 하단에 섬으로 일부가 남아 있다.

[유래] 기준문헌에 북한강 가에 있었던 마을이라 하였다.

[어원풀이] 한자표기가 ‘동지야(桐枝野)’인 점을 고려할 때 ‘동(桐)+재/가지[枝]+ㅅ+들[野]’로 분석된다. 서면에서 바라볼 때 동쪽이라는 지형적 특성을 고려하면 동쪽으로 가는 고개 부근에 있는 들판이란 의미로 추정된다.

● 둥승골

[형태] 골짜기

[위치] 기준문헌에 지시울 뒤에 있는 골짜기라 하였다. 지시울배터가 의암호에 수몰된 점으로 미루어 함께 수몰된 것으로 추정된다.

[어원풀이] ‘뭉승+골[谷]’로 분석된다. ‘뭉승’의 의미는 불분명하다.

● 박사마을어린이글램핑장

[형태] 레저

[위치] 의암호 방동리 초입에서 박사로를 타고 1.5km쯤 남서진하면 의암호변에 있다. 하현암 지

역과 현암리 소공원 부근을 더불어 현암리 일대에서 가장 평평한 지역이다. 이 지역을 ‘현암평(玄岩坪)’으로 불렀을 것으로 추정된다. 춘천파크 골프장과 인접해 있다. 건너편 골짜기는 ‘우뭇골, 웃뭇골’ 등으로 부르며 그곳을 상현암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골짜기를 넘어가면 베드내 불당골로 이어진다.



박사마을어린이글램핑장

● 베드내

[별칭] 유포(柳浦)

[형태] 마을

[위치] 유천(柳川)은 방동리에서 도로지명 ‘신승검로’와 나란히 하며 방동리를 관통하여 의암호에 합류한다. 의암호 방동리 입구 유천(柳川) 하구, 박사로 남쪽에 ‘베드내[柳浦]’가 있다. 베드내 안쪽에 ‘불당골’이 있으며 ‘불당골’을 넘어 감와리 본마을로 갈 수 있었다. 반대편에서는 ‘우묵골, 웃묵골’ 등으로 부른다.

[유래] 기준문헌에 “전에 베드나무가 있어서 베드내, 유포라 불렸다.”라 하였다.

[어원풀이] ‘베드/버들[柳]+내[浦]’로 분석된다. ‘베드내’를 ‘유천(柳川)’이라 하지 않고 ‘유포(柳浦)’라 한 것은 방동리에서 의암호로 흐르는 개천인 ‘유천(柳川)’과 구별하기 위해서이다. 즉 베드나무가 많은 개천가 마을 ‘베드내’가 자연마을로 생겨났고,

개천 이름도 자연스레 ‘벼드내’로 부르다가, 한자 유입 후 개천과 마을을 구별하여 마을은 ‘유포(柳浦)’로, 개울은 ‘유천(柳川)’으로 각각 훈차 표기하였다.



벼드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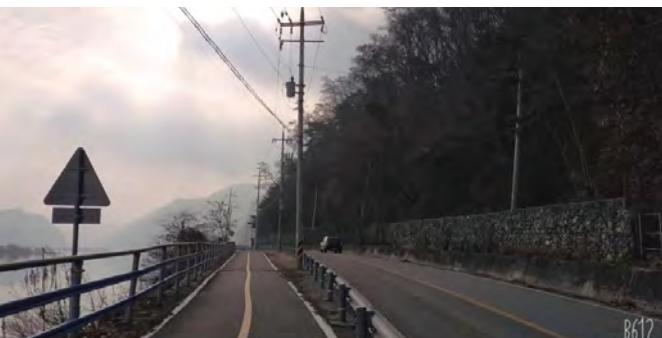
● 벌맞재

[형태] 고개

[위치] 커피숍이 많이 조성된 지역을 지나 하중도의 건너편에 위치한 곳으로, 춘천댐, 화천으로 가는 의암호반길이 조성되면서 벼랑이었던 지형이 끊어지게 되었다.

[유래] 기존문헌에는 ‘벌뫼(자손 모르는 무덤)가 있는 산’이라 하였다.

[어원풀이] 기존문헌의 소개에 따르면 ‘벌+뫼/묘(墓)+ㅅ+재[峙]’로 분석된다. 그런데 지형적인 면을 고려했을 때 ‘벌[崖]+미/뫼[山]+재[峙]’로 분석



벌맞재

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고어에서 ‘벌’은 ‘벼랑’을 뜻하는 말이기에 벼랑이 진 산에 있는 고개란 의미이다.

● 병뒤

[형태] 들

[위치] 기존문헌의 기록에 따르면 중도 부근으로 현재는 의암호에 수몰된 것으로 추정된다.

[유래] 기존문헌에 ‘새마을’에 있는 들이라 하였다. ‘새마을’은 ‘백로주(白鷺洲)/새마을/신촌(新村)/중도(中島)/엽귀섬’이다.

[어원풀이] ‘병/벌(벌판, 野)+뒤[後]’로 분석된다. 새마을 벌판 뒤에 있는 들이란 의미이다. 타 지역의 경우 ‘병’이 ‘부엉이’의 축약형으로 쓰이기도 하므로 ‘부엉이골’로 볼 수도 있다.

● 봉우리재

[형태] 산

[위치] 기존문헌에 지시울 뒤에 있는 산이라 하였다. 상현함의 ‘우묵골, 웃묵골’과 벼드내의 불당골에서 금산리 방향으로 솟아있는 ‘깃대봉’을 ‘봉우리재’라고 부른다.

[어원풀이] ‘봉우리+재[峙]’로 분석된다. 강원도에는 산을 ‘재[峙]’로 명명한 지명이 많다.



봉우리재

● 불당골

[형태] 골짜기

[위치] 베드내[柳浦] 안쪽에 형성된 골짜기로 풍양 조씨 추모원이 옆에 있다. 불당골을 넘어 강변의 현암리 본마을로 갈 수 있는데, 반대편에서는 ‘우묵골, 우뭇골’로 불렸다. 현재 그 앞에는 박사마을 글램핑장과 춘천파크 골프장이 형성되어 있다. 현재는 태봉 남서쪽에 있는 골짜기를 불당골이라고 부른다.

[유래] 기존문헌에 불당이 있던 골짜기라 하였다. 서면에는 현암리, 서상리, 오월리, 덕두원리, 안보리 등에 ‘불당터, 불당골’이 있다. 베드내에 있는 골짜기 안쪽에서 사찰에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기와 조각과 사찰 물건이 발견되었다고 한다. 불당골에 ‘소’가 있다는 증언도 있다.

[어원풀이] ‘불당(佛堂)+골[谷]’로 분석된다.

‘벼루’는 벼랑이나 비탈을 뜻하는 옛말로 강원도에 특히 많다. 지역에 따라 ‘별어, 배리’ 등으로 부르기도 한다. 사다리를 놓아야 올라갈 수 있는 벼랑, 또는 사다리처럼 가파른 벼랑이란 의미로 볼 수 있다.

● 산매기

[형태] 골짜기

[위치] 기존문헌에 ‘가마리’ 뒤에 있는 골짜기라 하였다. 현재 지명에는 산매기를 ‘불당골’로 부르기도 한다.

[어원풀이] ‘산(山)+매/뫼[山]+기(基)’로 분석된다. 한자어와 고유어가 결합한 형태의 지명으로 ‘산속에 터를 잡을 만한 골짜기’ 정도의 의미이다.



산매기

● 사닥다리벼루

[형태] 산

[위치] 현암리와 덕두원리의 경계에 있는 벼랑이다. 현암리와 덕두원리의 접경은 현암리 서남쪽이며, 가장 높은 지대는 ‘구진대/구순대(387m)’ 부근이다.

[어원풀이] ‘사닥다리+벼루/벼랑[崖]’으로 분석된다.



사닥다리벼루

● 삼선당

[형태] 여울

[위치] 기존문헌에 북한강에 있는 여울이라 하였다. 의암호에 수몰된 것으로 추정된다.

[어원풀이] ‘삼선/삼신(三神)+당(堂)’으로 분석된다. ‘삼선’은 ‘삼신’의 와전으로 추정된다.

● 삿갓바우

[형태] 바위

[위치] 미상이다.

[유래] 기존문헌에 삿갓처럼 생겼다는 바위라 하였다.
[어원풀이] ‘삿갓[笠]+바우[岩]’로 분석된다. 삿갓 모양의 바위란 의미이다.

● 성골

[형태] 골짜기

[위치] 산매기, 불당골을 넘어 덕두원리로 가는 중간에 있는 골짜기이다. 골짜기의 북쪽에 있는 정상을 구진대(구순대)라 부른다. 덕두원리에서는 명월제1교 뒤편에 있는 골짜기를 성골이라고 한다.

[어원풀이] ‘성+골[谷]’로 분석된다. 의미는 불분명한데 성(城)처럼 긴 골짜기란 의미로 볼 수도 있고 불당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스님이 사는 골짜기’란 의미의 ‘승골[僧谷]’이 와전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 선당

[형태] 마을

[위치] 기존문헌에 북한강에 있는 마을이라 하였다. 현재 ‘우묵골/웃묵골’ 원편에 서낭고개가 있는데, 이곳에 형성된 마을을 지칭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어원풀이] ‘선+당(堂)’으로 분석한다. ‘서낭당’을 줄여서 편의상 부른 이름으로 추정된다. 서면에는 ‘서낭-’과 관련된 지명이 있는 서상리, 금산리, 현암리, 신매리, 덕두원리 등에 산재한다.

● 소줏골

[형태] 골짜기

[위치] 기존문헌에 가마리 뒤에 있는 골짜기라 하였다. 현재는 수몰된 것으로 추정된다.

[어원풀이] ‘소주+ㅅ+골[谷]’로 분석된다. 유래는 불분명한데 솟대의 일종인 효죽(孝竹)이 있는 골짜기란 의미에서 ‘효죽골’로 불리던 것이 와전된 것

으로 추정된다. 효죽(孝竹)은 과거급제자가 나온 마을임을 표시하는 솟대의 일종이다.

● 쇠경골

[형태] 골짜기

[위치] 기존문헌에 덕두원리와 경계가 되는 골짜기라 하였다.

[어원풀이] ‘쇠경+골[谷]’로 분석된다. ‘쇠경’은 ‘시각 장애인’을 낮잡아 이르는 ‘소경’을 말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는 소가 밭을 가는 형국이라 하여 생겨난 지명으로 보기도 한다.

● 쇠뜨기재

[형태] 산

[위치] 기존문헌에 가마리 뒤에 있는 등성이라 하였다.

[어원풀이] ‘소떼+기[基]+재[峙]’로 분석된다. 서면에서 기른 소 떼를 끌고 춘천 시내로 가기 위해서 나루터에서 배를 이용해야 했는데, 그 소 떼를 모아 놓던 언덕/구릉을 ‘쇠뜨기재’라 부른다.

● 아울치

[별칭] 합수머리

[형태] 들

[위치] 봉어섬의 끝부분으로 의암댐이 없었을 때 소양강과 신연강이 하중도 양쪽에서 흘러나오다가 만나는 부분을 말한다. 현재는 의암호에 수몰되고 가운데 봉어섬만 남아있다.

[유래] 기존문헌에 두 개울이 합치는 곳에 있던 들이라 하였다.

[어원풀이] ‘{아우-르-}[合]+{-르}(관형형)+치[峙]’로 분석된다. 별칭인 합수머리는 ‘합(合)+수(水)+머리’로 분석되는데 ‘물이 합쳐지는 곳의 첫부분’이란

의미이다.



아울치

● 애무시

[형태] 골짜기

[위치] 미상이다.

[유래] 기존문헌에 어린아이의 무덤이 많다고 하였다.

[어원풀이] ‘애/아이’[兒]+‘무시’(묻이[墓址])로 분석된다. 아이를 묻은 곳이란 의미이다.

● 예용개

[형태] 들

[위치] 기존문헌에 북한강 가에 있는 들이라 하였다. 수몰된 것으로 추정된다.

[어원풀이] ‘예용+개’로 분석된다. ‘예용’에 가까운 지명 어형은 ‘예음길/에옴길/에옴길’의 ‘에옴/에움/에음/에음/에음’이 있다. 고어로 ‘에음’은 둘러싼다는 뜻이다. ‘예용개’가 ‘에음개/에음개’라면 ‘실개천이 들을 둘러싼 형국’이란 의미이다.

● 여웃골

[형태] 골짜기

[위치] 기존문헌에 가마리 뒤에 있는 골짜기라 하였다.

[어원풀이] ‘여우[狐]+ㅅ+골[谷]’로 분석된다.

● 역귀산

[형태] 산

[위치] 미상이다.

[유래] 기존문헌에 칼날처럼 생긴 산이라 하였다.

[어원풀이] ‘역귀(疫鬼)+산(山)’으로 분석된다. ‘칼날처럼 생긴 산’이어서 ‘역귀(疫鬼)’로 불린 것이다. 중도(中島)의 별칭인 ‘엽귀섬’도 ‘역귀산’과 관련지으면 ‘엽귀섬’이었을 가능성도 있다.

● 영강들

[형태] 들

[위치] 기존문헌에 북한강 가에 있는 들이라 하였다. 의암댐 건설 후 의암호에 수몰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어원풀이] ‘영강+들[野]’로 분석된다. 지명에서 말 음 ‘ㄴ’이 ‘ㅇ’으로 변이된다는 점과 소재지를 고려하면 ‘영강’은 ‘연강/신연강’일 수도 있다.

● 우목골

[별칭] 웃목골, 웃뭇골

[형태] 골짜기

[위치] 박사마을 어린이글램핑장, 춘천파크 골프장에서 깃대봉 쪽으로 형성된 골짜기이다. 이 골짜기를 통해 베드내 불당골로 이어진다.

[유래] 기존문헌에 우목한 골짜기라 하였다.

[어원풀이] 기존문헌의 기록에 근거하면 ‘우목+골[谷]’로 분석된다. ‘우목’은 가운데가 둉그스름하게 폭 패거나 들어가 있는 모양이 된다. 또는 ‘우물이 나 샘터가 있었던 골짜기’란 의미의 ‘우물골’이 ‘음 목골’로 와전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우북골

● 정갯골

[형태] 골

[위치] 기준문헌에 가마리 뒤에 있는 골짜기라 하였다.

[어원풀이] ‘정+개[溪]+ㅅ+골[谷]’로 분석된다. 유래는 불분명한데 타 지역의 경우 정씨 성을 가진 집이 많이 살아서 생겨난 지명이라 하기도 한다.

● 좁은골

[형태] 골짜기

[위치] 미상이다.

[유래] 기준문헌에 골짜기가 좁아서 생겨난 지명이라 하였다.

[어원풀이] ‘좁은[狹]+골[谷]’로 분석된다.

● 중나루터

[별칭] 중진(中津)

[형태] 나루

[위치] 현 춘천파크골프장 부근에 있었다. 1970년 ‘중도 나룻배 전복 사건’이 일어났는데, 현암리에서 중도를 거쳐 근화동으로 이동하는 배였다.

[유래] 기준문헌에 서면과 춘천 중간에 있는 나루터라 하였다.

[어원풀이] ‘중나루터/중진(中津)’은 의암호에 수몰

된 ‘중진강’의 나루터였다.

● 지시울

[별칭] 상현암(上玄岩)

[형태] 마을

[위치] 현암리 카페거리 근처에서 산쪽에 형성되어 있는 마을로, 상현암과 하현암 가운데쯤에 위치해 있다.

[유래] 기준문헌에 가마리 동북쪽에 있는 마을이라 하였다.

[어원풀이] ‘지시+울[村]’로 분석된다. ‘지시-’의 의미는 애매한데 몇 가지로 추론이 가능하다. 첫째, ‘짓’은 ‘집[家]’의 고어이거나 ‘깃[羽]’의 고어이다. 둘째, 지형지세를 고려하면 ‘(산)기술’에서 ‘기슭/기식/지식/지시’로 와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제사에 필요한 용품을 생산하는 밭인 ‘지밭[祭田]’이 있는 골짜기란 의미의 ‘집실’이 ‘집시울’로 변하고 다시 ‘지시울’로 변형된 것으로 추정할 수도 있다.



지시울

● 지시울배터기

[형태] 나루

[위치] 북한강에 있던 나루터로 의암호가 조성되며 수몰되었다. 현재 강변에 카페가 많이 조성되어 있으며, 펜션 강변 옆으로 선착장과 같은 것이 있는

데, ‘지시울’이라는 지명으로 볼 때 이곳으로 추정된다.

[유래] 기존문헌에 북한강에 있는 나루터라 하였다.

[어원풀이] ‘지시+울[村]+배[舟]+터기[堡]’로 분석된다. ‘지시울’ 참조.

● 초당골

[형태] 골짜기

[위치] 기존문헌에 지시울 뒤에 있는 골짜기라 하였다.

[어원풀이] ‘초당(草堂)+골[谷]’로 분석된다. 움막[草堂]이 있던 골짜기란 의미이다.



초당골

쯤 남진하면 의암호변에 있다. 박사마을어린이글램핑장과 인접해 있다.

● 칼바우

[형태] 바위

[위치] 현암리 베드내 안쪽에 있는 바위로, 아래 사진의 정면에 약트막한 산처럼 보이는 지형을 말한다. 그 골짜기로 들어가면 불당골이 나오며, 반대편의 우뭇골로 넘어갈 수 있다. 윈幡에는 측량지점으로 쓰이던 깃대봉이 있다.

[유래] 기존문헌에 칼처럼 생긴 바위라 하였다.

[어원풀이] ‘칼[刀]+바우[岩]’로 분석된다. 칼을 세워둔 것처럼 높고 가파른 바위를 말한다.



칼바우

● 춘천파크골프장

[형태] 레저

[위치] 의암호 방동리 초입에서 박사로를 타고 600m



춘천파크골프장

● 태봉골

[형태] 골짜기

[위치] 구진대 밑으로 태봉 뒷편에 형성되어 있는 골짜기이다.

[유래] 기존문헌에 태봉산(胎封山) 밑에 있는 골짜기로 예전 고려 왕이 태를 묻었다는 산이라 하였다. 카페 ‘메밀꽃 필 무렵’ 근처에서 태봉산에 오를 수 있다.

[어원풀이] ‘태봉(胎封)+골[谷]’로 분석된다. 태를 묻은 태봉이 있는 골짜기란 의미이다.



태봉골

● 태봉산(胎封山)

[별칭] 태봉(胎封)

[형태] 산

[위치] 카페 ‘메밀꽃 필 무렵’ 뒤편에 있는 산으로 현암리 산52-1번지이다. 태봉(산)이 있는 이 지역을 깁와리라 부르기도 한다.

[유래] 예전 고려왕의 태를 묻었다는 전설이 전해져 온다. 봉우리 정상에 태실과 관련된 귀부(龜趺)가 남아 있다. 현암리 태실은 비석은 사라지고 귀부만 남아 있고, 그 앞에 ‘현암리 태봉귀부’ 안내판이 있다. 현암리 태봉을 고려시대 왕의 태로 추정하고 있으나, 조선 선조와 관련짓기도 한다. 어느 시대의 것인지 정확히 밝힐 수는 없지만 조각기법을 볼 때, 최고장인에 의해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



태봉산과 태봉귀부

● 풋못고개

[형태] 고개

[위치] 버드내와 지시울 경계에 있는 고개이다. 지시울 서쪽 능선에서 북쪽 버드내로 내려갔을 것이다. 현재는 지형이 많이 달라져서 고개로서의 기능은 없어졌지만, 수몰 지역에서부터 생각한다면 낮은 언덕 지형으로 확인할 수 있다.

[어원풀이] ‘풋못/풀무+ㅅ+고개[峙]’로 분석된다. ‘풋무’는 ‘풀무’로 대장간을 말한다. 아래 사진에 보이는 주황색 지붕집이 대장간으로 쓰이던 집이다.



풋못고개

● 풋못골

[별칭] 풀무골

[형태] 골짜기

[위치] 풋못고개에 딸린 골짜기이다.

[유래] 기준문현에 전에 대장간이 있던 골짜기라 하였다.

[어원풀이] ‘풋풋/풀무+ㅅ+골[谷]’로 분석된다. ‘풋풋고개’ 참조.

● 하현암(下玄岩)

[형태] 마을

[위치] 현암리 아래쪽에 있는 마을로, 태봉을 기준으로 하여 북쪽 100m 즈음에 있다. 근처에 태봉, 태봉골, 산매기, 불당골 등이 있다. 아래 사진의 태봉산 뒤쪽에 있는 마을이다.

[유래] 방동리에서 흘러온 유천이 의암호로 유입되는 부근에 ‘현암리소공원’이 자리한다. 그 앞 인근 지역이 ‘상현암’이고, 700m쯤 남서쪽 부근은 ‘하현암’ 지역이다. 상현암과 하현암 사이에 있는 마을을 지시울이라 한다.

[어원풀이] ‘하(下)+현암(玄岩)’으로 분석된다. ‘가마리’ 참조.



하현암



한강골

● 현암리소공원

[형태] 공원

[위치] 방동천이 의암호에 합류하는 곳 100m 아래에 있다. 그 남쪽 가까이에 춘천파크골프장과 박사마을어린이글램핑장이 있다.



현암리소공원

● 한강골

[형태] 골짜기

[위치] 기준문현에 벼드내에 있는 골짜기라 하였다. 벼드내 남쪽 가장 긴 골짜기로 추정된다.

[어원풀이] ‘한강(북한강)+골[谷]’로 분석된다.



신동면(新東面)

동쪽으로 동내면(東內面)·동산면(東山面), 남쪽으로 동산면(東山面)·남면(南面), 서쪽으로 남면(南面)·서면(西面), 북쪽으로 서면(西面)·동면(東面)과 접한다. 춘천분지에 속하는 평지를 둘러싸고 동쪽에 700~800m의 산지, 남쪽

에 400m 미만의 구릉지가 있다. 주요 농산물로 쌀·보리·옥수수가 나며, 그 외에 채소와 배·포도·복숭아·자두·사과 등 과일과 젖소·닭·칠면조·한우·돼지 등 가축 사육도 활발하다. 의암댐 주변의 경치가 훌륭하여 관광지로 널리 알려졌다.

본래 춘천의 남쪽에 있다고 하여 남부내면(南府內面)이라 불렸다. 『여지도서』와 『호구총수』에는 남부내면에 퇴계리·갈마곡리·칠전리·강창동리 등의 위치와 호구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해동지도』에는 향로봉(香爐峯), 봉황루(鳳凰樓) 등이 표기되어 있다. 주변에는 신연강(新淵江)이 흐른다. 『1872년지방지도』에는 읍치 중심으로 설명되어 있어 공치천 남쪽으로 남부내면의 표기만이 보인다. 1914년 남내일작면의 정족(鼎足)·고청(古青)·지품(地品)·신암(新岩)·천동(泉洞) 등의 9개 리와 남내이작면의 팔미(八味)·종리(甑里)·혈동(穴洞)의 3개 리, 부내면의 약사원리(藥司院里)를 병합하여 신남면으로 개칭하고, 정족리·송암리·팔미리·종리·퇴계리 등을 관할하였다. 1939년 퇴계리를 춘천읍으로 이관하고 거두·신촌·고은·사암·학곡의 5개 리와 남산외이작면의 의암리를 편입시켜 신동면이라 개칭하여 13개 리를 관할하였다가 1989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현재에 이르고 있다.

위치와 현황 | 서쪽으로 의암댐이 있는 전형적인 농촌지역이다. 자연마을에는 아래웃바우, 윗웃바우 등이 있다. 독수리처럼 생긴 수리봉과 의암댐이 있다. 의암리나 의암댐의 의암(衣岩)은 모두 앞 강가에 있는 옷바우의 한자표기이다.

신동면

연혁 | 『여지도서』는 남내면(南內面) 의암리(衣巖里)라 표기하였다. 『호구총수』는 남내이작면(南內二作面)에 의암리(衣巖里)를 포함시켰다. 『춘천읍지』, 『춘천부지』, 『관동읍지』 모두 남내면(南內面) 의암리(衣巖里)라 표기하였다. 『조선지지자료』는 남내이작면(南內二作面)의 의암리(衣岩里)로, 『강원도지지조서』는 남산외이작면(南山外二作面)의 의암리(衣岩里)로 표기하였다. 『강원도지』는 신남면(新南面)의 의암리(衣岩里)로 표기하였다. 1946년 신남의 ‘新’자와 동내의 ‘東’자를 취하여 신동면으로 개칭되면서 『수춘지』, 『춘주지』, 『춘천백년사』는 신동면(新東面) 의암리(衣岩里)로 표기했다. 현재 법정리와 행정리는 동일하게 의암리다.

유래 | 본래 강가에 옷바우가 있으므로 옷바우, 칠바우 또는 의암(衣岩)이라 하였고, 마을 이름도 여기에서 유래하였다.

● 개안

[별칭] 개내

[형태] 들

[위치] 의암1리에서 ‘안경굴(의암터널)’ 가기 전, 팔미천 안쪽에 있는 들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개[浦]의 안쪽에 있는 들이라 하였다.

[어원풀이] ‘개[浦, 川 ; 팔미천, 발미개울]+안[內]’으로 분석된다. 물가 안쪽에 있는 들판이란 의미이다.

● 거북바우

[별칭] 옹기바우

[형태] 바위

[위치] ‘문바위’ 앞에 있다.

[유래] 거북처럼 생긴 바위이다. 또는 옹기처럼 생겼다고 ‘옹기바위’라고도 한다.

[어원풀이] ‘거북[龜]+바위[岩]’로 분석된다.

● 건넌들

[별칭] 거넌들, 건는들, 던건넌들, 월평(越坪)

[형태] 들

[위치] 팔미천 넘어 옛 경춘선 철길 사이에 있는 들

[유래] 『조선지지자료』에 의암리 소재 들판 이름으로 ‘越坪(거넌들)’이 기재되어 있고, 『한국지명총람』에 “웃바우 건너편에 있는 들”로 소개되어 있다.

[어원풀이] ‘건넌[越]+들[坪]’로 분석된다. ‘건는들/거넌들’의 변이형태로 나타난다. 건너편에 있는 들판이란 의미이다. 별칭 ‘던건넌들’의 어두(語頭) ‘던’은 ‘팔미천’을 상정하고, ‘던>천(구개음화)>천(단모음화)’으로 해석할 수 있다. 곧 ‘던’은 ‘천(川)’의 고어형이다.

● 건넌들보

[별칭] 월평보(越坪洑)

[형태] 수리

[위치] 건넌들 앞에 있는 보(洑)

[유래] 『조선지지자료』에 의암리 소재 보(洑) 이름으로 ‘越坪洑(건넌들보)’가 기재되어 있다.

[어원풀이] ‘건넌들보’는 ‘{건넌/건너-(越)}+{-(관형사형어미)}+들(坪)+보(洑)’로 분석된다.

● 고강소

[형태] 소(沼)

[위치] 미상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웃바우에 있는 소(沼)”라 하였다.

[어원풀이] ‘고간(庫間)>고강+소(沼)’로 분석할 수 있다. 고간(庫間) 옆에 있는 소(沼)이다.

● 골안

[형태] 마을

[위치] ‘웃바우(의암마을)’에서 팔미천을 거슬러 첫 골짜기 안에 있는 마을로, 신동면 의암리 130번지 일대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산골짜기 안에 있는 마을이라 소개되어 있다.

[어원풀이] ‘골[谷]+안[內]’으로 분석된다. ‘골짜기 안쪽’이란 의미이다.

● 광바위

[별칭] 광암(廣岩)

[형태] 바위

[위치] 안경굴 앞에 있던 넓은 바위이다.

[어원풀이] ‘광(廣)+바위[岩]’로 분석된다. 넓은 바위란 의미이다.

● 궁성께

[형태] 골짜기

[유래] 지역조사보고서에 “서낭당 가는 곳에 있는 의암댐 수자원공사 직원의 사택 골짜기”라 하였다.

[어원풀이] ‘궁성(?)+께’로 분석된다. 지명첩미사 ‘-께’는 어떤 구체적인 장소를 중심으로 그 주변을 나타내며, ‘들, 마을, 골, 벼덩, 샘’ 등 다양한 의미를 가진다. ‘x+께’에서 x는 ‘사당(祠堂)+께’처럼 ‘어떤 구체적인 장소’여야 하는데 ‘궁성’은 분명치 않다. ‘궁시(弓矢)’라면 ‘활터께’로 추정된다.

● 김유정문인비

[형태] 비석

[위치] 의암댐에서 문암을 지나면 의암호인어상과 김유정문인비가 나온다. 앞 골짜기 의암호를 가로 질러 의암스카이워크(전망대)도 보인다.

[유래] 1968년 5월 29일 준공, 1990년 3월 29일 보수했다고 비석에 새겨져 있다.

● 노적봉

[별칭] 북두산, 복두산(樸頭山).

[형태] 산

[위치] 드름산 줄기에서 의암호 쪽 산으로 학바위 옆에 있다.

[유래] 『춘천의 지명유래』에 꼭대기가 노적처럼 생긴 산이라 소개되어 있다.

[어원풀이] ‘노적/노적가리(露積-)+봉(峯)’으로 분석된다. 노적처럼 생긴 봉우리란 의미이다.

● 맹댕이

[형태] 골짜기

[유래] 지역조사보고서에 앞산 옆 골짜기라 하였다.

[어원풀이] ‘맹댕이’+(덩굴)’로 분석된다. ‘맹댕이(덩

굴)’이 있는 골짜기란 의미이다. 지명 ‘맹댕이’는 여러 산간 지역에 보이며, 모두 ‘맹댕이덩굴’과 관련 된다.

● 돌턱개

[별칭] 돌텃개, 들턱개

[형태] 하천

[위치] 웃바위교 근처에 있으며, 인근에 ‘영자바위’가 있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큰 돌이 있는 내(川)”라 하였다.

[어원풀이] ‘돌[石]+터[垈]+ㅅ+개[川]’로 분석된다. ‘(큰) 돌이 많이 흘어져 있는 개울가 터’란 의미이다.

● 뒷재

[형태] 고개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동리 뒤에 있는 산”이라 하였고, 지역조사보고서에 “동네 뒤쪽에 있는 산으로 신동으로 넘가는 재이다.”라 하였다.

[어원풀이] ‘뒤[後]+ㅅ+재[峙]’로 분석된다. 마을 뒤에 있는 고개란 의미이다.

● 말구네미

[형태] 굴

[위치] 의암리에서 팔미천을 건너 예전 경춘선 철길을 너머 설미 쪽으로 가는 곳에 있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의암리에 있는 굴이라 하였다.

[어원풀이] ‘말+굴(窟)+네미’로 분석된다. ‘말’의 후부 ‘굴(구)네미’로 보아 ‘말’은 흔히 거론되는 ‘말[馬]’은 아니다. 고어 ‘묘루’는 ‘높은 곳, 신성한 곳’을 뜻하며 ‘말/마루’로 흔적을 남겼다. ‘말티재, 산마루, 고갯마루, 용마루, 대청마루, 마루 종(宗)’이

그것이다. ‘말구네미’는 높은 곳에 있는 굴이란 의미이다.

● 문바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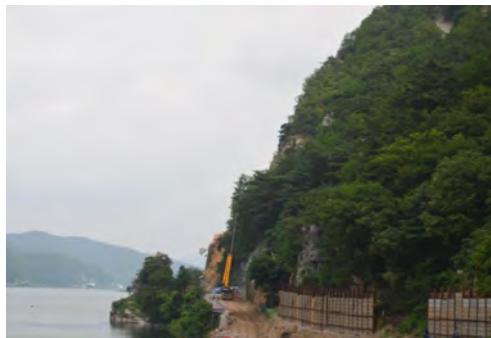
[별칭] 문바위, 문암(門巖)

[형태] 바위

[위치] 의암댐으로 가는 국도에서 인어상 주변에 있는 바위이다.

[유래] 『조선지지자료』에 의암리 소재 바위 이름으로 ‘門岩(문바우)’이 기재되어 있고, 『춘천의 지명유래』에 문처럼 생긴 바위라 하였다.

[어원풀이] ‘문(門)+바우/바위[巖]’로 분석된다. 문처럼 생긴 바위란 의미이다.



문바우

● 미라골

[형태] 골짜기

[위치] 의암리에서 칠전동으로 넘어가는 ‘새내미’ 옆에 있다.

[어원풀이] ‘미/밀[水]+이/아(속격조사)+골[谷]’로 분석된다. 다른 지역에서, ‘미라골’의 ‘미라’를 한자 美羅로 보아 ‘아름다운 계곡’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으나, 오히려 부여계 고어 ‘밀[水, 海]’과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 박달이

[별칭] 박달

[형태] 산

[위치] 안산 옆에 있는 낭떠러지가 있는 산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비스듬히 경사를 이룬 산이라 하였고, 지역조사보고서에 “안산 옆에 있는 낭떠러지로 서덜이 심하다고 해서 부르는 이름이다.”라 하였다.

[어원풀이] ‘박/밝-[明, 白]+달(達)+이’(파생접미사)로 분석된다. 단군(檀君)이 내려온 박달나무(神壇樹)에서 ‘박달’은 ‘밝-[明, 白]+달(達; 아사달)’로 해석되며 ‘배달(민족)’로 전음(轉音)된다.

● 발미개울

[별칭] 발미천(跋尾川), 팔미천(八味川)

[형태] 하천

[위치] 팔미천을 의암리에서 일컫는 말이다.

[어원풀이] ‘발미(跋尾) → 팔미(八味)+개울[川]’로 분석된다. ‘발미(跋尾)’의 한자는 음차자(音借字)이다. ‘발미개울/발미개울, 발미천, 팔미천’이 ‘대룡산 서쪽(신동면 원창리) 산줄기 매봉(응봉)에서 발원(發源 → 이를 跋尾로 음차 표기)하는 데서 유래한다.

● 밤안골

[형태] 골짜기

[위치] 의암리 마을 안쪽 옆에 있는 골짜기이다. ‘의암천’ 상류를 따라 ‘대미골 – 밤안골 – 미라골 – 은골’로 이어지며, ‘새내미’를 넘어 칠전동으로 들어간다.

[유래] 예전에 이곳에 밤나무가 많았다. 지금은 대규모 비닐하우스 농장이 들어섰다.

[어원풀이] ‘밤[栗]+안[內]+골[谷]’로 분석된다.

● 범바우달

[형태] 산

[위치] ‘미라골’과 ‘은골’을 끈 ‘드름산’ 남쪽 산줄기이다.

[유래] 지역조사보고서에 “마을 뒤에 있는 산으로, 이곳에서 범이 살았다.”고 소개되어 있다.

[어원풀이] ‘범[虎]+바우/바위[岩]+달(達=山)’로 분석된다. 범바위가 있는 산이란 의미이다.

● 상보(上洑)

[형태] 보(洑)

[위치] 예전 ‘안경굴’이라 부르던 ‘의암터널’ 부근, 철길 너머에 있는 보(洑)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위쪽에 있는 보(洑)”라 하였다.

‘미/-네미’는 전국적으로 공존한다. 그 어원형은 ‘-나미’이며, 모음교체로 ‘-너미’를 가지며, 그리고 모음변이에 의한 ‘-내미/-네미’로 흔히 쓰인다. 이 ‘나미/너미, 내미/네미’는 기본 의미 ‘남다(餘)’에서 ‘넘다(越)’로 의미가 확장되어 쓰기도 한다. ‘새내미’의 ‘내미’는 ‘넘다[越]’를 가진다.

● 새실내미

[별칭] 웃골고개, 새질너미고개, 신유치(新踰峙)

[형태] 고개

[위치] 웃골에 있는 고개이다.

[유래] 『조선지지자료』에 의암리에 있는 고개 이름으로 ‘시질너미고개(新踰峙)’가 기재되어 있다.

[어원풀이] ‘새[新]+실[村]+내미(첩미사)’로 분석된다. 새실로 넘어다니는 고개란 의미이다.

● 상의암(上衣岩)

[별칭] 웃웃바우, 상의암리(上衣岩里)

[형태] 마을

[위치] 웃바우 위쪽에 있는 마을이다. 의암리의 마을 형성은 의암리 팔미천을 중심으로 북쪽 의암댐 본 마을(웃바우)과 팔미리 쪽 첫 골짜기인 ‘골안(마을)’이 있고, 남쪽 ‘건넌들’이 있으며, 이곳 도로지명은 ‘의암3길’이다.

● 석축구미(石築 구미)

[별칭] 석축구미

[형태] 소(沼)

[위치] 의암철교 위쪽 바위를 돌아가는 곳에 있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돌로 축대를 쌓아 놓은 곳에 있는 소(沼)이다.”라 하였다.

[어원풀이] ‘석축(石築)+구미’로 분석된다. 지명접미사 ‘구미’는 ‘구미/귀미/후미’ 등의 변이형을 가지며, ‘바다나 강가 주변에서 음푹 들어간 곳이나 후미진 곳’을 뜻한다. ‘석축구미’가 ‘소(沼)’라면 자연적인 ‘후미/구미진 소(沼)에, 인공적으로 축대를 쌓아올린 소(沼)’가 되었을 것이다.

● 새내미

[형태] 골짜기

[위치] ‘은골’에서 동북쪽으로 난 골짜기로, 계속 이어가면 칠전동으로 넘어간다.

[유래] 지역조사보고서에 응골 옆에 있는 골짜기라 하였다.

[어원풀이] ‘새[鳥]+내미[越]’로 분석된다. ‘새’는 응골(매골)을 참조하면 새(鳥)이다. 지명접미사 ‘-내미’는 전국적으로 공존한다. 그 어원형은 ‘-나미’이며, 모음교체로 ‘-너미’를 가지며, 그리고 모음변이에 의한 ‘-내미/-네미’로 흔히 쓰인다. 이 ‘나미/너미, 내미/네미’는 기본 의미 ‘남다(餘)’에서 ‘넘다(越)’로 의미가 확장되어 쓰기도 한다. ‘새내미’의 ‘내미’는 ‘넘다[越]’를 가진다.

● 선바우

[별칭] 입석(立石)

[형태] 바위

[위치] 미상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서 있는 모양의 바위이다.”라 하였다.

[어원풀이] ‘선[立]+바우/바위[岩]’로 분석된다. ‘입석(立石)’과 입석리(立石里)’는 전국에 산재한다.

● 셀다리

[별칭] 섭다리

[형태] 다리

[위치] 본 마을과 오두막골 사이에 있는 팔미천을 건너는 곳에 셀다리가 있었다.

[어원풀이] ‘섶[薪]+다리[橋]’로 분석된다. 셀나무를 엮어서 만들어 놓은 다리. 셀은 잎나무, 풋나무, 물거리 따위의 떨나무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 쇠뿔꼴

[형태] 바위

[위치] ‘설미’ 쪽에 있었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쇠뿔처럼 생긴 바위라 하였다.

[어원풀이] ‘쇠/소[牛]+뿔[角]+ㅅ+꼴[바위]’로 분석된다.

● 쇠목여울

[형태] 수리

[위치] 예전에 ‘학암탄(鶴岩灘)’이라 부르던 유역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쇠목처럼 생긴 여울이라 하였다. 1967년 의암댐이 생기면서 의암호 안에 잠겼다.

[어원풀이] ‘소[牛]/쇠+목[項]+여울[灘]’로 분석된다. 지명첩미사 ‘목(項)’은 ‘목/목이/메기/매기/모기’ 등의 이형태를 가지며 ‘좁다란 산협이나 물 속을 가로 지르는 길목’을 뜻한다. 특히 ‘통로의 다른

곳으로는 빠져나갈 수 없는 중요하고 좁은 곳’을 가리킨다.

● 수리봉

[별칭] 매봉산

[형태] 산

[위치] 구 경춘선에 ‘수리봉굴(터널)’이 있으며, 그 굴이 있는 봉우리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독수리처럼 생긴 봉우리라 하였다.

● 신연교(新延橋)

[형태] 다리

[위치] 의암호 위로 놓인 다리이다. 의암호는 북한강과 소양강이 합류하는 지점에서 약간 남쪽으로 떨어진 신연강 협곡을 막아 다목적 댐을 건설함으로써 생긴 인공호이다. 의암호가 생김으로써 신연강은 흐르지 않는 강이 되었고, 신연교는 호수 위에 놓인 다리가 되었다. 신연교는 의암터널을 지나지 않고 서울에서 춘천으로 갈 수 있는 구 경춘국도의 일부이다. 1939년 최초로 놓여졌고 1967년 의암댐이 건설되고 나서 현재와 같은 모습의 신연교가 새로 놓였다.

● 아래웃바우

[별칭] 하의암(下衣岩)

[형태] 마을

[위치] 옷바우 아래 마을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옷바우 아래쪽에 있는 마을이라 하였다. 의암리에서 ‘웃웃바우’와 더불어 자연마을이다.

● 아랭이

[별칭] 아랫니

[형태] 골짜기

[위치] ‘범안골 장등이’ 북쪽에 있으며, 계속 이어가면 ‘문바위’로 넘어간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옷바우에 있는 골짜기라 하였다.

[어원풀이] ‘아래[下]+ㅅ+이(접미사)->아랫니(‘ㄴ’첨가)/아랜니’로 분석된다. 다시 ‘아랫니>아랜니>(아랜니)》아랭이’로의 변화를 보인다. 지명접미사 ‘-이’는 마을, 골짜기, 들, 산, 고개 등, 다양한 어의를 가진다.

● 안경굴

[별칭] 수리봉굴, 의암터널

[형태] 굴

[위치] 수리봉 밑에 있는 예전 경춘선 터널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의암리에 있는 경춘선 기찻굴이라 하였다. 지금은 레일바이크 옛 선로로 김유정역에서 강촌역을 왕복하는 가운데 굴에 갖은 장치와 등불을 밝혀 관광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어원풀이] ‘안경(眼鏡)+굴(窟)’로 분석된다. 안산 밑에 있는 기찻길의 터널이 마치 안경 모양으로 생겼다.

● 안산(秦山)

[형태] 산

[위치] 의암리 ‘오두막골’ 죽측의 산으로 ‘앞산’, ‘박달/박달’이 옆에 있다.

[어원풀이] ‘안산(秦山)’은 풍수지리에서 집터나 뒷자리의 맞은편에 있는 산을 말한다.

● 알버덩

[별칭] 앞버덩

[형태] 들

[위치] 의암리 마을 ‘앞’에 있으며, 옷바우 ‘아래’에 있는 벼덩이다.

[어원풀이] ‘알[下]/앞[前]+벼덩’으로 분석된다. ‘벼덩’은 높고 평평하며 나무는 없이 풀만 우거진 거친 들을 말하고, ‘알’은 강원 방언에서 ‘아래[下]’를 뜻한다.

● 앞재

[별칭] 앞산

[형태] 고개

[위치] 의암리 동네 앞, 남쪽으로 우뚝 솟은 산으로 안산 맞은편에 있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동리 앞에 있는 고개라 하였다.

[어원풀이] ‘앞[前]+재[峙]’로 분석된다.

● 어디막골

[별칭] 오두막골

[형태] 골짜기

[위치] 옷바위 맞은편에 있는 골짜기로, 신동면 의암리 160-3번지 일대이다. 의암 본 마을과는 강을 사이에 두고 있다. 도로지명 의암3리길과 팔미천이 교차하는 서편 ‘던건년들’ 너머 골짜기로 들어가면 나온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옷바우에 있는 산골짜기라 하였다. 요즘은 ‘오두막골’이라 부른다.

[어원풀이] ‘어디막/오두막(幕)+골[谷]’로 분석된다. ‘오두막’은 사람이 겨우 들어가 살 정도로 작게 지은 막 또는 작고 초라한 집을 말한다.

● 옥자바우

[형태] 바위

[위치] 의암교 근처 ‘돌턱개’ 가까이에 있는 바위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옷바우에 있는 바위라 하였다.

[어원풀이] ‘영(永)+자(字)+바우/바위[岩]’로 분석된다. ‘영(永)’이란 한자(漢字)가 쓰인 바위이다.

● 옥광산

[형태] 광산

[위치] 오두막골에 있는 연옥을 캐는 광산이다.

[유래] 일제강점기 때 발견해서 파기 시작했는데, 해방 후 폐광되었다가 최근에 모 기업에서 다시 캐기 시작했다. 현재 4~5개의 쟁이 있다.

옥광산



옥광산

● 옷바우

[별칭] 옷바위, 의암(衣岩), 의암리(衣岩里), 칠(漆)바우, 학암(鶴巖)

[형태] 바위, 마을

[위치] 의암리 앞 강가에 있는 바위.

[유래] 『춘주지』에 어떤 사람이 이 바위 위에 옷을 벗어 놓고 강에서 목욕을 하고 나와 보니 옷이 없어졌길래 사방을 살펴보니 신선이 그 옷을 입고 하늘로 올라갔다 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어원풀이] ‘옷[衣/漆]+바우/바위[岩]’로 분석된다.

옷을 펼쳐놓은 듯이 넓은 바위 또는 검은빛을 띤 바위를 말한다. 바위이름이 곧바로 마을이름이 되었다.

[유래담] 옛날 마음씨 착한 농부가 옷바위에 옷을 벗어놓고 목욕을 하다가 산신령을 만나 복주머니를 받고 행복하게 살았다는 전설과 삼악산에서 농성중인 맥국 병사들을 속이기 위해 적국의 군사들이 이 바위에 옷을 널어놓았다는 전설이 전한다.



의암리 전경

● 옷바우고개

[형태] 고개

[위치] 의암리에서 칠전동으로 넘어가는 고갯길이다.

● 옷바위교

[형태] 다리

[위치] 경춘로와 경춘선 사이에 있는 팔미천 위로 지나는 설미길 다리이다.

● 옹기바우

[별칭] 거북바위

[형태] 바위

[위치] ‘문바위’ 근처에 있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큰 길가에 매달린 바위.”

옹기처럼 생기었음”이라 하였다.

[어원풀이] ‘옹기(甕器)+바우/바위[岩]’로 분석된다.

옹기처럼 생긴 바위란 의미이다. 또는 거북처럼 생겼다고 ‘거북바위’라고도 한다.

● 웃골

[형태] 골짜기

[위치] 미상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위쪽에 있는 골짜기라 하였다.

[어원풀이] ‘웃[上]+골[谷]’로 분석된다.

● 은골

[별칭] 응골

[형태] 골짜기

[위치] 드름산 줄기의 하나인 은곡산(殷谷山) 북쪽. 동리 북쪽에 있는 골짜기. ‘밤안골, 미라골’ 옆에 있는 골짜기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동리 북쪽에 있는 골짜기라 하였다. 예전에 은(銀)이 나왔다고 한다.

[어원풀이] ‘은(殷)+골[谷]’로 분석된다. 잘 보이지 않는 골짜기란 의미의 ‘숨은골’에서 유래한 것으로 추정된다.



일제강점기 지도에 표기된 은곡산(殷谷山)

● 의암교

[형태] 다리

[위치] 경춘국도 서면에서 의암리로 연결되는 다리이다.

● 의암나루

[별칭] 의암진(衣岩津). 웃바우날리. 웃바우나루

[형태] 교통

[유래] 『조선지지자료』에 의암리 소재 나루이름으로 ‘衣岩津(웃바우날리)’이 기재되어 있다.

● 의암댐(衣岩댐)

[형태] 수리

[위치] 의암리에 있는 댐.

[유래] 1967년 완공된 다목적 댐이다. 높이 23m, 제방길이 273m, 총저수용량 8000만t, 시설발전용량 4만5000kW, 유역면적 7,709km²이다. 호수면은 너비 5km, 길이 8km의 타원형으로 호수 면의 수위는 해발 72m로 만수위 때의 수면 면적은 15km²이고 제한 수위는 70.5m이다. 중력식 콘크리트 잠언둑으로 수문(13×14.5m)은 14개 설치되어 있다.

● 의암리서낭당

[별칭] 의암리서낭댕이

[형태] 민속

[위치] 발전소 뒷미처 오른쪽 산 중턱 밑에 있다.

[유래] 의암댐 발전소 정문 맞은편에서 산으로 약 20여m 정도 올라가면 잣나무 군락단지에 있는데, 신수는 잣나무이다. 잣나무 밑에 돌로 된 제단이 있다.



의암리 서낭당

● 의암터널

[별칭] 수리봉굴, 안경굴

[형태] 교통

[위치] 의암리 팔미천 근처에 있는 터널이다.

[유래] 경춘국도를 4차선으로 확장하면서 2개의 터널을 뚫어, 춘천 시내로 진입하는 도로의 관문 터널이 되었다.

● 의암호(衣岩湖)

[형태] 호수

[위치] 북한강과 소양강이 합류하는 지점에서 약간 남쪽으로 떨어진 신연강 협곡을 막아 1967년 다목적 댐(의암댐)을 건설함으로써 생긴 인공호이다.

● 춘천의암호인어동상

[별칭] 의암호인어상, 인어상

[형태] 동상

[위치] 의암댐에서 문암을 지나면 인어상과 김유정 문인비가 나온다. 앞 골짜기 의암호를 가로질러 의암스카이워크(천망대)도 보인다.

[유래] 1971년 6월에 춘천고 교사로 재직 중이던 이길종 춘천교대 명예교수와 제자들이 습작품으로 제작하였다고 한다. 40여 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많이 노후화되어 기존 인어상은 철거되었으며

춘천시의 지원으로 이길종 교수가 청동인어상으로 다시 제작하여 2013년 4월 4일 같은 장소에 설치되었다.



인어상

● 학바우구미

[별칭] 학암포(鶴岩浦)

[형태] 수리

[위치] 팔미천이 북한강으로 유입되는 곳이다.

[유래] 『조선지지자료』에 의암리 소재 물가이름[浦名]으로 ‘鶴岩浦(학바우구미)’가 기재되어 있다.

[어원풀이] ‘학(鶴)+바우[岩]+구미’로 분석된다. 지명접미사 ‘-구미’는 ‘바다나 강가 주변에서 읍푹 들어간 곳이나 후미진 곳’을 뜻한다. 그 이형태는 ‘구미/귀미/후미’가 있고, 유사 의미로 ‘-소’와 ‘안’ 등이 있다.

[유래담] 『조선지지자료』 ‘鶴岩浦’ 주석에 “貊國末에 王이 出走나가 脫衣於岩上 故로 云”이라 했다. 삼악산, 칼봉, 옷바위, 말골 등과 함께 맥국 전설이 담겨 있는 곳임을 알 수 있다.

정족리(鼎足里)

위치와 현황 | 동쪽으로 정족천이 흐르고, 산지와 골짜기로 이루어져 있다. 자연마을에는 고창말, 솔바리, 방축개, 사자우 등이 있다. 말의 안장처럼 생겼다는 안마산(鞍馬山)도 있다.

연혁 | 『춘주지』는 남내(南內)에 지품(地品)만 표기하였다. 『여지도서』는 남내면(南內面)에 지품리(地品里), 신암리(新巖里), 고청리(高青里), 정족리(鼎足里)로 표기하였다. 『호구총수』는 남내일작면(南內一作面)에 지품리(地品里), 신암리(新巖里), 고청리(高青里), 정족리(鼎足里)를 포함시켰다. 『춘천읍지』, 『춘천부지』, 『관동읍지』는 남내면(南內面)에 지품리(地品里), 신암리(新巖里), 고청리(高青里), 정족리(鼎足里)로 표기하였다. 『조선지지자료』는 남내일작면(南內一作面)에 정족리(鼎足里), 고청리(古青里), 지品德里(地品里), 신암리(新岩里)를 포함하였다. 『강원도지지조서』와 『강원도지』는 신남면(新南面)에 정족리(鼎足里)를, 『수춘지』는 신동면(新東面)에 정족리1구(鼎足里一區), 정족리2구(鼎足里二區)를 표기하였다. 『춘주지』, 『춘천백년사』는 신동면(新東面)에 정족1리, 정족2리로 구분하였다. 현재 행정리는 정족리고 법정리는 정족1리, 정족2리다.

유래 | 지형이 꼭 솔다리처럼 생겨서 솔바리라 부르던 것이 한자로 표기하면서 정족(鼎足)이 되었다.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고청리, 지品德里, 신암리를 병합하여 신동면에 편입하였다.

● 개처네골

[형태] 골짜기

[위치] 미상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솟바리에 있는 골짜기라 하였다.

[어원풀이] ‘개천[川]+에(처격조사)+골[谷]’로 분석된다. 물가에 있는 골짜기란 의미로 추정된다.

● 고창말

[별칭] 고청리(古青里), 고청말, 고총(古塚)말, 고청모류, 뒷골

[형태] 마을

[위치] 정족2리 북단으로 ‘퇴계천’이 시작되는 인근이다. ‘뒷골(고창말)’을 지나면 퇴계동이다. 퇴계농공단지에서 경춘선과 김유정로가 지나는 길로 나와 정족리 방향으로 꺾자마자 다시 퇴계농공단지 쪽 가장 가까운 곳에 이르면 ‘고창말’이다. 퇴계농공단지에서 남쪽 작은 산능선을 넘어서면 곧 ‘고창말’인 셈이다.

[유래] 『조선지지자료』에 고청리 소재 마을이름으로 ‘古青里(고청모류)’가 기재되어 있고, 『춘천의 지명유래』에 “솟바리 동쪽에 있는 마을. 고청리(古青里)가 고창말로 바뀌었다. 본래는 고청말”이라 하였다. 『신동면지리지』에는 “고창마을은 원래는 고총(古塚) 마을이었다고 한다. 조씨네 장군총이 있어서 그런 이름이 붙여졌다고 한다. 후손이 묘를 파서 가져가고 장군석은 파묻었으며 지금의 과수원 자리가 고총이 있던 곳이다. 그러나 지금은 그 무덤들이 사라지고 없다.”라 하였다.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으로, 고청리(古青里), 지品德(地品里), 신암리(新岩里)를 병합하여 신남면(新南面) 정족리(鼎足里)에 편입하였다. 이들 3리가 곧 정족2리이다.

[어원풀이] ‘고창/고청/고총(古塚)+말[마을, 村]’로

분석된다.

● 구실

[별칭] 구슬, 주곡(珠谷), 구실골

[형태] 마을

[위치] 솟바리의 서남쪽 골짜기에 있는 마을로, 도장골과 지터골 앞쪽이다.

[유래] 『조선지지자료』 정족리 소재 골짜기 이름으로 ‘珠谷(구실골)’이 기재되어 있다. 『한국지명총람』에 솟바리의 서남쪽 골짜기에 있는 마을이라 하였고, 『신동면지리지』에 “이곳에 열리는 벼가 구슬처럼 오지게 여문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예전엔 이곳에 논이 많았다. 지금은 골프장이 생기는 바람에 그 논이 다 없어졌다.”라 하였다.

[어원풀이] ‘구실/구슬[珠]+골[村]’로 분석된다. ‘구실’은 그 [유래]인 ‘이곳에 열리는 벼가 구슬처럼 오지게 여문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에 따라 ‘구슬(珠)’이 된다.

● 구실고개

[별칭] 구슬고개

[형태] 고개

[위치] 정족리에서 ‘구실(마을)’을 지나 칠전동(漆田洞)으로 넘어다니던 고개

[유래] 예전엔 ‘구실고개’를 넘어 학교도 다녔으나, 지금은 ‘구실고개’와 ‘구실’ 모두 ‘라데나골프장’으로 흡수되었다.

● 김정은전통가옥

[형태] 고적

[위치] 신동면 정족1리 643번지이다.

[유래] 1985년 1월 17일 강원도문화재자료 제68호로 지정된 고택이다. 영서 중부지방의 전통적인 기

와집으로 그자 모양의 안채와 냐자 모양의 행랑채가 합하여 전체적으로 냐자형을 이루고 있다. 소재지 이름을 따서 ‘술바리 큰기와집’이라고도 불린다.

[유래담] 이곳은 도깨비터라고 소문이 났던 곳이었는데, 지금의 가옥주 선대(先代)가 이곳에 집을 짓고 살던 중 뒤편 등나무에 벼락이 쳐서 나무가 선너머로 쓰러진 후부터 집안이 변창하였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김정은 전통가옥

● 납작골

[별칭] 납작골

[형태] 골짜기

[위치] 미상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납작하게 생긴 골짜기라 하였다.

[어원풀이] ‘납짝/납작+골[谷]’로 분석된다. ‘납작’은 몸을 바닥에 바짝 대고 네큼 엎드린 모양이다. 여타 지역에도 같은 의미를 가진 ‘납작골’이 여러 곳에 있다.

● 널랫집뫼

[형태] 무덤

[위치] 미상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널래라는 곳에서 이사

온 사람의 무덤”이라 하였다.

[어원풀이] ‘널래[지명]+ㅅ+집[家]+뫼/묘(墓)’로 분석된다. ‘널래’가 지명이라면 ‘넓은 내’ 즉 홍천을 말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 네깨골

[형태] 골짜기

[위치] 사자우(마을) 뒤편으로 큰 밤나무가 있는 작은 오솔길을 넘어가면 바로 ‘네깨골’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솔바리 부근의 산골짜기라 하였고, 『신동면지리지』에 “사자우 뒤쪽에 있는데, 집이 한 채 있다. 골짜기가 길지 않고 깊다.”라 하였다. 예전엔 ‘사자우’에서 ‘네깨골’을 지나 ‘보광사’와 ‘당고개’를 넘어 석사동 ‘스무숲’으로 다녔다고 한다. 요즘엔 소를 많이 키우는 우사가 크게 들어섰다.

[어원풀이] ‘네/내(内)+ㅅ+개[川]+골[谷]’로 추정된다.

● 놀데덜

[형태] 들

[위치] 미상이다.

[유래] 『조선지지자료』에 신암리 소재 들판이름[坪名]이름으로 ‘놀데덜’이 기재되어 있다.

[어원풀이] ‘놀(?)+데/대(垈)+덜(서덜)’로 분석된다. ‘서덜’은 냇가나 강가 따위의 돌이 많은 곳을 말하고, ‘놀’은 ‘넓은’의 의미인 ‘널’로 추정된다.

● 당고개

[형태] 고개

[위치] 정족리 북단, 보광사 아래에 서낭당이 있었고, 보광사를 지나 안마산 자락인 ‘당고개’를 넘어 가면 ‘스무숲’으로 이어진다.

[유래] 『조선지지자료』에 정족리 소재 고개이름으로 ‘唐峴(당고개)’이 기재되어 있고, 『한국지명총

람』에 서낭당이 있던 고개라 하였다.

[어원풀이] ‘서낭당[堂]+고개[峴]’로 분석된다.

● 덧고개

[별칭] 덧고기

[형태] 고개

[위치] ‘지풀리’ 서쪽 능선으로 난 고개이다. 지금 ‘지풀’ 자리엔 ‘대원사’가 들어섰다.

[유래] 『조선지지자료』에 지풀리 소재 고개이름으로 ‘덧고기’가 기재되어 있고, 『한국지명총람』에 덧을 놓았던 고개라 하였다.

[어원풀이] ‘덧/덧(짐승을 피어 잡는 기구)+고개[峴]’로 분석된다.

● 도장골

[형태] 골짜기

[위치] ‘구실’이 앞에 있었고 지턱골‘이 가까이 있었으나, 지금은 모두 ’라데나골프장‘으로 흡수되었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솟바리에 있는 골짜기라 하였고, 『신동면지리지』에 솟발이의 구슬(마을) 옆에 있는 골짜기라 하였다.

[어원풀이] ‘도장+골[谷]’로 분석된다. 일반적으로 지명에서 ‘도장’은 ‘안방’의 고어로서 ‘사방이 산이나 둔덕으로 둘러쌓여 안방’처럼 아득하기 때문에 붙여진 지명이다.

● 돌톱

[별칭] 돌톱

[형태] 들

[위치] 지풀리에서 남쪽 소로를 100m 정도 올라가 면 나온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돌이 많은 곳을 개간한 들이라 하였다.

[어원풀이] ‘돌[石]+톱/톱(톱날)’으로 분석할 수 있다. ‘모래톱’은 강가나 바닷가에 있는 넓고 큰 모래 벌판으로 톱날 형태로 형성된 모래 형태를 말한다. 따라서 ‘돌톱(돌톱)’은 돌자갈이 많은 들판이란 의미이다.

● 두들개

[형태] 들

[위치] ‘사자우’에서 앞쪽을 바라보면 ‘사자우’와 ‘안골’ 사이 비교적 높은 구릉 지대에 있으며, 지금은 ‘두들개’를 휘돌아 정족3길이 잘 닦여져 있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화챗간터 옆에 있는 골짜기라 하였고, 『신동면지리지』에 “뜰이 넓다고 해서 불여진 이름이다. 두 들이 있다는 뜻으로 들이 넓다.”라 하였다. ‘화채칸터’는 ‘안골’ 상단에 있었다.

[어원풀이] ‘두[二]+들[坪]+개[川]’로 분석할 수 있다. ‘두들개’의 ‘개[川]’는 ‘들[坪]’ 또는 ‘골[谷]’에 흡수 전의(轉義)되었다. ‘두들’은 ‘둔덕’의 방언이다. 지역민들은 금병산 쪽 ‘두들개’는 높은 지대(언덕, 둔덕)에 있고, ‘방축개’는 ‘퇴계천’ 쪽 낮은 지대에 있다고 한다.

● 두들개마을

[형태] 마을

[위치] ‘두들개’에 들어선 마을이다. ‘두들개’와 ‘사자우’ 사이에 ‘춘천잣공장’이 있고, ‘잣공장’ 앞으로 지나는 ‘정족3길’을 거쳐 이내 외곽순환도로로 이어진다.

● 두들개마을샘

[별칭] 두들개샘

[형태] 샘

[위치] ‘두들개마을’에 있는 작은 샘이다.

● 뒷골

[별칭] 고창마을, 고창말, 고청리

[형태] 마을

[위치] 정족2리 북단으로 ‘퇴계천’이 시작되는 인근이다. ‘뒷골(고창말)’을 지나면 퇴계동이다.

[유래] 『신동면지리지』에 “고창마을을 달리 이르는 이름이다. 장군총이 있던 자리 뒤에 있는 마을이라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라 하였다.

[어원풀이] ‘뒤[後]+ㅅ+골[谷]’로 분석된다.

● 뒷벌

[형태] 산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솟바리 뒤에 있는 산이라 하였다.

[어원풀이] ‘뒤[後]+ㅅ+별[野]’로 분석된다. 별판, 즉 들을 의미하는 ‘별’이 여기서는 ‘산(山)’을 지칭한다. 지명에서 지명첩미사들은 본래의 의미가 후대로 가면서 많은 의미전성이 이루어져 다양한 뜻으로 가지게 된다. ‘뒷별’이지만 ‘산(山)’을 지칭할 수 있다. 정족리에는 금병산(652m), 안마산(303m), 국사봉(203m), 마을 가운데 작은 ‘사자산(150m)’이 있다. 서쪽은 골프장 라데니클럽하우스가 들어서 작은 산봉우리조차 흔적이 없다. 솟바리(본마을) 뒤에 있는 산이라면 시내 방향을 기준으로 하면 금병산 쪽이 되나 금병산을 ‘뒷별’이라 하지는 않을 것이다. ‘뒷산’도 아닌 ‘뒷별’인 것으로 보아 동네 뒤 근처 작은 산봉우리에 해당할 것이다. 길게 이어진 사자산(150m) 능선의 한 봉우리일 수 있다.

● 든던두루

[형태] 들

[위치] 미상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솟바리에 있는 들이라 하

였다.

[어원풀이] ‘든던+두루/들[野]’로 분석할 수 있다.

‘든던’은 ‘드나들던[出入]’의 의미로 추정된다.

● 망태골

[형태] 골짜기

[위치] 정족2리 남단, ‘순환대로’ 사이, 중간쯤에 있다.

[어원풀이] ‘망태(망태기)+골[谷]’로 분석된다. ‘망태’는 ‘망태기(網胎기)’의 준말로, 물건을 담아 들거나 어깨에 메고 다닐 수 있도록 만든 그릇. 주로 가는 새끼나 노 따위로 엮거나 그물처럼 떠서 성기 게 만든다.

● 명우암(鳴牛岩)

[형태] 바위

[위치] 정족2리 ‘지품(지品德)’, 지금은 ‘대원사’ 서쪽 산자락에 있다.

[어원풀이] ‘명우암’은 ‘명(鳴)+우(牛)+암(岩)’으로 분석된다.

[유래담] 옛날에 양양공(良襄公)의 후예 김찬선(金纘先)이 살았는데 마루 앞에 큰 바위가 작은 바위를 끼고 있어 언덕에 있는 것이 어미소가 송아지 를 데리고 누워 있는 듯하고, 그 맞은편에 또 큰 바위가 있어 황소바위라 하였다. 집안이 부유하고 무(武)를 좋아해서 정자를 느티나무 아래에 만들고 손님들과 함께 활쏘기를 좋아하더니, 급제하여 벼슬이 벽동군수에 이르렀다. 그 후 하루는 늙은 중이 동냥을 오니 내당(內堂)의 종에게 명하여 “손님이 많아 대단히 괴로우니 승(僧)은 혹(惑) 번거로움을 그칠 수 있는 술법이 있느냐? 있으면 상을 후회 주리라.”하니, 승이 잠잠히 생각을 깨 오래 하더니 앞에 있는 바위를 가리키며 저것을 깨면 손님들이 없어지리라 하니, 곧 석공(石工)에게 명하여 바위

를 깨어내니 피가 나더라. 그 뒤로는 가산(家產)이 침체되어 손님이라곤 하나도 없었다. 그 후에 후손이 횡성군 공근면으로 이주하였으나 아직도 부진(不振)하다 한다.『춘주지』

● 매개골

[별칭] 뵀개골, 묘개골

[형태] 골짜기

[위치] ‘사자우(마을)’에서 ‘사자우’를 끼고 1차선 소로와 실개천을 끼고 돌아가자마자 문중 비석이 길 벼랑에 가까이 있다. 이 인근이 ‘매개골’이다.

[유래] 『신동면지리지』에 “사자우 너머에 있는 골짜기이다. 한 채의 집이 있으며 골짜기는 짧다. 정족2리에 있다.”라 하였다.

[어원풀이] ‘매/뫼/묘(墓)+개[川]+골[谷]’로 분석된다. ‘매개골’ 근처가 개간되며 묘(墓)는 사라지고 지명으로만 남았다.

● 모새틈

[형태] 들

[위치] 미상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모래가 많다는 들이라 하였다.

[어원풀이] ‘모새/모래[沙]+톱/톱(톱날)’으로 분석 할 수 있다. ‘모래톱’은 주변 바닥보다 수심이 얕은 볼록한 부분으로서, 단단하지 않은 모래나 진흙 등이 쌓인 곳, 하천이나 해안 또는 해저에 톱날 형태로 형성된 모래 형태를 말한다.

● 무진개

[별칭] 무린개, 물린개, 무릉개, 퇴계천

[형태] 하천

[위치] 정족리에서 퇴계동으로 흘러 공지천에 합류

하는 내이다.

[유래] 우리나라 하천은 대부분 북에서 남으로 흐르는데 반해, 남쪽인 정족리에서 북쪽인 퇴계동 공지천으로 흐르므로, ‘뒤로 물러나 거꾸로 흐르는 개천’이라 하여 ‘무린개[退溪]’라 부른다.

[어원풀이] ‘무진/무린[退]+개[川]’로 분석할 수 있다.

● 방아재들

[별칭] 방애재들

[형태] 들

[위치] 솟바리마을, 사자산(150m) 동쪽 순환대로를 넘어가 정족리 맨 끝에 있다. 금병산과 안마산 가운데쯤 되는 곳으로, 금병산 북쪽 아래 자락이다. ‘방아재/방애재’가 옆에 있다.

[어원풀이] ‘방애재’는 ‘방아+재[峙]+들[坪]’로 분석된다. ‘방애재’ 참조.

● 방애재

[별칭] 방아재

[형태] 고개

[위치] 정족3리길로 ‘사자우’에서 외곽순환대로를 넘어가면 ‘상저수지’와 ‘하저수지’가 있는데, 이 두 저수지 한가운데쯤에 ‘방애재’가 있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솟바리 부근에 있는 재라 하였다.

[어원풀이] ‘방애/방아+재[峙]’로 분석된다. ‘방애재’는 전국적인 지명으로, 대개 ‘방앗간, 물방아, 디딜방아’ 등을 연관시킨다. 특히 ‘고개’일 경우는 ‘디딜방아’처럼 ‘고개가 갈라진 지형’을 ‘방애재’라 한다.

● 방축개(防築溪)

[별칭] 방축개, 방초개

[형태] 마을

[위치] 정족2리마을회관에서 1시 방향 1km쯤에 있으며, 도로지명 정족길과 정족4길 사이에 있다. 퇴계천의 한 지류가 그 근처에 있다.

[유래] 『조선지지자료』에 고청리 소재 개울 이름으로 ‘防築溪(방축계)’가 기재되어 있다. 『춘천지명유래』에 방축 부근에 있는 마을이라 하였고, 『신동면지리지』에 “원래는 사자우 좌측에 있었다. 그러나 논밭으로 개간이 되고 나서 지금은 마을 사람들이 작물을 심어 농사를 짓고 있다.”라 하였다. 예전에 ‘방축’을 쌓아 물을 가뒀던 방축마을은 요즘은 ‘방축개’ 일대가 크게 개간되어 주로 비닐하우스 농사를 짓고 있다.

[어원풀이] ‘방축(防築)/방죽+개[溪]’로 분석할 수 있다. ‘방축(防築)’의 본디말은 ‘방죽’이다.

● 백석동(白石洞)

[형태] 마을

[위치] 정족1리에서 ‘석메(석미)고개’를 넘어가 ‘차돌바위’가 있는 마을이다.

[유래] 『신동면지리지』에 “차돌바위가 있던 동네이다. 희고 큰 차돌바위가 있는 마을이라 해서 백석동이라 했다. 솟발이에서 석미고개를 넘어 가면 있던 곳이다. 지금은 골프장이 들어서면서 솟발이에 서는 곧바로 갈 수 없다.”라 하였다.

[어원풀이] ‘백석(白石)+동(洞)’으로 분석할 수 있다. 흰 바위(차돌바위)가 있는 마을이란 의미이다.

● 뱀바우

[별칭] 뱀바우

[형태] 바위

[위치] ‘두들개(마을)’을 지나 ‘사자우(마을)’ 앞에 있는 춘천잣공장‘ 바로 앞 ’정족2리길’ 가에 있다.

[유래] 『신동면지리지』에 “지금은 둘레에 축대를

쌓아놓아 바위의 온전한 모습을 보기는 힘들다. 소나무와 잡풀로 우거져 있다.”라 하였다. 정족2리길 가에 길이 5m, 높이 1.5m 정도로 단을 쌓고 중앙에 계단을 만들어 놓았다. 단 위엔 거송 3그루만 있고 바위는 땅속에 묻혔는지 찾아보기 어렵다.

[어원풀이] ‘뱀[蛇]+바우/바위[岩]’로 분석된다. 이곳 ‘뱀바우’는 ‘베-[削]+{-_-}(관형사형어미)}>뱀>뱀+바우/바위[岩]’로 분석할 수도 있다.



뱀바우

● 보광사(普光寺)

[형태] 절

[위치] 안마산 남쪽에 있는 절이다. ‘고창말’에서 동진하여 정족5길 끝에 있다.

[유래] 『춘주지』에 “조선 현종조(憲宗朝)에 풍계(豐溪)가 창건(創建)한 곳이다.”라 하였다.



정족리 보광사

[어원풀이] ‘보광(普光)+사(寺)’로 분석된다. 보광(普光)은 고려 혼원(混元)의 탑호(塔號)로 전국에 같은 이름의 사찰이 많다.

● 보광사서낭

[별칭] 보광사서낭목

[형태] 민속

[위치] 보광사 입구에 있는 소나무이다. 보광사 바로 앞 죄측에 있는 꽤 오래된 소나무 아래에는 돌로 단을 만들고 단 위에는 향로와 종이컵으로 된 촛대가 양쪽에 놓여 있다.



보광사 앞 서낭소나무

● 복말터

[형태] 묘

[위치] ‘양지편’과 ‘지품’ 사이에 있다.

[유래] 죽은 말의 넋을 기리던(복을 벌던) 제법 큰 무덤이 있다.

[어원풀이] ‘복(福)+말[馬]+터[垈]’로 분석된다.

● 본마을

[형태] 거주

[위치] 정족2리 마을회관이 있는 곳이다.

● 봉에뚝

[형태] 마을

[위치] 안골에서 금병산으로 넘어가는 곳에 있는 마을이다.

[어원풀이] ‘봉(峰)+에/의(속격조사)+ㅅ+뚝’으로 분석할 수 있다. ‘뚝’은 높은 길을 내려고 쌓은 언덕이나 보를 만들거나 논밭을 보호할 목적으로 쌓은 언덕이다.

● 부랄바우

[형태] 바위

[위치] 정족리 남단, 중리와 접경 부근에 있는 ‘신트랑, 신태랑고개(신기현)’에 있다. 현 행정구역으로는 ‘신태랑’과 부랄바우‘는 중리(甑里)에 속한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부랄같이 생긴 바위라 하였다. 고인돌과 엇비슷한 모양이다.

[어원풀이] ‘부랄+바우/바위[岩]’로 분석된다. ‘부랄바위’는 ‘치마바위, 처녀바우, 유방바위(젖꼭지바우), 쪽바우, 남근석’ 등과 더불어 민간신앙의 표석이 되기도 한다. 특히 남성성을 가진 바위는 ‘소원바위’라는 별칭이 따라 다닌다.

● 부활성당추모관

[별칭] 천주교공동묘지, 부활성당

[형태] 묘, 건물

[위치] 정족리에서 춘천 퇴계동 쪽으로 나오다가 죄측에 있는 산 능선에 있다.

[유래] 지금은 천주교 ‘부활성당’이 들어섰으며, 일부는 옛 모습을 가직하고 있다.

● 불당골

[별칭] 불당곡(佛堂谷)

[형태] 골짜기

[위치] 보광사(普光寺)가 있는 골짜기

[유래] 『조선지지자료』에 고청리 소재 골짜기 이름으로 ‘佛堂谷(불당골)’이 기재되어 있다.

[어원풀이] ‘불당(佛堂)+골[谷]’로 분석된다.

‘우’는 바위 이름이면서, 마을 이름이다.



사자우

● 사자산

[형태] 산

[위치] 도로지명 정족2리길과 정족3리길 사이에 있으며, 남북으로 길게 이어진 작은 높이를 가진 산이다. 정족2리마을회관 남동쪽 1km쯤에 있으며, 사자산 동쪽 300m쯤에 외곽순환대로가 지난다.

[유래] 지금의 ‘사자산’은 ‘사자우(마을)’의 유래가 되는 ‘사자우(사자바우)’와는 600m쯤 떨어져 있다. 지금의 ‘사자산(150m)’이 정족리 본마을에서 비교적 가운데 자리하고, 또한 제일 높은 산인데, ‘사자우’에서 빌려와 ‘사자산’이라 부르게 되었다. 지도에서 ‘사자산’이라 표기한 곳은 잘못이라고 지역민은 증언한다.

● 사자우

[별칭] 사자바우, 사자암(獅子岩)

[형태] 바위, 마을

[위치] ‘사자우’와 ‘사자산(150m)’과 ‘정족2리마을회관’은 역삼각형을 이루며, 정족2리마을회관에서 동쪽 700m 남짓한 거리에 있다. ‘사자산(150m)’과는 600m쯤 떨어져 있다. ‘춘천잣농산(잣공장)’과 ‘뱀바우’가 근처에 있다.

[유래] 정족리 본마을 가운데에 있는 산기슭에 큰 바위가 있는데, 칡넝쿨이 그 바위를 덮으면 꼭 수사자 얼굴같이 보인다고 해서 그 바위를 ‘사자바우(사자암)’라 부르고, 그 산은 ‘사자산(150m)’이라 부른다.

[어원풀이] ‘사자(獅子)+암(岩)’으로 분석된다. ‘사자

● 사태말

[형태] 마을

[위치] 도로지명 ‘정족1길’ 서쪽, ‘지풀’ 자리인 ‘대원사’ 남서쪽 산기슭에 있으며, 이 산기슭은 금병산 북쪽 산자락이다.

[어원풀이] ‘사태(沙汰)+말/마을[村]’로 분석할 수 있다. ‘사태’는 산비탈이나 언덕 또는 쌓인 눈 따위가 비바람이나 충격 따위로 무너져 내려앉는 일을 뜻한다. 또는 ‘살/사이[間]+{–에(처격조사)}+말/마을[村]’로 분석할 수도 있다.

● 새골

[별칭] 샛골

[형태] 마을

[위치] ‘고창밀’에서 동진하다가 ‘보광사’ 못 가서 ‘근화원’이 있는데, 그 안이 ‘새골(샛골)’이다.

[유래] 『조선지지자료』에 고청리 소재 골짜기 이름으로 ‘사골’이 기재되어 있다.

[어원풀이] ‘새(시/스이>사이, 間)+골[谷]’로 분석된다.

● 새미

[별칭] 신암(新岩), 신암리(新岩里), 신절암리

[형태] 마을

[위치] 정족2리는 북단 ‘고총리(고정리/고창리)’와 중간쯤 ‘지풀리’와 남단 ‘신암리’로 이루어진다. 신암리(新岩里)에 빨래터가 있는 ‘샘이(새미)’ 있었다. ‘새미들’에 있는 ‘새미’는 정족리 남단에, ‘윗새미’는 정족리와 중리와의 경계에 있다.

[유래] 『조선지지자료』에 신암리 소재 마을이름으로 ‘新岩里(신털영리)’가 기재되어 있다. 『춘천의지명유래』에 솟바리 부근에 있는 마을이라 하였다.

[어원풀이] ‘샘[泉]+이(파생접미사)’로 분석된다. 샘이 있는 곳이란 의미이다.

● 새미들

[형태] 들

[위치] ‘새미들’에 있는 ‘새미’는 정족리 남단에, ‘윗새미’는 정족리와 중리와의 경계에 있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새미에 있는 들이라 하였다.

[어원풀이] ‘샘[泉]+이(파생접미사)+들[坪]’로 분석된다.

● 샛골우물

[형태] 수리

[위치] 고창말 안쪽으로 들어가면 근화원(槿花園)이 나오는데 그 안에 유일하게 마을의 우물이 남아 있다. 현재는 사용하지 않고 보존만 하고 있다.

[어원풀이] ‘새(시/소이)이(사이, 間)+ㅅ+골[谷]+우물[井]’로 분석된다.

● 서낭고개

[별칭] 성황현(城隍峴)

[형태] 고개

[위치] 정족2리와 ‘경춘선’, ‘김유정로’ 사이에 있다. 지금 ‘서낭고개’는 정족2리마을회관에서 4차선

‘김유정로’로 나가는 2차선도로로 잘 닦여져 있다.

현재 행정구역은 신동면 중리이다.

[유래] 『조선지지자료』에 지풀리 소재 고개 이름으로 ‘城隍峴(션암고기)’이 기재되어 있다. 중리(甑里)가 소재지인 ‘서낭고개’는 중리 사람들과는 무관하고, 정족리 사람들이 4차선 ‘김유정로’로 나가는 2차선 도로이다.

[어원풀이] ‘성황당(城隍堂)/서낭당+고개[峴]’로 분석된다.

● 석메고개

[별칭] 석미고개

[형태] 고개

[위치] ‘지턱골’ 맞은편에 있는 고개이다. ‘백석동’과 ‘차돌바위’가 있는 고개로, ‘국사봉’ 북서쪽 능선을 타고 남춘천으로 향한다. 지금은 ‘라데나골프장’으로 흡수되어 넘어가지 못한다.

[어원풀이] ‘석(石)+매/매/미/뫼[山]+고개[峴]’로 분석된다. 돌이 있는 산 또는 돌로 된 산으로 난 고개란 의미이다. 인근에 ‘성미’라는 지명이 있는 바, ‘성미고개’의 와전으로 보인다.

● 섬뚜루

[형태] 들

[위치] 미상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솟바리에 있는 들이라 하였다.

[어원풀이] ‘섬(곡식 담는 짚으로 만든 그릇)+뚜루/두루/들[坪]’로 분석된다. ‘섬’은 곡식 따위를 담기 위하여 짚으로 엮어 만든 그릇이며, 한 섬은 한 말의 열 배로 약 180리터에 해당한다. ‘섬뚜루’는 곡식이 많이 나는 들이란 의미이다.

● 솔바리

[별칭] 솔바리, 솔발이, 정족리(鼎足里)

[형태] 마을

[위치] 정족1리에 있는 마을이다. 정족2리 맞은편의 기찻길 너머에 있다.

[유래] 『조선지지자료』에 정족리 소재 마을이름으로 ‘鼎足里(소밸리)’가 기재되어 있다 『춘천의지명유래』에 “원래의 표기 솔바리가 솔바리로 변했다.”라 하였고, 『신동면지리지』에 “속(솔)의 모양을 떠다 해서 솔발이로 불렸다. 솔 모양인 정족리의 다리 부분에 붙여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라 하였다.

[어원풀이] ‘솔[鼎]+바리/발[足]’로 분석된다. 행정지명 ‘정족리(鼎足里)’의 바탕이 된다.

● 승짓골

[별칭] 승지골

[형태] 골짜기

[위치] 정족2리에 있는 안골과 금병산으로 이어진 골짜기를 말한다. 지금의 외곽도로 주유소 옆 골짜기이다.

[유래] 『조선지지자료』에 지풀리 소재 골짜기 이름으로 ‘聖知谷(승지골)’이 기재되어 있다. 『한국지명총람』에 솔바리 뒤에 있는 산골짜기라 하였다. 『조선지지자료』의 기록은 일제강점기 때 정족리를 ‘지풀리’로 대표할 때의 언급이다. ‘지풀, 지풀리’는 정족리 본마을 남쪽에 있고, ‘승짓골’은 북쪽에 있다.

[어원풀이] ‘승지[옹달]+골[谷]’로 분석된다. 승지는 ‘옹달’의 방언형이다. 한자 표기 ‘聖知谷’은 음차자(音借字)이다. 지금은 외곽순환대로 너머 주유소 옆 골짜기인데, 금병산 북쪽 산골짜기로 응달진 지역이다.

● 시루버덩

[형태] 들

[위치] 정족2리마을회관에서 7시 방향 김유정로와 경춘선 앞에 있다. 그 아래에 ‘사태말’이 있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시루처럼 생겼다는 벼덩이라 하였다. 예전엔 ‘시루버덩’을 지나 이웃 마을 증리, 김유정마을로 이어졌다.

[어원풀이] ‘시루[甑]+벼덩’으로 분석된다. ‘시루[甑]’는 곧 ‘증리(甑里)’를 가리키고 벼덩은 높고 평평하며 나무는 없이 풀만 우거진 거친 들을 말한다.

● 신기현(新機峴)

[별칭] 신풍랑고개

[형태] 고개

[위치] 지금은 정족리와 증리 접경 부근에 있던 ‘신풍랑’이 있던 자리에 군부대가 들어서고, 경춘선이 지나게 되어, 남은 ‘신풍랑’은 정족2리마을회관에서 ‘서낭고개’를 넘어 김유정로로 나오는 4차선도로 북서쪽 건너편에 남아 있다. 그 뒤는 라데나골 프장이다. 행정구역은 증리(甑里)에 속한다.

[유래] 『조선지지자료』에 정족리 소재 고개 이름으로 ‘新機峴(신풍리고개)’가 기재되어 있다.

[어원풀이] ‘신(新)+기(機)+현(峴)’으로 분석할 수 있다.

● 신배나무쟁이

[별칭] 배나무골

[형태] 골짜기

[위치] 정족2리 남단, 외곽순환도로 너머, ‘쳤고개’와 ‘망태골’ 사이에 있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신배나무가 있던 골짜기라 하였다.

[어원풀이] ‘신배나무(돌배나무)+쟁이(접미사)’으로 분석할 수 있다. ‘-쟁이’는 ‘골[谷]’의 뜻으로 전의

(轉義)되었다. ‘신배나무’는 곧 ‘돌배나무’이다.

● 신씨네골

[형태] 골짜기

[위치] 『신동면지리지』에 “무진개에서 솟발이 쪽으로 가다가 우측에 있는 골짜기이다.”라 하였다.

[어원풀이] ‘신(申)+씨(氏)+네(첩미사)+골[谷]’로 분석된다. ‘-네’는 ‘그러한 부류 또는 그러한 부류에 속하는 사람’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이다.

● 신트랑

[별칭] 신틀랑, 신풍랑, 신풍래이, 신기리(新機里)

[형태] 마을

[위치] 증리(甑里)에 소재하나, 생활권은 정족리(鼎足里)에 가깝다. 증리 북단, 군부대 고가다리 부근에 있었으며, ‘잔펭이’가 가까이 있고, 그 위쪽에 ‘도장골’이 있었다. 지금은 군부대와 경춘선 개설로 라데나골프장 남단에 남아 있으며, ‘잔펭이’와 ‘도장골’은 라데나 골프장에 흡수되었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신틀바우가 있는 마을이라 하였다.

[어원풀이] ‘신품/신틀[靴機]+양/양이/앵이](파생접미사)’으로 분석할 수 있다. 예전부터 ‘신품 모양의 바위’에서 유래했다는 ‘신품’은 한자음에 의탁된 것인지 의심스럽다. 또한 파생접미사 ‘-양/양이’가 따르는 것도 부자연스럽다. ‘신품’은 ‘신(넓게 트인)+틀/들[坪, 野]+양/안[內]’으로 분석할 수 있다. ‘넓게 트인 들 안쪽에 있는 마을’이다.

● 신틀바우

[별칭] 혜기암(鞋機岩), 화기암(靴機岩)

[형태] 바위

[위치] ‘신품’에 있는 바위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옛날에 신선이 이 바위에서 신을 삼았다 함”이라 하였다.

[어원풀이] ‘신품’ 참조. ‘신풀바우’는 미투리나 짚신을 삼는 목재로 만든 틀 모양의 바위를 말한다. ‘혜기암’과 ‘화기암’은 한자식 지명이다.

[유래담] 전하는 말로는 옛날에 부호(富豪)가 살았는데 노승(老僧)이 시주(施主)를 하라 하거늘 꾸짖고 응하지 않으니 승(僧)이 훌연 보이지 않고 혜기(鞋機)의 한쪽 뿐이 부러지며 마침내는 구허(丘墟)가 되었다 한다.(『춘주지』)

● 안골

[형태] 골짜기

[위치] 도로지명 정족2길로 금병산 북쪽으로 난 골짜기로, 지금은 외곽순환대로에서 막혔으나 예전에는 그 너머로 ‘안골’이 이어졌다.

[유래] 『조선지지자료』에 지풀리 소재 골짜기 이름으로 ‘내곡(안골)’이 기재되어 있다.

[어원풀이] ‘안[内]+ㅅ+골[谷]’로 분석된다.

● 안꼴마을

[별칭] 안꼴마을

[형태] 마을

[위치] 본마을 사자산(150m) 남쪽에서 금병산으로 이어져 순환대로를 넘자마자 순환대로에 붙어있는 마을이다. 도로지명 정족2길 북쪽 끝이다. 본마을에서는 금병산 북쪽 기슭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솟바리 안쪽에 있는 마을이라 하였다. 외곽순환대로가 생기면서 ‘안골’ 북단에 있던 ‘안꼴마을’은 외곽순환대로 밖이 되었고, 지금은 주유소와 네 가구 정도만 남아 있다.

[어원풀이] ‘안[内]+ㅅ+꼴[谷]+마을[村]’로 분석된다. 솟바리마을 ‘안꼴’의 ‘안’이란 집안의 ‘안채’처

럼 ‘(가장) 뒤쪽’을 가리킨다.

● 안화사지(鞍化寺址)

[형태] 고적

[위치] 정족리에 있다.

[유래] 『춘천풍토기』에 의하면, 춘천군 동산면 관대리 마을의 서쪽 약 10km의 산록 밭 가운데 있는 것으로 부근에 와편이 산재하고 안화사의 옛터인 듯하나 사실적인 역사의 근거는 없고 ‘내사리사지’라고 명명하고 있다. 『춘천군의 역사와 문화유적』에 “『춘천읍지』에 ‘鞍化寺在鞍化山’이라 기록되어 있다. 현재는 보광사라는 절이 있는데 이 절의 주지에 의하면 보광사를 짓기 전에도 사지의 흔적은 전혀 없었다고 한다. 다만 현재 대웅전 앞에 있는 수령이 오래된 소나무가 있어 이 사지(寺址)가 오래되었음을 짐작할 따름이다.”라 하였다. 안화사지(鞍化寺址)가 있는 안화산(鞍化山)은 요즘은 대부분 안마산(鞍馬山)이라 부른다.

● 양지편

[형태] 마을

[위치] 정족리 본마을로, 정족2리마을회관 남쪽 가까이에 있으며, 지금 ‘정족공판장’이 있다. 남동쪽 500m쯤에 ‘사자산(150m)’이 있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양지바른 곳에 있는 마을이라 하였다.

[어원풀이] ‘양지’(陽地)+(바른-)편(便)으로 분석할 수 있다.

● 웃새미

[별칭] 상신암(上新岩), 웃새미, 웃새미들

[형태] 마을

[위치] 새미 위쪽에 있는 마을이다.

● 제당골

[별칭] 지당골

[형태] 골짜기

[위치] 지品德리에서 금병산 쪽에 ‘큰지당골, 작은지당골’이 있다.

[유래] 『조선지지자료』에 정족리 소재 골짜기 이름으로 ‘제당골(祭堂谷)’이 기재되어 있다.

[어원풀이] ‘제당(祭堂)+골[谷]’로 분석된다.

● 제사터골

[형태] 골짜기

[위치] 미상이다.

[유래] 『조선지지자료』에 정족리 소재 골짜기 이름으로 ‘제사털골(祭墟谷)’이 기재되어 있다.

[어원풀이] ‘제사(祭祀)+터[垈]+ㅅ+골[谷]’로 분석된다. 제사를 지낸 터가 있는 골짜기란 의미이다.

● 준전두루

[별칭] 주전두루

[형태] 들

[위치] 미상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솟바리 부근에 있는 들이라 하였다.

[어원풀이] ‘준전(죽전? 竹田)+두루/들[坪]’로 분석할 수 있다. 유래는 불분명하다.

● 지턱골

[별칭] 지턱골, 지터골

[형태] 골짜기

[위치] ‘구설’이 앞에 있었고, ‘도장골’이 가까이 있었으나, 지금은 이들 모두 ‘라테나골프장’으로 흡수되었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솟바리 서북쪽에 있는 골

짜기라 하였다.

[어원풀이] ‘지/제(祭)+턱/턱(터, 塹+へ)+골[谷]’로 분석할 수 있다. ‘제사터골’과 동일한 지명으로 추정된다.

● 지품(地品)

[별칭] 지풀리

[형태] 마을

[위치] 정족리에 있는 사자산(150m) 서쪽으로 도로지명 정족1길이 지나는 곳에 있다. ‘지풀리’는 요즘엔 ‘정족2리마을회관’ 남쪽으로, ‘봄내산업’과 ‘수한목장’이 자리하며, ‘지풀’ 자리엔 ‘대원사’가 들어섰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새미 남쪽에 있는 마을. 정병산(正屏山) 밑이 되어 골이 매우 깊다.”라 하였고, 『신동면지리지』에 “정족2리를 옛날 사람들이 부르는 이름이다. 골짜기가 깊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새미 남쪽에 있는 마을이다. 옛날 사람들은 이곳을 얘기할 때 정족2리라 하면 잘 몰라도 지풀리라 해야 빨리 알아들었다.”라 하였다.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으로, 고청리(古青里), 지풀리(地品里), 신암리(新岩里)를 병합하여 신남면(新南面) 정족리(鼎足里)에 편입하였다. 이들 3리가 곧 정족2리이다.

[어원풀이] ‘깊음[深]>지풀(구개음화)+골[谷]’로 분석된다. ‘깊은+골’에서 지명접미사 ‘골[谷]’이 생략되었다. ‘깊은’은 동명사형 ‘깊음(深)’으로 전성(轉成)하고, 다시 ‘깊음’으로 구개음화(口蓋音化)한 뒤 연철표기(음운론적표기)로 ‘지풀’이 되었다.

● 짐뚜루

[형태] 들

[위치] 『신동면지리지』에 솟바리에 있는 들이라 하였다.

[어원풀이] ‘짐(논밭 넓이의 단위)+두루/들[坪]’로 분석할 수 있다. ‘짐’은 논밭 넓이의 단위로 세금을 계산할 때 썼다. 한 짐은 한 뜻의 열 배, 1동의 10분의 1로, 그 넓이는 시대에 따라 달랐다. ‘짐뚜루’는 한 짐 정도의 들이다.

● 짓골

[별칭] 딪골

[형태] 골짜기

[위치] 정족2리 북단, ‘고창말’에서 얼마간 동진하다가 안마산 서쪽 자락으로 들어가는 곳이며, 계속 북진하면 ‘2차퇴계동농공단’에 이른다.

[유래] 『조선지지자료』에 고청리(古青里) 소재 골짜기 이름으로 ‘딧골’이 기재되어 있다.

[어원풀이] ‘짓/진[泥]+골[谷]’로 분석할 수 있다. 또는 ‘뒷골’의 변형으로도 보인다.

● 차돌바위

[별칭] 백석(白石)

[형태] 바위

[위치] 예전에 정족1리에서 석매(석미)고개 넘어 남춘천 쪽으로 내려가면 희고 큰 바위가 있는데, 그 마을을 ‘백석(차돌)동’이라 부른다. 지금은 ‘석매고개’가 라데나골프장에 흡수되어 넘어갈 수 없다.

[유래] 『신동면지리지』에 “이 바위가 있는 곳을 백석동(白石洞)이라고 했다. 하얀 차돌바위가 있어 붙여진 명칭이다. 이 바위에 수탉이 올라가서 울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온다. 지금은 개발이 돼서 아파트와 집들이 들어섰다. 골프장이 막혀서 솟발이에서는 갈 수도 없다.”라 하였다.

[어원풀이] ‘차돌[白石]+바위[岩]’로 분석된다.

● 천덕산(天德山)

[형태] 산

[위치] ‘새미’와 ‘신트랑’ 인근으로, 지금은 라데나 골프장 남쪽으로 흡수되었다.

[유래] 『조선지지자료』에 신암리 소재 산 이름으로 ‘天德山(천덕산)’이 기재되어 있다.

● 첫고개

[형태] 고개

[위치] ‘첫고개’와 ‘두고개’는 정족리 쪽에서 부르는 고개 이름으로, 외곽순환대로를 넘어 정족2리 남단, 금병산 진동이로 넘어가는 첫 번째 고개이며, 중리에 소재하는 두 번째 고개는 ‘두고개’라 부른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동리에서 제일 먼저 넘는 고개라 하였다.

[어원풀이] ‘첫[初, 첫 번째]+고개[峴]’로 분석된다.

● 최재근전통가옥(崔在根傳統家屋)

[형태] 고적

[위치] 신동면 정족 1리 907-2번지

[유래] 1917년에 건립된 기와집으로 1985년 1월 17일 강원도문화재자료 제65호로 지정되었다. 지역이름을 따서 솔바리 기와집이라고도 불린다. ㄱ자 모양의 안채와 ㄴ자 모양의 행랑채가 전체적으로 모형으로 배치를 이루는 영서(嶺西) 중부지방의 전형적인 기와집이다.

[유래담] 이 집은 김정은 가옥과 같이 원래 김씨네 가옥이었다. 김정은 가옥이 큰집이고 최재근 가옥이 김씨네의 작은 집이었다. 그러나 작은 집이 다른 사람에게 이 집을 팔았다. 김씨네는 천석지기를 할 정도로 잘 살았다. 그런데 어느 때에 못사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땅을 분배해줬다. 김씨네가 스스로 자신의 논을 나누어 준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분배를 시행한 것이다. 소작농들은 그 집에 가서 땅을 얻어 부지려고 떡도 해 가져가고 일도 해주고 하였다. 그렇게 어렵게 소작농들이 살게 되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잘사는 집은 더 잘살고 못사는 사람은 더 못살게 되었다. 그렇게 점점 못 사니까 국가에서 김씨네의 땅을 강제로 소작농에게 나누어 주었다는 전설이 내려온다. 그렇게 분배받은 땅으로 소작농들이 스스로 먹고 살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었다.(『신동면지리지』)



최재근 가옥

● 춘천라데나골프클럽하우스

[별칭] 라데나골프클럽하우스. 라데나골프CC. 클럽하우스.

[위치] 신동면 칠전동길 72. 정족리 1007-1번지. 춘천시 칠전동 쪽에서 진입한다.

[유래] 1990년 개장한 라데나골프클럽은 27홀 회원제 골프클럽으로서, 수려한 자연환경과 정원을 연상하게 하는 코스는 “호반의 도시” 춘천의 자연경관을 그대로 옮겨왔다. 라데나(LADENA)는 LAKE, GARDEN, NATURE의 합성어로 아름다운 호반의 도시 춘천의 깨끗하고 잔잔한 호수를 배경으로, 자연과 동화된 편안한 고품격 여가활동, 친자연주의 명문 골프장을 표현하는 의미이다.

● 큰골

[형태] 골짜기

[위치] ‘김유정문학촌’ 북쪽 ‘순환대로’에서 칠전동 ‘사실기고개(경춘로)’로 넘어가는 고갯길이다. 행정 구역은 증리(甑里)에 속한다. 지금 ‘큰골’은 2차선 ‘경춘로’로 개통되었다.

[어원풀이] ‘큰[大]+골[谷]’로 분석된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정족리에 있는 들이라 하였다. 지금 ‘한석개들’에는 여러 음식점과 사이다 공장이 들어서 있다.

[어원풀이] ‘한[一]+석(石)+개[溪]+들[坪]’로 분석 된다. ‘석(石)’은 부피의 단위로, 곡식, 가루, 액체 따위의 부피를 쟀 때 쓰며, 한 석은 한 말의 열 배로 약 180리터에 해당한다. ‘만석(萬石) 부자(富者)’의 예가 있다.

● 토끼바우

[형태] 바위

[위치] 『신동면지리지』에 “보광사로 올라가는 곳 왼쪽으로 근화원이라는 무궁화동산이 있다. 그 우측으로 골짜기를 타고 약 300미터 가면 왼쪽 산허리 약 20미터쯤 위치에 바위군이 보인다. 그 바위들 중에서 왼쪽 바위가 토끼바우이다.”라 하였다.

[어원풀이] ‘토끼[兔]+바우/바위[岩]’로 분석된다.

● 화챗간터

[형태] 골짜기

[위치] ‘안골’로 가는 정족2길로 외곽순환대로 앞 까지 올라가다가 조금 아래쪽에 있었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옛날에 상여집이 있던 골짜기라 하였다.

[어원풀이] ‘화채[喪輿]+ㅅ+간[間]+터[垈]’로 분석 된다. ‘화채’는 ‘상여(喪輿)’의 비표준어이다.



토끼바위

● 후평현(後坪峴)

[별칭] 뒤덜고개

[형태] 고개

[위치] 미상이다.

[유래] 『조선지지자료』에 지풀리 소재 고개이름으로 ‘後坪峴(뒤덜고기)’이 기재되어 있다.

[어원풀이] ‘후(後)+평(坪)+현(峴)’으로 분석할 수 있다.

● 한석개들

[별칭] 한석개

[형태] 들

[위치] 정족1리미을회관 앞쪽에 있는 경춘선, 김유정로, 퇴계천 너머에 있다. 지금은 김유정로에서 정족2리로 들어가는 입구와 ‘고창말’ 사이에 있다.

위치와 현황 | 동쪽으로 병풍을 두른 듯 아름답다는 금병산이 있는 전형적인 농촌마을이다. 자연마을로는 대평, 거문관, 수하릿골, 역적, 아랫말 등이 있다. 김유정의 소설 ‘소낙비’에 등장하는 삼포(三浦)와 김유정의 생가터와 김유정이 농촌운동을 하면서 심은 느티나무 등이 있다.

연혁 | 『춘주지』를 보면 남내(南內)에 증리(甑里)가 있다. 『여지도서』는 남내면(南內面)에 상증리(上甑里), 하증리(下甑里)를 포함시켰다. 『호구총수』는 남내이작면(南內二作面)에 상증리(上甑里), 하증리(下甑里)를, 『춘천읍지』, 『춘천부지』, 『관동읍지』는 남내면(南內面)에 상증리(上甑里), 하증리(下甑里)를 포함시켰고, 『조선지지자료』는 남내이작면(南內二作面)에 증리(甑里)를 표기하였다. 『강원도지지조서』는 신남면(新南面)에 증리(甑里)를, 『강원도지』는 신남면(新南面)에 신증리(新甑里), 『수춘지』는 신동면(新東面)에 증리(甑里)를 표기하였다. 『춘주지』는 신동면(新東面)에 증1리, 증2리, 증3리를, 『춘천백년사』는 신동면(新東面) 증1리, 증2리, 증3리, 증4리를 각각 구분하여 표기하였다. 현재 행정리는 증리고 법정리는 증1리, 증2리, 증3리, 증4리이다.

유래 | 본래 춘천군 남내이작면의 지역으로서 실례라 하였다.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한두루, 삼포, 샛고개를 병합하여 실례의 뜻을 따라 증리(甑里)라 하여 신동면에 편입하였다.

● 가매소

[별칭] 가마소, 부소(釜沼)

[형태] 소(沼)

[위치] 『신동면지리지』에 “방아다리 앞에 있는 폐 깊은 개울 웅덩이이다.”라 하였다.

[유래] 『조선지지자료』에 중리 소재 소(沼)이름으로 ‘釜沼(가마소)’가 기재되어 있고, 『한국지명총람』에 “가마처럼 생긴 소(沼)”라 하였다.

[어원풀이] ‘가매/가마[釜, 鼎]+소(沼)’로 분석된다.

다. 방아다리 오른쪽에 있다.”라 하였다.

[어원풀이] ‘거문/거문/[검-(黑)]+{-ㄴ}(관형형어미)+관/간(澗)’으로 분석할 수 있다. ‘검[黑]’은 ‘감/곰/굼/굼’ 등의 이형태와 더불어 ‘신(神), 숭(崇)’의 미를 가지기도 한다. ‘관/간(澗)’을 ‘干’으로 표기한 것은 음차표기이고, ‘관/간/가니’의 어근형이 ‘간’임을 알려주며, 그 어의는 ‘시내[澗]’이다. ‘間’이라면 ‘흔 畏/간(間)’되는 장소를 가리키는 지명이 된다. ‘거문관/거문가니’는 어두운 계곡(마을)이며, 나아가 신령스런 특별한 곳으로, 소도(솟대배기)가 있었음을직하다. 그래서 ‘검은내/거문내/거문내’가 흔들다.

● 강신재

[형태] 고개

[위치] 미상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옛날 이곳에서 강신제(降神祭)를 지냈다는 재라 하였다.

[어원풀이] ‘강신/강신제(降神祭)+재[峙]’로 분석된다. 강신제(降神祭)는 몸에 내린 신을 맞아서 무당이 되려고 신에게 비는 ‘내림굿’이다.

● 거문관보

[별칭] 거문간보, 거문가니보

[형태] 수리

[위치] 중2리 한들 앞 내에 있는 보(洑)이다.

[유래] 『신동면지리지』에 “이곳에서 김유정이 목욕을 했다고 소설에 나온다고 한다.”라 하였다.

[어원풀이] ‘거문관+보(洑)’로 분석된다.

● 거문관

[별칭] 거문가니, 거문관, 거문간리[黑千里]

[형태] 마을

[위치] 중2리, 중리고분군 서쪽 팔미천 너머에 있다.

[유래] 『조선지지자료』에 중리 소재 마을 이름으로 ‘黑千里(거문간리)’가 기재되어 있다. 『춘천의 지명 유래』에 “거문가니라고 부른다. 실례 서쪽에 땔린 작은 마을”이라 하였고, 『신동면지리지』에 “옛날 이 강이 거문관 뒤쪽으로 나 있어서 중리 행정구역으로 되었다. 나중에 물길이 바뀌면서 지금처럼 마을이 위치해 있다. 실례에 땔린 작은 마을이다. 소설가 김유정이 이곳에 와서 벽을 감기도 했다고 전해온다. 대평마을 마주 보는 곳에 자리하고 있

● 거문산

[형태] 산

[위치] 신남초등학교를 지나 ‘한들’을 둘러싼 산이다.

● 건재뫼기

[별칭] 건조매기

[형태] 골짜기

[위치] ‘건조매기들’의 소재지는 신동면 중리 13-4번지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실례에 있는 산골짜기라 하였다.

[어원풀이] ‘건/걸[川]+재[峙]+뫼기/매기/목[項]’으

로 분석할 수 있다. ‘건재’를 ‘걸(개천의 고어)+재[峙]’로 상정하면 ‘개천을 낀 고개’가 된다. ‘목[項]’은 ‘목/목이/폐기/매기/모기’ 등의 이형태를 가지며 ‘좁다란 산협이나 물속을 가로지르는 길목’을 뜻한다. 특히 ‘통로의 다른 곳으로는 빠져나갈 수 없는 중요하고 좁은 곳’을 가리키고 있다.

● 건조매기들

[별칭] 건재뫼기들

[형태] 들

[위치] 신동면 중리 13-4번지 일대이다.

● 고에골

[별칭] 고야골

[형태] 골짜기

[위치] ‘삼포(유원지)’ 남쪽 마을 끝에 있는 골짜기로, 신동면 중리 산181-1번지 일대이다.

[어원풀이] ‘고에(‘ㄱ’ 탈락)/고기>고개[峴]+골[谷]’로 분석할 수 있다. 별칭 ‘고야골’에서 ‘고야’를 ‘자두’의 방언으로 풀이하기도 하나, 민간어원설이다.

● 꼬들봉

[별칭] 꼬든봉, 곧은봉

[형태] 산

[위치] 중4리에서 팔미천 상류로 서진하다가 군자리 경계 쯤에 있다.

[유래] 지역민의 증언으로는 경사가 심한 봉이어서 ‘곧은봉’인데, 된소리로 ‘꼬든봉/꼬들봉’이 되었다고 한다.

[어원풀이] ‘꼬들/꼬든/고든/곧은[直]+봉(峰)’으로 분석할 수 있다.

● 구린난골

[별칭] 구린잔골

[형태] 골짜기

[위치] 신동면 중리 산206번지 일대로 그 근처엔 주유소가 있다. 지도상에서는 ‘구린잔골’로 표기하였다.

[어원풀이] ‘구리[銅]+‘ㄴ’첨가}+나-[產]+(으)ㄴ(관형사형어미)}+골[谷]’로 분석할 수 있다. 구리가 산출되던 골짜기란 의미이다.

● 굴산양지

[형태] 마을

[위치] 『신동면지리지』에 “대평마을 절터골 맞은편에 있는 마을이다. 깃대봉 옆이 된다.”라 하였다. 위쪽엔 ‘요리골’이 있다.

[어원풀이] ‘굴(窟)+산(山)+양지(陽地)’로 분석할 수 있다.

● 금광굴

[형태] 굴(窟)

[위치] 삼포에서 새고개로 가는 왼쪽 산 중턱에 있다.

[유래] 예전에 금을 캐던 굴이 있었다고 한다.

[어원풀이] ‘금(金)+광(鑛)+굴(窟)’로 분석된다.

● 금병산등산로

[별칭] 금병산등산코스

[위치] 실레마을 동쪽으로 솟은 산을 오르내리는 등산로

[유래] 초대 김유정문학촌장을 역임한 전상국 교수가 김유정의 소설 제목에서 따와 금병산 등산로마다 이름을 붙였는데, 전국적으로 그 유래가 없을 정도로 특별하다. ‘봄봄길, 동백꽃길, 만무방길, 금파는 콩밭길, 산골나그네길’이 있다.

● 금병산산신당

[형태] 건물

[위치] 『신동면지리지』에 “금병산에 있는 실레마을 산신당이다. 금병산 등산로를 오르다 오른쪽으로 빠져 내려가면 있다.”라 하였다.



금병산 산신당



산신당 뒤의 신록

● 금병산저수지

[별칭] 수와리소류지, 수화리소류지

[형태] 저수지

[위치] 김유정역 인근 산기슭에 자리한 저수지로, 신동면 증리 554번지 일대이다.

● 금병예술촌

[별칭] 증리예술인마을, 금병예술인마을

[형태] 마을

[위치] 금병산 남쪽 자락에 있는 산국농장 안에 조성된 마을이다. 예전 ‘상제이’ 자리이다. 도로지명은 ‘풍류길’이다. 김유정문학촌과 김유정마을산책길 등과 연계해 조성되어 있다.

[유래] 소설가이자 김유정기념사업회 이사장인 전상국씨를 비롯, 10여 명의 예술인이 터를 잡고 활동하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다. 산국농장 주인 이자 시인인 김희목, 고 전신재 한림대학교 교수, 소화갤러리에서 이양순씨의 민화, 함섭 화가의 함섭한지아트스튜디오, 김윤선 도예공방, 카페 산골나그네에서 오세성과 솟대 만들기 등을 체험할 수 있다.

● 김유정금병의숙터

[별칭] 금병의숙터

[형태] 유적

[위치] 실레마을 입구에 있으며, 그 우측이 김유정문학촌이다.

[유래] 김유정은 1931년 실레마을에서 초가집을 짓고 야학당(夜學堂)을 열었다. 농우회와 노인회, 부인회를 조직하고 농우가(農友歌)도 지었다. 1932년 야학당을 금병의숙(金屏義塾)으로 넓히고 간이학교로 인가받아 문맹퇴치운동을 벌였다. 금병의숙은 6.25전쟁 때 불타버렸고 이곳에 새마을



김유정금병의숙터

회관을 지었다. 붉은 벽돌 2층 건물을 다시 지어 중리의 복지회관, 예식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금병 의숙터에 세워진 복지회관 앞에는 ‘금병의숙터’ 글씨를 새긴 돌로 표석을 세워두고 있다.

● 김유정기적비(金裕貞紀蹟碑)

[형태] 유적

[위치] 김유정금병의숙터를 알리는 표비(標碑)이기도 하다. 실레마을 입구에 있으며, 그 우측이 김유정문학촌이다.

[유래] 김유정기념사업회와 춘성군이 합동으로 1978년 3월 29일에 제막한 김유정을 기리는 기적비이다. 펜 모양의 자연석을 세웠다. 김유정이 사용하던 펜 모양을 닮았다.



김유정문학촌

신동면

● 김유정느티나무

[형태] 나무

[위치] 금병의숙 앞마당

[유래] 김유정이 고향 실레마을에 머물러 농촌운동을 하면서 심은 나무이다. 원래 느티나무는 벼락을 맞은 뒤 죽었다고 지역민은 중언한다.

● 김유정문학촌

[형태] 유적

[위치] 경춘선 김유정역 앞에 있다.

[유래] 소설가 김유정의 사상과 문학을 기리기 위해 생가를 복원하고 전시관을 지어 2002년 8월 6일에 설립한 문학관이다. 김유정의 사상과 문학을 기리며, 그 기념 및 연구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김유정추모제, 김유정동백제, 김유정문학축제, 야외무대 상시 공연, 특별 기획전시를 하며, 매년 김유정문학상을 수여하고 있다.

● 김유정생가터

[형태] 유적

[위치] 신동면 중리 427번지이다.

[유래] 소설가 김유정이 탄생했던 집터이다. 김유정의 생가는 없어지고 일부는 밭으로 남아 있으며 일부는 새로 지은 건물이 있다.

● 김유정실레이야기길

[별칭] 실레이야기길

[위치] 실레마을과 김유정의 소설 무대인 금병산 일대를 산책하는 문학탐방로이다.

[유래] 실레마을의 여러 장소가 김유정의 소설에 나오므로, 이에 따른 이야기길이 조성되었다. 문학탐방객들은 이 이야기길을 따라 김유정 소설을 재음미하며 생생한 현장에서 기념 촬영을 하며 문학적 감회에 젖을 수 있다.



실레이야기길 안내판

● 김유정역

[별칭] 구 신남역

[형태] 교통

[위치] 구 신남역 바로 곁에 한옥으로 지었다.

[유래] 신남역이라는 역명이 2004년 12월1일부터 '김유정역으로 바뀌었다. 유명인(소설가)을 역 이름으로 한 것은 '김유정역'이 처음이다.

● 김유정역레일바이크

[별칭] 김유정레일바이크, 강촌레일바이크

[형태] 교통

[위치] 김유정역에 있으며, 김유정역과 강촌역 사이, 예전 경춘선 선로를 이용한다.

[유래] 레일바이크(Rail bike)는 철로 위를 달릴 수 있도록 만든 자전거로서, 자전거처럼 페달을 밟아 그 추진력으로 철로를 달린다. 춘천과 강촌의 새로운 관광명소가 되고 있다.

● 깃대봉

[형태] 산

[위치] 『신동면지리지』에 “대평마을의 방아다리 맞은편에 있는 봉우리이다.”라 하였다.

[어원풀이] ‘기(旗)+人+대(始)+봉(峰)’으로 분석할 수 있다. ‘깃대([기때],旗대)’는 깃발을 달아매는 장

대인데, 깃대봉은 측량의 기준점이 되는 산이다.

● 냉천(冷泉)

[형태] 샘

[위치] 신남역(新南驛, 지금은 김유정역)에 있다.

[유래] 『춘주지』에 “물이 심히 차고 매워서 풍습병자(風濕病者)가 목욕하면 효험이 있다 한다.”라 하였고, 『조선환여승람』에 “남내면(南內面) 15리 증총(甑村)에 있다. 물의 성질이 극열하여 습한 곳에 살아 뼈마디가 시린 사람이 이곳에서 목욕을 하면 많은 효험을 본다.”라 하였다.

● 두고개

[형태] 고개

[유래] 정족리 쪽에서 부르는 고개 이름인데, 와파순환대로를 넘어 정족2리 남단, 금병산 잔등이로 넘어가는 첫 번째 고개는 ‘첫고개’라 부르고, 중리에 소재하는 두 번째 고개는 ‘두고개’라 부른다.

[어원풀이] ‘두(두 번째) +고개[峴]’로 분석된다.

● 뒷골

[형태] 마을

[위치] 증1리 뒤쪽, 금병산 자락 비탈진 곳에 있다. 지금은 ‘증리예술인마을’에 포함되었다.

[어원풀이] ‘뒤[後]+ㅅ+골[谷]’로 분석된다.

● 담안

[별칭] 담안우, 담안에우물, 담안우물

[형태] 샘

[위치] 『춘천의 지명유래』에 “담안에 있는 우물이다. 금병의숙과 김유정문학촌 사이에 있는 마을 공동의 우물이었다.”라 하였다.

[어원풀이] ‘담안’은 ‘담(담장, 牆)+안[内]’으로 분석

되고, 그 별칭인 ‘담안우’는 ‘담(담장, 牆)+안[內]+우/우물[井]’로 분석된다. 이 ‘담안’은 지명 형태인 ‘우물[井]’이 생략된 채, 지명 위치만으로 된 지명이다. 별칭 ‘담안우. 담안에우물. 담안우물’ 등이 이를 뒷받침한다.



담안에우물

● 당째

[형태] 고개

[위치] 미상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산제당이 있던 산이라 하였다.

[어원풀이] ‘당/산제당(山祭堂)+ㅅ+재[峙]’로 분석된다.

● 대평(大坪)

[별칭] 한두루, 한들

[형태] 들

[위치] 금병초등학교에서 삼포 방향으로 작은 산등성이를 끼고 돌면 나오는 중2리사무소가 있는 큰 마을이다. 맞은편 경춘선 고가철로가 지나가고 그 건너는 팔미3리가 보인다.

[유래] 『신동면지리지』에 “좌우로 절터골과 빙아다리, 거문간, 굴산양지, 깃대봉에 써여 있는 넓직한 들판이다. 주로 벼농사를 짓고 있으나 비닐하우스

작물도 하고 있다. 지금의 중2리를 가리킨다. 중2리는 원래 자연마을 이름이 대평리라 불렸다.”라고 하였다.

[어원풀이] ‘대(大)+평(坪)’으로 분석된다.

● 대평교(大坪橋)

[형태] 다리

[위치] 중2리사무소 남쪽 가까이에 흐르는 삼포천 위에 놓인 다리이다. 여름철엔 대평교 아래에 넓게 보를 막아 어린아이들의 자연 수영장이 된다.

● 대평보

[별칭] 보매기, 보매기

[형태] 보(洑)

[위치] 대평마을 중2리에 있는 보(洑)이다.

● 떨어진소

[형태] 소(沼)

[위치] ‘삼포’ 안쪽 ‘새고개’ 입구에서 금병산 새고개를 잠시 오르면 나온다. 근처에 ‘예지랑소’도 있다.

[유래] 큰 바위가 소에 떨어져 그리 부르게 되었다 한다.

[어원풀이] ‘떨어지-[落]+{-ㄴ(관형사형어미)}+소(沼)’로 분석된다.

● 도장골

[형태] 골짜기

[위치] 중리 북단이며, ‘순환대로’ 북쪽 가까이에 있는 제법 넓은 골짜기 들녘이다. ‘도장골’ 서쪽으로 ‘김유정로’와 경춘선이 지나고, ‘도장골’ 입구에 공동묘지가 있다. 근처에 군부대가 있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포도원’이라 하였는데,

‘포도원’은 ‘도장골’의 별칭은 아니다. ‘도장골’에 ‘포도원’이 생기면서 훗날 서로의 위치를 서로의 장소에 있다고 언급한 것일 뿐이다.

[어원풀이] ‘도장[闡]+골[谷]’로 분석된다. ‘도장’은 ‘안방’의 고어로서 ‘사방이 산이나 둑덕으로 둘러싸여 ‘안방’처럼 아늑하기 때문에 불여진 지명이다. ‘闡’의 음은 ‘규’이고 훈은 ‘도장방’이다.

● 뒷버덩

[형태] 들

[위치] 실례 뒤쪽에 있는 들이다.

[어원풀이] ‘뒤[後]+ㅅ+버덩’으로 분석된다. 버덩은 높고 평평하며 나무는 없이 풀만 우거진 거친 들이다.

● 드랭잇골

[형태] 골짜기

[위치] 미상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실례에 있는 골짜기라 하였다.

[어원풀이] ‘들[野]+앙이]/앵이](파생접미사)+ㅅ+골[谷]’로 분석할 수 있다.

● 딜요골

[형태] 골짜기

[위치] ‘삼포(유원지)’ 서쪽 ‘김유정로’ 너머, ‘스마일 재가노인복지센터’가 있는 마을 남쪽 골짜기는 ‘벼락골’이며, 그 바로 남쪽에 ‘딜요골’이 있다. 신동면 증리 산218-1번지 일대이다.

[어원풀이] ‘딜요/딜위(찔레의 고어)+골[谷]’로 분석할 수 있다.

● 마삼재

[형태] 고개

[위치] 미상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실례에 있는 산골짜기라 하였다.

[어원풀이] ‘마[南]+삼(三)+재[峙]’로 분석할 수 있다. 삼천동 소재 ‘마삼내(麻三內)’는 ‘마[南]+삼(三)+내[川]’로 분석된다. 남풍(南風)을 우리 고유 어로 ‘마파람’이라 하듯이 ‘마’는 우리 옛말에서 남쪽의 뜻이다. 남쪽에 있는 고개 또는 남쪽으로 넘어가는 고개란 의미이다.

● 말골

[별칭] 마식골

[형태] 골짜기

[위치] 증2리, 한들 동쪽 산자락 아래에 있다. 그 산자락 북쪽으로 돌아가면 증1리, 금병초등학교가 나온다. 신동면 증리 산98-1번지 일대이다.

[유래] 『신동면지리지』에 “대평리에서 한들을 바라보는 마을 뒤로 난 골짜기이다. 한들 사람들이 대부분 이곳에 모여 산다. 옛날에는 마식골이라 불렸다. 마식골 옆에는 으능골이 있다.”라 하였다.

[어원풀이] ‘말[마을, 村]+골[谷]’로 분석되고, 그 별칭인 ‘마식골’은 ‘마실[마을의 방언]+ㅅ+골[谷]’로 분석된다.

● 말미소

[형태] 소(沼)

[위치] ‘보메기’ 위에 있는 소(沼)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실례에 있는 소(沼)라 하였고, 『신동면지리지』에 “옛날에 이곳 소(沼)에 말이 빠져 죽었다.”라 하였다.

[어원풀이] ‘말/마을[村]+미/뫼[山]+소(沼)’로 분석

된다. ‘말미소’는 마을 가, 산기슭에 있는 작은 연못이란 의미이다.

● 매바우

[형태] 바위

[위치] 덕만이고개에서 ‘삼포’로 내려오는 중간쯤에 있는 ‘배틀바위’ 아래쪽에 있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실례에 있는 바위라 하였다.
[어원풀이] ‘매[鷹]+바우/바위[岩]’로 분석된다.

● 매봉이

[별칭] 매배이

[형태] 산

[위치] 김유정역 건너편 산자락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매처럼 생긴 봉우리가 있는 산이라 하였다.

[어원풀이] ‘매[鷹]+봉이’로 분석할 수 있다. ‘봉이’는 ‘뱅이’의 이형태로, ‘뱅이’는 ‘예방하다’, ‘없애다’, ‘해결하다’ 등의 뜻을 지닌 주술적 의미를 지닌 지명이다. 굿을 하던 산을 말한다.

● 무내미고개

[별칭] 무냄이고개, 무너미고개

[형태] 고개

[위치] 『신동면지리지』에 “실레마을에서 춘천으로 가다가 군부대 있는 곳을 무냄이고개라 한다.”라 하였다.

[유래] 『신동면지리지』에 “물이 이쪽저쪽으로 넘어 왔다가 갔다가 했다고 해서 물넘이고개라 했는데 이것이 나중에 무내미고개로 바뀌었다. 이곳에 샘이 나서 이쪽저쪽에서 물을 끌어다 댔다.”라 하였다.
[어원풀이] ‘무[물, 水]+내미[越]+고개[峴]’로 분석된다. 지명접미사 ‘-내미’는 그 어원형은 ‘-나미’이

며, 모음교체로 ‘-너미’를 가지며, 모음변이에 의한 ‘-내미/-네미’형이 있다. ‘나미’는 ‘餘/餘伊’가 기본의미이며, ‘넘다[越]’로 전의된다.

● 무당소

[별칭] 무소(巫沼)

[형태] 소(沼)

[위치] 중4리마을회관 북쪽 가까이 팔미천에 있다.

[유래] 『조선지지자료』에 중리 소재 소(沼)이름으로, ‘巫沼(무당소)’가 기재되어 있다.

[어원풀이] ‘무당(巫堂)+소(沼)’로 분석된다. 큰 바위와 거송이 곁에 있던 소로, 무당이 굿을 하던 곳이다.

● 물골

[형태] 마을

[위치] 중4리 ‘새고개’에서 ‘삼포’로 이르는 물길을 따라 난 큰 골짜기이다. 이 ‘물골’이 세 갈래 물줄기의 모습을 보이는 ‘삼포’와 합하여 ‘중4리마을’이 되었는데, 예전부터 불러오던 ‘물골’과 ‘삼포’ 등이 모두 같은 지명으로 내려오게 되었다. ‘삼포’는 중4리마을회관 남쪽 앞에서 원창리(原昌里) 쪽에서 내려오는 ‘팔미천’과 혈동리(穴洞里) ‘덕만이고개’에서 내려오는 소하천이 합류하는 곳이다. 두 하천이 합수하는 물놀이 장소는 신동면 증리(甑里)에 속하고, 식당 등이 있는 유원지 촌은 혈동리(穴洞里)에 속한다.

[유래] 『춘천의 지명유래』에 “옛날에 삼포(蓼圃)가 있었다. 김유정의 소설 ‘소낙비’에 삼포가 나온다.”라 하였다. 지금은 삼포(蓼圃/三浦)라고 부른다. ‘물골농원’이 있어 옛 이름을 알린다.

[어원풀이] ‘물[水]+골[谷]’로 분석된다. 금병산 남쪽 골짜기 물과 신동면 혈동리(穴洞里) 북쪽 골짜기 물이 이곳에서 합류하여 신동면 팔미리(八味里)

로 흐르므로, ‘삼포(三浦)’라고 부르기도 한다.

● 물윗팻간

[별칭] 물윗팻간

[형태] 골짜기

[위치] 샛골고개에 있는 골짜기이다.

[유래] 『신동면지리지』에 물이 내려와서 불은 명칭이라 하였다.

[어원풀이] ‘물[水]+위[上]+ㅅ+파(파이)-, 破)+ㅅ+간(間)’으로 분석할 수 있다.

● 방아다리

[형태] 골짜기

[위치] 중2리에 있는 산자락에 있다. 절터골 오른쪽이다.

[유래] 『신동면지리지』에 “골짜기의 형상이 디딜방아 모양이다.”라 하였다.

[어원풀이] ‘방아(디딜방아)+다리[橋]’로 분석된다.

● 백토고개

[별칭] 백두고개

[형태] 고개

[위치] 중1리에서 중2리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말골 옆이다.

[유래] 『춘천의 지명유래』에 “흰 흙이 있는 고개, 김유정의 소설에는 백두고개라 했다.”라 하였다.

[어원풀이] ‘백(白)+토(土)+고개[峴]’로 분석된다.

● 벼들뫼기

[형태] 들

[위치] 미상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벼들이 있는 들이라 하였다.

[어원풀이] ‘벼들[柳]+뫼기/목[項]’로 분석된다. 지

명접미사 ‘목[項]’은 ‘목/목이/매기/매기/모기’ 등 의 이형태를 가지며 ‘좁다란 산협이나 물 속을 가로 지르는 길목’을 뜻한다. 특히 ‘통로의 다른 곳으로는 빠져나갈 수 없는 중요하고 좁은 곳’을 가리킨다.

● 벼들뫼기개울

[형태] 하천

[위치] 『한국지명총람』에 벼들뫼기에 있는 내[川]라 하였다.

● 벼치개골

[별칭] 어치개골

[형태] 골짜기

[위치] 삼포 안의 골짜기이다.

[유래] 『신동면지리지』에 예전에 금광이 있었던 골짜기라 하였다.

[어원풀이] ‘벼치[器]+개[川]+골[谷]’로 분석할 수 있다. ‘벼치’는 ‘자배기’보다 조금 깊고 아가리가 벌어진 큰 그릇을 말한다.

● 번데기골

[형태] 골짜기

[위치] 상세이(상제이)에 있는 골짜기다.

[유래] 『신동면지리지』에 번데기처럼 모양이 생겼다고 하였다.

[어원풀이] ‘번데기+골[谷]’로 분석된다. 여기서 번데기는 누에가 고치를 틀고 번하여 된 몸이다. 모양은 실복 모양이고 색깔은 연한 밤색에서 진한 밤색으로 변하며 검은 것도 있다.

● 베틀바우

[형태] 바위

[위치] 덕만이고개에서 ‘삼포’로 내려오는 중간쯤에 있는 ‘배틀바위’가 있고, 그 아래쪽에 ‘매바위’가 있다.

[유래] 큰 배틀처럼 생겼다.

[어원풀이] ‘배틀+바우/바위[岩]’로 분석된다. ‘배틀’은 삼베, 무명, 명주 따위의 피류을 짜는 틀이다.

● 벼락골

[형태] 골짜기

[위치] ‘상세이산’을 넘어가는 ‘벼락재’ 아래에 있다. ‘삼포(유원지)’ 서쪽 ‘김유정로’ 너머, ‘스마일재 가노인복지센터’가 있는 마을 남쪽 골짜기는 ‘벼락골’이며, 그 바로 남쪽에 ‘딜요골’이 있다. 신동면 중리 산213번지 일대이다.

[유래] 『신동면지리지』에 “생긴 것이 묘하다. 바위가 묘한 것이 많다.”라 하였다.

[어원풀이] ‘벼락/벼랑[崖]+골[谷]’로 분석된다.

[어원풀이] ‘보(洑)+매기/막이’로 분석된다. ‘보를 막은 곳’을 의미한다.



보매기

● 봉화터

[형태] 유적

[위치] 중리 진병산에 봉화터가 있었다.

[어원풀이] ‘봉화(烽火)+터[垈]’로 분석된다.

● 벼락재

[형태] 고개

[위치] 벼락골에 있는 고개로, 상세이산을 넘어가는 고개이다.

[어원풀이] ‘벼락골’ 참조

● 보매기

[별칭] 대평보, 보메기

[형태] 보(洑)

[위치] 대평마을에 있는 보이다.

[유래] 『신동면지리지』에 “강폭이 넓어 폐 많은 물을 가두어 둘 수 있다. 예전에는 한 길이 넘게 깊어 바위 위에서 뛰어내리며 수영을 즐기던 곳이었다. 지금은 길을 내면서 바위를 깨고 해서 사라졌다.”라 하였다.

● 북두고개

[별칭] 백토고개

[형태] 고개

[위치] 중1리에서 중2리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유래] 『신동면지리지』에 ‘백두(백토)고개 밑이다. 마을 북쪽에 있다.’라 하였다.

[어원풀이] ‘북(北)+두/백토(白土)+고개[峴]’로 분석 할 수 있다. 마을 북쪽에 있는 ‘북두고개’는 ‘북(北) 백두고개’에서 ‘백’이 생략되었다.

● 불당골

[형태] 골짜기

[위치] 중리 북쪽 ‘순환대로’ 아래 ‘책과인쇄박물관’에서 동편에 있다. ‘불당골’ 남쪽 가까이에 ‘은골’이 있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불당이 있는 골짜기라 하

였다.

[어원풀이] ‘불당(佛堂)+골[谷]’로 분석된다.

● 붉은뱅이

[형태] 산

[위치] 미상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흙이 붉은 산이라 하였다.

[어원풀이] ‘붉은[赤]+뱅이’로 분석할 수 있다. ‘뱅이’는 ‘뱅이’의 이형태로, ‘뱅이’는 ‘예방하다’, ‘없애다’, ‘해결하다’ 등의 뜻을 지닌 주술적 의미를 지닌 지명이다. ‘붉은뱅이’는 ‘디딜방아뱅이’에서 ‘월경혈이 묻은 속곳을 걸어야 효험이 있다’는 주술과 상통한다.

● 산골집

[별칭] 산골터, 산골집터

[형태] 마을

[위치] 증리행정복지센터 뒤쪽 실개천을 따라 금병산 쪽으로 500m정도 올라가면 나온다. 그 너머에 ‘학바위’가 있다.

[어원풀이] ‘산골+집[家]’으로 분석된다. ‘산골’은 이황화 철, 산화 철을 주성분으로 하는 황화 철강. 구리가 나는 곳에서 나는 푸른빛을 띤 누런색의 쇠붙이로, 집골 약으로 쓴다.

● 삼포(參圃)

[별칭] 삼포(三浦), 삼포말, 삼포마을, 물골, 증4리마을

[형태] 마을

[위치] 증4리마을회관 남쪽 앞에서 원창리 쪽에서 내려오는 ‘팔미천’과 협동리 ‘덕만이고개’에서 내려오는 소하천이 합류하는 곳이다. 두 하천이 합수하는 물놀이 장소는 신동면 증리에 속하고, 식당 등이 있는 유원지는 협동리에 속한다.

[유래] 『조선지지자료』에 증리 소재 마을이름으로 ‘三浦里(삼포말)’이 기재되어 있다. 『춘천의 지명유래』에 “옛날에 삼포(參圃)가 있었다. 김유정의 소설 ‘소낙비’에 삼포가 나온다.”라 하였다.

[어원풀이] ‘삼(參)+포(圃)’로 분석된다. 금병산 남쪽 골짜기 물과 신동면 협동리 북쪽 골짜기 물이 이 곳에서 합류하여 신동면 팔미리로 흐르므로 ‘삼포(三浦)’라고 부르기도 한다.

● 삼포교

[형태] 다리

[위치] 증4리마을회관에서 ‘삼포천’이 서북쪽으로 흐르다가 ‘김유정로’를 만나며 놓인 큰 다리이다. 좀더 북진하면 ‘삼포1교’가 나온다. 인근에 왕복4차선 ‘한치로’와 ‘스마일재가노인복지센터’가 있다.

● 상새골

[형태] 골짜기

[위치] ‘삼포(유원지)’ 서쪽 ‘김유정로’ 너머, ‘스마일재가노인복지센터’가 있는 마을 남쪽 골짜기는 ‘벼락골’이며, 그 바로 서쪽에 ‘상새골’이 있다. 신동면 증리 산210번지 일대이다.

[어원풀이] ‘상(上)+증(甑)/재이)/새이)/새+골[谷]’로 분석할 수 있다.

● 상세이산

[형태] 산

[위치] 상새골에 있는 산

[유래] 『신동면지리지』에 “대평마을에서 가장 높이 보이는 산이다. 작은논골, 큰논골, 논골, 벼락재에는 바우가 있고 번데기골 등이 있다. 옛날 상세이에서는 화전을 많이 했다.”라 하였다.

● 상재이

[별칭] 상증(上甑), 상징이

[형태] 마을

[위치] 『춘천의 지명유래』에 “실례 위쪽에 있는 마을”이라 하였고, 『신동면지리지』에 “상증(上甑)이라 고도 한다. 한글에 있는 상재이다.”라 하였다.

[어원풀이] ‘상(上)+재이/쟁/증(甑)+이(파생접미사)’로 분석할 수 있다.

● 상징잇개울

[형태] 하천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상징이에 있는 내[川]”라 하였다.

[어원풀이] ‘상(上)+재이/쟁/증(甑)+이(접미사)++개울[川]’로 분석할 수 있다.

● 새고개

[별칭] 샛고개, 쇠고개, 신치(新峙)

[형태] 고개

[위치] 중4리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동산면과 삼포 사이에 있는 마을이면서 금병산 중턱으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이 고개를 넘어가면 김유정역, 금병 초등학교가 나온다.

[유래] 『조선지지자료』에 증리 소재 고개이름으로 ‘新峙(신고기)’가 기재되어 있다. 『한국지명총람』에 신촌리(新村里)로 가는 고개라 하였고, 『신동면지리지』에 “새고개의 이름은 솜틀을 돌려 트는 것처럼 길이 꼬불꼬불 올라오는 모습처럼 보인다고 해서 처음에는 쇠고개라 불렀으나 나중에는 새고개로 바뀌었다. 또 중1리와 증4리의 사이에 있다고 해서 사잇고개가 새고개로 되었다고도 한다. 또 예전에 증4리에 금광이 있어 새로 닦은 고개라 하여 새고개라 했다고도 한다.”라 하였다.

[어원풀이] ‘새[新]+고개[峴]’로 분석된다.

● 새고개마을

[별칭] 신촌(新村), 샛골

[형태] 마을

[위치] 동산면과 삼포 사이에 있는 마을이다.

[유래] 일제강점기 지도에 ‘신촌(新村)’이라 표기하였다. 『춘천의 지명유래』에 신촌리로 가는 고개가 있는 마을이라 하였고, 『신동면지리지』에 “원래는 샛골이라 불렀다고 한다. … 새고개는 금병산의 일부인데, 마을 이름도 새고개이다.”라 하였다.



새고개마을 표석

● 서낭고개

[별칭] 성황현(城隍峴)

[형태] 고개

[위치] 정족2리와 ‘경춘선’, ‘김유정로’ 사이에 있다. 현재 행정구역은 신동면 증리이다.

[유래] 『조선지지자료』에 지풀리 소재 고개이름으로 ‘城隍峴(성황고기)’가 기재되어 있다. 신동면 증리가 소재지인 ‘서낭고개’는 증리 사람들과는 무관하고, 신동면 정족리 사람들이 4차선 ‘김유정로’로 나가는 2차선 도로이다.

[어원풀이] ‘성황당(城隍堂)/서낭堂+고개[峴]’로 분석된다.

● 송화골

[별칭] 송아골, 아리골, 수아리골, 수와리골, 소하리
골, 송하곡(松下谷), 송화곡(松花谷)

[형태] 골짜기

[유래] 『조선지지자료』에 중리 소재 골짜기 이름으로 ‘松下谷(소하리골)’이 기재되어 있다. 『신동면지리지』에 “저수지가 있고 그 뒤쪽으로 밭이 있었다.”라 하였다.

[어원풀이] ‘송(松)+화(花)+골[谷]’로 분석된다. 그러나 그 별칭인 ‘수아리골’은 ‘수[金, 蕃]+아리/안[內]+리(里)+골[谷]’에서 변이(變異)된 지명으로 분석되며, 그 의미는 ‘숲 안, 골짜기에 있는 마을’이다. 즉 ‘수아리골/아리골’이 고유 지명이고, 송하곡(松下谷), 송화곡(松花谷)은 차음(借音)한 한자 표기에서 기인한 것이다.

● 수와리소류지

[별칭] 수하리저수지, 금병산저수지

[형태] 저수지

[위치] 김유정역 인근 산기슭에 자리한 저수지이다. 신동면 중리 554번지 일대이다.

[어원풀이] ‘수[金, 蕃]+아리/안[內]+리(里)+소류지(沼溜地)’로 분석된다.

● 수하릿골

[별칭] 송하곡(松下谷), 송화곡(松花谷), 소아리골

[형태] 골짜기

[유래] 『춘천의 지명유래』에 “소나무가 많아 소나무꽃가루가 떨어져 쌓인다 한다. 수하리골을 흐르는 냇물은 수하리골개울”이라 하였다.

[어원풀이] ‘수[金, 蕃]+하리/아리/안[內]+리(里)+ㅅ+골[谷]’로 분석된다.

● 시루고개

[별칭] 시롯고개, 실우고기(甑峴)

[형태] 고개

[유래] 『조선지지자료』에 중리 소재 고개이름으로 ‘甑峴(실우고기)’이 기재되어 있고, 『한국지명총람』에 “예전에 시루점이 있었다는 고개”라 하였다.

[어원풀이] ‘시루[甑]+고개[峴]’로 분석된다.

● 신남역(新南驛)

[형태] 교통

[유래] 2010년 12월 21일 수도권 전철 경춘선이 개통되면서 폐역사(廢驛舍)가 되었다. 구 신남역사는 역사 유산으로 남겨 김유정문학촌을 찾는 탐방객에게 옛 추억을 제공하고 있다.

● 신방골

[형태] 골짜기

[위치] 중4리마을회관에서 ‘삼포길’로 북동쪽 1km쯤에서 북쪽 소로인 ‘삼포길’로 들어가 끝나는 곳에 ‘어치개골’이 있고, 좀더 동진하면 ‘신방골’이 나온다. ‘신방골’ 2시 방향 가까이에 ‘홈바위골’이 있다. 신동면 중리 1041-1번지 일대이다.

[어원풀이] ‘신/심(深)+방(方)+골[谷]’로 분석할 수 있다.

● 실례

[별칭] 실내, 실레마을, 중리(甑里)

[형태] 마을

[위치] 중리의 본마을

[유래] 『신동면지리지』에 “지금의 중1리를 가리키는 이름이다. 마을 모양이 시루 같다고 한다. 금병산으로 둘러쳐져 있으며, 마을로 가는 길이 사방으로 나있다.”라 하였다.

[어원풀이] ‘실례/실내/시래/시루[甑]’로 분석된다. ‘시루[甑]’와 연관하여 행정지명 중리(甑里)의 바탕이 되었다.

● 아랫말

[별칭] 하리(下里)

[형태] 마을

[위치] 『한국지명총람』에 실례 아래쪽에 있는 마을이라 하였다.

[어원풀이] ‘아래[下]+ㅅ+말/마을[村, 里]’로 분석된다.

● 양지말

[형태] 마을

[위치] 김유정문학촌이 있는 김유정 생가터 일대

[어원풀이] ‘양지(陽地)+말/마을[村, 里]’로 분석된다. 양지바른 마을이란 의미이고, 중1리에 있는 ‘뒷골’은 음지가 진 마을이 된다.

● 여우고개

[형태] 고개

[위치] 김유정역(구 신남역)에서 팔미리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유래] 『신동면지리지』에 “저녁마다 고개 잔등에 여우가 운다고 했다.”라 하였다.

[어원풀이] ‘여우[狐]+고개[峴]’로 분석된다.

● 역전(驛前)

[별칭] 역전마을

[형태] 마을

[위치] 김유정역 앞에 있는 마을이다.

[어원풀이] ‘역(驛)+전(前)’으로 분석된다.

● 영광교

[형태] 다리

[위치] 중4리마을회관에서 삼포길을 따라 김유정로로 나가는 길 사이로 흐르는 삼포천 위에 놓인 다리이다.

● 예지랑소

[형태] 소(沼)

[위치] ‘삼포’ 안쪽 ‘새고개’ 입구에서 금병산 새고개를 잠시 오르면 나온다. 근처에 ‘떨어진소’도 있다.

[어원풀이] ‘예지랑+소(沼)’로 분석된다. ‘예지랑날’은 경상 방언으로 ‘늦은 오후’를 뜻한다.

● 오소리고개

[별칭] 오리소고기, 오소현(鳧沼峴)

[형태] 고개

[위치] ‘오소리골’에 있으며, 중2리마을회관 서쪽 왕복4차선 ‘한치료’ 너머 가까이에 ‘구린난골’이 있고, 위쪽엔 ‘방아다리’가 있다.

[유래] 『조선지지자료』에 중리 소재 고개이름으로 ‘鳧沼峴(오리소고기)’가 기재되어 있다..

[어원풀이] ‘오소리[瑞]+고개[峴]’로 분석된다. ‘오소리골’이 옆에 있다. 『조선지지자료』의 ‘鳧沼峴(오리소고기)’는 ‘오소리’를 ‘오리소’ 즉, ‘오리[鳧]+소(沼)’로 잘못 해석한 것이다.

● 오소리골

[형태] 골짜기

[위치] 중2리마을회관 서쪽 왕복4차선 ‘한치료’ 너머 가까이에 ‘구린난골’이 있고, 위쪽엔 ‘방아다리’가 있다. 신동면 중리 산206번지 일대이다.

[유래] 『신동면지리지』에 “중2리에 있다. 방아다리 옆에 있는 산이다. 예전에 이 산에 오소리가 많았

다.”라 하였다.

[어원풀이] ‘오소리[瑞]+골[谷]’로 분석된다.

● 온수들

[별칭] 온수들(溫水坪), 은수들, 원수들, 원수뜰

[형태] 들

[위치] ‘천주교주교관’이 있는 곳으로 레일바이크를 타는 곳 앞에 있으며, 경춘선이 가까이에 있다. 신동면 증리 1043-118번지 일대이다.

[유래] 『조선지지자료』에 증리 소재 들판 이름으로 ‘溫水坪(온수들)’이 기재되어 있다. 『춘천의 지명유래』에 “따뜻한 물이 나온다. 온수(溫水)가 솟아 마을 아낙네들의 빨래터가 되기도 한다.”라 하였다.

[어원풀이] ‘온수(溫水)+들[坪]’로 분석된다.

● 윗새미

[별칭] 윗새미

[형태] 샘

[위치] ‘은골약수터’ 북쪽 가까이에 있다. 행정구역으로는 정족리와 접경을 이룬다.

[어원풀이] ‘위[上]+ㅅ+샘[泉, 藥水]+이(파생접미사)’로 분석된다.

● 은골

[별칭] 으능골, 응골

[형태] 골짜기

[위치] 증리 북쪽 ‘순환대로’ 아래 ‘책과인쇄박물관’에서 ‘증리예술인마을’로 꺾어 올라가는 ‘풍류1길’ 동편 골짜기이다. ‘은골’ 북쪽 가까이에 ‘불당골’이 있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실례에 있는 골짜기라 하였고, 『신동면지리지』에 은을 독에 넣어 묻어두었다는 전설이 전해진다 하였다.

[어원풀이] ‘은(銀)+골[谷]’로 분석된다.

● 은골약수터

[형태] 샘

[위치] 『한국지명총람』에 은골에 있는 약수터라 하였다.

[어원풀이] ‘은골’ 참조.

● 작은요리골

[형태] 골짜기

[위치] 증2리 한들 앞에 있는 골짜기이다. ‘큰요리골’과 ‘작은요리골’이 있으며, 위쪽에 ‘구린난골’이 있고, 아래쪽엔 ‘굴산양지’가 있다.

[유래] 『신동면지리지』에 “6·25 때 동네 사람들은 작은요리골에 구덩이를 파서 집을 짓고 숨어 피난을 했다. 지금 그곳에 가면 흔적이 남아 있다.”라 하였다.

[어원풀이] ‘작은[小]+요리(?)+골[谷]’로 분석할 수 있다. ‘요리’의 의미는 불분명하다.

● 잔팽이

[별칭] 잔팽이, 챔페이, 챔페이, 장평(長坪)

[형태] 마을

[위치] 증리 북단, 군부대 부근에는 ‘신트랑’과 ‘잔팽이’가 가까이 있고, 그 위쪽엔 ‘도장골’이 있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실례 부근에 있는 마을이라 하였다.

[어원풀이] ‘잔/장(長)+평(坪)+이(파생접미사)’로 분석된다. ‘잔팽이’는 i모음역행동화(Umlaut)현상이며, ‘장-’과 ‘잔-’의 교체는 지명에서 자주 나타나는 비음간(鼻音間) 변이형이다.

● 장수골

[형태] 골짜기

[위치] 금병산 남쪽 산자락

[유래] 아기장수 설화가 전한다.

[어원풀이] ‘장수골’은 장수(아기將帥)+골(谷, 村)‘으로 분석할 수 있다.

[유래담] <아기장수 설화> : 금병산 뒤에 장수골이라는 조그만 마을이 있었다. 어떤 부부가 마음씨는 착했지만 자식이 없어 슬픈 나날을 보냈다. 어느 날 부인이 꿈에 청룡 한 마리가 천정으로 빠져나가려 했지만 밑에 있는 화로불 때문에 빠져나가지 못하는 꿈을 꾸었다. 그런 꿈을 꾼 다음 태기가 있어 아기를 낳았다. 그 아기는 자라면서 힘이 센 장수가 되었다. 마을에서는 아기장수가 태어났다고 소문이 퍼졌다. 마을 사람들은 장수가 나면 역적이 된다고 아기장수를 체포하려 했다. 그때 마을에는 땀마다 이상한 불이 일어났다. 소문은 아기장수의 짓이라고 퍼져 나갔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힘이 센 아기장수를 잡을 수가 없었다. 마을 사람들은 꾀를 내었다. 아기장수가 잠잘 때 겨드랑이에 있는 비늘을 떼어내면 힘을 쓰지 못할 터이니 잠자는 틈을 엿보다가 그 비늘을 자르기로 했다. 봄날 금병산 뒤편에서 아기장수는 잠이 들었다. 그때 마을 사람들이 달려들어 급히 비늘을 잘라버렸다. 아기장수는 힘이 없어져서 보통 아이처럼 되었다. 아기장수는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다. 아기장수는 힘 한번 나라를 위해 써보지도 못하고 죽어버렸다.

였다.

[어원풀이] ‘절[寺]+터[垈]’로 분석된다.

● 증리고분군(甑里古墳群)

[형태] 고적

[위치] 중2리 신남초등학교 뒤쪽, 삼거리 모퉁이 돌자마자 동편에 있는 금병산 산자락에 위치한다. 예전에 고려장(高麗葬)을 하던 곳이기도 하다.

[유래] 강원도 지정문화재 기념물 제45호이다. 금병산 자락의 능선을 따라 분포해 있는 이 무덤떼 [古墳群]는 1980년 마을에서 산자락에 무덤을 만들다가 1기를 발견하였다. 그 후 거듭된 지표조사에서는 이 일대에 수많은 무덤이 자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부는 이미 도굴되었으나, 온전하게 보존되어 있는 것도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통일신라 시대 춘천지방에서 만들어진 지방 무덤의 한 형식으로 보인다. 무덤 위에 올렸던 봉토는 대부분 없어지고, 당시 무덤에 사용되었던 석재들이 일부 땅 위에 드러나 있다.



증리고분군

● 절터

[별칭] 절터골

[형태] 골짜기

[위치] 중2리 대평마을에 있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전에 절이 있던 터라 하

● 진고개

[별칭] 이현(泥峴)

[형태] 고개

[위치] 『조선지지자료』에 증리 소재 고개 이름으로

‘泥峴(진고기)’이 기재되어 있다.

[어원풀이] ‘진[泥]+고개[峴]’로 분석된다.

● 진병산 산신각

[별칭] 금병산 산신각

[형태] 건물

[위치] 금병산 자락, 실레이야기길 도중에 있다.



진병산 산신각



진병산 산신각 안내문

● 진병산전적비

[별칭] 금병산 전적비

[형태] 비석

[위치] 금병산

[유래] 진병산(陳兵山)은 임진왜란 때 강원도 조방장(助防將) 원호(元豪) 장군이 진을 친 산이라 해서 진병산이라 했다고 전한다. 또 구한말 의병들이 이

진병산에 진을 치고 왜적과 싸움을 했다고도 전한다. 1979년 12월 춘성군에서 이것을 기념하여 비석을 세우고 ‘진병산전적비’로 이름했다.



진병산전적비

● 책과인쇄박물관

[형태] 건물

[위치] 김유정문학촌에서 북동 쪽 순환도로 아래에 있다. 신동면 풍류1길 156, 신동면 증리 616번지이다.

[유래] 1층 전문 사립박물관으로 우리나라의 우수한 인쇄문화와 세계적으로 앞섰던 선현들의 독서문화를 알리고자 수집한 자료를 전시하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책과 인쇄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립하였다.

● 큰골

[형태] 골짜기

[위치] ‘김유정문학촌’ 북쪽 ‘순환대로’에서 칠전동 ‘사실기고개(경춘로)’로 넘어가는 고갯길이다. 지금 ‘큰골’은 2차선 ‘경춘로’로 개통되었다.

[어원풀이] ‘큰[大]+골[谷]’로 분석된다.

● 뒷벼덩

[별칭] 뒷벼덩

[형태] 들

[위치] '김유정문학촌'에서 '실레이야기길'을 따라 시계 방향으로 가다보면 '봄내1코스' 안에 있다.

[어원풀이] '퇴/뒤[後]+ㅅ+벼덩'으로 분석된다. '벼덩'은 높고 평평하며 나무는 없이 풀만 우거진 거친 들이다.

다. 신동면 중리 1182-1번지 일대이다.

[유래] 『조선지지자료』에 중리 소재 들판이름으로 '大坪里(한들)'가 기재되어 있다.

[어원풀이] '한[大]+들[坪]'로 분석된다. '하다[大, 多]'를 어원으로 하는 알타이조어 "*han/ha/kan/ka'는 '大, 高, 多'를 기본의미로 가진다. '한들'은 동네 인근에서 가장 '큰 들'이다.

● 풀못골

[형태] 골짜기

[위치] 삼포 앞산 골짜기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대장간이 있던 골짜기라 하였다.

[어원풀이] '풀무(바람 내는 기구)+ㅅ+골[谷]'로 분석된다. '불을 피울 때 바람을 일으키는 기구'를 '풀무'라 한다. '불무'는 '풀무'의 방언이다. 특히 지명에 쓰일 때는 '대장간'을 특정한다. '대장간'과 결부되는 '풀무골'은 전국에 산재한다. 쇠가 나온다는 '쇠골, 금대골, 쇠골산' 등과 연관되곤 한다.



한들과 한들표석

● 한두루개울

[별칭] 한들개

[형태] 하천

[위치] 중2리 경춘선 고가철로 아래로 '한두루개울'이 흐른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한두루에 있는 개울이라 하였다.

[어원풀이] '한[大]+두루/들[坪]+개울[川]'로 분석된다.

● 한들모퉁이

[별칭] 한들모텡이

[형태] 마을

[위치] 『신동면지리지』에 "중1리에서 중2리로 돌아오는 모퉁이다. 대평마을 동쪽에 있는 마을이다. 중리 고분군이 있는 곳이다."라 하였다.

[어원풀이] '한[大]+들[坪]+모텡이/모퉁이'로 분석된다. '모퉁이'는 구부러지거나 꺾여져 돌아간 자리를 뜻한다.

● 한들

[별칭] 한두루, 대평(大坪)

[형태] 들

[위치] 중2리 앞에 있는 큰 들이며, 중2리 마을명이

● 홀바위골

[별칭] 혼비우골

[형태] 골짜기

[위치] 중4리마을회관에서 '삼포길'로 북동쪽 1km쯤에서 북쪽 소로인 '삼포길'로 들어가 끝나는 곳에 '어치개골'이 있고, 좀더 동진하면 '신방골'이 나

온다. ‘신방골’ 2시 방향 가까이에 ‘홈바위골’이 있다. 금병산 남서쪽 1km쯤 되는 산속으로, 신동면 증리 10번지 일대이다.

[유래] 『신동면지리지』에 “새고개에서 좀 더 들어 가면 나오는 골짜기이다. 예전엔 이곳에 화전민이 예닐곱 세대가 살았다. 지금은 헬기장으로 쓰이며 금병산 등산로로 이용되고 있다.”라 하였다.

[어원풀이] ‘홈(물체의 오목하게 팬 자리)+바우[岩]+골[谷]’로 분석할 수 있다. ‘홈-’과 ‘훈-’의 교체는 지명에서 자주 나타나는 비음간(鼻音間) 변이형이다.

● 확바우

[별칭] 학바우, 악바우

[형태] 바위

[위치] ‘상재이’ 동쪽, ‘산골집’ 동쪽 금병산 서쪽 골짜기 사이에 있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확처럼 생긴 바위라 하였다. 김유정 소설에서는 ‘악바우’로 나온다.

[어원풀이] ‘확(돌확)+바우/바위[岩]’으로 분석된다. ‘확’은 방앗공이로 찡을 수 있게 돌절구 모양으로 우뚝하게 판 돌(돌확)로서, 방앗공이가 떨어지는 곳에 묻어 그 속에 곡식을 넣고 찡거나 뺏는다.

팔미리(八味里)

위치와 현황 | 남쪽으로 모란봉이 있고, 북쪽으로 의암호가 있다. 마을 앞으로 삼포천이 흐르는 농촌마을이다. 자연마을에는 모오리(毛五里), 작은설미, 큰설미 등이 있다. 작은설미는 소선동(小仙洞)이라고도 부른다. 큰설미는 설미의 큰 마을로 대선동(大仙洞)이라고도 부른다. 모란봉은 벼락재라고도 부른다.

연혁 | 『춘주지』를 보면 남내(南內)에 발미(跋尾)가 보인다. 『여지도서』는 남내면(南內面)에 팔미리(八味里)를 표기하였다. 『호구총수』는 남내이작면(南內二作面)에 팔미리(八味里)를 표기하였다. 『춘천읍지』, 『춘천부지』, 『관동읍지』는 남내면(南內面)에 팔미리(八味里)를 포함시켰다. 『조선지지자료』는 남내이작면(南內二作面)에 팔미리(八味里)를, 『강원도지지조서』와 『강원도지』는 신남면(新南面)에 팔미리(八味里)를, 『수춘지』는 신동면(新東面)에 팔미리(八味里)를 포함시켰다. 『춘주지』는 신동면(新東面)에 팔미1리, 팔미2리를 포함시켰고, 『춘천백년사』는 신동면(新東面)에 팔미1리, 팔미2리, 팔미3리를 포함시켰다. 현재 행정리는 팔미리고 법정리는 팔미1리, 팔미2리, 팔미3리이다.

유래 | 본래 춘천군 남내이작면의 지역으로서 발미(跋尾)라 하였는데, 행정명으로 팔미리(八味里)가 되었다.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각길, 큰설미, 작은설미, 모오리를 병합하여 신동면에 편입하였다.

● 각시바우

[형태] 바위

[위치] 팔미1리 범덕골 북쪽 ‘언덕골’에 있었다.

[유래] 맷방석만한 바위에 구멍이 있는데, 막대기를 끼워 들썩거려지면 동네 처녀가 바람이 난다고 한다.

[어원풀이] ‘각시(처녀)+바우/바위[岩]’로 분석할 수 있다.

으로 ‘狗垈谷(기터골)’이 기재되어 있다.

[어원풀이] ‘개[狗]+터[垈]+골[谷]’로 분석된다. 일 반적으로 ‘개터골’은 ‘개[狗]+터[垈]+골[谷]’로 분석하는 경우가 많다. 별칭 ‘영갯버덩’은 ‘영개[여우의 방언]+ㅅ+버덩’으로 분석할 수 있다. ‘영갯버덩’이 ‘개터골’의 별칭이므로, ‘여우’의 방언 ‘영개[狐]’와 ‘개터골’의 ‘개[狗]’는 지명에서 상통한다.

● 갓길

[별칭] 각길(却吉), 각길리, 깨끼리, 깨끼리, 깨기리, 깨길, 깨낄

[형태] 마을

[위치] 큰설미에서 깨끼리고개(설미고개)를 지나는 곳이 깨끼리이고, 넘어가 북한강을 따라 내려가면 강촌이 나온다.

[유래] 『춘천지명유래』에 팔미리 서쪽 끝에 있는 마을이라 하였다.

[어원풀이] ‘갓길’, ‘각길(却吉)’은 ‘깨끼리, 깨끼리, 깨길, 깨낄’ 등을 음차(音借)한 한자 지명이다. 그 고유지명 ‘깨끼리, 깨끼리, 깨길, 깨낄’ 등은 ‘깻/깻/갓(깻깻거리-)+길[路]+ㅇ(파생접미사)’로 분석할 수 있다. 이 고갯길을 넘어가려면 숨이 벅차 ‘깻깻거린다/깍깍거린다’ 하여 ‘깨길(리)’라 했다고 전한다. 음성상장어(音聲象徵語)이기에 변이음도 다양하다. 숨찬 고개를 ‘깰딱고개’라 하고 ‘꺄그막’하다고 하는 경우와 그 켜를 같이 한다. 이 고개 제일봉이 ‘된산(현재 깃대봉)’이어서 이를 뒷받침한다.

● 깨길바우굴

[형태] 굴

[위치] 작은깨길에서 오른쪽에 있는 골짜기로 들어가면 있다. 팔미2리에 있다. 큰설미고개를 넘으면 깨끼리 마을이 나오고 깨끼리를 지나 북한강을 따라 내려가면 강촌이 나온다.

[유래] 『신동면지리지』에 “6·25 때 정찰기가 하늘을 날아다니면 마을 주변의 숲으로 피신했다. 그러다가 인민군들이 이 마을에 몰려오게 되자 국군이 후퇴하면서 이곳에 인민군이 많이 있다고 하여 폭격을 하였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이 바우굴로 피신을 했다.”라 하였다.

[어원풀이] ‘깨끼(깻깻거리-)+길[路]+바우/바위[岩]+굴(窟)’로 분석된다.

● 깨길약수터

[형태] 샘



깨길약수터

● 개터골

[별칭] 영갯버덩

[형태] 골짜기

[위치] 미상이다.

[유래] 『조선지지자료』에 팔미리 소재 골짜기 이름

[위치] 강촌 쪽으로 설미고개 정상 뭇마처 오른쪽에 있다. 큰설미에서 약수터로 오르는 길은 굽이가 많고 험하다.

● 대선동

[별칭] 큰설미

[형태] 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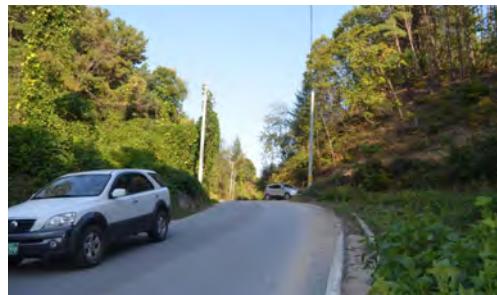
[위치] 팔미2리마을회관이 있는 곳이 ‘설미(마을)’이며 ‘큰설미(대선동)’이다. 큰설미고개를 넘어가면 ‘깨낄(마을)’이다.

[유래] 『조선지지자료』에 팔미리 소재 마을이름으로 ‘大仙舞洞(큰설밀)’이 기재되어 있다. 『춘천의지명유래』에 “설미의 큰 마을. 대선동(大仙洞)이라고도 부른다.”라 하였다.

[어원풀이] ‘대(大)+선(仙)+동(洞)’으로 분석된다.

다고 한다.”라 하였다.

[어원풀이] ‘돌-[廻]+고개[峴]’로 분석된다.



돌고개

● 돌골

[형태] 골짜기

[위치] 큰설밀에 있다. 큰설밀의 안쪽으로 들어가면 우측에 있는 골짜기이다. 아랫돛골과 웃돛골이 있다.

[어원풀이] ‘돛/돛[豚]+골[谷]’로 분석된다.

● 도장골

[형태] 골짜기

[위치] 미상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도장나무가 많던 골짜기라 하였다.

[어원풀이] ‘도장(도장나무=회양목)+골[谷]’로 분석된다. 목질이 단단한 ‘회양목’으로 직인을 찍는 도장을 만들었기에 회양목을 ‘도장나무’라고도 한다. 지명에서 ‘도장’은 ‘안방’의 고어로서 사방이 산이나 둑덕으로 둘러싸여 안방처럼 아늑하기 때문에 붙여진 지명이다.

● 동동산

[형태] 산

[위치] 안산 오른쪽에 있는 산이다.

[유래] 높지 않고 아담하고 동그랗게 생긴, 동동 떠 있는 듯한 산이다.

[어원풀이] ‘동동(동동 뜨다)+산(山)’으로 분석된다.

● 동아잣구령

[형태] 골짜기

[위치] 『한국지명총람』에 진새미구령 옆에 있는 골짜기라 하였다.

[어원풀이] ‘동아(박과 식물)+잣[柏]+구령(움푹 파인 땅, 골짜기)’으로 분석할 수 있다. ‘동아 속 썩는 것은 밭 임자도 모른다’에서 ‘동아’는 박과의 한해살이 덩굴성 식물이다.

● 돌고개

[형태] 고개

[위치] 작은설밀에서 큰설밀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유래] 『신동면지리지』에 “구불구불 돌아간다고 해서 돌고개라 불렸다. 예전에 이곳에 서낭당이 있었

● 되령골

[형태] 마을

[위치] 미상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도룡농이 많았다는 마을이라 하였다.

[어원풀이] ‘되령[도룡농]+골[谷]’로 분석된다.

[유래] 『신동면지리지』에 “산의 전체 모양이 말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지금의 정미 소집이 2014년에 사서 산을 파고 그 자리에 새로 집을 지었다. 이 산이 없어지기 전에는 미을의 대표적인 여름 휴식처였다고 한다.”라 하였다.

[어원풀이] ‘마(馬)+산(山)’으로 분석된다.

● 된봉

[형태] 산

[위치] 작은깨길에서 마주 보이는 산을 가리키는 이름이다. 이 산을 넘어가면 혈동리가 나온다.

[유래] 경사가 심하여 힘이 든다고 해서 된봉이라 부른다.

[어원풀이] ‘되-(일이 힘에 벅차다)+((으)ㄴ(관형사형어 미))+봉(峰)’으로 분석된다.

● 말골

[별칭] 막골(末谷)

[형태] 마을

[위치] 깨끼리로 가기 전, 의암리로 가는 막다른 골짜기 마을이다.

[어원풀이] ‘말(末)+골[谷, 村]’로 분석된다.

● 뒷골

[형태] 골짜기

[위치] 작은설밀에 있다. 안말 맞은 편에 있는 골짜기이다.

[어원풀이] ‘뒤[後]+ㅅ+골[谷]’로 분석된다.

● 망아지구령

[형태] 골짜기

[위치] 미상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말 죽은 것을 묻은 골짜기라 하였다.

[어원풀이] ‘망아지[馬]+구령(옴폭 파인 땅, 골짜기)’으로 분석된다.

● 뚝골

[형태] 골짜기

[위치] 미상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팔미리에 있는 골짜기라 하였다.

[어원풀이] ‘뚝/뚝(높은 길을 내려고 쌓은 언덕)+골[谷]’로 분석된다.

● 매배이

[형태] 골짜기

[위치] 예전 경춘선 의암터널(안경굴/수리봉굴)이 있던 매봉산(수리봉) 오른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어원풀이] ‘매[鷹]+봉(峰)/봉이/배이’로 분석할 수 있다.

● 매봉산

[별칭] 수리봉

[형태] 산

[위치] 예전 경춘선 의암터널(안경굴/수리봉굴)이 있

● 마산(馬山)

[형태] 산

[위치] 모오리의 한복판 앞에 있던 산이었다.

던 산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매처럼 생겼다는 산이라 하였다.

[어원풀이] ‘매[鷹]+봉(峰)+산(山)’으로 분석된다.

● 모란봉

[별칭] 벼락재, 목단봉(牡丹峰), 느릅산

[형태] 산

[위치] 팔미리, ‘모오리’에서 ‘마산’을 지나, ‘벼락재’를 오르고, ‘산세이산’을 오른 뒤, 다시 오르면 ‘모란봉’ 정상을 밟는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신남(新南)에서는 벼락재, 빨미에서는 모란봉이라고 부른다.”라 하였다. 지역민의 증언으로는 예전 마을 사람들은 ‘느릅산’이라 불렀고, ‘모란봉’이라 하면 몰랐다고 한다. ‘느릅산’하고 ‘드름산’은 다르다고도 한다.

[어원풀이] ‘모란봉’의 별칭인 한자지명 ‘목단봉(牡丹峰)’에 따르면 ‘모란(牡丹)+봉(峰)’으로 분석할 수 있다. 그런데 모란봉은 그 남쪽 기슭에 ‘모오리’가 있어 {몰+안+봉}이 바른 형태로 분석으로 보인다. 즉 ‘몰+안+봉’의 ‘몰’은 ‘산(山)이나 산모텅이’를 함유하는 고어로서 ‘몰/모리/모오리’ 등으로 나타난다. 모란봉은 ‘모란(牡丹)봉’이 아니라 ‘모오리’ 위에 있는 산이다.

● 모리정미소

[형태] 건물

[위치] 팔미교차로 원편 위쪽에 있다. 그 서편 산 아래에 신동면팔미1회관이 있다. 예전에 ‘마산’이 있었던 자리이다.

[유래] ‘모리’라는 고어를 쓰는 오래된 정미소이다. ‘모리/모오리’는 그 어원이 ‘몰’이며 ‘산이나 산모텅이’ 등의 의미를 지녔다. 마모되어 벼린 ‘마산’이

아마도 ‘모리’의 본 모습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 ‘모리정미소’ 위 가장 높은 산인 ‘모란봉’에 ‘몰’의 잔영이 스며 있다.

● 모오리(毛五里)

[별칭] 모리, 모오리

[형태] 마을

[위치] 예전엔 마을 한가운데 앞에 마산이 있었으나 지금은 개발되어 ‘모리정미소’ 부근이 되었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빨미 동쪽에 있는 마을이라 하였다.

[어원풀이] ‘모오/몰[山, 모퉁이]+리(里)’로 분석된다. 모오리의 한자표기 ‘毛五里’는 음차표기이다. 팔미리(八味里)는 ‘모오리(팔미1리), 빨미(팔미3리), 설미(팔미2리)’가 있으며, 모두 고유지명을 지녔다. 이들 지명의 [어원풀이]에 참조가 된다. “사방에서 차가 몰려든다고 해서 모리라고 불렀다.”라는 유래담은 차가 희귀하던 시절(『조선지지자료』, 1911년) 이전에도 ‘모오리/모리’였으니 잘못된 유래로 보이며, 고유어 ‘몰/모리/모오리’가 잔흔(‘몰’안장터) 만을 남기고 있어 그 어의에서 멀어진 뒤, 알기 쉬운 해설을 취하며 회자(민간어원설)된 것이다.

● 모오리달맞이터

[형태] 산

[위치] 모오리마을(팔미1리) 오른쪽에 있는 작은 봉우리이다. 모란봉으로 올라가는 등산로에 해당하며, 마을과 가까워 오르기가 수월하다.

● 모오리뒷골

[형태] 골짜기

[위치] 모오리(마을)에서 모란봉 쪽에 있다.

[유래] 『신동면지리지』에 “골짜기가 비교적 깊고 물

이 흘러내리며 그늘이 쳐서 시원하다.”라 하였다.

● 바우모퉁이

[별칭] 바우모퉁이

[형태] 산

[위치] 미상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바위가 많은 산모퉁이라 하였다.

[어원풀이] ‘바우[岩]+모퉁이(산 모퉁이의 휘어들린 곳)’로 분석된다. 지명접미사 ‘모퉁이’는 그 변이형이 ‘모퉁이/모통이/모뎅이/모탱이/모팅이/모랭이/모링이/모롱/모루’처럼 다양하다.

● 바우배기

[형태] 바위

[유래] 『신동면지리지』에 “‘작은설밀’의 안마을 앞쪽 밭에 큰 바위가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밭 이름을 바우배기라 불렸으나 지금은 그 바위가 없다.”라 하였다.

[어원풀이] ‘바우[岩]+배기’로 분석된다. ‘-배기’는 ‘점박이, 불박이, 차돌박이’에 접미된 ‘무엇이 박혀 있는 것을 나타내는 뜻’을 가진 ‘-박이’의 방언형(-배기)이 지명으로 접미사화한 것이다.

● 박쥐박굴

[형태] 굴

[위치] 쇠시랑골 위 작은깨길에 있다.

[유래] 『신동면지리지』에 “작은깨길에 있는 굴이다. 쇠시랑골 위쪽에 있으며 굴이 깊어 박쥐가 살고 있다.”라 하였다.

[어원풀이] ‘박쥐[蝠]+박[田]+굴[窟]’로 분석할 수 있다.

● 발미(跋尾)

[별칭] 팔미(八味), 팔미리(八味里)

[형태] 마을

[위치] ‘발미’는 행정지명 ‘팔미리’의 바탕이 되며, 팔미3리이다. 팔미1리는 팔미천 너머 모란봉 아래 지역이고, 팔미2리는 강촌, 방하리 방향 방아산 안쪽에 있다.

[유래] 『조선지지자료』에 팔미리 소재 마을이름으로 ‘八味里(발미)’가 기재되어 있다.

[어원풀이] ‘발미(跋尾)’의 한자는 음차자이다. ‘발’(개울/발미개울, 발미천, 팔미천)이 ‘대룡산 서쪽(신동면 원창리) 산줄기 매봉(옹봉)에서 발원(發源→)’를 跋尾로 음차 표기)하는 데서 유래한다. 고유지명 ‘발미’의 어원에 대해서는 1. ‘발미’의 ‘미’는 지명 접미사로서, ‘뫼/메/매/미’ 등의 변이형을 가지며 기본의미는 산(山)이고, 지명에서 전의(轉義)하여 ‘마을’을 뜻하기도 한다. 드물게 지명접미사 ‘미’는 ‘물[水]’에 대응하는 고구려어로서 ‘수(水), 천(川), 천(泉), 정(井), 강(江), 해(海)’를 뜻할 때도 있다. 그리고 ‘발미’의 ‘발’은 지명에서 폭넓게 쓰이는데, 넓은 벌판, 큰 마을을 뜻하는 ‘볼/벌+발+미(坪村)’이나, ‘붉뫼/발뫼/발미(白山)’ 등과, ‘발산/바리미/바리산/발미(鉢山)’ 등이 있다. 2. ‘발미’는 금병산(錦屏山)의 모든 이름, ‘진병산(進屏山, 陳兵山), 전병산(展屏山), 정병산(正屏山)’ 등이 모두 ‘屏(병풍 병)’을 가지므로, 병풍의 옛말 ‘발(簾)- (簾山)’을 취하고, 마을(촌)을 뜻하는 ‘미’와 결합하여 ‘발미’가 되었다. 즉 이곳 ‘발미’는 병산(屏山), 염산(簾山)이다.

● 발미들

[별칭] 팔미들

[형태] 들

[위치] 팔미에서 가장 넓은 들로 팔미3리마을회관

북쪽에 있다. 신동면 팔미리 272번지 일대이다.

[어원풀이] ‘발미+들[坪]’로 분석된다.

● 방아산

[별칭] 풀무봉

[형태] 산

[위치] 남산면 방곡리 쪽으로 ‘풀무골’이 있다. 팔미리에서 강촌과 방곡리로 오가려면 산등성이 길로 넘어야 하는데 그 산이 방아산(426m)이다.

[유래] 『춘천의 지명유래』에 “풀무봉이라고도 한다.”라 하였다.

[어원풀이] ‘방아(꿀풀과의 여러해살이풀)+산(山)’으로 분석할 수 있다.

● 벌기골

[형태] 골짜기

[위치] 큰설밀 안쪽으로 들어가면 왼쪽에 보이는 골짜기이다.

[어원풀이] ‘벌기(벌레의 방언)+골[谷]’로 분석할 수 있다.

● 범덕골

[형태] 마을

[위치] 모리정미소 뒤쪽 마을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호랑이가 있는 골짜기라 하였다.

[어원풀이] ‘범[虎]+덕(언덕/둔덕)+골[谷]’로 분석된다. ‘덕’은 고구려어의 유산으로 ‘達=高=山=德’의 관계에 있으며, 현대국어에는 ‘언덕, 둔덕’의 지명으로 그 흔적을 남기고 있다. 그 의미는 ‘높다(高), 크다(大)’로 전의(轉義)되었다. 이 형태로는 ‘덕/덕이/더기’가 있다.

● 벼락재

[별칭] 『한국지명총람』에 모란봉의 다른 이름이라 하였다.

[형태] 고개

[위치] 팔미리, 중리 쪽에서 ‘모란봉’ 주위를 넘어갈 때 ‘벼락재’를 넘었다.

[어원풀이] ‘벼리[벼랑, 崖]+{−악/억}(파생접미사)+재 [峙]’로 분석할 수 있다.

● 병막골

[형태] 골짜기

[위치] 미상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병을 눕혀 놓은 것 같은 골짜기라 하였다.

[어원풀이] ‘병(瓶)+막[塞]+골[谷]’로 분석할 수 있다.

● 복바위

[형태] 바위

[위치] 모오리의 마을 한복판에 있는 바위이다.

[유래] 『신동면지리지』에 “이 바위를 복바위로 부른 이유는 마을에서 이 바위에 제물을 차리고 제사를 지내던 곳이기 때문이다. 주로 정월 대보름에 마을에 복이 많이 들어오라고 지냈다.”라 하였다.

[어원풀이] ‘복(福)+바위[岩]’로 분석된다. 크기는



복바위

앞 가로 2.5m, 세로 4m, 높이 2m 30cm이다.

[유래담] 복바위를 부수어 망해버린 부잣집 전설이 전한다.

● 부탕꼴

[별칭] 부탄꼴

[형태] 골짜기

[위치] 미상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불이 잘 나는 골짜기라 하였다.

[어원풀이] ‘부/불[火]+{타-[點火]}+{(으)-ㄴ}(관형형 어미)+골[谷]’로 분석된다. ‘불’에서 ‘근’이 틸락하고, ‘탄’의 말음(末音) ‘-ㄴ’이 이옹소리로 변이되어 ‘불탄골->부탄골/불탕골/부탕골’이 되었다.

● 사랑소

[형태] 소(沼)

[위치] 미상이다.

[유래] 『조선지지자료』에 팔미리 소재 소(沼) 이름으로 ‘스랑쇼(舍廊沼)’가 기재되어 있다.

[어원풀이] ‘사랑(舍廊)+소(沼)’로 분석할 수 있다.

● 사실기고개

[별칭] 사실현(沙實峴), 사실기

[형태] 고개

[위치] 온의동 시외버스터미널에서 팔미리 사거리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새 4차선 경춘로 개설로 많은 변개가 이루어져 그 옛 모습은 잘 알 수 없게 되었다.

[유래] 『조선지지자료』에 팔미리 소재 고개 이름으로 ‘沙實峴(스실기고개)’가 기재되어 있다. 『한국지명총람』에 팔미 부근에 있는 고개라 하였다.

[어원풀이] ‘사(沙)+실(室, 村)+기/기+고개[峴]’로 분

석할 수 있다. 고형 ‘스실기고개’의 ‘고’를 ‘-ㄱ’ 첨가와 치격조사 ‘의’의 결합형으로 보면, ‘사실기고개’는 ‘모래가 많은 마을에 있는 고개’란 의미이다.

● 새덕다리

[별칭] 사닥다리

[형태] 마을

[위치] 발미에서 마주 보이며 매봉산과도 마주하고 있다. 의암 가기 전 낚시터가 있는 마을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발미에 딸린 마을이라 하였다.

[어원풀이] ‘새[間]+덕(언덕, 둔덕+다리(사닥다리))’로 분석할 수 있다. ‘덕’은 고구려어의 유산으로 ‘達=高=山=德’의 관계에 있으며, 현대국어에는 ‘언덕, 둔덕’의 지명으로 그 흔적을 남기고 있다. 그 의미는 ‘높다(高), 크다(大)’로 전의(轉義)되었다. 이 형태로는 ‘덕/덕이/더기’가 있다.

● 서른바우

[별칭] 설온바우

[형태] 산

[위치] 팔미리에서 들어오는 혈동리 입구에 돌들이 겹겹이 쌓여 있는 산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서른 개의 층이 쳐 있다는 산이라 하였다.

[어원풀이] ‘서른[三十]+바우/바위[岩]’로 분석된다.

● 설미

[별칭] 선동(仙洞), 설밀

[형태] 마을

[위치] 도로지명 ‘설미길’이 산재한다. 팔미2리마을 쉼터를 지난다. 이곳은 동시에 ‘큰설미(대선동)’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깨끼리 동쪽에 있는 마을

이라 하였다.『신동면지리지』에 “설미는 ‘설뫼’에서 비롯한 말이다. 우리 고어에 ‘설’은 ‘솔’이라 하는 데, 이는 신성(神聖)을 뜻한다. 곧 생명을 중심으로 하는 신성(神聖), 숭고(崇高), 결백(潔白)을 나타낸 신(神)이 사는 성역(聖域)을 말한다. 이 때문에 ‘솔뫼’는 설악산의 뜻과 같이 ‘신이 기거하는 성스러운 지역의 산’이란 뜻이다. 여기서 ‘솔뫼’가 변해서 지금은 ‘설미’라 부르는 것이다.”라 하였다.

[어원풀이] ‘설<솔[神聖]+미/뫼[山]’로 분석할 수 있다. ‘설’의 의미는 두 가지로 추론이 가능하다. 첫 번째 ‘설/솔’이 신성(神聖)한 뜻을 가지기에 ‘설미’에 적용하면 ‘설[神聖]+미[山]’이다. 이곳에 서 낭당이 있었다. 이 마을에 언제부터인가 남정네만 죽어나가서 점점 마을이 사라졌다고 한다. 두 번째로 접두사로서 ‘설-’은 ‘미숙하다. 덜되다’는 뜻을 가진다. 이를 ‘설미’에 적용하면 ‘설-(접두사)+미[山]’로서, ‘작고 낮은 산의 형세’를 말한다.

● 설밀고개

[별칭] 설미고개

[형태] 고개

[위치] 깨길을 넘어가는 고개로, 지금 도로지명은 ‘막끌고개길’이다.

● 소골

[형태] 골짜기

[위치] 작은설밀에 있는 골짜기이다. 마을의 서남이 있던 맞은편에 있는 곳이다.

[유래] 『신동면지리지』에 “땅속에서 소울음이 들려 왔다는 이야기가 전해 온다. 혹은 땅소[地牛]가 울었다는 이야기도 있다.”라 하였다.

[어원풀이] ‘소[牛]+골[谷]’로 분석된다.

● 쇠시랑골

[형태] 골짜기

[위치] 팔미2리에 있다. 작은깨길에서 강촌의 풀무골로 넘어가는 골짜기이다.

[유래] 생긴 모양이 쇠스랑 같다 하여 이름이 붙여졌다.

[어원풀이] ‘쇠시랑(쇠스랑의 방언)+골[谷]’로 분석된다. 쇠스랑은 땅을 파헤쳐 고르거나 두엄, 풀 무덤 따위를 쳐내는 데 쓰는 갈퀴 모양의 농기구이다.

● 승짓골

[별칭] 승지골, 승릿골

[형태] 골짜기

[위치] 미상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전에는 승릿골이라 불렸다 한다.”라 하였다.

[어원풀이] ‘승지(응달의 방언형)+ㅅ+골[谷]’로 분석 할 수 있다.

● 아랫뚝골

[형태] 골짜기

[위치] 미상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뚝골 아래쪽에 있는 골짜기라 하였다.

[어원풀이] ‘아래[下]+ㅅ+뚝[뚝, 제방]+골[谷]’로 분석된다.

● 안말

[형태] 마을

[위치] 작은설밀에서 가운데로 들어가는 마을이다. 그 뒤쪽이 웃말이다.

[어원풀이] ‘안[内]+말/마을[村]’로 분석된다.

● 안산

[형태] 산

[위치] 작은 깨길에서 오른쪽에 있는 산이다.

[어원풀이] ‘안산(安山)’은 풍수지리에서, 집터나 뒷 자리의 맞은편에 있는 산을 말한다.

● 연포

[형태] 들

[위치] 미상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밸미 부근에 있는 들이라 하였다.

[어원풀이] ‘연(連)+포(浦)’로 분석할 수 있다.

● 언덕골

[별칭] 엉덕골

[형태] 골짜기

[위치] 팔미1리 범덕골 북쪽에 있는 모란봉 골짜기로 그 안에 ‘각시바위’가 있다.

[어원풀이] ‘언덕[둔덕]+골[谷]’로 분석할 수 있다.

● 오소리봉

[형태] 산

[위치] 미상이다.

[유래] 『춘천의 지명유래』에 옛날 홍수 때 오소리가 애을 만큼 봉우리가 남았었다는 산이라 하였다.

[어원풀이] ‘오소리[獾]+봉(峰)’으로 분석된다.

● 여웃골

[별칭] 엿골

[형태] 골짜기

[위치] 모란봉 남쪽 골짜기로, 그 안에 엿공장이 있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여우가 사는 골짜기라 하였다.

[어원풀이] ‘여우[狐]+ㅅ+골[谷]’로 분석된다.

● 웃뚝골

[별칭] 웃둣골

[형태] 골짜기

[위치] 『한국지명총람』에 뚝골 위쪽에 있는 골짜기라 하였다.

[어원풀이] ‘우[上]+ㅅ+뚝/뚝(제방)+골[谷]’로 분석된다.

● 역지골

[별칭] 역적고개[逆峙]

[형태] 골짜기

[위치] 큰설미 황골 옆에 있는 골짜기이다. ‘큰설미’가 있는 팔미2리(마음쉼터)에서 한참 남진하다가 방아산 봉우리가 정확히 서편 하늘가에 보이면 그 곳이 ‘역지골’이다.

[유래] 『조선지지자료』에 팔미리 소재 고개 이름으로 ‘逆峙(역적고기)’가 기재되어 있다. 『한국지명총람』에 큰설미에 있는 골짜기라 하였다.

[어원풀이] ‘역지/역적/역적(逆賊)+골[谷]’로 분석 할 수 있다.

● 이르네미

[별칭] 이리네미

[형태] 고개

[위치] 미상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이리가 넘어 다녔다는 고개라 하였다.

[어원풀이] ‘이르/이리[狼]+네미’로 분석할 수 있다. 지명접미사 ‘-네미’는 그 어원형이 ‘-나미’이다. 모음교체로 ‘-너미’를 가지며, 모음변이에 의한 ‘-내미/-네미’형이 있다. ‘-나미’는 ‘餘/餘伊’가 기본의미이며, ‘넘다[越]’로 전의된다.

● 작은깨낄

[형태] 마을

[위치] 큰설미에서 설미고개 방향으로 고갯마루 왼쪽에 있는 마을이다.

[어원풀이] ‘작은[小]+깨낄’로 분석된다. ‘깨낄’ 참조.

[위치] 작은설미 마을 왼쪽의 가운데 산 중턱에 있다.

[유래] 『신동면지리지』에 “전체 형태는 반달형이다. 바위의 전체 높이는 약 4m, 가로 15m, 굴 입구의 크기는 높이 1m 가량, 가로 2.5m가량이고 깊이는 약 4m 안쪽의 가로는 약 5m 정도 된다. 6·25 때 마을사람들이 이곳으로 피난을 왔다.”고 하였다.

● 작은설미

[별칭] 소선동(小仙洞), 작은설밀, 소선무동(小仙舞洞)

[형태] 마을

[위치] 팔미2리마을회관(쉼터)에서 팔미3리마을회관을 오가려면 그 한 가운데 산속 마을 길을 지나야 한다. 그 산속 마을이 작은설미(소선동)이다.

[유래] 『조선지지자료』에 팔미리 소재 마을이름으로 ‘小仙舞洞(져근설밀)’이 기재되어 있다. 『춘천의 지명유래』에 “소선동(小仙洞)이라고도 부른다.”라 하였다.

[어원풀이] ‘작은[小]+설(설[神聖]+미)/매/뫼[山]’로 분석할 수 있다.

● 정희공묘

[형태] 무덤

[위치] 청풍김씨 김석연의 묘로 증리에 있던 것을 옮겨왔다 한다.

[유래] 정의공(貞懿公) 김석연(金錫衍, 1648~1723)은 본관은 청풍(淸風), 자는 여백(汝伯), 아버지는 영돈녕부사(領敦寧府事) 김우명(金佑明)이며, 현종비 명성왕후(明聖王后)의 동생이다. 1689년 기사환국으로 관직에서 추방당하였다가 1694년 갑술옥사로 다시 기용되어 1697년 공조참판이 되었다. 한성부 우윤을 거쳐 1700년에 강화유수, 1704년에 어영대장, 1709년에 형조판서 등을 역임하였다. 송록대부에 추증되었고, 시호는 정희(貞僖)이다.

● 작은설미피난굴

[별칭] 굴바우

[형태] 동굴



작은설미피난굴

● 지락골

[형태] 골짜기

[위치] 『한국지명총람』에 병막골 옆에 있는 골짜기라 하였다.

[어원풀이] ‘지락/지랏/지라+ㅅ+골[谷]’로 분석된다. ‘지락’의 의미는 불분명한데 백제계 지명 ‘지라(支羅)’일 수 있다.

● 진새미구령

[형태] 골짜기

[위치] 미상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기다랗게 생긴 골짜기라

하였다.

[어원풀이] ‘진/긴[長]+샘[泉]+이(파생접미사)+구렁(움푹 패인 지형)’으로 분석할 수 있다.

● 청룡잣부리(靑龍-) (1)

[별칭] 청룡갓부리

[형태] 산

[위치] 미상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팔미의 청룡 쪽이 되는 산이라 하였다.

[어원풀이] ‘청룡(靑龍)+재[峙]+ㅅ+부리[山]’로 분석할 수 있다. 지명접미사 ‘부리’는 백제어 ‘夫里’로 이어지고, 고구려어 ‘흘(忽)’과 신라어 ‘불(火)’에도 연결된다. 어원 ‘ㅂ-ㄹ(p-l)’로 재구(再構)된다. 여기서 ‘-부리’는 ‘마을, 산, 모롱이’ 등을 가리킨다.

● 춘천시환경자원사업소 (2)

[별칭] 춘천시생활폐기물처리장. 생활폐기물처리장

[형태] 건물

[위치] 한치고개에서 시작된 한 가닥 물줄기는 협동2리에 위치한 생활폐기물처리장(춘천시환경자원사업소) 앞을 흘러 팔미천에 합수한다.

[유래] 춘천의 온갖 생활쓰레기들을 모아서 매립하는 시설이다.

● 충무골 (3)

[형태] 골짜기

[위치] 팔미2리마을회관(쉼터) 북쪽 300m쯤에 있다. 신동면 팔미리 636번지 일대이다.

[어원풀이] ‘충무(忠武)+골[谷]’로 분석할 수 있다.

● 치마바우골 (4)

[형태] 골짜기

[위치] 벌기골과 뜻골 사이에 있는 골짜기이다.

[유래] 『신동면지리지』에 “큰설밀에 있는 골짜기이다. 바위가 치마를 벌려놓은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라 하였다.

[어원풀이] ‘치마+바우/바위[岩]+골[谷]’로 분석된다.

● 칙미리고개 (5)

[형태] 고개

[위치] 『신동면지리지』에 “큰설미에서 깨길로 가다가 왼쪽에 있는 고개이다. 예전에 산판으로 나 있는 길이었는데 지금에 와서 포장이 되어 있다.”라 하였다.

[어원풀이] ‘칙/칡[葛]+미리/모리/몰[山 모퉁이]+고개[峴]’로 분석할 수 있다.

● 큰깨낄 (6)

[형태] 마을

[위치] 작은깨낄 맞은편에 있다.

[유래] 『신동면지리지』에 “작은깨낄보다 인기가 많다. 주로 토박이보다 새로 이사 온 외지인이 많다.”라 하였다.

[어원풀이] ‘큰[大]+깨낄’로 분석된다. ‘깨낄’ 참조.

● 큰설미 (7)

[별칭] 설미, 대선동(大仙洞), 큰설밀, 대선무동(大仙洞)

[형태] 마을

[위치] 팔미2리마을회관(쉼터) 마을이 ‘설미(마을)’이며 ‘큰설미(대선동)’이다. 큰설미고개를 넘어가면 ‘깨낄(마을)’이다.

[유래] 『조선지지자료』에 팔미리 소재 마을이름으로 ‘大仙舞洞(큰설밀)’이 기재되어 있다. 『춘천의지명유래』에 “설미의 큰 마을. 대선동(大仙洞)이라고

도 부른다.”라 하였다.

[어원풀이] ‘큰[大]+설〈술[神聖]+미/매/뫼[山]’로 분석할 수 있다.

● 큰설미화채간

[형태] 건물

[위치] 작은설미에서 큰설미를 넘어가면 고개 바로 밑 도로 계곡

[어원풀이] ‘큰[大]+설〈술[神聖]+미/매/뫼[山]+화채[喪輿]+간(間)’으로 분석할 수 있다. ‘화채’는 ‘상여(喪輿)’의 비표준어이다.

[어원풀이] ‘횡/환(환히 보이다)+골[谷]’로 분석할 수 있다. 지명에서 흔하게 음절말 ‘-ㄴ’은 ‘ㅇ’으로 변음(變音)되며, 그 지명 의미를 높힌 한자표기로 ‘환골>황골’에서 ‘황골[黃谷]’이 되었다. 전국 대부분의 ‘횡골[黃谷]’은 ‘한[大]+골[谷]’에서 ‘환골’이나 ‘횡골’로 전의(轉義)된 경우가 흔하다.

● 평풍바우

[형태] 바위

[위치] 미상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병풍처럼 생긴 바위라 하였다.

[어원풀이] ‘평풍/병풍(屏風)+바우/바위[岩]’로 분석된다.

● 한골개울

[형태] 하천

[위치] 『한국지명총람』에 혈동리의 한골에서 내려오는 내[川]라 하였다.

● 황골

[별칭] 환골, 황곡(黃谷)

[형태] 골짜기

[위치] 『신동면지리지』에 “치마바우골로 좀더 들어가면 나오는 골짜기인데 마주 보인다고 해서 황골이라 붙여졌다.”라 하였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큰설미에 있는 골짜기라 하였다.

위치와 현황 | 동쪽으로 한골천이 흐르고, 북쪽으로 북한강이 흐른다. 대체적으로 낮은 구릉지역으로 농촌마을이다. 자연마을로는 오봉(五峰), 덕만이(德蠻里), 한골 등이 있다.

연혁 | 『조선지지자료』는 남내이작면(南內二作面)의 혈동리(穴洞里)로 표기하였다. 『강원도 지지조서』와 『강원도지』는 신남면(新南面) 혈동리(穴洞里)로, 『수춘지』는 신동면(新東面) 혈동리(穴洞里)로 표기하였다. 『춘주지』와 『춘천백년사』는 신동면(新東面) 혈동1리, 혈동2리로 표기하였다. 현재 행정리는 혈동리이고 법정리는 혈동1리, 혈동2리다.

유래 | 설꼴 또는 혈동이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덕만리, 오봉리, 한골을 병합하여 혈동리라 하여 신동면에 편입하였다.

● 가림봉골

[형태] 골짜기

[위치] 미상이다.

[어원풀이] ‘가림/가림배/가르마+봉(峰)+골[谷]’로 분석할 수 있다. ‘가림배’는 ‘가르마’의 강원 방언이고, ‘가림’은 ‘가르마’의 함경 방언이다. ‘가르마’는 이마에서 정수리까지의 머리카락을 양쪽으로 갈랐을 때 생기는 금이다. ‘가림봉’은 전국에 상당 수가 있다.

● 가메산

[별칭] 가매산, 가마가리산

[형태] 산

[위치] 협동2리 북단에 있으며, 남춘천 CC 북쪽이다. 아래에 ‘갈매기골’이 있다.

[유래] 『신동면지리지』에 “옛날 홍수 때 산꼭대기가 가마만큼 남았다 해서 이름 붙여진 산이다.”라 하였다.

[어원풀이] ‘가메/가매/가마[輩]+산(山)’으로 분석된다. 별칭 ‘가마가리산’에서 ‘가리산’의 ‘가리’는 ‘노적가리’를 뜻하며, 두 암봉이 여성성을 상징하여 ‘풍요, 다산의 신성성’을 가지는 산이다. 그러므로 ‘가메산/가매산’은 신성시되는 산의 의미를 가진 ‘감악산/가막산’과의 연관성을 배제할 수 없다.

● 갈골

[별칭] 갈동(葛洞)

[형태] 마을

[위치] 『조선지지자료』에 협동리 소재 마을이름으로 ‘葛洞(갈縠)’이 기재되어 있다.

[어원풀이] ‘갈(葛)+골[洞]’로 분석된다. 풀[葛]이 많은 골짜기이다.

● 갈매기골

[별칭] 갈미봉골

[형태] 골짜기

[위치] 골프장 ‘남춘천CC’ 북쪽 끝자락에 있으며, ‘한치로’ 동쪽 옆이다. 지금은 ‘남춘천CC’에 흡수된 예전 ‘논골’ 위에 있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고깔처럼 생긴 봉우리 밑에 있는 골짜기라 하였다. 예전 ‘갈미봉골’을 요즘은 ‘갈매기골’이라 부른다.

[어원풀이] ‘갈[고깔>갈]+매기/뫼기/뫼[山]+봉(峰)+골[谷]’로 분석할 수 있다.

● 구성골

[형태] 골짜기

[위치] 협동2리마을회관 오른쪽에 있으며, ‘구성골’ 옆에 ‘안산골’이 있다.

[유래] 『신동면지리지』에 “구성골 아래 구성말에는 약 대여섯 집이 살고 있다.”라 하였다.

[어원풀이] ‘구성[구유]+골[谷]’로 분석할 수 있다. ‘구성’은 ‘구유’의 강원 방언이다. ‘구유’는 소나 말 따위의 가축들에게 먹이를 담아 주는 그릇으로, 흔히 큰 나무토막이나 큰 돌을 길쭉하게 파내어 만든다.

● 굴바우

[별칭] 굴암(窟岩)

[형태] 바위

[위치] 오봉마을로 가는 길 옆, 오봉폭포 200m 전에 있는 산에 있다. 『춘주지』에 “신동면 협동(穴洞) 오봉리(五峰里) 안산(案山) 절정(絕頂)에 있다.”라 하였다.

[유래] 협동리의 유래가 되는 바위굴로, 입구는 좁아 기어서 들어가야 하지만 그 안은 넓어서 백여

명을 수용할 수 있고 샘물도 있다. 한국전쟁 때 마을사람들이 피난하던 장소라고 한다.

[어원풀이] ‘굴(窟)+바우/바위[岩]’로 분석된다.

[위치] 『춘천의지명유래』에 혈동2리에 있는 골짜기라 하였다. 현재는 골프장 ‘남춘천CC’로 흡수되었다. ‘능골’ 뒤쪽에 ‘뒤돌(바위)’가 있다.

[어원풀이] ‘능(陵)+골[谷]’로 분석할 수 있다.

● 길연수원

[별칭] 혈동초등학교터

[형태] 건물

[위치] 신동면 혈동고개길 180-5. 신동면 혈동리 175-1번지. 예전 혈동초등학교 자리이다. 혈동1리마을회관 바로 옆에 있다.

[유래] 『신동면지리지』에 “처음에는 체험농장으로 개원되었으나 나중에 혈동1리 마을사람들의 관리 하에 외지인들에게 숙박할 수 있는 상태로 바뀌어 운영되고 있다.”라 하였다.

● 담박골

[형태] 골짜기

[위치] 『신동면지리지』에 “혈동2리에 있다. 이곳에서 농농사를 지었다.”라 하였다. 현재는 골프장 ‘남춘천CC’로 흡수되었다.

[어원풀이] ‘담(畠)+박/밭[田]+골[洞]’로 분석할 수 있다.

● 까치봉

[형태] 산

[위치] 혈동1리와 혈동2리를 이어주는 ‘혈동고개’에서 제일 높은 산이다.

[유래] 『신동면지리지』에 “혈동리에서 보이는 산 중 가장 높은 산이다. 한치골과 연결된다.”라 하였다.

[어원풀이] ‘까치[鶲]+봉(峰)’으로 분석된다.

● 덕만이

[별칭] 둉마니, 둉만이, 덕만골, 덕마니골, 덕만리(德蠻里)

[형태] 마을

[위치] 『춘천의 지명유래』에 “혈동리의 남쪽 끝에 있는 마을. 둉마니에서 신동면 군자리 두뭇골로 넘어가는 고개는 둉마니고개라 한다. 김유정의 소설에도 둉마니가 나온다.”라 하였다.

[어원풀이] ‘덕만(德蠻, 사람 이름)+[-이](호객조사)’로 분석할 수 있다. 또는 둔덕 안쪽의 마을이란 의미도 가능하다.

● 논골

[별칭] 담동(畜洞)

[형태] 마을

[위치] 『조선지지자료』에 갈동 소재 마을이름으로 ‘畜洞(논골)’이 기재되어 있다. 현재는 골프장 ‘남춘천CC’로 흡수되었다.

[어원풀이] ‘논[畜]+골[洞]’로 분석된다.

● 된봉산

[별칭] 된봉

[형태] 산

[위치] 혈동1리에서 제일 높은 400m 고지 산으로, 혈동1리마을회관 남동쪽에 있다.

[어원풀이] ‘{되}-’(일이 힘에 벅차다)+{-ㄴ}(관형사형어 미)+봉(峰)+산(山)’으로 분석된다.

● 능골

[형태] 골짜기

● 두무골

[별칭] 두무동(杜武洞)

[형태] 마을

[위치] 지금은 군자리 소재이다. ‘더플레이어스CC’와 ‘베어클리크춘천’ 두 골프장 사이로, ‘베어클리크춘천’에 아주 가까이 있다. 서울양양고속도로 남춘천IC에서 ‘군들’이 있는 도로지명 새술막길로 한참을 올라가 ‘베어클리크춘천’ 동쪽 부근 골짜기로 들어서면 그곳이 ‘두무골’이다.

[유래] 『조선지지자료』에 갈동 소재 마을이름으로 ‘杜武洞(두무골)’이 기재되어 있다.

[어원풀이] ‘두무/두메+골[洞]’로 분석할 수 있다. ‘두무’의 한자 표기 ‘杜武’는 음차표기에 가깝다. 두메산골의 방언형 ‘두무산골’을 참조할 수 있다. ‘두무’는 ‘두메’의 방언형이다.

● 뒤틀

[형태] 바위

[위치] 『신동면지리지』에 “혈동2리에 있다. 능골 뒤쪽으로 있다.”라 하였다. 현재는 골프장 ‘남춘천CC’로 흡수되었다.

[어원풀이] ‘뒤[後]+돌[石]’로 분석할 수 있다. ‘능골’ 뒤쪽에 있는 돌(바위)이다.

● 매봉산

[형태] 산

[위치] 가매골, 즉 가매산 맞은편에 있는 산이다. 혈동2리에 있다.

[어원풀이] ‘매[鷹]+봉(峰)+산(山)’으로 분석된다.

● 며느리바우

[별칭] 며늘바우

[형태] 바위

[위치] 덕만이마을에서 오봉마을로 가는 큰 길가에 있다.

[어원풀이] ‘며느리[子婦]+바우/바위[岩]’로 분석된다.

[유래답] 옛날 시누이가 힘이 세어 돌을 쌓아 힘자랑을 했다. 그런데 돌을 쌓다가 마지막 하나만 쌓으면 완성이 되는데 도저히 돌을 들어 얹을 수가 없었다. 그때 그 집의 며느리(울개)가 그 돌을 번쩍 들어서 얹었다. 그래서 며느리바위라 불렸다. 『신동면지리지』

● 문지방골

[별칭] 문찌방골

[형태] 골짜기

[위치] 미상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문지방처럼 생긴 바위가 있는 골짜기라 하였다.

[어원풀이] ‘문지방(門地坊)+골[谷]’로 분석된다. ‘문지방(門地坊)’은 출입문 밑의, 두 문설주 사이에 마련보다 조금 높게 가로로 댄 나무를 가리킨다.

● 바랑골

[별칭] 바랭이골

[형태] 골짜기

[위치] 혈동리 마을이 끝나는 곳에 골프장 ‘베어클리크춘천’이 들어서 있다. 골프장을 지나 올라가면 산 계곡에 있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바랭이풀이 많은 골짜기라 하였다.

[어원풀이] ‘바랑(바랭이풀)+골[谷]’로 분석된다. ‘바랭이/바랭이’는 벚과에 속한 한해살이풀로서, 길가나밭에서 흔히 자라는 잡초이다. 『조선지지자료』에 ‘바른고개’가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미루어 곧

게 뻗은 골짜기란 의미의 ‘바른골’의 와전으로 불여지도 있다.

● 바른고개

[형태] 고개

[위치] 미상이다.

[유래] 『조선지지자료』에 혈동리 소재 고개이름으로 ‘正峴(발은고기)’이 기재되어 있다.

[어원풀이] ‘바른[直, 正]+고개[峴]’로 분석된다.

● 바일고개

[별칭] 방곡치(芳谷峙)

[형태] 고개

[위치] 『조선지지자료』에 혈동리 소재 고개이름으로 ‘芳谷峙(바일고개)’가 기재되어 있다.

[어원풀이] ‘바일+고개[峙]’로 분석할 수 있다. 남산면 방곡리를 ‘바일’이라고도 한다. 별칭의 한자 표기 ‘芳谷’은 ‘꽃향 나는 골짜기’이니 ‘바일/방일/방’ 어디와도 연관짓기 어렵다. ‘바일’의 자음 ‘ㅂ’과 ‘ㄹ’에서 ‘방울(鈴)’을 유추할 수 있다.

● 배나뭇골

[별칭] 배나무골

[형태] 골짜기

[위치] 골프장 ‘남춘천CC’ 북쪽 끝자락과 ‘춘천시 환경공원(혈동리쓰레기매립장)’ 사이에 있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배나무가 있던 골짜기라 하였다.

[어원풀이] ‘배나무[梨]+골[谷]’로 분석된다. 산배나무가 많은 골짜기란 의미이다.

● 베드롱골

[형태] 골짜기

[위치] 『한국지명총람』에 설꼴에 있는 작은 산골짜기라 하였다.

[어원풀이] ‘베드롱/벼들(벼드나무)+옹/옹(파생접미사)+골[谷]’로 분석된다.

● 범데깃골

[형태] 골짜기

[위치] ‘설골’과 ‘아랫설골’ 사이에 있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설꼴에 있는 작은 산골짜기라 하였다.

[어원풀이] ‘번데기+ㅅ+골[谷]’로 분석된다.

● 사금마골

[형태] 골짜기

[위치] 골프장 ‘남춘천CC’와 혈동2리마을회관 사이에 있다. ‘사금마골’ 맞은편 서쪽에 ‘진골’이 있다.

[어원풀이] ‘사금마(사금파리)+골[谷]’로 분석된다. ‘사금마’는 ‘사금딱지’와 더불어 ‘사금파리’의 방언형이다. ‘사금파리’는 사기그릇의 깨어진 작은 조각이다.

● 상생이

[별칭] 상새이

[형태] 골짜기

[위치] 『한국지명총람』에 설꼴 위에 있는 작은 골짜기라 하였다. 신동면 증리와 접한다.

[어원풀이] ‘상(上)+생/쟁/증(甑)+이(파생접미사)’로 분석할 수 있다.

● 새고개

[형태] 고개

[위치] ‘덕만이고개(덕만터널)’에서 신동면 증4리

‘삼포’ 쪽 중간쯤에 있다. 중4리 금병산 남쪽 능선에 있는 ‘새고개’와 다른 고개이다.
[어원풀이] ‘새[鳥]+고개[峴]’로 분석할 수 있다.

● 설골

[별칭] 혈골, 혈동(穴洞), 혈동리(穴洞里)

[형태] 거주

[위치] 덕만이 고개에서 ‘김유정로’를 따라 내려오다가 ‘덕만이사거리’에서 400m쯤 골프장 베어크리크GC 맞은편에 있다. ‘아래설골’은 혈동1리마을회관 남쪽 가까이에 있고, ‘윗설골’은 혈동1리마을회관 서쪽 가까이에 있다. 혈동1리는 곧 ‘설골(혈동리)’이다.

[유래] 『조선지지자료』에 혈동리 소재 마을이름으로 ‘穴洞里(혈골)’가 기재되어 있다. 요즘은 ‘설골’이라 한다. ‘혈동리’의 배경이 되는 지명이다.

[어원풀이] ‘설/혈(穴)+골[谷, 洞]’로 분석된다. ‘혈골’이 ‘설골’로 변이됨은 ‘혀>서/세’, ‘형님>성님’이 되는 것과 같다.(구개음화현상)



혈동리 동굴

● 세거현

[형태] 고개

[위치] 미상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세거리로 가는 고개라 하

였다.

[어원풀이] ‘세[三]+거[거리, 街]+현(峴)’으로 분석된다.

● 아래설골

[형태] 마을

[위치] 본마을 혈동의 아래 동네.

[어원풀이] ‘아래[下]+설골[혈골, 穴洞]’로 분석된다. ‘설골’ 참조.

● 안골

[형태] 골짜기

[위치] 골프장 ‘남춘천CC’로 들어가는 ‘오봉길’ 중간쯤에 있다. ‘오봉(마을)’에서 좀더 골프장으로 올라가다 보면 오메가처럼 휘어진 안쪽 골짜기가 ‘안골’이다.

[어원풀이] ‘안[内]+골[谷]’로 분석된다.

● 안산골

[형태] 골짜기

[위치] 혈동2리마을회관 오른쪽에 ‘구성골’이 있으며, 그 옆에 ‘안산골’이 있다.

[어원풀이] ‘안산(秦山)+골[谷]’로 분석된다. 안산(秦山)은 풍수지리에서, 집터나 땅자리의 맞은편에 있는 산을 말한다.

● 안우밀

[별칭] 우밀, 우밀곡(牛密谷)

[형태] 골짜기

[위치] ‘안골’에서 ‘오봉길’ 너머 남쪽에 있으며, 오봉 남쪽 가까이에 있다. 남춘천CC로 들어가는 ‘오봉길’ 중간쯤에서 남쪽으로 난 마을이다. 여기서 7시 방향으로 난 ‘우밀고개(설밀고개)’를 넘어가면

혈동리 본마을인 혈동1리(마을회관)에 이른다. ‘안우밀’ 앞에 ‘오봉(마을)’이 있다. ‘우밀리’와 ‘안우밀’은 납북으로 1km쯤 떨어져 있다. ‘우밀리’는 혈동1리(마을회관) 동쪽 ‘김유정로’ 못 미친 곳에 있으나, 크게 개발되어 옛 모습은 모두 사라졌다.

[유래] 『조선지지자료』에 혈동리 소재 골짜기 이름으로 ‘牛密谷(우밀리)’가 기재되어 있다. 지금은 남춘천CC가 들어서며 ‘오봉길’이 크게 닦아지면서 ‘오봉마을’과 ‘안우밀마을’ 일부만 남아 있다. 한편 혈동1리에서 ‘안우밀’이나 ‘오봉’으로 왕래하던 옛 고갯길인 ‘우밀고개’도 무성한 숲으로 뒤덮혀지며 거의 왕래가 끊어져 있다.

[어원풀이] ‘안[內]+우밀/울밀(鬱密)’로 분석할 수 있다. ‘우밀’은 ‘울밀’에서 ‘ㄹ’이 탈락했다. ‘울밀(鬱密)’은 나무 따위가 무성하게 우거져 빽빽한 모습이다. ‘우밀’의 한자 표기 ‘牛密’은 음차자(音借字)이다.

● 약물골

[별칭] 약물골, 양모골, 약수골

[형태] 골짜기

[위치] 골프장 ‘남춘천CC’ 북쪽 끝자락과 ‘춘천시 환경공원(혈동리쓰레기매립장)’ 사이에 있으며, ‘춘천시환경공원(혈동리쓰레기매립장)’ 입구에 있는 골짜기가 ‘약물골’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약물샘이 있는 골짜기라 하였다. 요즘은 ‘약물골’로 부른다. 그 안쪽은 크게 개간되어 넓은 밭이 잘 정비되어 있다.

[어원풀이] ‘약물[藥水]+ㅅ+골[谷]’로 분석된다.

● 양지말

[형태] 마을

[위치] 혈동2리마을회관 남쪽 마을이다.

[어원풀이] ‘양지(陽地)+말/마을[村]’로 분석된다.

● 억파비골

[형태] 골짜기

[위치] 덕만이터널, 덕만이고개에서 춘천 방향 ‘김유정로’와 혈동리 ‘오봉길’이 교차하는 남쪽 사이에 있다. ‘유정폭포’라는 음식점 바로 뒤에 있다.

[어원풀이] ‘억파비+골[谷]’로 분석된다. ‘억파비’의 의미는 불분명하다.

● 오봉(五峯)

[별칭] 오봉이, 오봉이, 오봉마을

[형태] 마을

[위치] 팔미리에서 덕만이고개를 넘어가다가 혈동1리 못 미쳐 ‘혈동3거리’에서 서편으로 들어가 도로지명 ‘오봉길’을 따라가면 작은 오봉길이 여럿 나 있는 곳에 이른다. 이곳이 오봉이다. 계속 따라 재를 넘으면 골프장 남춘천CC에 이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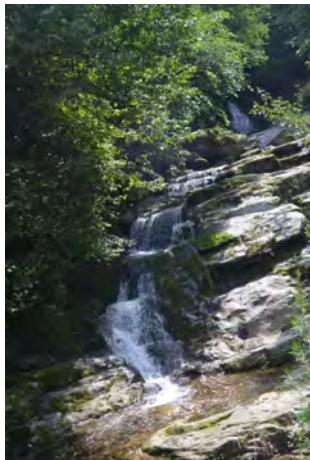
[유래] 『조선지지자료』에 혈동리 소재 산 이름으로 ‘五峯山(오봉산)’이 기재되어 있다. 『한국지명총람』에 설골 동북쪽 산 너머에 있는 마을이라 하였다.

[어원풀이] ‘오(五)+봉(峰)’으로 분석된다.

● 오봉폭포(五峯瀑布)

[형태] 폭포

[위치] 오봉마을로 올라가는 입구에 있는 폭포이다.



오봉폭포

● 올케바우

[별칭] 올게바우, 올개바우, 머느리바위

[형태] 바위

[위치] 김유정로 주변, 동서산업 쪽에 있는 바위이다.

[유래] 가마니를 층층이 쌓은 듯한 모양이다.

[어원풀이] ‘올케’(오빠의 아내를 이르는 말)+바우/바위[岩]로 분석된다. 누구도 들지 못하던 바위를 주변 집안의 ‘올케가 들어올렸다’ 하여 그리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 우밀고개

[형태] 고개

[위치] ‘오봉(마을)과 ‘안우밀’에서 ‘우밀고개(설밀고개)’를 넘어가면 혈동리 본마을인 혈동1리(마을회관)에 이른다. ‘안우밀’ 앞에 ‘오봉(마을)’이 있다. ‘우밀리’와 ‘안우밀’은 남북으로 1km쯤 떨어져 있다. ‘우밀리’는 혈동1리(마을회관) 동쪽 ‘김유정로’ 못 미친 곳에 있으나, 크게 개발되어 옛 모습은 모두 사라졌다.

[유래] 혈동1리에서 ‘안우밀’이나 ‘오봉’으로 왕래 하던 옛 고갯길인 ‘우밀고개’는 무성한 숲으로 뒤덮혀지며 거의 왕래가 끊어져 있다.

● 우석골

[형태] 골짜기

[위치] 혈동1리마을회관 남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그 아래에 ‘아랫우석골’도 있다.

[어원풀이] ‘우석[구석의 옛말]+골[谷]’로 분석할 수 있다.

● 윗설골

[별칭] 우설골, 혈동1리

[형태] 마을

[위치] 본마을 혈골의 윗마을. 혈동1리마을회관 서쪽 가까이에 있다.

[어원풀이] ‘위[上]+ㅅ+설골[혈골, 穴洞]’로 분석된다. ‘혈골’이 구개음화 현상에 의해 ‘설골’로 변이되었다.

● 이후진효자정문

[형태] 고적

[위치] 혈동1리에서 가장 높은 산인 400m 고지 된 봉산 북쪽 산기슭에 있다.

[유래] 조선 중기의 문신인 이후진(1670~1733)의 효행을 기리기 위해 세운 정려문이다. 영조 임금 때 정려문이 내려졌다고 전한다.



이후진 정려비



이후진 정려문

● 자라바우

[별칭] 자래바우

[형태] 바위

[위치] 구성골 밑에 있는 바위이다. ‘구성골’은 혈동 2리마을회관 오른쪽에 있으며, ‘구성골’ 옆에 ‘안산골’이 있다.

[어원풀이] ‘자라[鼈]+바우/바위[岩]’로 분석된다.

● 장군봉(將軍峰)

[형태] 산

[위치] 『조선지지자료』에 혈동리 소재 산 이름으로 ‘將軍峰(장군봉)’이 기재되어 있다. 동산면 군자리 ‘갈골(갈동)’에 ‘장군봉’이 있다. 군자리 ‘갈골(갈동)’은 골프장 더플레이어스CC에 흡수되었다.

● 재가터골

[형태] 골짜기

[위치] 혈동1리마을회관 북쪽 가까이에 있다.

[유래] 『춘천의지명유래』에 혈동1리에 있는 골짜기라 하였다.

[어원풀이] ‘재[基]와, 瓦]+가(家)+터[垈]+골[谷]’로 분석할 수 있다.

● 재취(才取)

[별칭] 재취리(才取里), 재취동

[형태] 마을

[위치] 『조선지지자료』에 갈동 소재 마을이름으로 ‘才取里(지취)’가 기재되어 있다. ‘갈동’은 혈동리 남단으로, 동산면 군자리 ‘두뭇골’ 가까이에 있다.

[어원풀이] ‘재취’의 한자 표기 ‘才取’는 음차표기이며, 그 어의가 ‘再娶’인지 애매하다.

● 정지골

[별칭] 우물정자

[형태] 골짜기

[위치] 혈동2리에 있는 골짜기이다.

[유래] 『신동면지리지』에 “우물정자라 해서 정지골 이라 불렸다. 산에서 물이 내려오는 골짜기이다.”라 하였다.

[어원풀이] ‘정(井)+지(地)+골[谷]’로 분석할 수 있다.

● 조고리골

[별칭] 저고리골

[형태] 골짜기

[위치] 골프장 ‘남춘천CC’ 서쪽 입구 쪽 앞에 있다. 그 바로 남쪽에 ‘진골’이 있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저고리처럼 생겼다는 골짜기라 하였다.

[어원풀이] ‘조고리/저고리+골[谷]’로 분석된다. ‘저고리’는 윗옷의 하나로서, 길, 소매, 쇳, 깃, 동정, 고름, 끝동, 회장 따위가 갖추어져 있다. 겹저고리와 핫저고리가 있다.

● 주막거리

[형태] 마을

[위치] 지금의 혈동2리마을회관 자리였다. 요즘 ‘주

막거리’란 상호로 새로 음식점을 열었는데, 그 장소는 예전 ‘주막거리’ 장소였던 협동2리마을회관 자리에서 ‘한치로’ 큰길가로 옮겨 자리잡았다.

[유래] 『신동면지리지』에 “옛날에 협동리에 유일하게 있던 주막거리이다. 광판리, 어유포리 사람들이 소를 팔러 춘천으로 가기 위해 이곳을 지나갔다. 주막은 하나였고 일제강점기에 나무를 실은 마차가 수십 대 지나갈 정도로 많은 사람이 오가는 곳이었다.”라 하였다.

[어원풀이] ‘주막(酒幕)+거리[路]’로 분석된다.

● 진골

[형태] 골짜기

[위치] 협동2리마을회관으로 들어오기 전 ‘한치로’ 가에 개점한 ‘주막거리’ 근처에 있다. 골프장 ‘남춘천CC’와 협동2리마을회관 사이에 ‘사금마골’이 있고, 그 맞은편 서쪽에 ‘진골’이 있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길게 생긴 골짜기라 하였다.

[어원풀이] ‘진/긴[長]+골[谷]’로 분석된다.

● 춘천평화의집

[별칭] 지적장애인거주시설

[형태] 건물

[위치] 협동2리에서 협동1리 넘어가는 ‘협동고개’를 800m쯤 올라가다가 남서쪽 고갯길로 꺾어 300m남짓 가면 ‘춘천평화의집’이 있다. 계속 넘어 가면 남면 수동리로 가는 ‘나가짓고개’에 이른다. 춘천시 협동고개길 359-27번지이다.

[유래]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장애인 복지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장애인과 비장애인 더불어 함께 살아가기 위한 교육, 의료, 생활서비스 등을 지원하여 장애인 개인의 사회통합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을 목적으로 2007년 1월 5일 설립하였다.

● 탑골고개

[별칭] 탑동치(塔洞峙)

[형태] 고개

[위치] 덕만이고개, 골프장 베어크리크GC 남단쯤에 있다.

[유래] 『조선지지자료』에 협동리 소재 고개이름으로 ‘塔洞峙(탑골고개)’가 기재되어 있다.

[어원풀이] ‘탑(塔)+골[洞]+고개[峙]’로 분석된다.

● 토목골

[별칭] 토목동(土木洞)

[형태] 골짜기

[위치] 협동리 남서쪽으로, 남면 수동리 경계에서 긴 골짜기 상류에 있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남면 수동리와의 경계에 있는 골짜기라 하였고, 『신동면지리지』에 흙이 많고 나무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하였다. 『지명정비용역보고서』에는 “일제강점기 지도에 ‘土木洞’이 표기되어 있다. ‘토목골’은 ‘텃골’의 오기라고 증언하는 주민도 있다. ‘봉에터골[鳩垈谷]’을 ‘텃골’이라고도 하는 바, 위치상 충분한 가능성성이 있다.”라 하였다.

[어원풀이] ‘토목(土木)+골[洞]’로 분석된다.

● 한치골

[별칭] 한골, 한곡(汗谷)

[형태] 골짜기

[위치] 협동2리마을회관 앞 ‘한치로’를 따라 200m 남짓 남서진하는 곳에 있다.

[유래] 『조선지지자료』에 협동리 소재 골짜기 이름으로 ‘汗谷(한골)’이 기재되어 있다. 『한국지명총람』에 설풀 서북쪽에 있는 마을이라 하였다. 요즘은 ‘한치골’로 더 불린다. ‘한치로’와 ‘한치고개’가

있다.

[어원풀이] ‘한[大]+치(峙)+골[谷]’로 분석된다. 별칭 ‘한골’의 한자 표기 ‘汗谷’의 ‘汗’은 음차자(音借字)이고, ‘치(峙)’는 ‘고개’이다. ‘한숨, 한발, 한길, 한강’의 고유어 ‘한’임을 알 수 있듯이 ‘한곡, 한골’은 ‘대곡(大谷), 대촌(大村)’이다.

● 한치고개

[별칭] 한골고개, 한치현(寒峙峴)

[형태] 고개

[위치] 협동2리마을회관 앞 한치로를 따라 남면 수동리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유래] 『조선지지자료』에 협동리 소재 고개이름으로 ‘汗峙(한골고개)’가 기재되어 있다. 『한국지명총람』에 한꼴에서 남면 수동리로 가는 고개라 하였다.

[어원풀이] ‘한[大]+치(峙)+고개[峴]’로 분석된다. ‘한치골’ 참조. ‘-치고개[峙峴]’는 ‘역전앞’, ‘처갓집’처럼 ‘치[고개 峴]+고개’가 중첩되었다.

● 협동고개

[별칭] 협골고개

[형태] 고개

[위치] 협동1리와 협동2리를 오고가는 고갯길이다. ‘협동고개’는 협동2리에서 협동1리로 넘어가는 고개와, 협동2리에서 (중간에서) ‘나가짓고개’로 가는 고개로 갈라진다.

[유래] ‘협동고개’를 중심으로 남쪽 협동1리와 북쪽 협동2리로 나누어진다.

[어원풀이] ‘혈(穴)+동(洞)+고개[峴]’로 분석된다.

● 협동리느티나무

[형태] 고목

[위치] 협동2리마을회관이 옆에 있다.

[유래] 나무둘레 3.6m, 나무높이 26m, 수령이 거의 250년이 된 정자목으로, 1982년 춘천시 지정 나무(고유번호. 강원-춘천-16)가 되었다.



협동리 느티나무

● 호통골

[형태] 골짜기

[위치] 골프장 베어크리크GC 부근에 있다.

[어원풀이] ‘호통+골[谷]’로 분석할 수 있다. ‘호통’의 의미는 불분명하다. 유사 지명 ‘호턱골’은 ‘호(虎)+터[垈]+ㅅ+골[谷]’로 분석된다.

● 휴대곡(鶴垈谷)

[별칭] 봉에턱골

[형태] 골짜기

[위치] 협동1리마을회관에서 7시 방향 남쪽 1.5km 쯤에 있다. 계속 가면 동촌로에 닿는다.

[어원풀이] ‘휴(鶴)+대(垈)+곡(谷)’으로 분석된다. 그 고유지명인 ‘봉에턱골’은 ‘봉에/부엉이[鶴]+터[垈]+ㅅ+골[谷]’로 분석된다. ‘봉에’는 ‘부엉이’의 방언형(축약)이다. 유사 지명 ‘호턱골’은 ‘호(虎)+터[垈]+ㅅ+골[谷]’로 분석된다.

춘천지명사전 | 하

동산면 · 북산면 · 사북면 · 서면 · 신동면

발행일 2023년 3월 30일

발행인 권은석

편찬기획 춘천문화원 춘천학연구소

주소 강원도 춘천시 퇴계농공로 40

전화 033-254-5105

[www.cccc.or.kr](#)

편집디자인 여름출판사

춘천지명사전 | 하

비매품/무료



0 5 0 9 0

9 791192 171890

ISBN 979-11-92171-89-0 (05090)
ISBN 979-11-92171-78-4 (세트)